



2021.12.31.

국회미래연구원 | 연구보고서 | 21-22호

#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1차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

허종호, 민보경, 이채정,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1차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

## 연구진

### 내부연구진

허종호 부연구위원(연구책임)

민보경 부연구위원

이채정 부연구위원

이상직 부연구위원

-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 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발 | 간 | 사

행복은 고대로부터 철학적 관심이었습니다. 저명한 행복 심리학자인 Ed Diener는 1984년 측정 가능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소개하면서 행복은 측정 가능하고 경험적 연구가 가능한 개념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용어가 제목에 포함된 논문이 일 년에 약 2천여 편이 국제 학술지에 출판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과 국제기구들은 이 점을 미리 인지하여 각종 데이터 축적과 연구를 앞서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주관적 안녕감을 각종 설문에 담기는 했으나 OECD가 제시한 문항과 비교가능성 있는 타당성과 신뢰도가 검증된 문항을 충분히 실행하고,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 결정요인 분석이 가능한 연구는 단연 <한국인의 행복조사>밖에 없습니다.

이런 유일무이한 조사를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수행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21년에 1차년도 본조사를 수행하였고,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기초 분석 결과를 본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2020년에 실시된 예비조사의 미흡함을 보완하고, 자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국 8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된 귀한 자료입니다.

이를 통하여 국회가 국민의 행복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행복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회미래연구원이 향후 행복연구의 허브가 되어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근거 중심의 정책과 입법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2021년 12월  
국회미래연구원장 김 현 곤

# 목 차

<b>제1장 조사 설계 및 개요</b> .....	<b>1</b>
제1절 조사 배경 및 개요 .....	3
제2절 인지면접조사 .....	11
제3절 표본설계 및 추정 .....	16
제4절 조사과정 및 표본 특성 .....	34
<b>제2장 행복</b> .....	<b>41</b>
제1절 전반적 행복감 .....	43
제2절 삶의 의미, 성취감, 인생 결정 자유 .....	47
제3절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	57
<b>제3장 정서</b> .....	<b>75</b>
제1절 어제의 감정 .....	77
제2절 어제의 행복감 .....	109
제3절 어제의 미소/웃음 .....	113
<b>제4장 삶의 만족도</b> .....	<b>117</b>
제1절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	119

제2절 5년 전 삶의 만족도 .....	123
제3절 5년 후 삶의 만족도(예상) .....	127
제4절 가족생활 만족도 .....	131
제5절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	136
제6절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	141
제7절 주변 환경 만족도 .....	146
제8절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 .....	171
<b>제5장 개인 및 사회에 대한 인식 .....</b>	<b>177</b>
제1절 사회적 가치관 .....	179
제2절 집단 신뢰도 .....	261
제3절 단체 활동 및 참여 .....	286
제4절 타인에 대한 견해 .....	331
제5절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	344
제6절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경험 .....	356
제7절 개인 성향 .....	364
제8절 시간을 보내는 방식 .....	409

제9절 자유롭게 선택하며 원하는 인생 .....	417
제10절 평등/불평등 인식 .....	421
제11절 현안 및 조세 부담 .....	446
제12절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 .....	463
제13절 지난 한 달간의 감정과 생각 .....	471

## **제6장 일상 재구성 .....** 529

제1절 어제 기상 및 취침 시간 .....	531
제2절 어제 중요한 일(1+2순위) .....	535
제3절 어제 중요한 일(1순위)과 가까운 활동 .....	537
제4절 어제 중요한 일(1순위)을 함께 한 사람 .....	539
제5절 어제 중요한 일(1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	543
제6절 어제 중요한 일(2순위)과 가까운 활동 .....	565
제7절 어제 중요한 일(2순위)을 함께 한 사람 .....	567
제8절 어제 중요한 일(2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	571

<b>제7장 코로나19</b> .....	<b>595</b>
제1절 코로나19 유행 이후 경제활동 변화 .....	597
제2절 코로나19 유행 이후 소득 변화 .....	602
제3절 코로나19 관련 인식 .....	607
제4절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및 향후 접종 의향 .....	648
<b>제8장 결론</b> .....	<b>653</b>
<b>Abstract</b> .....	<b>657</b>
<b>부록: 조사표</b> .....	<b>661</b>

## 표 목 차

[표 1-1] 조사표 구성 및 내용	6
[표 1-2] 조사원 선발 규모	8
[표 1-3] 조사원 교육 일시 및 장소	8
[표 1-4] 조사 수행 단계별 현장조사 지침	9
[표 1-5] 민원 또는 애로사항 대처 방법	10
[표 1-6] 조사 항목	11
[표 1-7] 참가자 특성	13
[표 1-8] 조사 후 기록표	14
[표 1-9] 향후 조사 참여 의향	14
[표 1-10] 주요 문항 응답 결과	15
[표 1-11] 지역별 가구 수에 따른 목표 허용오차	17
[표 1-12] 승인통계 가구방문조사 현황	18
[표 1-13] 지역별 1인 가구 수에 따른 목표 허용오차	19
[표 1-14] 기초수급가구 수에 따른 목표 허용오차	19
[표 1-15] 모집단 현황	21
[표 1-16] 서울, 경기 권역 구분	22
[표 1-17] 모집단 층화 요약	23
[표 1-18] 층별 모집단 집계구 현황	24
[표 1-19] 층별 모집단 가구 현황	25
[표 1-20] 표본크기에 따른 표본오차(95% 신뢰수준)	26
[표 1-21] 표본배분 결과 비교	28
[표 1-22] 표본배분 결과	29
[표 1-23] 표본가구 접촉 결과	35
[표 1-24] 표본가구원 접촉 결과	36
[표 1-25] 조사 참여 경로	37
[표 1-26] 조사표 기입 방법	37
[표 1-27] 가구 방문 횟수	37

[표 1-28] 조사 참여 요일 .....	37
[표 1-29] 조사 이해도 / 조사 협조도 / 답례품 선호도 .....	37
[표 1-30] 표본가구원 특성 .....	38
[표 1-31] 표본가구 특성 .....	40
[표 2-1] 전반적 행복감 .....	44
[표 2-2] 전반적으로 볼 때, 평소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삶에서 의미 있다고 느낀다 ..	49
[표 2-3] 나는 대체로 내가 하는 일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 .....	52
[표 2-4]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롭다 .....	55
[표 2-5]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 .....	59
[표 2-6] 나의 삶의 조건들은 훌륭하다 .....	62
[표 2-7] 나는 나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65
[표 2-8]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했던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 .....	69
[표 2-9]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 해도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	72
[표 3-1] 어제 경험한 정서 - 즐거움 .....	79
[표 3-2] 어제 경험한 정서 - 차분함 .....	82
[표 3-3] 어제 경험한 정서 - 걱정 .....	85
[표 3-4] 어제 경험한 정서 - 슬픔 .....	88
[표 3-5] 어제 경험한 정서 - 우울 .....	91
[표 3-6] 어제 경험한 정서 - 분노 .....	94
[표 3-7] 어제 경험한 정서 - 스트레스 .....	97
[표 3-8] 어제 경험한 정서 - 피곤 .....	101
[표 3-9] 어제 경험한 정서 - 활력 .....	104
[표 3-10] 어제 경험한 정서 - 외로움 .....	107
[표 3-11] 어제의 행복감 .....	111
[표 3-12] 어제의 미소/웃음 .....	115
[표 4-1]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	121
[표 4-2] 5년 전 삶의 만족도 .....	125

[표 4-3] 5년 후 삶의 만족도(예상) .....	129
[표 4-4] 가족생활 만족도 .....	133
[표 4-5] 배우자와 관계 만족도 .....	138
[표 4-6] 자녀와 관계 만족도 .....	143
[표 4-7] 주변 환경 만족도 - 생활수준 .....	148
[표 4-8] 주변 환경 만족도 - 건강 .....	151
[표 4-9] 주변 환경 만족도 - 대인관계 .....	154
[표 4-10] 주변 환경 만족도 - 안전감 .....	157
[표 4-11] 주변 환경 만족도 - 공동체 소속감 .....	160
[표 4-12] 주변 환경 만족도 - 미래의 안전성 .....	163
[표 4-13] 주변 환경 만족도 -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 .....	166
[표 4-14] 주변 환경 만족도 - 동네 환경 .....	169
[표 4-15]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 .....	173
[표 5-1]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 .....	182
[표 5-2]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 : 주관적 인식 .....	184
[표 5-3] 부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다 .....	186
[표 5-4] 부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다 : 주관적 인식 .....	188
[표 5-5] 행복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불행한 사람도 많아진다 .....	190
[표 5-6] 행복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불행한 사람도 많아진다 : 주관적 인식 .....	192
[표 5-7] 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들은 힘든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	194
[표 5-8] 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들은 힘든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 주관적 인식 .....	196
[표 5-9]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	198
[표 5-10]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 주관적 인식 .....	200
[표 5-11]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02
[표 5-12]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주관적 인식 ...	204



[표 5-13] 기업이나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 .....	206
[표 5-14] 기업이나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 : 주관적 인식 .....	208
[표 5-15] 남보다 뒤처진 사람은 제도보다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한다 .....	210
[표 5-16] 남보다 뒤처진 사람은 제도보다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한다 : 주관적 인식 .....	212
[표 5-17] 사회의 중요한 지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적합하다 .....	214
[표 5-18] 사회의 중요한 지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적합하다 : 주관적 인식 .....	216
[표 5-19] 동성애자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데 문제가 없다 .....	218
[표 5-20] 동성애자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데 문제가 없다 : 주관적 인식 .....	220
[표 5-21] 비정규직 종사자와 정규직 종사자는 능력에 차이가 없다 .....	222
[표 5-22] 비정규직 종사자와 정규직 종사자는 능력에 차이가 없다 : 주관적 인식 .....	224
[표 5-23] 여가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일하는 것이 우선이다 .....	226
[표 5-24] 여가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일하는 것이 우선이다 : 주관적 인식 .....	228
[표 5-25] 일을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	230
[표 5-26] 일을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 주관적 인식 .....	232
[표 5-27]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도시 개발보다 중요하다 .....	234
[표 5-28]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도시 개발보다 중요하다 : 주관적 인식 .....	236
[표 5-29]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더라도 환경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	238
[표 5-30]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더라도 환경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 주관적 인식 .....	240
[표 5-31]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더욱 안락하고, 편리하게 할 것이다 .....	242
[표 5-32]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더욱 안락하고, 편리하게 할 것이다 : 주관적 인식 .....	244
[표 5-33] 과학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너무 빨리 변화시킨다 .....	246
[표 5-34] 과학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너무 빨리 변화시킨다 : 주관적 인식 .....	248
[표 5-35] 과학기술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	250
[표 5-36] 과학기술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 주관적 인식 .....	252
[표 5-37] 로봇이 일상적으로 쓰이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	254

[표 5-38] 로봇이 일상적으로 쓰이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 주관적 인식	256
[표 5-39] 로봇은 사람이 못하는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므로 매우 필요하다	258
[표 5-40] 로봇은 사람이 못하는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므로 매우 필요하다 : 주관적 인식	260
[표 5-41] 집단 신뢰도 - 가족(친척 포함)	263
[표 5-42] 집단 신뢰도 - 가족(친척 포함) : 주관적 인식	263
[표 5-43] 집단 신뢰도 - 이웃	267
[표 5-44] 집단 신뢰도 - 이웃 : 주관적 인식	269
[표 5-45] 집단 신뢰도 -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	271
[표 5-46] 집단 신뢰도 -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 : 주관적 인식	273
[표 5-47] 집단 신뢰도 - 처음 만난 낯선 사람	275
[표 5-48] 집단 신뢰도 - 처음 만난 낯선 사람 : 주관적 인식	277
[표 5-49] 집단 신뢰도 - 나와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	279
[표 5-50] 집단 신뢰도 - 나와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 : 주관적 인식	281
[표 5-51] 집단 신뢰도 - 다른 국적의 사람	283
[표 5-52] 집단 신뢰도 - 다른 국적의 사람 : 주관적 인식	285
[표 5-53] 단체 참여도 - 동창회, 향우회, 혹은 종친회	288
[표 5-54] 단체 참여도 - 동창회, 향우회, 혹은 종친회 : 주관적 인식	290
[표 5-55] 단체 참여도 - 동호회, 스포츠 및 취미 단체	292
[표 5-56] 단체 참여도 - 동호회, 스포츠 및 취미 단체 : 주관적 인식	294
[표 5-57] 단체 참여도 -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296
[표 5-58] 단체 참여도 -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주관적 인식	298
[표 5-59] 단체 참여도 - 학부모회 혹은 학교운영회	300
[표 5-60] 단체 참여도 - 학부모회 혹은 학교운영회 : 주관적 인식	302
[표 5-61] 단체 참여도 - 종교 모임	304
[표 5-62] 단체 참여도 - 종교 모임 : 주관적 인식	306

[표 5-63] 단체 참여도 - 시민 혹은 지역사회 단체(반상회, 주민조직 등) .....	308
[표 5-64] 단체 참여도 - 시민 혹은 지역사회 단체(반상회, 주민조직 등) : 주관적 인식 ..	310
[표 5-65] 단체 참여도 - 자원봉사 혹은 사회복지 혹은 자선 단체 .....	312
[표 5-66] 단체 참여도 - 자원봉사 혹은 사회복지 혹은 자선 단체 : 주관적 인식 .....	314
[표 5-67] 단체 참여도 - 교육 혹은 학술 단체 .....	316
[표 5-68] 단체 참여도 - 교육 혹은 학술 단체 : 주관적 인식 .....	318
[표 5-69] 단체 참여도 - 환경 단체 혹은 여성단체 .....	320
[표 5-70] 단체 참여도 - 환경 단체 혹은 여성단체 : 주관적 인식 .....	322
[표 5-71] 단체 참여도 - 정당 .....	324
[표 5-72] 단체 참여도 - 정당 : 주관적 인식 .....	326
[표 5-73] 단체 참여도 - 노동조합, 직장협의회,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	328
[표 5-74] 단체 참여도 - 노동조합, 직장협의회,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 주관적 인식 .....	330
[표 5-75]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	333
[표 5-76]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 주관적 인식 .....	335
[표 5-77]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있으면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	337
[표 5-78]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있으면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 주관적 인식 .....	339
[표 5-79]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	341
[표 5-80]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 주관적 인식 ..	343
[표 5-81]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상위 5위) .....	345
[표 5-82]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상위 5위) : 주관적 인식 .....	347
[표 5-83]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상위 5위) .....	349
[표 5-84]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상위 5위) : 주관적 인식 .....	351
[표 5-85]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상위 5위) .....	353
[표 5-86]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상위 5위) : 주관적 인식 .....	355

[표 5-87] 자원봉사활동 경험 .....	357
[표 5-88] 자원봉사활동 경험 : 주관적 인식 .....	359
[표 5-89] 기부 경험 .....	361
[표 5-90] 기부 경험 : 주관적 인식 .....	363
[표 5-91] 나는 내성적이다 .....	366
[표 5-92] 나는 내성적이다 : 주관적 인식 .....	368
[표 5-93] 나는 타인을 잘 믿는다 .....	370
[표 5-94] 나는 타인을 잘 믿는다 : 주관적 인식 .....	372
[표 5-95] 나는 덤벙댄다 .....	374
[표 5-96] 나는 덤벙댄다 : 주관적 인식 .....	376
[표 5-97] 나는 차분하다 .....	378
[표 5-98] 나는 차분하다 : 주관적 인식 .....	380
[표 5-99] 나는 창의적이지 못하다 .....	382
[표 5-100] 나는 창의적이지 못하다 : 주관적 인식 .....	384
[표 5-101] 나는 외향적이다 .....	386
[표 5-102] 나는 외향적이다 : 주관적 인식 .....	388
[표 5-103] 나는 비판적이다 .....	390
[표 5-104] 나는 비판적이다 : 주관적 인식 .....	392
[표 5-105] 나는 일을 철저히 한다 .....	394
[표 5-106] 나는 일을 철저히 한다 : 주관적 인식 .....	396
[표 5-107] 나는 쉽게 긴장한다 .....	398
[표 5-108] 나는 쉽게 긴장한다 : 주관적 인식 .....	400
[표 5-109]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	402
[표 5-110]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 주관적 인식 .....	404
[표 5-111]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항상 신경을 쓴다 .....	406
[표 5-112]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항상 신경을 쓴다 : 주관적 인식 .....	408

[표 5-113] 혼자 있는 시간과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의 비율 .....	410
[표 5-114] 혼자 있는 시간과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의 비율 : 주관적 인식 .....	412
[표 5-115] 좋아서 자유롭게 만나는 관계와 필요나 의무로 인한 관계의 비율 .....	412
[표 5-116] 좋아서 자유롭게 만나는 관계와 필요나 의무로 인한 관계의 비율 : 주관적 인식 .....	416
[표 5-117] 자유롭게 선택하며 원하는 인생 .....	418
[표 5-118] 자유롭게 선택하며 원하는 인생 : 주관적 인식 .....	420
[표 5-119] 평등 인식 - 교육기회 .....	423
[표 5-120] 평등 인식 - 교육기회 : 주관적 인식 .....	425
[표 5-121] 평등 인식 - 취업기회 .....	427
[표 5-122] 평등 인식 - 취업기회 : 주관적 인식 .....	429
[표 5-123] 평등 인식 - 법의 집행 .....	431
[표 5-124] 평등 인식 - 법의 집행 : 주관적 인식 .....	433
[표 5-125] 평등 인식 - 소득과 재산 .....	435
[표 5-126] 평등 인식 - 소득과 재산 : 주관적 인식 .....	437
[표 5-127] 평등 인식 - 권력 .....	439
[표 5-128] 평등 인식 - 권력 : 주관적 인식 .....	441
[표 5-129] 평등 인식 - 성별 .....	443
[표 5-130] 평등 인식 - 성별 : 주관적 인식 .....	445
[표 5-131] 우리나라에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생각 .....	447
[표 5-132] 우리나라에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생각 : 주관적 인식 .....	449
[표 5-133]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세금을 얼마나 많이 혹은 적게 납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451
[표 5-134]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세금을 얼마나 많이 혹은 적게 납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관적 인식 .....	453
[표 5-135]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의 수준이 얼마나 높다고, 혹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	455
[표 5-136]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의 수준이 얼마나 높다고, 혹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관적 인식 .....	457

[표 5-137] 본인의 경제적 능력과 비슷한 납세자들과 비교하여 귀하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크다고,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	460
[표 5-138] 본인의 경제적 능력과 비슷한 납세자들과 비교하여 귀하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크다고,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관적 인식 .....	462
[표 5-139] 높은 지위와 경제적 풍요에 대한 인식 .....	464
[표 5-140] 높은 지위와 경제적 풍요에 대한 인식 : 주관적 인식 .....	466
[표 5-141]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인식 .....	468
[표 5-142]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인식 : 주관적 인식 .....	470
[표 5-143]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져 속상함 .....	474
[표 5-144]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져 속상함 : 주관적 인식 .....	476
[표 5-145]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낌 .....	478
[표 5-146]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낌 : 주관적 인식 .....	480
[표 5-147]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음 .....	482
[표 5-148]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음 : 주관적 인식 .....	484
[표 5-149] 성가신 생활의 문제들을 잘 처리함 .....	486
[표 5-150] 성가신 생활의 문제들을 잘 처리함 : 주관적 인식 .....	488
[표 5-151] 삶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함 .....	490
[표 5-152] 삶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함 : 주관적 인식 .....	492
[표 5-153]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느낌 .....	494
[표 5-154]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느낌 : 주관적 인식 .....	496
[표 5-155] 일이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느낌 .....	498
[표 5-156] 일이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느낌 : 주관적 인식 .....	500
[표 5-157] 해야 하는 일을 다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됨 .....	502
[표 5-158] 해야 하는 일을 다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됨 : 주관적 인식 .....	504
[표 5-159] 짜증을 잘 다스릴 수 있음 .....	506
[표 5-160] 짜증을 잘 다스릴 수 있음 : 주관적 인식 .....	508
[표 5-161] 자신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느낌 .....	510

[표 5-162] 자신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느낌 : 주관적 인식 .....	512
[표 5-163] 자신의 통제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화를 냄 .....	514
[표 5-164] 자신의 통제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화를 냄 : 주관적 인식 .....	516
[표 5-165] 완수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함 .....	518
[표 5-166] 완수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함 : 주관적 인식 .....	520
[표 5-167] 시간을 뜻대로 사용할 수 있었음 .....	522
[표 5-168] 시간을 뜻대로 사용할 수 있었음 : 주관적 인식 .....	524
[표 5-169] 어려움이 많아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낌 .....	526
[표 5-170] 어려움이 많아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낌 : 주관적 인식 .....	528
[표 6-1] 어제 기상 및 취침 시간 .....	533
[표 6-4] 어제 중요한 일(1+2순위) .....	536
[표 6-5] 어제 중요한 일(1순위)과 가까운 활동 .....	538
[표 6-4] 어제 중요한 일(1순위)을 함께 한 사람 .....	541
[표 6-5] 어제 중요한 일(1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 근심 .....	545
[표 6-6] 어제 중요한 일(1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 바쁨 .....	548
[표 6-7] 어제 중요한 일(1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 짜증 혹은 분노 .....	551
[표 6-8] 어제 중요한 일(1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 우울 .....	554
[표 6-9] 어제 중요한 일(1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 긴장 혹은 스트레스 .....	554
[표 6-10] 어제 중요한 일(1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 평온함 혹은 편안함 .....	560
[표 6-11] 어제 중요한 일(1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 즐거움 .....	563
[표 6-33] 어제 중요한 일(2순위)과 가장 가까운 활동 .....	566
[표 6-13] 어제 중요한 일(2순위)을 함께 한 사람(상위 5위) .....	569
[표 6-14] 어제 중요한 일(2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 근심 .....	573
[표 6-15] 어제 중요한 일(2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 바쁨 .....	576
[표 6-16] 어제 중요한 일(2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 짜증 혹은 분노 .....	579
[표 6-17] 어제 중요한 일(2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 우울 .....	583
[표 6-18] 어제 중요한 일(2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 긴장 혹은 스트레스 .....	586

[표 6-19] 어제 중요한 일(2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 평온함 혹은 편안함 .....	589
[표 6-20] 어제 중요한 일(2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 즐거움 .....	592
[표 7-1] 코로나19 유행(2020년 1월) 이후 경제활동 변화 .....	599
[표 7-2] 코로나19 유행 이후 월평균 개인소득 증감액 .....	604
[표 7-3] 지난 7월에 변경된 코로나 대응 단계에 따른 행동 지침을 잘 알고 있다 .....	609
[표 7-4] 백신에 대해 얻은 정보가 사실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	613
[표 7-5]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	617
[표 7-6]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코로나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다 .....	621
[표 7-7]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게 잘못된 책임이 있다 .....	625
[표 7-8]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은 자신의 동선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	629
[표 7-9]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 .....	633
[표 7-10]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 ·	637
[표 7-11] 코로나로 인해 나의 인생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	641
[표 7-12] 이주노동자나 외국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645
[표 7-13]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및 향후 접종 의향 .....	649



[그림 2-1] 전반적 행복감 .....	43
[그림 2-2] 삶의 의미, 성취감, 인생 결정 자유 .....	47
[그림 2-3]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	57
[그림 3-1] 어제의 감정 .....	77
[그림 3-2] 어제의 행복감 .....	109
[그림 3-3] 어제의 행복감 .....	113
[그림 4-1] 어제의 행복감 .....	119
[그림 4-2] 어제의 행복감 .....	123
[그림 4-3] 어제의 행복감 .....	127
[그림 4-4] 어제의 행복감 .....	131
[그림 4-5] 주변 환경 만족도 .....	146
[그림 4-6]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 .....	171
[그림 5-1]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 .....	180
[그림 5-2] 집단 신뢰도 .....	261
[그림 5-3] 단체 활동 및 참여 .....	286
[그림 5-4] 타인에 대한 견해 .....	331
[그림 5-5]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1+2순위) .....	344
[그림 5-6]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1+2순위) .....	348
[그림 5-7]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1+2순위) .....	352
[그림 5-8]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	356
[그림 5-9]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	360
[그림 5-10] 타인에 대한 견해 .....	364
[그림 5-11] 혼자 있는 시간과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의 비율 .....	409
[그림 5-12] 좋아서 자유롭게 만나는 관계와 필요나 의무로 인한 관계의 비율 .....	413

[그림 5-13] 자유롭게 선택하며 원하는 인생 .....	417
[그림 5-14] 평등 인식 .....	421
[그림 5-15] 기본소득 제도 도입 찬반 .....	446
[그림 5-16] 세금 납부 규모 .....	450
[그림 5-17]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 수준 .....	454
[그림 5-18] 높은 지위와 경제적 풍요 .....	458
[그림 5-19] 우리 사회의 현실 .....	463
[그림 5-20] 지난 한 달간의 감정과 생각 .....	472
[그림 6-1] 어제 기상시간 및 취침시간 .....	531
[그림 6-2] 중요도 1순위 일을 함께 한 사람(상위 5위) .....	539
[그림 6-3] 중요도 1순위 일을 하면서 느낀 감정 .....	543
[그림 6-4] 중요도 2순위 일을 함께 한 사람(상위 5위) .....	567
[그림 6-5] 중요도 2순위 일을 하면서 느낀 감정 .....	571
[그림 7-1] 중요도 2순위 일을 하면서 느낀 감정 .....	597
[그림 7-2] 코로나19 유행 이후 월평균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증감액 .....	602
[그림 7-3] 코로나19 관련 인식 .....	607
[그림 7-4]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및 향후 접종 의향 .....	648

## 요 약

### 1 조사 개요

#### □ 조사 배경 및 목적

##### ● 국민 행복 수준을 높이는 정책적 대안 발굴에 활용

- 물질적 부를 목표로 했던 개발성장의 시대가 지나고 질 높은 삶과 좋은 사회의 지표로서 행복을 측정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선진국과 OECD와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 한국은 높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낮은 행복 수준을 보이는 대표적인 나라임에도 행복에 대한 심층 연구와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한 기초 자료가 희박
- 「한국인의 행복 조사연구」를 통해 ① 한국인의 행복 수준 및 불평등 크기를 추적하고, ② 다양한 사회 현상을 예측하며, ③ 행복 수준과 불평등을 결정하는 다양한 결정요인을 밝히고, ④ 국민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 발굴에 활용하고자 실시

#### □ 조사 대상 및 실사

##### ● 만 15세 이상의 일반 국민

- 본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만 15세 이상의 일반 국민
- 본 조사의 표본들은 통계청 집계구를 활용함(2019년 6월 기준)

- 2021년 8월 21일 ~ 10월 27일까지 총 800개 집계구, 8,000가구를 목표 조사 실시
- 표본 추출, 인지면접조사 등의 조사 준비 단계를 거쳐 2021년 8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태블릿PC를 활용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실시(코로나19 상황으로 응답자 선호에 따라 비대면 조사 방법인 유치조사 방식을 병행)
- 다단계 층화집락추출법을 활용하여 표본 추출(집계구 : 확률비례크기계통추출, 가구 : 무작위 추출, 가구원 수 : 전수 추출)
- 조사 시 요일별 할당을 적용하여 설문상 '어제' 기준으로 '월~목' 응답을 약 50%, '금~일' 응답을 약 50% 정도 수집하도록 고려
- 조사 완료된 표본 수 1만 7,357명(8,162가구)(월~목 : 8,351명, 금~일 : 9,006명)
- 완료된 표본을 바탕으로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계수 가중치, 벤치마킹 조정계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

## 2 조사 결과

### □ 행복 부문

- 전반적 행복감 10점 만점 기준 평균 6.56점
  - 60대 이상, 월세/사글세/무상 거주, 단독주택 거주, 1인 가구, 저소득 가구 및 개인, 사별/이혼/별거, 중졸 이하, 무직/무급가족종사자/임시 및 일용근로자, 건강 상태가 나쁜 사람 등의 특성을 가진 표본에서 전반적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전반적 행복감이 높은 집단에서 삶의 의미, 성취감, 인생 결정 자유,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경향을 보임

- ‘평소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삶에서 의미 있다고 느낀다’ 평균 6.40점, ‘나는 대체로 내가 하는 일에서 성취감을 느낀다’ 평균 6.18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롭다’ 평균 6.36 점(10점 만점 기준)
-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 평균 4.42 점, ‘나의 삶의 조건은 훌륭하다’ 평균 4.29점, ‘나는 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평균 4.53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했던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 평균 4.46점,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 해도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평균 4.19점(7점 만점 기준)

#### □ 정서 부문

- **어제의 감정은 즐거움, 차분함, 활력 순이며, 분노, 우울, 슬픔 등의 감정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어제의 행복감은 평균 6.35점, 어제 미소 및 웃음 정도는 평균 6.17점으로 나타남**
  - 어제 행복감 및 어제 미소/웃음 정도는 60대 이상, 사별/이혼/별거, 연립/다세대/기타 거주, 1인 가구, 중졸 이하, 무직, 무급가족종사자, 임시/일용근로자, 저소득 가구 및 개인, 건강 상태가 나쁜 사람 등의 특성을 가진 표본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 삶의 만족도

-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평균 6.19점(0 : 최악의 삶 ~ 10 : 최상의 삶)**
  - 60대 이상, 사별/이혼/별거, 월세/사글세/무상 거주, 1인 가구, 중졸 이하, 무직, 무급가족종사자, 임시/일용근로자, 저소득 가구 및 개인, 건강 상태가 나쁜 사람 등의 특성을 가진 표본에서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5년 전 삶의 만족도 평균 6.22점, 5년 후 삶의 만족도 평균 6.54점으로 앞으로 삶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반영(10점 만점 기준)
  - 가족생활 만족도 평균 4.56점(7점 만점 기준)
  -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평균 4.50점(7점 만점 기준)
  -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평균 4.29점(7점 만점 기준)
- 주변 환경 중 건강(6.50점), 대인관계(6.44점), 안전감(6.26점) 등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공동체 소속감(5.93점)이 가장 낮았음(10점 만점 기준).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6.99점(10점 만점 기준)

#### □ 사회심리적 변인

- 사회적 가치관, 집단 신뢰도, 정치 및 사회 활동 등 다양한 사회심리적 변인과 행복감은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함
  - 사회적 가치관 중 ‘로봇이 일상적으로 쓰이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3.85점) 등의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동성애자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데 문제가 없다’(2.85점) 등의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가족(98.3%),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79.9%) 순으로 신뢰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나와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19.4%), 처음 만난 낯선 사람(13.0%), 다른 국적의 사람(11.3%)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낮게 나타남. 대체로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가족 및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경향을 보임
  - 현재 활동하는 단체는 동창회, 향우회 혹은 종친회(35.9%), 동호회, 스포츠 및 취미 단체(22.1%), 종교 모임(13.0%) 순으로 조사됨. 대체로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단체 활동 및 참여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의 어머니

니’(29.0%),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52.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친한 친구’(75.6%)가 가장 많이 응답됨

-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12.8%, 기부 경험은 20.4%로 조사됨
-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는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 비율과 ‘좋아서 자유롭게 만나는 관계’ 비율과는 양(+)의 상관관계, ‘혼자 있는 시간’ 비율과 ‘필요나 의무로 인한 관계’ 비율 항목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 우리 사회의 평등과 관련한 문제에서 교육 기회(3.42점), 취업 기회(2.96점), 성별(2.89점), 법의 집행(2.65점), 소득과 재산(2.53점), 권력(2.31점) 순으로 평등 인식이 높게 나타남

## □ 일상 재구성

### ● 주로 직업 관련 일, 가정 내 활동, 개인적 친교 활동과 관련된 활동이 많았으며, 이때 ‘평온함 또는 편안함’,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 기상 시간은 7시 54분이며, 취침 시간은 23시 6분으로 조사됨
- 어제 했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는 직업 관련 일(43.0%), 가정 내 활동(10.3%), 개인적 친교 활동(5.1%), 건강관리(4.7%), 음식섭취(4.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중요한 활동은 혼자(40.2%) 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직장동료(28.9%), 친구(17.2%), 배우자(15.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어제 했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활동 시 느낀 감정은 ‘평온함 혹은 편안함’(4.40점), 즐거움(4.37점), 바쁨(3.65점), 긴장 혹은 스트레스(2.96점) 등의 순으로 조사됨

## □ 코로나(COVID-19) 관련

### ● 코로나 유행(2020년 1월) 이후 개인과 가구의 소득 감소 뚜렷

- 응답자의 94.1%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경제활동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가운데, 5.9%는 ‘일자리를 일거나 폐업’, ‘정직 또는 휴직’, ‘비정규직으로 전환’ 등의 변화를 경험함
- 코로나19 유행 이후 개인소득은 14.8만원, 가구소득은 28.6만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응답자의 82.0%는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응답했으며, 12.8%는 ‘향후 접종 의향 있다’, 1.9%는 ‘접종 의향 없다’고 응답함

## 3 연구의 결론

### ● 평균적인 전반적 행복감은 6점 대

- 연구 결과 한국인의 전반적 행복감은 10점 만점 기준 평균 6.56점,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0~10점 중 평균 6.19점, 어제의 행복감은 평균 6.35점, 어제 미소 및 웃음 정도는 평균 6.17점으로 행복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임
- 5년 전 삶의 만족도인 평균 6.22점에 비해 5년 후 삶의 만족도 평균 6.54점(10점 만점)으로 앞으로 삶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있음

### ● 그러나 행복 취약계층을 통해 행복의 불평등을 문제를 확인

- 그러나, 행복감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취약집단이 존재하여 불평등이 주요한 문제임을 확인함(주로 60대 이상, 사별/이혼/별거, 월세/사글세/무상 거주, 1인 가구, 중졸 이하, 무직, 무급가족종사자, 임시/일용근로자, 저소득 가구 및 개인, 건강 상태가 나쁜 사람 집단)



- **행복의 결정요인들과 행복 수준과의 연관성을 확인함**

- 사회적 가치관, 집단 신뢰도, 정치 및 사회 활동 등 다양한 사회심리적 변인과 행복감은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건강과 행복은 다른 항목과 대비하여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뚜렷**

- 코로나19 유행 이후 개인소득은 14.8만원, 가구소득은 28.6만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4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향**

- **행복 취약 계층을 파악하고 이를 심층연구 및 정책적 제언 필요**

- 정부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행복 실태를 분석하여 이에 기초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임
- 노인, 1인 가구, 저소득층 등이 행복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 향상 및 유지 지원을 통해 행복을 향상할 제도적 모색이 필요함
- 아울러 이들의 건강에 대한 정책 지원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고 이들의 삶에서 질적인 건강 증진을 유도할 정책을 제공해야 함

- **행복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 및 정책 개발의 근본자료 역할 수행**

- 본 조사는 국민의 행복 수준과 함께 현재 우리 사회의 특징 및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지며, 국회 입장에서 국가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실시, 그 실효성의 판단과 평가의 근거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음

- 국가 대표성을 갖춘 설문 조사를 통해 향후 명실상부한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유일한 대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회에 필요한 정보제공의 원자료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음

# 제1장

## 조사 설계 및 개요

---

제1절 조사 배경 및 개요

제2절 인지면접조사

제3절 표본설계 및 추정

제4절 조사과정 및 표본 특성



## 제 1절 조사 배경 및 개요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데이터가 없다면 당신은 그냥 또 다른 의견을 가졌을 뿐이다”

- 에드워즈 데밍

### 1 조사 배경 및 목적

행복은 미래사회의 핵심 키워드이다. 해외 선진국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물질적 부를 목표로 했던 개발성장의 시대에서 질 높은 삶과 좋은 사회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였다. 행복이 양질의 삶, 좋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측정 및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각 국가 단위와 국제기구에서 활발히 진행하였다. 영국, 핀란드, 독일,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각국의 삶의 질과 행복 측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고 OECD는 「더 나은 삶 지표(Better Life Index)」, UN은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와 같이 사회의 질적 지표를 측정하고 연구하여 실제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은 높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낮은 행복 수준을 보이는 대표적인 나라(160여 개국 중 50위: World Happiness Report 2021 기준)일 뿐만 아니라 국가 내 행복 격차도 큰 나라이다. 그럼에도 행복에 대한 심층 연구와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가 희박하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전문 분야에 따라 구분된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 부처에서 통합적, 심리적 특성을 가진 행복 지표를 전문분야와의 부합성, 단기적 예산 배정 등으로 인해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조사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sup>1)</sup>

1)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 조사」에 일부 문항이 포함되어 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기관 차원이 아닌 단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이에, 국회 입법의 최종목표는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에 기여하는 것이며, 국회가 가진 부처 통합적 성격과 정부 견제 역할을 고려해볼 때 국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행복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한 입법 방향 제안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기관 설립 초기부터 국민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2018년 「한국 삶의 질 조사 기반 연구」, 2019년 「한국인의 행복측정 기반 연구」 등 설문도구 초안 개발연구와 2020년 통계개발원의 2차례 인지 면접을 바탕으로 조사설문지를 완성하였으며, 전문조사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2020년 전국적인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인의 행복 조사연구」를 통해 ① 한국인의 행복 수준 및 불평등 크기를 추적하고, ② 다양한 사회 현상을 예측하며 ③ 행복 수준과 불평등을 결정하는 다양한 결정요인을 밝히고, ④ 국민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발굴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2021년 수행한 1차조사에 대한 기초분석 보고서이다.

## 2 조사 대상

### 가. 목표 모집단

본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2021년 기준 대한민국 만 15세 이상의 일반 국민이다.

### 나. 조사 모집단

본 조사의 조사 모집단은 조사가 곤란한 일부 섬 지역, 기숙 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등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만 15세 이상 일반 국민이다.

### 다. 표본틀

본 조사의 표본틀은 2019년 6월 기준의 통계청 집계구 10만 3,612개이다.



### 3 조사 내용

심리적 상태에 대한 조사의 특성상 횡단면 조사의 비교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사 문항으로서 측정 도구 혹은 척도에 대한 일관성 확보를 통한 시계열적인 비교 가능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사 주기는 한국처럼 세대별, 성별 격차가 상당하고 특정 집단에서는 주목할 변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중시한다면 매년 주기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변동 가능성이 적으며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한 설문지 개발이 중요하여 2차 연도에 걸친 연구로 확정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크게 1) 본 조사의 목적인 행복 측정과 2) 행복의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두 개의 문항 그룹으로 구성한다(그림 1-1). 이에 모듈화한 설문 문항을 추가하였는데 본 조사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설문 문항을 추가하였다.

행복 측정영역은 국제 비교가 가능한 문항을 활용하기 위하여 주관적 안녕감 측정 가이드라인의 권고에 기반하여 문항의 기본틀을 구성하였다(OECD, 2013).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주관적 행복 수준을 묻고, 삶의 의미(유데모니아), 삶의 평가와 정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문항은 기본적으로 심리적 측정 원리를 기반으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같은 영역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아울러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를 묻는 캔트릴 사다리(Cantril ladder)를 포함하여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삶의 만족도 문항들을 추가하였다.

본 조사에 행복 수준 측정과 더불어 한국인의 낮은 행복감의 주요 결정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심리적 요인의 설문 영역을 구성하였다. 사회심리적 특성은 자신의 태도 및 신념과 더불어서 사회 인식과 사회적 활동 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실제 행복 경험 형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경험의 왜곡이 가장 적은 방법으로 알려진 일상 재구성법(daily reconstruction Method: Kahneman et al., 2004)을 도입하였다. 이 방법은 개인의 사회적 교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방법으로 널리 활용하는 설문이다. 그러나 원문대로 사용하기엔 현재의 온라인 기반의 생활 양식과 한국적 맥락을 반영하기 어려워 인지 면접 결과를 반영하여 보기를 더욱 다양하게 구성하였고 실사 조사 전 예비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기존의 행복 측정 조사들의 측정 프레임은 대부분 교육 수준, 경제적 수준 등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 지표들을 포함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에 따르면 연구에서 행복 판단에 대한 예측력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특히 한국은 해당 지표의 행복 예측력이 가장 떨어지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 내 다양한 집단 간의 행복의 불평등 관련 연구와 더불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1인 가구, 청년층, 노인층 등의 행복 실태에 대한 심층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련 문항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2021년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 관련 설문 문항으로 모듈을 구성하였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인식과 경험, 경제적 영향, 소득 변화, 지식과 태도, 백신접종 여부 및 의향 등을 설문에 담았다(자세한 내용은 [표 1-1]과 부록의 설문지를 참고).

[표 1-1] 조사표 구성 및 내용

구분	내용
1. 행복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 행복감 / 삶의 의미, 성취감, 인생 결정 자유</li> <li>•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li> </ul>
2. 정서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제의 감정 / 행복감 / 미소·웃음</li> </ul>
3. 삶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li> <li>• 5년 전 삶의 만족도 / 5년 후 삶의 만족도(예상)</li> <li>• 가족생활 만족도 / 배우자와 관계 만족도 / 자녀와 관계 만족도</li> <li>• 주변 환경 만족도 / 일에 대한 만족도</li> </ul>
4. 사회심리적 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가치관 / 집단 신뢰도 / 단체활동 참여 빈도 / 사회구성원 인식</li> <li>• 위급상황 발생 시 도움 청할 사람</li> <li>• 자원봉사활동 / 기부 경험 / 개인 성향</li> <li>• 시간 활용 / 자유로운 선택과 통제</li> <li>• 평등·불평등 인식 정도 / 기본소득제도 찬반</li> <li>• 세금 납부 규모 / 정부 혜택 수준 / 타 납세자들과의 형평성</li> <li>• 경제적 풍요 수혜자 / 우리사회 현실</li> <li>• 지난 한 달간 감정 경험</li> </ul>
5. 일상 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제 기상 및 취침 시간 / 어제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1, 2순위)</li> <li>• 같이한 사람 / 느낀 감정</li> </ul>
6. 코로나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유행 후 경제활동 변화</li> <li>• 코로나19 유행 후 개인/가구 소득 변화</li> <li>• 코로나19 관련 인식</li> <li>• 코로나19 백신 접종 경험 / 향후 접종 의향</li> <li>• 지난 2주간 부정 감정 경험</li> </ul>



## 4 실사

### 가. 조사 기간

본 조사는 2021년 8월 21일~2021년 10월 27일까지 실시하였다.

### 나. 조사 도구 및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적격 조사대상자 전원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도구는 태블릿PC를 활용하였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응답자 선호에 따라 비대면 조사 방법인 유치조사, 비대면 웹(web) 조사를 병행하였다.

### 다. 조사원 선발 및 교육

2021년 7월 말 기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등록된 조사원은 5,620명이다. 본 조사는 원활한 실사 진행 및 데이터 품질 제고를 위해 조사원의 자격을 유사 조사(① 인식조사, ② 가구 방문 조사, ③ CAPI<sup>2)</sup> 조사) 수행 경험 100건 이상으로 제한했으며, 위 조건을 충족하는 1,114명 중 184명을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발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실사 일정 지연, 조사원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한 인력 이탈 등에 대비해 40명의 조사원을 예비인력으로 편성하였다. 조사 관리 표준화 및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7개 거점 지역에서 조사원 집체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 일시 및 장소는 <표 7>과 같다.

---

2)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표 1-2] 조사원 선발 규모

구분	등록 조사원	적격 조사원	선발 조사원	예비 조사원
전국	5,620	1,114	184	40
서울	4,500	720	66	13
부산	270	95	33	7
대구	200	70	17	6
광주	250	88	33	7
대전	200	70	21	4
강원	150	53	9	2
제주	50	18	5	1

[표 1-3] 조사원 교육 일시 및 장소

구분	장소	날짜	시간	교육자
서울	한국갤럽 본사	2021년 8월 10일	13:00~15:00	연구책임자
부산	한국갤럽 부산지사	2021년 8월 12일	16:00~18:00	연구책임자
대구	한국갤럽 대구지사	2021년 8월 12일	09:00~11:00	연구책임자
광주	한국갤럽 광주지사	2021년 8월 11일	15:00~17:00	연구책임자
대전	한국갤럽 대전지사	2021년 8월 11일	10:00~12:00	연구책임자
강원	강원리서치	2021년 8월 18일	10:00~12:00	연구책임자
제주	제주리서치	2021년 8월 17일	13:00~15:00	연구책임자

## 라. 현장조사 절차

조사원은 집계구 중심지점에서부터 주변으로 확장하며 조사 대상 거쳐 및 가구를 탐색한다. 가구원과의 접촉에 성공하면 1) 전체 가구원 구성, 2) 적격 가구원 유무 등을 확인한 뒤, 조사 참여를 설득·유도한다. 적격 가구원이 부재중이거나, 재택 중이라 하더라도 비대면 조사를 희망하면 웹(web) 조사 참여 방법을 안내한다.

[표 1-4] 조사 수행 단계별 현장조사 지침

구분		내용
1단계	집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계구 조사 가능 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조사 불가 시 집계구 대체 요청</li> </ul> </li> <li>집계구 중심지점에서부터 조사 대상 거처 및 가구 탐색</li> </ul>
2단계	거처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주거 목적의 거처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용 오피스텔</li> <li>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li> <li>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보육원, 양로원, 요양원, 기도원 등)</li> <li>판잣집, 비닐하우스, 임시 건물 등 영구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li> </ul> </li> </ul>
3단계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혈연관계와 상관없이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주민등록상 세대 또는 가족과 다른 개념)</li> <li>비혈연 관계로만 구성된 6인 이상 가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li> </ul>
4단계	가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가구원 구성 및 적격 가구원 유무 확인</li> <li>적격 가구원 조사 참여 설득 및 유도</li> <li>조사 보조자료 제시 / 답례품 제공</li> </ul>
비대면 웹(web)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대면 웹 조사 희망자에게는 조사 전용 웹 주소와 함께, 가구식별번호(5자리 숫자) 및 비밀번호(4자리 영문자) 안내 (웹 주소 : <a href="https://happy.gallup.co.kr/U/">https://happy.gallup.co.kr/U/</a>)</li> </ul>

## 마. 가구 접근 방법

복수 이상의 가구가 한 건물에 모여 사는 집합건물(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의 경우 보안, 사생활 보호,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의 이유로 출입을 불허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현상은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채택 중인 가구원과 접촉했어도 대면 조사를 원치 않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재방문을 요구하는 가구가 많은데, 이 경우 조사표, 팸플릿, 조사원 명함 등을 건네주고 만남 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묻는다. 주중 조사 가능 시간대에 채택 중인 가구원은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로서 가정주부, 은퇴자, 무직자, 고령 인구 등이 대다수이다. 한낱한시에 적격 가구원 모두를 만나기 어려우므로 해당 가구 내 적격 가구원에 대한 조사는 시간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 바. 민원 예방 조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한 민원은 해당 가구뿐만 아니라 조사 지점 내 전체 가구에 영향을 미친다. 불만 사항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타 가구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 보안이 엄격한 집합건물은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먼저 방문하여 조사 시행 사실을 알리고 가구 방문에 대한 사전 동의 및 협조를 구한다.

[표 1-5] 민원 또는 애로사항 대처 방법

구분	내용	대응 지침
1	“집에 사람이 없고, 문을 안 열어줘요.”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요청
2	“국회미래연구원이 뭐 하는 곳인지궁해 하네요.”	공문 제시 / 홈페이지 주소 안내
3	“이 시국에 조사를 왜 하나는 분도 있어요.”	조사 취지 및 목적 설명
4	“지금은 안 된다고 다음에 다시 와달라고 해요.”	조사표, 팸플릿, 명함 전달 후 재방문 약속
5	“남편이랑, 아들은 집에 늦게 들어와요.”	재택 중인 적격 가구원 조사 진행 후 재방문
6	“잡상인으로 보는 사람도 많아요.”	단정한 복장, 조사원 신분증, 공문 제시

## 사. 자료 처리 및 검증

전문 조사업체에서 자료 품질 유지를 위한 3단계 검증을 실시하였다(① 조사원의 자기 검증 및 조사 관리자 검증, ② 검증팀에 의한 사후 전화 검증, ③ 연구진 및 전문분석원에 의한 통계적 오류 검증).

## 제2절

## 인지면접조사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연구 방법

#### 가. 조사표

2021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조사) 조사표 초안은 전국 만 15세 이상 인구 대상의 1:1 면접조사를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총 7개 부문 199개 문항으로 구성된다(〈표 1〉). 조사표는 조사 목적 측면에서는 크게 행복 측정 영역과 행복 결정요인 파악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행복/정서 및 삶의 의미/삶의 만족도, 후자는 사회심리적 변인/일상재구성/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표 1-6] 조사 항목

구분	내용
1. 행복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 행복감 / 삶의 의미, 성취감, 인생 결정 자유</li> <li>•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li> </ul>
2. 정서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제의 감정 / 행복감 / 미소·웃음</li> </ul>
3. 삶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li> <li>• 5년 전 삶의 만족도 / 5년 후 삶의 만족도(예상)</li> <li>• 가족생활 만족도 / 배우자와 관계 만족도 / 자녀와 관계 만족도</li> <li>• 주변 환경 만족도 / 일에 대한 만족도</li> </ul>
4. 사회심리적 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가치관 / 집단 신뢰도 / 단체활동 참여 빈도 / 사회구성원 인식</li> <li>• 위급상황 발생 시 도움 청할 사람</li> <li>• 자원봉사활동 / 기부 경험 / 개인 성향</li> <li>• 시간 활용 / 자유로운 선택과 통제</li> <li>• 평등·불평등 인식 정도 / 기본소득제도 찬반</li> <li>• 세금 납부 규모 / 정부 혜택 수준 / 타 납세자들과의 형평성</li> <li>• 경제적 풍요 수혜자 / 우리사회 현실</li> <li>• 지난 한 달간 감정 경험</li> </ul>

구분	내용
5. 일상 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제 기상 및 취침 시간 / 어제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1, 2순위)</li> <li>• 같이한 사람 / 느낀 감정</li> </ul>
6. 코로나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유행 후 경제활동 변화</li> <li>• 코로나19 유행 후 개인/가구 소득 변화</li> <li>• 코로나19 관련 인식</li> <li>• 코로나19 백신 접종 경험 / 향후 접종 의향</li> <li>• 지난 2주간 부정 감정 경험</li> </ul>

## 나. 참가자

인지면접 참가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모집하며, 모집공고에는 자격 요건 (만 15세 이상), 면접 기간 및 장소, 참가 신청 방법 등을 포함한다. 또한, 참가 신청 단계에서 참가자의 성별, 나이, 최종학력 등을 확인하여 참가자 특성을 다양화한다.

## 다. 수행 과정

인지면접은 2021년 7월 21일부터 7월 27일<sup>3)</sup>까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좌담회실에서 실시한다. 참가자가 인지면접 장소에 도착하면 연구목적과 진행 과정에 대한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참가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참가동의서에는 1) 인지면접 진행 과정이 녹음되고, 2) 참가자가 제공한 정보는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되며, 3) 인지면접에서 습득한 정보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표 작성이 끝나면 면접원이 참가자와 면담하는 인지면접을 진행한다. 인지면접은 면접원이 참가자에게 응답한 내용에 대해 심층적으로 캐어묻는 프로빙(probing) 기법을 사용하는데, 면접원은 사전에 준비된 프로빙 지침을 토대로 응답 과정과 응답 내용에 대해 상세히 묻고, 참가자의 답변을 기록한다. 면담을 마친 후에는 참가자에게 사례비 지급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요청한다.

3) 참가자 일정에 따라 조사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2 연구 결과

### 가. 참가자 특성

만 15~19세 청소년 1명을 포함해 3개 연령대(20~39세, 40~59세, 60세 이상)별로 남녀 각 1명씩 총 7명이 참석하였으며, 최종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2명, 대재 이상 5명이다.

[표 1-기] 참가자 특성

번호	이름	성별	나이	학력	직업
1	이○○	여자	21	대학교 재학	대학생
2	백○○	여자	48	대졸	가정주부
3	이○○	여자	15	고등학교 재학	고등학생
4	조○○	여자	66	대학교 졸업	가정주부
5	이○○	남자	63	대학교 졸업	관리자
6	윤○○	남자	30	대학교 졸업	실업자
7	이○○	남자	49	고등학교 졸업	실업자

### 나. 전반적 평가 및 반응

1) 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2) 조사 내용이 어렵지 않으며, 3) 조사 주관기관도 신뢰할 수 있다는 평가가 다수였다. 평균 조사표 작성 소요시간은 31.9분이며, 참가자 모두 가장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일상재구성’을 꼽았다.

[표 1-8] 조사 후 기록표

번호	응답 소요시간	조사 필요성 (1~5)	조사 난이도 (1~5)	기관 신뢰도 (1~5)	어려운 부문
1	36분	4	1	5	E. 일상재구성
2	26분	5	1	5	E. 일상재구성
3	22분	4	1	5	E. 일상재구성
4	33분	4	1	5	E. 일상재구성
5	42분	4	1	5	E. 일상재구성
6	28분	5	1	5	E. 일상재구성
7	36분	5	1	5	E. 일상재구성

향후 본 조사 참여 의향을 묻은 결과 7명 중 3명은 조사 참여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는데, 1) 질문이 많고, 2) 낯선 사람이 집 안에 들어오는 게 싫으며, 3) 조사 참여 동기가 부족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표 1-9] 향후 조사 참여 의향

번호	조사 참여 의향	그 이유
1	없음	"질문이 너무 많아요."
2	있음	"전 원래 이런 거 잘 해줘요."
3	있음	"어렵지 않아서요."
4	있음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니까요."
5	있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니까요."
6	없음	"집에 들어오는 게 싫어요."
7	없음	"굳이 해야 할 필요성 못 느껴요."



## 다. 주요 문항 응답 결과

5개 중요 문항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인생 결정 자유’가 7.3점으로 가장 높고 ‘원하는 인생’(7.1점), ‘전반적 행복도’(7.0), ‘자신의 위치’(6.6점) 등이 뒤를 이었다. 1번을 제외한 모든 참가자는 5개 문항에서 유사하게 응답했는데, 응답 결과의 유사성은 ‘전반적 행복도’와 ‘자신의 위치’ 문항에서 두드러졌다.

[표 1-10] 주요 문항 응답 결과

참가자 번호	A1) 전반적 행복도 (0-10)	A2-3) 인생 결정 자유 (0-10)	B2) 어제 행복도 (0-10)	C1) 자신의 위치 (0-10)	D11) 원하는 인생 (0-10)
1	3	9	6	4	8
2	8	6	6	7	8
3	10	7	9	10	9
4	7	7	6	7	5
5	8	9	6	7	8
6	9	10	7	7	8
7	4	3	4	4	4
평균()	7.0	7.3	6.3	6.6	7.1

## 제 3 절

## 표본설계 및 추정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표본수 확대 배경

#### 가. 지역별 가구수

통계청예규 제183호 제9조제2항 관련한 통계청 ‘표본설계 주요 검토기준’에 따르면 전국 단위 자료 작성인 경우 전국 허용오차 2~3%, 지역 단위 자료작성의 경우 지역 허용오차 5~10%를 제시한다. 6,000가구 조사 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목표 허용 오차가 10%로 통계청에서 제시한 기준 하한에 부합하지만 현장조사 환경에 따라 목표 표본 수가 충족되지 못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지역별로 안정적인 표본 크기가 필요하다. <표 1-11>과 같이 8000가구 조사 시 17개 광역시도별로 목표 허용오차를 4~8% 내외로 관리할 수 있다.

[표 1-11] 지역별 가구 수에 따른 목표 허용오차

구분	모집단 가구 수	6,000가구 조사		8,000가구 조사		목표 허용 오차 GAP (①-②)
		표집 가구 수 (예상)	목표 허용오차(①)	표집 가구 수 (예상)	목표 허용오차(②)	
전국	19,979,188	6000	1.29	8000	1.12	0.17
서울-북서	672,850	240	6.45	320	5.59	0.86
서울-북동	1,207,222	330	5.50	430	4.82	0.68
서울-남서	1,198,413	320	5.59	430	4.82	0.77
서울-남동	761,280	260	6.20	340	5.42	0.78
부산	1,363,608	350	5.35	460	4.66	0.69
대구	957,516	290	5.87	390	5.06	0.81
인천	1,094,749	310	5.68	410	4.94	0.74
광주	578,559	230	6.59	300	5.77	0.82
대전	602,175	230	6.59	310	5.68	0.91
울산	431,391	190	7.25	260	6.20	1.05
세종	119,029	100	10.00	150	8.16	1.84
경기-북부	800,710	270	6.09	350	5.35	0.74
경기-중부	2,198,984	440	4.77	590	4.12	0.65
경기-남부	1,751,804	390	5.06	520	4.39	0.67
강원	628,484	240	6.45	310	5.68	0.77
충북	640,977	240	6.45	320	5.59	0.86
충남	851,124	270	6.09	360	5.27	0.82
전북	732,980	250	6.32	340	5.42	0.9
전남	737,406	250	6.32	340	5.42	0.9
경북	1,094,535	310	5.68	410	4.94	0.74
경남	1,306,394	340	5.42	450	4.71	0.71
제주	248,998	150	8.16	210	6.90	1.26

## 나. 통계청 승인통계 가구방문조사 현황

통계청 승인통계 중 전국 단위 가구방문조사에서 시도별 공표를 하는 조사의 경우 최소 7,000가구 이상을 표본 규모로 설정한다.

[표 1-12] 승인통계 가구방문조사 현황

통계명	작성기관	분야	조사 규모	공표범위
지역사회건강조사	질병관리청	보건	19세 이상 성인, 보건소당 평균 900명 (전국 약23만 명)	시군구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노동	전국 3만 5천 가구 (1,737개 조사구)	시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	총7,000가구 (일반 5,000가구, 이용가구 2,000가구)	시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사회일반	27,120가구(유효 16,000가구)	시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복지	65세 이상 노인 약 10,000명	시도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사회일반	11,000여 가구	시도
사회조사	통계청	사회일반	전국 1,548개 조사구의 27,336가구 (목표 가구 : 약 18,576가구)	시도
아동구강건강 실태조사	질병관리청	보건	총 41,670명 -만 5세 14,150명 -만 12세 27,520명	시군구

## 다. 1인 가구 비율

전체 1인 가구 통계자료 작성 시 전국 단위에서는 6,000가구와 8,000가구 모두 목표 허용 오차가 2%대 수준이지만, 6,000가구 조사 시 17개 광역시도별로 대부분 지역이 목표 허용 오차가 10%를 초과한다. 한편 8,000가구 조사 시 광주/울산/세종/제주 지역을 제외하고 10% 내로 관리가 가능하며, 17개 광역시도가 아닌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분석 시에는 8,000가구 조사 시 모든 권역이 목표 허용 오차가 10% 내로 설정된다.

[표 1-13] 지역별 1인 가구 수에 따른 목표 허용오차

구분	모집단 가구 수 (1인 가구)	모집단 가구 비율 (1인 가구)	6,000가구 조사		8,000가구 조사		목표 허용 오차 GAP (①-②)
			표집 가구 수 (예상)	목표 허용 오차(①)	표집 가구 수 (예상)	목표 허용 오차(②)	
전체	6,147,516	30.2	1831	2.34	2440	2.02	0.32
서울	1,299,787	33.4	384	5.10	508	4.44	0.66
부산	423,227	30.7	107	9.67	141	8.42	1.25
대구	284,416	29.4	85	10.85	115	9.33	1.52
인천	297,865	26.6	82	11.04	109	9.58	1.46
광주	182,364	31.1	72	11.79	93	10.37	1.42
대전	205,165	33.7	78	11.32	104	9.81	1.51
울산	116,015	26.5	50	14.14	69	12.04	2.1
세종	39,078	30.1	30	18.26	45	14.91	3.35
경기	1,290,893	26.3	289	5.88	384	5.10	0.78
강원	208,857	32.9	79	11.25	102	9.90	1.35
충북	215,196	32.9	79	11.25	105	9.76	1.49
충남	280,773	32.5	88	10.66	117	9.25	1.41
전북	238,746	32.3	81	11.11	110	9.53	1.58
전남	238,147	32.1	80	11.18	109	9.58	1.6
경북	360,213	32.7	101	9.95	134	8.64	1.31
경남	391,421	29.6	101	9.95	133	8.67	1.28
제주	75,353	29.7	45	14.91	62	12.70	2.21

## 라. 기초수급가구 비율

기초수급가구만을 별도로 통계자료 작성 시 전국단위 기준으로 6,000가구 조사 시 목표 허용 오차가 5.1%로 5%를 초과한다. 반면, 8,000가구 조사 시 목표 허용 오차 4.42%로 5% 이내로 관리가 가능하다.

[표 1-14] 기초수급가구 수에 따른 목표 허용오차

구분	모집 단 가구 수	6,000가구 조사		8,000가구 조사		목표 허용 오차 GAP (①-②)
		표집 가구 수 (예상)	목표 허용 오차(①)	표집 가구 수 (예상)	목표 허용 오차(②)	
기초수급 가구	1,281,759	385	5.10	513	4.42	0.68

## 2 표본설계

### 가. 모집단

본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조사 시점 기준 대한민국 만 15세 이상의 일반 국민이다. 본 조사의 조사 모집단은 조사가 곤란한 일부 섬 지역, 기숙 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 호텔 등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 가구의 만 15세 이상 일반 국민이다. 2021년 현재 기준 만 15세 이상의 일반 국민으로 기숙사, 특수사회시설 등의 집단시설 가구, 군복무, 타 지역 및 해외 거주 등으로 장기간 부재중인 가구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체적인 조사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학교, 공장, 병원 등의 기숙사 거주자, 양로원, 고아원, 특수병원 등 특수사회시설 거주자,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 등의 군복무자, 교도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의 수감자, 장기 해외 출장·체류자, 외국인 등

### 나. 표본추출틀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집계구를 활용한다.

### 다. 모집단 현황

전체 모집단 집계구는 10만 3,612개이고, 일반가구는 2,034만 3,188호이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각각 전체 집계구의 24.9%와 18.1%이고, 가구 수는 24.1%, 19.2%이다.

[표 1-15] 모집단 현황

구분	집계구 <sup>4)</sup>		가구 <sup>5)</sup>		인구 <sup>6)</sup>		
	규모 (개)	구성비 (%)	규모 (개)	구성비 (%)	전체	만 15세 이상	포함율 (%)
전국	103,612	100.0	20,343,188	100.0	51,779,203	45,387,023	87.7
서울	18,748	18.1	3,896,389	19.2	9,639,541	8,632,625	89.6
부산	6,774	6.5	1,377,030	6.8	3,372,692	3,008,338	89.2
대구	4,927	4.8	968,620	4.8	2,429,940	2,137,877	88.0
인천	5,880	5.7	1,120,576	5.5	2,952,237	2,577,013	87.3
광주	3,023	2.9	587,159	2.9	1,489,730	1,289,111	86.5
대전	3,014	2.9	609,043	3.0	1,498,839	1,308,133	87.3
울산	2,277	2.2	437,094	2.1	1,143,692	984,989	86.1
세종	698	0.7	129,664	0.6	338,136	270,573	80.0
경기	25,800	24.9	4,907,660	24.1	13,300,900	11,489,386	86.4
강원	3,149	3.0	633,942	3.1	1,520,127	1,348,512	88.7
충북	3,260	3.1	654,713	3.2	1,629,343	1,429,163	87.7
충남	4,436	4.3	864,102	4.2	2,188,649	1,907,251	87.1
전북	3,719	3.6	738,307	3.6	1,807,423	1,592,006	88.1
전남	4,195	4.0	741,026	3.6	1,787,543	1,574,945	88.1
경북	5,351	5.2	1,102,934	5.4	2,668,154	2,362,578	88.5
경남	6,913	6.7	1,321,213	6.5	3,347,209	2,906,290	86.8
제주	1,448	1.4	253,716	1.2	665,048	568,233	85.4

## 라. 표본 층화

층화(stratification)는 표본추출틀의 단위들을 동질적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의 표본추출틀인 집계구는 기초단위구를 결합시켰기 때문에 국가승인통계 조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사구(통계조사를 위해 행정 읍, 면, 동별로 일정한 기준이 되는 수 또는 면적에 근사하게 적당히 구획한 구역단위)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승인통계에서 검증된 층화 방식을 벤치마킹

4) 집계구 : 2019년 6월 기준 통계청 자료

5) 가 구 : 2019년 8월 기준 인구총조사 자료

6) 인 구 : 2019년 8월 기준 인구총조사 자료

(benchmarking)할 수 있다.

국가승인통계의 일반적인 층화 방식은 8개 특·광역시, 9개 도 지역으로 1차 층화하고, 9개 도 지역에 대해서는 2차 층화로 동부와 읍면부로 구분한다. 광역시 중 읍면 지역이 존재하는 대구, 인천, 울산, 세종에 대해서는 읍면부에 속한 가구 비중이 낮거나, 모집단 가구수가 작기 때문에 동부와 읍면부를 구분하여 층화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동부의 경우에는 다시 아파트와 일반 조사구 특성으로 구분한다.

본 조사에서는 국가승인통계의 층화방식을 동일하게 활용하되, 가구와 인구수가 많은 서울과 경기 지역은 지리적 인접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4개 권역과 2개 권역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조사구의 경우에는 아파트 조사구에는 아파트만이, 일반 조사구에는 일반 주택(다세대, 단독, 연립 등)만이 존재하지만, 집계구는 아파트와 일반주택이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 아파트의 비율이 60% 이상인 집계구는 아파트집계구로, 60% 미만인 집계구는 일반집계구로 정의한다. 이상의 층화변수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3> ~ <표 4>와 같다.

[표 1-16] 서울, 경기 권역 구분

권역		해당 지역
서울	북서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북동부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남서부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남동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경기	중·북부	부천시, 성남시, 광명시, 의왕시, 안양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하남시, 광주시, 여주시, 시흥시,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남부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



[표 1-17] 모집단 층화 요약

구분	1차 층화 (지역)	2차 층화 (동·읍면)	3차 층화 (주택유형)	층수
인구총조사 집계구	서울(4), 광역시(7)	동부	아파트, 일반	22
	경기(2), 기타 도(8)	동부	아파트, 일반	20
		읍면부	-	10
합계				52

한편, 층별 모집단 집계구 및 가구 현황은 다음 <표 5> ~ <표 6>과 같다.

[표 1-18] 층별 모집단 집계구 현황

시도	동부		읍면부	합계	
	아파트	일반			
전국	50,425	34,674	18,513	103,612	
서울	9,042	9,706	-	18,748	
권역	북서부	1,278	1,929	3,207	
	북동부	2,886	3,043	5,929	
	남서부	2,621	3,037	5,658	
	남동부	2,257	1,697	3,954	
부산	3,928	2,846	-	6,774	
대구	2,947	1,980	-	4,927	
인천	3,424	2,456	-	5,880	
광주	2,090	933	-	3,023	
대전	1,819	1,195	-	3,014	
울산	1,438	839	-	2,277	
세종	546	152	-	698	
경기	14,210	7,394	4,196	25,800	
권역	중북부	8,185	4,535	2,509	15,229
	남부	6,025	2,859	1,687	10,571
강원	1,155	724	1,270	3,149	
충북	1,159	735	1,366	3,260	
충남	1,362	662	2,412	4,436	
전북	1,680	946	1,093	3,719	
전남	1,033	565	2,597	4,195	
경북	1,621	1,201	2,529	5,351	
경남	2,664	1,643	2,606	6,913	
제주	307	697	444	1,448	

[표 1-19] 총별 모집단 가구 현황

시도	동부		읍면부	합계	
	아파트	일반			
전국	9,240,956	7,517,284	3,584,948	20,343,188	
서울	1,669,316	2,227,073	-	3,896,389	
권역	북서부	242,160	438,575	-	680,735
	북동부	538,173	676,657	-	1,214,830
	남서부	490,184	733,551	-	1,223,735
	남동부	398,799	378,290	-	777,089
부산	756,951	620,079	-	1,377,030	
대구	546,884	421,736	-	968,620	
인천	617,270	503,306	-	1,120,576	
광주	391,956	195,203	-	587,159	
대전	342,193	266,850	-	609,043	
울산	262,062	175,032	-	437,094	
세종	98,790	30,874	-	129,664	
경기	2,505,620	1,577,020	825,020	4,907,660	
권역	중북부	1,451,774	959,875	497,056	2,908,705
	남부	1,053,846	617,145	327,964	1,998,955
강원	222,324	156,700	254,918	633,942	
충북	221,106	152,950	280,657	654,713	
충남	247,389	147,729	468,984	864,102	
전북	316,715	196,855	224,737	738,307	
전남	198,585	112,379	430,062	741,026	
경북	302,390	264,273	536,271	1,102,934	
경남	485,956	343,380	491,877	1,321,213	
제주	55,449	125,845	72,422	253,716	

## 마. 표본 크기

표본크기는 통계공표 수준, 작성되는 통계의 목표 오차, 가용 예산과 조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000가구를 표본크기로 한다. 가구당 적격 가구원 수를 2.1명으로 계산할 경우 총 표본가구원 수는 16,800명이며, 이 경우 목표 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1\%p$  이내이다(95%신뢰수준에서  $\pm 0.84\%p$ ).

[표 1-20] 표본크기에 따른 표본오차(95% 신뢰수준)

표본크기()	1,000	2,000	3,000	5,000	8,000	10,000	15,000	16,800
표본오차()	3.10	2.19	1.79	1.39	1.10	0.98	0.80	0.76

## 바. 표본 배분

본 조사의 표본크기는 8,000가구인데, 집계구당 10가구를 선정하기 때문에 800개 집계구가 필요하다. 집계구당 10가구를 조사하는 이유는 통계의 정도(정밀성·precision)와 조사 비용, 현장조사 업무 관리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앞선 <표 2>에서 서울과 경기의 집계구와 가구수는 약 18~25%의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세종, 울산에서는 집계구와 가구수가 적어 시도 간의 표본추출률·조사표본의 크기가 2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시도별 또는 권역별로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가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도별 또는 권역별 특성 분석을 위해 모집단 구성비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모수 추정치의 정도(precision)가 유사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1차 층인 시도에 대한 표본배분(sample allocation)은 비례배분, 제곱근 비례배분,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 방법을 비교·검토한다.

① 비례배분법

$$n_h = n \times \frac{N_h}{\sum_{h=1}^H N_h}$$

$N_h$ 는  $h$ 층의 모집단 집계구수 ( $h = 1, 2, 3, \dots, H$ )

② 제곱근 비례배분법

$$n_h = n \times \frac{\sqrt{N_h}}{\sum_{h=1}^H \sqrt{N_h}}$$

③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

$$n_h = n' + (n - n' \times H) \times \frac{N_h}{\sum_{h=1}^H N_h}$$

[표 1-21] 표본배분 결과 비교

시도	비례배분			제공근 비례배분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			
	집계구	가구	기대 표본 오차	집계구	가구	기대 표본 오차	집계구	가구	기대 표본 오차	
전국	800	8,000	1.1	800	8,000	1.1	800	8,000	1.1	
서울	145	1,450	2.6	90	900	3.3	134	1,340	2.7	
부산	52	520	4.3	54	540	4.2	52	520	4.3	
대구	38	380	5.0	46	460	4.6	39	390	5.0	
인천	45	450	4.6	51	510	4.3	45	450	4.6	
광주	23	230	6.5	36	360	5.2	26	260	6.1	
대전	23	230	6.5	36	360	5.2	26	260	6.1	
울산	19	190	7.1	32	320	5.5	21	210	6.8	
세종	6	60	12.7	18	180	7.3	10	100	9.8	
경기	199	1,990	2.2	106	1,060	3.0	183	1,830	2.3	
강원	24	240	6.3	37	370	5.1	27	270	6.0	
충북	25	250	6.2	38	380	5.0	27	270	6.0	
충남	34	340	5.3	44	440	4.7	35	350	5.2	
전북	29	290	5.8	40	400	4.9	31	310	5.6	
전남	32	320	5.5	43	430	4.7	34	340	5.3	
경북	41	410	4.8	48	480	4.5	42	420	4.8	
경남	53	530	4.3	55	550	4.2	53	530	4.3	
제주	12	120	8.9	26	260	6.1	15	150	8.0	
요약	최소)	6	60	2.2	18	180	3.0	10	100	2.3
	최대)	199	1,990	12.7	106	1,060	7.3	183	1,830	9.8
	평균)	47	471	5.8	47	471	4.8	47	471	5.5

〈표 8〉의 결과를 보면, 비례배분법은 층별 구성비는 모집단과 유사하나 시도별 기대 표본오차(sampling error)가 크고, 제공근 비례배분법의 경우 층별 구성비가 왜곡되는 반면, 시도별 기대 표본오차는 작다. 마지막으로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법은 층별 구성비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시도별 기대 표본오차도 작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법을 최종적으로 채택했다. 한편, 서울·경기의 권역, 동부/읍면 부, 동부 내 아파트/일반주택 층은 비례배분법을 적용하며, 최종 표본배분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1-22] 표본배분 결과

시도	집계구				가구				
	동부		읍면부	합계	동부		읍면부	합계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일반			
전국	387	266	147	800	3,870	2,660	1,470	8,000	
서울	64	69	-	133	640	690	-	1,330	
권역	북서부	9	14	-	23	90	140	-	230
	북동부	20	22	-	42	200	220	-	420
	남서부	19	21	-	40	190	210	-	400
	남동부	16	12	-	28	160	120	-	280
부산	30	22	-	52	300	220	-	520	
대구	23	16	-	39	230	160	-	390	
인천	27	19	-	46	270	190	-	460	
광주	18	8	-	26	180	80	-	260	
대전	16	10	-	26	160	100	-	260	
울산	13	8	-	21	130	80	-	210	
세종	8	2	-	10	80	20	-	100	
경기	99	53	30	182	990	530	300	1,820	
권역	중북부	61	34	17	112	610	340	170	1,120
	남부	38	19	13	70	380	190	130	700
강원	10	6	11	27	100	60	110	270	
충북	10	6	11	27	100	60	110	270	
충남	11	5	20	36	110	50	200	360	
전북	14	8	9	31	140	80	90	310	
전남	8	5	21	34	80	50	210	340	
경북	13	9	20	42	130	90	200	420	
경남	20	13	20	53	200	130	200	530	
제주	3	7	5	15	30	70	50	150	

## 사. 표본 추출

1차 층으로 시도(서울 4개 권역, 경기 2개 권역)와 동/읍면부를 결합하여 31개 층을 구분하고, 2차 층으로 아파트/일반 주택 특성을 결합하여 구성된 최종 52개 층에 대해 배분된 집계구를 추출한다(〈표 9〉 참고). 추출방식은 각 집락의 크기에 비례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PPS: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을 적용했으며, 여기서 집락은 집계구를, 집락의 크기는 각 집계구의 가구수를 의미한다. 또한 내재적 층화를 위해, 층 내 세부 지역(동읍면 코드)을 기준으로 정렬하였다. 집계구 내에서 가구를 체계적으로 추출하고, 가구 내에서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전수 조사하여 응답 가구원의 특성이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

## 아. 요일별 할당

2020년 예비조사 결과 행복감, 정서, 감정, 일상 재구성 등의 항목에서 측정기준 요일이 '월요일~목요일' 또는 '금요일~일요일'인지에 따라 응답 값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어, 본 조사 시 요일별 할당을 적용하여 '월요일~목요일'에 대한 기준 응답이 약 50%, '금요일~일요일'에 대한 기준 응답이 약 50% 정도 수집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 3 가중치 산출 및 추정

## 가. 설계가중치

가중치는 표본추출에 따른 추출률 차이와 응답률 및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통해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 구조를 일치시켜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조사에서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와 무응답 조정, 가구원수 보정, 가구원 추출률 보정, 최신 모집단 정보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현황 자료를 이용한 사후층화조정의 단계를 거쳐서 산출한다.

각 표본 집계구에 대한 표본 추출률의 역수와 표본 집계구에서 가구조사 착수율의 역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text{설계가중치} = \frac{S_h}{n_h S_{hi}} \times \frac{M_{hi}}{m_{hi}}$$

- 이때 원칙적으로는 각 층에서 표본 가구들은 모두 동일한 설계가중값을 갖지만, 실제 조사과정에서 표본 추출틀의 집계구 내 가구 수와 실제 가구 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계가중값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지만 비슷한 값을 갖게 됨

## 나. 무응답 조정계수

해당 지역 내 세부 층에서 조사 가구의 설계가중값은 원칙적으로 같지만, 실제 조사에서 10가구를 정확히 지키지 않은 집계구가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조정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text{응답률 조정계수} = \frac{m_{hi}}{r_{hi}}$$

## 다. 벤치마킹 조정계수

조사대상 연도의 모집단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도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시도별 (17)\*성(2)\*연령대(6)별 만 15세 인구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셀가중(cell weight) 방식으로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 라. 최종가중치

최종가중치 = 설계가중치 × 무응답 조정계수 × 벤치마킹 조정계수

※ 사용된 기호

- $n_h$  : 층  $h$ 의 표본 집계구 수
- $S_{hi}$  : 층  $h$ 의  $i$ 번째 집계구에 대한 크기의 측도(해당 집계구의 총 가구 수)
- $S_h = \sum_{i=1}^{N_h} S_{hi}$  : 층  $h$ 에서 크기의 측도에 대한 총합

- $M_{hi}$  : 층  $h$ 의  $i$ 번째 집계구 내 가구 수
- $m_{hi}$  : 층  $h$ 의  $i$ 번째 집계구 내 조사착수 가구 수
- $r_{hi}$  : 층  $h$ 의  $i$ 번째 표본집계구 내 조사완료 응답 가구 수

## 마. 추정

사후 층화(post-stratification)방법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 본 조사는 집락추출 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로 조사한 표본 구성 비율이 모집단 구성 비율과 차이가 있으므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치에 의한 사후 추정이 필요

$$w(k,s,h) = \frac{n(k,s,h)}{N(k,s,h)}$$

※ 사용된 기호

- $w(k,s,h)$  :  $(k,s,h)$ 셀의 가중치
- $N(k,s,h)$  :  $(k,s,h)$ 셀의 모집단 수
- $n(k,s,h)$  :  $(k,s,h)$ 셀의 표본 수
- $k$  : 연령을 나타내는 첨자 (10세 간격으로  $k=1\sim6$ )
- $s$  : 성을 나타내는 첨자 (남자/여자에 따라  $s=1\sim2$ )
- $h$  : 지역을 나타내는 첨자 (17개 시도에 따라  $h=1\sim17$ )

## 라. 표본오차

본 조사는 층화된 지역에서 집계구를 추출하고, 집계구에서 다시 가구를 추출하는 '2단계 집락추출(two-stage cluster sampling)'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전체 및 각 층별 추정치에 대한 표본오차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전체 추정치의 표본오차} = t_{\frac{\alpha}{2}} \sqrt{\widehat{\text{Var}}(\overline{y_{st}})}$$

$$\text{층별 추정치의 표본오차} = t_{\frac{\alpha}{2}} \sqrt{\widehat{\text{Var}}(y_h)}$$

- 이때, 전체 및 각 층별 모평균에 대한 분산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산출됨
- 각 층의 평균( $\overline{y_h}$ )에 대한 분산 추정량 산출 공식 :

$$\widehat{\text{Var}}(\overline{y_h}) = \left( \frac{N_h - n_h}{N_h} \right) \left( \frac{1}{n_h M_h^2} \right) s_{bh}^2 + \frac{1}{n_h N_h M_h^2} \sum_{i=1}^N M_{hi}^2 \left\{ \left( \frac{M_{hi} - m_{hi}}{M_{hi}} \right) \left( \frac{s_{hi}^2}{m_{hi}} \right) \right\}$$

- 전체 평균( $\overline{y_{st}}$ )에 대한 분산 추정량 산출 공식 :

$$\widehat{\text{Var}}(\overline{y_{st}}) = \sum_h W_h^2 \widehat{\text{Var}}(\overline{y_h}) = \sum_h W_h^2 \left[ \left( \frac{N_h - n_h}{N_h} \right) \left( \frac{1}{n_h M_h^2} \right) s_{bh}^2 + \frac{1}{n_h N_h M_h^2} \sum_{i=1}^N M_{hi}^2 \left( \frac{M_{hi} - m_{hi}}{M_{hi}} \right) \left( \frac{s_{hi}^2}{m_{hi}} \right) \right]$$

※ 사용된 기호

- $N_h$  :  $h$ 층 모집단 내 1차 추출단위의 수(primary sampling units : PSUs)
- $n_h$  :  $h$ 층에서 추출된 1차 추출단위의 수
- $M_h$  :  $h$ 층 모집단 내 2차 추출단위의 수(secondary sampling units : SSUs)
- $m_h$  :  $h$ 층에서 조사된 2차 추출단위의 수
- $\overline{y_h}$  :  $h$ 층의 표본 평균
- $y_{hij}$  :  $h$ 층의  $i$ 번째 집락에서 추출된  $j$ 번째 조사 단위
- $\overline{y_{hi}}$  :  $h$ 층의  $i$ 번째 집락의 표본 평균
- $t_{\frac{\alpha}{2}}$  : 유의수준  $\alpha$ 에서  $t$  분포값

## 제4절 조사과정 및 표본 특성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조사 과정

#### 가. 표본가구 접촉 결과

현장조사는 2021년 8월 21일(토)부터 10월 27일(수)까지 68일간 실시되었다. 총 8,162가구에서 17,357명이 조사에 참여했는데, 가구원 접촉에 성공한 전체 적격 가구 수(③+④+⑤) 대비 조사 성공 가구수(⑤)의 비율(협조율)은 36.0%이다.

[표 1-23] 표본가구 접촉 결과

구분	접촉 실패	접촉 성공				협조율
	① 부재	② 비적격 <sup>7)</sup>	③ 조사 불능 <sup>8)</sup>	④ 조사 불응	⑤ 조사 성공 <sup>9)</sup>	⑤/ (③+④+⑤)
전국	5,717	421	944	13,538	8,162	36.0%
서울	874	17	38	2,234	1,385	37.9%
부산	360	34	74	928	515	33.9%
대구	256	29	64	612	389	36.5%
인천	324	33	79	749	482	36.8%
광주	207	19	45	441	264	35.2%
대전	184	28	63	487	263	32.3%
울산	132	22	50	389	210	32.4%
세종	73	2	5	169	99	36.3%
경기	1,419	39	83	3,057	1,894	37.6%
강원	194	24	49	459	273	35.0%
충북	198	48	103	486	283	32.5%
충남	223	41	96	514	326	34.8%
전북	244	12	26	521	320	36.9%
전남	253	23	52	560	360	37.0%
경북	294	23	51	777	420	33.7%
경남	375	9	22	910	527	36.1%
제주	107	18	44	245	152	34.5%

7) 비혈연관계로 구성된 6인 이상의 집단가구

8) 장애, 고령, 외국인가구(언어소통 불가)

9) 조사 참여 의향을 밝힌 8,320가구 중 158가구는 현장조사 종료일 자정까지 단 한 명의 가구원도 가구대표 설문지에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 해당 가구의 데이터는 모두 무효로 처리하였다.

## 나. 표본가구원 접촉 결과

조사에 참여한 8,162가구에 거주하는 전체 가구원은 19,465명이다. 이 중 만 15세 이상 적격 가구원은 18,442명, 만 15세 미만 비적격 가구원은 1,023명으로 적격 가구원 비율은 94.7%이다. 적격 가구원 18,442명 중 17,357명이 조사에 참여했고, 나머지 1,085명은 조사에 불응했는데, 불응 사유는 ‘단순 거절’이 746명으로 가장 많았다.

[표 1-24] 표본가구원 접촉 결과

구분			가구원수(명)
전체			19,465
가구원 접촉 결과	적격 가구원	조사 참여	17,357
		조사 불응(장애, 고령)	135
		조사 불응(장기 부재)	204
		조사 불응(거절)	746
	비적격 가구원	만 15세 미만	1,023

### 다. 조사 참여 방법 및 요일

본 조사는 낮은 가구원 재택률, 비대면 조사 수요 등에 대비하여 비대면 웹(web)조사 방식을 병행하였는데, 비대면 웹조사 방식으로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조사표 기입 방법은 타계식 88.0%, 자계식 12.0%이며, 조사 성공 시까지의 조사원 방문 횟수는 '1회' 59.5%, '2회' 30.6%, '3회 이상' 9.9%이며, 평균 방문 횟수는 1.55회이다. 조사 이해도 및 협조도는 여타 가구 방문조사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답례품에 대한 만족도는 '상'이 24.6%에 그쳐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25] 조사 참여 경로

구 분	n	대면/유치(%)	비대면 웹(%)
전체	(17,357)	100.0	-

[표 1-26] 조사표 기입 방법

구 분	n	타계식	자계식
전체	(17,357)	88.0	12.0

[표 1-27] 가구 방문 횟수

구 분	n	1회(%)	2회(%)	3회(%)	4회 이상(%)	Mean(회)
전체	(17,357)	59.5	30.6	8.0	1.9	1.55

[표 1-28] 조사 참여 요일

구 분	n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전체	(17,357)	14.1	9.7	11.8	12.7	14.0	15.2	22.6

[표 1-29] 조사 이해도 / 조사 협조도 / 답례품 선호도

구 분	n	상(%)	중(%)	하(%)
조사 이해도	(17,357)	60.7	37.7	1.6
조사 협조도	(17,357)	55.1	42.4	2.5
답례품 만족도	(17,357)	24.6	52.0	23.5

## 2 표본 특성

### 가. 표본가구원 특성

유효표본 가구원 17,357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30>과 같다.

[표 1-30] 표본가구원 특성

구 분		가중전 사례수 (A)	A(%)	가중후 사례수 (B)	B(%)	가중값배율 (B/A)
전체		(17,357)	100.0	(17,357)	100.0	1.0
조사참여 요일	화~금	(8,351)	48.1	(8,521)	49.1	1.0
	토~월	(9,006)	51.9	(8,836)	50.9	1.0
성별	남자	(8,379)	48.3	(8,615)	49.6	1.0
	여자	(8,978)	51.7	(8,742)	50.4	1.0
연령별	15~19세	(820)	4.7	(871)	5.0	1.1
	20대	(2,206)	12.7	(2,550)	14.7	1.2
	30대	(2,315)	13.3	(2,576)	14.8	1.1
	40대	(2,777)	16.0	(3,123)	18.0	1.1
	50대	(3,646)	21.0	(3,304)	19.0	0.9
	60대 이상	(5,593)	32.2	(4,933)	28.4	0.9
지역별	서울	(3,239)	18.7	(3,301)	19.0	1.0
	부산	(1,102)	6.3	(1,155)	6.7	1.0
	대구	(709)	4.1	(800)	4.6	1.1
	인천	(1,103)	6.4	(996)	5.7	0.9
	광주	(563)	3.2	(483)	2.8	0.9
	대전	(501)	2.9	(490)	2.8	1.0
	울산	(448)	2.6	(375)	2.2	0.8
	세종	(198)	1.1	(114)	0.7	0.6
	경기	(4,408)	25.4	(4,404)	25.4	1.0
	강원	(540)	3.1	(526)	3.0	1.0
	충북	(490)	2.8	(540)	3.1	1.1
	충남	(565)	3.3	(711)	4.1	1.3
	전북	(624)	3.6	(602)	3.5	1.0
	전남	(714)	4.1	(627)	3.6	0.9
	경북	(728)	4.2	(894)	5.2	1.2
	경남	(1,110)	6.4	(1,116)	6.4	1.0
제주	(315)	1.8	(224)	1.3	0.7	



구 분		가중전 사례수 (A)	A(%)	가중후 사례수 (B)	B(%)	가중값배율 (B/A)
혼인상태	미혼	(4,599)	26.5	(5,170)	29.8	1.1
	기혼	(10,821)	62.3	(10,451)	60.2	1.0
	사별/이혼/별거	(1,937)	11.2	(1,736)	10.0	0.9
최종학력	중졸 이하	(3144)	18.1	(2863)	16.5	0.9
	고졸	(5590)	32.2	(5401)	31.1	1.0
	대재 이상	(8623)	49.7	(9093)	52.4	1.1
직업유무	있다	(11,484)	66.2	(11,617)	66.9	1.0
	없다	(5,873)	33.8	(5,740)	33.1	1.0
직업유형	관리/전문직	(715)	4.1	(702)	4.0	1.0
	사무직	(3,022)	17.4	(3,185)	18.4	1.1
	서비스직	(2,689)	15.5	(2,773)	16.0	1.0
	판매직	(2,227)	12.8	(2,209)	12.7	1.0
	기타	(8,704)	50.1	(8,487)	48.9	1.0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7,175)	65.6	(7,488)	67.4	1.0
	자영업자	(3,155)	28.9	(3,084)	27.8	1.0
	무급가족종사자	(603)	5.5	(538)	4.8	0.9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5,783)	80.6	(6,093)	81.4	1.1
	임시/일용근로자	(1,392)	19.4	(1,395)	18.6	1.0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96)	24.2	(4,150)	23.9	1.0
	200만원 미만	(4,389)	25.3	(4,187)	24.1	1.0
	200~300만원 미만	(4,240)	24.4	(4,397)	25.3	1.0
	300~400만원 미만	(2,810)	16.2	(2,925)	16.9	1.0
	400만원 이상	(1,722)	9.9	(1,697)	9.8	1.0
건강상태	좋음	(10,516)	60.6	(10,989)	63.3	1.0
	보통	(5,369)	30.9	(5,051)	29.1	0.9
	나쁨	(1,472)	8.5	(1,317)	7.6	0.9
만성질환 유무	있다	(3,296)	19.0	(2,949)	17.0	0.9
	없다	(14,061)	81.0	(14,408)	83.0	1.0
장애유무	있다	(239)	1.4	(221)	1.3	0.9
	없다	(17,118)	98.6	(17,136)	98.7	1.0
종교유무	있다	(5,294)	30.5	(5,073)	29.2	1.0
	없다	(12,063)	69.5	(12,284)	70.8	1.0
정치성향	진보(1~4)	(4,664)	26.9	(4,787)	27.6	1.0
	중도(5~6)	(5,883)	33.9	(5,920)	34.1	1.0
	보수(7~10)	(6,810)	39.2	(6,650)	38.3	1.0

## 나. 표본가구 특성

유효표본 가구 8,162개의 가구 특성 및 모집단 현황은 <표 1-31>과 같다.

[표 1-31] 표본가구 특성

구 분		모집단가구수 (A) <sup>10)</sup>	비율(%)	표본가구수 (B)	비율(%)
전체		20,926,710	100.0	(8,162)	100.0
가구원수	1인	6,643,354	31.7	(2,056)	25.2
	2인 이상	14,283,356	68.3	(6,106)	74.8
주택유형	단독주택	6,354,329	30.4	(2,761)	33.8
	아파트	10,780,401	51.5	(4,168)	51.1
	연립/다세대/기타	3,791,980	18.1	(1,233)	15.1
기초생활 수급여부	해당	1,459,059	7.0	(279)	3.4
	비해당	19,467,651	93.0	(7,883)	96.6
다문화가정 여부	해당	367,775	1.8	(40)	0.5
	비해당	20,558,935	98.2	(8,122)	99.5
가구소득	소득 없음	2021년 2분기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4,286,962원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94)	1.2
	200만원 미만		(1,632)	20.0	
	200~300만원 미만		(1,338)	16.4	
	300~400만원 미만		(1,460)	17.9	
	400~500만원 미만		(1,245)	15.3	
	500~600만원 미만		(1,118)	13.7	
	600만원 이상		(1,275)	15.6	

10) 제시된 모집단 정보는 통계청의 인구총조사(2020) 자료에 근거함

# 제2장

## 행복

---

제1절 전반적 행복감

제2절 삶의 의미, 성취감, 인생 결정 자유

제3절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 제 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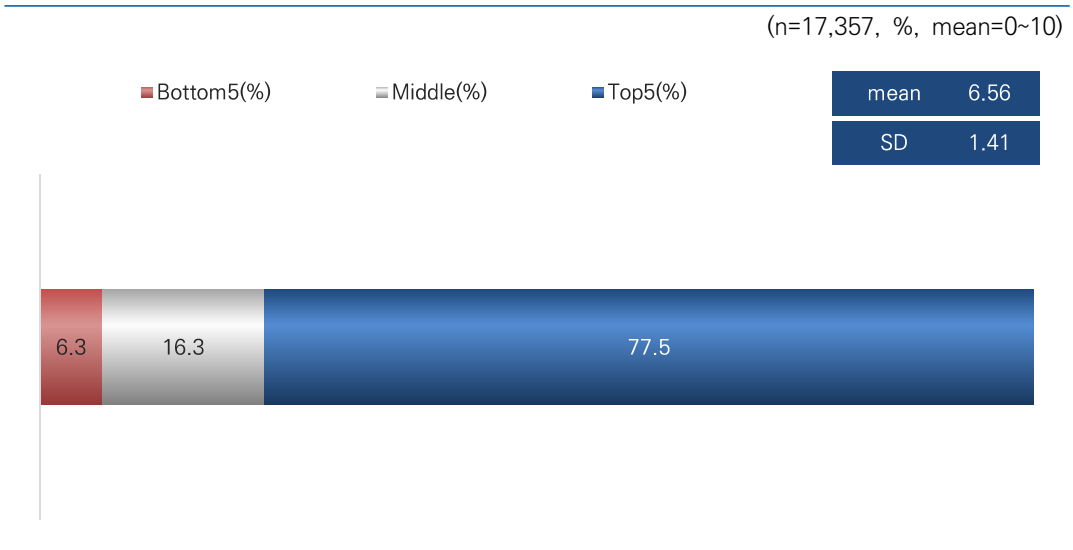
# 전반적 행복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전반적 행복감

#### 가. 전체 분석

‘전반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응답자의 77.5%는 6점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4점 이하 응답은 6.3%로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 행복감을 평균으로 환산하면 6.56점이다.



[그림 2-1] 전반적 행복감

## 나. 특성별 분석

전반적 행복감은 성별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별로 30대의 행복감이 6.77점으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6.27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7.28점), 부산(7.09점), 인천(6.83점) 순으로 행복감이 높았으며, 강원(5.98점)의 행복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6.18점), 직업 없음(6.42점), 무급가족종사자(6.48점), 임시/일용근로자(6.31점), 건강상태 나쁨(5.45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6.26점), 사별/이혼/별거(5.97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전반적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1인 가구(6.22점), 월세/사글세/무상(6.17점), 기초생활수급가구(5.35점), 다문화가정(6.32점), 가구소득 없음(5.50점) 등에서 전반적 행복감이 낮게 나타났다.

[표 2-1] 전반적 행복감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6.3	16.3	77.5	6.56
성별	남자	(8615)	6.3	17.3	76.4	6.54
	여자	(8742)	6.3	15.3	78.5	6.59
연령별	15~19	(871)	6.4	13.6	80.1	6.60
	20대	(2550)	3.9	13.2	82.9	6.74
	30대	(2576)	4.0	11.8	84.2	6.77
	40대	(3123)	5.2	14.6	80.2	6.68
	50대	(3304)	5.5	16.7	77.8	6.59
	60대 이상	(4933)	10.0	21.3	68.7	6.27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지역별	서울	(3301)	5.5	13.8	80.7	6.59
	부산	(1155)	4.0	8.2	87.8	7.09
	대구	(800)	3.8	18.4	77.8	6.52
	인천	(996)	4.0	15.0	81.0	6.83
	광주	(483)	3.9	21.1	75.0	6.60
	대전	(490)	6.4	13.1	80.5	6.69
	울산	(375)	2.4	13.0	84.6	6.67
	세종	(114)	5.8	13.3	80.8	6.60
	경기	(4404)	8.3	17.2	74.5	6.36
	강원	(526)	11.1	26.0	62.9	5.98
	충북	(540)	6.8	24.7	68.5	6.53
	충남	(711)	6.8	18.8	74.4	6.39
	전북	(602)	12.2	24.1	63.7	6.30
	전남	(627)	4.9	11.1	84.1	6.69
	경북	(894)	6.9	28.3	64.8	6.15
	경남	(1116)	2.8	5.5	91.7	7.28
	제주	(224)	8.9	24.4	66.8	6.28
학력	중졸 이하	(2863)	10.6	22.8	66.6	6.18
	고졸	(5401)	6.7	18.0	75.3	6.49
	대재 이상	(9093)	4.7	13.1	82.2	6.73
직업유무	있다	(11617)	4.9	15.7	79.5	6.64
	없다	(5740)	9.2	17.4	73.4	6.42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4.2	14.6	81.2	6.69
	자영업자	(3084)	6.3	17.4	76.3	6.55
	무급가족종사자	(538)	7.4	20.5	72.1	6.48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3.2	13.0	83.8	6.78
	임시/일용근로자	(1395)	8.6	21.8	69.7	6.31
건강상태	좋음	(10989)	2.8	11.2	85.9	6.88
	보통	(5051)	8.9	23.9	67.2	6.18
	나쁨	(1317)	25.0	29.0	46.1	5.45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6.4	15.6	78.0	6.58
	200만원 미만	(4187)	11.0	20.4	68.6	6.26
	200~300만원 미만	(4397)	4.4	14.6	81.0	6.65
	300~400만원 미만	(2925)	3.8	15.4	80.8	6.69
	400만원 이상	(1697)	3.6	13.3	83.1	6.85
혼인상태	미혼	(5170)	5.1	14.8	80.1	6.61
	기혼	(10451)	5.4	15.6	79.0	6.64
	사별/이혼/별거	(1736)	15.4	24.6	60.0	5.97
가구원수	1인	(1936)	11.7	21.5	66.8	6.22
	2인 이상	(15421)	5.6	15.6	78.8	6.61
주거형태	자가	(14022)	5.7	15.8	78.5	6.61
	전세	(2209)	7.2	14.8	78.0	6.51
	월세/사글세/무상	(1126)	11.2	25.2	63.6	6.17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6.7	17.9	75.3	6.49
	아파트	(8442)	5.7	15.0	79.3	6.65
	연립/다세대/기타	(3130)	7.2	16.4	76.4	6.45
기초생활수급	해당	(458)	25.7	32.8	41.6	5.35
	비해당	(16899)	5.8	15.8	78.4	6.60
다문화가정	해당	(100)	15.8	15.4	68.8	6.32
	비해당	(17257)	6.2	16.3	77.5	6.57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19.6	30.5	50.0	5.50
	200만원 미만	(2096)	15.7	26.4	57.9	5.92
	200~300만원 미만	(2038)	9.1	20.9	69.9	6.31
	300~400만원 미만	(2908)	5.6	17.2	77.2	6.57
	400~500만원 미만	(3072)	4.6	15.6	79.9	6.67
	500~600만원 미만	(3149)	4.2	11.8	84.0	6.79
	600만원 이상	(3941)	2.8	11.3	85.9	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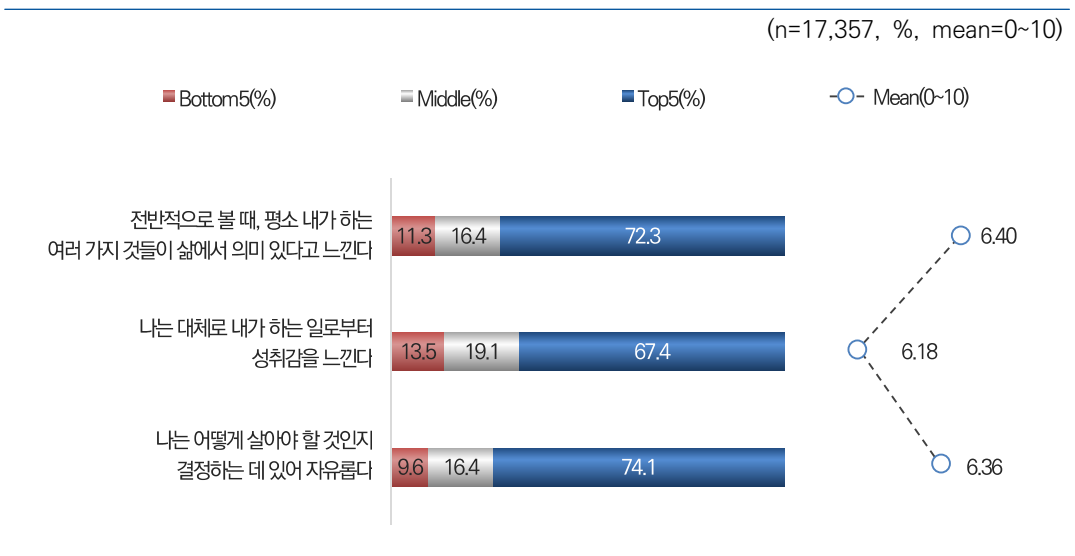
## 제2절

# 삶의 의미, 성취감, 인생 결정 자유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0 종합 분석

‘전반적으로 볼 때, 평소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삶에서 의미 있다고 느낀다’에 대한 동의 정도가 6.40점으로 가장 높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롭다’(6.36점), ‘나는 대체로 내가 하는 일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6.18점)가 뒤를 이었다.



[그림 2-2] 삶의 의미, 성취감, 인생 결정 자유

## 1 삶의 의미

### 가. 전체 분석

‘평소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삶에서 의미 있다고 느낀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74.1%는 6점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9.6%는 4점 이하로 응답했다. 동의 정도를 평균으로 환산하면 6.40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전반적으로 볼 때, 평소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삶에서 의미 있다고 느낀다’ 항목은 성별로 여자(6.39점)보다 남자(6.41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6.61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6.07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경남(7.20점), 부산(7.11점), 인천(6.77점) 순으로 높고, 강원(5.84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5.96점), 직업 없음(6.20점), 무급가족종사자(6.26점), 임시/일용근로자(6.20점), 건강상태 나쁨(5.21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6.08점), 사별/이혼/별거(5.78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1인 가구(6.04점), 월세/사글세/무상(6.00점), 기초생활수급가구(5.05점), 다문화가정(5.95점), 가구소득 없음(5.13점) 등에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2-2] 전반적으로 볼 때, 평소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삶에서 의미 있다고 느낀다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9.6	16.4	74.1	6.40
전반적 행복도	행복하지 않다(0~4)	(1092)	68.9	19.9	11.2	3.86
	보통이다(5)	(2821)	18.4	48.1	33.5	5.25
	행복하다(6~10)	(13443)	2.9	9.4	87.7	6.85
성별	남자	(8615)	9.4	16.6	74.0	6.41
	여자	(8742)	9.7	16.1	74.2	6.39
연령별	15~19	(871)	8.4	16.1	75.4	6.40
	20대	(2550)	7.1	14.2	78.7	6.57
	30대	(2576)	6.3	12.8	80.9	6.61
	40대	(3123)	8.0	14.8	77.2	6.56
	50대	(3304)	8.8	15.8	75.4	6.44
	60대 이상	(4933)	14.3	20.7	65.0	6.07
지역별	서울	(3301)	8.7	13.6	77.7	6.44
	부산	(1155)	4.7	7.3	87.9	7.11
	대구	(800)	6.8	18.8	74.4	6.30
	인천	(996)	8.3	10.5	81.2	6.77
	광주	(483)	4.8	22.3	72.9	6.57
	대전	(490)	11.1	21.5	67.4	6.35
	울산	(375)	4.9	16.5	78.6	6.48
	세종	(114)	4.6	18.3	77.1	6.36
	경기	(4404)	12.6	15.5	71.9	6.17
	강원	(526)	16.6	24.5	58.9	5.84
	충북	(540)	9.0	24.6	66.5	6.30
	충남	(711)	12.2	22.3	65.5	5.94
	전북	(602)	15.8	25.1	59.1	6.07
	전남	(627)	6.0	18.3	75.7	6.52
	경북	(894)	13.0	28.8	58.2	5.97
	경남	(1116)	2.8	6.5	90.7	7.20
	제주	(224)	9.6	25.3	65.1	6.16
학력	중졸 이하	(2863)	15.1	23.3	61.6	5.96
	고졸	(5401)	10.5	17.5	72.0	6.30
	대재 이상	(9093)	7.3	13.5	79.2	6.59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8.0	15.3	76.7	6.50
	없다	(5740)	12.7	18.6	68.7	6.2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7.2	14.2	78.6	6.55
	자영업자	(3084)	8.1	16.5	75.4	6.47
	무급가족종사자	(538)	13.4	17.7	68.9	6.26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6.1	12.9	81.0	6.63
	임시/일용근로자	(1395)	12.2	19.8	68.0	6.20
건강상태	좋음	(10989)	5.1	12.0	82.9	6.73
	보통	(5051)	14.0	23.0	63.1	5.99
	나쁨	(1317)	30.1	27.2	42.7	5.21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0.0	16.7	73.3	6.35
	200만원 미만	(4187)	14.5	21.1	64.4	6.08
	200~300만원 미만	(4397)	7.4	14.7	77.8	6.50
	300~400만원 미만	(2925)	7.0	14.2	78.9	6.58
	400만원 이상	(1697)	6.3	11.8	81.8	6.73
혼인상태	미혼	(5170)	8.2	15.8	76.0	6.45
	기혼	(10451)	8.6	15.3	76.1	6.47
	사별/이혼/별거	(1736)	19.1	24.4	56.5	5.78
가구원수	1인	(1936)	15.1	21.8	63.2	6.04
	2인 이상	(15421)	8.9	15.7	75.5	6.44
주거형태	자가	(14022)	9.1	16.0	74.9	6.43
	전세	(2209)	10.0	14.8	75.2	6.38
	월세/사글세/무상	(1126)	14.8	23.9	61.2	6.00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11.4	18.4	70.2	6.26
	아파트	(8442)	8.0	15.7	76.3	6.53
	연립/다세대/기타	(3130)	10.4	14.4	75.2	6.30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32.3	28.7	39.0	5.05
	비해당	(16899)	8.9	16.0	75.0	6.43
다문화가정	해당	(100)	17.6	17.8	64.6	5.95
	비해당	(17257)	9.5	16.3	74.1	6.40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34.2	24.4	41.4	5.13
	200만원 미만	(2096)	21.2	27.6	51.2	5.65
	200~300만원 미만	(2038)	13.5	20.2	66.3	6.14
	300~400만원 미만	(2908)	8.7	16.1	75.2	6.45
	400~500만원 미만	(3072)	7.1	14.7	78.2	6.56
	500~600만원 미만	(3149)	6.1	13.2	80.7	6.61
	600만원 이상	(3941)	5.7	12.0	82.2	6.65

## 2 성취감

### 가. 전체 분석

‘나는 대체로 내가 하는 일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67.4%는 6점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13.5%는 4점 이하로 응답했다. 동의 정도를 평균으로 환산하면 6.18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나는 대체로 내가 하는 일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 항목은 성별로 여자(6.14점)보다 남자(6.23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6.49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5.82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경남(6.79점), 부산(6.73점), 인천(6.49점) 순으로 높고, 대구(5.77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5.66점), 직업 없음(5.86점), 무급가족종사자(6.17점), 임시/일용근로자(6.02점), 건강상태 나쁨(4.97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5.82점), 사별/이혼/별거(5.51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1인 가구(5.84점), 월세/사글세/무상(5.85점), 기초생활수급가구(4.79점), 다문화가정(5.88점), 가구소득 없음(5.15점) 등에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2-3] 나는 대체로 내가 하는 일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13.5	19.1	67.4	6.18
전반적 행복도	행복하지 않다(0~4)	(1092)	72.9	16.6	10.5	3.73
	보통이다(5)	(2821)	29.1	40.0	30.9	5.05
	행복하다(6~10)	(13443)	5.4	14.9	79.7	6.62
성별	남자	(8615)	13.0	18.0	68.9	6.23
	여자	(8742)	14.0	20.1	65.9	6.14
연령별	15~19	(871)	12.5	19.8	67.7	6.12
	20대	(2550)	11.4	18.2	70.4	6.32
	30대	(2576)	8.5	15.9	75.7	6.49
	40대	(3123)	10.1	17.0	72.8	6.39
	50대	(3304)	13.0	18.3	68.7	6.22
	60대 이상	(4933)	19.9	22.9	57.2	5.82
지역별	서울	(3301)	13.3	15.5	71.2	6.26
	부산	(1155)	7.3	13.4	79.4	6.73
	대구	(800)	13.7	28.1	58.2	5.77
	인천	(996)	10.9	14.0	75.1	6.49
	광주	(483)	11.9	28.3	59.8	6.15
	대전	(490)	13.1	21.5	65.5	6.33
	울산	(375)	6.8	17.4	75.8	6.37
	세종	(114)	3.6	21.5	74.8	6.30
	경기	(4404)	16.6	20.2	63.2	5.96
	강원	(526)	17.2	22.8	60.0	5.96
	충북	(540)	20.7	19.0	60.2	6.10
	충남	(711)	12.1	22.6	65.4	5.98
	전북	(602)	18.9	26.2	54.9	5.92
	전남	(627)	8.8	21.9	69.3	6.42
	경북	(894)	19.2	23.5	57.3	5.78
	경남	(1116)	6.6	10.3	83.1	6.79
제주	(224)	10.0	23.6	66.4	6.19	
학력	중졸 이하	(2863)	22.1	24.3	53.6	5.66
	고졸	(5401)	14.9	20.9	64.1	6.07
	대재 이상	(9093)	10.0	16.3	73.7	6.42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11.1	17.3	71.7	6.34
	없다	(5740)	18.5	22.7	58.8	5.86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10.2	16.9	73.0	6.41
	자영업자	(3084)	12.1	17.1	70.8	6.28
	무급가족종사자	(538)	15.9	16.9	67.3	6.17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8.7	15.8	75.5	6.50
	임시/일용근로자	(1395)	16.7	21.5	61.8	6.02
건강상태	좋음	(10989)	8.2	15.6	76.2	6.51
	보통	(5051)	19.2	25.0	55.8	5.78
	나쁨	(1317)	36.5	25.3	38.2	4.97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4.9	21.8	63.3	6.04
	200만원 미만	(4187)	19.9	22.4	57.7	5.82
	200~300만원 미만	(4397)	10.4	17.6	71.9	6.34
	300~400만원 미만	(2925)	10.0	16.3	73.7	6.43
	400만원 이상	(1697)	8.4	12.8	78.8	6.60
혼인상태	미혼	(5170)	11.7	19.0	69.3	6.26
	기혼	(10451)	12.5	18.1	69.4	6.26
	사별/이혼/별거	(1736)	25.1	25.4	49.5	5.51
가구원수	1인	(1936)	19.0	22.5	58.4	5.84
	2인 이상	(15421)	12.8	18.6	68.5	6.23
주거형태	자가	(14022)	13.1	18.8	68.1	6.21
	전세	(2209)	13.7	18.3	68.0	6.19
	월세/사글세/무상	(1126)	18.8	23.8	57.4	5.85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14.6	21.1	64.3	6.07
	아파트	(8442)	12.1	17.9	70.0	6.30
	연립/다세대/기타	(3130)	15.3	18.6	66.1	6.08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40.4	24.4	35.2	4.79
	비해당	(16899)	12.8	18.9	68.3	6.22
다문화가정	해당	(100)	19.6	19.9	60.6	5.88
	비해당	(17257)	13.5	19.1	67.4	6.19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28.6	31.7	39.7	5.15
	200만원 미만	(2096)	27.3	26.8	45.9	5.40
	200~300만원 미만	(2038)	17.9	21.6	60.5	5.96
	300~400만원 미만	(2908)	12.0	19.0	69.0	6.23
	400~500만원 미만	(3072)	10.8	17.5	71.6	6.31
	500~600만원 미만	(3149)	9.6	16.8	73.6	6.42
	600만원 이상	(3941)	9.7	16.2	74.1	6.43

### 3 인생 결정 자유

#### 가. 전체 분석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롭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72.3%는 6점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11.3%는 4점 이하로 응답했다. 동의 정도를 평균으로 환산하면 6.36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롭다’ 항목은 성별로 여자(6.32점)보다 남자(6.40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6.58점)가 가장 높고, 15~19세(6.12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경남(6.85점), 부산(6.84점), 인천(6.50점) 순으로 높고, 충남(5.92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5.99점), 직업 없음(6.14점), 무급가족종사자(6.15점), 임시/일용근로자(6.24점), 건강상태 나쁨(5.35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6.13점), 사별/이혼/별거(6.08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월세/사글세/무상(6.15점), 기초생활수급가구(5.20점), 다문화가정(5.94점), 가구소득 없음(5.21점) 등에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2-4]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롭다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11.3	16.4	72.3	6.36
전반적 행복도	행복하지 않다(0~4)	(1092)	63.1	17.1	19.7	4.12
	보통이다(5)	(2821)	20.1	37.5	42.4	5.44
	행복하다(6~10)	(13443)	5.2	11.9	82.9	6.73
성별	남자	(8615)	10.7	16.0	73.3	6.40
	여자	(8742)	11.9	16.8	71.3	6.32
연령별	15~19	(871)	15.0	17.8	67.2	6.12
	20대	(2550)	8.8	13.7	77.5	6.58
	30대	(2576)	8.0	14.2	77.9	6.55
	40대	(3123)	10.8	14.9	74.3	6.43
	50대	(3304)	10.7	16.2	73.1	6.37
	60대 이상	(4933)	14.4	19.8	65.8	6.14
지역별	서울	(3301)	11.8	13.5	74.7	6.40
	부산	(1155)	6.4	10.2	83.4	6.84
	대구	(800)	12.4	24.0	63.6	5.96
	인천	(996)	9.2	15.2	75.7	6.50
	광주	(483)	14.8	21.2	64.0	6.38
	대전	(490)	8.4	18.1	73.5	6.51
	울산	(375)	8.3	16.7	75.0	6.36
	세종	(114)	2.7	21.6	75.7	6.39
	경기	(4404)	13.1	15.1	71.9	6.22
	강원	(526)	16.2	20.4	63.4	6.07
	충북	(540)	8.8	22.3	69.0	6.47
	충남	(711)	12.2	25.0	62.8	5.92
	전북	(602)	12.4	22.1	65.4	6.35
	전남	(627)	6.4	19.2	74.4	6.65
	경북	(894)	15.8	22.7	61.5	6.01
	경남	(1116)	7.9	7.8	84.3	6.85
	제주	(224)	9.3	22.7	68.0	6.28
학력	중졸 이하	(2863)	16.2	21.9	61.9	5.99
	고졸	(5401)	12.1	16.8	71.1	6.27
	대재 이상	(9093)	9.2	14.4	76.3	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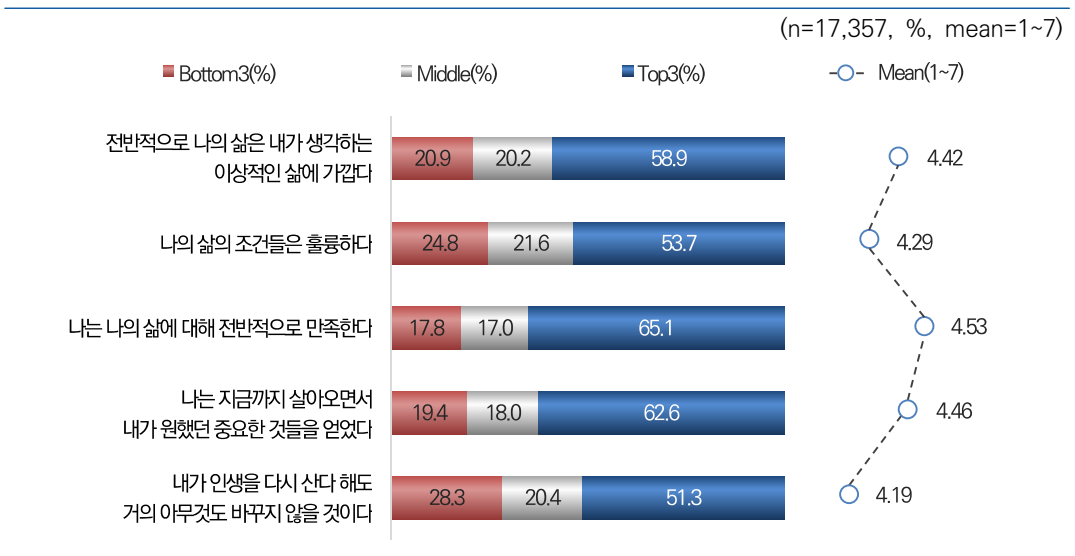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9.4	15.3	75.2	6.47
	없다	(5740)	15.0	18.5	66.4	6.14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8.9	14.6	76.5	6.51
	자영업자	(3084)	9.2	14.8	76.0	6.50
	무급가족종사자	(538)	14.7	20.8	64.6	6.15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7.7	13.9	78.4	6.58
	임시/일용근로자	(1395)	13.9	17.7	68.5	6.24
건강상태	좋음	(10989)	7.3	12.8	79.9	6.64
	보통	(5051)	14.9	22.3	62.8	6.01
	나쁨	(1317)	30.5	23.8	45.7	5.3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3.5	17.5	69.1	6.21
	200만원 미만	(4187)	15.4	19.8	64.8	6.13
	200~300만원 미만	(4397)	8.3	13.8	77.9	6.54
	300~400만원 미만	(2925)	8.6	15.2	76.2	6.49
	400만원 이상	(1697)	8.2	14.3	77.5	6.60
혼인상태	미혼	(5170)	9.4	14.9	75.7	6.48
	기혼	(10451)	11.3	16.5	72.2	6.35
	사별/이혼/별거	(1736)	16.6	20.3	63.1	6.08
가구원수	1인	(1936)	11.7	15.8	72.5	6.44
	2인 이상	(15421)	11.2	16.5	72.3	6.35
주거형태	자가	(14022)	10.5	16.5	73.0	6.38
	전세	(2209)	13.7	14.1	72.2	6.31
	월세/사글세/무상	(1126)	16.4	19.5	64.1	6.15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11.5	19.1	69.4	6.29
	아파트	(8442)	10.7	15.5	73.8	6.42
	연립/다세대/기타	(3130)	12.5	13.8	73.7	6.33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34.4	22.8	42.8	5.20
	비해당	(16899)	10.7	16.2	73.1	6.39
다문화가정	해당	(100)	17.0	22.9	60.1	5.94
	비해당	(17257)	11.3	16.4	72.4	6.36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29.5	26.4	44.1	5.21
	200만원 미만	(2096)	18.9	23.9	57.2	5.91
	200~300만원 미만	(2038)	14.3	16.8	68.9	6.24
	300~400만원 미만	(2908)	11.0	15.8	73.2	6.35
	400~500만원 미만	(3072)	9.4	15.1	75.4	6.49
	500~600만원 미만	(3149)	9.1	14.1	76.8	6.47
	600만원 이상	(3941)	8.3	15.1	76.6	6.53

## 제3절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0 종합 분석

‘나는 나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가 4.5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했던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4.46점),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4.42점), ‘나의 삶의 조건들은 훌륭하다’(4.29점),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 해도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4.19점)의 순이다.



[그림 2-3]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 1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

### 가. 전체 분석

‘나는 대체로 내가 하는 일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58.9%는 5점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20.9%는 3점 이하로 응답했다. 동의 정도를 평균으로 환산하면 4.42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나는 대체로 내가 하는 일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 항목은 성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4.57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4.23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울산(4.72점), 부산(4.65점), 세종(4.60점) 순으로 높고, 전북(3.89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4.16점), 직업 없음(4.35점), 무급가족종사자(4.13점), 임시/일용근로자(4.20점), 건강상태 나쁨(3.70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4.18점), 사별/이혼/별거(4.01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1인 가구(4.17점), 월세/사글세/무상(4.06점), 기초생활수급가구(3.61점), 다문화가정(4.18점), 가구소득 없음(3.97점) 등에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2-5]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1~7)
전체		(17357)	20.9	20.2	58.9	4.42
전반적 행복도	행복하지 않다(0~4)	(1092)	79.9	12.4	7.8	2.97
	보통이다(5)	(2821)	38.4	39.6	22.1	3.80
	행복하다(6~10)	(13443)	12.5	16.8	70.8	4.67
성별	남자	(8615)	20.9	20.1	59.0	4.43
	여자	(8742)	20.9	20.3	58.8	4.42
연령별	15~19	(871)	15.3	20.4	64.3	4.56
	20대	(2550)	18.1	19.8	62.0	4.49
	30대	(2576)	15.9	17.6	66.6	4.57
	40대	(3123)	18.9	18.8	62.3	4.49
	50대	(3304)	20.0	20.8	59.2	4.45
	60대 이상	(4933)	27.9	22.2	49.9	4.23
지역별	서울	(3301)	19.2	20.0	60.7	4.47
	부산	(1155)	18.1	12.9	69.0	4.65
	대구	(800)	21.7	23.4	55.0	4.37
	인천	(996)	19.0	13.5	67.5	4.57
	광주	(483)	21.2	28.8	50.0	4.32
	대전	(490)	20.5	28.5	51.1	4.32
	울산	(375)	9.6	19.6	70.8	4.72
	세종	(114)	12.0	27.5	60.5	4.60
	경기	(4404)	21.3	18.2	60.4	4.43
	강원	(526)	24.9	22.0	53.1	4.29
	충북	(540)	24.0	25.3	50.8	4.18
	충남	(711)	18.5	22.5	59.0	4.43
	전북	(602)	36.9	27.1	36.0	3.89
	전남	(627)	19.2	25.6	55.2	4.40
	경북	(894)	25.4	30.2	44.4	4.19
	경남	(1116)	20.4	11.7	67.9	4.57
제주	(224)	19.7	22.4	57.9	4.33	
학력	중졸 이하	(2863)	29.1	24.8	46.1	4.16
	고졸	(5401)	22.5	21.8	55.7	4.37
	대재 이상	(9093)	17.4	17.8	64.8	4.54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1~7)
직업유무	있다	(11617)	19.5	19.6	60.8	4.46
	없다	(5740)	23.7	21.3	54.9	4.35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17.8	19.0	63.1	4.51
	자영업자	(3084)	22.0	20.3	57.7	4.39
	무급가족종사자	(538)	30.1	26.0	43.9	4.13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15.6	17.9	66.5	4.58
	임시/일용근로자	(1395)	27.7	24.0	48.3	4.20
건강상태	좋음	(10989)	16.1	18.0	65.9	4.58
	보통	(5051)	24.7	24.5	50.9	4.28
	나쁨	(1317)	46.9	21.8	31.3	3.70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20.2	21.0	58.8	4.45
	200만원 미만	(4187)	29.1	23.2	47.7	4.18
	200~300만원 미만	(4397)	18.1	19.2	62.7	4.50
	300~400만원 미만	(2925)	17.0	18.4	64.6	4.53
	400만원 이상	(1697)	16.5	16.3	67.2	4.58
혼인상태	미혼	(5170)	18.4	19.9	61.6	4.48
	기혼	(10451)	19.7	20.0	60.2	4.46
	사별/이혼/별거	(1736)	35.3	22.1	42.6	4.01
가구원수	1인	(1936)	30.2	20.2	49.6	4.17
	2인 이상	(15421)	19.8	20.2	60.1	4.46
주거형태	자가	(14022)	20.1	20.4	59.5	4.45
	전세	(2209)	20.1	17.2	62.7	4.47
	월세/사글세/무상	(1126)	32.9	23.5	43.6	4.06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23.1	22.7	54.2	4.34
	아파트	(8442)	19.7	18.7	61.6	4.46
	연립/다세대/기타	(3130)	20.2	19.6	60.1	4.47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50.2	20.8	29.0	3.61
	비해당	(16899)	20.1	20.2	59.7	4.45
다문화가정	해당	(100)	31.1	15.8	53.1	4.18
	비해당	(17257)	20.9	20.2	58.9	4.42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39.5	18.3	42.2	3.97
	200만원 미만	(2096)	37.5	25.7	36.8	3.93
	200~300만원 미만	(2038)	26.7	21.7	51.6	4.29
	300~400만원 미만	(2908)	20.8	21.5	57.7	4.40
	400~500만원 미만	(3072)	17.9	20.1	62.1	4.51
	500~600만원 미만	(3149)	16.5	18.8	64.7	4.54
	600만원 이상	(3941)	14.4	16.8	68.8	4.63

## 2 나의 삶의 조건들은 훌륭하다

### 가. 전체 분석

‘나의 삶의 조건들은 훌륭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53.7%는 5점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24.8%는 3점 이하로 응답했다. 동의 정도를 평균으로 환산하면 4.29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나의 삶의 조건들은 훌륭하다’ 항목은 성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4.46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4.10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울산(4.62점), 세종(4.55점), 전남(4.45점) 순으로 높고, 전북(3.91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4.06점), 직업 없음(4.20점), 무급가족종사자(4.10점), 임시/일용근로자(4.06점), 건강상태 나쁨(3.63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4.05점), 사별/이혼/별거(3.90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1인 가구(4.07점), 월세/사글세/무상(3.85점), 기초생활수급가구(3.47점), 다문화가정(4.19점), 가구소득 없음(3.79점) 등에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2-6] 나의 삶의 조건들은 훌륭하다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1~7)
전체		(17357)	24.8	21.6	53.7	4.29
전반적 행복도	행복하지 않다(0~4)	(1092)	79.1	14.1	6.8	2.89
	보통이다(5)	(2821)	42.7	35.6	21.7	3.72
	행복하다(6~10)	(13443)	16.6	19.3	64.2	4.52
성별	남자	(8615)	24.6	21.3	54.1	4.29
	여자	(8742)	24.9	21.9	53.3	4.28
연령별	15~19	(871)	20.2	23.1	56.7	4.39
	20대	(2550)	21.5	21.3	57.1	4.37
	30대	(2576)	18.9	20.1	61.0	4.46
	40대	(3123)	23.2	20.5	56.3	4.32
	50대	(3304)	24.7	20.1	55.2	4.31
	60대 이상	(4933)	31.3	24.0	44.8	4.10
지역별	서울	(3301)	22.0	20.9	57.1	4.37
	부산	(1155)	22.0	15.2	62.8	4.36
	대구	(800)	23.6	29.0	47.4	4.23
	인천	(996)	21.0	16.1	62.9	4.44
	광주	(483)	23.3	21.4	55.2	4.34
	대전	(490)	25.0	32.5	42.5	4.18
	울산	(375)	10.4	22.3	67.4	4.62
	세종	(114)	15.0	27.6	57.4	4.55
	경기	(4404)	28.2	20.2	51.6	4.23
	강원	(526)	26.1	22.1	51.7	4.26
	충북	(540)	34.9	20.9	44.2	4.04
	충남	(711)	26.1	26.0	47.8	4.20
	전북	(602)	35.2	29.5	35.3	3.91
	전남	(627)	15.8	26.2	58.1	4.45
	경북	(894)	29.1	27.5	43.4	4.15
	경남	(1116)	23.4	13.3	63.3	4.39
제주	(224)	17.7	32.0	50.3	4.22	
학력	중졸 이하	(2863)	32.3	25.2	42.5	4.06
	고졸	(5401)	27.3	22.4	50.3	4.21
	대재 이상	(9093)	20.9	20.0	59.1	4.40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1~7)
직업유무	있다	(11617)	23.3	21.2	55.5	4.33
	없다	(5740)	27.6	22.4	50.0	4.2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22.1	20.5	57.5	4.37
	자영업자	(3084)	25.4	21.5	53.0	4.26
	무급가족종사자	(538)	28.5	28.6	42.9	4.10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20.1	19.2	60.7	4.44
	임시/일용근로자	(1395)	30.5	26.3	43.2	4.06
건강상태	좋음	(10989)	19.8	19.6	60.6	4.43
	보통	(5051)	29.5	25.6	44.9	4.13
	나쁨	(1317)	47.7	23.2	29.2	3.63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24.4	22.1	53.5	4.29
	200만원 미만	(4187)	32.5	24.1	43.4	4.05
	200~300만원 미만	(4397)	21.7	21.7	56.6	4.36
	300~400만원 미만	(2925)	22.8	19.1	58.1	4.37
	400만원 이상	(1697)	17.8	18.1	64.1	4.51
혼인상태	미혼	(5170)	22.2	21.4	56.4	4.36
	기혼	(10451)	23.8	21.3	54.9	4.32
	사별/이혼/별거	(1736)	38.2	23.9	37.9	3.90
가구원수	1인	(1936)	31.7	22.5	45.9	4.07
	2인 이상	(15421)	23.9	21.5	54.6	4.31
주거형태	자가	(14022)	23.8	21.4	54.9	4.32
	전세	(2209)	24.2	21.2	54.6	4.30
	월세/사글세/무상	(1126)	38.1	25.1	36.9	3.85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26.6	22.7	50.7	4.22
	아파트	(8442)	23.0	20.6	56.4	4.34
	연립/다세대/기타	(3130)	26.0	22.3	51.7	4.24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51.6	23.8	24.5	3.47
	비해당	(16899)	24.0	21.5	54.5	4.31
다문화가정	해당	(100)	23.0	25.9	51.1	4.19
	비해당	(17257)	24.8	21.6	53.7	4.29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40.1	20.7	39.2	3.78
	200만원 미만	(2096)	39.1	26.1	34.8	3.87
	200~300만원 미만	(2038)	30.6	22.9	46.5	4.12
	300~400만원 미만	(2908)	24.7	22.2	53.0	4.27
	400~500만원 미만	(3072)	22.3	20.6	57.0	4.35
	500~600만원 미만	(3149)	20.6	20.2	59.1	4.41
	600만원 이상	(3941)	18.7	19.9	61.4	4.47

### 3 나는 나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가. 전체 분석

‘나는 대체로 내가 하는 일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65.1%는 5점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17.8%는 3점 이하로 응답했다. 동의 정도를 평균으로 환산하면 4.53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나는 대체로 내가 하는 일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 항목은 성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4.63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4.39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울산(4.80점), 세종(4.74점), 경남(4.74점) 순으로 높고, 전북(4.15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4.34점), 직업 없음(4.45점), 무급가족종사자(4.41점), 임시/일용근로자(4.35점), 건강상태 나쁨(3.89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4.34점), 사별/이혼/별거(4.17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1인 가구(4.32점), 월세/사글세/무상(4.21점), 기초생활수급가구(3.83점), 다문화가정(4.32점), 가구소득 없음(3.99점) 등에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2-7] 나는 나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구분		n	bottom5 (%)	middle (%)	top5 (%)	mean(1~7)
전체		(17357)	17.8	17.0	65.1	4.53
전반적 행복도	행복하지 않다(0~4)	(1092)	75.6	15.6	8.9	3.07
	보통이다(5)	(2821)	27.3	42.5	30.1	4.03
	행복하다(6~10)	(13443)	11.2	11.8	77.1	4.76
성별	남자	(8615)	17.9	17.1	65.0	4.52
	여자	(8742)	17.8	16.9	65.3	4.54
연령별	15~19	(871)	15.6	17.0	67.4	4.57
	20대	(2550)	15.5	16.0	68.5	4.62
	30대	(2576)	15.4	14.0	70.6	4.63
	40대	(3123)	16.9	15.4	67.7	4.58
	50대	(3304)	17.1	17.4	65.5	4.54
	60대 이상	(4933)	21.9	19.9	58.3	4.39
지역별	서울	(3301)	17.3	14.3	68.4	4.58
	부산	(1155)	15.3	12.1	72.6	4.67
	대구	(800)	14.3	22.4	63.3	4.56
	인천	(996)	18.0	15.1	66.9	4.52
	광주	(483)	15.4	26.6	58.0	4.45
	대전	(490)	13.9	20.5	65.7	4.59
	울산	(375)	8.0	16.7	75.3	4.80
	세종	(114)	10.4	12.7	76.9	4.74
	경기	(4404)	19.1	14.9	66.0	4.53
	강원	(526)	24.8	24.9	50.4	4.23
	충북	(540)	21.6	23.5	54.8	4.31
	충남	(711)	17.4	24.4	58.3	4.48
	전북	(602)	29.3	22.8	47.9	4.15
	전남	(627)	14.6	19.3	66.0	4.60
	경북	(894)	20.9	22.5	56.6	4.40
	경남	(1116)	14.8	8.8	76.4	4.74
	제주	(224)	16.9	27.4	55.6	4.38

구분		n	bottom5 (%)	middle (%)	top5 (%)	mean(1~7)
학력	중졸 이하	(2863)	23.2	21.8	55.0	4.34
	고졸	(5401)	18.0	18.8	63.2	4.51
	대재 이상	(9093)	16.1	14.5	69.5	4.61
직업유무	있다	(11617)	16.4	16.4	67.1	4.57
	없다	(5740)	20.7	18.2	61.2	4.45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15.9	15.7	68.5	4.60
	자영업자	(3084)	17.3	16.4	66.3	4.55
	무급가족종사사	(538)	20.2	21.6	58.2	4.41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14.3	14.4	71.2	4.66
	임시/일용근로자	(1395)	22.5	21.1	56.4	4.35
건강상태	좋음	(10989)	13.9	13.9	72.3	4.68
	보통	(5051)	20.8	22.5	56.7	4.38
	나쁨	(1317)	39.7	22.2	38.1	3.89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7.4	17.8	64.8	4.53
	200만원 미만	(4187)	23.2	20.4	56.4	4.34
	200~300만원 미만	(4397)	16.2	15.8	68.0	4.60
	300~400만원 미만	(2925)	14.6	15.1	70.3	4.64
	400만원 이상	(1697)	15.5	13.1	71.4	4.63
혼인상태	미혼	(5170)	16.5	16.8	66.8	4.57
	기혼	(10451)	16.8	16.1	67.2	4.57
	사별/이혼/별거	(1736)	28.4	23.5	48.0	4.17
가구원수	1인	(1936)	24.6	19.8	55.6	4.32
	2인 이상	(15421)	17.0	16.7	66.3	4.56
주거형태	자가	(14022)	16.8	16.9	66.3	4.56
	전세	(2209)	19.2	15.6	65.2	4.53
	월세/사글세/무상	(1126)	27.9	21.9	50.2	4.21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18.8	20.3	60.9	4.46
	아파트	(8442)	16.7	15.3	68.0	4.57
	연립/다세대/기타	(3130)	19.0	15.6	65.4	4.55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44.3	19.8	36.0	3.83
	비해당	(16899)	17.1	16.9	65.9	4.55

구분		n	bottom5 (%)	middle (%)	top5 (%)	mean(1~7)
다문화가정	해당	(100)	25.5	13.8	60.7	4.32
	비해당	(17257)	17.8	17.0	65.2	4.53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33.3	22.9	43.8	3.99
	200만원 미만	(2096)	28.8	25.5	45.6	4.16
	200~300만원 미만	(2038)	22.3	19.9	57.7	4.40
	300~400만원 미만	(2908)	17.0	16.6	66.4	4.55
	400~500만원 미만	(3072)	16.3	16.6	67.2	4.59
	500~600만원 미만	(3149)	14.8	14.9	70.3	4.61
	600만원 이상	(3941)	13.4	13.1	73.6	4.70

## 4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했던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

### 가. 전체 분석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했던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62.6%는 5점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19.2%는 3점 이하로 응답했다. 동의 정도를 평균으로 환산하면 4.46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했던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 항목은 성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4.55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4.35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울산(4.77점), 경남(4.71점), 세종(4.70점) 순으로 높고, 전북(4.14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4.27점), 직업 없음(4.38점), 무급가족종사자(4.24점), 임시/일용근로자(4.32점), 건강상태 나쁨(3.89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4.31점), 사별/이혼/별거(4.19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1인 가구(4.30점), 월세/사글세/무상(4.17점), 기초생활수급가구(3.80점), 다문화가정(4.16점), 가구소득 없음(3.98점) 등에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2-8]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했던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1~7)
전체		(17357)	19.4	18.0	62.6	4.46
전반적 행복도	행복하지 않다(0~4)	(1092)	72.2	16.0	11.8	3.10
	보통이다(5)	(2821)	32.5	35.3	32.2	3.97
	행복하다(6~10)	(13443)	12.4	14.6	73.1	4.68
성별	남자	(8615)	19.2	18.2	62.6	4.47
	여자	(8742)	19.6	17.8	62.5	4.46
연령별	15~19	(871)	19.6	23.2	57.2	4.40
	20대	(2550)	18.3	19.0	62.7	4.48
	30대	(2576)	16.9	15.8	67.3	4.55
	40대	(3123)	18.1	16.0	65.9	4.52
	50대	(3304)	18.4	16.1	65.5	4.52
	60대 이상	(4933)	22.7	20.4	56.8	4.35
지역별	서울	(3301)	18.7	15.0	66.3	4.50
	부산	(1155)	16.9	11.5	71.6	4.65
	대구	(800)	15.1	30.6	54.4	4.40
	인천	(996)	16.1	16.5	67.4	4.63
	광주	(483)	25.5	29.0	45.5	4.21
	대전	(490)	13.6	20.9	65.4	4.61
	울산	(375)	8.5	14.3	77.2	4.77
	세종	(114)	10.8	13.8	75.5	4.70
	경기	(4404)	21.1	16.9	62.1	4.42
	강원	(526)	25.8	20.0	54.2	4.36
	충북	(540)	25.6	23.3	51.1	4.16
	충남	(711)	16.7	20.3	63.0	4.49
	전북	(602)	27.4	27.8	44.7	4.14
	전남	(627)	20.6	18.9	60.5	4.38
	경북	(894)	24.6	21.6	53.8	4.32
	경남	(1116)	14.5	10.9	74.7	4.71
제주	(224)	20.3	28.8	50.9	4.21	
학력	중졸 이하	(2863)	24.6	23.9	51.5	4.27
	고졸	(5401)	20.0	18.1	61.9	4.45
	대재 이상	(9093)	17.4	16.2	66.4	4.53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1~7)
직업유무	있다	(11617)	18.0	17.1	64.8	4.51
	없다	(5740)	22.2	19.9	57.9	4.38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17.3	16.7	66.0	4.54
	자영업자	(3084)	18.2	16.3	65.5	4.50
	무급가족종사자	(538)	25.3	21.6	53.1	4.24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15.7	16.1	68.2	4.59
	임시/일용근로자	(1395)	24.2	19.5	56.3	4.32
건강상태	좋음	(10989)	15.9	15.6	68.5	4.59
	보통	(5051)	22.0	22.3	55.7	4.34
	나쁨	(1317)	38.4	22.0	39.6	3.89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20.1	20.0	60.0	4.42
	200만원 미만	(4187)	24.3	20.5	55.1	4.31
	200~300만원 미만	(4397)	17.3	17.0	65.7	4.53
	300~400만원 미만	(2925)	17.1	15.6	67.3	4.55
	400만원 이상	(1697)	14.9	14.2	70.9	4.62
혼인상태	미혼	(5170)	19.5	19.0	61.5	4.46
	기혼	(10451)	17.7	17.1	65.2	4.51
	사별/이혼/별거	(1736)	29.2	20.8	49.9	4.19
가구원수	1인	(1936)	26.1	18.9	55.0	4.30
	2인 이상	(15421)	18.6	17.9	63.5	4.48
주거형태	자가	(14022)	18.5	18.1	63.4	4.49
	전세	(2209)	20.4	15.7	63.9	4.46
	월세/사글세/무상	(1126)	28.6	22.0	49.4	4.17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22.1	18.6	59.3	4.38
	아파트	(8442)	17.4	17.8	64.8	4.52
	연립/다세대/기타	(3130)	19.8	17.6	62.6	4.47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42.1	21.4	36.5	3.80
	비해당	(16899)	18.8	18.0	63.3	4.48
다문화가정	해당	(100)	28.0	18.5	53.5	4.16
	비해당	(17257)	19.4	18.0	62.6	4.47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33.5	19.8	46.7	3.98
	200만원 미만	(2096)	29.3	24.4	46.3	4.15
	200~300만원 미만	(2038)	24.7	19.7	55.5	4.32
	300~400만원 미만	(2908)	19.7	18.1	62.2	4.45
	400~500만원 미만	(3072)	17.9	15.8	66.3	4.53
	500~600만원 미만	(3149)	16.6	17.3	66.2	4.53
	600만원 이상	(3941)	14.0	16.1	69.9	4.63



## 5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 해도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 가. 전체 분석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 해도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61.3%는 5점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28.3%는 3점 이하로 응답했다. 동의 정도를 평균으로 환산하면 4.19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 해도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항목은 성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4.32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4.03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4.70점), 인천(4.53점), 울산(4.46점) 순으로 높고, 전북(3.70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3.98점), 직업 없음(4.12점), 무급가족종사자(3.83점), 임시/일용근로자(3.91점), 건강상태 나쁨(3.50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3.94점), 사별/이혼/별거(3.84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1인 가구(3.97점), 월세/사글세/무상(3.74점), 기초생활수급가구(3.44점), 다문화가정(3.82점),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3.77점) 등에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2-9]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 해도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1~7)
전체		(17357)	28.3	20.4	51.3	4.19
전반적 행복도	행복하지 않다(0~4)	(1092)	77.7	13.7	8.6	2.79
	보통이다(5)	(2821)	45.0	32.7	22.3	3.61
	행복하다(6~10)	(13443)	20.8	18.4	60.8	4.43
성별	남자	(8615)	28.3	20.1	51.6	4.20
	여자	(8742)	28.3	20.7	51.0	4.18
연령별	15~19	(871)	24.8	21.8	53.3	4.24
	20대	(2550)	26.2	21.3	52.5	4.26
	30대	(2576)	24.7	17.5	57.7	4.32
	40대	(3123)	26.8	20.0	53.3	4.25
	50대	(3304)	27.4	20.2	52.5	4.21
	60대 이상	(4933)	33.5	21.6	44.8	4.03
지역별	서울	(3301)	29.4	18.1	52.4	4.19
	부산	(1155)	28.7	14.6	56.7	4.28
	대구	(800)	31.9	30.1	38.0	3.96
	인천	(996)	20.2	16.7	63.1	4.53
	광주	(483)	33.7	25.6	40.7	3.88
	대전	(490)	22.3	28.6	49.1	4.26
	울산	(375)	18.7	19.6	61.7	4.46
	세종	(114)	11.4	17.8	70.8	4.70
	경기	(4404)	26.7	20.5	52.7	4.21
	강원	(526)	30.5	22.0	47.5	4.16
	충북	(540)	30.7	22.6	46.7	4.02
	충남	(711)	22.7	22.0	55.3	4.34
	전북	(602)	42.8	25.3	31.9	3.70
	전남	(627)	27.1	22.3	50.6	4.19
	경북	(894)	37.1	23.7	39.3	3.98
	경남	(1116)	30.3	12.1	57.6	4.28
제주	(224)	18.5	32.1	49.4	4.25	
학력	중졸 이하	(2863)	34.6	23.3	42.1	3.98
	고졸	(5401)	30.2	20.3	49.5	4.14
	대재 이상	(9093)	25.3	19.5	55.2	4.29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1~7)
직업유무	있다	(11617)	27.2	20.0	52.8	4.23
	없다	(5740)	30.6	21.1	48.3	4.12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26.2	19.9	53.9	4.26
	자영업자	(3084)	28.1	19.9	52.0	4.20
	무급가족종사자	(538)	39.9	22.3	37.8	3.83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23.5	19.5	57.0	4.34
	임시/일용근로자	(1395)	38.0	21.4	40.6	3.91
건강상태	좋음	(10989)	23.9	18.9	57.2	4.34
	보통	(5051)	32.1	23.2	44.7	4.04
	나쁨	(1317)	51.0	22.0	27.0	3.50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27.9	20.0	52.1	4.21
	200만원 미만	(4187)	36.3	22.8	41.0	3.94
	200~300만원 미만	(4397)	26.2	20.0	53.8	4.25
	300~400만원 미만	(2925)	24.6	19.6	55.9	4.32
	400만원 이상	(1697)	21.7	18.2	60.0	4.40
혼인상태	미혼	(5170)	27.3	20.7	52.0	4.21
	기혼	(10451)	27.0	19.9	53.1	4.24
	사별/이혼/별거	(1736)	39.4	22.8	37.9	3.84
가구원수	1인	(1936)	35.5	19.7	44.8	3.97
	2인 이상	(15421)	27.4	20.5	52.1	4.22
주거형태	자가	(14022)	27.2	20.5	52.3	4.23
	전세	(2209)	28.6	18.4	53.0	4.19
	월세/사글세/무상	(1126)	42.0	22.9	35.1	3.74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30.8	21.4	47.7	4.11
	아파트	(8442)	26.7	19.8	53.5	4.24
	연립/다세대/기타	(3130)	28.1	20.1	51.8	4.21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53.0	18.4	28.6	3.44
	비해당	(16899)	27.7	20.5	51.9	4.21
다문화가정	해당	(100)	38.7	20.2	41.1	3.82
	비해당	(17257)	28.3	20.4	51.3	4.19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39.1	14.8	46.1	3.82
	200만원 미만	(2096)	41.2	24.2	34.6	3.77
	200~300만원 미만	(2038)	33.7	20.8	45.5	4.03
	300~400만원 미만	(2908)	30.2	19.6	50.2	4.16
	400~500만원 미만	(3072)	26.6	20.1	53.3	4.25
	500~600만원 미만	(3149)	24.3	20.5	55.2	4.30
	600만원 이상	(3941)	21.5	19.1	59.4	4.40



# 제3장

## 정서

---

제1절 어제의 감정

제2절 어제의 행복감

제3절 어제의 미소/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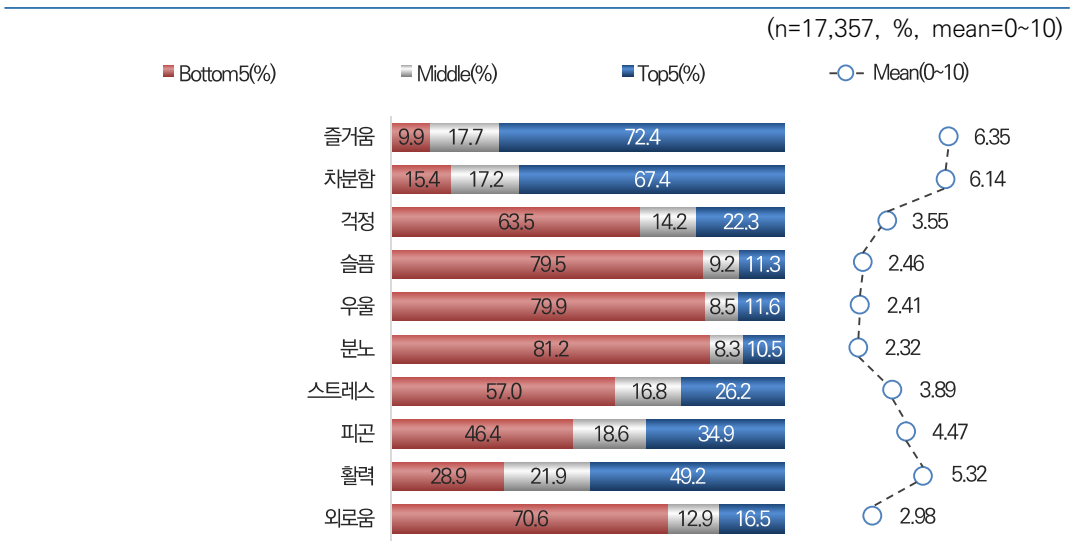


# 제 1절 어제의 감정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0 종합 분석

어제 10가지 감정 각각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묻은 결과, 동의 정도는 '즐거움'이 6.35점으로 가장 높고, '차분함'(6.14점), '활력'(5.32점), '피곤'(4.47점), '스트레스'(3.89점), '걱정'(3.55점), '외로움'(2.98점), '슬픔'(2.46점), '우울'(2.41점), '분노'(2.32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림 3-1] 어제의 감정

## 1 즐거움

### 가. 전체 분석

어제 하루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얼마나 느꼈는지 묻은 결과 응답자의 72.4%는 6점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9.9%는 4점 이하로 응답했다. 경험 정도를 평균으로 환산하면 6.35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즐거움은 여자(6.38점)가 남자(6.33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6.59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6.03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경남(7.06점), 부산(6.91점), 인천(6.69점) 순으로 높고, 전북(5.82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참여 요일별로는 '토~월'이 6.38점으로 '화~금'(6.32점)보다 0.06점 높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5.88점), 직업 없음(6.18점), 무급가족종사자(6.14점), 임시/일용근로자(6.03점), 건강상태 나쁨(5.13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5.98점), 사별/이혼/별거(5.72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1인 가구(6.03점), 월세/사글세/무상(5.87점), 기초생활수급가구(4.95점), 다문화가정(5.90점), 가구소득 200만원 없음(5.55점) 등에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3-1] 어제 경험한 정서 - 즐거움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9.9	17.7	72.4	6.35
조사참여 요일	화~금	(8521)	10.6	18.6	70.8	6.32
	토~일	(8836)	9.3	16.8	73.9	6.38
성별	남자	(8615)	10.4	18.2	71.4	6.33
	여자	(8742)	9.5	17.1	73.4	6.38
연령별	15~19	(871)	8.5	17.0	74.5	6.41
	20대	(2550)	7.7	15.8	76.6	6.56
	30대	(2576)	5.8	14.3	79.9	6.59
	40대	(3123)	8.2	15.5	76.3	6.48
	50대	(3304)	9.9	17.6	72.5	6.35
	60대 이상	(4933)	14.7	21.9	63.4	6.03
지역별	서울	(3301)	9.0	13.8	77.2	6.39
	부산	(1155)	5.0	13.2	81.8	6.91
	대구	(800)	6.8	26.0	67.2	6.18
	인천	(996)	7.7	13.5	78.8	6.69
	광주	(483)	9.9	32.1	58.0	6.05
	대전	(490)	9.4	17.2	73.4	6.43
	울산	(375)	5.0	13.7	81.2	6.49
	세종	(114)	2.0	17.8	80.3	6.59
	경기	(4404)	11.6	17.4	71.0	6.23
	강원	(526)	17.1	22.9	60.0	6.00
	충북	(540)	16.5	19.3	64.2	6.14
	충남	(711)	11.4	20.5	68.1	6.08
	전북	(602)	20.0	24.6	55.3	5.82
	전남	(627)	7.6	13.5	78.9	6.45
	경북	(894)	11.9	29.5	58.6	5.88
	경남	(1116)	5.2	10.7	84.1	7.06
	제주	(224)	10.4	24.4	65.2	6.18
학력	중졸 이하	(2863)	16.8	23.9	59.4	5.88
	고졸	(5401)	10.4	19.2	70.4	6.25
	대재 이상	(9093)	7.5	14.8	77.7	6.56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8.3	17.0	74.7	6.44
	없다	(5740)	13.3	19.1	67.6	6.18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7.3	16.3	76.5	6.49
	자영업자	(3084)	10.3	17.5	72.2	6.36
	무급가족종사자	(538)	10.7	24.8	64.6	6.14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6.0	14.6	79.4	6.60
	임시/일용근로자	(1395)	13.1	23.4	63.5	6.03
건강상태	좋음	(10989)	5.3	14.5	80.2	6.68
	보통	(5051)	14.1	22.6	63.2	5.95
	나쁨	(1317)	32.7	25.4	41.9	5.13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0.2	17.5	72.3	6.34
	200만원 미만	(4187)	15.7	22.6	61.7	5.98
	200~300만원 미만	(4397)	7.8	15.9	76.3	6.48
	300~400만원 미만	(2925)	6.4	16.4	77.2	6.55
	400만원 이상	(1697)	6.9	12.7	80.4	6.62
혼인상태	미혼	(5170)	8.7	16.7	74.6	6.44
	기혼	(10451)	8.8	17.0	74.2	6.41
	사별/이혼/별거	(1736)	20.5	24.8	54.8	5.72
가구원수	1인	(1936)	16.0	20.0	63.9	6.03
	2인 이상	(15421)	9.2	17.4	73.4	6.39
주거형태	자가	(14022)	9.2	17.6	73.1	6.39
	전세	(2209)	10.5	14.8	74.7	6.35
	월세/사글세/무상	(1126)	17.7	23.7	58.7	5.87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11.3	19.6	69.1	6.23
	아파트	(8442)	9.2	16.1	74.7	6.46
	연립/다세대/기타	(3130)	9.3	18.4	72.2	6.29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37.5	22.4	40.1	4.95
	비해당	(16899)	9.2	17.5	73.3	6.39
다문화가정	해당	(100)	19.0	18.2	62.8	5.90
	비해당	(17257)	9.9	17.7	72.4	6.35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27.0	16.9	56.1	5.55
	200만원 미만	(2096)	21.9	27.1	51.1	5.59
	200~300만원 미만	(2038)	14.1	20.5	65.4	6.10
	300~400만원 미만	(2908)	9.9	18.1	71.9	6.35
	400~500만원 미만	(3072)	7.4	16.3	76.3	6.52
	500~600만원 미만	(3149)	6.7	15.7	77.6	6.55
	600만원 이상	(3941)	5.4	13.6	81.1	6.63

## 2 차분함

### 가. 전체 분석

어제 하루 차분함이라는 감정을 얼마나 느꼈는지 묻은 결과 응답자의 67.4%는 6점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15.4%는 4점 이하로 응답했다. 경험 정도를 평균으로 환산하면 6.14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차분함은 여자(6.16점)가 남자(6.12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6.24점)가 가장 높고, 15~19세(6.02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대전(6.63점), 전남(6.57점), 부산(6.53점) 순으로 높고, 제주(5.62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참여 요일별로는 '토~월'이 6.20점으로 '화~금'(6.08점)보다 0.12점 높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5.95점), 직업 없음(6.04점), 임시/일용근로자(6.11점), 건강상태 나쁨(5.57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6.05점), 사별/이혼/별거(5.87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1인 가구(6.01점), 월세/사글세/무상(6.07점), 기초생활수급가구(5.33점), 다문화가정(5.92점), 가구소득 200만원 없음(5.26점) 등에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3-2] 어제 경험한 정서 - 차분함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15.4	17.2	67.4	6.14
조사참여 요일	화~금	(8521)	16.3	18.1	65.7	6.08
	토~일	(8836)	14.6	16.4	69.0	6.20
성별	남자	(8615)	15.4	18.1	66.5	6.12
	여자	(8742)	15.4	16.4	68.2	6.16
연령별	15~19	(871)	16.9	17.2	66.0	6.02
	20대	(2550)	14.4	16.8	68.8	6.24
	30대	(2576)	14.9	17.3	67.8	6.16
	40대	(3123)	13.8	16.7	69.5	6.23
	50대	(3304)	15.1	16.5	68.5	6.15
	60대 이상	(4933)	17.2	18.2	64.6	6.04
지역별	서울	(3301)	13.7	14.7	71.7	6.37
	부산	(1155)	11.6	10.6	77.8	6.53
	대구	(800)	8.1	19.8	72.1	6.19
	인천	(996)	13.9	15.4	70.7	6.24
	광주	(483)	12.4	18.1	69.5	6.51
	대전	(490)	12.1	10.5	77.5	6.63
	울산	(375)	10.5	19.9	69.6	5.97
	세종	(114)	9.1	7.8	83.0	6.43
	경기	(4404)	23.4	16.1	60.6	5.81
	강원	(526)	15.3	28.4	56.3	5.87
	충북	(540)	15.5	19.9	64.7	6.06
	충남	(711)	10.8	28.9	60.3	5.86
	전북	(602)	14.3	23.8	61.9	6.15
	전남	(627)	8.4	15.9	75.7	6.57
	경북	(894)	11.8	25.7	62.5	6.02
	경남	(1116)	15.5	11.5	73.0	6.21
	제주	(224)	15.0	35.1	49.9	5.62
학력	중졸 이하	(2863)	17.8	20.1	62.1	5.95
	고졸	(5401)	16.0	17.9	66.1	6.08
	대재 이상	(9093)	14.3	15.9	69.8	6.24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14.5	16.6	68.9	6.19
	없다	(5740)	17.4	18.4	64.2	6.04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15.2	16.2	68.6	6.20
	자영업자	(3084)	13.8	16.4	69.7	6.21
	무급가족종사자	(538)	10.7	17.3	71.9	6.28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15.2	15.5	69.3	6.22
	임시/일용근로자	(1395)	15.3	19.2	65.5	6.11
건강상태	좋음	(10989)	12.8	14.5	72.8	6.35
	보통	(5051)	18.6	22.4	59.0	5.83
	나쁨	(1317)	25.7	20.2	54.2	5.57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6.1	17.1	66.9	6.11
	200만원 미만	(4187)	16.3	19.6	64.2	6.05
	200~300만원 미만	(4397)	15.5	16.6	67.9	6.13
	300~400만원 미만	(2925)	15.3	16.0	68.7	6.19
	400만원 이상	(1697)	11.7	15.6	72.7	6.40
혼인상태	미혼	(5170)	16.3	17.5	66.2	6.10
	기혼	(10451)	14.4	16.5	69.2	6.21
	사별/이혼/별거	(1736)	19.2	20.9	59.9	5.87
가구원수	1인	(1936)	17.6	18.9	63.5	6.01
	2인 이상	(15421)	15.2	17.0	67.8	6.16
주거형태	자가	(14022)	14.9	16.9	68.2	6.17
	전세	(2209)	18.5	17.3	64.2	6.02
	월세/사글세/무상	(1126)	16.2	20.6	63.2	6.07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15.0	19.4	65.6	6.11
	아파트	(8442)	14.6	16.3	69.1	6.21
	연립/다세대/기타	(3130)	18.6	15.6	65.8	6.03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32.8	18.3	48.9	5.33
	비해당	(16899)	15.0	17.2	67.9	6.16
다문화가정	해당	(100)	20.3	19.5	60.2	5.92
	비해당	(17257)	15.4	17.2	67.4	6.14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35.4	20.4	44.2	5.26
	200만원 미만	(2096)	16.8	23.0	60.2	5.89
	200~300만원 미만	(2038)	17.6	20.0	62.4	5.99
	300~400만원 미만	(2908)	14.1	17.3	68.6	6.18
	400~500만원 미만	(3072)	14.6	16.2	69.3	6.19
	500~600만원 미만	(3149)	14.2	15.5	70.2	6.24
	600만원 이상	(3941)	15.4	14.7	69.9	6.25

### 3 걱정

#### 가. 전체 분석

어제 하루 걱정이라는 감정을 얼마나 느꼈는지 묻은 결과 응답자의 22.3%는 6점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63.5%는 4점 이하로 응답했다. 경험 정도를 평균으로 환산하면 3.55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걱정은 남자(3.63점)가 여자(3.48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3.78점)가 가장 높고 30대(3.46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강원(4.08점), 제주(4.06점), 울산(4.01점) 순으로 높고, 대전(2.79점)이 가장 낮았다. 조사 참여 요일별로는 '화~금'이 3.63점으로 '토~월'(3.48점)보다 0.15점 높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자영업자(3.66점), 임시/일용근로자(3.63점), 건강상태 나쁨(4.16점), 개인소득 400만원 이상(3.65점), 사별/이혼/별거(3.74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1인 가구(3.68점), 월세/사글세/무상(3.78점), 연립/다세대/기타(3.68점), 가구소득 없음(4.44점) 등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3-3] 어제 경험한 정서 - 걱정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63.5	14.2	22.3	3.55
조사참여 요일	화~금	(8521)	62.9	13.8	23.3	3.63
	토~일	(8836)	64.0	14.7	21.3	3.48
성별	남자	(8615)	62.3	14.2	23.6	3.63
	여자	(8742)	64.7	14.3	21.0	3.48
연령별	15~19	(871)	58.3	15.8	25.9	3.78
	20대	(2550)	64.0	12.7	23.2	3.52
	30대	(2576)	65.7	13.3	21.0	3.46
	40대	(3123)	62.1	15.3	22.6	3.62
	50대	(3304)	61.6	14.8	23.5	3.65
	60대 이상	(4933)	65.1	14.2	20.7	3.47
지역별	서울	(3301)	62.7	12.5	24.7	3.62
	부산	(1155)	65.8	10.1	24.1	3.49
	대구	(800)	65.7	18.0	16.3	3.39
	인천	(996)	63.4	14.8	21.8	3.71
	광주	(483)	68.7	19.4	11.9	3.17
	대전	(490)	74.6	15.2	10.2	2.79
	울산	(375)	54.3	21.3	24.4	4.01
	세종	(114)	74.8	11.6	13.7	3.37
	경기	(4404)	63.6	13.5	22.8	3.61
	강원	(526)	52.5	19.5	28.0	4.08
	충북	(540)	72.5	13.7	13.8	3.29
	충남	(711)	60.2	17.3	22.5	3.77
	전북	(602)	59.2	18.6	22.2	3.63
	전남	(627)	65.6	13.1	21.3	3.09
	경북	(894)	57.1	13.7	29.3	3.79
	경남	(1116)	67.7	10.2	22.1	3.21
	제주	(224)	52.0	28.8	19.2	4.06
학력	중졸 이하	(2863)	63.3	15.4	21.3	3.54
	고졸	(5401)	62.5	14.5	23.0	3.58
	대재 이상	(9093)	64.1	13.8	22.1	3.54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64.0	13.7	22.2	3.55
	없다	(5740)	62.4	15.3	22.3	3.56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65.6	13.3	21.1	3.46
	자영업자	(3084)	62.4	13.4	24.2	3.66
	무급가족종사자	(538)	63.8	15.0	21.1	3.49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66.4	12.9	20.7	3.42
	임시/일용근로자	(1395)	62.1	15.1	22.8	3.63
건강상태	좋음	(10989)	68.5	12.2	19.4	3.28
	보통	(5051)	55.6	17.8	26.6	3.98
	나쁨	(1317)	52.5	17.8	29.7	4.16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61.4	15.5	23.1	3.58
	200만원 미만	(4187)	63.0	14.7	22.3	3.56
	200~300만원 미만	(4397)	66.0	12.8	21.2	3.51
	300~400만원 미만	(2925)	63.9	14.0	22.1	3.51
	400만원 이상	(1697)	62.6	14.1	23.2	3.65
혼인상태	미혼	(5170)	62.3	13.8	24.0	3.62
	기혼	(10451)	64.5	14.4	21.1	3.49
	사별/이혼/별거	(1736)	61.1	15.0	23.9	3.74
가구원수	1인	(1936)	62.8	13.6	23.6	3.68
	2인 이상	(15421)	63.6	14.3	22.1	3.54
주거형태	자가	(14022)	64.0	14.0	22.0	3.51
	전세	(2209)	62.7	14.0	23.3	3.70
	월세/사글세/무상	(1126)	58.7	17.5	23.7	3.78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63.2	14.9	21.9	3.52
	아파트	(8442)	64.2	13.6	22.2	3.52
	연립/다세대/기타	(3130)	62.1	14.9	23.0	3.68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62.4	16.8	20.8	3.64
	비해당	(16899)	63.5	14.2	22.3	3.55
다문화가정	해당	(100)	62.6	18.3	19.1	3.37
	비해당	(17257)	63.5	14.2	22.3	3.55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46.3	15.7	38.0	4.44
	200만원 미만	(2096)	61.3	16.9	21.8	3.64
	200~300만원 미만	(2038)	61.1	14.9	24.0	3.70
	300~400만원 미만	(2908)	62.8	13.2	23.9	3.61
	400~500만원 미만	(3072)	64.3	13.5	22.2	3.54
	500~600만원 미만	(3149)	65.9	14.4	19.6	3.45
	600만원 이상	(3941)	64.5	13.7	21.9	3.45



## 4 슬픔

### 가. 전체 분석

어제 하루 슬픔이라는 감정을 얼마나 느꼈는지 묻은 결과 응답자의 11.3%는 6점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79.5%는 4점 이하로 응답했다. 경험 정도를 평균으로 환산하면 2.46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슬픔은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50대(2.59점)가 가장 높고, 20대(2.33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제주(3.67점), 강원(3.52점), 인천(2.94점) 순으로 높고, 광주(1.66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참여 요일별로는 '화~금'이 2.55점으로 '토~월'(2.38점)보다 0.17점 높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직업 없음(2.50점), 자영업자(2.48점), 임시/일용근로자(2.45점), 건강상태 나쁨(3.19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2.53점), 사별/이혼/별거(2.78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1인 가구(2.68점), 전세(2.69점), 연립/다세대/기타(2.55점), 기초생활수급가구(2.62점), 가구소득 없음(4.04점)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3-4] 어제 경험한 정서 - 슬픔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79.5	9.2	11.3	2.46
조사참여 요일	화~금	(8521)	78.9	9.4	11.6	2.55
	토~일	(8836)	80.0	9.1	10.9	2.38
성별	남자	(8615)	79.5	9.4	11.1	2.47
	여자	(8742)	79.5	9.1	11.4	2.46
연령별	15~19	(871)	78.8	10.6	10.7	2.46
	20대	(2550)	80.6	8.3	11.1	2.33
	30대	(2576)	82.3	8.7	9.1	2.35
	40대	(3123)	77.9	10.1	12.1	2.51
	50대	(3304)	78.0	9.1	12.9	2.59
	60대 이상	(4933)	79.6	9.3	11.0	2.48
지역별	서울	(3301)	79.1	8.8	12.1	2.56
	부산	(1155)	83.0	5.9	11.0	2.29
	대구	(800)	84.9	5.3	9.7	2.14
	인천	(996)	74.3	14.0	11.7	2.94
	광주	(483)	85.8	9.0	5.1	1.66
	대전	(490)	88.3	7.3	4.4	1.70
	울산	(375)	76.9	8.5	14.6	2.87
	세종	(114)	91.2	6.3	2.5	2.43
	경기	(4404)	80.9	8.3	10.7	2.54
	강원	(526)	63.4	18.3	18.3	3.52
	충북	(540)	82.1	11.4	6.5	2.34
	충남	(711)	75.3	14.8	9.9	2.63
	전북	(602)	78.6	12.1	9.4	2.36
	전남	(627)	76.1	7.7	16.2	2.18
	경북	(894)	74.6	10.1	15.3	2.25
	경남	(1116)	84.5	4.0	11.5	2.01
	제주	(224)	59.0	24.8	16.1	3.67
학력	중졸 이하	(2863)	79.2	10.1	10.7	2.46
	고졸	(5401)	78.9	9.2	11.9	2.51
	대재 이상	(9093)	79.9	9.0	11.1	2.44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80.2	8.6	11.2	2.44
	없다	(5740)	78.2	10.5	11.4	2.5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81.2	8.5	10.3	2.38
	자영업자	(3084)	79.8	8.7	11.5	2.48
	무급가족종사자	(538)	84.2	6.5	9.3	2.10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81.5	8.4	10.1	2.37
	임시/일용근로자	(1395)	79.7	9.2	11.1	2.45
건강상태	좋음	(10989)	85.2	6.6	8.2	2.11
	보통	(5051)	69.9	13.9	16.1	3.04
	나쁨	(1317)	68.4	13.5	18.0	3.19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78.6	9.8	11.6	2.47
	200만원 미만	(4187)	78.3	9.4	12.3	2.53
	200~300만원 미만	(4397)	81.3	8.5	10.2	2.41
	300~400만원 미만	(2925)	80.5	8.9	10.6	2.42
	400만원 이상	(1697)	78.4	9.8	11.8	2.49
혼인상태	미혼	(5170)	79.6	9.3	11.1	2.46
	기혼	(10451)	80.3	8.8	10.9	2.42
	사별/이혼/별거	(1736)	74.4	11.6	14.0	2.78
가구원수	1인	(1936)	76.9	10.2	12.8	2.68
	2인 이상	(15421)	79.8	9.1	11.1	2.44
주거형태	자가	(14022)	80.0	8.8	11.2	2.42
	전세	(2209)	78.7	9.0	12.2	2.69
	월세/사글세/무상	(1126)	74.4	15.5	10.2	2.62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78.8	9.4	11.8	2.44
	아파트	(8442)	79.7	9.1	11.1	2.45
	연립/다세대/기타	(3130)	80.1	9.3	10.6	2.55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74.0	14.4	11.6	2.62
	비해당	(16899)	79.6	9.1	11.3	2.46
다문화가정	해당	(100)	79.6	12.8	7.6	2.30
	비해당	(17257)	79.5	9.2	11.3	2.46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55.8	19.3	24.9	4.04
	200만원 미만	(2096)	75.4	11.4	13.2	2.66
	200~300만원 미만	(2038)	76.6	11.7	11.8	2.66
	300~400만원 미만	(2908)	78.5	9.9	11.6	2.52
	400~500만원 미만	(3072)	79.4	8.8	11.8	2.52
	500~600만원 미만	(3149)	83.8	7.3	9.0	2.22
	600만원 이상	(3941)	81.5	7.9	10.6	2.31

## 5 우울

### 가. 전체 분석

어제 하루 우울이라는 감정을 얼마나 느꼈는지 묻은 결과 응답자의 11.6%는 6점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79.9%는 4점 이하로 응답했다. 경험 정도를 평균으로 환산하면 2.41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우울은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50대(2.51점)가 가장 높고, 20대(2.35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제주(3.57점), 강원(3.50점), 인천(2.91점) 순으로 높고, 광주(1.61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참여 요일별로는 '화~금'이 2.48점으로 '토~월'(2.35점)보다 0.13점 높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직업 없음(2.50점), 자영업자(2.44점), 임시/일용근로자(2.46점), 건강상태 나쁨(3.43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2.60점), 사별/이혼/별거(2.94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1인 가구(2.82점), 월세/사글세/무상(2.71점), 연립/다세대/기타(2.48점), 기초생활수급가구(2.82점), 가구소득 없음(3.96점)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3-5] 어제 경험한 정서 - 우울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79.9	8.5	11.6	2.41
조사참여 요일	화~금	(8521)	79.4	8.6	12.0	2.48
	토~일	(8836)	80.3	8.4	11.2	2.35
성별	남자	(8615)	79.7	8.9	11.4	2.42
	여자	(8742)	80.1	8.1	11.8	2.41
연령별	15~19	(871)	80.3	9.6	10.1	2.36
	20대	(2550)	81.4	7.9	10.7	2.25
	30대	(2576)	82.9	7.7	9.4	2.27
	40대	(3123)	78.7	8.9	12.4	2.44
	50대	(3304)	78.3	9.0	12.7	2.51
	60대 이상	(4933)	79.2	8.6	12.2	2.50
지역별	서울	(3301)	79.6	7.7	12.7	2.53
	부산	(1155)	85.3	5.1	9.6	2.12
	대구	(800)	85.4	5.0	9.6	2.16
	인천	(996)	75.6	11.9	12.5	2.91
	광주	(483)	85.1	8.6	6.3	1.61
	대전	(490)	85.8	8.1	6.1	1.72
	울산	(375)	80.4	7.2	12.4	2.62
	세종	(114)	91.3	4.5	4.1	2.36
	경기	(4404)	81.3	8.0	10.7	2.43
	강원	(526)	62.6	19.9	17.5	3.50
	충북	(540)	84.7	8.8	6.5	2.30
	충남	(711)	74.6	12.9	12.6	2.60
	전북	(602)	77.1	12.4	10.6	2.45
	전남	(627)	76.6	6.9	16.5	2.12
	경북	(894)	74.0	8.1	17.8	2.38
	경남	(1116)	84.3	4.9	10.8	1.96
	제주	(224)	61.4	22.5	16.1	3.57
학력	중졸 이하	(2863)	78.9	9.3	11.8	2.47
	고졸	(5401)	79.5	8.3	12.2	2.45
	대재 이상	(9093)	80.4	8.4	11.2	2.37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80.8	8.0	11.2	2.37
	없다	(5740)	78.1	9.5	12.4	2.5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82.2	7.7	10.0	2.29
	자영업자	(3084)	79.6	8.2	12.2	2.44
	무급가족종사자	(538)	82.1	8.5	9.3	2.10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82.9	7.5	9.6	2.25
	임시/일용근로자	(1395)	79.3	8.7	11.9	2.46
건강상태	좋음	(10989)	85.9	6.3	7.7	2.01
	보통	(5051)	70.6	12.3	17.1	3.03
	나쁨	(1317)	64.9	12.3	22.8	3.43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79.6	8.9	11.4	2.39
	200만원 미만	(4187)	76.8	8.6	14.5	2.60
	200~300만원 미만	(4397)	82.0	7.5	10.5	2.34
	300~400만원 미만	(2925)	81.9	8.3	9.8	2.28
	400만원 이상	(1697)	79.0	10.2	10.9	2.43
혼인상태	미혼	(5170)	80.4	8.6	11.0	2.38
	기혼	(10451)	80.9	8.2	10.9	2.34
	사별/이혼/별거	(1736)	72.0	10.4	17.6	2.94
가구원수	1인	(1936)	73.7	9.9	16.4	2.82
	2인 이상	(15421)	80.7	8.4	11.0	2.36
주거형태	자가	(14022)	80.7	8.1	11.2	2.35
	전세	(2209)	78.9	8.7	12.4	2.64
	월세/사글세/무상	(1126)	72.0	13.2	14.7	2.71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78.3	9.0	12.7	2.43
	아파트	(8442)	80.5	8.6	10.9	2.38
	연립/다세대/기타	(3130)	81.3	7.3	11.4	2.48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70.0	15.1	14.9	2.82
	비해당	(16899)	80.1	8.3	11.5	2.40
다문화가정	해당	(100)	82.6	9.2	8.2	2.32
	비해당	(17257)	79.9	8.5	11.6	2.41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56.7	19.1	24.2	3.96
	200만원 미만	(2096)	73.0	10.6	16.4	2.81
	200~300만원 미만	(2038)	76.2	10.4	13.4	2.65
	300~400만원 미만	(2908)	79.7	8.6	11.7	2.41
	400~500만원 미만	(3072)	80.6	7.7	11.7	2.43
	500~600만원 미만	(3149)	84.4	7.4	8.2	2.15
	600만원 이상	(3941)	82.3	7.5	10.2	2.22

## 6 분노

### 가. 전체 분석

어제 하루 분노라는 감정을 얼마나 느꼈는지 묻은 결과 응답자의 10.5%는 6점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81.2%는 4점 이하로 응답했다. 경험 정도를 평균으로 환산하면 2.32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분노는 여자(2.26점)보다 남자(2.38점)에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2.47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2.21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제주(3.63점), 강원(3.45점), 인천(2.75점) 순으로 높고, 광주(1.48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참여 요일별로는 '화~금'이 2.38점으로 '토~월'(2.26점)보다 0.12점 높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직업 있음(2.34점), 자영업자(2.35점), 임시/일용근로자(2.37점), 건강상태 보통(2.89점), 개인소득 400만원 이상(2.46점), 사별/이혼/별거(2.40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1인 가구(2.44점), 전세(2.58점), 연립/다세대/기타(2.44점), 가구소득 없음(3.82점)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3-6] 어제 경험한 정서 - 분노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81.2	8.3	10.5	2.32
조사참여 요일	화~금	(8521)	81.2	8.2	10.6	2.38
	토~일	(8836)	81.3	8.4	10.3	2.26
성별	남자	(8615)	80.2	8.8	11.0	2.38
	여자	(8742)	82.2	7.8	10.0	2.26
연령별	15~19	(871)	81.3	8.6	10.2	2.32
	20대	(2550)	81.2	7.9	10.9	2.24
	30대	(2576)	82.6	8.3	9.1	2.29
	40대	(3123)	79.4	9.0	11.7	2.42
	50대	(3304)	79.4	8.6	12.0	2.47
	60대 이상	(4933)	83.0	7.8	9.2	2.21
지역별	서울	(3301)	79.7	9.1	11.2	2.47
	부산	(1155)	86.7	5.5	7.8	2.08
	대구	(800)	88.1	3.9	8.0	1.99
	인천	(996)	78.9	10.3	10.8	2.75
	광주	(483)	88.2	6.5	5.3	1.48
	대전	(490)	90.0	5.8	4.2	1.49
	울산	(375)	84.2	4.2	11.5	2.47
	세종	(114)	94.8	4.1	1.1	2.24
	경기	(4404)	82.2	7.3	10.5	2.39
	강원	(526)	60.6	19.2	20.2	3.45
	충북	(540)	85.2	7.9	6.9	2.30
	충남	(711)	74.9	13.8	11.3	2.45
	전북	(602)	82.1	12.4	5.4	2.23
	전남	(627)	78.5	6.3	15.2	1.94
	경북	(894)	76.5	9.1	14.4	2.12
	경남	(1116)	85.2	4.4	10.4	1.92
	제주	(224)	59.9	25.2	14.9	3.63
학력	중졸 이하	(2863)	83.0	8.1	8.9	2.15
	고졸	(5401)	80.9	8.5	10.7	2.35
	대재 이상	(9093)	80.9	8.3	10.8	2.35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81.2	8.1	10.7	2.34
	없다	(5740)	81.3	8.7	10.0	2.27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82.3	7.6	10.1	2.29
	자영업자	(3084)	81.0	8.8	10.3	2.35
	무급가족종사자	(538)	84.8	6.0	9.2	1.92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82.8	7.3	9.9	2.27
	임시/일용근로자	(1395)	80.1	8.8	11.1	2.37
건강상태	좋음	(10989)	86.2	6.2	7.7	2.01
	보통	(5051)	72.2	12.3	15.5	2.89
	나쁨	(1317)	74.8	11.0	14.2	2.7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81.1	8.7	10.2	2.27
	200만원 미만	(4187)	81.0	8.0	11.0	2.28
	200~300만원 미만	(4397)	82.7	7.7	9.6	2.32
	300~400만원 미만	(2925)	80.9	8.3	10.9	2.37
	400만원 이상	(1697)	79.2	9.7	11.0	2.46
혼인상태	미혼	(5170)	80.3	8.7	11.0	2.36
	기혼	(10451)	81.8	8.0	10.1	2.28
	사별/이혼/별거	(1736)	80.4	8.9	10.7	2.40
가구원수	1인	(1936)	79.7	8.8	11.4	2.44
	2인 이상	(15421)	81.4	8.2	10.3	2.30
주거형태	자가	(14022)	81.7	7.8	10.5	2.27
	전세	(2209)	80.1	9.3	10.6	2.58
	월세/사글세/무상	(1126)	77.7	12.2	10.1	2.43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80.0	8.3	11.6	2.30
	아파트	(8442)	82.3	8.1	9.6	2.29
	연립/다세대/기타	(3130)	80.7	8.7	10.6	2.44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77.9	14.7	7.4	2.28
	비해당	(16899)	81.3	8.1	10.5	2.32
다문화가정	해당	(100)	79.3	14.7	6.1	2.16
	비해당	(17257)	81.3	8.3	10.5	2.32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60.0	13.0	27.0	3.82
	200만원 미만	(2096)	79.7	10.0	10.4	2.29
	200~300만원 미만	(2038)	79.3	9.9	10.7	2.49
	300~400만원 미만	(2908)	79.9	9.3	10.8	2.36
	400~500만원 미만	(3072)	80.7	7.6	11.7	2.41
	500~600만원 미만	(3149)	85.2	7.1	7.7	2.10
	600만원 이상	(3941)	82.1	7.2	10.7	2.26

## 7 스트레스

### 가. 전체 분석

어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꼈는지 묻은 결과 응답자의 26.2%는 6점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57.0%는 4점 이하로 응답했다. 경험 정도를 평균으로 환산하면 3.89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스트레스는 여자(3.77점)보다 남자(4.02점)에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0대(4.15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3.51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제주(4.20점), 서울(4.11점), 경기(4.05점) 순으로 높고, 대전(3.07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참여 요일별로는 '화~금'이 3.94점으로 '토~월'(3.85점)보다 0.09점 높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대재 이상(4.03점), 직업 있음(4.01점), 자영업자(4.02점), 임시/일용근로자(4.07점), 건강상태 보통(4.17점), 개인소득 400만원 이상(4.15점), 미혼(4.12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전세(4.18점), 연립/다세대/기타(4.14점), 가구소득 없음(4.46점)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3-7] 어제 경험한 정서 - 스트레스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57.0	16.8	26.2	3.89
조사참여 요일	화~금	(8521)	56.4	17.2	26.4	3.94
	토~일	(8836)	57.7	16.3	26.0	3.85
성별	남자	(8615)	54.3	17.7	28.0	4.02
	여자	(8742)	59.7	15.8	24.5	3.77
연령별	15~19	(871)	51.5	17.2	31.3	4.15
	20대	(2550)	55.3	17.2	27.5	3.97
	30대	(2576)	54.3	17.3	28.4	4.06
	40대	(3123)	53.8	16.7	29.6	4.08
	50대	(3304)	54.3	17.9	27.7	4.04
	60대 이상	(4933)	64.2	15.4	20.4	3.51
지역별	서울	(3301)	53.1	18.9	28.0	4.11
	부산	(1155)	58.8	13.9	27.3	3.84
	대구	(800)	62.2	15.0	22.8	3.89
	인천	(996)	56.9	18.5	24.5	3.89
	광주	(483)	60.2	21.1	18.7	3.56
	대전	(490)	70.6	14.5	14.9	3.07
	울산	(375)	63.2	13.7	23.1	4.01
	세종	(114)	77.1	12.0	10.9	3.16
	경기	(4404)	54.7	16.4	28.9	4.05
	강원	(526)	50.2	21.3	28.5	4.04
	충북	(540)	65.6	16.1	18.3	3.58
	충남	(711)	63.4	17.2	19.5	3.41
	전북	(602)	53.4	19.5	27.1	3.86
	전남	(627)	62.0	10.7	27.2	3.43
	경북	(894)	54.8	18.6	26.6	3.88
	경남	(1116)	58.9	10.0	31.1	3.83
	제주	(224)	47.0	32.8	20.2	4.20
학력	중졸 이하	(2863)	64.0	14.9	21.0	3.53
	고졸	(5401)	57.4	16.4	26.2	3.85
	대재 이상	(9093)	54.6	17.5	27.9	4.03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54.9	17.3	27.8	4.01
	없다	(5740)	61.3	15.7	23.0	3.65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55.1	17.5	27.4	4.01
	자영업자	(3084)	54.9	17.3	27.9	4.02
	무급가족종사자	(538)	57.6	16.3	26.0	3.75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55.4	17.5	27.1	3.99
	임시/일용근로자	(1395)	54.1	17.4	28.5	4.07
건강상태	좋음	(10989)	59.3	15.9	24.7	3.77
	보통	(5051)	51.9	18.4	29.7	4.17
	나쁨	(1317)	57.5	17.1	25.4	3.88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58.0	16.5	25.5	3.81
	200만원 미만	(4187)	62.0	14.6	23.4	3.64
	200~300만원 미만	(4397)	55.7	16.9	27.4	4.02
	300~400만원 미만	(2925)	54.3	17.6	28.1	4.05
	400만원 이상	(1697)	50.6	20.7	28.7	4.15
혼인상태	미혼	(5170)	52.6	17.5	29.9	4.12
	기혼	(10451)	58.5	16.4	25.1	3.83
	사별/이혼/별거	(1736)	61.7	16.5	21.8	3.62
가구원수	1인	(1936)	56.9	18.1	25.0	3.87
	2인 이상	(15421)	57.0	16.6	26.4	3.90
주거형태	자가	(14022)	57.9	16.5	25.6	3.84
	전세	(2209)	54.1	16.5	29.4	4.18
	월세/사글세/무상	(1126)	52.5	20.2	27.3	4.06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59.2	16.2	24.6	3.71
	아파트	(8442)	56.7	16.7	26.6	3.92
	연립/다세대/기타	(3130)	53.9	17.8	28.3	4.14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66.3	16.2	17.5	3.31
	비해당	(16899)	56.8	16.8	26.5	3.91
다문화가정	해당	(100)	63.4	19.8	16.9	3.69
	비해당	(17257)	57.0	16.7	26.3	3.90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42.9	19.0	38.1	4.46
	200만원 미만	(2096)	65.4	15.3	19.3	3.38
	200~300만원 미만	(2038)	56.3	17.0	26.7	3.95
	300~400만원 미만	(2908)	55.8	17.1	27.1	3.98
	400~500만원 미만	(3072)	54.9	16.2	28.9	4.03
	500~600만원 미만	(3149)	57.0	17.5	25.5	3.93
	600만원 이상	(3941)	56.1	16.8	27.1	3.92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66.3	16.2	17.5	3.31
	비해당	(16899)	56.8	16.8	26.5	3.91
가구원수	1인	(1936)	56.9	18.1	25.0	3.87
	2인 이상	(15421)	57.0	16.6	26.4	3.90

## 8 피곤

### 가. 전체 분석

어제 하루 피곤을 얼마나 느꼈는지 묻은 결과 응답자의 34.9%는 6점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46.4%는 4점 이하로 응답했다. 경험 정도를 평균으로 환산하면 4.47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피곤은 여자(4.40점)보다 남자(4.53점)에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4.61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4.30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경북(4.81점), 제주(4.80점), 전남(4.79점) 순으로 높고, 세종(3.79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참여 요일별로는 '화~금'이 4.51점으로 '토~월'(4.42점)보다 0.09점 높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대재 이상(4.50점), 직업 있음(4.63점), 무급가족종사자(4.93점), 임시/일용근로자(4.72점), 건강상태 보통(4.74점), 개인소득 400만원 이상(4.63), 기혼(4.49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월세/사글세/무상(4.69점), 연립/다세대/기타(4.61점), 가구소득 없음(4.75점)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3-8] 어제 경험한 정서 - 피곤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46.4	18.6	34.9	4.47
조사참여 요일	화~금	(8521)	46.1	18.7	35.1	4.51
	토~일	(8836)	46.7	18.6	34.7	4.42
성별	남자	(8615)	45.5	18.5	36.0	4.53
	여자	(8742)	47.4	18.8	33.8	4.40
연령별	15~19	(871)	47.2	18.7	34.2	4.43
	20대	(2550)	46.8	18.8	34.4	4.41
	30대	(2576)	46.1	18.1	35.9	4.56
	40대	(3123)	44.6	18.5	36.9	4.55
	50대	(3304)	43.7	18.2	38.1	4.61
	60대 이상	(4933)	49.3	19.2	31.5	4.30
지역별	서울	(3301)	42.4	20.3	37.3	4.69
	부산	(1155)	48.8	19.4	31.8	4.31
	대구	(800)	51.6	19.1	29.3	4.33
	인천	(996)	48.3	17.4	34.3	4.37
	광주	(483)	42.2	20.9	36.9	4.55
	대전	(490)	56.3	17.3	26.4	4.11
	울산	(375)	51.0	14.1	34.9	4.55
	세종	(114)	68.6	14.5	16.8	3.79
	경기	(4404)	48.2	15.7	36.1	4.46
	강원	(526)	39.8	24.7	35.5	4.60
	충북	(540)	52.3	18.8	28.9	4.27
	충남	(711)	55.6	21.1	23.3	3.88
	전북	(602)	36.6	26.0	37.4	4.76
	전남	(627)	36.0	19.7	44.3	4.79
	경북	(894)	36.1	21.4	42.5	4.81
	경남	(1116)	53.7	12.9	33.3	4.04
	제주	(224)	33.7	32.6	33.7	4.80
학력	중졸 이하	(2863)	49.2	19.3	31.5	4.32
	고졸	(5401)	45.9	18.4	35.6	4.48
	대재 이상	(9093)	45.9	18.6	35.6	4.50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43.5	18.5	38.0	4.63
	없다	(5740)	52.3	19.0	28.7	4.12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44.7	18.6	36.7	4.56
	자영업자	(3084)	41.8	17.6	40.6	4.77
	무급가족종사자	(538)	34.9	21.0	44.1	4.93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45.5	18.0	36.5	4.53
	임시/일용근로자	(1395)	41.0	21.2	37.8	4.72
건강상태	좋음	(10989)	49.4	17.8	32.8	4.31
	보통	(5051)	41.0	20.1	38.9	4.74
	나쁨	(1317)	42.8	19.7	37.4	4.68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49.8	19.1	31.1	4.23
	200만원 미만	(4187)	46.8	19.9	33.3	4.40
	200~300만원 미만	(4397)	45.3	17.7	37.0	4.60
	300~400만원 미만	(2925)	44.8	17.1	38.1	4.60
	400만원 이상	(1697)	43.0	19.4	37.6	4.63
혼인상태	미혼	(5170)	46.3	18.7	35.0	4.47
	기혼	(10451)	46.0	18.4	35.6	4.49
	사별/이혼/별거	(1736)	49.3	20.0	30.7	4.29
가구원수	1인	(1936)	46.3	20.1	33.6	4.45
	2인 이상	(15421)	46.4	18.5	35.1	4.47
주거형태	자가	(14022)	47.0	18.7	34.3	4.42
	전세	(2209)	44.9	17.4	37.7	4.64
	월세/사글세/무상	(1126)	42.0	21.0	37.0	4.69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46.6	19.3	34.1	4.39
	아파트	(8442)	46.4	18.4	35.2	4.46
	연립/다세대/기타	(3130)	46.2	18.0	35.8	4.61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54.2	16.7	29.1	4.03
	비해당	(16899)	46.2	18.7	35.1	4.48
다문화가정	해당	(100)	53.3	19.2	27.5	4.23
	비해당	(17257)	46.4	18.6	35.0	4.47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39.5	19.2	41.3	4.75
	200만원 미만	(2096)	49.7	20.1	30.2	4.25
	200~300만원 미만	(2038)	43.9	19.7	36.4	4.58
	300~400만원 미만	(2908)	43.6	19.4	37.0	4.59
	400~500만원 미만	(3072)	46.4	18.7	34.9	4.47
	500~600만원 미만	(3149)	47.2	18.2	34.6	4.44
	600만원 이상	(3941)	47.8	17.1	35.2	4.44



## 9 활력

### 가. 전체 분석

어제 하루 활력을 얼마나 느꼈는지 묻은 결과 응답자의 49.2%는 6점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28.9%는 4점 이하로 응답했다. 경험 정도를 평균으로 환산하면 5.32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활력은 여자(5.26점)보다 남자(5.43점)에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5.66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4.94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인천(5.78점), 부산(5.73점), 경남(5.72점) 순으로 높고, 세종(4.28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참여 요일별로는 '토~월'이 5.36점으로 '화~금'(5.28점)보다 0.08점 높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대재 이상(5.54점), 직업 있음(5.41점), 임금근로자(5.42점), 상용근로자(5.46점), 건강상태 좋음(5.59점), 개인소득 400만원 이상(5.66), 미혼(5.51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2인 이상 가구(5.34점), 자가(5.32점), 아파트(5.41점), 가구소득 400~500만원 미만(5.49점) 등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3-9] 어제 경험한 정서 - 활력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28.9	21.9	49.2	5.32
조사참여 요일	화~금	(8521)	29.5	21.6	48.9	5.28
	토~일	(8836)	28.4	22.2	49.4	5.36
성별	남자	(8615)	27.8	21.2	51.0	5.38
	여자	(8742)	30.0	22.6	47.4	5.26
연령별	15~19	(871)	26.3	22.8	50.9	5.43
	20대	(2550)	24.0	18.3	57.7	5.66
	30대	(2576)	25.0	20.0	54.9	5.53
	40대	(3123)	26.2	22.4	51.3	5.43
	50대	(3304)	28.2	22.5	49.4	5.32
	60대 이상	(4933)	36.2	23.8	40.0	4.94
지역별	서울	(3301)	22.7	19.8	57.6	5.58
	부산	(1155)	24.0	18.4	57.6	5.73
	대구	(800)	35.1	20.4	44.5	4.99
	인천	(996)	22.3	20.1	57.6	5.78
	광주	(483)	34.4	23.7	42.0	5.10
	대전	(490)	30.9	27.1	42.0	5.37
	울산	(375)	34.0	19.4	46.6	5.21
	세종	(114)	52.3	31.5	16.2	4.28
	경기	(4404)	34.2	19.2	46.6	5.01
	강원	(526)	24.8	24.5	50.7	5.69
	충북	(540)	36.0	32.2	31.7	4.90
	충남	(711)	43.1	28.3	28.7	4.57
	전북	(602)	27.3	31.2	41.5	5.25
	전남	(627)	23.0	24.1	52.9	5.45
	경북	(894)	23.2	27.8	49.1	5.38
	경남	(1116)	26.8	17.7	55.5	5.72
	제주	(224)	17.4	35.2	47.4	5.60
학력	중졸 이하	(2863)	37.8	24.8	37.3	4.86
	고졸	(5401)	30.8	23.1	46.2	5.18
	대재 이상	(9093)	25.1	20.3	54.7	5.54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27.0	21.6	51.4	5.41
	없다	(5740)	32.9	22.5	44.6	5.13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27.0	20.7	52.3	5.42
	자영업자	(3084)	27.1	23.2	49.7	5.37
	무급가족종사자	(538)	29.8	26.5	43.7	5.21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26.5	19.6	53.9	5.46
	임시/일용근로자	(1395)	29.2	25.6	45.3	5.26
건강상태	좋음	(10989)	24.3	19.1	56.5	5.59
	보통	(5051)	32.5	27.7	39.9	5.03
	나쁨	(1317)	53.9	22.8	23.3	4.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28.8	22.4	48.8	5.32
	200만원 미만	(4187)	36.4	23.4	40.1	4.96
	200~300만원 미만	(4397)	27.0	21.1	52.0	5.43
	300~400만원 미만	(2925)	26.3	19.9	53.8	5.45
	400만원 이상	(1697)	20.6	22.3	57.2	5.66
혼인상태	미혼	(5170)	25.9	19.8	54.3	5.51
	기혼	(10451)	28.5	22.5	49.0	5.32
	사별/이혼/별거	(1736)	40.5	24.2	35.3	4.74
가구원수	1인	(1936)	32.0	21.7	46.3	5.18
	2인 이상	(15421)	28.6	21.9	49.5	5.34
주거형태	자가	(14022)	28.8	21.8	49.4	5.32
	전세	(2209)	29.0	22.0	49.0	5.30
	월세/사글세/무상	(1126)	30.3	23.0	46.7	5.28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31.3	23.3	45.3	5.18
	아파트	(8442)	27.3	21.9	50.8	5.41
	연립/다세대/기타	(3130)	29.1	19.1	51.8	5.31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53.3	26.8	19.9	4.06
	비해당	(16899)	28.3	21.8	50.0	5.35
다문화가정	해당	(100)	32.2	20.0	47.7	4.85
	비해당	(17257)	28.9	21.9	49.2	5.32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29.3	26.3	44.4	5.24
	200만원 미만	(2096)	42.0	26.4	31.6	4.62
	200~300만원 미만	(2038)	31.4	23.6	45.0	5.22
	300~400만원 미만	(2908)	26.5	22.7	50.7	5.44
	400~500만원 미만	(3072)	25.5	21.4	53.1	5.49
	500~600만원 미만	(3149)	26.8	21.1	52.1	5.42
	600만원 이상	(3941)	26.9	18.8	54.3	5.44

## 10 외로움

### 가. 전체 분석

어제 하루 외로움을 얼마나 느꼈는지 묻은 결과 응답자의 16.5%는 6점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70.6%는 4점 이하로 응답했다. 경험 정도를 평균으로 환산하면 2.98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외로움은 남자(2.97점)와 여자(2.99점)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15점)이 가장 높고, 20/30대(2.81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강원(4.03점), 인천(3.79점), 제주(3.61점) 순으로 높고, 광주(2.02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참여 요일별로는 '화~금'이 3.03점으로 '토~월'(2.93점)보다 0.10점 높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3.18점), 직업 없음(3.03점), 자영업자(3.00점), 임시/일용근로자(2.98점), 건강상태 나쁨(3.80점), 개인소득 400만원 이상(2.77), 기혼(2.76점), 기초생활수급가구(3.52점), 1인 가구(4.03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1인 가구(4.03점), 월세/사글세/무상(3.36점), 연립/다세대/기타(3.08점), 기초생활수급가구(3.52점), 가구소득 없음(4.36점) 등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3-10] 어제 경험한 정서 - 외로움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70.6	12.9	16.5	2.98
조사참여 요일	화~금	(8521)	70.4	13.0	16.5	3.03
	토~일	(8836)	70.8	12.8	16.4	2.93
성별	남자	(8615)	70.8	12.9	16.3	2.97
	여자	(8742)	70.5	12.9	16.6	2.99
연령별	15~19	(871)	74.0	11.5	14.5	2.84
	20대	(2550)	72.8	11.7	15.5	2.81
	30대	(2576)	74.1	12.0	13.9	2.81
	40대	(3123)	70.6	13.1	16.3	2.97
	50대	(3304)	69.8	13.1	17.1	3.03
	60대 이상	(4933)	67.6	14.1	18.3	3.15
지역별	서울	(3301)	70.9	12.5	16.6	2.95
	부산	(1155)	70.5	11.5	18.0	3.11
	대구	(800)	78.2	10.9	10.8	2.44
	인천	(996)	61.8	18.8	19.4	3.79
	광주	(483)	80.2	11.2	8.6	2.02
	대전	(490)	81.2	12.1	6.7	2.32
	울산	(375)	71.1	11.2	17.7	3.11
	세종	(114)	82.8	14.8	2.3	2.86
	경기	(4404)	70.8	12.0	17.2	3.02
	강원	(526)	52.0	22.9	25.0	4.03
	충북	(540)	67.4	18.5	14.1	3.34
	충남	(711)	63.9	17.3	18.8	3.57
	전북	(602)	72.7	15.3	12.0	2.75
	전남	(627)	73.5	7.4	19.1	2.48
	경북	(894)	69.0	11.2	19.8	2.64
	경남	(1116)	77.4	7.5	15.1	2.60
	제주	(224)	56.7	25.2	18.1	3.61
학력	중졸 이하	(2863)	67.6	14.0	18.5	3.18
	고졸	(5401)	69.6	13.8	16.6	3.02
	대재 이상	(9093)	72.2	12.1	15.7	2.89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71.0	12.7	16.3	2.95
	없다	(5740)	69.8	13.4	16.9	3.03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72.7	11.8	15.5	2.88
	자영업자	(3084)	69.1	14.0	16.9	3.00
	무급가족종사자	(538)	78.3	12.1	9.7	2.44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73.0	11.6	15.3	2.86
	임시/일용근로자	(1395)	71.3	12.4	16.3	2.98
건강상태	좋음	(10989)	76.6	10.2	13.2	2.64
	보통	(5051)	61.1	17.7	21.2	3.51
	나쁨	(1317)	57.5	16.9	25.7	3.80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72.7	12.7	14.6	2.87
	200만원 미만	(4187)	67.1	13.5	19.4	3.16
	200~300만원 미만	(4397)	70.4	13.1	16.5	3.03
	300~400만원 미만	(2925)	71.5	12.7	15.8	2.93
	400만원 이상	(1697)	73.4	11.6	15.0	2.77
혼인상태	미혼	(5170)	70.3	12.9	16.8	3.04
	기혼	(10451)	73.9	12.0	14.0	2.76
	사별/이혼/별거	(1736)	51.7	18.3	30.1	4.09
가구원수	1인	(1936)	53.2	16.3	30.5	4.03
	2인 이상	(15421)	72.8	12.5	14.7	2.85
주거형태	자가	(14022)	71.6	12.5	16.0	2.92
	전세	(2209)	69.2	13.4	17.4	3.18
	월세/사글세/무상	(1126)	61.7	17.6	20.8	3.36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70.2	12.9	16.9	2.96
	아파트	(8442)	71.0	12.6	16.4	2.96
	연립/다세대/기타	(3130)	70.5	13.8	15.8	3.08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58.9	19.5	21.6	3.52
	비해당	(16899)	70.9	12.7	16.3	2.96
다문화가정	해당	(100)	73.9	11.5	14.6	2.96
	비해당	(17257)	70.6	12.9	16.5	2.98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47.3	18.9	33.9	4.36
	200만원 미만	(2096)	59.5	16.6	23.8	3.56
	200~300만원 미만	(2038)	66.9	14.6	18.6	3.29
	300~400만원 미만	(2908)	68.9	14.2	16.9	3.04
	400~500만원 미만	(3072)	70.3	13.0	16.7	3.01
	500~600만원 미만	(3149)	75.7	10.7	13.7	2.65
	600만원 이상	(3941)	76.8	10.6	12.6	2.65

## 제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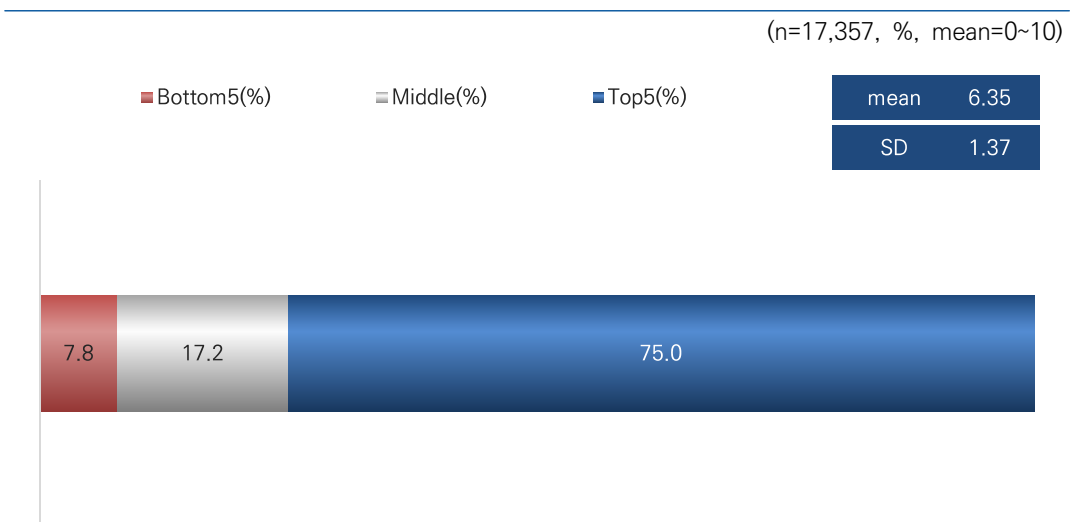
## 어제의 행복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어제의 행복감

#### 가. 전체 분석

‘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 묻은 결과 75.0%는 6점 이상으로 응답했으며, 7.8%는 4점 이하로 응답했다. 행복 정도를 평균으로 환산하면 6.35점이다.



[그림 3-2] 어제의 행복감

## 나. 특성별 분석

행복도는 남자(6.34점)와 여자(6.37점)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6.56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6.11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경남(6.93점), 부산(6.88점), 전남(6.57점) 순으로 높고, 경북(6.01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참여 요일별로는 '토~월'이 6.39점으로 '화~금'(6.31점)보다 0.08점 높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6.03점), 직업 없음(6.19점), 무급가족종사자(6.26점), 임시/일용근로자(6.10점), 건강상태 나쁨(5.31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6.09점), 사별/이혼/별거(5.83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1인 가구(6.04점), 월세/사글세/무상(5.93점), 연립/다세대/기타(6.22점), 기초생활수급가구(5.20점), 다문화가정(6.11점), 가구소득 없음(5.48점) 등에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3-11] 어제의 행복감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7.8	17.2	75.0	6.35
조사참여 요일	화~금	(8521)	8.9	17.0	74.1	6.31
	토~월	(8836)	6.8	17.3	75.9	6.39
성별	남자	(8615)	7.7	18.1	74.2	6.34
	여자	(8742)	7.9	16.2	75.9	6.37
연령별	15~19	(871)	7.0	16.2	76.7	6.38
	20대	(2550)	5.5	15.3	79.2	6.50
	30대	(2576)	5.4	12.9	81.8	6.56
	40대	(3123)	7.2	15.0	77.8	6.45
	50대	(3304)	7.4	17.9	74.7	6.35
	60대 이상	(4933)	11.0	21.5	67.5	6.11
지역별	서울	(3301)	7.9	12.4	79.7	6.41
	부산	(1155)	3.7	9.0	87.3	6.88
	대구	(800)	5.8	20.3	73.8	6.30
	인천	(996)	4.7	14.1	81.2	6.54
	광주	(483)	6.1	22.2	71.8	6.38
	대전	(490)	5.4	17.1	77.5	6.54
	울산	(375)	4.2	13.4	82.3	6.54
	세종	(114)	2.7	18.3	79.0	6.51
	경기	(4404)	10.8	19.6	69.6	6.10
	강원	(526)	9.9	29.1	60.9	6.03
	충북	(540)	8.1	26.9	65.0	6.28
	충남	(711)	8.0	20.1	71.9	6.21
	전북	(602)	12.7	24.3	62.9	6.16
	전남	(627)	5.1	10.8	84.1	6.57
	경북	(894)	7.5	29.0	63.4	6.01
	경남	(1116)	4.7	7.3	87.9	6.93
	제주	(224)	10.0	20.4	69.6	6.14
학력	중졸 이하	(2863)	11.6	23.2	65.2	6.03
	고졸	(5401)	8.4	19.2	72.4	6.26
	대재 이상	(9093)	6.2	14.1	79.7	6.51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6.3	16.0	77.7	6.43
	없다	(5740)	10.7	19.6	69.7	6.19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5.9	14.5	79.6	6.49
	자영업자	(3084)	7.9	18.1	74.0	6.32
	무급가족종사자	(538)	7.2	23.0	69.9	6.26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4.7	12.7	82.6	6.57
	임시/일용근로자	(1395)	11.1	22.5	66.5	6.10
건강상태	좋음	(10989)	4.2	13.1	82.8	6.64
	보통	(5051)	10.7	23.5	65.8	6.01
	나쁨	(1317)	26.8	27.4	45.7	5.31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8.1	18.3	73.6	6.32
	200만원 미만	(4187)	12.0	21.6	66.4	6.09
	200~300만원 미만	(4397)	6.2	15.1	78.7	6.43
	300~400만원 미만	(2925)	4.5	15.0	80.5	6.54
	400만원 이상	(1697)	6.3	12.8	80.8	6.60
혼인상태	미혼	(5170)	7.0	16.4	76.5	6.37
	기혼	(10451)	6.8	16.3	76.9	6.43
	사별/이혼/별거	(1736)	16.0	25.0	59.0	5.83
가구원수	1인	(1936)	13.6	20.4	66.1	6.04
	2인 이상	(15421)	7.1	16.8	76.2	6.39
주거형태	자가	(14022)	7.1	16.9	76.0	6.39
	전세	(2209)	9.3	14.1	76.6	6.34
	월세/사글세/무상	(1126)	13.5	27.1	59.4	5.93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8.4	18.9	72.7	6.29
	아파트	(8442)	6.8	15.9	77.3	6.45
	연립/다세대/기타	(3130)	9.2	17.4	73.4	6.22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28.9	27.3	43.7	5.20
	비해당	(16899)	7.2	16.9	75.9	6.39
다문화가정	해당	(100)	16.9	14.4	68.7	6.11
	비해당	(17257)	7.7	17.2	75.1	6.36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24.0	22.1	53.8	5.48
	200만원 미만	(2096)	16.5	27.6	56.0	5.77
	200~300만원 미만	(2038)	10.2	21.6	68.2	6.15
	300~400만원 미만	(2908)	7.3	18.0	74.8	6.38
	400~500만원 미만	(3072)	6.5	16.3	77.2	6.43
	500~600만원 미만	(3149)	5.9	13.5	80.6	6.50
	600만원 이상	(3941)	4.1	12.3	83.6	6.60

## 제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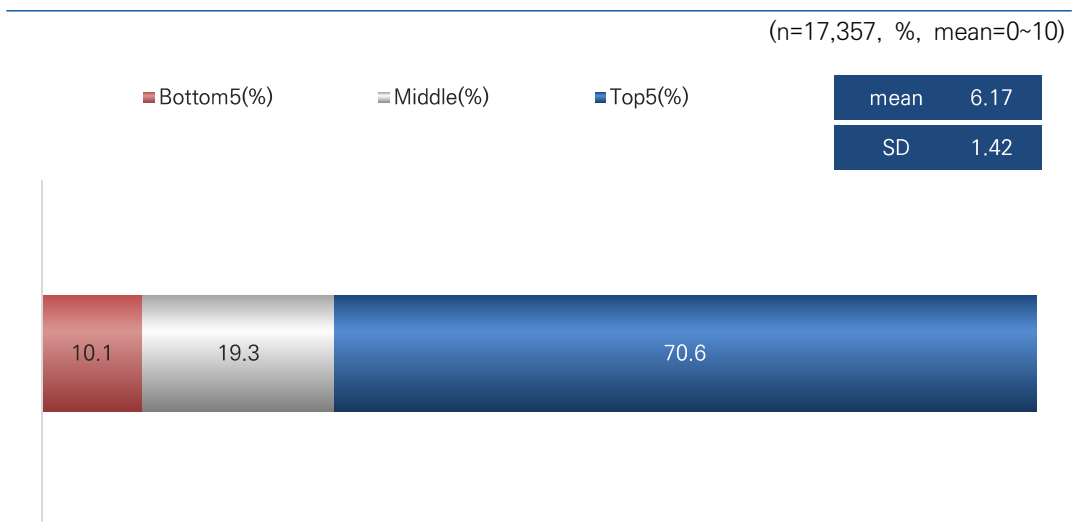
## 어제의 미소/웃음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어제의 미소/웃음

#### 가. 전체 분석

‘어제 얼마나 미소짓거나 웃었는지’ 묻은 결과 70.6%는 6점 이상으로 응답했으며, 10.1%는 4점 이하로 응답했다. 미소/웃음 정도를 평균으로 환산하면 6.17점이다.



[그림 3-3] 어제의 행복감

## 나. 특성별 분석

미소/웃음 정도는 남자(6.12점)보다 여자(6.21점)에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6.40점)에서 가장 높고, 60대 이상(5.88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경남(6.68점), 부산(6.65점), 인천(6.44점) 순으로 높고, 대구(5.73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참여 요일별로는 '토~월'이 6.19점으로 '화~금'(6.15점)보다 0.04점 높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5.81점), 직업 없음(6.02점), 무급가족종사자(6.01점), 임시/일용근로자(5.94점), 건강상태 나쁨(5.06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5.89점), 사별/이혼/별거(5.67점), 기초생활수급가구(5.05점), 1인 가구(5.89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1인 가구(5.89점), 월세/사글세/무상(5.75점), 연립/다세대/기타(6.10점), 기초생활수급가구(5.05점), 다문화가정(5.95점), 가구소득 없음(5.43점) 등에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3-12] 어제의 미소/웃음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10.1	19.3	70.6	6.17
조사참여 요일	화~금	(8521)	11.0	19.4	69.6	6.15
	토~일	(8836)	9.4	19.2	71.5	6.19
성별	남자	(8615)	10.3	20.7	69.0	6.12
	여자	(8742)	10.0	17.9	72.1	6.21
연령별	15~19	(871)	9.3	16.2	74.6	6.27
	20대	(2550)	7.2	17.5	75.3	6.36
	30대	(2576)	6.9	15.4	77.7	6.40
	40대	(3123)	9.5	17.0	73.5	6.24
	50대	(3304)	9.8	19.7	70.4	6.16
	60대 이상	(4933)	14.1	24.0	61.9	5.88
지역별	서울	(3301)	11.4	15.0	73.5	6.12
	부산	(1155)	5.3	14.3	80.4	6.65
	대구	(800)	13.9	30.0	56.1	5.73
	인천	(996)	5.3	15.1	79.6	6.44
	광주	(483)	10.7	23.5	65.8	6.14
	대전	(490)	5.1	21.3	73.6	6.39
	울산	(375)	6.1	13.5	80.4	6.38
	세종	(114)	4.0	16.3	79.7	6.33
	경기	(4404)	12.5	19.8	67.7	6.00
	강원	(526)	12.2	25.8	62.0	6.01
	충북	(540)	10.7	25.1	64.2	6.26
	충남	(711)	5.3	21.8	72.9	6.24
	전북	(602)	13.5	31.7	54.9	5.91
	전남	(627)	8.3	12.4	79.3	6.38
	경북	(894)	12.5	28.9	58.6	5.79
	경남	(1116)	6.5	13.2	80.3	6.68
	제주	(224)	11.4	18.3	70.4	6.14
학력	중졸 이하	(2863)	15.5	25.0	59.5	5.81
	고졸	(5401)	10.6	21.2	68.2	6.08
	대재 이상	(9093)	8.2	16.4	75.4	6.33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8.3	19.0	72.7	6.24
	없다	(5740)	13.9	19.8	66.3	6.02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7.4	17.9	74.7	6.30
	자영업자	(3084)	10.6	20.5	68.8	6.11
	무급가족종사자	(538)	11.2	24.9	64.0	6.01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6.1	16.1	77.8	6.38
	임시/일용근로자	(1395)	13.0	26.0	61.0	5.94
건강상태	좋음	(10989)	6.0	15.7	78.3	6.44
	보통	(5051)	13.3	25.4	61.3	5.86
	나쁨	(1317)	32.8	25.8	41.3	5.06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0.8	18.5	70.7	6.16
	200만원 미만	(4187)	15.5	23.4	61.1	5.89
	200~300만원 미만	(4397)	7.6	18.3	74.1	6.28
	300~400만원 미만	(2925)	7.0	18.4	74.7	6.27
	400만원 이상	(1697)	7.4	15.4	77.2	6.39
혼인상태	미혼	(5170)	8.8	18.1	73.0	6.25
	기혼	(10451)	9.3	18.9	71.8	6.21
	사별/이혼/별거	(1736)	18.8	25.3	55.9	5.67
가구원수	1인	(1936)	15.5	21.9	62.7	5.89
	2인 이상	(15421)	9.5	19.0	71.6	6.20
주거형태	자가	(14022)	9.4	19.1	71.5	6.20
	전세	(2209)	10.8	17.1	72.1	6.17
	월세/사글세/무상	(1126)	18.3	25.5	56.1	5.75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11.1	20.7	68.2	6.11
	아파트	(8442)	9.3	18.6	72.2	6.23
	연립/다세대/기타	(3130)	10.7	18.6	70.7	6.10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32.4	27.9	39.7	5.05
	비해당	(16899)	9.5	19.1	71.4	6.20
다문화가정	해당	(100)	15.7	23.3	61.0	5.95
	비해당	(17257)	10.1	19.3	70.6	6.17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24.2	25.0	50.8	5.43
	200만원 미만	(2096)	21.2	27.7	51.1	5.53
	200~300만원 미만	(2038)	12.1	22.4	65.5	6.04
	300~400만원 미만	(2908)	10.6	20.3	69.2	6.14
	400~500만원 미만	(3072)	8.4	19.5	72.0	6.25
	500~600만원 미만	(3149)	7.9	16.1	76.0	6.32
	600만원 이상	(3941)	5.4	14.6	79.9	6.43

# 제4장

## 삶의 만족도

---

- 제1절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 제2절 5년 전 삶의 만족도
- 제3절 5년 후 삶의 만족도(예상)
- 제4절 가족생활 만족도
- 제5절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 제6절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 제7절 주변 환경 만족도
- 제8절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





## 제 1절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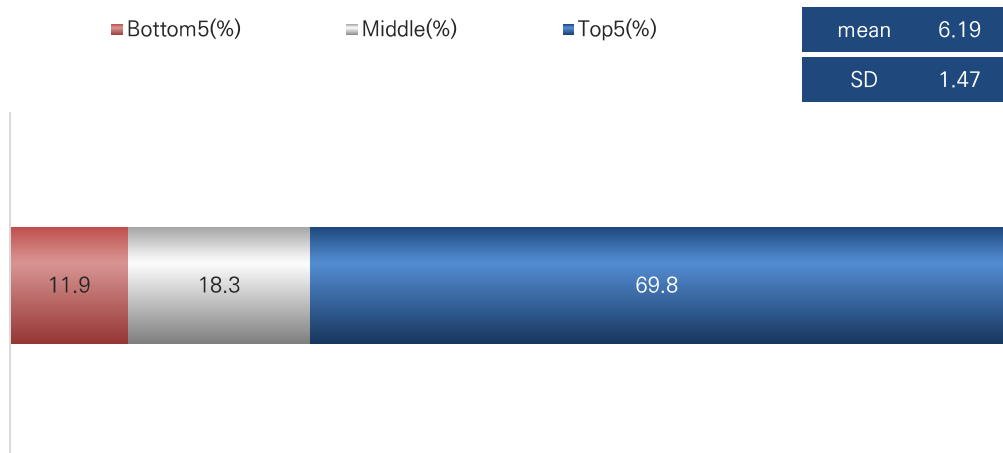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 가. 전체 분석

‘현재 자신이 사다리의 맨 아래(0점)부터 꼭대기(10점) 사이 중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69.8%는 6점 이상으로 응답했으며, 11.9%는 4점 이하로 응답했다. 응답 평균은 6.19점이다.

(n=17,357, %, mean=0~10)



[그림 4-1] 어제의 행복감

## 나. 특성별 분석

‘현재 자신이 사다리의 맨 아래(0점)부터 꼭대기(10점) 사이 중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자(6.21점)가 남자(6.18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6.44점)에서 가장 높고, 60대 이상(5.84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경남(6.78점), 세종(6.74점), 부산(6.61점) 순으로 높고, 경북(5.63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5.68점), 직업 없음(6.03점), 무급가족종사자(6.01점), 임시/일용근로자(5.80점), 건강상태 나쁨(4.94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5.79점), 사별/이혼/별거(5.42점), 기초생활수급가구(4.78점), 1인 가구(5.73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1인 가구(5.73점), 월세/사글세/무상(5.49점), 연립/다세대/기타(6.00점), 기초생활수급가구(4.78점), 다문화가정(5.66점),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5.37점) 등에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4-1]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11.9	18.3	69.8	6.19
전반적 행복도	행복하지 않다(0~4)	(1092)	70.4	16.8	12.8	3.93
	보통이다(5)	(2821)	21.4	44.5	34.1	5.14
	행복하다(6~10)	(13443)	5.2	12.9	81.9	6.60
성별	남자	(8615)	12.0	19.0	69.0	6.18
	여자	(8742)	11.9	17.6	70.5	6.21
연령별	15~19	(871)	10.6	19.2	70.2	6.24
	20대	(2550)	8.6	16.8	74.6	6.37
	30대	(2576)	7.7	15.9	76.4	6.44
	40대	(3123)	9.9	17.0	73.1	6.31
	50대	(3304)	10.9	16.6	72.5	6.27
	60대 이상	(4933)	18.1	22.0	59.8	5.84
지역별	서울	(3301)	10.4	17.4	72.2	6.23
	부산	(1155)	10.3	11.2	78.5	6.61
	대구	(800)	14.5	23.2	62.3	5.91
	인천	(996)	11.4	18.4	70.2	6.14
	광주	(483)	11.3	19.0	69.7	6.17
	대전	(490)	9.3	17.4	73.4	6.53
	울산	(375)	4.1	14.0	82.0	6.46
	세종	(114)	4.3	16.1	79.6	6.74
	경기	(4404)	12.0	20.4	67.6	6.12
	강원	(526)	13.7	23.1	63.2	6.02
	충북	(540)	15.8	24.2	59.9	5.96
	충남	(711)	14.7	21.7	63.6	5.94
	전북	(602)	15.6	22.8	61.6	5.99
	전남	(627)	8.5	15.9	75.6	6.31
	경북	(894)	23.5	21.3	55.2	5.63
	경남	(1116)	7.6	7.5	85.0	6.78
제주	(224)	11.4	17.9	70.6	6.28	
학력	중졸 이하	(2863)	21.7	22.8	55.4	5.68
	고졸	(5401)	12.5	20.1	67.4	6.09
	대재 이상	(9093)	8.5	15.8	75.7	6.42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10.1	17.9	72.1	6.28
	없다	(5740)	15.7	19.1	65.2	6.03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9.5	17.4	73.1	6.31
	자영업자	(3084)	11.9	19.3	68.8	6.17
	무급가족종사자	(538)	14.0	22.9	63.1	6.01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7.5	16.3	76.2	6.42
	임시/일용근로자	(1395)	18.3	22.3	59.4	5.80
건강상태	좋음	(10989)	7.1	16.3	76.6	6.48
	보통	(5051)	15.3	21.8	62.9	5.90
	나쁨	(1317)	38.9	21.7	39.4	4.94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1.7	18.6	69.8	6.21
	200만원 미만	(4187)	20.2	20.8	59.1	5.79
	200~300만원 미만	(4397)	9.4	18.7	71.9	6.26
	300~400만원 미만	(2925)	7.8	16.4	75.8	6.41
	400만원 이상	(1697)	5.8	13.6	80.6	6.63
혼인상태	미혼	(5170)	10.0	18.0	72.0	6.26
	기혼	(10451)	10.4	17.8	71.8	6.29
	사별/이혼/별거	(1736)	27.0	22.0	51.0	5.42
가구원수	1인	(1936)	22.1	19.3	58.6	5.73
	2인 이상	(15421)	10.7	18.2	71.2	6.25
주거형태	자가	(14022)	10.5	18.2	71.3	6.26
	전세	(2209)	13.6	17.1	69.4	6.15
	월세/사글세/무상	(1126)	26.7	21.5	51.8	5.49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13.7	19.4	66.9	6.10
	아파트	(8442)	10.4	16.1	73.6	6.33
	연립/다세대/기타	(3130)	12.9	22.2	64.9	6.00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42.8	18.8	38.4	4.78
	비해당	(16899)	11.1	18.3	70.6	6.23
다문화가정	해당	(100)	20.6	23.4	56.0	5.66
	비해당	(17257)	11.9	18.2	69.9	6.20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27.7	19.0	53.2	5.58
	200만원 미만	(2096)	28.5	22.8	48.7	5.37
	200~300만원 미만	(2038)	17.2	22.3	60.6	5.87
	300~400만원 미만	(2908)	11.0	19.2	69.8	6.20
	400~500만원 미만	(3072)	8.8	18.4	72.8	6.31
	500~600만원 미만	(3149)	8.6	16.0	75.4	6.40
	600만원 이상	(3941)	5.6	14.9	79.5	6.57

## 제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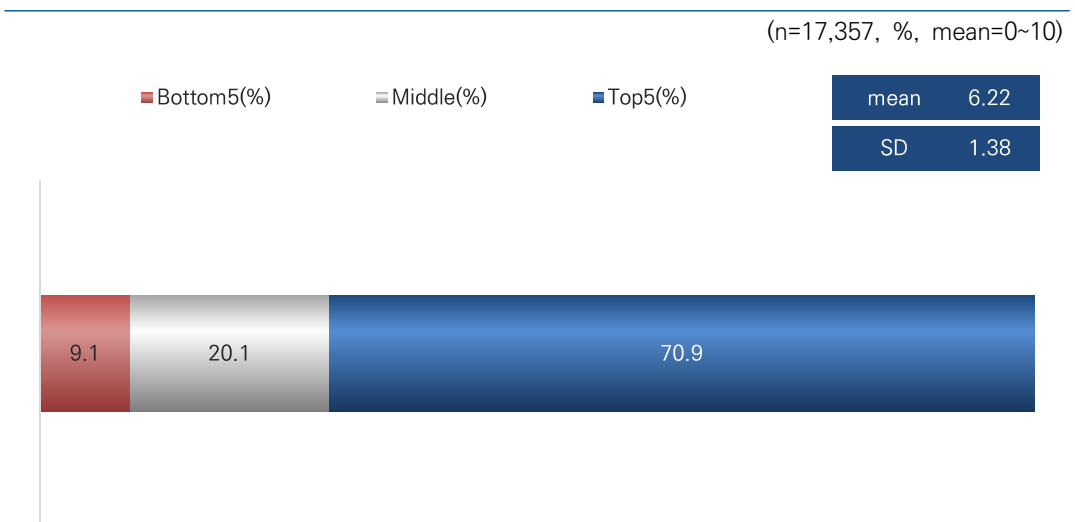
## 5년 전 삶의 만족도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5년 전 삶의 만족도

#### 가. 전체 분석

‘5년 전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했는지’ 묻은 결과 70.9%는 6점 이상으로 응답했으며, 9.1%는 4점 이하로 응답했다. 응답 평균은 6.22점이다.



[그림 4-2] 어제의 행복감

## 나. 특성별 분석

‘5년 전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자(6.23점)가 남자(6.22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6.36점)에서 가장 높고, 60대 이상(6.11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부산(6.81점), 경남(6.73점), 전남(6.46점) 순으로 높고, 충남(5.81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6.05점), 직업 없음(6.14점), 무급가족종사자(6.24점), 임시/일용근로자(5.88점), 건강상태 나쁨(5.41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5.99점), 사별/이혼/별거(5.76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1인 가구(5.96점), 월세/사글세/무상(5.71점), 연립/다세대/기타(6.18점), 기초생활수급가구(5.17점), 다문화가정(5.77점),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5.56점) 등에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4-2] 5년 전 삶의 만족도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9.1	20.1	70.9	6.22
전반적 행복도	행복하지 않다(0~4)	(1092)	50.3	27.2	22.5	4.46
	보통이다(5)	(2821)	15.2	50.0	34.7	5.34
	행복하다(6~10)	(13443)	4.4	13.2	82.4	6.55
성별	남자	(8615)	9.1	20.4	70.5	6.22
	여자	(8742)	9.0	19.8	71.2	6.23
연령별	15~19	(871)	7.3	18.6	74.1	6.36
	20대	(2550)	8.8	21.4	69.7	6.19
	30대	(2576)	8.7	16.7	74.6	6.31
	40대	(3123)	8.9	17.9	73.2	6.29
	50대	(3304)	8.5	19.7	71.9	6.24
	60대 이상	(4933)	10.2	23.0	66.8	6.11
지역별	서울	(3301)	9.0	15.4	75.5	6.30
	부산	(1155)	3.8	12.7	83.4	6.81
	대구	(800)	6.4	24.9	68.8	6.12
	인천	(996)	5.6	19.9	74.5	6.32
	광주	(483)	11.7	24.6	63.7	6.11
	대전	(490)	8.9	18.2	72.8	6.33
	울산	(375)	5.8	13.1	81.0	6.42
	세종	(114)	8.0	18.3	73.7	6.16
	경기	(4404)	11.2	21.8	67.0	6.05
	강원	(526)	9.4	24.8	65.8	6.08
	충북	(540)	12.2	30.5	57.3	5.90
	충남	(711)	14.0	28.6	57.4	5.81
	전북	(602)	14.9	33.4	51.6	5.83
	전남	(627)	6.5	13.8	79.7	6.46
	경북	(894)	6.6	26.9	66.6	6.08
	경남	(1116)	5.8	10.0	84.2	6.73
제주	(224)	13.4	23.8	62.8	5.86	
학력	중졸 이하	(2863)	11.3	23.6	65.1	6.05
	고졸	(5401)	9.1	20.9	70.0	6.18
	대재 이상	(9093)	8.3	18.5	73.2	6.30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8.6	18.4	73.0	6.26
	없다	(5740)	8.3	19.6	72.1	6.25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8.0	21.0	70.9	6.24
	자영업자	(3084)	7.1	17.0	75.9	6.35
	무급가족종사자	(538)	15.2	24.3	60.6	5.88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6.3	16.7	77.0	6.43
	임시/일용근로자	(1395)	11.4	24.8	63.8	5.97
건강상태	좋음	(10989)	23.2	29.7	47.2	5.41
	보통	(5051)	15.3	21.8	62.9	5.90
	나쁨	(1317)	38.9	21.7	39.4	4.94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8.2	20.8	71.0	6.26
	200만원 미만	(4187)	12.9	22.9	64.2	5.99
	200~300만원 미만	(4397)	7.8	19.5	72.7	6.26
	300~400만원 미만	(2925)	7.6	17.5	75.0	6.32
	400만원 이상	(1697)	7.6	17.3	75.1	6.43
혼인상태	미혼	(5170)	9.1	20.9	70.0	6.20
	기혼	(10451)	7.7	18.7	73.5	6.31
	사별/이혼/별거	(1736)	17.0	25.7	57.3	5.76
가구원수	1인	(1936)	14.2	22.4	63.4	5.96
	2인 이상	(15421)	8.4	19.8	71.8	6.25
주거형태	자가	(14022)	7.8	20.2	72.0	6.28
	전세	(2209)	12.2	16.6	71.2	6.14
	월세/사글세/무상	(1126)	18.1	25.9	56.0	5.71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8.7	21.1	70.1	6.20
	아파트	(8442)	9.5	19.1	71.4	6.25
	연립/다세대/기타	(3130)	8.5	20.7	70.8	6.18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31.6	23.9	44.5	5.17
	비해당	(16899)	8.4	20.0	71.6	6.25
다문화가정	해당	(100)	18.0	23.6	58.4	5.77
	비해당	(17257)	9.0	20.0	70.9	6.22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22.8	24.4	52.8	5.56
	200만원 미만	(2096)	16.1	26.6	57.4	5.77
	200~300만원 미만	(2038)	11.3	23.7	65.0	6.06
	300~400만원 미만	(2908)	8.8	19.4	71.8	6.26
	400~500만원 미만	(3072)	9.1	19.4	71.5	6.26
	500~600만원 미만	(3149)	7.3	17.5	75.3	6.37
	600만원 이상	(3941)	5.2	17.7	77.1	6.39



## 제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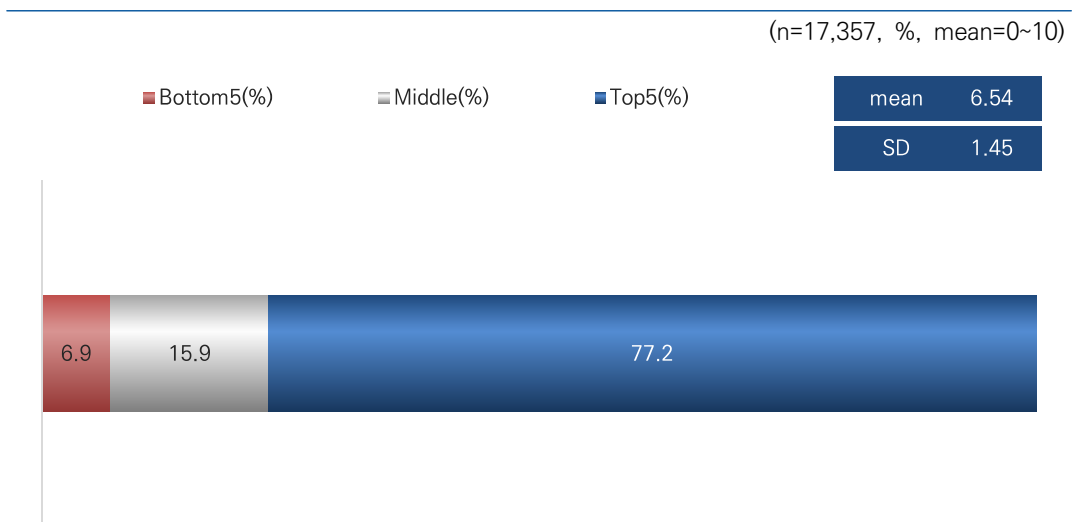
# 5년 후 삶의 만족도(예상)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5년 후 삶의 만족도(예상)

#### 가. 전체 분석

‘5년 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은 결과 77.2%는 6점 이상으로 응답했으며, 6.9%는 4점 이하로 응답했다. 응답 평균은 6.54점이다.



[그림 4-3] 어제의 행복감

## 나. 특성별 분석

‘5년 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서는 남자(6.54점)가 여자(6.53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6.91점)에서 가장 높고, 60대 이상(5.97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경남(6.88점), 광주(6.87점), 부산(6.86점) 순으로 높고, 경북(5.90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5.96점), 직업 없음(6.37점), 무급가족종사자(6.30점), 임시/일용근로자(6.29점), 건강상태 나쁨(5.06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6.10점), 사별/이혼/별거(5.69점), 기초생활수급가구(5.17점), 1인 가구(6.08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1인 가구(6.08점), 월세/사글세/무상(6.25점), 기초생활수급가구(5.17점), 다문화가정(6.13점),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5.56점) 등에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4-3] 5년 후 삶의 만족도(예상)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6.9	15.9	77.2	6.54
전반적 행복도	행복하지 않다(0~4)	(1092)	51.9	26.0	22.1	4.31
	보통이다(5)	(2821)	14.8	42.5	42.7	5.46
	행복하다(6~10)	(13443)	1.6	9.5	88.9	6.95
성별	남자	(8615)	6.9	16.0	77.1	6.54
	여자	(8742)	6.9	15.8	77.3	6.53
연령별	15~19	(871)	2.8	9.4	87.8	6.98
	20대	(2550)	2.7	12.4	84.9	6.91
	30대	(2576)	3.2	10.2	86.6	6.88
	40대	(3123)	4.3	12.4	83.3	6.75
	50대	(3304)	6.0	16.8	77.2	6.51
	60대 이상	(4933)	14.0	23.5	62.6	5.97
지역별	서울	(3301)	4.7	13.0	82.3	6.75
	부산	(1155)	5.2	12.1	82.7	6.86
	대구	(800)	3.3	19.2	77.4	6.48
	인천	(996)	3.8	15.2	81.0	6.82
	광주	(483)	4.6	16.6	78.9	6.87
	대전	(490)	4.2	14.4	81.4	6.84
	울산	(375)	5.6	10.6	83.8	6.62
	세종	(114)	2.0	5.3	92.7	6.76
	경기	(4404)	9.2	17.7	73.1	6.32
	강원	(526)	10.7	20.8	68.5	6.25
	충북	(540)	7.9	20.5	71.7	6.37
	충남	(711)	7.2	16.3	76.5	6.27
	전북	(602)	10.5	23.5	66.0	6.33
	전남	(627)	6.0	11.5	82.5	6.70
	경북	(894)	13.1	24.7	62.3	5.90
	경남	(1116)	5.0	9.0	86.0	6.88
제주	(224)	9.4	18.9	71.6	6.44	
학력	중졸 이하	(2863)	15.0	22.9	62.1	5.96
	고졸	(5401)	7.0	18.2	74.8	6.40
	대재 이상	(9093)	4.3	12.3	83.4	6.80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5.6	14.7	79.6	6.62
	없다	(5740)	9.4	18.3	72.3	6.37
직업유무	있다	(11617)	4.5	13.5	82.0	6.72
	없다	(5740)	7.6	16.6	75.8	6.47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10.9	17.6	71.5	6.30
	자영업자	(3084)	3.1	12.4	84.5	6.82
	무급가족종사자	(538)	10.6	18.5	71.0	6.29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2.6	11.3	86.1	6.90
	임시/일용근로자	(1395)	9.6	23.3	67.1	6.13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32.7	26.0	41.4	5.06
	200만원 미만	(4187)	13.4	20.1	66.5	6.10
	200~300만원 미만	(4397)	4.9	13.2	81.9	6.66
	300~400만원 미만	(2925)	3.8	15.5	80.7	6.68
	400만원 이상	(1697)	3.8	12.5	83.7	6.90
혼인상태	미혼	(5170)	3.7	12.8	83.5	6.80
	기혼	(10451)	6.5	15.9	77.5	6.55
	사별/이혼/별거	(1736)	18.7	25.1	56.2	5.69
가구원수	1인	(1936)	14.0	20.6	65.4	6.08
	2인 이상	(15421)	6.0	15.3	78.7	6.60
주거형태	자가	(14022)	6.4	16.2	77.4	6.55
	전세	(2209)	7.3	12.7	80.0	6.61
	월세/사글세/무상	(1126)	12.4	19.1	68.5	6.25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8.2	17.6	74.2	6.39
	아파트	(8442)	6.1	15.6	78.3	6.64
	연립/다세대/기타	(3130)	6.6	13.6	79.8	6.53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30.0	23.7	46.2	5.17
	비해당	(16899)	6.3	15.7	78.0	6.58
다문화가정	해당	(100)	14.3	16.1	69.6	6.13
	비해당	(17257)	6.8	15.9	77.2	6.54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26.9	19.7	53.3	5.57
	200만원 미만	(2096)	20.8	27.2	52.0	5.56
	200~300만원 미만	(2038)	9.2	21.6	69.2	6.24
	300~400만원 미만	(2908)	5.9	16.6	77.5	6.55
	400~500만원 미만	(3072)	4.1	12.8	83.2	6.74
	500~600만원 미만	(3149)	3.6	12.7	83.7	6.78
	600만원 이상	(3941)	3.0	11.3	85.6	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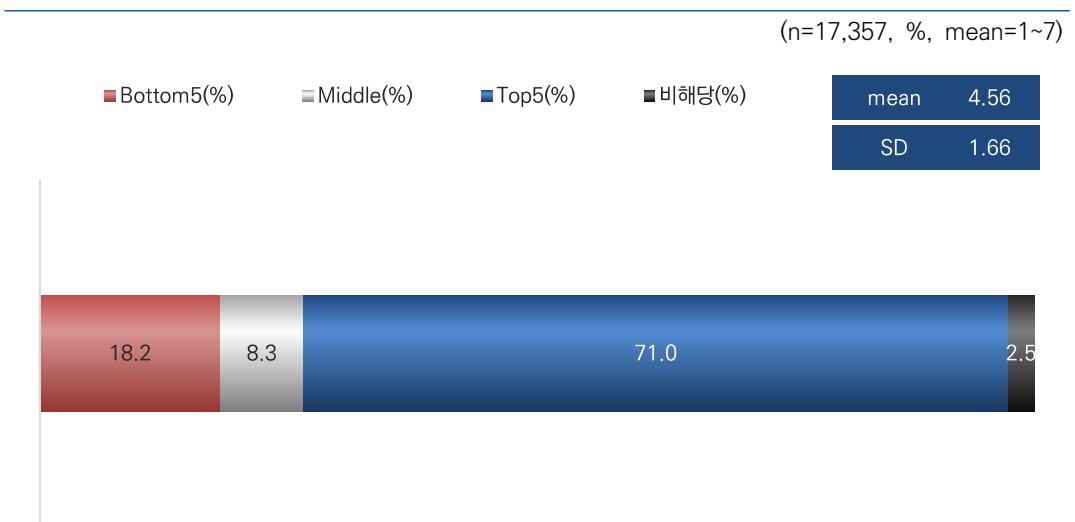
## 제4절 가족생활 만족도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가족생활 만족도

#### 가. 전체 분석

‘자신의 가족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묻은 결과 71.0%는 5점 이상으로 응답했으며, 18.2%는 3점 이하로 응답했다. 만족도 평균은 4.56점이다.



[그림 4-4] 어제의 행복감

## 나. 특성별 분석

‘자신의 가족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자(4.56점)가 남자(4.55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4.59점)이 가장 높고, 30대(4.52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대구(4.88점), 세종(4.85점), 충남(4.81점) 순으로 높고, 광주(4.03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대재 이상(4.52점), 직업 없음(4.52점), 자영업자(4.56점), 임시/일용근로자(4.55점), 건강상태 나쁨(4.37점), 개인소득 400만원 이상(4.39점), 기혼(4.53점), 기초생활수급가구(4.29점), 1인 가구(4.54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1인 가구(4.54점), 전세(4.48점), 아파트(4.50점), 기초생활수급가구(4.29점), 가구소득 없음(4.30점) 등에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4-4] 가족생활 만족도

구분		n	Bottom3 (%)	Middle (%)	Top3 (%)	비해당 (%)	Mean (1~7)
전체		(17357)	18.2	8.3	71.0	2.5	4.56
전반적 행복도	행복하지 않다(0~4)	(1092)	39.2	25.3	30.6	5.0	3.85
	보통이다(5)	(2821)	8.9	26.2	60.5	4.4	4.62
	행복하다(6~10)	(13443)	18.4	3.2	76.5	1.9	4.60
성별	남자	(8615)	18.3	8.2	70.8	2.8	4.55
	여자	(8742)	18.1	8.4	71.2	2.3	4.56
연령별	15~19	(871)	20.2	5.0	74.1	0.7	4.56
	20대	(2550)	18.8	6.8	72.5	1.9	4.56
	30대	(2576)	18.6	7.2	70.8	3.4	4.52
	40대	(3123)	19.1	6.5	72.0	2.4	4.56
	50대	(3304)	18.4	8.3	71.5	1.7	4.54
	60대 이상	(4933)	16.5	11.4	68.7	3.4	4.59
지역별	서울	(3301)	13.9	7.3	75.1	3.7	4.75
	부산	(1155)	18.9	5.7	72.9	2.6	4.61
	대구	(800)	10.5	6.2	82.5	0.8	4.88
	인천	(996)	23.4	5.9	68.0	2.7	4.36
	광주	(483)	32.0	8.9	56.9	2.2	4.03
	대전	(490)	30.3	8.0	59.0	2.7	4.05
	울산	(375)	13.5	6.3	79.2	1.0	4.80
	세종	(114)	12.9	3.8	81.1	2.1	4.85
	경기	(4404)	18.2	9.4	69.9	2.5	4.54
	강원	(526)	14.7	12.5	72.4	0.4	4.68
	충북	(540)	20.9	13.3	62.9	2.8	4.39
	충남	(711)	12.0	6.9	80.4	0.6	4.81
	전북	(602)	25.7	13.3	58.6	2.5	4.21
	전남	(627)	23.2	3.4	72.2	1.1	4.36
	경북	(894)	17.3	15.6	64.0	3.1	4.41
	경남	(1116)	18.9	4.1	73.1	3.9	4.63
	제주	(224)	24.1	13.3	62.2	0.4	4.21

구분		n	Bottom3 (%)	Middle (%)	Top3 (%)	비해당 (%)	Mean (1~7)
학력	중졸 이하	(2863)	16.3	11.5	69.0	3.2	4.60
	고졸	(5401)	16.7	9.1	71.8	2.4	4.61
	대재 이상	(9093)	19.6	6.8	71.1	2.4	4.52
직업유무	있다	(11617)	17.6	7.5	72.1	2.8	4.58
	없다	(5740)	19.4	9.9	68.6	2.0	4.52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7488)	17.4	7.5	72.2	2.9	4.59
	자영업자	(3084)	17.9	7.3	71.5	3.3	4.56
	무급가족종사자	(538)	17.1	8.6	74.2	0.2	4.64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17.4	6.8	73.0	2.8	4.60
	임시/일용근로자	(1395)	17.5	10.8	68.6	3.2	4.55
건강상태	좋음	(10989)	19.2	5.3	73.1	2.3	4.55
	보통	(5051)	15.0	12.3	70.3	2.5	4.62
	나쁨	(1317)	21.7	17.8	55.8	4.7	4.37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9.8	8.0	71.6	0.5	4.52
	200만원 미만	(4187)	17.5	11.2	67.7	3.7	4.56
	200~300만원 미만	(4397)	15.9	7.7	73.4	3.0	4.64
	300~400만원 미만	(2925)	17.4	7.0	72.4	3.3	4.58
	400만원 이상	(1697)	23.1	5.7	68.9	2.3	4.39
혼인상태	미혼	(5170)	16.9	7.7	71.3	4.1	4.61
	기혼	(10451)	19.2	7.7	72.9	0.2	4.53
	사별/이혼/별거	(1736)	15.8	13.6	58.5	12.1	4.55
가구원수	1인	(1936)	14.8	11.2	53.5	20.6	4.54
	2인 이상	(15421)	18.6	7.9	73.2	0.3	4.56
주거형태	자가	(14022)	18.1	7.9	72.7	1.3	4.57
	전세	(2209)	19.8	7.4	66.7	6.0	4.48
	월세/사글세/무상	(1126)	16.3	14.7	57.3	11.6	4.50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17.9	9.0	70.9	2.2	4.55
	아파트	(8442)	19.7	7.6	70.1	2.5	4.50
	연립/다세대/기타	(3130)	14.4	8.9	73.5	3.2	4.73
기초생활수급	해당	(458)	24.6	17.6	51.3	6.5	4.29
	비해당	(16899)	18.0	8.1	71.5	2.4	4.56



구분		n	Bottom3 (%)	Middle (%)	Top3 (%)	비해당 (%)	Mean (1~7)
다문화가정	해당	(100)	31.5	15.9	52.6	0.0	3.96
	비해당	(17257)	18.1	8.3	71.1	2.6	4.56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23.6	19.7	53.9	2.8	4.30
	200만원 미만	(2096)	16.4	16.5	59.9	7.2	4.52
	200~300만원 미만	(2038)	15.5	11.0	67.1	6.3	4.60
	300~400만원 미만	(2908)	16.8	9.1	70.9	3.2	4.58
	400~500만원 미만	(3072)	18.9	6.5	73.5	1.1	4.57
	500~600만원 미만	(3149)	20.3	6.2	73.0	0.5	4.50
	600만원 이상	(3941)	19.0	4.6	76.0	0.4	4.59

## 제 5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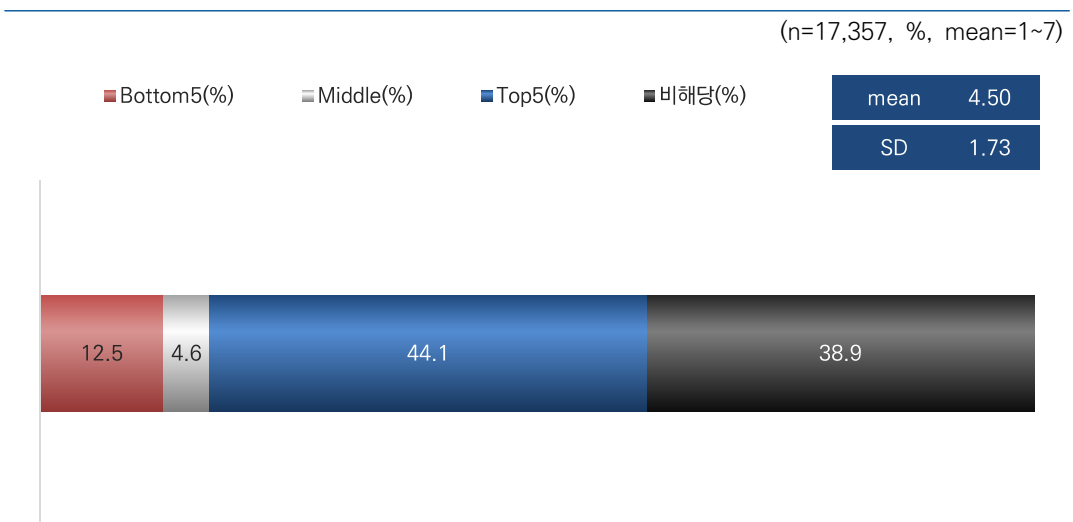
#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배우자와 관계 만족도

#### 가. 전체 분석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물은 결과 44.1%는 5점 이상으로 응답했으며, 12.5%는 3점 이하로 응답했다. 만족도 평균은 4.50점이다.



[그림 4-5] 배우자와 관계 만족도

## 나. 특성별 분석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자(4.51점)가 남자(4.49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기혼자 비율이 가장 낮은 15~19세(5.92점)가 가장 높고, 30대(4.21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울산(5.01점), 세종(4.93점), 대구(4.77점) 순으로 높고, 광주(3.76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대재 이상(4.40점), 직업 없음(4.55점), 임금근로자(4.47점), 상용근로자(4.44점), 건강상태 나쁨(4.32점), 개인소득 400만원 이상(4.25점), 기혼(4.47점), 기초생활수급가구(4.42점), 2인 이상 가구(4.50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2인 이상 가구(4.50점), 전세(4.35점), 아파트(4.44점), 기초생활수급가구(4.42점), 가구소득 없음(4.42점) 등에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4-5] 배우자와 관계 만족도

구분		n	Bottom3 (%)	Middle (%)	Top3 (%)	비해당 (%)	Mean (1~7)
전체		(17357)	12.5	4.6	44.1	38.9	4.50
전반적 행복도	행복하지 않다(0~4)	(1092)	19.4	14.3	17.5	48.7	3.88
	보통이다(5)	(2821)	6.0	13.3	38.2	42.5	4.65
	행복하다(6~10)	(13443)	13.2	2.0	47.4	37.3	4.51
성별	남자	(8615)	13.0	4.2	44.8	38.1	4.49
	여자	(8742)	12.0	5.0	43.3	39.7	4.51
연령별	15~19	(871)	0.1	0.0	4.1	95.9	5.92
	20대	(2550)	2.0	0.2	6.9	90.9	4.69
	30대	(2576)	14.0	1.8	32.4	51.8	4.21
	40대	(3123)	17.0	5.0	59.7	18.3	4.51
	50대	(3304)	17.5	6.6	62.1	13.8	4.47
	60대 이상	(4933)	13.0	7.5	54.4	25.1	4.59
지역별	서울	(3301)	11.0	3.2	45.3	40.5	4.61
	부산	(1155)	13.4	3.8	46.2	36.7	4.54
	대구	(800)	9.3	3.7	51.2	35.8	4.77
	인천	(996)	12.2	3.3	42.9	41.6	4.53
	광주	(483)	25.0	4.6	33.4	37.0	3.76
	대전	(490)	15.0	3.9	37.8	43.2	4.27
	울산	(375)	5.9	4.4	57.7	32.1	5.01
	세종	(114)	7.0	4.4	55.7	33.0	4.93
	경기	(4404)	11.5	6.1	43.4	38.9	4.52
	강원	(526)	13.8	6.4	41.7	38.1	4.46
	충북	(540)	15.7	5.7	34.4	44.1	4.07
	충남	(711)	12.4	3.2	39.9	44.5	4.39
	전북	(602)	15.0	6.9	44.4	33.6	4.37
	전남	(627)	18.6	3.6	41.9	35.9	4.10
	경북	(894)	11.8	7.8	45.0	35.4	4.41
	경남	(1116)	12.6	2.0	47.8	37.6	4.65
	제주	(224)	8.8	4.2	39.8	47.3	4.58

구분		n	Bottom3 (%)	Middle (%)	Top3 (%)	비해당 (%)	Mean (1~7)
학력	중졸 이하	(2863)	8.3	6.3	35.7	49.7	4.61
	고졸	(5401)	14.4	6.4	58.6	20.7	4.57
	대재 이상	(9093)	12.6	3.0	38.1	46.3	4.40
직업유무	있다	(11617)	13.8	4.1	47.8	34.3	4.48
	없다	(5740)	9.7	5.6	36.5	48.2	4.55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7488)	12.3	3.4	41.8	42.5	4.47
	자영업자	(3084)	15.5	4.6	58.7	21.2	4.54
	무급가족종사자	(538)	16.9	8.7	64.6	9.7	4.54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13.0	3.0	42.0	42.0	4.44
	임시/일용근로자	(1395)	9.6	5.1	41.0	44.3	4.60
건강상태	좋음	(10989)	13.0	2.5	42.5	42.0	4.45
	보통	(5051)	10.7	8.1	49.7	31.4	4.62
	나쁨	(1317)	14.6	8.7	35.3	41.4	4.32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1.2	5.0	38.8	45.0	4.50
	200만원 미만	(4187)	10.6	5.7	41.4	42.2	4.55
	200~300만원 미만	(4397)	9.9	3.8	41.2	45.1	4.60
	300~400만원 미만	(2925)	14.7	3.6	51.9	29.8	4.50
	400만원 이상	(1697)	22.9	4.6	57.2	15.3	4.25
혼인상태	미혼	(5170)	0.0	0.0	3.9	96.1	6.00
	기혼	(10451)	20.6	7.6	70.7	1.1	4.47
	사별/이혼/별거	(1736)	0.8	0.3	3.2	95.6	5.18
가구원수	1인	(1936)	1.5	0.7	5.0	92.8	4.80
	2인 이상	(15421)	13.8	5.1	49.0	32.1	4.50
주거형태	자가	(14022)	12.6	4.8	46.4	36.2	4.52
	전세	(2209)	14.2	3.7	39.4	42.7	4.35
	월세/사글세/무상	(1126)	7.0	3.4	24.4	65.3	4.50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12.3	5.2	44.4	38.1	4.50
	아파트	(8442)	13.6	4.1	44.1	38.2	4.44
	연립/다세대/기타	(3130)	9.7	4.9	43.2	42.2	4.67
기초생활수급	해당	(458)	8.7	5.7	25.1	60.6	4.42
	비해당	(16899)	12.6	4.6	44.6	38.3	4.50

구분		n	Bottom3 (%)	Middle (%)	Top3 (%)	비해당 (%)	Mean (1~7)
다문화가정	해당	(100)	23.0	9.8	45.2	22.0	4.10
	비해당	(17257)	12.4	4.6	44.0	39.0	4.50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16.2	7.3	39.7	36.8	4.42
	200만원 미만	(2096)	8.6	7.9	34.7	48.8	4.56
	200~300만원 미만	(2038)	9.7	5.4	38.1	46.8	4.57
	300~400만원 미만	(2908)	13.6	5.1	46.3	35.1	4.46
	400~500만원 미만	(3072)	13.4	4.5	48.9	33.2	4.53
	500~600만원 미만	(3149)	14.9	4.0	47.2	33.9	4.41
	600만원 이상	(3941)	12.3	2.5	44.4	40.8	4.53

## 제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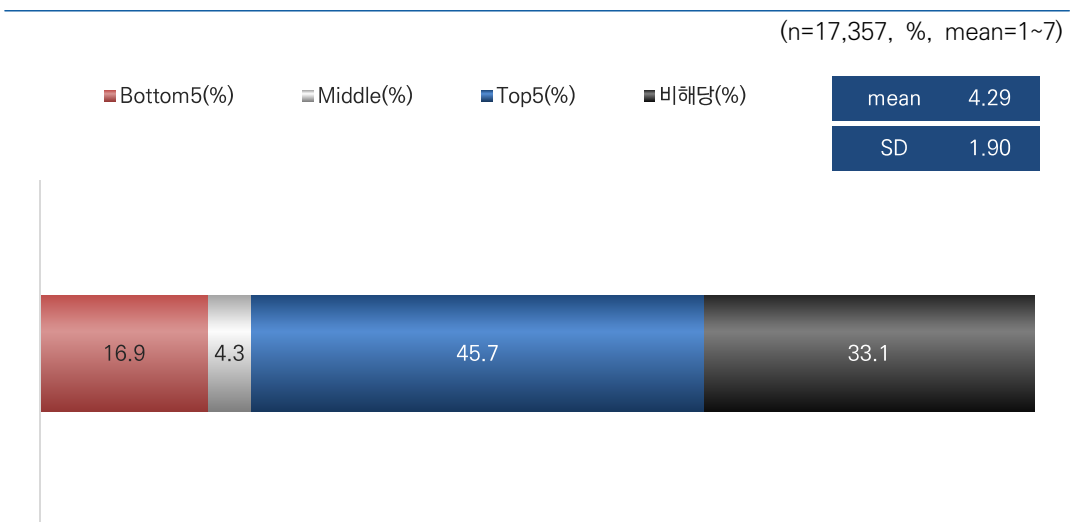
#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 가. 전체 분석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묻은 결과 45.7%는 5점 이상으로 응답했으며, 16.9%는 3점 이하로 응답했다. 만족도 평균은 4.29점이다.



[그림 4-6]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 나. 특성별 분석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남자(4.31점)가 여자(4.28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4.42점)이 가장 높고, 15~19세(3.70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5.04점), 울산(4.63점), 대구(4.47점) 순으로 높고, 광주(3.61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대재 이상(4.15점), 무급가족종사자(4.21점), 개인소득 400만원 이상(4.14점), 기혼(4.28점), 2인 이상 가구(4.29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2인 이상 가구(4.29점), 전세(4.04점), 단독주택(4.26점), 다문화가정(3.76점), 가구소득 500~600만원 미만(4.22점) 등에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4-6]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구분		n	Bottom3 (%)	Middle (%)	Top3 (%)	비해당 (%)	Mean (1~7)
전체		(17357)	16.9	4.3	45.7	33.1	4.29
전반적 행복도	행복하지 않다(0~4)	(1092)	22.9	16.4	32.3	28.3	4.09
	보통이다(5)	(2821)	9.8	11.8	46.6	31.8	4.55
	행복하다(6~10)	(13443)	18.0	1.7	46.5	33.8	4.26
성별	남자	(8615)	15.6	4.4	43.2	36.7	4.31
	여자	(8742)	18.2	4.2	48.0	29.5	4.28
연령별	15~19	(871)	0.7	0.2	0.9	98.2	3.70
	20대	(2550)	3.3	1.5	10.5	84.6	4.34
	30대	(2576)	13.7	1.6	24.9	59.8	3.94
	40대	(3123)	23.0	3.4	53.9	19.7	4.19
	50대	(3304)	23.3	4.9	63.0	8.8	4.30
	60대 이상	(4933)	20.5	8.0	65.7	5.8	4.42
지역별	서울	(3301)	13.4	3.5	42.9	40.2	4.43
	부산	(1155)	18.9	2.7	52.4	26.0	4.39
	대구	(800)	15.9	2.0	52.1	30.1	4.47
	인천	(996)	17.1	2.8	46.4	33.7	4.27
	광주	(483)	29.1	4.3	34.5	32.1	3.61
	대전	(490)	24.1	2.5	36.5	36.8	3.76
	울산	(375)	12.9	2.3	57.9	26.8	4.63
	세종	(114)	7.2	1.7	60.8	30.3	5.04
	경기	(4404)	15.0	5.5	43.4	36.1	4.33
	강원	(526)	16.5	7.2	49.3	27.0	4.37
	충북	(540)	16.3	7.4	39.3	36.9	4.17
	충남	(711)	21.5	4.1	45.2	29.2	4.09
	전북	(602)	21.8	7.3	43.1	27.9	4.10
	전남	(627)	26.8	2.6	45.2	25.4	3.86
	경북	(894)	15.4	7.3	54.6	22.6	4.36
	경남	(1116)	18.0	1.7	50.3	30.0	4.41
	제주	(224)	19.3	6.3	42.9	31.5	4.10

구분		n	Bottom3 (%)	Middle (%)	Top3 (%)	비해당 (%)	Mean (1~7)
학력	중졸 이하	(2863)	14.9	7.2	49.2	28.7	4.42
	고졸	(5401)	20.2	5.0	61.3	13.5	4.39
	대재 이상	(9093)	15.7	3.0	35.3	46.1	4.15
직업유무	있다	(11617)	17.9	3.9	47.5	30.7	4.28
	없다	(5740)	15.1	5.1	41.9	37.9	4.33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7488)	15.3	3.3	40.8	40.7	4.28
	자영업자	(3084)	21.4	4.4	60.1	14.1	4.33
	무급가족종사자	(538)	25.1	4.4	61.1	9.3	4.21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15.0	2.5	39.9	42.6	4.28
	임시/일용근로자	(1395)	16.5	6.5	44.7	32.4	4.29
건강상태	좋음	(10989)	16.7	1.7	39.8	41.8	4.20
	보통	(5051)	16.0	8.0	56.4	19.5	4.46
	나쁨	(1317)	22.7	11.4	52.9	13.0	4.26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5.3	3.4	39.1	42.1	4.27
	200만원 미만	(4187)	18.0	7.0	51.1	23.9	4.32
	200~300만원 미만	(4397)	14.2	3.1	41.7	41.0	4.35
	300~400만원 미만	(2925)	16.9	3.6	47.9	31.5	4.31
	400만원 이상	(1697)	25.6	3.6	54.7	16.1	4.14
혼인상태	미혼	(5170)	2.1	1.3	7.7	88.9	4.46
	기혼	(10451)	23.9	4.8	63.0	8.3	4.28
	사별/이혼/별거	(1736)	19.3	10.2	54.3	16.2	4.33
가구원수	1인	(1936)	11.6	6.0	32.0	50.3	4.33
	2인 이상	(15421)	17.6	4.1	47.4	30.9	4.29
주거형태	자가	(14022)	17.4	4.2	48.5	30.0	4.32
	전세	(2209)	17.6	4.1	35.9	42.4	4.04
	월세/사글세/무상	(1126)	10.3	6.2	29.7	53.7	4.40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18.3	5.2	47.5	29.0	4.26
	아파트	(8442)	17.3	3.9	45.3	33.5	4.28
	연립/다세대/기타	(3130)	13.5	3.7	43.3	39.5	4.42
기초생활수급	해당	(458)	16.0	13.1	41.0	29.9	4.31
	비해당	(16899)	17.0	4.0	45.8	33.2	4.29

구분		n	Bottom3 (%)	Middle (%)	Top3 (%)	비해당 (%)	Mean (1~7)
다문화가정	해당	(100)	32.0	4.1	40.1	23.8	3.76
	비해당	(17257)	16.9	4.3	45.7	33.2	4.30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13.9	9.7	44.7	31.7	4.44
	200만원 미만	(2096)	16.8	10.3	54.9	18.0	4.42
	200~300만원 미만	(2038)	16.2	5.6	44.8	33.3	4.30
	300~400만원 미만	(2908)	17.3	4.2	46.6	32.0	4.28
	400~500만원 미만	(3072)	18.1	3.9	45.7	32.3	4.28
	500~600만원 미만	(3149)	18.1	2.9	43.5	35.4	4.22
	600만원 이상	(3941)	15.5	1.7	42.2	40.6	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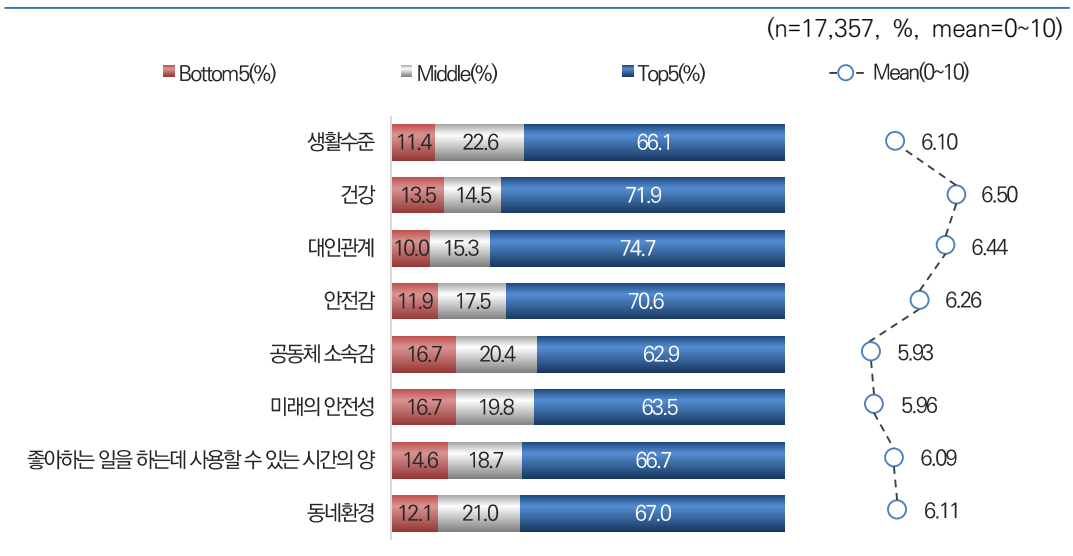
## 제7절

## 주변 환경 만족도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0 종합 분석

주변 환경을 구성하는 8가지 요인 각각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건강'이 6.50점으로 가장 높고, '대인관계'(6.44점), '안전감'(6.26점), '동네환경'(6.11점), '생활수준'(6.10점),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6.09점), '미래의 안전성'(5.96점), '공동체 소속감'(5.93점)이 뒤를 이었다.



[그림 4-7] 주변 환경 만족도

## 1 생활수준

### 가. 전체 분석

‘자신의 삶에 있어 생활수준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물은 결과 66.1%는 6점 이상으로 응답했으며, 11.4%는 4점 이하로 응답했다. 만족도 평균은 6.10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자신의 삶에 있어 생활수준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남자(6.11점)가 여자(6.08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6.37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5.78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경남(6.69점), 부산(6.58점), 대전(6.29점) 순으로 높고, 충남(5.27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5.59점), 무급가족종사자(5.95점), 임시/일용근로자(5.64점), 건강상태 나쁨(4.87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5.59점), 사별/이혼/별거(5.26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1인 가구(5.48점), 월세/사글세/무상(5.16점), 단독주택(5.90점), 기초생활수급가구(4.28점), 다문화가정(5.35점), 가구소득 없음(5.01점) 등에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4-7] 주변 환경 만족도 - 생활수준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11.4	22.6	66.1	6.10
전반적 행복도	행복하지 않다(0~4)	(1092)	56.2	27.7	16.1	4.14
	보통이다(5)	(2821)	23.1	45.4	31.5	5.12
	행복하다(6~10)	(13443)	5.3	17.3	77.4	6.46
성별	남자	(8615)	11.1	22.1	66.7	6.11
	여자	(8742)	11.6	23.0	65.4	6.08
연령별	15~19	(871)	5.3	19.3	75.4	6.37
	20대	(2550)	7.4	21.0	71.6	6.31
	30대	(2576)	8.2	18.7	73.1	6.30
	40대	(3123)	9.2	22.5	68.3	6.17
	50대	(3304)	11.3	22.2	66.5	6.11
	60대 이상	(4933)	17.6	26.2	56.2	5.78
지역별	서울	(3301)	7.4	18.8	73.8	6.26
	부산	(1155)	7.8	15.5	76.7	6.58
	대구	(800)	9.4	32.7	57.9	5.87
	인천	(996)	12.6	20.9	66.5	6.28
	광주	(483)	11.3	29.5	59.2	5.99
	대전	(490)	8.7	20.0	71.3	6.29
	울산	(375)	9.5	20.5	70.0	6.09
	세종	(114)	3.8	17.3	78.9	6.27
	경기	(4404)	11.7	20.5	67.8	6.05
	강원	(526)	16.4	28.5	55.1	5.74
	충북	(540)	11.5	31.5	57.0	5.94
	충남	(711)	25.4	33.6	41.0	5.27
	전북	(602)	17.7	29.2	53.1	5.78
	전남	(627)	12.0	27.0	61.0	5.97
	경북	(894)	18.4	31.7	49.9	5.53
	경남	(1116)	7.6	13.6	78.8	6.69
	제주	(224)	10.5	29.7	59.9	5.97
학력	중졸 이하	(2863)	20.8	27.0	52.2	5.59
	고졸	(5401)	12.2	26.1	61.8	5.97
	대재 이상	(9093)	7.9	19.1	73.0	6.33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10.2	22.6	67.3	6.15
	없다	(5740)	13.8	22.5	63.7	5.99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7488)	9.3	22.0	68.7	6.18
	자영업자	(3084)	10.3	22.9	66.9	6.16
	무급가족종사자	(538)	14.5	25.5	60.0	5.95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7.3	20.3	72.4	6.30
	임시/일용근로자	(1395)	18.2	29.6	52.2	5.64
건강상태	좋음	(10989)	6.1	18.7	75.1	6.41
	보통	(5051)	16.0	29.5	54.5	5.74
	나쁨	(1317)	37.1	28.1	34.8	4.87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8.7	22.1	69.2	6.21
	200만원 미만	(4187)	21.2	26.9	51.9	5.59
	200~300만원 미만	(4397)	9.7	22.3	67.9	6.15
	300~400만원 미만	(2925)	7.3	21.8	70.9	6.30
	400만원 이상	(1697)	4.8	15.0	80.2	6.59
혼인상태	미혼	(5170)	8.8	21.5	69.7	6.22
	기혼	(10451)	9.8	22.0	68.2	6.17
	사별/이혼/별거	(1736)	28.4	29.3	42.3	5.26
가구원수	1인	(1936)	24.8	26.7	48.5	5.48
	2인 이상	(15421)	9.7	22.0	68.3	6.17
주거형태	자가	(14022)	9.4	21.7	68.8	6.20
	전세	(2209)	14.4	23.8	61.8	5.91
	월세/사글세/무상	(1126)	29.3	30.6	40.1	5.16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15.1	24.5	60.4	5.90
	아파트	(8442)	9.0	20.8	70.2	6.27
	연립/다세대/기타	(3130)	10.9	23.8	65.3	5.98
기초생활수급	해당	(458)	53.2	19.8	27.0	4.28
	비해당	(16899)	10.2	22.6	67.1	6.14
다문화가정	해당	(100)	20.6	31.5	47.8	5.35
	비해당	(17257)	11.3	22.5	66.2	6.10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31.6	29.1	39.3	5.01
	200만원 미만	(2096)	32.1	31.4	36.5	5.06
	200~300만원 미만	(2038)	19.5	28.3	52.2	5.67
	300~400만원 미만	(2908)	10.7	24.6	64.7	6.07
	400~500만원 미만	(3072)	6.9	23.5	69.6	6.25
	500~600만원 미만	(3149)	5.8	18.5	75.8	6.35
	600만원 이상	(3941)	3.9	15.6	80.5	6.60

## 2 건강

### 가. 전체 분석

‘자신의 삶에 있어 건강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묻은 결과 71.9%는 6점 이상으로 응답했으며, 13.5%는 4점 이하로 응답했다. 만족도 평균은 6.50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자신의 삶에 있어 건강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남자(6.62점)가 여자(6.39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20대(7.20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5.62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경남(7.22점), 부산(7.03점), 서울(6.80점) 순으로 높고, 충남(5.67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5.62점), 무급가족종사자(6.08점), 임시/일용근로자(6.42점), 건강상태 나쁨(3.89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5.83점), 사별/이혼/별거(5.32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1인 가구(5.98점), 월세/사글세/무상(6.25점), 단독주택(6.24점), 기초생활수급가구(4.73점), 다문화가정(6.12점),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5.07점) 등에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4-8] 주변 환경 만족도 - 건강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13.5	14.5	71.9	6.50
전반적 행복도	행복하지 않다(0~4)	(1092)	54.4	19.1	26.4	4.37
	보통이다(5)	(2821)	25.6	24.9	49.5	5.60
	행복하다(6~10)	(13443)	7.7	12.0	80.3	6.87
성별	남자	(8615)	11.9	14.0	74.0	6.62
	여자	(8742)	15.1	15.1	69.9	6.39
연령별	15~19	(871)	6.3	10.6	83.1	7.20
	20대	(2550)	7.6	9.5	82.9	7.20
	30대	(2576)	7.7	11.2	81.1	7.00
	40대	(3123)	8.1	12.7	79.2	6.76
	50대	(3304)	11.7	15.1	73.1	6.46
	60대 이상	(4933)	25.5	20.4	54.1	5.62
지역별	서울	(3301)	9.6	13.6	76.8	6.80
	부산	(1155)	7.3	8.8	83.8	7.03
	대구	(800)	11.7	17.1	71.2	6.28
	인천	(996)	13.2	13.4	73.4	6.70
	광주	(483)	11.8	17.9	70.2	6.65
	대전	(490)	13.8	13.0	73.2	6.52
	울산	(375)	9.4	15.5	75.0	6.39
	세종	(114)	2.8	10.2	87.0	6.74
	경기	(4404)	13.5	14.5	72.0	6.50
	강원	(526)	17.3	17.6	65.1	6.17
	충북	(540)	22.0	21.9	56.1	5.84
	충남	(711)	21.8	19.2	59.0	5.67
	전북	(602)	29.0	18.9	52.1	5.69
	전남	(627)	22.4	15.9	61.7	6.11
	경북	(894)	22.0	16.9	61.1	5.97
	경남	(1116)	4.8	7.6	87.6	7.22
제주	(224)	15.3	21.6	63.1	5.99	
학력	중졸 이하	(2863)	27.6	20.0	52.4	5.62
	고졸	(5401)	13.0	17.3	69.7	6.33
	대재 이상	(9093)	9.4	11.2	79.4	6.88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10.8	14.3	74.8	6.62
	없다	(5740)	19.0	15.0	66.1	6.28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7488)	9.7	12.4	77.8	6.78
	자영업자	(3084)	11.9	16.5	71.6	6.41
	무급가족종사자	(538)	18.1	18.7	63.2	6.08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8.3	11.9	79.8	6.87
	임시/일용근로자	(1395)	16.2	14.6	69.3	6.42
건강상태	좋음	(10989)	4.5	8.5	87.0	7.18
	보통	(5051)	19.7	27.7	52.6	5.70
	나쁨	(1317)	64.5	14.9	20.6	3.89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3.0	13.6	73.4	6.65
	200만원 미만	(4187)	24.2	17.8	58.0	5.83
	200~300만원 미만	(4397)	9.0	14.8	76.2	6.68
	300~400만원 미만	(2925)	8.3	12.4	79.3	6.79
	400만원 이상	(1697)	9.2	11.9	78.8	6.84
혼인상태	미혼	(5170)	8.1	10.7	81.3	7.07
	기혼	(10451)	13.2	15.3	71.5	6.42
	사별/이혼/별거	(1736)	31.7	21.6	46.7	5.32
가구원수	1인	(1936)	22.0	18.9	59.1	5.98
	2인 이상	(15421)	12.5	14.0	73.5	6.57
주거형태	자가	(14022)	13.3	14.5	72.2	6.51
	전세	(2209)	12.8	13.1	74.1	6.58
	월세/사글세/무상	(1126)	17.3	18.5	64.2	6.25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16.6	16.3	67.1	6.24
	아파트	(8442)	12.0	13.6	74.4	6.63
	연립/다세대/기타	(3130)	12.1	13.7	74.2	6.65
기초생활수급	해당	(458)	44.7	17.9	37.5	4.73
	비해당	(16899)	12.7	14.5	72.9	6.55
다문화가정	해당	(100)	25.6	6.1	68.2	6.12
	비해당	(17257)	13.4	14.6	72.0	6.51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29.4	22.2	48.4	5.44
	200만원 미만	(2096)	36.5	22.3	41.3	5.07
	200~300만원 미만	(2038)	17.2	18.5	64.3	6.15
	300~400만원 미만	(2908)	10.1	14.0	75.9	6.64
	400~500만원 미만	(3072)	7.7	13.5	78.7	6.80
	500~600만원 미만	(3149)	9.2	11.4	79.5	6.86
	600만원 이상	(3941)	9.3	11.9	78.9	6.87

### 3 대인관계

#### 가. 전체 분석

‘자신의 삶에 있어 대인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물은 결과 74.7%는 6점 이상으로 응답했으며, 10.0%는 4점 이하로 응답했다. 만족도 평균은 6.44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자신의 삶에 있어 대인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남자(6.48점)가 여자(6.39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6.70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6.12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경남(7.11점), 부산(6.97점), 전남(6.70점) 순으로 높고, 충남(5.70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6.07점), 직업 없음(6.24점), 무급가족종사자(6.49점), 임시/일용근로자(6.37점), 건강상태 나쁨(5.25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6.14점), 사별/이혼/별거(5.89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1인 가구(6.19점), 월세/사글세/무상(6.21점), 단독주택(6.40점), 기초생활수급가구(5.03점), 다문화가정(6.03점), 가구소득 없음(5.47점) 등에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4-9] 주변 환경 만족도 - 대인관계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10.0	15.3	74.7	6.44
전반적 행복도	행복하지 않다(0~4)	(1092)	48.4	24.5	27.1	4.52
	보통이다(5)	(2821)	17.5	30.5	51.9	5.69
	행복하다(6~10)	(13443)	5.3	11.4	83.3	6.75
성별	남자	(8615)	9.6	15.1	75.3	6.48
	여자	(8742)	10.4	15.5	74.1	6.39
연령별	15~19	(871)	7.7	12.8	79.4	6.64
	20대	(2550)	7.6	13.4	79.0	6.70
	30대	(2576)	8.5	13.4	78.1	6.55
	40대	(3123)	8.8	14.1	77.2	6.53
	50대	(3304)	8.2	14.8	77.0	6.47
	60대 이상	(4933)	14.5	18.9	66.7	6.12
지역별	서울	(3301)	9.6	12.6	77.8	6.50
	부산	(1155)	5.6	7.6	86.8	6.97
	대구	(800)	11.5	18.2	70.3	6.24
	인천	(996)	11.9	16.6	71.5	6.47
	광주	(483)	6.3	20.1	73.6	6.68
	대전	(490)	8.1	17.2	74.8	6.58
	울산	(375)	6.8	10.0	83.2	6.56
	세종	(114)	2.2	14.2	83.7	6.44
	경기	(4404)	11.3	14.6	74.1	6.30
	강원	(526)	11.7	21.6	66.7	6.28
	충북	(540)	14.8	25.2	60.0	6.06
	충남	(711)	17.7	23.5	58.9	5.70
	전북	(602)	14.2	21.0	64.8	6.20
	전남	(627)	4.5	17.9	77.7	6.70
	경북	(894)	14.4	21.4	64.2	6.05
	경남	(1116)	2.9	6.1	91.0	7.11
제주	(224)	6.4	20.9	72.7	6.49	
학력	중졸 이하	(2863)	15.5	19.4	65.1	6.07
	고졸	(5401)	9.3	16.8	74.0	6.37
	대재 이상	(9093)	8.8	13.1	78.1	6.59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8.3	14.3	77.4	6.54
	없다	(5740)	13.5	17.3	69.2	6.24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7488)	7.8	13.4	78.9	6.58
	자영업자	(3084)	8.7	14.3	77.0	6.54
	무급가족종사자	(538)	8.9	15.9	75.2	6.49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7.1	12.7	80.2	6.63
	임시/일용근로자	(1395)	10.6	16.3	73.2	6.37
건강상태	좋음	(10989)	5.3	11.2	83.5	6.78
	보통	(5051)	14.9	22.1	63.0	6.00
	나쁨	(1317)	31.1	23.0	45.8	5.2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9.9	16.3	73.8	6.41
	200만원 미만	(4187)	15.0	17.9	67.1	6.14
	200~300만원 미만	(4397)	8.2	14.3	77.5	6.54
	300~400만원 미만	(2925)	7.7	13.0	79.4	6.59
	400만원 이상	(1697)	7.1	12.9	80.0	6.69
혼인상태	미혼	(5170)	8.7	13.8	77.5	6.59
	기혼	(10451)	9.2	15.2	75.6	6.45
	사별/이혼/별거	(1736)	18.9	20.5	60.6	5.89
가구원수	1인	(1936)	14.7	17.7	67.5	6.19
	2인 이상	(15421)	9.4	15.0	75.6	6.47
주거형태	자가	(14022)	9.4	14.7	75.9	6.47
	전세	(2209)	11.7	17.3	71.0	6.30
	월세/사글세/무상	(1126)	14.7	18.7	66.6	6.21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9.7	16.6	73.7	6.40
	아파트	(8442)	9.8	15.0	75.2	6.46
	연립/다세대/기타	(3130)	11.3	13.7	75.0	6.45
기초생활수급	해당	(458)	37.3	21.7	41.0	5.03
	비해당	(16899)	9.3	15.1	75.6	6.47
다문화가정	해당	(100)	19.5	15.9	64.7	6.03
	비해당	(17257)	10.0	15.3	74.7	6.44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28.2	19.0	52.9	5.47
	200만원 미만	(2096)	20.0	22.9	57.1	5.78
	200~300만원 미만	(2038)	13.8	17.9	68.3	6.20
	300~400만원 미만	(2908)	9.1	15.0	75.9	6.50
	400~500만원 미만	(3072)	7.6	13.6	78.8	6.57
	500~600만원 미만	(3149)	7.2	12.6	80.2	6.63
	600만원 이상	(3941)	6.8	13.5	79.7	6.63

## 4 안전감

### 가. 전체 분석

‘자신의 삶에 있어 안전감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묻은 결과 70.6%는 6점 이상으로 응답했으며, 11.9%는 4점 이하로 응답했다. 만족도 평균은 6.26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자신의 삶에 있어 안전감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남자(6.27점)가 여자(6.25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6.50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5.98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부산(6.83점), 경남(6.81점), 대전(6.48점) 순으로 높고, 충남(5.52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5.90점), 직업 없음(6.11점), 무급가족종사자(6.29점), 임시/일용근로자(6.06점), 건강상태 나쁨(5.04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5.95점), 사별/이혼/별거(5.67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1인 가구(5.90점), 월세/사글세/무상(5.83점), 단독주택(6.14점), 기초생활수급가구(4.76점), 다문화가정(5.83점), 가구소득 없음(5.25점) 등에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4-10] 주변 환경 만족도 - 안전감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11.9	17.5	70.6	6.26
전반적 행복도	행복하지 않다(0~4)	(1092)	57.7	23.9	18.4	4.11
	보통이다(5)	(2821)	22.3	33.4	44.3	5.43
	행복하다(6~10)	(13443)	6.0	13.6	80.4	6.61
성별	남자	(8615)	11.8	17.4	70.8	6.27
	여자	(8742)	12.1	17.5	70.4	6.25
연령별	15~19	(871)	9.6	16.4	74.0	6.44
	20대	(2550)	10.0	14.7	75.3	6.50
	30대	(2576)	9.0	16.1	74.9	6.44
	40대	(3123)	11.6	15.1	73.3	6.32
	50대	(3304)	11.7	16.9	71.4	6.24
	60대 이상	(4933)	15.2	21.6	63.2	5.98
지역별	서울	(3301)	9.8	14.6	75.6	6.39
	부산	(1155)	5.0	10.4	84.6	6.83
	대구	(800)	13.3	20.9	65.9	5.99
	인천	(996)	14.7	14.6	70.7	6.36
	광주	(483)	10.7	29.2	60.2	6.20
	대전	(490)	9.2	15.4	75.5	6.48
	울산	(375)	8.0	12.5	79.5	6.40
	세종	(114)	4.9	20.4	74.8	6.20
	경기	(4404)	14.0	15.2	70.8	6.19
	강원	(526)	14.1	23.1	62.9	6.07
	충북	(540)	14.3	29.1	56.6	5.95
	충남	(711)	19.0	27.5	53.5	5.52
	전북	(602)	16.8	28.3	54.8	5.86
	전남	(627)	8.6	19.9	71.5	6.35
	경북	(894)	18.3	26.8	55.0	5.73
	경남	(1116)	5.6	9.0	85.3	6.81
제주	(224)	8.3	22.1	69.7	6.33	
학력	중졸 이하	(2863)	16.7	22.9	60.4	5.90
	고졸	(5401)	11.9	19.1	69.0	6.17
	대재 이상	(9093)	10.4	14.8	74.8	6.43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10.6	16.8	72.6	6.33
	없다	(5740)	14.7	18.8	66.6	6.11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7488)	10.0	15.8	74.2	6.38
	자영업자	(3084)	10.5	17.2	72.3	6.30
	무급가족종사자	(538)	11.9	17.4	70.7	6.29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8.8	14.8	76.4	6.46
	임시/일용근로자	(1395)	15.2	20.5	64.4	6.06
건강상태	좋음	(10989)	6.7	13.4	79.9	6.61
	보통	(5051)	17.7	24.1	58.2	5.82
	나쁨	(1317)	33.1	25.9	41.1	5.04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1.7	17.4	70.9	6.28
	200만원 미만	(4187)	16.5	21.3	62.2	5.95
	200~300만원 미만	(4397)	9.9	17.3	72.9	6.35
	300~400만원 미만	(2925)	10.0	14.9	75.1	6.39
	400만원 이상	(1697)	9.9	13.0	77.0	6.51
혼인상태	미혼	(5170)	11.2	16.2	72.7	6.38
	기혼	(10451)	10.8	16.8	72.4	6.30
	사별/이혼/별거	(1736)	21.1	24.9	54.0	5.67
가구원수	1인	(1936)	18.5	21.6	60.0	5.90
	2인 이상	(15421)	11.1	16.9	72.0	6.30
주거형태	자가	(14022)	11.0	16.9	72.1	6.31
	전세	(2209)	14.0	18.1	67.9	6.13
	월세/사글세/무상	(1126)	19.6	23.0	57.3	5.83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12.9	19.4	67.6	6.14
	아파트	(8442)	11.4	16.7	71.9	6.32
	연립/다세대/기타	(3130)	11.4	15.8	72.8	6.30
기초생활수급	해당	(458)	40.6	26.0	33.4	4.76
	비해당	(16899)	11.1	17.2	71.6	6.30
다문화가정	해당	(100)	20.0	18.2	61.9	5.83
	비해당	(17257)	11.9	17.5	70.7	6.26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28.5	24.0	47.5	5.25
	200만원 미만	(2096)	22.6	26.6	50.8	5.52
	200~300만원 미만	(2038)	15.7	21.8	62.6	6.00
	300~400만원 미만	(2908)	11.8	17.5	70.7	6.25
	400~500만원 미만	(3072)	9.1	15.7	75.2	6.42
	500~600만원 미만	(3149)	8.8	14.5	76.7	6.47
	600만원 이상	(3941)	8.5	13.8	77.7	6.53



## 5 공동체 소속감

### 가. 전체 분석

‘자신의 삶에 있어 공동체 소속감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물은 결과 62.9%는 6점 이상으로 응답했으며, 16.7%는 4점 이하로 응답했다. 만족도 평균은 5.93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자신의 삶에 있어 공동체 소속감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남자(6.03점)가 여자(5.83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6.41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5.46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경남(6.62점), 부산(6.46점), 대전(6.34점) 순으로 높고, 경북(5.04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5.46점), 직업 없음(5.63점), 무급가족종사자(5.67점), 임시/일용근로자(5.74점), 건강상태 나쁨(4.59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5.52점), 사별/이혼/별거(5.20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1인 가구(5.55점), 월세/사글세/무상(5.53점), 단독주택(5.82점), 기초생활수급가구(4.53점), 다문화가정(5.53점),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5.04점) 등에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4-11] 주변 환경 만족도 - 공동체 소속감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16.7	20.4	62.9	5.93
전반적 행복도	행복하지 않다(0~4)	(1092)	59.6	23.1	17.4	3.95
	보통이다(5)	(2821)	29.9	35.2	34.9	4.98
	행복하다(6~10)	(13443)	10.5	17.1	72.4	6.29
성별	남자	(8615)	15.5	19.7	64.8	6.03
	여자	(8742)	18.0	21.0	61.0	5.83
연령별	15~19	(871)	10.9	15.5	73.5	6.41
	20대	(2550)	13.0	18.0	69.0	6.22
	30대	(2576)	13.6	15.7	70.7	6.20
	40대	(3123)	14.2	18.8	67.0	6.08
	50대	(3304)	15.8	21.0	63.2	5.94
	60대 이상	(4933)	23.6	25.5	50.9	5.46
지역별	서울	(3301)	15.1	16.8	68.1	6.05
	부산	(1155)	11.1	13.6	75.3	6.46
	대구	(800)	21.3	20.8	58.0	5.76
	인천	(996)	16.6	17.6	65.8	6.11
	광주	(483)	16.1	31.2	52.7	5.86
	대전	(490)	10.1	21.7	68.2	6.34
	울산	(375)	8.9	14.7	76.5	6.33
	세종	(114)	3.7	15.9	80.4	6.27
	경기	(4404)	19.4	19.1	61.6	5.75
	강원	(526)	16.7	23.2	60.1	6.04
	충북	(540)	18.8	35.9	45.4	5.57
	충남	(711)	23.7	26.3	50.0	5.38
	전북	(602)	17.8	31.9	50.3	5.73
	전남	(627)	13.0	25.3	61.7	5.99
	경북	(894)	28.5	32.3	39.2	5.04
	경남	(1116)	8.4	11.3	80.3	6.62
제주	(224)	13.2	22.6	64.3	6.13	
학력	중졸 이하	(2863)	24.9	24.8	50.3	5.46
	고졸	(5401)	17.0	23.7	59.4	5.79
	대재 이상	(9093)	14.0	17.1	68.9	6.17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13.9	19.6	66.6	6.08
	없다	(5740)	22.6	22.0	55.4	5.63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7488)	12.2	17.6	70.2	6.20
	자영업자	(3084)	16.8	21.8	61.3	5.90
	무급가족종사자	(538)	19.0	24.3	56.7	5.67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10.6	16.4	73.1	6.31
	임시/일용근로자	(1395)	19.5	22.9	57.6	5.74
건강상태	좋음	(10989)	10.9	16.9	72.2	6.29
	보통	(5051)	22.7	26.8	50.4	5.50
	나쁨	(1317)	42.3	25.2	32.4	4.59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8.5	21.6	59.9	5.83
	200만원 미만	(4187)	23.3	24.6	52.1	5.52
	200~300만원 미만	(4397)	13.2	19.1	67.8	6.12
	300~400만원 미만	(2925)	12.5	17.7	69.8	6.19
	400만원 이상	(1697)	12.8	15.1	72.1	6.28
혼인상태	미혼	(5170)	13.5	17.2	69.2	6.19
	기혼	(10451)	16.3	20.9	62.8	5.92
	사별/이혼/별거	(1736)	28.7	26.8	44.5	5.20
가구원수	1인	(1936)	22.9	23.4	53.7	5.55
	2인 이상	(15421)	16.0	20.0	64.0	5.98
주거형태	자가	(14022)	15.9	20.4	63.8	5.97
	전세	(2209)	18.3	20.3	61.5	5.87
	월세/사글세/무상	(1126)	24.6	21.1	54.3	5.53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18.5	21.4	60.1	5.82
	아파트	(8442)	15.3	20.2	64.6	6.02
	연립/다세대/기타	(3130)	17.5	19.0	63.5	5.89
기초생활수급	해당	(458)	44.7	19.8	35.5	4.53
	비해당	(16899)	16.0	20.4	63.6	5.97
다문화가정	해당	(100)	28.1	15.9	56.0	5.53
	비해당	(17257)	16.7	20.4	62.9	5.93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36.9	18.1	45.0	5.17
	200만원 미만	(2096)	31.7	28.1	40.3	5.04
	200~300만원 미만	(2038)	20.2	24.0	55.7	5.71
	300~400만원 미만	(2908)	16.0	20.8	63.2	5.94
	400~500만원 미만	(3072)	13.3	17.6	69.1	6.12
	500~600만원 미만	(3149)	12.4	19.3	68.3	6.18
	600만원 이상	(3941)	12.9	17.3	69.7	6.20

## 6 미래의 안전성

### 가. 전체 분석

‘자신의 삶에 있어 미래의 안전성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물은 결과 63.5%는 6점 이상으로 응답했으며, 16.7%는 4점 이하로 응답했다. 만족도 평균은 5.96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자신의 삶에 있어 미래의 안전성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남자(5.98점)가 여자(5.93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6.27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5.48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경남(6.48점), 부산(6.44점), 울산(6.29점) 순으로 높고, 경북(5.27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5.36점), 직업 없음(5.74점), 무급가족종사자(5.80점), 임시/일용근로자(5.67점), 건강상태 나쁨(4.44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5.48점), 사별/이혼/별거(5.11점), 기초생활수급가구(4.39점), 1인 가구(5.50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1인 가구(5.50점), 월세/사글세/무상(5.47점), 단독주택(5.79점), 기초생활수급가구(4.39점), 다문화가정(5.73점),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4.91점) 등에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4-12] 주변 환경 만족도 - 미래의 안전성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16.7	19.8	63.5	5.96
전반적 행복도	행복하지 않다(0~4)	(1092)	67.7	19.4	12.9	3.62
	보통이다(5)	(2821)	31.9	34.5	33.6	4.98
	행복하다(6~10)	(13443)	9.3	16.8	73.9	6.35
성별	남자	(8615)	16.4	18.9	64.7	5.98
	여자	(8742)	16.9	20.7	62.4	5.93
연령별	15~19	(871)	13.2	16.7	70.1	6.22
	20대	(2550)	12.8	17.6	69.6	6.24
	30대	(2576)	11.5	17.0	71.5	6.27
	40대	(3123)	13.0	17.7	69.2	6.14
	50대	(3304)	15.6	20.1	64.3	5.97
	60대 이상	(4933)	25.0	24.1	50.9	5.48
지역별	서울	(3301)	12.6	16.3	71.1	6.23
	부산	(1155)	12.2	11.6	76.3	6.44
	대구	(800)	21.3	24.4	54.3	5.60
	인천	(996)	15.9	17.8	66.3	6.21
	광주	(483)	15.3	28.7	56.1	5.81
	대전	(490)	12.6	16.2	71.2	6.24
	울산	(375)	9.8	13.1	77.0	6.29
	세종	(114)	6.5	16.7	76.9	6.19
	경기	(4404)	18.7	19.9	61.4	5.78
	강원	(526)	20.9	19.8	59.3	5.87
	충북	(540)	22.5	26.0	51.5	5.57
	충남	(711)	23.8	30.4	45.8	5.27
	전북	(602)	21.0	29.0	50.0	5.69
	전남	(627)	14.2	23.3	62.5	5.98
	경북	(894)	26.0	28.5	45.5	5.27
	경남	(1116)	11.6	12.4	76.0	6.48
제주	(224)	11.1	25.6	63.3	6.14	
학력	중졸 이하	(2863)	27.6	25.0	47.4	5.36
	고졸	(5401)	16.8	22.7	60.5	5.84
	대재 이상	(9093)	13.1	16.5	70.4	6.22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14.6	19.1	66.3	6.07
	없다	(5740)	20.8	21.2	58.0	5.74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7488)	13.2	18.2	68.6	6.16
	자영업자	(3084)	16.1	20.2	63.7	5.95
	무급가족종사자	(538)	21.6	19.8	58.6	5.80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11.1	17.2	71.8	6.27
	임시/일용근로자	(1395)	22.4	22.7	55.0	5.67
건강상태	좋음	(10989)	9.7	16.7	73.7	6.35
	보통	(5051)	24.0	25.8	50.2	5.51
	나쁨	(1317)	46.8	23.1	30.1	4.44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6.6	19.8	63.6	5.96
	200만원 미만	(4187)	25.3	24.3	50.4	5.48
	200~300만원 미만	(4397)	13.9	18.3	67.8	6.10
	300~400만원 미만	(2925)	12.2	17.8	70.0	6.20
	400만원 이상	(1697)	10.5	16.0	73.6	6.35
혼인상태	미혼	(5170)	13.8	18.0	68.2	6.16
	기혼	(10451)	15.3	19.7	64.9	6.00
	사별/이혼/별거	(1736)	33.1	25.6	41.3	5.11
가구원수	1인	(1936)	26.0	22.2	51.8	5.50
	2인 이상	(15421)	15.5	19.5	65.0	6.01
주거형태	자가	(14022)	15.7	19.6	64.7	6.00
	전세	(2209)	17.9	18.9	63.2	5.92
	월세/사글세/무상	(1126)	26.2	24.4	49.5	5.47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19.6	21.0	59.4	5.79
	아파트	(8442)	14.7	19.3	66.0	6.08
	연립/다세대/기타	(3130)	16.4	19.1	64.5	5.95
기초생활수급	해당	(458)	48.1	24.8	27.1	4.39
	비해당	(16899)	15.8	19.7	64.5	6.00
다문화가정	해당	(100)	24.1	19.7	56.2	5.73
	비해당	(17257)	16.6	19.8	63.6	5.96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33.3	16.9	49.9	5.14
	200만원 미만	(2096)	36.8	27.4	35.8	4.91
	200~300만원 미만	(2038)	21.9	21.6	56.4	5.65
	300~400만원 미만	(2908)	15.4	21.0	63.5	6.00
	400~500만원 미만	(3072)	11.7	18.8	69.5	6.16
	500~600만원 미만	(3149)	11.5	18.6	69.8	6.20
	600만원 이상	(3941)	11.4	15.8	72.8	6.32

## 7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

### 가. 전체 분석

‘자신의 삶에 있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물은 결과 66.7%는 6점 이상으로 응답했으며, 14.6%는 4점 이하로 응답했다. 만족도 평균은 6.09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자신의 삶에 있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남자(6.09점)가 여자(6.09점)가 같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6.38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5.89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경남(6.55점), 부산(6.53점), 세종(6.38점) 순으로 높고, 충남(5.52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5.74점), 직업 없음(6.04점), 자영업자(6.07점), 임시/일용근로자(6.02점), 건강상태 나쁨(5.17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5.89점), 사별/이혼/별거(5.70점), 기초생활수급가구(5.18점), 1인 가구(6.01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1인 가구(6.01점), 월세/사글세/무상(5.88점), 기초생활수급가구(5.18점), 다문화가정(5.77점), 가구소득 없음(5.41점) 등에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4-13] 주변 환경 만족도 -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14.6	18.7	66.7	6.09
전반적 행복도	행복하지 않다(0~4)	(1092)	57.0	21.4	21.6	4.15
	보통이다(5)	(2821)	26.9	32.1	41.0	5.27
	행복하다(6~10)	(13443)	8.6	15.6	75.8	6.42
성별	남자	(8615)	14.3	18.4	67.3	6.09
	여자	(8742)	14.9	18.9	66.1	6.09
연령별	15~19	(871)	17.3	15.7	67.0	6.05
	20대	(2550)	10.9	15.8	73.3	6.38
	30대	(2576)	12.4	15.0	72.6	6.24
	40대	(3123)	14.0	17.9	68.1	6.12
	50대	(3304)	14.5	20.3	65.2	6.03
	60대 이상	(4933)	17.7	22.0	60.3	5.89
지역별	서울	(3301)	13.5	14.4	72.1	6.21
	부산	(1155)	10.1	13.2	76.7	6.53
	대구	(800)	15.6	27.5	56.8	5.74
	인천	(996)	17.9	19.7	62.4	6.02
	광주	(483)	14.5	21.0	64.5	6.26
	대전	(490)	10.6	19.9	69.5	6.33
	울산	(375)	5.9	17.3	76.8	6.32
	세종	(114)	3.6	9.4	87.1	6.38
	경기	(4404)	16.6	17.4	66.1	5.99
	강원	(526)	15.4	22.4	62.2	6.04
	충북	(540)	19.3	25.8	54.9	5.86
	충남	(711)	19.5	28.0	52.5	5.52
	전북	(602)	17.9	25.0	57.1	5.92
	전남	(627)	14.2	21.3	64.5	6.12
	경북	(894)	17.4	27.0	55.6	5.70
	경남	(1116)	8.8	11.1	80.1	6.55
	제주	(224)	9.4	24.2	66.5	6.19
학력	중졸 이하	(2863)	20.4	23.3	56.3	5.74
	고졸	(5401)	14.6	20.4	64.9	6.00
	대재 이상	(9093)	12.8	16.2	71.0	6.25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13.6	18.6	67.8	6.11
	없다	(5740)	16.6	18.9	64.4	6.04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7488)	12.6	17.9	69.5	6.17
	자영업자	(3084)	15.2	18.4	66.5	6.06
	무급가족종사자	(538)	15.5	19.1	65.4	6.07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11.8	17.3	70.9	6.20
	임시/일용근로자	(1395)	16.1	20.5	63.3	6.02
건강상태	좋음	(10989)	9.9	15.5	74.6	6.38
	보통	(5051)	20.1	24.4	55.6	5.71
	나쁨	(1317)	33.3	23.4	43.3	5.17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4.8	17.8	67.3	6.13
	200만원 미만	(4187)	18.1	22.1	59.8	5.89
	200~300만원 미만	(4397)	13.3	18.4	68.3	6.12
	300~400만원 미만	(2925)	11.9	17.8	70.2	6.17
	400만원 이상	(1697)	13.7	14.6	71.6	6.27
혼인상태	미혼	(5170)	12.5	15.7	71.8	6.27
	기혼	(10451)	14.4	19.4	66.2	6.07
	사별/이혼/별거	(1736)	22.3	23.3	54.4	5.70
가구원수	1인	(1936)	16.8	19.8	63.4	6.01
	2인 이상	(15421)	14.4	18.5	67.1	6.10
주거형태	자가	(14022)	14.0	18.4	67.6	6.13
	전세	(2209)	16.4	19.4	64.2	5.97
	월세/사글세/무상	(1126)	19.4	20.3	60.3	5.88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15.2	20.1	64.7	6.01
	아파트	(8442)	13.4	18.3	68.3	6.17
	연립/다세대/기타	(3130)	16.9	17.0	66.2	6.01
기초생활수급	해당	(458)	33.7	22.0	44.3	5.18
	비해당	(16899)	14.1	18.6	67.3	6.11
다문화가정	해당	(100)	16.0	26.4	57.6	5.77
	비해당	(17257)	14.6	18.6	66.7	6.09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26.3	23.8	49.9	5.41
	200만원 미만	(2096)	22.1	25.8	52.1	5.65
	200~300만원 미만	(2038)	17.3	21.0	61.7	5.96
	300~400만원 미만	(2908)	14.5	17.9	67.6	6.08
	400~500만원 미만	(3072)	12.7	17.0	70.3	6.19
	500~600만원 미만	(3149)	12.4	17.1	70.5	6.21
	600만원 이상	(3941)	12.2	16.7	71.1	6.26

## 8 동네 환경

### 가. 전체 분석

‘자신의 삶에 있어 동네 환경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묻은 결과 67.0%는 6점 이상으로 응답했으며, 12.1%는 4점 이하로 응답했다. 만족도 평균은 6.11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자신의 삶에 있어 동네 환경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남자(6.12점)가 여자(6.11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40대(6.19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6.00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경남(6.72점), 전남(6.60점), 부산(6.57점) 순으로 높고, 충남(5.63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5.96점), 직업 없음(6.03점), 임금근로자(6.13점), 임시/일용근로자(6.00점), 건강상태 나쁨(5.47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5.96점), 사별/이혼/별거(5.86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1인 가구(5.92점), 월세/사글세/무상(5.71점), 연립/다세대/기타(5.85점), 기초생활수급가구(5.15점), 다문화가정(5.97점), 가구소득 없음(5.57점) 등에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4-14] 주변 환경 만족도 - 동네 환경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12.1	21.0	67.0	6.11
전반적 행복도	행복하지 않다(0~4)	(1092)	46.9	25.4	27.6	4.60
	보통이다(5)	(2821)	20.9	34.4	44.6	5.46
	행복하다(6~10)	(13443)	7.4	17.8	74.9	6.37
성별	남자	(8615)	12.0	21.3	66.7	6.12
	여자	(8742)	12.1	20.7	67.2	6.11
연령별	15~19	(871)	11.4	20.1	68.5	6.17
	20대	(2550)	11.3	19.9	68.8	6.19
	30대	(2576)	11.1	21.0	68.0	6.13
	40대	(3123)	10.7	20.3	69.0	6.19
	50대	(3304)	11.1	21.7	67.3	6.13
	60대 이상	(4933)	14.7	21.6	63.7	6.00
지역별	서울	(3301)	10.0	20.3	69.7	6.17
	부산	(1155)	7.8	13.6	78.6	6.57
	대구	(800)	19.4	23.3	57.4	5.73
	인천	(996)	14.7	21.1	64.2	6.07
	광주	(483)	11.5	25.7	62.7	6.22
	대전	(490)	7.7	20.9	71.4	6.28
	울산	(375)	8.3	21.1	70.6	6.21
	세종	(114)	0.5	6.6	92.9	6.56
	경기	(4404)	16.8	19.3	63.9	5.93
	강원	(526)	10.5	23.8	65.7	6.29
	충북	(540)	13.2	37.9	48.9	5.66
	충남	(711)	16.2	27.1	56.7	5.63
	전북	(602)	11.1	28.1	60.8	6.14
	전남	(627)	4.0	14.2	81.9	6.60
	경북	(894)	13.2	29.9	57.0	5.81
	경남	(1116)	3.8	12.0	84.2	6.72
	제주	(224)	7.6	30.5	61.9	6.13
학력	중졸 이하	(2863)	14.2	23.1	62.7	5.96
	고졸	(5401)	12.8	22.6	64.6	6.02
	대재 이상	(9093)	11.0	19.3	69.7	6.22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10.8	21.0	68.2	6.16
	없다	(5740)	14.7	20.8	64.5	6.03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7488)	11.4	20.9	67.7	6.13
	자영업자	(3084)	9.7	20.0	70.3	6.24
	무급가족종사자	(538)	9.5	19.1	71.3	6.31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10.8	20.4	68.8	6.16
	임시/일용근로자	(1395)	13.6	23.3	63.0	6.00
건강상태	좋음	(10989)	9.3	17.8	72.9	6.29
	보통	(5051)	14.4	27.1	58.5	5.89
	나쁨	(1317)	25.9	23.8	50.3	5.47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2.1	20.4	67.4	6.12
	200만원 미만	(4187)	15.4	22.2	62.3	5.96
	200~300만원 미만	(4397)	11.0	21.7	67.3	6.11
	300~400만원 미만	(2925)	10.5	21.4	68.1	6.16
	400만원 이상	(1697)	9.0	16.4	74.5	6.42
혼인상태	미혼	(5170)	12.0	21.4	66.6	6.10
	기혼	(10451)	11.3	20.3	68.3	6.16
	사별/이혼/별거	(1736)	16.6	23.6	59.8	5.86
가구원수	1인	(1936)	15.4	22.9	61.7	5.92
	2인 이상	(15421)	11.7	20.7	67.6	6.14
주거형태	자가	(14022)	11.1	20.3	68.6	6.17
	전세	(2209)	13.8	22.7	63.4	5.97
	월세/사글세/무상	(1126)	20.4	26.0	53.7	5.71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13.1	23.0	63.8	6.00
	아파트	(8442)	9.8	18.9	71.3	6.29
	연립/다세대/기타	(3130)	16.3	22.7	61.0	5.85
기초생활수급	해당	(458)	31.8	25.3	42.9	5.15
	비해당	(16899)	11.5	20.8	67.6	6.14
다문화가정	해당	(100)	19.1	15.4	65.5	5.97
	비해당	(17257)	12.0	21.0	67.0	6.12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26.5	20.4	53.1	5.57
	200만원 미만	(2096)	18.2	25.6	56.2	5.79
	200~300만원 미만	(2038)	15.8	23.6	60.6	5.91
	300~400만원 미만	(2908)	12.8	20.7	66.4	6.09
	400~500만원 미만	(3072)	10.5	19.0	70.5	6.17
	500~600만원 미만	(3149)	10.7	19.4	69.9	6.21
	600만원 이상	(3941)	8.0	20.1	71.9	6.31

## 제8절

#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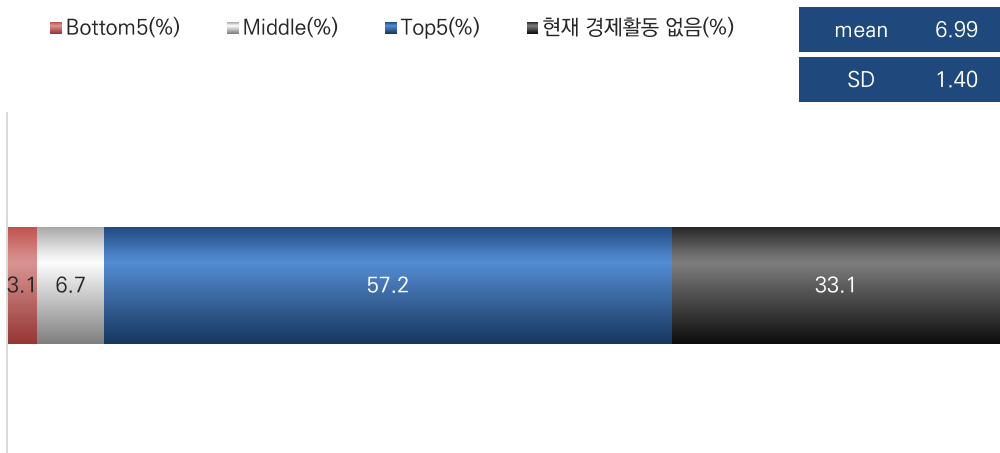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

#### 가. 전체 분석

‘자신의 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묻은 결과 경제활동 없음이 33.1%인 가운데 57.2%는 6점 이상으로 응답했으며, 3.1%는 4점 이하로 응답했다. 만족도 평균은 6.99 점이다.

(n=17,357, %, mean=0~10)



[그림 4-8]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

## 나. 특성별 분석

‘자신의 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남자(6.99점)와 여자(6.99점)가 같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7.14점)가 가장 높고, 경제활동자가 가장 적은 15~19세(6.65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부산(7.57점), 경남(7.54점), 세종(7.39점) 순으로 높고, 경북(5.54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6.53점), 무급가족종사자(6.71점), 임시/일용근로자(6.42점), 건강상태 나쁨(5.94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6.66점), 사별/이혼/별거(6.56점), 기초생활수급가구(6.15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1인 가구(6.81점), 단독주택(6.89점), 기초생활수급가구(6.15점), 다문화가정(6.50점), 가구소득 없음(5.91점) 등에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4-15]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

구분		n	Bottom5 (%)	Middle (%)	Top5 (%)	비허당 (%)	mean (0~10)
전체		(17357)	3.1	6.7	57.2	33.1	6.99
전반적 행복도	행복하지 않다(0~4)	(1092)	24.2	12.9	14.5	48.3	4.61
	보통이다(5)	(2821)	5.8	20.6	38.1	35.5	5.87
	행복하다(6~10)	(13443)	0.8	3.2	64.6	31.3	7.36
성별	남자	(8615)	3.6	7.9	66.6	21.8	6.99
	여자	(8742)	2.6	5.4	47.9	44.2	6.99
연령별	15~19	(871)	0.0	.6	1.6	97.8	6.65
	20대	(2550)	1.6	5.3	48.6	44.5	7.13
	30대	(2576)	3.1	6.6	77.0	13.4	7.14
	40대	(3123)	3.9	6.9	72.6	16.6	7.02
	50대	(3304)	4.0	8.0	66.5	21.6	6.99
	60대 이상	(4933)	3.3	7.4	45.1	44.1	6.77
지역별	서울	(3301)	2.9	6.6	58.5	32.0	6.96
	부산	(1155)	1.9	3.1	56.4	38.6	7.57
	대구	(800)	2.3	5.5	60.9	31.3	6.79
	인천	(996)	1.7	4.2	68.5	25.6	7.33
	광주	(483)	3.6	9.5	53.1	33.8	6.90
	대전	(490)	2.1	7.3	59.8	30.9	7.14
	울산	(375)	.6	4.0	59.0	36.4	7.11
	세종	(114)	1.5	3.1	64.3	31.1	7.39
	경기	(4404)	3.6	7.2	56.1	33.1	6.82
	강원	(526)	4.0	7.2	44.0	44.8	6.82
	충북	(540)	3.7	11.8	55.3	29.2	6.90
	충남	(711)	4.4	8.0	56.6	31.0	6.92
	전북	(602)	5.3	12.1	45.0	37.7	6.67
	전남	(627)	1.9	5.3	63.4	29.3	7.16
	경북	(894)	4.5	10.2	53.7	31.6	6.54
	경남	(1116)	2.5	2.9	59.1	35.5	7.54
	제주	(224)	4.9	4.9	52.2	38.0	6.82

구분		n	Bottom5 (%)	Middle (%)	Top5 (%)	비해당 (%)	mean (0~10)
학력	중졸 이하	(2863)	2.4	6.3	25.7	65.6	6.53
	고졸	(5401)	3.8	7.6	60.1	28.5	6.87
	대재 이상	(9093)	2.9	6.2	65.3	25.5	7.12
직업유무	있다	(11617)	4.6	9.9	85.4	0.0	6.99
	없다	(5740)	0.0	0.0	0.0	100.0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7488)	4.0	8.9	85.1	2.0	7.03
	자영업자	(3084)	5.8	10.2	83.7	0.3	6.94
	무급가족종사자	(538)	5.4	13.6	67.1	13.9	6.71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2.8	7.4	89.5	0.3	7.16
	임시/일용근로자	(1395)	9.2	15.3	66.1	9.4	6.42
건강상태	좋음	(10989)	1.8	4.8	63.8	29.7	7.26
	보통	(5051)	4.6	10.3	50.7	34.4	6.56
	나쁨	(1317)	8.6	8.5	27.0	56.0	5.94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4	1.1	6.2	92.3	6.79
	200만원 미만	(4187)	4.7	8.8	47.0	39.5	6.66
	200~300만원 미만	(4397)	3.9	8.7	84.2	3.2	7.03
	300~400만원 미만	(2925)	3.1	8.1	86.8	2.1	7.11
	400만원 이상	(1697)	3.8	7.4	85.6	3.2	7.25
혼인상태	미혼	(5170)	2.2	5.5	51.8	40.5	7.05
	기혼	(10451)	3.2	6.9	62.2	27.6	7.02
	사별/이혼/별거	(1736)	5.0	8.5	42.9	43.7	6.56
가구원수	1인	(1936)	4.9	9.0	58.5	27.6	6.81
	2인 이상	(15421)	2.9	6.4	57.0	33.8	7.02
주거형태	자가	(14022)	2.6	6.4	56.4	34.6	7.03
	전세	(2209)	4.4	6.8	65.7	23.0	6.95
	월세/사글세/무상	(1126)	7.4	10.0	49.5	33.1	6.55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3.6	8.2	55.6	32.5	6.89
	아파트	(8442)	2.9	5.6	57.4	34.1	7.08
	연립/다세대/기타	(3130)	2.7	6.6	59.5	31.3	6.94
기초생활수급	해당	(458)	5.3	6.0	27.1	61.6	6.15
	비해당	(16899)	3.0	6.7	58.0	32.3	7.00



구분		n	Bottom5 (%)	Middle (%)	Top5 (%)	비해당 (%)	mean (0~10)
다문화가정	해당	(100)	6.8	9.4	48.0	35.8	6.50
	비해당	(17257)	3.1	6.6	57.2	33.1	6.99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3.6	7.8	13.3	75.3	5.91
	200만원 미만	(2096)	3.9	8.8	29.6	57.6	6.35
	200~300만원 미만	(2038)	5.5	8.3	56.5	29.7	6.75
	300~400만원 미만	(2908)	3.2	7.6	57.5	31.6	6.93
	400~500만원 미만	(3072)	2.6	6.1	59.2	32.1	7.09
	500~600만원 미만	(3149)	2.7	5.8	63.1	28.4	7.13
	600만원 이상	(3941)	2.1	5.0	67.3	25.6	7.18



# 제5장

## 개인 및 사회에 대한 인식

---

- 제1절 사회적 가치관
- 제2절 집단 신뢰도
- 제3절 단체 활동 및 참여
- 제4절 타인에 대한 견해
- 제5절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 제6절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경험
- 제7절 개인 성향
- 제8절 시간을 보내는 방식



제9절 자유롭게 선택하며 원하는 인생

제10절 평등/불평등 인식

제11절 현안 및 조세 부담

제12절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

제13절 지난 한 달간의 감정과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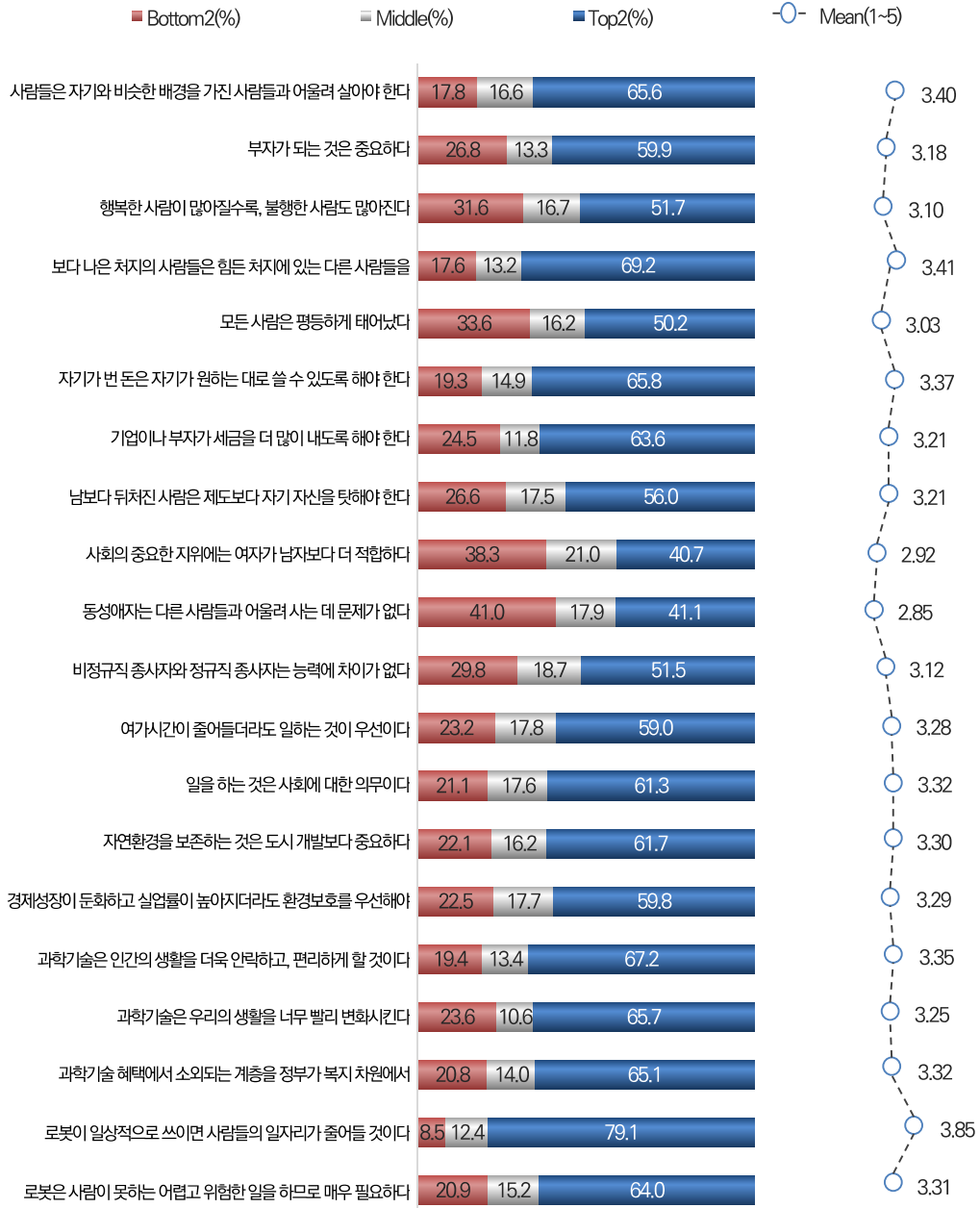
## 제 1절 사회적 가치관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0 종합 분석

사회적 가치관과 관련된 20가지 질문 각각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동의 정도는 ‘로봇이 일상적으로 쓰이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3.85점), ‘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들은 힘든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3.41점),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3.40점) 순으로 높고, ‘동성애자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데 문제가 없다’이 가장 낮았다.

(n=17,357, %, mean=1~5)



[그림 5-1]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

## 1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

### 가. 전체 분석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65.6%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17.8%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 정도 평균은 3.40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40점)와 여자(3.40점)가 같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3.45점)가 가장 높고, 15~19세(3.32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부산(7.57점), 경남(7.54점), 세종(7.39점) 순으로 높고, 경북(5.54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3.37점), 직업 없음(3.35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3.35점), 미혼(3.37점), 기초생활수급가구(3.27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부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1]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전체		(17357)	17.8	16.6	65.6	3.40
성별	남자	(8615)	17.6	16.9	65.5	3.40
	여자	(8742)	17.9	16.3	65.8	3.40
연령별	15~19	(871)	19.6	20.1	60.3	3.32
	20대	(2550)	19.7	16.7	63.6	3.35
	30대	(2576)	16.7	15.8	67.5	3.44
	40대	(3123)	19.4	16.3	64.2	3.37
	50대	(3304)	16.0	16.3	67.7	3.45
	60대 이상	(4933)	17.2	16.7	66.1	3.41
지역별	서울	(3301)	13.3	13.8	72.9	3.54
	부산	(1155)	11.1	8.6	80.3	3.62
	대구	(800)	11.4	21.2	67.4	3.54
	인천	(996)	15.4	14.0	70.6	3.49
	광주	(483)	24.1	17.6	58.2	3.17
	대전	(490)	18.6	21.3	60.1	3.28
	울산	(375)	15.2	15.9	68.9	3.44
	세종	(114)	8.7	12.4	79.0	3.70
	경기	(4404)	22.3	15.6	62.1	3.32
	강원	(526)	28.5	18.4	53.1	3.06
	충북	(540)	15.3	28.5	56.2	3.33
	충남	(711)	12.8	21.9	65.3	3.48
	전북	(602)	33.4	26.2	40.5	2.99
	전남	(627)	25.2	13.6	61.2	3.22
	경북	(894)	19.4	30.5	50.1	3.26
	경남	(1116)	11.7	8.7	79.6	3.61
제주	(224)	12.7	21.5	65.7	3.49	
학력	중졸 이하	(2863)	17.8	19.5	62.7	3.37
	고졸	(5401)	16.4	16.7	66.9	3.44
	대재 이상	(9093)	18.6	15.7	65.8	3.39
직업유무	있다	(11617)	16.9	16.3	66.8	3.42
	없다	(5740)	19.6	17.2	63.2	3.35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9.3	17.4	63.3	3.36
	200만원 미만	(4187)	19.4	17.7	62.9	3.35
	200~300만원 미만	(4397)	16.1	17.4	66.5	3.44
	300~400만원 미만	(2925)	14.9	14.5	70.7	3.49
	400만원 이상	(1697)	19.2	13.6	67.2	3.38
혼인상태	미혼	(5170)	18.7	17.0	64.3	3.37
	기혼	(10451)	17.3	16.1	66.7	3.42
	사별/이혼/별거	(1736)	18.0	18.7	63.3	3.38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22.9	18.2	59.0	3.27
	비해당	(16899)	17.6	16.6	65.8	3.40
가구원수	1인	(1936)	17.8	16.5	65.7	3.41
	2인 이상	(15421)	17.8	16.6	65.6	3.40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 항목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2]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전체		(17357)	17.8	16.6	65.6	3.40
전반적 행복감	0~4	(1092)	38.0	22.0	40.0	2.92
	5	(2821)	20.8	27.8	51.4	3.24
	6~10	(13443)	15.5	13.8	70.7	3.47
어제 행복감	0~4	(1351)	37.8	19.4	42.8	2.94
	5	(2983)	21.9	27.1	51.0	3.21
	6~10	(13023)	14.7	13.9	71.3	3.49
어제 미소/웃음	0~4	(1760)	33.4	19.1	47.6	3.04
	5	(3349)	20.5	24.9	54.5	3.27
	6~10	(12248)	14.8	14.0	71.3	3.49
사다리 위치	0~4	(2070)	28.9	21.2	49.9	3.13
	5	(3173)	19.4	23.2	57.4	3.32
	6~10	(12114)	15.4	14.1	70.5	3.47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32.7	20.0	47.4	3.05
	5	(3484)	19.9	25.7	54.4	3.28
	6~10	(12301)	15.3	13.6	71.1	3.48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32.2	19.2	48.6	3.07
	5	(2762)	18.9	26.9	54.1	3.29
	6~10	(13399)	16.2	14.2	69.5	3.45

## 2 부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다

### 가. 전체 분석

‘부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은 결과 59.9%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26.8%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 정도 평균은 3.18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부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16점)보다 여자(3.19점)가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3.22점)가 가장 높고, 15~19세(3.02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3.59점), 충남(3.48점), 경남(3.43점) 순으로 높고, 광주(2.66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직업 없음(3.13점), 개인소득 없음(3.12점), 미혼(3.13점), 기초생활수급가구(2.76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부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3] 부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다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전체		(17357)	26.8	13.3	59.9	3.18
성별	남자	(8615)	27.2	13.3	59.5	3.16
	여자	(8742)	26.4	13.3	60.3	3.19
연령별	15~19	(871)	31.6	10.9	57.5	3.02
	20대	(2550)	27.4	10.1	62.4	3.16
	30대	(2576)	26.9	12.1	60.9	3.17
	40대	(3123)	24.7	14.5	60.8	3.22
	50대	(3304)	25.7	13.5	60.8	3.20
	60대 이상	(4933)	27.5	15.2	57.3	3.17
지역별	서울	(3301)	28.5	11.3	60.1	3.14
	부산	(1155)	20.7	7.7	71.6	3.34
	대구	(800)	25.8	12.0	62.2	3.25
	인천	(996)	21.8	11.2	67.0	3.33
	광주	(483)	45.7	8.9	45.4	2.66
	대전	(490)	32.6	15.8	51.6	3.01
	울산	(375)	18.1	9.2	72.8	3.41
	세종	(114)	12.0	17.2	70.7	3.59
	경기	(4404)	28.0	13.1	58.9	3.15
	강원	(526)	34.5	15.7	49.8	2.91
	충북	(540)	28.7	18.3	53.0	3.18
	충남	(711)	15.3	15.3	69.4	3.48
	전북	(602)	28.7	27.6	43.7	3.08
	전남	(627)	28.6	14.6	56.8	3.09
	경북	(894)	34.9	19.1	46.0	2.89
	경남	(1116)	17.2	10.0	72.9	3.43
제주	(224)	21.4	27.0	51.7	3.21	
학력	중졸 이하	(2863)	27.9	16.3	55.8	3.15
	고졸	(5401)	25.9	13.8	60.3	3.20
	대재 이상	(9093)	26.9	12.1	61.0	3.17
직업유무	있다	(11617)	25.8	13.4	60.8	3.20
	없다	(5740)	28.8	13.1	58.1	3.13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28.4	12.8	58.7	3.12
	200만원 미만	(4187)	27.7	15.5	56.7	3.14
	200~300만원 미만	(4397)	25.1	13.1	61.8	3.23
	300~400만원 미만	(2925)	25.1	12.4	62.5	3.23
	400만원 이상	(1697)	27.7	11.2	61.1	3.15
혼인상태	미혼	(5170)	28.6	11.0	60.4	3.13
	기혼	(10451)	25.8	14.0	60.2	3.20
	사별/이혼/별거	(1736)	27.3	16.5	56.2	3.17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41.5	17.8	40.7	2.76
	비해당	(16899)	26.4	13.2	60.4	3.19
가구원수	1인	(1936)	26.9	15.3	57.7	3.17
	2인 이상	(15421)	26.8	13.1	60.2	3.18

‘부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다’ 항목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4] 부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26.8	13.3	59.9	3.18
전반적 행복감	0~4	(1092)	42.8	15.8	41.4	2.80
	5	(2821)	34.6	18.2	47.2	2.94
	6~10	(13443)	23.8	12.1	64.1	3.26
어제 행복감	0~4	(1351)	44.6	13.0	42.5	2.76
	5	(2983)	34.2	17.1	48.7	2.95
	6~10	(13023)	23.2	12.5	64.3	3.27
어제 미소/웃음	0~4	(1760)	41.0	12.7	46.2	2.85
	5	(3349)	32.9	16.3	50.8	2.99
	6~10	(12248)	23.0	12.6	64.4	3.27
사다리 위치	0~4	(2070)	35.7	12.8	51.4	2.96
	5	(3173)	28.4	15.8	55.8	3.12
	6~10	(12114)	24.8	12.8	62.4	3.23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38.4	13.5	48.1	2.91
	5	(3484)	31.2	16.8	51.9	3.05
	6~10	(12301)	24.0	12.3	63.7	3.25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38.6	15.9	45.5	2.89
	5	(2762)	35.1	17.5	47.4	2.94
	6~10	(13399)	24.0	12.2	63.8	3.25

### 3 행복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불행한 사람도 많아진다

#### 가. 전체 분석

‘행복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불행한 사람도 많아진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은 결과 51.7%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31.6%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 정도 평균은 3.10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행복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불행한 사람도 많아진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12점)가 여자(3.09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3.16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3.05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울(3.13점), 부산(3.32점), 대구(3.05점) 순으로 높고, 제주(3.37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3.04점), 직업 없음(3.06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3.01점), 사별/이혼/별거(3.01점), 기초생활수급가구(2.90점), 1인 가구(3.06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부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5] 행복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불행한 사람도 많아진다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전체		(17357)	31.6	16.7	51.7	3.10
성별	남자	(8615)	31.1	16.5	52.4	3.12
	여자	(8742)	32.1	16.9	51.0	3.09
연령별	15~19	(871)	28.4	17.8	53.8	3.16
	20대	(2550)	31.4	15.9	52.7	3.10
	30대	(2576)	29.4	15.6	55.0	3.15
	40대	(3123)	31.8	16.3	51.9	3.10
	50대	(3304)	31.2	15.3	53.5	3.12
	60대 이상	(4933)	33.6	18.6	47.7	3.05
지역별	서울	(3301)	31.4	16.1	52.5	3.13
	부산	(1155)	24.2	11.0	64.8	3.32
	대구	(800)	33.4	22.1	44.5	3.05
	인천	(996)	21.4	12.5	66.1	3.38
	광주	(483)	45.5	22.8	31.8	2.62
	대전	(490)	16.8	21.7	61.5	3.40
	울산	(375)	28.8	14.5	56.8	3.19
	세종	(114)	8.5	12.5	79.0	3.70
	경기	(4404)	34.9	15.3	49.8	3.05
	강원	(526)	32.4	20.6	47.0	2.97
	충북	(540)	29.0	25.2	45.7	3.09
	충남	(711)	15.2	18.9	65.9	3.46
	전북	(602)	56.4	19.7	24.0	2.54
	전남	(627)	36.3	21.1	42.5	2.92
	경북	(894)	56.8	17.1	26.1	2.52
	경남	(1116)	17.3	11.7	71.0	3.47
제주	(224)	14.3	28.8	56.9	3.37	
학력	중졸 이하	(2863)	33.5	20.7	45.8	3.04
	고졸	(5401)	30.7	16.5	52.7	3.13
	대재 이상	(9093)	31.6	15.5	52.9	3.11
직업유무	있다	(11617)	30.9	16.3	52.9	3.12
	없다	(5740)	33.1	17.6	49.3	3.06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32.3	16.6	51.1	3.09
	200만원 미만	(4187)	35.2	19.2	45.7	3.01
	200~300만원 미만	(4397)	27.6	17.0	55.4	3.19
	300~400만원 미만	(2925)	30.1	14.4	55.4	3.16
	400만원 이상	(1697)	34.0	14.0	52.0	3.05
혼인상태	미혼	(5170)	29.9	15.8	54.3	3.14
	기혼	(10451)	31.9	16.7	51.4	3.10
	사별/이혼/별거	(1736)	35.0	19.2	45.8	3.01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38.3	23.0	38.8	2.90
	비해당	(16899)	31.4	16.5	52.0	3.11
가구원수	1인	(1936)	33.7	16.2	50.1	3.06
	2인 이상	(15421)	31.4	16.7	51.9	3.11

‘행복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불행한 사람도 많아진다’ 항목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6] 행복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불행한 사람도 많아진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31.6	16.7	51.7	3.10
전반적 행복감	0~4	(1092)	52.4	17.5	30.1	2.62
	5	(2821)	40.9	22.8	36.4	2.85
	6~10	(13443)	28.0	15.3	56.7	3.19
어제 행복감	0~4	(1351)	51.4	15.2	33.4	2.65
	5	(2983)	40.0	22.6	37.4	2.87
	6~10	(13023)	27.6	15.5	56.9	3.20
어제 미소/웃음	0~4	(1760)	50.0	18.2	31.8	2.68
	5	(3349)	38.4	21.1	40.5	2.92
	6~10	(12248)	27.1	15.3	57.6	3.21
사다리 위치	0~4	(2070)	47.5	16.7	35.8	2.75
	5	(3173)	35.3	21.3	43.4	3.00
	6~10	(12114)	27.9	15.5	56.6	3.19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48.3	17.1	34.6	2.73
	5	(3484)	37.4	22.2	40.3	2.93
	6~10	(12301)	27.8	15.1	57.1	3.20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53.4	17.3	29.4	2.63
	5	(2762)	37.0	22.1	40.9	2.94
	6~10	(13399)	28.6	15.5	55.9	3.18

## 4 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들은 힘든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 가. 전체 분석

‘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들은 힘든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은 결과 69.2%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17.6%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 정도 평균은 3.41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들은 힘든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42점)와 여자(3.41점)가 비슷했으며, 연령별로는 30/50대(3.46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3.36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울산(3.67점), 부산(3.60점), 충남(3.54점) 순으로 높고, 광주(2.95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3.33점), 직업 없음(3.36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3.33점), 사별/이혼/별거(3.30점), 기초생활수급가구(3.10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들은 힘든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7] 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들은 힘든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전체		(17357)	17.6	13.2	69.2	3.41
성별	남자	(8615)	17.0	13.5	69.4	3.42
	여자	(8742)	18.2	12.8	69.0	3.41
연령별	15~19	(871)	17.0	13.4	69.6	3.41
	20대	(2550)	18.1	13.3	68.6	3.39
	30대	(2576)	16.1	12.7	71.1	3.46
	40대	(3123)	17.3	13.2	69.4	3.42
	50대	(3304)	16.1	12.2	71.7	3.46
	60대 이상	(4933)	19.5	13.9	66.6	3.36
지역별	서울	(3301)	15.1	10.7	74.2	3.52
	부산	(1155)	12.4	7.3	80.3	3.60
	대구	(800)	13.9	17.0	69.1	3.52
	인천	(996)	17.9	11.6	70.4	3.43
	광주	(483)	31.5	15.6	53.0	2.95
	대전	(490)	18.2	17.2	64.6	3.33
	울산	(375)	8.5	12.9	78.6	3.67
	세종	(114)	14.6	20.7	64.7	3.43
	경기	(4404)	18.8	11.6	69.6	3.40
	강원	(526)	28.1	14.6	57.3	3.09
	충북	(540)	20.6	27.8	51.6	3.19
	충남	(711)	11.2	16.6	72.2	3.54
	전북	(602)	23.1	20.5	56.4	3.22
	전남	(627)	24.1	11.4	64.5	3.19
	경북	(894)	21.2	18.6	60.2	3.30
	경남	(1116)	13.3	9.3	77.3	3.54
제주	(224)	19.5	19.6	60.9	3.31	
학력	중졸 이하	(2863)	19.8	15.4	64.7	3.33
	고졸	(5401)	17.4	13.3	69.3	3.42
	대재 이상	(9093)	17.1	12.4	70.5	3.43
직업유무	있다	(11617)	16.7	12.6	70.7	3.44
	없다	(5740)	19.4	14.4	66.2	3.36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8.4	13.5	68.1	3.39
	200만원 미만	(4187)	20.3	14.2	65.5	3.33
	200~300만원 미만	(4397)	16.6	13.0	70.3	3.45
	300~400만원 미만	(2925)	15.8	11.9	72.3	3.47
	400만원 이상	(1697)	14.9	12.3	72.8	3.48
혼인상태	미혼	(5170)	17.4	13.0	69.6	3.42
	기혼	(10451)	17.0	13.0	70.0	3.43
	사별/이혼/별거	(1736)	21.9	14.8	63.3	3.30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29.6	15.5	54.9	3.10
	비해당	(16899)	17.3	13.1	69.6	3.42
가구원수	1인	(1936)	17.8	13.3	68.9	3.42
	2인 이상	(15421)	17.6	13.2	69.2	3.41

‘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들은 힘든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항목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8] 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들은 힘든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17.6	13.2	69.2	3.41
전반적 행복감	0~4	(1092)	36.9	14.7	48.4	2.98
	5	(2821)	21.2	18.5	60.3	3.29
	6~10	(13443)	15.3	11.9	72.7	3.47
어제 행복감	0~4	(1351)	33.5	12.6	53.9	3.07
	5	(2983)	21.5	18.2	60.3	3.27
	6~10	(13023)	15.1	12.1	72.8	3.48
어제 미소/웃음	0~4	(1760)	30.9	12.9	56.2	3.13
	5	(3349)	19.2	17.7	63.2	3.34
	6~10	(12248)	15.3	12.0	72.7	3.47
사다리 위치	0~4	(2070)	27.1	13.3	59.7	3.20
	5	(3173)	17.7	16.9	65.4	3.39
	6~10	(12114)	16.0	12.2	71.8	3.45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28.3	14.4	57.3	3.17
	5	(3484)	21.1	17.7	61.2	3.29
	6~10	(12301)	15.3	11.7	73.0	3.48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33.6	12.7	53.7	3.07
	5	(2762)	20.9	19.3	59.9	3.29
	6~10	(13399)	15.5	12.0	72.5	3.47

## 5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 가. 전체 분석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은 결과 50.2%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33.6%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 정도 평균은 3.03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02점)와 여자(3.04점)가 비슷했으며, 연령별로는 30대(3.05점)가 가장 높고, 20대(3.01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3.47점), 경남(3.32점), 울산(3.29점) 순으로 높고, 광주(2.64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2.97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2.95점), 사별/이혼/별거(2.98점), 기초생활수급가구(2.71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9]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전체		(17357)	33.6	16.2	50.2	3.03
성별	남자	(8615)	33.9	16.1	50.0	3.02
	여자	(8742)	33.3	16.3	50.5	3.04
연령별	15~19	(871)	33.2	16.2	50.6	3.03
	20대	(2550)	33.9	16.3	49.8	3.01
	30대	(2576)	32.9	15.5	51.6	3.05
	40대	(3123)	33.7	15.5	50.8	3.04
	50대	(3304)	33.5	16.0	50.5	3.04
	60대 이상	(4933)	33.8	17.0	49.2	3.02
지역별	서울	(3301)	27.3	16.1	56.5	3.19
	부산	(1155)	33.1	7.6	59.3	3.13
	대구	(800)	38.1	16.6	45.2	2.96
	인천	(996)	26.9	12.7	60.4	3.22
	광주	(483)	44.3	21.9	33.9	2.64
	대전	(490)	43.1	22.5	34.4	2.67
	울산	(375)	22.9	17.9	59.2	3.29
	세종	(114)	16.6	16.9	66.5	3.47
	경기	(4404)	40.0	14.3	45.8	2.91
	강원	(526)	40.6	17.4	42.0	2.74
	충북	(540)	34.3	21.3	44.4	2.94
	충남	(711)	30.2	23.5	46.3	3.09
	전북	(602)	38.5	21.0	40.5	2.90
	전남	(627)	36.7	17.9	45.3	2.91
	경북	(894)	32.8	22.0	45.2	3.00
	경남	(1116)	23.7	10.5	65.8	3.32
제주	(224)	22.0	31.7	46.3	3.11	
학력	중졸 이하	(2863)	35.5	17.6	46.9	2.97
	고졸	(5401)	34.2	15.5	50.3	3.03
	대재 이상	(9093)	32.6	16.1	51.3	3.05
직업유무	있다	(11617)	33.2	16.0	50.8	3.04
	없다	(5740)	34.5	16.5	49.1	3.01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33.0	16.9	50.1	3.04
	200만원 미만	(4187)	36.6	16.8	46.6	2.95
	200~300만원 미만	(4397)	32.6	16.0	51.5	3.06
	300~400만원 미만	(2925)	33.6	13.4	52.9	3.07
	400만원 이상	(1697)	30.3	18.1	51.6	3.09
혼인상태	미혼	(5170)	33.8	15.9	50.3	3.03
	기혼	(10451)	33.1	16.1	50.8	3.04
	사별/이혼/별거	(1736)	35.7	17.4	46.9	2.98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45.6	19.2	35.2	2.71
	비해당	(16899)	33.3	16.1	50.6	3.04
가구원수	1인	(1936)	33.7	16.3	50.1	3.03
	2인 이상	(15421)	33.6	16.2	50.3	3.03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항목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10]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33.6	16.2	50.2	3.03
전반적 행복감	0~4	(1092)	52.5	15.4	32.2	2.63
	5	(2821)	42.9	22.2	34.9	2.76
	6~10	(13443)	30.1	15.0	54.9	3.12
어제 행복감	0~4	(1351)	54.3	15.7	30.0	2.57
	5	(2983)	43.7	21.5	34.8	2.75
	6~10	(13023)	29.1	15.0	55.9	3.14
어제 미소/웃음	0~4	(1760)	50.9	13.9	35.2	2.67
	5	(3349)	44.0	19.9	36.1	2.76
	6~10	(12248)	28.2	15.5	56.3	3.16
사다리 위치	0~4	(2070)	51.3	16.2	32.5	2.60
	5	(3173)	39.8	18.2	42.0	2.89
	6~10	(12114)	28.9	15.6	55.4	3.14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50.7	15.9	33.5	2.64
	5	(3484)	38.6	22.1	39.3	2.87
	6~10	(12301)	30.0	14.5	55.5	3.13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53.9	16.7	29.3	2.56
	5	(2762)	41.5	21.5	37.0	2.81
	6~10	(13399)	30.1	15.0	54.8	3.12

## 6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가. 전체 분석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65.8%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19.3%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 정도 평균은 3.37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38점)와 여자(3.36점)가 비슷했으며, 연령별로는 30/40대(3.39점)가 가장 높고, 15~19세(3.30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3.65점), 경남(3.57점), 대구(3.52점) 순으로 높고, 대전(2.84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3.32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3.32점), 기초생활수급가구(3.26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11]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전체		(17357)	19.3	14.9	65.8	3.37
성별	남자	(8615)	18.8	14.9	66.3	3.38
	여자	(8742)	19.8	14.8	65.4	3.36
연령별	15~19	(871)	22.1	10.6	67.3	3.30
	20대	(2550)	19.6	13.0	67.4	3.36
	30대	(2576)	18.2	15.1	66.7	3.39
	40대	(3123)	18.8	13.8	67.4	3.39
	50대	(3304)	18.7	15.9	65.4	3.38
	60대 이상	(4933)	19.8	16.5	63.7	3.35
지역별	서울	(3301)	19.2	11.6	69.1	3.40
	부산	(1155)	16.2	9.6	74.2	3.48
	대구	(800)	14.2	16.6	69.2	3.52
	인천	(996)	19.0	11.8	69.2	3.43
	광주	(483)	31.6	21.1	47.3	2.91
	대전	(490)	35.4	18.3	46.3	2.84
	울산	(375)	14.3	15.6	70.2	3.49
	세종	(114)	8.3	18.4	73.3	3.65
	경기	(4404)	20.2	13.9	65.9	3.36
	강원	(526)	26.4	18.1	55.5	3.10
	충북	(540)	24.7	23.9	51.4	3.14
	충남	(711)	12.8	26.5	60.7	3.45
	전북	(602)	21.7	21.0	57.3	3.25
	전남	(627)	22.2	14.3	63.5	3.24
	경북	(894)	13.9	17.4	68.7	3.48
	경남	(1116)	13.4	9.8	76.8	3.57
제주	(224)	14.7	26.9	58.4	3.33	
학력	중졸 이하	(2863)	20.4	16.8	62.8	3.32
	고졸	(5401)	18.8	15.4	65.7	3.38
	대재 이상	(9093)	19.2	14.0	66.9	3.37
직업유무	있다	(11617)	18.6	14.7	66.7	3.38
	없다	(5740)	20.6	15.2	64.2	3.33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20.6	14.3	65.1	3.34
	200만원 미만	(4187)	20.6	16.4	63.0	3.32
	200~300만원 미만	(4397)	18.3	15.4	66.2	3.38
	300~400만원 미만	(2925)	17.4	13.5	69.0	3.43
	400만원 이상	(1697)	18.3	13.4	68.3	3.41
혼인상태	미혼	(5170)	19.7	12.8	67.5	3.36
	기혼	(10451)	19.1	15.5	65.5	3.37
	사별/이혼/별거	(1736)	19.3	17.5	63.2	3.36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22.0	19.4	58.6	3.26
	비해당	(16899)	19.2	14.8	66.0	3.37
가구원수	1인	(1936)	18.1	15.5	66.4	3.40
	2인 이상	(15421)	19.4	14.8	65.8	3.36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항목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12]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19.3	14.9	65.8	3.37
전반적 행복감	0~4	(1092)	33.0	18.8	48.2	3.05
	5	(2821)	21.3	20.3	58.4	3.28
	6~10	(13443)	17.7	13.4	68.8	3.41
어제 행복감	0~4	(1351)	31.6	17.2	51.2	3.09
	5	(2983)	21.4	20.5	58.1	3.27
	6~10	(13023)	17.5	13.3	69.1	3.42
어제 미소/웃음	0~4	(1760)	29.1	16.3	54.6	3.14
	5	(3349)	20.7	18.5	60.8	3.31
	6~10	(12248)	17.5	13.7	68.9	3.42
사다리 위치	0~4	(2070)	25.0	16.2	58.8	3.24
	5	(3173)	20.6	18.5	60.8	3.32
	6~10	(12114)	17.9	13.7	68.4	3.40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30.6	18.4	50.9	3.08
	5	(3484)	20.0	21.2	58.7	3.31
	6~10	(12301)	17.6	12.6	69.8	3.42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29.4	17.8	52.9	3.14
	5	(2762)	19.7	20.9	59.4	3.32
	6~10	(13399)	18.3	13.4	68.3	3.40

## 7 기업이나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

### 가. 전체 분석

‘기업이나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은 결과 63.6%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24.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 정도 평균은 3.21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기업이나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21점)와 여자(3.22점)가 비슷했으며, 연령별로는 30/50대(3.24점)가 가장 높고, 60세 이상(3.19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울산(3.63점), 세종(3.52점), 충남(3.51점) 순으로 높고, 광주(2.74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3.19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3.14점), 사별/이혼/별거(3.16점), 기초생활수급가구(3.06점), 1인 가구(3.17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기업이나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13] 기업이나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전체		(17357)	24.5	11.8	63.6	3.21
성별	남자	(8615)	24.8	11.2	64.0	3.21
	여자	(8742)	24.3	12.5	63.3	3.22
연령별	15~19	(871)	23.3	13.0	63.7	3.22
	20대	(2550)	24.9	11.0	64.1	3.21
	30대	(2576)	23.3	11.9	64.9	3.24
	40대	(3123)	24.5	11.9	63.6	3.21
	50대	(3304)	24.0	10.9	65.2	3.24
	60대 이상	(4933)	25.6	12.6	61.8	3.19
지역별	서울	(3301)	22.8	12.1	65.0	3.25
	부산	(1155)	24.6	8.1	67.3	3.27
	대구	(800)	17.3	15.5	67.3	3.42
	인천	(996)	18.7	10.9	70.4	3.40
	광주	(483)	39.6	12.5	47.9	2.74
	대전	(490)	33.5	17.2	49.3	2.88
	울산	(375)	10.7	10.4	79.0	3.63
	세종	(114)	12.2	16.2	71.6	3.52
	경기	(4404)	22.7	10.2	67.1	3.29
	강원	(526)	37.4	12.4	50.2	2.82
	충북	(540)	31.9	20.8	47.4	2.95
	충남	(711)	14.3	10.9	74.7	3.51
	전북	(602)	27.4	15.7	56.9	3.10
	전남	(627)	39.6	9.6	50.8	2.77
	경북	(894)	28.8	15.4	55.8	3.08
	경남	(1116)	26.5	6.6	66.9	3.21
제주	(224)	23.0	23.0	54.0	3.12	
학력	중졸 이하	(2863)	25.0	13.4	61.6	3.19
	고졸	(5401)	24.3	11.3	64.4	3.24
	대재 이상	(9093)	24.5	11.6	63.9	3.21
직업유무	있다	(11617)	24.1	11.6	64.3	3.23
	없다	(5740)	25.3	12.3	62.3	3.19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24.5	12.1	63.4	3.21
	200만원 미만	(4187)	27.1	13.0	59.9	3.14
	200~300만원 미만	(4397)	23.2	12.0	64.8	3.25
	300~400만원 미만	(2925)	23.0	10.6	66.4	3.27
	400만원 이상	(1697)	24.5	9.8	65.7	3.22
혼인상태	미혼	(5170)	24.5	11.3	64.2	3.22
	기혼	(10451)	24.3	11.6	64.1	3.22
	사별/이혼/별거	(1736)	25.8	14.6	59.6	3.16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30.5	13.8	55.6	3.06
	비해당	(16899)	24.4	11.8	63.9	3.22
가구원수	1인	(1936)	25.4	13.2	61.4	3.17
	2인 이상	(15421)	24.4	11.6	63.9	3.22

‘기업이나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 항목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14] 기업이나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24.5	11.8	63.6	3.21
전반적 행복감	0~4	(1092)	39.0	13.7	47.3	2.83
	5	(2821)	28.6	15.6	55.9	3.08
	6~10	(13443)	22.5	10.9	66.6	3.28
어제 행복감	0~4	(1351)	37.5	12.3	50.2	2.87
	5	(2983)	28.9	15.7	55.4	3.06
	6~10	(13023)	22.2	10.9	66.9	3.28
어제 미소/웃음	0~4	(1760)	37.6	11.7	50.7	2.87
	5	(3349)	26.9	14.7	58.4	3.13
	6~10	(12248)	22.0	11.1	67.0	3.29
사다리 위치	0~4	(2070)	33.5	12.4	54.1	2.98
	5	(3173)	25.1	14.9	60.0	3.18
	6~10	(12114)	22.9	10.9	66.2	3.26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37.3	11.7	51.0	2.87
	5	(3484)	27.6	15.6	56.8	3.10
	6~10	(12301)	22.0	10.8	67.2	3.29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37.4	12.2	50.4	2.90
	5	(2762)	28.6	16.1	55.3	3.08
	6~10	(13399)	22.5	10.9	66.6	3.27

## 8 남보다 뒤쳐진 사람은 제도보다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한다

### 가. 전체 분석

‘남보다 뒤쳐진 사람은 제도보다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한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은 결과 56.0%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26.6%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 정도 평균은 3.21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남보다 뒤쳐진 사람은 제도보다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22점)와 여자(3.20점)가 비슷했으며, 연령별로는 30대(3.27점)가 가장 높고, 60세 이상(3.17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3.75점), 부산(3.44점), 충남(3.42점) 순으로 높고, 대전(2.68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3.16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3.13점), 사별/이혼/별거(3.18점), 기초생활수급가구(2.95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남보다 뒤쳐진 사람은 제도보다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15] 남보다 뒤쳐진 사람은 제도보다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한다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전체		(17357)	26.6	17.5	56.0	3.21
성별	남자	(8615)	26.2	17.3	56.5	3.22
	여자	(8742)	26.9	17.6	55.5	3.20
연령별	15~19	(871)	26.4	16.1	57.5	3.22
	20대	(2550)	27.6	16.9	55.5	3.19
	30대	(2576)	24.5	15.9	59.6	3.27
	40대	(3123)	26.6	17.8	55.6	3.20
	50대	(3304)	25.5	17.8	56.7	3.22
	60대 이상	(4933)	27.8	18.4	53.8	3.17
지역별	서울	(3301)	22.0	12.7	65.3	3.37
	부산	(1155)	18.5	11.4	70.1	3.44
	대구	(800)	24.6	25.8	49.6	3.21
	인천	(996)	23.3	12.9	63.8	3.32
	광주	(483)	36.3	20.1	43.6	2.83
	대전	(490)	44.7	22.2	33.0	2.68
	울산	(375)	14.6	26.9	58.5	3.39
	세종	(114)	4.6	15.5	79.9	3.75
	경기	(4404)	31.4	14.9	53.7	3.13
	강원	(526)	29.4	23.7	46.9	3.00
	충북	(540)	24.3	31.2	44.5	3.14
	충남	(711)	15.2	22.8	61.9	3.42
	전북	(602)	30.1	27.5	42.4	3.05
	전남	(627)	28.4	23.3	48.3	3.09
	경북	(894)	38.3	20.5	41.2	2.92
	경남	(1116)	23.2	12.9	63.8	3.33
제주	(224)	22.0	30.0	48.1	3.17	
학력	중졸 이하	(2863)	27.4	20.4	52.2	3.16
	고졸	(5401)	26.0	17.6	56.3	3.22
	대재 이상	(9093)	26.6	16.5	57.0	3.21
직업유무	있다	(11617)	25.6	17.1	57.3	3.23
	없다	(5740)	28.5	18.2	53.4	3.16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26.9	17.6	55.6	3.20
	200만원 미만	(4187)	29.0	19.1	51.9	3.13
	200~300만원 미만	(4397)	23.8	17.6	58.6	3.27
	300~400만원 미만	(2925)	26.9	16.7	56.4	3.21
	400만원 이상	(1697)	26.2	14.1	59.7	3.23
혼인상태	미혼	(5170)	26.8	16.6	56.6	3.21
	기혼	(10451)	26.4	17.5	56.1	3.21
	사별/이혼/별거	(1736)	26.9	19.6	53.6	3.18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35.5	22.9	41.5	2.95
	비해당	(16899)	26.3	17.3	56.4	3.21
가구원수	1인	(1936)	27.3	18.3	54.4	3.19
	2인 이상	(15421)	26.5	17.4	56.2	3.21

‘남보다 뒤쳐진 사람은 제도보다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한다’ 항목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16] 남보다 뒤쳐진 사람은 제도보다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한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26.6	17.5	56.0	3.21
전반적 행복감	0~4	(1092)	47.5	17.7	34.7	2.76
	5	(2821)	31.1	25.9	43.0	3.02
	6~10	(13443)	23.9	15.7	60.4	3.28
어제 행복감	0~4	(1351)	47.2	17.8	35.0	2.75
	5	(2983)	30.7	25.3	44.1	3.04
	6~10	(13023)	23.5	15.6	60.9	3.29
어제 미소/웃음	0~4	(1760)	43.8	19.1	37.0	2.83
	5	(3349)	30.6	22.6	46.8	3.07
	6~10	(12248)	23.0	15.8	61.2	3.30
사다리 위치	0~4	(2070)	37.8	20.2	42.0	2.95
	5	(3173)	27.8	22.9	49.3	3.14
	6~10	(12114)	24.3	15.6	60.1	3.27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41.7	19.0	39.2	2.86
	5	(3484)	29.5	23.6	46.9	3.09
	6~10	(12301)	23.8	15.5	60.7	3.28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44.1	17.9	38.0	2.84
	5	(2762)	31.6	24.8	43.5	3.04
	6~10	(13399)	23.9	15.9	60.2	3.27

## 9 사회의 중요한 지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적합하다

### 가. 전체 분석

‘사회的重要한 지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적합하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은 결과 40.7%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38.3%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 정도 평균은 2.92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사회的重要한 지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적합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2.88점)보다 여자(2.96점)가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2.96점)가 가장 높고, 60세 이상(2.86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인천(3.30점), 세종(3.25점), 제주(3.22점) 순으로 높고, 강원(2.37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2.86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2.82점), 사별/이혼/별거(2.89점), 기초생활수급가구(2.72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사회的重要한 지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적합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17] 사회의 중요한 지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적합하다**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전체		(17357)	38.3	21.0	40.7	2.92
성별	남자	(8615)	40.8	19.7	39.4	2.88
	여자	(8742)	35.7	22.3	42.0	2.96
연령별	15~19	(871)	36.1	20.8	43.1	2.95
	20대	(2550)	38.2	19.1	42.7	2.95
	30대	(2576)	36.3	22.1	41.6	2.95
	40대	(3123)	36.9	20.4	42.7	2.96
	50대	(3304)	38.2	20.6	41.2	2.93
	60대 이상	(4933)	40.6	22.1	37.3	2.86
지역별	서울	(3301)	36.3	21.3	42.4	2.99
	부산	(1155)	31.8	11.9	56.2	3.15
	대구	(800)	47.5	19.2	33.3	2.69
	인천	(996)	24.3	16.1	59.6	3.30
	광주	(483)	51.4	23.9	24.7	2.46
	대전	(490)	44.1	31.4	24.5	2.74
	울산	(375)	35.2	28.2	36.6	2.96
	세종	(114)	20.8	33.0	46.2	3.25
	경기	(4404)	40.6	18.5	40.9	2.91
	강원	(526)	53.1	22.7	24.2	2.37
	충북	(540)	36.8	23.6	39.5	2.94
	충남	(711)	27.1	32.5	40.4	3.09
	전북	(602)	40.7	28.7	30.6	2.83
	전남	(627)	40.0	31.3	28.7	2.80
	경북	(894)	54.8	22.1	23.1	2.45
	경남	(1116)	31.0	12.6	56.5	3.16
제주	(224)	18.9	34.3	46.8	3.22	
학력	중졸 이하	(2863)	40.1	22.9	37.0	2.86
	고졸	(5401)	39.2	21.0	39.8	2.91
	대재 이상	(9093)	37.1	20.4	42.5	2.95
직업유무	있다	(11617)	38.3	20.7	41.0	2.92
	없다	(5740)	38.2	21.6	40.2	2.92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36.3	22.0	41.7	2.96
	200만원 미만	(4187)	42.0	22.8	35.2	2.82
	200~300만원 미만	(4397)	37.4	19.3	43.3	2.95
	300~400만원 미만	(2925)	38.5	18.6	42.9	2.94
	400만원 이상	(1697)	35.8	22.3	41.9	2.98
혼인상태	미혼	(5170)	37.5	19.4	43.1	2.95
	기혼	(10451)	38.3	21.8	39.9	2.91
	사별/이혼/별거	(1736)	40.2	21.1	38.7	2.89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45.1	23.1	31.7	2.72
	비해당	(16899)	38.1	20.9	41.0	2.93
가구원수	1인	(1936)	40.1	19.7	40.2	2.90
	2인 이상	(15421)	38.0	21.2	40.8	2.92

‘사회의 중요한 지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적합하다’ 항목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18] 사회의 중요한 지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적합하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38.3	21.0	40.7	2.92
전반적 행복감	0~4	(1092)	52.0	24.3	23.7	2.59
	5	(2821)	45.9	25.4	28.7	2.71
	6~10	(13443)	35.6	19.8	44.6	2.99
어제 행복감	0~4	(1351)	52.7	23.6	23.7	2.57
	5	(2983)	47.3	25.1	27.5	2.68
	6~10	(13023)	34.7	19.8	45.5	3.02
어제 미소/웃음	0~4	(1760)	54.1	21.5	24.4	2.57
	5	(3349)	47.4	23.7	29.0	2.69
	6~10	(12248)	33.5	20.2	46.3	3.04
사다리 위치	0~4	(2070)	50.9	23.5	25.6	2.61
	5	(3173)	42.5	22.9	34.7	2.82
	6~10	(12114)	35.0	20.1	44.9	3.00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54.7	22.1	23.2	2.55
	5	(3484)	43.2	25.1	31.8	2.77
	6~10	(12301)	34.8	19.7	45.5	3.01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56.2	19.8	24.0	2.54
	5	(2762)	44.8	25.1	30.1	2.75
	6~10	(13399)	35.3	20.3	44.4	2.99

## 10 동성애자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데 문제가 없다

### 가. 전체 분석

‘동성애자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데 문제가 없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은 결과 41.1%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41.0%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 정도 평균은 2.85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동성애자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데 문제가 없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2.85점)와 여자(2.85점)가 같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2.94점)가 가장 높고, 60세 이상(2.73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울산(3.27점), 인천(3.21점), 세종(3.18점) 순으로 높고, 경북(2.35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2.75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2.72점), 사별/이혼/별거(2.77점), 기초생활수급가구(2.70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동성애자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데 문제가 없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19] 동성애자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데 문제가 없다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전체		(17357)	41.0	17.9	41.1	2.85
성별	남자	(8615)	41.2	17.5	41.3	2.85
	여자	(8742)	40.9	18.2	40.9	2.85
연령별	15~19	(871)	38.8	17.3	43.9	2.90
	20대	(2550)	36.3	18.8	44.9	2.94
	30대	(2576)	37.4	19.4	43.2	2.93
	40대	(3123)	38.8	17.6	43.6	2.90
	50대	(3304)	41.8	18.1	40.1	2.83
	60대 이상	(4933)	46.7	16.7	36.6	2.73
지역별	서울	(3301)	41.1	18.5	40.4	2.85
	부산	(1155)	31.4	11.9	56.6	3.13
	대구	(800)	57.4	16.0	26.6	2.49
	인천	(996)	26.9	14.9	58.2	3.21
	광주	(483)	50.6	16.3	33.1	2.52
	대전	(490)	50.7	26.8	22.5	2.47
	울산	(375)	17.9	31.8	50.3	3.27
	세종	(114)	22.2	37.2	40.6	3.18
	경기	(4404)	42.2	16.1	41.7	2.88
	강원	(526)	35.1	24.4	40.4	2.85
	충북	(540)	32.1	25.1	42.8	3.00
	충남	(711)	51.8	14.6	33.6	2.61
	전북	(602)	50.8	23.5	25.7	2.58
	전남	(627)	43.1	20.0	36.9	2.80
	경북	(894)	57.7	18.9	23.4	2.35
	경남	(1116)	31.4	11.2	57.4	3.14
제주	(224)	26.1	32.6	41.2	3.01	
학력	중졸 이하	(2863)	45.2	18.8	36.1	2.75
	고졸	(5401)	42.7	17.5	39.8	2.83
	대재 이상	(9093)	38.7	17.8	43.5	2.90
직업유무	있다	(11617)	40.4	17.9	41.7	2.87
	없다	(5740)	42.3	17.8	39.9	2.82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40.5	18.3	41.2	2.86
	200만원 미만	(4187)	46.3	17.5	36.2	2.72
	200~300만원 미만	(4397)	37.4	18.4	44.2	2.94
	300~400만원 미만	(2925)	40.7	17.3	42.0	2.88
	400만원 이상	(1697)	39.5	17.5	43.1	2.87
혼인상태	미혼	(5170)	37.2	18.5	44.3	2.93
	기혼	(10451)	42.5	17.2	40.2	2.82
	사별/이혼/별거	(1736)	43.3	20.1	36.6	2.77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44.2	23.3	32.6	2.70
	비해당	(16899)	40.9	17.7	41.3	2.85
가구원수	1인	(1936)	42.3	17.8	39.9	2.83
	2인 이상	(15421)	40.9	17.9	41.2	2.85

‘동성애자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데 문제가 없다’ 항목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20] 동성애자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데 문제가 없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41.0	17.9	41.1	2.85
전반적 행복감	0~4	(1092)	56.4	19.2	24.4	2.46
	5	(2821)	50.3	21.4	28.2	2.60
	6~10	(13443)	37.8	17.0	45.1	2.93
어제 행복감	0~4	(1351)	57.7	17.4	24.9	2.46
	5	(2983)	49.0	22.3	28.7	2.62
	6~10	(13023)	37.5	16.9	45.6	2.94
어제 미소/웃음	0~4	(1760)	58.4	16.7	24.9	2.44
	5	(3349)	47.2	21.8	30.9	2.67
	6~10	(12248)	36.8	17.0	46.2	2.96
사다리 위치	0~4	(2070)	53.3	18.9	27.8	2.54
	5	(3173)	45.2	20.0	34.7	2.76
	6~10	(12114)	37.8	17.1	45.0	2.93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57.3	17.9	24.8	2.44
	5	(3484)	46.7	21.2	32.1	2.71
	6~10	(12301)	37.3	17.0	45.7	2.94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61.1	15.5	23.4	2.41
	5	(2762)	47.8	21.9	30.3	2.67
	6~10	(13399)	37.8	17.3	44.9	2.93

## 11 비정규직 종사자와 정규직 종사자는 능력에 차이가 없다

### 가. 전체 분석

‘비정규직 종사자와 정규직 종사자는 능력에 차이가 없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은 결과 51.5%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29.8%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 정도 평균은 3.12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비정규직 종사자와 정규직 종사자는 능력에 차이가 없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12점)와 여자(3.13점)가 비슷했으며, 연령별로는 40대(3.16점)가 가장 높고, 60세 이상(3.10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경남(3.45점), 인천(3.34점), 부산(3.27점) 순으로 높고, 강원(2.84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3.09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3.06점), 기초생활수급가구(3.05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비정규직 종사자와 정규직 종사자는 능력에 차이가 없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21] 비정규직 종사자와 정규직 종사자는 능력에 차이가 없다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전체		(17357)	29.8	18.7	51.5	3.12
성별	남자	(8615)	29.9	18.6	51.6	3.12
	여자	(8742)	29.8	18.8	51.5	3.13
연령별	15~19	(871)	29.0	20.7	50.3	3.11
	20대	(2550)	29.8	17.8	52.4	3.13
	30대	(2576)	29.0	19.3	51.7	3.12
	40대	(3123)	28.7	18.2	53.1	3.16
	50대	(3304)	30.3	17.5	52.2	3.13
	60대 이상	(4933)	30.7	19.5	49.7	3.10
지역별	서울	(3301)	36.5	13.9	49.7	3.05
	부산	(1155)	24.9	13.1	62.0	3.27
	대구	(800)	40.9	16.7	42.3	2.90
	인천	(996)	21.5	12.2	66.3	3.34
	광주	(483)	35.8	24.9	39.3	2.86
	대전	(490)	23.8	28.5	47.7	3.17
	울산	(375)	22.2	32.2	45.6	3.19
	세종	(114)	28.3	24.7	47.0	3.18
	경기	(4404)	29.8	17.3	52.9	3.14
	강원	(526)	34.9	22.6	42.5	2.84
	충북	(540)	26.7	26.9	46.4	3.12
	충남	(711)	24.1	24.5	51.3	3.23
	전북	(602)	23.9	26.8	49.3	3.19
	전남	(627)	32.0	21.6	46.4	3.01
	경북	(894)	38.4	28.6	33.0	2.87
	경남	(1116)	17.3	12.7	70.1	3.45
제주	(224)	20.9	31.6	47.5	3.14	
학력	중졸 이하	(2863)	29.8	21.7	48.5	3.09
	고졸	(5401)	31.3	18.0	50.7	3.10
	대재 이상	(9093)	28.9	18.1	52.9	3.15
직업유무	있다	(11617)	30.0	18.2	51.8	3.12
	없다	(5740)	29.4	19.6	51.0	3.13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29.5	18.9	51.6	3.13
	200만원 미만	(4187)	31.9	20.4	47.7	3.06
	200~300만원 미만	(4397)	28.5	18.3	53.2	3.16
	300~400만원 미만	(2925)	29.1	17.3	53.6	3.15
	400만원 이상	(1697)	30.2	17.1	52.7	3.14
혼인상태	미혼	(5170)	28.9	18.8	52.3	3.13
	기혼	(10451)	30.2	18.3	51.5	3.12
	사별/이혼/별거	(1736)	30.0	20.5	49.6	3.12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31.3	21.4	47.2	3.05
	비해당	(16899)	29.8	18.6	51.6	3.13
가구원수	1인	(1936)	29.6	19.7	50.7	3.12
	2인 이상	(15421)	29.9	18.5	51.6	3.12

‘비정규직 종사자와 정규직 종사자는 능력에 차이가 없다’ 항목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22] 비정규직 종사자와 정규직 종사자는 능력에 차이가 없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29.8	18.7	51.5	3.12
전반적 행복감	0~4	(1092)	40.7	23.8	35.5	2.84
	5	(2821)	33.5	23.7	42.8	3.01
	6~10	(13443)	28.2	17.2	54.7	3.17
어제 행복감	0~4	(1351)	40.2	21.4	38.4	2.88
	5	(2983)	33.5	23.9	42.6	3.00
	6~10	(13023)	27.9	17.2	54.9	3.18
어제 미소/웃음	0~4	(1760)	41.1	19.6	39.3	2.88
	5	(3349)	32.3	23.5	44.2	3.03
	6~10	(12248)	27.5	17.2	55.3	3.18
사다리 위치	0~4	(2070)	38.9	20.8	40.3	2.89
	5	(3173)	31.6	21.1	47.4	3.07
	6~10	(12114)	27.8	17.7	54.5	3.18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43.6	22.1	34.3	2.80
	5	(3484)	32.6	24.6	42.7	3.02
	6~10	(12301)	27.3	16.5	56.2	3.19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39.5	21.3	39.1	2.90
	5	(2762)	32.1	24.1	43.8	3.03
	6~10	(13399)	28.5	17.3	54.2	3.16

## 12 여가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일하는 것이 우선이다

### 가. 전체 분석

‘여가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일하는 것이 우선이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은 결과 59.0%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23.2%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 정도 평균은 3.29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여가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일하는 것이 우선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29점)와 여자(3.28점)가 비슷했으며, 연령별로는 50대(3.33점)가 가장 높고, 15~19세(3.18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3.64점), 인천(3.49점), 충남(3.48점) 순으로 높고, 강원(2.62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직업 없음(3.25점), 개인소득 없음(3.24점), 기초생활수급가구(3.12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여가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일하는 것이 우선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23] 여가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일하는 것이 우선이다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전체		(17357)	23.2	17.8	59.0	3.28
성별	남자	(8615)	23.0	17.6	59.4	3.29
	여자	(8742)	23.3	18.1	58.6	3.28
연령별	15~19	(871)	26.7	19.2	54.1	3.18
	20대	(2550)	26.4	16.9	56.7	3.21
	30대	(2576)	24.7	17.8	57.6	3.24
	40대	(3123)	22.0	17.8	60.2	3.31
	50대	(3304)	21.1	17.7	61.2	3.33
	60대 이상	(4933)	22.2	18.3	59.6	3.31
지역별	서울	(3301)	22.1	13.1	64.8	3.36
	부산	(1155)	19.3	13.3	67.4	3.41
	대구	(800)	23.5	19.6	56.9	3.31
	인천	(996)	16.8	11.7	71.4	3.49
	광주	(483)	38.5	16.0	45.5	2.83
	대전	(490)	19.3	28.4	52.4	3.26
	울산	(375)	9.7	33.8	56.5	3.43
	세종	(114)	5.4	24.8	69.8	3.64
	경기	(4404)	24.1	18.4	57.5	3.26
	강원	(526)	45.8	18.3	35.9	2.62
	충북	(540)	26.2	23.9	49.9	3.16
	충남	(711)	15.2	18.6	66.2	3.48
	전북	(602)	25.5	23.4	51.1	3.19
	전남	(627)	19.9	23.0	57.1	3.32
	경북	(894)	30.2	24.0	45.8	3.11
	경남	(1116)	22.7	11.3	66.0	3.35
제주	(224)	16.8	31.5	51.7	3.28	
학력	중졸 이하	(2863)	22.9	20.9	56.2	3.27
	고졸	(5401)	21.7	17.4	60.9	3.32
	대재 이상	(9093)	24.1	17.1	58.8	3.27
직업유무	있다	(11617)	22.5	17.5	60.0	3.30
	없다	(5740)	24.4	18.6	57.0	3.25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24.4	18.1	57.4	3.24
	200만원 미만	(4187)	24.0	19.8	56.2	3.25
	200~300만원 미만	(4397)	23.2	17.8	59.0	3.29
	300~400만원 미만	(2925)	22.0	16.6	61.4	3.32
	400만원 이상	(1697)	19.7	14.5	65.8	3.39
혼인상태	미혼	(5170)	26.0	17.4	56.6	3.22
	기혼	(10451)	22.0	17.7	60.3	3.31
	사별/이혼/별거	(1736)	21.4	20.0	58.6	3.31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27.1	23.7	49.2	3.12
	비해당	(16899)	23.0	17.7	59.3	3.29
가구원수	1인	(1936)	21.9	19.1	59.0	3.31
	2인 이상	(15421)	23.3	17.7	59.0	3.28

‘여가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일하는 것이 우선이다’ 항목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24] 여가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일하는 것이 우선이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23.2	17.8	59.0	3.28
전반적 행복감	0~4	(1092)	35.7	21.8	42.5	2.98
	5	(2821)	26.9	23.9	49.3	3.16
	6~10	(13443)	21.4	16.2	62.4	3.33
어제 행복감	0~4	(1351)	36.9	19.8	43.3	2.98
	5	(2983)	26.7	24.3	49.0	3.15
	6~10	(13023)	20.9	16.1	62.9	3.35
어제 미소/웃음	0~4	(1760)	35.8	18.3	45.9	3.03
	5	(3349)	26.1	22.6	51.3	3.18
	6~10	(12248)	20.5	16.5	63.0	3.35
사다리 위치	0~4	(2070)	31.9	18.3	49.8	3.11
	5	(3173)	24.1	22.1	53.8	3.23
	6~10	(12114)	21.4	16.6	61.9	3.33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34.9	18.6	46.5	3.03
	5	(3484)	26.2	23.1	50.8	3.18
	6~10	(12301)	20.8	16.3	62.9	3.35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33.6	18.5	47.9	3.07
	5	(2762)	26.3	22.8	50.8	3.18
	6~10	(13399)	21.6	16.8	61.7	3.32

## 13 일을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 가. 전체 분석

‘일을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은 결과 61.3%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21.1%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 정도 평균은 3.32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일을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32점)와 여자(3.31점)가 비슷했으며, 연령별로는 50대(3.35점)가 가장 높고, 15~19세(3.24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충남(3.57점), 세종(3.52점), 인천(3.50점) 순으로 높고, 강원(2.66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3.28점), 직업 없음(3.25점), 개인소득 없음(3.27점), 기초생활수급가구(3.17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일을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25] 일을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전체		(17357)	21.1	17.6	61.3	3.32
성별	남자	(8615)	20.7	17.7	61.6	3.32
	여자	(8742)	21.5	17.5	61.0	3.31
연령별	15~19	(871)	24.8	18.4	56.9	3.24
	20대	(2550)	24.0	17.1	58.9	3.26
	30대	(2576)	20.6	17.7	61.8	3.33
	40대	(3123)	20.1	18.2	61.7	3.33
	50대	(3304)	20.1	16.7	63.1	3.35
	60대 이상	(4933)	20.5	17.8	61.6	3.33
지역별	서울	(3301)	21.2	12.8	65.9	3.36
	부산	(1155)	21.1	12.5	66.4	3.35
	대구	(800)	23.0	17.3	59.7	3.34
	인천	(996)	14.6	13.9	71.5	3.50
	광주	(483)	32.2	21.0	46.8	2.95
	대전	(490)	17.7	21.6	60.7	3.34
	울산	(375)	10.6	30.4	59.1	3.45
	세종	(114)	13.0	22.4	64.6	3.52
	경기	(4404)	22.3	16.5	61.2	3.31
	강원	(526)	42.2	23.2	34.6	2.66
	충북	(540)	24.6	22.9	52.5	3.18
	충남	(711)	9.2	21.1	69.7	3.57
	전북	(602)	21.8	23.7	54.5	3.26
	전남	(627)	16.3	24.0	59.7	3.36
	경북	(894)	22.9	28.2	48.9	3.22
	경남	(1116)	19.1	11.3	69.6	3.43
제주	(224)	18.1	29.1	52.8	3.25	
학력	중졸 이하	(2863)	22.4	19.6	58.1	3.28
	고졸	(5401)	20.7	16.8	62.5	3.34
	대재 이상	(9093)	20.9	17.4	61.6	3.32
직업유무	있다	(11617)	19.9	17.0	63.1	3.35
	없다	(5740)	23.6	18.7	57.7	3.25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23.0	18.7	58.3	3.27
	200만원 미만	(4187)	22.0	18.7	59.3	3.29
	200~300만원 미만	(4397)	20.8	16.9	62.3	3.34
	300~400만원 미만	(2925)	18.9	16.5	64.6	3.37
	400만원 이상	(1697)	18.9	15.6	65.5	3.37
혼인상태	미혼	(5170)	23.4	17.0	59.6	3.28
	기혼	(10451)	19.9	17.8	62.3	3.34
	사별/이혼/별거	(1736)	21.3	17.9	60.8	3.32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26.4	19.4	54.2	3.17
	비해당	(16899)	21.0	17.5	61.5	3.32
가구원수	1인	(1936)	22.1	17.1	60.8	3.30
	2인 이상	(15421)	21.0	17.6	61.4	3.32

‘일을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항목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26] 일을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21.1	17.6	61.3	3.32
전반적 행복감	0~4	(1092)	35.4	21.9	42.7	2.98
	5	(2821)	23.7	24.1	52.2	3.22
	6~10	(13443)	19.4	15.9	64.7	3.37
어제 행복감	0~4	(1351)	34.8	22.4	42.8	3.00
	5	(2983)	24.0	25.0	51.0	3.20
	6~10	(13023)	19.0	15.4	65.6	3.38
어제 미소/웃음	0~4	(1760)	33.1	20.8	46.1	3.06
	5	(3349)	23.3	23.2	53.4	3.23
	6~10	(12248)	18.8	15.6	65.7	3.38
사다리 위치	0~4	(2070)	28.8	21.4	49.7	3.14
	5	(3173)	22.1	22.3	55.6	3.27
	6~10	(12114)	19.5	15.7	64.8	3.36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29.9	21.1	49.0	3.11
	5	(3484)	23.1	23.4	53.5	3.23
	6~10	(12301)	19.4	15.5	65.1	3.37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32.8	19.3	47.9	3.07
	5	(2762)	22.4	25.1	52.5	3.23
	6~10	(13399)	19.8	15.9	64.3	3.36

## 14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도시 개발보다 중요하다

### 가. 전체 분석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도시 개발보다 중요하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은 결과 61.7%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22.1%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 정도 평균은 3.30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도시 개발보다 중요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30점)와 여자(3.30점)가 같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3.34점)가 가장 높고, 15~19세(3.23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3.67점), 인천(3.47점), 울산(3.47점) 순으로 높고, 광주(2.58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직업 없음(3.27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3.22점), 사별/이혼/별거(3.26점), 기초생활수급가구(3.01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도시 개발보다 중요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27]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도시 개발보다 중요하다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전체		(17357)	22.1	16.2	61.7	3.30
성별	남자	(8615)	22.3	16.1	61.6	3.30
	여자	(8742)	22.0	16.2	61.8	3.30
연령별	15~19	(871)	25.9	15.3	58.7	3.23
	20대	(2550)	21.6	16.5	61.8	3.30
	30대	(2576)	21.6	17.3	61.1	3.30
	40대	(3123)	20.8	15.2	64.0	3.34
	50대	(3304)	21.8	16.1	62.1	3.31
	60대 이상	(4933)	23.0	16.3	60.7	3.28
지역별	서울	(3301)	22.4	14.4	63.2	3.33
	부산	(1155)	23.6	10.0	66.4	3.29
	대구	(800)	23.6	17.8	58.6	3.32
	인천	(996)	16.6	12.1	71.3	3.47
	광주	(483)	44.4	18.1	37.5	2.58
	대전	(490)	18.1	22.1	59.8	3.31
	울산	(375)	12.3	22.9	64.8	3.47
	세종	(114)	7.0	17.6	75.3	3.67
	경기	(4404)	20.6	14.8	64.6	3.36
	강원	(526)	23.8	22.7	53.5	3.17
	충북	(540)	23.2	26.3	50.5	3.14
	충남	(711)	19.3	14.9	65.8	3.40
	전북	(602)	18.8	19.4	61.7	3.35
	전남	(627)	21.9	17.9	60.2	3.22
	경북	(894)	28.9	25.0	46.1	3.09
	경남	(1116)	21.1	12.3	66.7	3.35
제주	(224)	35.0	18.9	46.2	2.81	
학력	중졸 이하	(2863)	25.0	17.1	57.9	3.22
	고졸	(5401)	21.8	16.2	62.0	3.31
	대재 이상	(9093)	21.5	15.9	62.7	3.31
직업유무	있다	(11617)	21.7	16.0	62.3	3.31
	없다	(5740)	23.0	16.6	60.4	3.27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22.6	16.3	61.2	3.28
	200만원 미만	(4187)	24.6	17.6	57.8	3.22
	200~300만원 미만	(4397)	21.6	15.7	62.7	3.32
	300~400만원 미만	(2925)	19.9	15.9	64.1	3.36
	400만원 이상	(1697)	20.2	14.2	65.6	3.36
혼인상태	미혼	(5170)	22.3	16.2	61.5	3.29
	기혼	(10451)	21.9	16.0	62.2	3.31
	사별/이혼/별거	(1736)	23.2	17.5	59.3	3.26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30.9	19.0	50.0	3.01
	비해당	(16899)	21.9	16.1	62.0	3.31
가구원수	1인	(1936)	22.6	16.0	61.4	3.29
	2인 이상	(15421)	22.1	16.2	61.7	3.30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도시 개발보다 중요하다’ 항목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28]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도시 개발보다 중요하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22.1	16.2	61.7	3.30
전반적 행복감	0~4	(1092)	32.3	20.6	47.2	3.04
	5	(2821)	25.5	21.2	53.3	3.19
	6~10	(13443)	20.6	14.8	64.6	3.34
어제 행복감	0~4	(1351)	32.7	18.3	49.0	3.06
	5	(2983)	25.7	21.8	52.5	3.18
	6~10	(13023)	20.2	14.7	65.1	3.35
어제 미소/웃음	0~4	(1760)	33.8	18.2	48.0	3.03
	5	(3349)	24.5	20.6	55.0	3.22
	6~10	(12248)	19.8	14.7	65.5	3.36
사다리 위치	0~4	(2070)	29.8	18.9	51.3	3.11
	5	(3173)	22.6	20.1	57.3	3.27
	6~10	(12114)	20.7	14.7	64.6	3.34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34.7	18.0	47.3	3.01
	5	(3484)	24.8	21.3	53.8	3.21
	6~10	(12301)	19.8	14.5	65.7	3.36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32.1	18.3	49.6	3.07
	5	(2762)	23.1	21.6	55.4	3.25
	6~10	(13399)	21.1	14.9	64.1	3.33

## 15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더라도 환경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 가. 전체 분석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더라도 환경보호를 우선해야 한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은 결과 59.8%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22.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 정도 평균은 3.29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더라도 환경보호를 우선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28점)와 여자(3.29점)가 같았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3.31점)가 가장 높고, 20대(3.25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3.69점), 충남(3.65점), 인천(3.41점) 순으로 높고, 광주(2.62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3.26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3.24점), 기초생활수급가구(3.16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더라도 환경보호를 우선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29]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더라도 환경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전체		(17357)	22.5	17.7	59.8	3.29
성별	남자	(8615)	22.7	17.4	59.9	3.28
	여자	(8742)	22.3	18.1	59.6	3.29
연령별	15~19	(871)	22.5	15.5	62.1	3.31
	20대	(2550)	23.8	18.2	58.1	3.25
	30대	(2576)	21.9	19.0	59.1	3.28
	40대	(3123)	22.7	15.8	61.5	3.29
	50대	(3304)	22.1	17.4	60.5	3.30
	60대 이상	(4933)	22.4	18.7	58.9	3.29
지역별	서울	(3301)	23.5	14.7	61.8	3.31
	부산	(1155)	27.9	9.3	62.8	3.21
	대구	(800)	21.2	18.9	60.0	3.37
	인천	(996)	18.8	14.5	66.8	3.41
	광주	(483)	44.2	25.9	29.8	2.62
	대전	(490)	16.4	26.3	57.3	3.32
	울산	(375)	16.0	25.8	58.1	3.34
	세종	(114)	9.3	11.6	79.1	3.69
	경기	(4404)	20.5	17.3	62.3	3.35
	강원	(526)	25.2	25.1	49.8	3.12
	충북	(540)	25.8	28.2	46.0	3.10
	충남	(711)	8.6	13.5	77.9	3.65
	전북	(602)	19.2	26.2	54.6	3.30
	전남	(627)	23.8	18.1	58.2	3.21
	경북	(894)	27.7	26.5	45.8	3.10
	경남	(1116)	25.9	10.8	63.3	3.27
제주	(224)	23.9	25.5	50.6	3.10	
학력	중졸 이하	(2863)	23.4	18.9	57.7	3.26
	고졸	(5401)	21.6	18.4	60.0	3.31
	대재 이상	(9093)	22.8	17.0	60.3	3.28
직업유무	있다	(11617)	22.4	17.5	60.1	3.29
	없다	(5740)	22.8	18.1	59.1	3.28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22.9	17.9	59.2	3.28
	200만원 미만	(4187)	23.9	19.0	57.2	3.24
	200~300만원 미만	(4397)	22.7	17.9	59.4	3.28
	300~400만원 미만	(2925)	20.6	16.2	63.2	3.34
	400만원 이상	(1697)	20.9	16.6	62.5	3.34
혼인상태	미혼	(5170)	23.0	17.9	59.1	3.27
	기혼	(10451)	22.3	17.2	60.5	3.29
	사별/이혼/별거	(1736)	22.2	20.2	57.6	3.28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24.1	26.8	49.0	3.16
	비해당	(16899)	22.5	17.5	60.0	3.29
가구원수	1인	(1936)	23.0	18.2	58.7	3.28
	2인 이상	(15421)	22.5	17.7	59.9	3.29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더라도 환경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항목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30]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더라도 환경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22.5	17.7	59.8	3.29
전반적 행복감	0~4	(1092)	32.8	23.4	43.8	3.01
	5	(2821)	23.5	23.7	52.9	3.22
	6~10	(13443)	21.5	16.0	62.5	3.32
어제 행복감	0~4	(1351)	33.6	20.9	45.5	3.02
	5	(2983)	23.8	24.7	51.5	3.20
	6~10	(13023)	21.1	15.8	63.1	3.33
어제 미소/웃음	0~4	(1760)	33.1	21.3	45.6	3.02
	5	(3349)	24.7	22.4	52.9	3.21
	6~10	(12248)	20.4	15.9	63.7	3.35
사다리 위치	0~4	(2070)	29.6	23.3	47.1	3.09
	5	(3173)	21.9	22.6	55.6	3.27
	6~10	(12114)	21.5	15.5	63.0	3.32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33.0	19.8	47.2	3.04
	5	(3484)	22.6	23.9	53.5	3.24
	6~10	(12301)	21.2	15.7	63.1	3.33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31.0	23.3	45.7	3.06
	5	(2762)	22.3	24.6	53.0	3.24
	6~10	(13399)	21.8	15.8	62.4	3.32

## 16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더욱 안락하고, 편리하게 할 것이다

### 가. 전체 분석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더욱 안락하고, 편리하게 할 것이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67.2%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19.4%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 정도 평균은 3.35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더욱 안락하고, 편리하게 할 것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35점)와 여자(3.36점)가 비슷했으며, 연령별로는 30대(3.40점)가 가장 높고, 15~19세(3.29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3.86점), 충남(3.65점), 경남(3.53점) 순으로 높고, 경북(2.94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3.30점), 직업 없음(3.32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3.30점), 기초생활수급가구(3.04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더욱 안락하고, 편리하게 할 것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31]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더욱 안락하고, 편리하게 할 것이다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전체		(17357)	19.4	13.4	67.2	3.35
성별	남자	(8615)	19.6	13.0	67.4	3.35
	여자	(8742)	19.2	13.9	66.9	3.36
연령별	15~19	(871)	22.8	10.1	67.1	3.29
	20대	(2550)	19.8	13.9	66.3	3.32
	30대	(2576)	17.4	12.5	70.1	3.40
	40대	(3123)	19.2	13.7	67.0	3.35
	50대	(3304)	18.8	13.4	67.8	3.37
	60대 이상	(4933)	20.0	14.2	65.8	3.35
지역별	서울	(3301)	20.7	10.2	69.1	3.32
	부산	(1155)	18.7	7.1	74.2	3.42
	대구	(800)	14.9	19.9	65.1	3.47
	인천	(996)	14.0	10.4	75.7	3.52
	광주	(483)	31.7	16.0	52.3	2.96
	대전	(490)	20.7	20.4	59.0	3.29
	울산	(375)	11.7	23.4	64.9	3.46
	세종	(114)	3.0	7.7	89.4	3.86
	경기	(4404)	18.2	12.0	69.8	3.42
	강원	(526)	27.4	15.2	57.3	3.09
	충북	(540)	24.2	24.0	51.8	3.14
	충남	(711)	9.5	10.3	80.1	3.65
	전북	(602)	20.2	20.8	59.0	3.31
	전남	(627)	25.7	11.8	62.5	3.16
	경북	(894)	30.6	24.2	45.2	2.94
	경남	(1116)	14.2	8.5	77.3	3.53
제주	(224)	21.2	25.9	52.9	3.15	
학력	중졸 이하	(2863)	19.8	13.0	67.2	3.33
	고졸	(5401)	19.1	13.1	67.8	3.37
	대재 이상	(9093)	20.0	16.9	63.1	3.33
직업유무	있다	(11617)	18.8	13.2	68.0	3.37
	없다	(5740)	20.6	13.9	65.4	3.32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9.9	13.3	66.8	3.34
	200만원 미만	(4187)	21.3	14.6	64.1	3.30
	200~300만원 미만	(4397)	18.6	14.2	67.2	3.37
	300~400만원 미만	(2925)	17.1	12.2	70.8	3.42
	400만원 이상	(1697)	19.2	11.4	69.5	3.36
혼인상태	미혼	(5170)	19.8	13.0	67.2	3.33
	기혼	(10451)	19.1	13.1	67.8	3.37
	사별/이혼/별거	(1736)	20.0	16.9	63.1	3.33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29.3	19.0	51.7	3.04
	비해당	(16899)	19.1	13.3	67.6	3.36
가구원수	1인	(1936)	18.4	14.3	67.3	3.38
	2인 이상	(15421)	19.5	13.3	67.1	3.35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더욱 안락하고, 편리하게 할 것이다’ 항목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32]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더욱 안락하고, 편리하게 할 것이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19.4	13.4	67.2	3.35
전반적 행복감	0~4	(1092)	31.8	16.8	51.4	3.08
	5	(2821)	22.3	19.6	58.1	3.23
	6~10	(13443)	17.8	11.9	70.3	3.40
어제 행복감	0~4	(1351)	28.2	18.4	53.4	3.13
	5	(2983)	23.1	18.1	58.9	3.23
	6~10	(13023)	17.6	11.9	70.5	3.40
어제 미소/웃음	0~4	(1760)	27.5	16.1	56.3	3.17
	5	(3349)	21.5	17.3	61.2	3.27
	6~10	(12248)	17.6	12.0	70.4	3.40
사다리 위치	0~4	(2070)	29.8	15.7	54.5	3.09
	5	(3173)	20.1	16.2	63.7	3.32
	6~10	(12114)	17.4	12.3	70.2	3.41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28.3	17.4	54.3	3.12
	5	(3484)	20.5	17.0	62.5	3.31
	6~10	(12301)	17.9	11.9	70.1	3.40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30.8	15.5	53.7	3.10
	5	(2762)	22.1	18.6	59.3	3.25
	6~10	(13399)	17.8	12.2	70.0	3.40

## 17 과학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너무 빨리 변화시킨다

### 가. 전체 분석

‘과학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너무 빨리 변화시킨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은 결과 65.7%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23.6%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 정도 평균은 3.25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과학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너무 빨리 변화시킨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25점)와 여자(3.24점)가 비슷했으며, 연령별로는 30대(3.29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3.22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3.84점), 충남(3.64점), 울산(3.55점) 순으로 높고, 경북(2.69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3.20점), 직업 없음(3.21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3.18점), 기초생활수급가구(2.91점), 1인 가구(3.21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과학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너무 빨리 변화시킨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33] 과학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너무 빨리 변화시킨다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전체		(17357)	23.6	10.6	65.7	3.25
성별	남자	(8615)	23.5	10.1	66.4	3.25
	여자	(8742)	23.8	11.1	65.1	3.24
연령별	15~19	(871)	24.0	8.7	67.3	3.24
	20대	(2550)	23.4	10.2	66.4	3.25
	30대	(2576)	22.6	9.0	68.4	3.29
	40대	(3123)	23.0	10.2	66.7	3.26
	50대	(3304)	24.1	10.6	65.2	3.24
	60대 이상	(4933)	24.3	12.2	63.5	3.22
지역별	서울	(3301)	26.6	7.7	65.7	3.18
	부산	(1155)	24.2	6.8	69.0	3.26
	대구	(800)	14.7	11.1	74.2	3.54
	인천	(996)	16.4	9.3	74.3	3.46
	광주	(483)	35.0	12.2	52.8	2.87
	대전	(490)	31.8	15.7	52.4	2.97
	울산	(375)	13.1	10.7	76.3	3.55
	세종	(114)	6.2	3.5	90.3	3.84
	경기	(4404)	21.5	11.2	67.3	3.32
	강원	(526)	30.3	15.2	54.5	2.98
	충북	(540)	29.7	19.0	51.3	3.03
	충남	(711)	9.0	12.9	78.1	3.64
	전북	(602)	20.3	13.9	65.8	3.35
	전남	(627)	31.2	13.0	55.8	2.96
	경북	(894)	42.1	12.3	45.6	2.69
	경남	(1116)	17.8	5.2	77.0	3.44
제주	(224)	26.4	20.9	52.7	3.04	
학력	중졸 이하	(2863)	25.2	11.4	63.4	3.20
	고졸	(5401)	22.8	11.3	65.9	3.27
	대재 이상	(9093)	23.6	10.0	66.4	3.25
직업유무	있다	(11617)	23.0	10.4	66.5	3.26
	없다	(5740)	24.9	11.0	64.1	3.21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24.5	10.8	64.6	3.22
	200만원 미만	(4187)	25.7	11.2	63.1	3.18
	200~300만원 미만	(4397)	22.6	11.0	66.4	3.28
	300~400만원 미만	(2925)	20.5	9.8	69.7	3.34
	400만원 이상	(1697)	24.3	9.2	66.5	3.23
혼인상태	미혼	(5170)	23.4	9.8	66.8	3.26
	기혼	(10451)	23.5	10.8	65.7	3.25
	사별/이혼/별거	(1736)	25.4	12.0	62.6	3.20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35.5	13.5	51.0	2.91
	비해당	(16899)	23.3	10.5	66.2	3.25
가구원수	1인	(1936)	25.0	11.1	63.9	3.21
	2인 이상	(15421)	23.5	10.6	66.0	3.25

‘과학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너무 빨리 변화시킨다’ 항목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34] 과학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너무 빨리 변화시킨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23.6	10.6	65.7	3.25
전반적 행복감	0~4	(1092)	31.8	15.0	53.2	3.03
	5	(2821)	26.1	13.3	60.6	3.16
	6~10	(13443)	22.5	9.7	67.8	3.28
어제 행복감	0~4	(1351)	30.3	13.3	56.4	3.08
	5	(2983)	27.0	13.9	59.1	3.13
	6~10	(13023)	22.2	9.6	68.2	3.29
어제 미소/웃음	0~4	(1760)	32.2	11.5	56.2	3.04
	5	(3349)	26.2	13.0	60.8	3.15
	6~10	(12248)	21.7	9.8	68.5	3.30
사다리 위치	0~4	(2070)	32.2	12.8	55.0	3.01
	5	(3173)	25.4	13.0	61.6	3.18
	6~10	(12114)	21.7	9.6	68.7	3.30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29.8	11.6	58.6	3.10
	5	(3484)	24.6	14.9	60.5	3.19
	6~10	(12301)	22.6	9.3	68.1	3.28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34.6	11.4	54.1	2.99
	5	(2762)	26.5	15.2	58.3	3.14
	6~10	(13399)	22.1	9.6	68.3	3.29

## 18 과학기술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 가. 전체 분석

‘과학기술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은 결과 65.1%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20.8%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 정도 평균은 3.32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과학기술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33점)와 여자(3.32점)가 비슷했으며, 연령별로는 50대(3.36점)가 가장 높고, 15~19세(3.28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3.66점), 충남(3.59점), 울산(3.57점) 순으로 높고, 경북(2.89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3.30점), 직업 없음(3.30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3.28점), 기초생활수급가구(3.05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과학기술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35] 과학기술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전체		(17357)	20.8	14.0	65.1	3.32
성별	남자	(8615)	20.7	13.7	65.6	3.33
	여자	(8742)	20.9	14.4	64.7	3.32
연령별	15~19	(871)	22.4	13.5	64.1	3.28
	20대	(2550)	20.9	14.6	64.6	3.31
	30대	(2576)	20.5	14.3	65.3	3.32
	40대	(3123)	21.2	13.2	65.6	3.31
	50대	(3304)	19.7	13.3	67.0	3.36
	60대 이상	(4933)	21.1	14.8	64.1	3.32
지역별	서울	(3301)	22.2	11.5	66.3	3.30
	부산	(1155)	19.8	8.8	71.4	3.38
	대구	(800)	24.9	19.4	55.7	3.27
	인천	(996)	13.3	9.3	77.4	3.55
	광주	(483)	33.6	22.9	43.6	2.90
	대전	(490)	22.6	17.1	60.4	3.23
	울산	(375)	13.2	10.6	76.3	3.57
	세종	(114)	8.3	11.6	80.0	3.66
	경기	(4404)	18.6	13.6	67.8	3.38
	강원	(526)	31.2	16.1	52.7	2.97
	충북	(540)	22.9	23.4	53.8	3.22
	충남	(711)	10.4	14.3	75.3	3.59
	전북	(602)	21.8	20.7	57.5	3.27
	전남	(627)	18.1	16.6	65.4	3.35
	경북	(894)	35.0	20.8	44.2	2.89
	경남	(1116)	16.8	8.3	74.9	3.47
제주	(224)	26.7	19.5	53.8	3.07	
학력	중졸 이하	(2863)	20.9	16.6	62.5	3.30
	고졸	(5401)	20.1	14.0	66.0	3.36
	대재 이상	(9093)	21.2	13.3	65.5	3.31
직업유무	있다	(11617)	20.5	13.9	65.5	3.33
	없다	(5740)	21.4	14.3	64.4	3.30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21.2	13.9	64.9	3.31
	200만원 미만	(4187)	21.9	15.2	62.9	3.28
	200~300만원 미만	(4397)	20.2	14.2	65.6	3.35
	300~400만원 미만	(2925)	19.6	13.3	67.1	3.36
	400만원 이상	(1697)	21.0	12.2	66.8	3.31
혼인상태	미혼	(5170)	20.9	14.3	64.8	3.31
	기혼	(10451)	20.5	13.7	65.8	3.34
	사별/이혼/별거	(1736)	22.5	15.1	62.4	3.28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27.8	20.6	51.5	3.05
	비해당	(16899)	20.6	13.9	65.5	3.33
가구원수	1인	(1936)	20.2	15.0	64.8	3.34
	2인 이상	(15421)	20.9	13.9	65.2	3.32

‘과학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너무 빨리 변화시킨다’ 항목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36] 과학기술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20.8	14.0	65.1	3.32
전반적 행복감	0~4	(1092)	29.2	18.7	52.2	3.07
	5	(2821)	23.7	17.5	58.8	3.21
	6~10	(13443)	19.5	12.9	67.5	3.37
어제 행복감	0~4	(1351)	27.5	15.9	56.7	3.14
	5	(2983)	24.7	18.5	56.8	3.19
	6~10	(13023)	19.2	12.8	67.9	3.37
어제 미소/웃음	0~4	(1760)	27.4	17.8	54.8	3.13
	5	(3349)	24.6	17.0	58.4	3.21
	6~10	(12248)	18.8	12.7	68.5	3.38
사다리 위치	0~4	(2070)	28.2	14.4	57.4	3.14
	5	(3173)	20.8	16.8	62.4	3.31
	6~10	(12114)	19.5	13.3	67.2	3.36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30.8	15.5	53.7	3.05
	5	(3484)	23.3	17.0	59.7	3.24
	6~10	(12301)	18.8	13.0	68.2	3.38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28.1	15.6	56.3	3.14
	5	(2762)	24.1	17.5	58.4	3.21
	6~10	(13399)	19.5	13.2	67.3	3.36

## 19 로봇이 일상적으로 쓰이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 가. 전체 분석

‘로봇이 일상적으로 쓰이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79.1%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8.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 정도 평균은 3.85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로봇이 일상적으로 쓰이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86점)가 여자(3.84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3.88점)가 가장 높고, 50대(3.83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광주(4.11점), 부산(4.00점), 강원(3.96점) 순으로 높았고, 전북(3.53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고졸(3.83점), 사별/이혼/별거(3.82점), 기초생활수급가구(3.83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로봇이 일상적으로 쓰이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37] 로봇이 일상적으로 쓰이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다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전체		(17357)	8.5	12.4	79.1	3.85
성별	남자	(8615)	8.5	11.8	79.7	3.86
	여자	(8742)	8.5	13.0	78.5	3.84
연령별	15~19	(871)	8.3	10.0	81.6	3.88
	20대	(2550)	7.9	12.5	79.6	3.85
	30대	(2576)	8.7	12.9	78.4	3.84
	40대	(3123)	7.7	12.9	79.4	3.86
	50대	(3304)	9.3	11.7	79.0	3.83
	60대 이상	(4933)	8.7	12.7	78.6	3.85
지역별	서울	(3301)	7.8	8.8	83.4	3.91
	부산	(1155)	4.8	7.9	87.3	4.00
	대구	(800)	14.2	20.3	65.5	3.56
	인천	(996)	5.0	9.9	85.2	3.91
	광주	(483)	5.1	11.1	83.8	4.11
	대전	(490)	7.5	13.4	79.1	3.89
	울산	(375)	4.3	20.9	74.8	3.80
	세종	(114)	1.7	13.9	84.4	3.93
	경기	(4404)	10.0	12.5	77.5	3.79
	강원	(526)	7.3	13.7	79.0	3.96
	충북	(540)	13.7	18.6	67.6	3.70
	충남	(711)	4.4	10.2	85.4	3.89
	전북	(602)	20.0	18.3	61.7	3.53
	전남	(627)	6.5	13.8	79.6	3.95
	경북	(894)	12.2	16.4	71.4	3.82
	경남	(1116)	4.6	9.8	85.6	3.92
제주	(224)	5.4	23.9	70.7	3.78	
학력	중졸 이하	(2863)	8.6	13.8	77.6	3.85
	고졸	(5401)	8.9	11.8	79.2	3.83
	대재 이상	(9093)	8.2	12.3	79.5	3.86
직업유무	있다	(11617)	8.5	12.2	79.3	3.85
	없다	(5740)	8.4	12.9	78.7	3.85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8.1	12.2	79.7	3.85
	200만원 미만	(4187)	8.4	13.0	78.6	3.87
	200~300만원 미만	(4397)	8.8	12.6	78.6	3.83
	300~400만원 미만	(2925)	8.6	12.4	79.0	3.83
	400만원 이상	(1697)	8.5	11.1	80.4	3.87
혼인상태	미혼	(5170)	7.9	12.0	80.1	3.86
	기혼	(10451)	8.5	12.3	79.2	3.85
	사별/이혼/별거	(1736)	10.1	14.3	75.7	3.82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9.6	17.1	73.3	3.83
	비해당	(16899)	8.5	12.3	79.2	3.85
가구원수	1인	(1936)	9.8	12.9	77.4	3.82
	2인 이상	(15421)	8.3	12.4	79.3	3.85

‘로봇이 일상적으로 쓰이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항목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38] 로봇이 일상적으로 쓰이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8.5	12.4	79.1	3.85
전반적 행복감	0~4	(1092)	17.1	14.1	68.7	3.65
	5	(2821)	10.0	15.2	74.8	3.80
	6~10	(13443)	7.5	11.7	80.8	3.87
어제 행복감	0~4	(1351)	15.8	12.8	71.4	3.67
	5	(2983)	9.1	15.7	75.2	3.83
	6~10	(13023)	7.6	11.6	80.8	3.87
어제 미소/웃음	0~4	(1760)	14.5	13.0	72.5	3.73
	5	(3349)	9.4	14.9	75.6	3.82
	6~10	(12248)	7.4	11.7	81.0	3.87
사다리 위치	0~4	(2070)	13.0	13.4	73.6	3.78
	5	(3173)	9.6	13.9	76.5	3.80
	6~10	(12114)	7.4	11.9	80.7	3.87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16.0	15.7	68.3	3.65
	5	(3484)	10.5	15.0	74.4	3.78
	6~10	(12301)	6.9	11.3	81.8	3.89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14.3	11.7	74.0	3.77
	5	(2762)	10.2	16.1	73.7	3.78
	6~10	(13399)	7.6	11.7	80.7	3.87

## 20 로봇은 사람이 못하는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므로 매우 필요하다

### 가. 전체 분석

‘로봇은 사람이 못하는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므로 매우 필요하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64.0%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20.9%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 정도 평균은 3.31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로봇은 사람이 못하는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므로 매우 필요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30점)와 여자(3.31점)와 비슷했으며, 연령대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로는 세종(3.76점), 충남(3.60점), 경남(3.53점) 순으로 높고, 강원(2.65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3.29점), 직업 없음(3.28점), 사별/이혼/별거(3.29점), 기초생활수급가구(3.06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로봇이 일상적으로 쓰이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39] 로봇은 사람이 못하는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므로 매우 필요하다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전체		(17357)	20.9	15.2	64.0	3.31
성별	남자	(8615)	20.8	14.9	64.3	3.30
	여자	(8742)	20.9	15.4	63.6	3.31
연령별	15~19	(871)	20.6	12.1	67.3	3.32
	20대	(2550)	20.5	13.5	66.0	3.31
	30대	(2576)	20.0	15.7	64.3	3.31
	40대	(3123)	21.0	14.7	64.3	3.30
	50대	(3304)	20.7	15.1	64.3	3.32
	60대 이상	(4933)	21.6	16.7	61.8	3.29
지역별	서울	(3301)	22.0	9.0	69.1	3.31
	부산	(1155)	19.7	12.0	68.3	3.36
	대구	(800)	17.2	22.0	60.8	3.39
	인천	(996)	18.3	10.2	71.5	3.41
	광주	(483)	31.0	18.6	50.4	2.96
	대전	(490)	20.0	32.6	47.4	3.21
	울산	(375)	12.0	22.1	65.8	3.44
	세종	(114)	5.4	13.0	81.6	3.76
	경기	(4404)	20.2	14.7	65.1	3.34
	강원	(526)	45.5	14.2	40.3	2.65
	충북	(540)	16.6	29.0	54.4	3.30
	충남	(711)	10.4	12.7	76.9	3.60
	전북	(602)	17.3	25.7	57.0	3.36
	전남	(627)	26.1	15.4	58.5	3.11
	경북	(894)	29.4	22.0	48.6	3.06
	경남	(1116)	14.5	9.6	75.9	3.53
제주	(224)	28.6	22.4	49.0	2.99	
학력	중졸 이하	(2863)	21.3	17.4	61.3	3.29
	고졸	(5401)	20.3	15.6	64.2	3.33
	대재 이상	(9093)	21.1	14.2	64.7	3.30
직업유무	있다	(11617)	20.2	15.5	64.3	3.32
	없다	(5740)	22.2	14.5	63.3	3.28

구분		n	Bottom2(%)	Middle(%)	Top2(%)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21.9	13.2	64.9	3.29
	200만원 미만	(4187)	21.8	17.8	60.4	3.27
	200~300만원 미만	(4397)	19.7	16.1	64.2	3.33
	300~400만원 미만	(2925)	19.1	14.1	66.8	3.37
	400만원 이상	(1697)	22.2	12.7	65.1	3.26
혼인상태	미혼	(5170)	20.5	14.1	65.5	3.31
	기혼	(10451)	20.9	15.3	63.8	3.31
	사별/이혼/별거	(1736)	21.4	17.8	60.7	3.29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29.8	20.1	50.1	3.06
	비해당	(16899)	20.6	15.0	64.4	3.31
가구원수	1인	(1936)	22.1	15.9	62.0	3.28
	2인 이상	(15421)	20.7	15.1	64.2	3.31

‘로봇은 사람이 못하는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므로 매우 필요하다’ 항목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40] 로봇은 사람이 못하는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므로 매우 필요하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20.9	15.2	64.0	3.31
전반적 행복감	0~4	(1092)	31.8	17.1	51.0	3.05
	5	(2821)	24.3	19.6	56.1	3.18
	6~10	(13443)	19.2	14.1	66.7	3.35
어제 행복감	0~4	(1351)	30.7	15.7	53.5	3.09
	5	(2983)	24.5	19.9	55.6	3.17
	6~10	(13023)	19.0	14.0	67.0	3.36
어제 미소/웃음	0~4	(1760)	31.1	15.9	53.0	3.06
	5	(3349)	22.6	19.2	58.3	3.22
	6~10	(12248)	18.9	14.0	67.1	3.36
사다리 위치	0~4	(2070)	30.5	17.5	52.0	3.07
	5	(3173)	21.9	18.3	59.8	3.25
	6~10	(12114)	18.9	13.9	67.1	3.36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28.8	15.6	55.6	3.11
	5	(3484)	23.7	19.3	57.0	3.20
	6~10	(12301)	19.0	13.9	67.0	3.36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32.5	15.9	51.5	3.05
	5	(2762)	22.4	21.0	56.6	3.22
	6~10	(13399)	19.5	13.9	66.6	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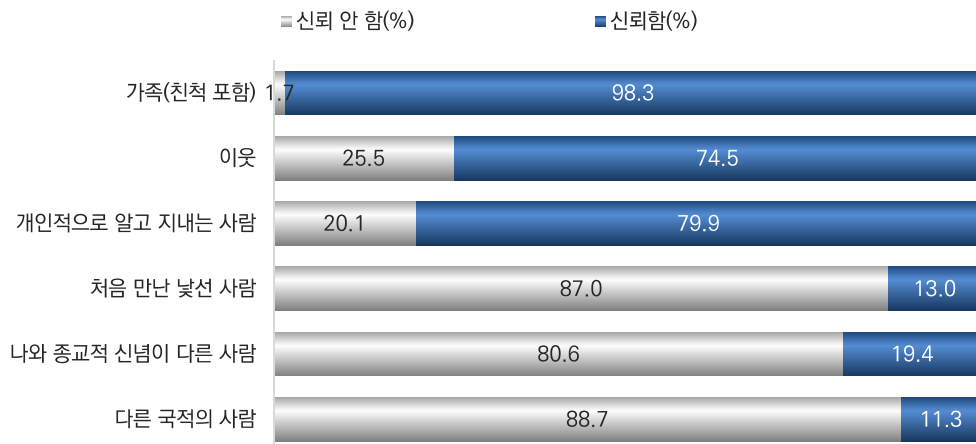
## 제2절 집단 신뢰도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0 종합 분석

6개 집단 각각에 대한 신뢰 정도를 묻은 결과, 신뢰한다는 응답은 ‘가족(친척 포함)’ 98.3%,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 79.9%, ‘이웃’(74.5%), ‘나와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19.4%), ‘처음 만난 낯선 사람’(13.0%), ‘다른 국적의 사람’(1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n=17,357, %)



[그림 5-2] 집단 신뢰도

## 1 가족(친척 포함)

### 가. 전체 분석

‘가족(친척 포함)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물은 결과 98.4%는 (매우+약간)‘신뢰한다’고 응답했고, 1.6%는 (전혀+별로)‘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나. 특성별 분석

가족(친척 포함)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남자(98.4%)와 여자(98.3%)가 비슷했으며, 연령별로는 20/30대(98.6%)가 가장 많고 15~19세(98.2%)가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대구(100.0%), 전남(99.7%), 경남(99.4%) 순으로 높고, 전북(93.0%)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97.9%), 직업 없음(98.1%), 사별/별거/이혼(96.2%), 기초생활수급가구(89.7%), 1인 가구(96.5%)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신뢰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신뢰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1] 집단 신뢰도 - 가족(친척 포함)

구분		n	신뢰 안 함(%)	신뢰함(%)
전체		(17357)	1.7	98.3
성별	남자	(8615)	1.6	98.4
	여자	(8742)	1.7	98.3
연령별	15~19	(871)	1.8	98.2
	20대	(2550)	1.4	98.6
	30대	(2576)	1.4	98.6
	40대	(3123)	2.1	97.9
	50대	(3304)	1.7	98.3
	60대 이상	(4933)	1.7	98.3
지역별	서울	(3301)	1.6	98.4
	부산	(1155)	0.8	99.2
	대구	(800)	0.0	100.0
	인천	(996)	1.6	98.4
	광주	(483)	1.5	98.5
	대전	(490)	0.9	99.1
	울산	(375)	2.0	98.0
	세종	(114)	0.9	99.1
	경기	(4404)	1.7	98.3
	강원	(526)	2.4	97.6
	충북	(540)	2.4	97.6
	충남	(711)	2.2	97.8
	전북	(602)	7.0	93.0
	전남	(627)	0.3	99.7
	경북	(894)	1.6	98.4
	경남	(1116)	0.6	99.4
제주	(224)	4.5	95.5	
학력	중졸 이하	(2863)	2.1	97.9
	고졸	(5401)	1.4	98.6
	대재 이상	(9093)	1.7	98.3
직업유무	있다	(11617)	1.5	98.5
	없다	(5740)	1.9	98.1

구분		n	신뢰 안 함(%)	신뢰함(%)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5	98.5
	200만원 미만	(4187)	2.0	98.0
	200~300만원 미만	(4397)	1.8	98.2
	300~400만원 미만	(2925)	1.6	98.4
	400만원 이상	(1697)	1.0	99.0
혼인상태	미혼	(5170)	1.5	98.5
	기혼	(10451)	1.4	98.6
	사별/이혼/별거	(1736)	3.8	96.2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10.3	89.7
	비해당	(16899)	1.4	98.6
가구원수	1인	(1936)	3.5	96.5
	2인 이상	(15421)	1.4	98.6

‘가족(친척 포함)’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42] 집단 신뢰도 - 가족(친척 포함) : 주관적 인식

구분		n	신뢰 안 함(%)	신뢰함(%)
전체		(17357)	1.7	98.3
전반적 행복감	0~4	(1092)	8.6	91.4
	5	(2821)	2.2	97.8
	6~10	(13443)	1.0	99.0
어제 행복감	0~4	(1351)	6.8	93.2
	5	(2983)	2.4	97.6
	6~10	(13023)	1.0	99.0
어제 미소/웃음	0~4	(1760)	5.3	94.7
	5	(3349)	1.7	98.3
	6~10	(12248)	1.1	98.9
사다리 위치	0~4	(2070)	5.1	94.9
	5	(3173)	1.8	98.2
	6~10	(12114)	1.1	98.9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5.5	94.5
	5	(3484)	1.9	98.1
	6~10	(12301)	1.1	98.9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6.6	93.4
	5	(2762)	2.1	97.9
	6~10	(13399)	1.1	98.9

## 2 이웃

### 가. 전체 분석

‘이웃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묻은 결과 74.5%는 (매우+약간)‘신뢰한다’고 응답했고, 25.5%는 (전혀+별로)‘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나. 특성별 분석

이웃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남자(73.3%)보다 여자(75.7%)가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81.8%)이 가장 높고 20대(65.0%)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97.6%), 전남(88.7%), 충북(86.9%) 순으로 많고, 대구(61.0%)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대재 이상(70.2%), 직업 없음(73.5%), 미혼(65.3%), 기초생활수급가구(60.0%), 1인 가구(72.1%)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신뢰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신뢰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3] 집단 신뢰도 - 이웃

구분		n	신뢰 안 함(%)	신뢰함(%)
전체		(17357)	25.5	74.5
성별	남자	(8615)	26.7	73.3
	여자	(8742)	24.3	75.7
연령별	15~19	(871)	33.7	66.3
	20대	(2550)	35.0	65.0
	30대	(2576)	30.3	69.7
	40대	(3123)	25.6	74.4
	50대	(3304)	23.1	76.9
	60대 이상	(4933)	18.2	81.8
지역별	서울	(3301)	21.7	78.3
	부산	(1155)	26.8	73.2
	대구	(800)	39.0	61.0
	인천	(996)	34.8	65.2
	광주	(483)	36.5	63.5
	대전	(490)	18.5	81.5
	울산	(375)	22.0	78.0
	세종	(114)	2.4	97.6
	경기	(4404)	29.8	70.2
	강원	(526)	20.6	79.4
	충북	(540)	13.1	86.9
	충남	(711)	17.7	82.3
	전북	(602)	32.9	67.1
	전남	(627)	11.3	88.7
	경북	(894)	23.2	76.8
	경남	(1116)	22.7	77.3
	제주	(224)	19.5	80.5
학력	중졸 이하	(2863)	20.4	79.6
	고졸	(5401)	20.9	79.1
	대재 이상	(9093)	29.8	70.2
직업유무	있다	(11617)	25.0	75.0
	없다	(5740)	26.5	73.5

구분		n	신뢰 안 함(%)	신뢰함(%)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26.5	73.5
	200만원 미만	(4187)	22.4	77.6
	200~300만원 미만	(4397)	25.7	74.3
	300~400만원 미만	(2925)	28.4	71.6
	400만원 이상	(1697)	25.0	75.0
혼인상태	미혼	(5170)	34.7	65.3
	기혼	(10451)	21.5	78.5
	사별/이혼/별거	(1736)	22.0	78.0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40.0	60.0
	비해당	(16899)	25.1	74.9
가구원수	1인	(1936)	27.9	72.1
	2인 이상	(15421)	25.2	74.8

‘이웃’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44] 집단 신뢰도 - 이웃 : 주관적 인식**

구분		n	신뢰 안 함(%)	신뢰함(%)
전체		(17357)	25.5	74.5
전반적 행복감	0~4	(1092)	41.0	59.0
	5	(2821)	29.7	70.3
	6~10	(13443)	23.3	76.7
어제 행복감	0~4	(1351)	41.5	58.5
	5	(2983)	28.3	71.7
	6~10	(13023)	23.2	76.8
어제 미소/웃음	0~4	(1760)	40.8	59.2
	5	(3349)	29.2	70.8
	6~10	(12248)	22.3	77.7
사다리 위치	0~4	(2070)	40.5	59.5
	5	(3173)	25.7	74.3
	6~10	(12114)	22.9	77.1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41.3	58.7
	5	(3484)	26.6	73.4
	6~10	(12301)	23.1	76.9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38.0	62.0
	5	(2762)	28.6	71.4
	6~10	(13399)	23.7	76.3

### 3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

#### 가. 전체 분석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물은 결과 79.9%는 (매우+약간) ‘신뢰한다’고 응답했고, 20.1%는 (전혀+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나. 특성별 분석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남자(80.3%)가 여자(79.4%)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81.3%)이 가장 높고 20대(78.4%)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전남(92.8%), 세종(92.7%), 대전(89.8%) 순으로 많았고, 강원(70.2%)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대재 이상(78.6%), 기초생활수급가구(71.8%), 1인 가구(78.8%)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신뢰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신뢰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5] 집단 신뢰도 -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

구분		n	신뢰 안 함(%)	신뢰함(%)
전체		(17357)	20.1	79.9
성별	남자	(8615)	19.7	80.3
	여자	(8742)	20.6	79.4
연령별	15~19	(871)	19.7	80.3
	20대	(2550)	21.6	78.4
	30대	(2576)	20.5	79.5
	40대	(3123)	20.5	79.5
	50대	(3304)	20.7	79.3
	60대 이상	(4933)	18.7	81.3
지역별	서울	(3301)	16.3	83.7
	부산	(1155)	22.4	77.6
	대구	(800)	29.5	70.5
	인천	(996)	24.8	75.2
	광주	(483)	13.3	86.7
	대전	(490)	10.2	89.8
	울산	(375)	21.3	78.7
	세종	(114)	7.3	92.7
	경기	(4404)	24.8	75.2
	강원	(526)	29.8	70.2
	충북	(540)	12.3	87.7
	충남	(711)	21.0	79.0
	전북	(602)	18.4	81.6
	전남	(627)	7.2	92.8
	경북	(894)	24.7	75.3
	경남	(1116)	13.1	86.9
제주	(224)	13.3	86.7	
학력	중졸 이하	(2863)	16.6	83.4
	고졸	(5401)	19.9	80.1
	대재 이상	(9093)	21.4	78.6
직업유무	있다	(11617)	20.1	79.9
	없다	(5740)	20.3	79.7

구분		n	신뢰 안 함(%)	신뢰함(%)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20.0	80.0
	200만원 미만	(4187)	18.6	81.4
	200~300만원 미만	(4397)	22.1	77.9
	300~400만원 미만	(2925)	22.2	77.8
	400만원 이상	(1697)	15.7	84.3
혼인상태	미혼	(5170)	21.6	78.4
	기혼	(10451)	19.3	80.7
	사별/이혼/별거	(1736)	21.1	78.9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28.2	71.8
	비해당	(16899)	19.9	80.1
가구원수	1인	(1936)	21.2	78.8
	2인 이상	(15421)	20.0	80.0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46] 집단 신뢰도 -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 : 주관적 인식**

구분		n	신뢰 안 함(%)	신뢰함(%)
전체		(17357)	20.1	79.9
전반적 행복감	0~4	(1092)	30.7	69.3
	5	(2821)	21.9	78.1
	6~10	(13443)	18.9	81.1
어제 행복감	0~4	(1351)	30.8	69.2
	5	(2983)	19.6	80.4
	6~10	(13023)	19.2	80.8
어제 미소/웃음	0~4	(1760)	29.0	71.0
	5	(3349)	19.3	80.7
	6~10	(12248)	19.1	80.9
사다리 위치	0~4	(2070)	25.0	75.0
	5	(3173)	21.9	78.1
	6~10	(12114)	18.9	81.1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27.8	72.2
	5	(3484)	19.9	80.1
	6~10	(12301)	19.2	80.8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29.7	70.3
	5	(2762)	22.8	77.2
	6~10	(13399)	18.7	81.3

## 4 처음 만난 낯선 사람

### 가. 전체 분석

‘처음 만난 낯선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묻은 결과 13.0%는 (매우+약간) ‘신뢰한다’고 응답했고, 87.0%는 (전혀+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나. 특성별 분석

처음 만난 낯선 사람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남자(13.0%)와 여자(13.1%)가 비슷했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14.6%)이 가장 높고, 30대(10.6%)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울산(37.4%), 전북(22.1%), 대전(21.3%) 순으로 많고, 충남(3.4%)이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고졸(12.4%), 직업 있음(12.8%), 미혼(10.8%), 1인 가구(10.8%)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신뢰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 행복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47] 집단 신뢰도 - 처음 만난 낯선 사람

구분		n	신뢰 안 함(%)	신뢰함(%)
전체		(17357)	87.0	13.0
성별	남자	(8615)	87.0	13.0
	여자	(8742)	86.9	13.1
연령별	15~19	(871)	88.0	12.0
	20대	(2550)	89.2	10.8
	30대	(2576)	89.4	10.6
	40대	(3123)	85.8	14.2
	50대	(3304)	86.5	13.5
	60대 이상	(4933)	85.4	14.6
지역별	서울	(3301)	94.0	6.0
	부산	(1155)	81.9	18.1
	대구	(800)	94.4	5.6
	인천	(996)	91.7	8.3
	광주	(483)	81.6	18.4
	대전	(490)	78.7	21.3
	울산	(375)	62.6	37.4
	세종	(114)	96.3	3.7
	경기	(4404)	84.7	15.3
	강원	(526)	89.3	10.7
	충북	(540)	85.1	14.9
	충남	(711)	96.6	3.4
	전북	(602)	77.9	22.1
	전남	(627)	84.0	16.0
	경북	(894)	82.2	17.8
	경남	(1116)	86.7	13.3
제주	(224)	92.9	7.1	
학력	중졸 이하	(2863)	85.7	14.3
	고졸	(5401)	87.6	12.4
	대재 이상	(9093)	86.9	13.1
직업유무	있다	(11617)	87.2	12.8
	없다	(5740)	86.4	13.6

구분		n	신뢰 안 함(%)	신뢰함(%)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87.1	12.9
	200만원 미만	(4187)	86.0	14.0
	200~300만원 미만	(4397)	87.7	12.3
	300~400만원 미만	(2925)	88.3	11.7
	400만원 이상	(1697)	84.8	15.2
혼인상태	미혼	(5170)	89.2	10.8
	기혼	(10451)	85.9	14.1
	사별/이혼/별거	(1736)	86.8	13.2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87.0	13.0
	비해당	(16899)	87.0	13.0
가구원수	1인	(1936)	89.2	10.8
	2인 이상	(15421)	86.7	13.3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항목이 높은 집단(6~10)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48] 집단 신뢰도 - 처음 만난 낯선 사람 : 주관적 인식**

구분		n	신뢰 안 함(%)	신뢰함(%)
전체		(17357)	87.0	13.0
전반적 행복감	0~4	(1092)	86.1	13.9
	5	(2821)	87.0	13.0
	6~10	(13443)	87.0	13.0
어제 행복감	0~4	(1351)	87.3	12.7
	5	(2983)	86.8	13.2
	6~10	(13023)	86.9	13.1
어제 미소/웃음	0~4	(1760)	88.0	12.0
	5	(3349)	87.4	12.6
	6~10	(12248)	86.7	13.3
사다리 위치	0~4	(2070)	90.4	9.6
	5	(3173)	87.7	12.3
	6~10	(12114)	86.2	13.8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89.1	10.9
	5	(3484)	86.7	13.3
	6~10	(12301)	86.8	13.2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85.3	14.7
	5	(2762)	88.0	12.0
	6~10	(13399)	86.9	13.1

## 5 나와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

### 가. 전체 분석

‘나와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묻은 결과 19.4%는 (매우+약간) ‘신뢰한다’고 응답했고, 80.6%는 (전혀+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나. 특성별 분석

나와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남자(19.1%)보다 여자(19.7%)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22.3%)이 가장 높고 15~19세(16.7%)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경북(36.9%), 전북(31.7%), 울산(29.9%) 순으로 높고, 세종(3.3%)이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고졸(17.8%), 미혼(16.4%), 기초생활수급가구(15.4%), 1인가구(17.4%)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신뢰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나와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9] 집단 신뢰도 - 나와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

구분		n	신뢰 안 함(%)	신뢰함(%)
전체		(17357)	80.6	19.4
성별	남자	(8615)	80.9	19.1
	여자	(8742)	80.3	19.7
연령별	15~19	(871)	83.3	16.7
	20대	(2550)	83.1	16.9
	30대	(2576)	82.9	17.1
	40대	(3123)	79.9	20.1
	50대	(3304)	81.1	18.9
	60대 이상	(4933)	77.7	22.3
지역별	서울	(3301)	79.7	20.3
	부산	(1155)	84.0	16.0
	대구	(800)	96.6	3.4
	인천	(996)	88.5	11.5
	광주	(483)	88.2	11.8
	대전	(490)	74.5	25.5
	울산	(375)	70.1	29.9
	세종	(114)	96.7	3.3
	경기	(4404)	79.0	21.0
	강원	(526)	88.6	11.4
	충북	(540)	77.4	22.6
	충남	(711)	87.7	12.3
	전북	(602)	68.3	31.7
	전남	(627)	76.0	24.0
	경북	(894)	63.1	36.9
	경남	(1116)	84.8	15.2
제주	(224)	82.2	17.8	
학력	중졸 이하	(2863)	78.4	21.6
	고졸	(5401)	82.2	17.8
	대재 이상	(9093)	80.3	19.7
직업유무	있다	(11617)	80.5	19.5
	없다	(5740)	80.8	19.2

구분		n	신뢰 안 함(%)	신뢰함(%)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81.7	18.3
	200만원 미만	(4187)	79.0	21.0
	200~300만원 미만	(4397)	81.6	18.4
	300~400만원 미만	(2925)	82.6	17.4
	400만원 이상	(1697)	75.9	24.1
혼인상태	미혼	(5170)	83.6	16.4
	기혼	(10451)	79.1	20.9
	사별/이혼/별거	(1736)	80.6	19.4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84.6	15.4
	비해당	(16899)	80.5	19.5
가구원수	1인	(1936)	82.6	17.4
	2인 이상	(15421)	80.3	19.7

‘나와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어제 미소/웃음 정도,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50] 집단 신뢰도 - 나와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 : 주관적 인식

구분		n	신뢰 안 함(%)	신뢰함(%)
전체		(17357)	80.6	19.4
전반적 행복감	0~4	(1092)	83.8	16.2
	5	(2821)	79.7	20.3
	6~10	(13443)	80.5	19.5
어제 행복감	0~4	(1351)	84.4	15.6
	5	(2983)	79.2	20.8
	6~10	(13023)	80.5	19.5
어제 미소/웃음	0~4	(1760)	84.9	15.1
	5	(3349)	80.4	19.6
	6~10	(12248)	80.0	20.0
사다리 위치	0~4	(2070)	83.0	17.0
	5	(3173)	79.0	21.0
	6~10	(12114)	80.6	19.4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83.8	16.2
	5	(3484)	80.4	19.6
	6~10	(12301)	80.3	19.7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79.6	20.4
	5	(2762)	80.6	19.4
	6~10	(13399)	80.7	19.3

## 6 다른 국적의 사람

### 가. 전체 분석

‘다른 국적의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묻은 결과 11.3%는 (매우+약간)‘신뢰한다’고 응답했고, 88.7%는 (전혀+별로)‘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나. 특성별 분석

다른 국적인 사람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남자(11.5%)가 여자(11.0%)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12.2%)가 가장 높고 15~19세(10.6%)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울산(25.5%), 전북(18.3%), 대전(18.1%) 순으로 많고, 대구(2.0%)가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소득 없음(10.5%), 기초생활수급가구(10.5%), 1인 가구(9.4%)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신뢰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았다.

[표 5-51] 집단 신뢰도 - 다른 국적의 사람

구분		n	신뢰 안 함(%)	신뢰함(%)
전체		(17357)	88.7	11.3
성별	남자	(8615)	88.5	11.5
	여자	(8742)	89.0	11.0
연령별	15~19	(871)	89.4	10.6
	20대	(2550)	88.8	11.2
	30대	(2576)	90.0	10.0
	40대	(3123)	87.8	12.2
	50대	(3304)	89.2	10.8
	60대 이상	(4933)	88.2	11.8
지역별	서울	(3301)	88.9	11.1
	부산	(1155)	89.1	10.9
	대구	(800)	98.0	2.0
	인천	(996)	93.8	6.2
	광주	(483)	90.9	9.1
	대전	(490)	81.9	18.1
	울산	(375)	74.5	25.5
	세종	(114)	97.3	2.7
	경기	(4404)	87.5	12.5
	강원	(526)	90.1	9.9
	충북	(540)	85.5	14.5
	충남	(711)	93.0	7.0
	전북	(602)	81.7	18.3
	전남	(627)	86.6	13.4
	경북	(894)	85.7	14.3
	경남	(1116)	93.0	7.0
제주	(224)	88.8	11.2	
학력	중졸 이하	(2863)	88.8	11.2
	고졸	(5401)	89.7	10.3
	대재 이상	(9093)	88.1	11.9
직업유무	있다	(11617)	88.6	11.4
	없다	(5740)	89.0	11.0

구분		n	신뢰 안 함(%)	신뢰함(%)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89.5	10.5
	200만원 미만	(4187)	87.9	12.1
	200~300만원 미만	(4397)	89.3	10.7
	300~400만원 미만	(2925)	89.2	10.8
	400만원 이상	(1697)	86.4	13.6
혼인상태	미혼	(5170)	89.8	10.2
	기혼	(10451)	87.9	12.1
	사별/이혼/별거	(1736)	90.5	9.5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89.5	10.5
	비해당	(16899)	88.7	11.3
가구원수	1인	(1936)	90.6	9.4
	2인 이상	(15421)	88.5	11.5

‘다른 국적의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52] 집단 신뢰도 - 다른 국적의 사람 : 주관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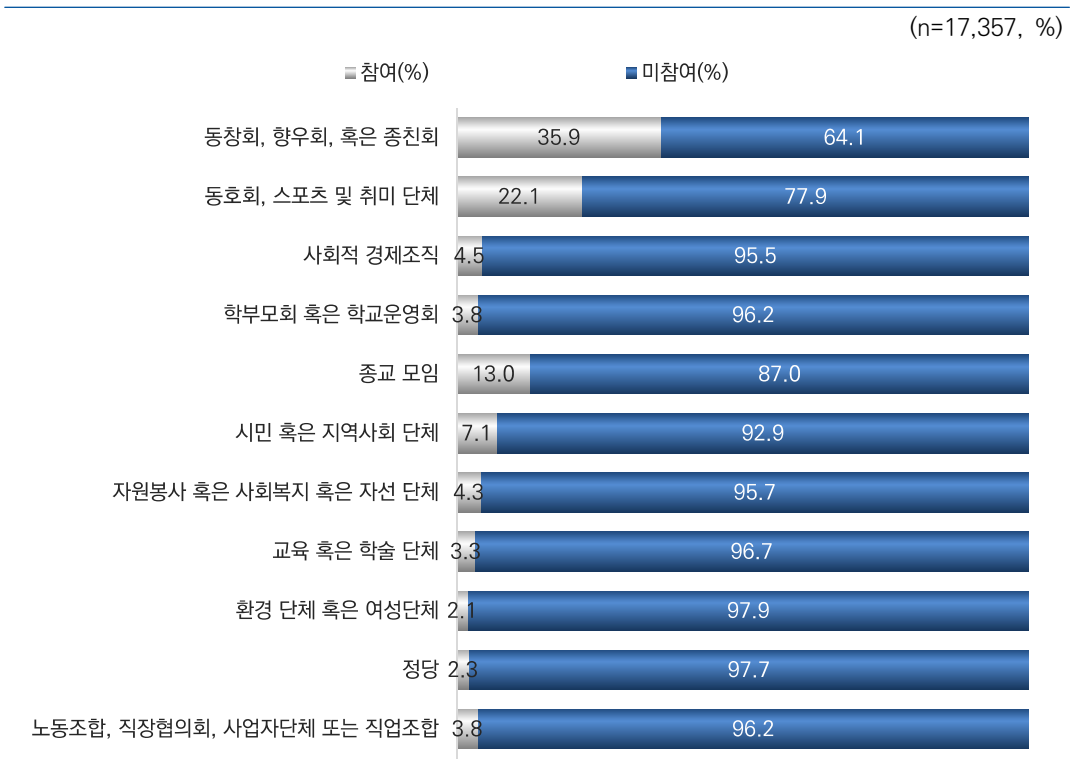
구분		n	신뢰 안 함(%)	신뢰함(%)
전체		(17357)	88.7	11.3
전반적 행복감	0~4	(1092)	92.9	7.1
	5	(2821)	89.0	11.0
	6~10	(13443)	88.3	11.7
어제 행복감	0~4	(1351)	92.5	7.5
	5	(2983)	89.7	10.3
	6~10	(13023)	88.1	11.9
어제 미소/웃음	0~4	(1760)	91.5	8.5
	5	(3349)	90.3	9.7
	6~10	(12248)	87.9	12.1
사다리 위치	0~4	(2070)	92.6	7.4
	5	(3173)	88.7	11.3
	6~10	(12114)	88.1	11.9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91.6	8.4
	5	(3484)	89.6	10.4
	6~10	(12301)	88.1	11.9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90.4	9.6
	5	(2762)	91.5	8.5
	6~10	(13399)	88.0	12.0

## 제3절 단체 활동 및 참여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0 종합 분석

11개 단체 각각에 대한 참여 정도를 물은 결과, 참여율은 ‘동창회, 향우회, 혹은 종친회’ 35.9%, ‘동호회, 스포츠 및 취미 단체’(22.1%), ‘종교 모임’(13.0%) 순으로 높았으며, ‘환경 단체 혹은 여성단체’(2.1%)가 가장 낮았다. 11개 단체 중 8개는 참여율이 10% 미만이었다.



[그림 5-4] 단체 활동 및 참여



## 1 동창회, 향우회, 혹은 종친회

### 가. 전체 분석

‘동창회, 향우회, 혹은 종친회’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 묻은 결과 35.9%는 (간혹+활발히+매우 활발히) ‘참여한다’고 응답했고, 64.1%는 ‘소속된 적 없다’ 또는 ‘소속된 적 있으나 현재 활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나. 특성별 분석

‘동창회, 향우회, 혹은 종친회’ 참여도는 남자(42.4%)가 여자(29.5%)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42.8%)가 가장 높고 15~19세(12.3%)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62.5%), 충북(49.1%), 울산(47.3%) 순으로 많고, 대구(16.9%)가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18.7%), 직업 없음(25.5%),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25.6%), 사별/이혼/별거(21.2%)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신뢰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동창회, 향우회, 혹은 종친회’ 참여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았다.

[표 5-53] 단체 참여도 - 동창회, 향우회, 혹은 종친회

구분		n	참여(%)	미참여(%)
전체		(17357)	35.9	64.1
성별	남자	(8615)	42.4	57.6
	여자	(8742)	29.5	70.5
연령별	15~19	(871)	12.3	87.7
	20대	(2550)	31.4	68.6
	30대	(2576)	40.5	59.5
	40대	(3123)	42.0	58.0
	50대	(3304)	42.8	57.2
	60대 이상	(4933)	31.4	68.6
지역별	서울	(3301)	37.6	62.4
	부산	(1155)	46.5	53.5
	대구	(800)	16.9	83.1
	인천	(996)	36.8	63.2
	광주	(483)	37.5	62.5
	대전	(490)	40.6	59.4
	울산	(375)	47.3	52.7
	세종	(114)	62.5	37.5
	경기	(4404)	34.1	65.9
	강원	(526)	23.6	76.4
	충북	(540)	49.1	50.9
	충남	(711)	26.8	73.2
	전북	(602)	23.0	77.0
	전남	(627)	30.7	69.3
	경북	(894)	35.7	64.3
	경남	(1116)	43.6	56.4
	제주	(224)	43.3	56.7
학력	중졸 이하	(2863)	18.7	81.3
	고졸	(5401)	36.4	63.6
	대재 이상	(9093)	40.9	59.1
직업유무	있다	(11617)	41.0	59.0
	없다	(5740)	25.5	74.5

구분		n	참여(%)	미참여(%)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27.5	72.5
	200만원 미만	(4187)	25.6	74.4
	200~300만원 미만	(4397)	37.7	62.3
	300~400만원 미만	(2925)	46.5	53.5
	400만원 이상	(1697)	58.4	41.6
혼인상태	미혼	(5170)	31.1	68.9
	기혼	(10451)	40.7	59.3
	사별/이혼/별거	(1736)	21.2	78.8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14.8	85.2
	비해당	(16899)	36.4	63.6
가구원수	1인	(1936)	29.1	70.9
	2인 이상	(15421)	36.7	63.3

‘동창회, 향우회, 혹은 종친회’ 참여율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5-54] 단체 참여도 - 동창회, 향우회, 혹은 종친회 : 주관적 인식**

구분		n	참여(%)	미참여(%)
전체		(17357)	35.9	64.1
전반적 행복감	0~4	(1092)	26.3	73.7
	5	(2821)	31.8	68.2
	6~10	(13443)	37.5	62.5
어제 행복감	0~4	(1351)	29.0	71.0
	5	(2983)	30.6	69.4
	6~10	(13023)	37.8	62.2
어제 미소/웃음	0~4	(1760)	28.6	71.4
	5	(3349)	32.4	67.6
	6~10	(12248)	37.9	62.1
사다리 위치	0~4	(2070)	25.5	74.5
	5	(3173)	31.6	68.4
	6~10	(12114)	38.8	61.2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29.1	70.9
	5	(3484)	30.9	69.1
	6~10	(12301)	38.1	61.9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26.4	73.6
	5	(2762)	32.8	67.2
	6~10	(13399)	37.3	62.7

## 2 동호회, 스포츠 및 취미 단체

### 가. 전체 분석

‘동호회, 스포츠 및 취미 단체’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 묻은 결과 26.2%는 (간혹+활발히+매우 활발히) ‘참여한다’고 응답했고, 73.8%는 ‘소속된 적 없다’ 또는 ‘소속된 적 있으나 현재 활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나. 특성별 분석

‘동호회, 스포츠 및 취미 단체’ 참여도는 남자(27.0%)가 여자(17.2%)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32.5%)가 가장 높고 15~19세(11.5%)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제주(35.7%), 인천(31.9%), 울산(28.9%) 순으로 많고, 대구(5.1%)가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6.4%), 직업 없음(15.4%),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11.6%), 사별/이혼/별거(10.3%)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신뢰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동호회, 스포츠 및 취미 단체’ 참여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았다.

[표 5-55] 단체 참여도 - 동호회, 스포츠 및 취미 단체

구분		n	참여(%)	미참여(%)
전체		(17357)	22.1	77.9
성별	남자	(8615)	27.0	73.0
	여자	(8742)	17.2	82.8
연령별	15~19	(871)	11.5	88.5
	20대	(2550)	25.1	74.9
	30대	(2576)	32.5	67.5
	40대	(3123)	26.8	73.2
	50대	(3304)	22.7	77.3
	60대 이상	(4933)	13.5	86.5
지역별	서울	(3301)	26.2	73.8
	부산	(1155)	19.0	81.0
	대구	(800)	5.1	94.9
	인천	(996)	31.9	68.1
	광주	(483)	25.8	74.2
	대전	(490)	25.1	74.9
	울산	(375)	28.9	71.1
	세종	(114)	27.5	72.5
	경기	(4404)	23.6	76.4
	강원	(526)	14.6	85.4
	충북	(540)	24.0	76.0
	충남	(711)	23.2	76.8
	전북	(602)	19.9	80.1
	전남	(627)	11.7	88.3
	경북	(894)	15.3	84.7
	경남	(1116)	16.6	83.4
	제주	(224)	35.7	64.3
학력	중졸 이하	(2863)	6.4	93.6
	고졸	(5401)	16.6	83.4
	대재 이상	(9093)	30.3	69.7
직업유무	있다	(11617)	25.4	74.6
	없다	(5740)	15.4	84.6

구분		n	참여(%)	미참여(%)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6.6	83.4
	200만원 미만	(4187)	11.6	88.4
	200~300만원 미만	(4397)	23.6	76.4
	300~400만원 미만	(2925)	31.2	68.8
	400만원 이상	(1697)	42.1	57.9
혼인상태	미혼	(5170)	25.7	74.3
	기혼	(10451)	22.3	77.7
	사별/이혼/별거	(1736)	10.3	89.7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10.8	89.2
	비해당	(16899)	22.4	77.6
가구원수	1인	(1936)	21.3	78.7
	2인 이상	(15421)	22.2	77.8

‘동호회, 스포츠 및 취미 단체’ 참여율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5-56] 단체 참여도 - 동호회, 스포츠 및 취미 단체 : 주관적 인식**

구분		n	참여(%)	미참여(%)
전체		(17357)	22.1	77.9
전반적 행복감	0~4	(1092)	12.7	87.3
	5	(2821)	18.8	81.2
	6~10	(13443)	23.5	76.5
어제 행복감	0~4	(1351)	15.2	84.8
	5	(2983)	17.8	82.2
	6~10	(13023)	23.8	76.2
어제 미소/웃음	0~4	(1760)	14.0	86.0
	5	(3349)	17.5	82.5
	6~10	(12248)	24.5	75.5
사다리 위치	0~4	(2070)	13.7	86.3
	5	(3173)	17.1	82.9
	6~10	(12114)	24.8	75.2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18.6	81.4
	5	(3484)	19.4	80.6
	6~10	(12301)	23.3	76.7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11.9	88.1
	5	(2762)	17.1	82.9
	6~10	(13399)	24.0	76.0



### 3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가. 전체 분석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 물은 결과 1.0%는 (간혹+활발히+매우 활발히) ‘참여한다’고 응답했고, 99.0%는 ‘소속된 적 없다’ 또는 ‘소속된 적 있으나 현재 활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나. 특성별 분석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참여도는 남자(5.9%)가 여자(3.1%)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6.8%)가 가장 높고, 15~19세(1.0%)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제주(13.5%), 강원(8.0%), 세종(7.5%) 순으로 많고, 대구(0.8%)가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2.2%), 직업 없음(2.5%), 소득 없음(2.6%), 1인가구(3.6%)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신뢰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참여도는 전반적 행복도 보통 응답자에서 가장 높았다.

[표 5-57] 단체 참여도 -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구분		n	참여(%)	미참여(%)
전체		(17357)	4.5	95.5
성별	남자	(8615)	5.9	94.1
	여자	(8742)	3.1	96.9
연령별	15~19	(871)	1.0	99.0
	20대	(2550)	2.1	97.9
	30대	(2576)	3.8	96.2
	40대	(3123)	5.7	94.3
	50대	(3304)	6.8	93.2
	60대 이상	(4933)	4.5	95.5
지역별	서울	(3301)	3.6	96.4
	부산	(1155)	3.2	96.8
	대구	(800)	0.8	99.2
	인천	(996)	3.6	96.4
	광주	(483)	5.4	94.6
	대전	(490)	2.6	97.4
	울산	(375)	2.6	97.4
	세종	(114)	7.5	92.5
	경기	(4404)	6.4	93.6
	강원	(526)	8.0	92.0
	충북	(540)	6.5	93.5
	충남	(711)	3.0	97.0
	전북	(602)	5.8	94.2
	전남	(627)	5.0	95.0
	경북	(894)	2.4	97.6
	경남	(1116)	2.7	97.3
	제주	(224)	13.5	86.5
학력	중졸 이하	(2863)	2.2	97.8
	고졸	(5401)	4.8	95.2
	대재 이상	(9093)	5.0	95.0
직업유무	있다	(11617)	5.5	94.5
	없다	(5740)	2.5	97.5

구분		n	참여(%)	미참여(%)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2.6	97.4
	200만원 미만	(4187)	3.0	97.0
	200~300만원 미만	(4397)	4.7	95.3
	300~400만원 미만	(2925)	6.0	94.0
	400만원 이상	(1697)	9.8	90.2
혼인상태	미혼	(5170)	2.7	97.3
	기혼	(10451)	5.7	94.3
	사별/이혼/별거	(1736)	2.7	97.3
기초생활수 급여부	해당	(458)	4.6	95.4
	비해당	(16899)	4.5	95.5
가구원수	1인	(1936)	3.6	96.4
	2인 이상	(15421)	4.6	95.4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참여율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의 항목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8] 단체 참여도 -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주관적 인식**

구분		n	참여(%)	미참여(%)
전체		(17357)	4.5	95.5
전반적 행복감	0~4	(1092)	4.8	95.2
	5	(2821)	5.6	94.4
	6~10	(13443)	4.2	95.8
어제 행복감	0~4	(1351)	5.4	94.6
	5	(2983)	4.3	95.7
	6~10	(13023)	4.5	95.5
어제 미소/웃음	0~4	(1760)	4.7	95.3
	5	(3349)	3.7	96.3
	6~10	(12248)	4.7	95.3
사다리 위치	0~4	(2070)	4.3	95.7
	5	(3173)	4.2	95.8
	6~10	(12114)	4.6	95.4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4.6	95.4
	5	(3484)	5.0	95.0
	6~10	(12301)	4.3	95.7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4.8	95.2
	5	(2762)	4.8	95.2
	6~10	(13399)	4.4	95.6

## 4 학부모회 혹은 학교운영회

### 가. 전체 분석

‘학부모회 혹은 학교운영회’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 묻은 결과 3.8%는 (간혹+활발히+매우 활발히) ‘참여한다’고 응답했고, 96.2%는 ‘소속된 적 없다’ 또는 ‘소속된 적 있으나 현재 활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나. 특성별 분석

‘학부모회 혹은 학교운영회’ 참여도는 남자(2.9%)보다 여자(4.7%)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8.4%)가 가장 높고, 15~19세(1.6%)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전북(7.1%), 제주(6.5%), 강원(5.4%) 순으로 많고, 대구(1.0%)가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1.1%), 직업 없음(3.3%),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2.4%), 미혼(1.8%), 1인 가구(1.9%)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신뢰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 행복도에 따른 참여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5-59] 단체 참여도 - 학부모회 혹은 학교운영회

구분		n	참여(%)	미참여(%)
전체		(17357)	3.8	96.2
성별	남자	(8615)	2.9	97.1
	여자	(8742)	4.7	95.3
연령별	15~19	(871)	1.6	98.4
	20대	(2550)	1.8	98.2
	30대	(2576)	5.1	94.9
	40대	(3123)	8.4	91.6
	50대	(3304)	3.5	96.5
	60대 이상	(4933)	1.8	98.2
지역별	서울	(3301)	4.3	95.7
	부산	(1155)	2.6	97.4
	대구	(800)	1.0	99.0
	인천	(996)	4.4	95.6
	광주	(483)	4.8	95.2
	대전	(490)	4.0	96.0
	울산	(375)	4.5	95.5
	세종	(114)	1.8	98.2
	경기	(4404)	4.1	95.9
	강원	(526)	5.4	94.6
	충북	(540)	2.5	97.5
	충남	(711)	1.7	98.3
	전북	(602)	7.1	92.9
	전남	(627)	3.0	97.0
	경북	(894)	2.1	97.9
	경남	(1116)	3.9	96.1
	제주	(224)	6.5	93.5
학력	중졸 이하	(2863)	1.1	98.9
	고졸	(5401)	2.9	97.1
	대재 이상	(9093)	5.2	94.8
직업유무	있다	(11617)	4.0	96.0
	없다	(5740)	3.3	96.7

구분		n	참여(%)	미참여(%)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3.6	96.4
	200만원 미만	(4187)	2.4	97.6
	200~300만원 미만	(4397)	4.2	95.8
	300~400만원 미만	(2925)	4.0	96.0
	400만원 이상	(1697)	6.4	93.6
혼인상태	미혼	(5170)	1.8	98.2
	기혼	(10451)	5.1	94.9
	사별/이혼/별거	(1736)	1.9	98.1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4.0	96.0
	비해당	(16899)	3.8	96.2
가구원수	1인	(1936)	1.9	98.1
	2인 이상	(15421)	4.0	96.0

‘학부모회 혹은 학교운영회’ 참여율은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5-60] 단체 참여도 - 학부모회 혹은 학교운영회 : 주관적 인식

구분		n	참여(%)	미참여(%)
전체		(17357)	3.8	96.2
전반적 행복감	0~4	(1092)	4.1	95.9
	5	(2821)	4.0	96.0
	6~10	(13443)	3.7	96.3
어제 행복감	0~4	(1351)	3.6	96.4
	5	(2983)	3.8	96.2
	6~10	(13023)	3.8	96.2
어제 미소/웃음	0~4	(1760)	3.4	96.6
	5	(3349)	2.9	97.1
	6~10	(12248)	4.1	95.9
사다리 위치	0~4	(2070)	2.8	97.2
	5	(3173)	3.2	96.8
	6~10	(12114)	4.1	95.9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4.7	95.3
	5	(3484)	3.1	96.9
	6~10	(12301)	3.9	96.1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2.5	97.5
	5	(2762)	3.1	96.9
	6~10	(13399)	4.1	95.9



## 5 종교 모임

### 가. 전체 분석

‘종교 모임’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 묻은 결과 13.0%는 (간혹+활발히+매우 활발히) ‘참여한다’고 응답했고, 87.0%는 ‘소속된 적 없다’ 또는 ‘소속된 적 있으나 현재 활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나. 특성별 분석

‘종교 모임’ 참여도는 남자(10.3%)보다 여자(15.6%)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15.5%)이 가장 높고, 20대(9.4%)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울(19.3%), 전북(17.8%), 인천(15.9%) 순으로 많고, 경남(4.5%)이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직업 있음(12.5%), 미혼(9.7%), 기초생활수급가구(11.6%)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신뢰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종교 모임’ 참여도는 전반적 행복도 보통 응답자에서 가장 낮았다.

[표 5-61] 단체 참여도 - 종교 모임

구분		n	참여(%)	미참여(%)
전체		(17357)	13.0	87.0
성별	남자	(8615)	10.3	89.7
	여자	(8742)	15.6	84.4
연령별	15~19	(871)	9.9	90.1
	20대	(2550)	9.4	90.6
	30대	(2576)	10.6	89.4
	40대	(3123)	13.7	86.3
	50대	(3304)	13.8	86.2
	60대 이상	(4933)	15.5	84.5
지역별	서울	(3301)	19.3	80.7
	부산	(1155)	7.3	92.7
	대구	(800)	6.0	94.0
	인천	(996)	15.9	84.1
	광주	(483)	9.1	90.9
	대전	(490)	11.1	88.9
	울산	(375)	5.8	94.2
	세종	(114)	12.7	87.3
	경기	(4404)	14.7	85.3
	강원	(526)	5.5	94.5
	충북	(540)	11.1	88.9
	충남	(711)	15.8	84.2
	전북	(602)	17.8	82.2
	전남	(627)	8.6	91.4
	경북	(894)	11.3	88.7
	경남	(1116)	4.5	95.5
	제주	(224)	10.9	89.1
학력	중졸 이하	(2863)	12.9	87.1
	고졸	(5401)	12.6	87.4
	대재 이상	(9093)	13.2	86.8
직업유무	있다	(11617)	12.5	87.5
	없다	(5740)	13.8	86.2

구분		n	참여(%)	미참여(%)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2.8	87.2
	200만원 미만	(4187)	13.3	86.7
	200~300만원 미만	(4397)	12.1	87.9
	300~400만원 미만	(2925)	12.3	87.7
	400만원 이상	(1697)	16.0	84.0
혼인상태	미혼	(5170)	9.7	90.3
	기혼	(10451)	14.3	85.7
	사별/이혼/별거	(1736)	14.9	85.1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11.6	88.4
	비해당	(16899)	13.0	87.0
가구원수	1인	(1936)	12.9	87.1
	2인 이상	(15421)	13.0	87.0

‘종교 모임’ 참여율은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5-62] 단체 참여도 - 종교 모임 : 주관적 인식**

구분		n	참여(%)	미참여(%)
전체		(17357)	13.0	87.0
전반적 행복감	0~4	(1092)	15.9	84.1
	5	(2821)	11.5	88.5
	6~10	(13443)	13.0	87.0
어제 행복감	0~4	(1351)	14.7	85.3
	5	(2983)	10.2	89.8
	6~10	(13023)	13.4	86.6
어제 미소/웃음	0~4	(1760)	13.6	86.4
	5	(3349)	10.2	89.8
	6~10	(12248)	13.6	86.4
사다리 위치	0~4	(2070)	11.4	88.6
	5	(3173)	12.2	87.8
	6~10	(12114)	13.4	86.6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16.0	84.0
	5	(3484)	11.6	88.4
	6~10	(12301)	13.0	87.0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11.8	88.2
	5	(2762)	10.4	89.6
	6~10	(13399)	13.6	86.4

## 6 시민 혹은 지역사회 단체(반상회, 주민조직 등)

### 가. 전체 분석

‘시민 혹은 지역사회 단체(반상회, 주민조직 등)’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 묻은 결과 7.1%는 (간혹+활발히+매우 활발히) ‘참여한다’고 응답했고, 92.9%는 ‘소속된 적 없다’ 또는 ‘소속된 적 있으나 현재 활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나. 특성별 분석

‘시민 혹은 지역사회 단체(반상회, 주민조직 등)’ 참여도는 남자(93.2%)가 여자(92.%)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10.8%)이 가장 높고, 15~19세(1.2%)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전남(19.5%), 강원(12.5%), 제주(11.8%) 순으로 많고, 대전(1.6%)이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직업 없음(5.6%), 개인소득 없음(5.4%), 미혼(2.3%), 1인 가구(6.1%)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신뢰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시민 혹은 지역사회 단체(반상회, 주민조직 등)’ 참여도는 전반적 행복도 부정 응답자에서 낮게 나타났다.

[표 5-63] 단체 참여도 - 시민 혹은 지역사회 단체(반상회, 주민조직 등)

구분		n	참여(%)	미참여(%)
전체		(17357)	7.1	92.9
성별	남자	(8615)	6.8	93.2
	여자	(8742)	7.5	92.5
연령별	15~19	(871)	1.2	98.8
	20대	(2550)	2.1	97.9
	30대	(2576)	4.0	96.0
	40대	(3123)	8.1	91.9
	50대	(3304)	8.7	91.3
	60대 이상	(4933)	10.8	89.2
지역별	서울	(3301)	8.8	91.2
	부산	(1155)	3.7	96.3
	대구	(800)	3.9	96.1
	인천	(996)	5.5	94.5
	광주	(483)	4.8	95.2
	대전	(490)	1.6	98.4
	울산	(375)	9.4	90.6
	세종	(114)	9.8	90.2
	경기	(4404)	5.6	94.4
	강원	(526)	12.5	87.5
	충북	(540)	4.7	95.3
	충남	(711)	9.2	90.8
	전북	(602)	9.2	90.8
	전남	(627)	19.5	80.5
	경북	(894)	8.6	91.4
	경남	(1116)	5.4	94.6
	제주	(224)	11.8	88.2
학력	중졸 이하	(2863)	8.1	91.9
	고졸	(5401)	8.4	91.6
	대재 이상	(9093)	6.1	93.9
직업유무	있다	(11617)	7.9	92.1
	없다	(5740)	5.6	94.4

구분		n	참여(%)	미참여(%)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5.4	94.6
	200만원 미만	(4187)	8.7	91.3
	200~300만원 미만	(4397)	6.4	93.6
	300~400만원 미만	(2925)	6.3	93.7
	400만원 이상	(1697)	11.2	88.8
혼인상태	미혼	(5170)	2.3	97.7
	기혼	(10451)	9.3	90.7
	사별/이혼/별거	(1736)	8.3	91.7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9.4	90.6
	비해당	(16899)	7.1	92.9
가구원수	1인	(1936)	6.1	93.9
	2인 이상	(15421)	7.3	92.7

‘시민 혹은 지역사회 단체(반상회, 주민조직 등)’ 참여율은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5-64] 단체 참여도 - 시민 혹은 지역사회 단체(반상회, 주민조직 등) : 주관적 인식**

구분		n	참여(%)	미참여(%)
전체		(17357)	7.1	92.9
전반적 행복감	0~4	(1092)	5.7	94.3
	5	(2821)	7.7	92.3
	6~10	(13443)	7.2	92.8
어제 행복감	0~4	(1351)	6.7	93.3
	5	(2983)	6.6	93.4
	6~10	(13023)	<u>7.3</u>	92.7
어제 미소/웃음	0~4	(1760)	7.1	92.9
	5	(3349)	6.4	93.6
	6~10	(12248)	<u>7.4</u>	92.6
사다리 위치	0~4	(2070)	5.5	94.5
	5	(3173)	7.0	93.0
	6~10	(12114)	<u>7.5</u>	92.5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7.1	92.9
	5	(3484)	6.4	93.6
	6~10	(12301)	<u>7.4</u>	92.6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7.3	92.7
	5	(2762)	7.2	92.8
	6~10	(13399)	7.1	92.9



## 7 자원봉사 혹은 사회복지 혹은 자선 단체

### 가. 전체 분석

‘자원봉사 혹은 사회복지 혹은 자선 단체’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 묻은 결과 4.3%는 (간혹+활발히+매우 활발히)‘참여한다’고 응답했고, 95.7%는 ‘소속된 적 없다’ 또는 ‘소속된 적 있으나 현재 활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나. 특성별 분석

‘자원봉사 혹은 사회복지 혹은 자선 단체’ 참여도는 남자(4.4%)와 여자(4.3%)가 비슷했고, 연령별로는 40대(5.6%)이 가장 높고, 15~19세(2.8%)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제주(13.7%), 전북(10.8%), 울산(7.1%) 순으로 많고, 대구(1.9%)가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2.3%), 직업 없음(3.5%), 개인소득 없음(3.5%), 사별/이혼/별거(2.6%), 1인 가구(3.5%)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신뢰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자원봉사 혹은 사회복지 혹은 자선 단체’ 참여도는 전반적 행복도 부정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65] 단체 참여도 - 자원봉사 혹은 사회복지 혹은 자선 단체

구분		n	참여(%)	미참여(%)
전체		(17357)	4.3	95.7
성별	남자	(8615)	4.4	95.6
	여자	(8742)	4.3	95.7
연령별	15~19	(871)	2.8	97.2
	20대	(2550)	3.7	96.3
	30대	(2576)	4.0	96.0
	40대	(3123)	5.6	94.4
	50대	(3304)	4.3	95.7
	60대 이상	(4933)	4.4	95.6
지역별	서울	(3301)	4.8	95.2
	부산	(1155)	2.7	97.3
	대구	(800)	1.9	98.1
	인천	(996)	4.4	95.6
	광주	(483)	4.6	95.4
	대전	(490)	3.3	96.7
	울산	(375)	7.1	92.9
	세종	(114)	3.5	96.5
	경기	(4404)	3.9	96.1
	강원	(526)	5.7	94.3
	충북	(540)	6.6	93.4
	충남	(711)	4.9	95.1
	전북	(602)	10.8	89.2
	전남	(627)	3.8	96.2
	경북	(894)	2.0	98.0
	경남	(1116)	2.3	97.7
	제주	(224)	13.7	86.3
학력	중졸 이하	(2863)	2.3	97.7
	고졸	(5401)	3.9	96.1
	대재 이상	(9093)	5.3	94.7
직업유무	있다	(11617)	4.7	95.3
	없다	(5740)	3.5	96.5

구분		n	참여(%)	미참여(%)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3.5	96.5
	200만원 미만	(4187)	3.8	96.2
	200~300만원 미만	(4397)	3.9	96.1
	300~400만원 미만	(2925)	5.0	95.0
	400만원 이상	(1697)	7.4	92.6
혼인상태	미혼	(5170)	3.7	96.3
	기혼	(10451)	4.9	95.1
	사별/이혼/별거	(1736)	2.6	97.4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4.4	95.6
	비해당	(16899)	4.3	95.7
가구원수	1인	(1936)	3.5	96.5
	2인 이상	(15421)	4.4	95.6

‘자원봉사 혹은 사회복지 혹은 자선 단체’ 참여율은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5-66] 단체 참여도 - 자원봉사 혹은 사회복지 혹은 자선 단체 : 주관적 인식**

구분		n	참여(%)	미참여(%)
전체		(17357)	4.3	95.7
전반적 행복감	0~4	(1092)	4.8	95.2
	5	(2821)	4.3	95.7
	6~10	(13443)	4.3	95.7
어제 행복감	0~4	(1351)	5.2	94.8
	5	(2983)	3.1	96.9
	6~10	(13023)	4.5	95.5
어제 미소/웃음	0~4	(1760)	3.1	96.9
	5	(3349)	3.4	96.6
	6~10	(12248)	<u>4.8</u>	95.2
사다리 위치	0~4	(2070)	3.1	96.9
	5	(3173)	3.8	96.2
	6~10	(12114)	<u>4.7</u>	95.3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5.1	94.9
	5	(3484)	4.1	95.9
	6~10	(12301)	4.3	95.7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3.1	96.9
	5	(2762)	3.6	96.4
	6~10	(13399)	<u>4.6</u>	95.4

## 8 교육 혹은 학술 단체

### 가. 전체 분석

‘교육 혹은 학술 단체’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 묻은 결과 3.3%는 (간혹+활발히+매우 활발히) ‘참여한다’고 응답했고, 96.7%는 ‘소속된 적 없다’ 또는 ‘소속된 적 있으나 현재 활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나. 특성별 분석

‘교육 혹은 학술 단체’ 참여도는 남자(3.5%)가 여자(3.0%)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15~19세(4.9%)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2.1%)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제주(9.2%), 전북(6.8%), 광주(5.1%) 순으로 많고, 대구(0.7%)가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고졸(1.6%), 사별/이혼/별거(1.2%), 1인 가구(2.3%)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신뢰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교육 혹은 학술 단체’ 참여도는 전반적 행복도 부정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67] 단체 참여도 - 교육 혹은 학술 단체

구분		n	참여(%)	미참여(%)
전체		(17357)	3.3	96.7
성별	남자	(8615)	3.5	96.5
	여자	(8742)	3.0	97.0
연령별	15~19	(871)	4.9	95.1
	20대	(2550)	4.7	95.3
	30대	(2576)	3.5	96.5
	40대	(3123)	3.9	96.1
	50대	(3304)	2.7	97.3
	60대 이상	(4933)	2.1	97.9
지역별	서울	(3301)	3.5	96.5
	부산	(1155)	3.1	96.9
	대구	(800)	0.7	99.3
	인천	(996)	2.2	97.8
	광주	(483)	5.1	94.9
	대전	(490)	2.1	97.9
	울산	(375)	3.4	96.6
	세종	(114)	3.1	96.9
	경기	(4404)	3.1	96.9
	강원	(526)	5.0	95.0
	충북	(540)	4.4	95.6
	충남	(711)	2.1	97.9
	전북	(602)	6.8	93.2
	전남	(627)	3.3	96.7
	경북	(894)	1.9	98.1
	경남	(1116)	3.2	96.8
제주	(224)	9.2	90.8	
학력	중졸 이하	(2863)	1.8	98.2
	고졸	(5401)	1.6	98.4
	대재 이상	(9093)	4.7	95.3
직업유무	있다	(11617)	3.1	96.9
	없다	(5740)	3.6	96.4

구분		n	참여(%)	미참여(%)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3.4	96.6
	200만원 미만	(4187)	2.7	97.3
	200~300만원 미만	(4397)	2.9	97.1
	300~400만원 미만	(2925)	3.3	96.7
	400만원 이상	(1697)	5.2	94.8
혼인상태	미혼	(5170)	4.4	95.6
	기혼	(10451)	3.0	97.0
	사별/이혼/별거	(1736)	1.2	98.8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3.3	96.7
	비해당	(16899)	3.3	96.7
가구원수	1인	(1936)	2.3	97.7
	2인 이상	(15421)	3.4	96.6

‘교육 혹은 학습 단체’ 참여율은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5-68] 단체 참여도 - 교육 혹은 학습 단체 : 주관적 인식

구분		n	참여(%)	미참여(%)
전체		(17357)	3.3	96.7
전반적 행복감	0~4	(1092)	3.8	96.2
	5	(2821)	3.2	96.8
	6~10	(13443)	3.2	96.8
어제 행복감	0~4	(1351)	3.6	96.4
	5	(2983)	2.7	97.3
	6~10	(13023)	3.4	96.6
어제 미소/웃음	0~4	(1760)	2.5	97.5
	5	(3349)	2.4	97.6
	6~10	(12248)	<u>3.6</u>	96.4
사다리 위치	0~4	(2070)	2.7	97.3
	5	(3173)	2.8	97.2
	6~10	(12114)	<u>3.5</u>	96.5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4.1	95.9
	5	(3484)	3.3	96.7
	6~10	(12301)	3.1	96.9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2.7	97.3
	5	(2762)	2.9	97.1
	6~10	(13399)	<u>3.4</u>	96.6



## 9 환경 단체 혹은 여성단체

### 가. 전체 분석

‘환경 단체 혹은 여성단체’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 묻은 결과 2.4%는 (간혹+활발히+매우 활발히) ‘참여한다’고 응답했고, 97.6%는 ‘소속된 적 없다’ 또는 ‘소속된 적 있으나 현재 활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나. 특성별 분석

‘환경 단체 혹은 여성단체’ 참여도는 남자(98.0%)와 여자(97.9%)가 비슷했고, 연령별로는 15~19세(98.8%)이 가장 높고, 40대(97.5%)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전북(4.6%), 제주(3.7%), 울산(3.0%) 순으로 많고, 세종(0.0%)이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1.1%), 직업 없음(1.6%), 개인소득 없음(1.4%), 사별/이혼/별거(1.2%), 1인 가구(1.7%)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신뢰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환경 단체 혹은 여성단체’ 참여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낮을수록 높았다.

[표 5-69] 단체 참여도 - 환경 단체 혹은 여성단체

구분		n	참여(%)	미참여(%)
전체		(17357)	2.1	97.9
성별	남자	(8615)	2.0	98.0
	여자	(8742)	2.1	97.9
연령별	15~19	(871)	1.2	98.8
	20대	(2550)	1.7	98.3
	30대	(2576)	2.4	97.6
	40대	(3123)	2.5	97.5
	50대	(3304)	2.3	97.7
	60대 이상	(4933)	1.9	98.1
지역별	서울	(3301)	2.4	97.6
	부산	(1155)	1.5	98.5
	대구	(800)	1.0	99.0
	인천	(996)	1.2	98.8
	광주	(483)	1.8	98.2
	대전	(490)	1.2	98.8
	울산	(375)	3.0	97.0
	세종	(114)	0.0	100.0
	경기	(4404)	2.4	97.6
	강원	(526)	2.7	97.3
	충북	(540)	2.3	97.7
	충남	(711)	1.0	99.0
	전북	(602)	4.6	95.4
	전남	(627)	1.9	98.1
	경북	(894)	1.7	98.3
	경남	(1116)	1.6	98.4
제주	(224)	3.7	96.3	
학력	중졸 이하	(2863)	1.1	98.9
	고졸	(5401)	1.6	98.4
	대재 이상	(9093)	2.7	97.3
직업유무	있다	(11617)	2.3	97.7
	없다	(5740)	1.6	98.4

구분		n	참여(%)	미참여(%)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4	98.6
	200만원 미만	(4187)	1.7	98.3
	200~300만원 미만	(4397)	2.2	97.8
	300~400만원 미만	(2925)	2.9	97.1
	400만원 이상	(1697)	2.9	97.1
혼인상태	미혼	(5170)	1.8	98.2
	기혼	(10451)	2.4	97.6
	사별/이혼/별거	(1736)	1.2	98.8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2.7	97.3
	비해당	(16899)	2.1	97.9
가구원수	1인	(1936)	1.7	98.3
	2인 이상	(15421)	2.1	97.9

‘환경 단체 혹은 여성단체’ 참여율은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5-70] 단체 참여도 - 환경 단체 혹은 여성단체 : 주관적 인식

구분		n	참여(%)	미참여(%)
전체		(17357)	2.1	97.9
전반적 행복감	0~4	(1092)	2.7	97.3
	5	(2821)	2.1	97.9
	6~10	(13443)	2.0	98.0
어제 행복감	0~4	(1351)	2.4	97.6
	5	(2983)	1.6	98.4
	6~10	(13023)	2.2	97.8
어제 미소/웃음	0~4	(1760)	1.7	98.3
	5	(3349)	1.6	98.4
	6~10	(12248)	<u>2.3</u>	97.7
사다리 위치	0~4	(2070)	1.9	98.1
	5	(3173)	1.9	98.1
	6~10	(12114)	<u>2.1</u>	97.9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3.0	97.0
	5	(3484)	1.7	98.3
	6~10	(12301)	2.1	97.9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1.6	98.4
	5	(2762)	1.8	98.2
	6~10	(13399)	<u>2.2</u>	97.8

## 10 정당

### 가. 전체 분석

‘정당’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 묻은 결과 2.3%는 (간혹+활발히+매우 활발히) ‘참여한다’고 응답했고, 97.7%는 ‘소속된 적 없다’ 또는 ‘소속된 적 있으나 현재 활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나. 특성별 분석

‘정당’ 참여도는 남자(2.8%)가 여자(1.7%)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2.8%)이 가장 높고, 15~19세(1.0%)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전북(5.5%), 제주(5.3%), 경기(3.6%) 순으로 많고, 대전(0.1%)이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1.5%), 직업 없음(1.8%), 개인소득 없음(1.5%), 사별/이혼/별거(1.2%)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신뢰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정당’ 참여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낮을수록 높았다.

[표 5-71] 단체 참여도 - 정당

구분		n	참여(%)	미참여(%)
전체		(17357)	2.3	97.7
성별	남자	(8615)	2.8	97.2
	여자	(8742)	1.7	98.3
연령별	15~19	(871)	1.0	99.0
	20대	(2550)	1.1	98.9
	30대	(2576)	2.0	98.0
	40대	(3123)	2.5	97.5
	50대	(3304)	2.7	97.3
	60대 이상	(4933)	2.8	97.2
지역별	서울	(3301)	2.0	98.0
	부산	(1155)	1.5	98.5
	대구	(800)	0.7	99.3
	인천	(996)	1.6	98.4
	광주	(483)	2.1	97.9
	대전	(490)	0.1	99.9
	울산	(375)	1.7	98.3
	세종	(114)	0.3	99.7
	경기	(4404)	3.6	96.4
	강원	(526)	3.4	96.6
	충북	(540)	1.4	98.6
	충남	(711)	0.6	99.4
	전북	(602)	5.5	94.5
	전남	(627)	1.1	98.9
	경북	(894)	1.6	98.4
	경남	(1116)	1.5	98.5
	제주	(224)	5.3	94.7
학력	중졸 이하	(2863)	1.5	98.5
	고졸	(5401)	2.0	98.0
	대재 이상	(9093)	2.7	97.3
직업유무	있다	(11617)	2.5	97.5
	없다	(5740)	1.8	98.2

구분		n	참여(%)	미참여(%)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5	98.5
	200만원 미만	(4187)	1.8	98.2
	200~300만원 미만	(4397)	2.3	97.7
	300~400만원 미만	(2925)	3.2	96.8
	400만원 이상	(1697)	3.6	96.4
혼인상태	미혼	(5170)	1.5	98.5
	기혼	(10451)	2.8	97.2
	사별/이혼/별거	(1736)	1.7	98.3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4.4	95.6
	비해당	(16899)	2.2	97.8
가구원수	1인	(1936)	2.2	97.8
	2인 이상	(15421)	2.3	97.7

‘정당’ 참여율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0~4)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5-72] 단체 참여도 - 정당 : 주관적 인식**

구분		n	참여(%)	미참여(%)
전체		(17357)	2.3	97.7
전반적 행복감	0~4	(1092)	<u>5.1</u>	94.9
	5	(2821)	2.2	97.8
	6~10	(13443)	2.1	97.9
어제 행복감	0~4	(1351)	<u>4.0</u>	96.0
	5	(2983)	2.4	97.6
	6~10	(13023)	2.1	97.9
어제 미소/웃음	0~4	(1760)	<u>3.2</u>	96.8
	5	(3349)	2.0	98.0
	6~10	(12248)	2.2	97.8
사다리 위치	0~4	(2070)	<u>2.5</u>	97.5
	5	(3173)	2.4	97.6
	6~10	(12114)	2.2	97.8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u>3.8</u>	96.2
	5	(3484)	2.7	97.3
	6~10	(12301)	2.0	98.0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u>3.9</u>	96.1
	5	(2762)	2.5	97.5
	6~10	(13399)	2.1	97.9



## 11 노동조합, 직장협의회,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 가. 전체 분석

‘노동조합, 직장협의회,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 묻은 결과 0.8%는 (간혹+활발히+매우 활발히) ‘참여한다’고 응답했고, 99.2%는 ‘소속된 적 없다’ 또는 ‘소속된 적 있으나 현재 활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나. 특성별 분석

‘노동조합, 직장협의회,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참여도는 남자(4.9%)가 여자(2.8%)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5.3%)이 가장 높고, 15~19세(0.8%)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울산(8.6%), 전북(6.8%), 세종(5.3%) 순으로 많고, 대구(1.0%)가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1.3%), 직업 없음(1.6%), 개인소득 없음(1.5%), 사별/이혼/별거(1.9%), 1인 가구(3.2%)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신뢰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노동조합, 직장협의회,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참여도는 전반적 행복도 부정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73] 단체 참여도 - 노동조합, 직장협의회,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구분		n	참여(%)	미참여(%)
전체		(17357)	3.8	96.2
성별	남자	(8615)	4.9	95.1
	여자	(8742)	2.8	97.2
연령별	15~19	(871)	0.8	99.2
	20대	(2550)	2.8	97.2
	30대	(2576)	5.3	94.7
	40대	(3123)	5.0	95.0
	50대	(3304)	4.3	95.7
	60대 이상	(4933)	3.0	97.0
지역별	서울	(3301)	4.9	95.1
	부산	(1155)	3.9	96.1
	대구	(800)	1.0	99.0
	인천	(996)	2.0	98.0
	광주	(483)	4.0	96.0
	대전	(490)	2.5	97.5
	울산	(375)	8.6	91.4
	세종	(114)	5.3	94.7
	경기	(4404)	3.5	96.5
	강원	(526)	4.9	95.1
	충북	(540)	3.3	96.7
	충남	(711)	3.8	96.2
	전북	(602)	6.8	93.2
	전남	(627)	3.7	96.3
	경북	(894)	2.7	97.3
	경남	(1116)	3.2	96.8
	제주	(224)	4.7	95.3
	학력	중졸 이하	(2863)	1.3
고졸		(5401)	3.1	96.9
대재 이상		(9093)	5.0	95.0
직업유무	있다	(11617)	4.9	95.1
	없다	(5740)	1.6	98.4

구분		n	참여(%)	미참여(%)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5	98.5
	200만원 미만	(4187)	2.4	97.6
	200~300만원 미만	(4397)	3.9	96.1
	300~400만원 미만	(2925)	5.4	94.6
	400만원 이상	(1697)	9.9	90.1
혼인상태	미혼	(5170)	3.3	96.7
	기혼	(10451)	4.4	95.6
	사별/이혼/별거	(1736)	1.9	98.1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5.1	94.9
	비해당	(16899)	3.8	96.2
가구원수	1인	(1936)	3.2	96.8
	2인 이상	(15421)	3.9	96.1

‘노동조합, 직장협의회,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참여율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0~4)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5-74] 단체 참여도 - 노동조합, 직장협의회,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 주관적 인식**

구분		n	참여(%)	미참여(%)
전체		(17357)	3.8	96.2
전반적 행복감	0~4	(1092)	<u>5.3</u>	94.7
	5	(2821)	3.7	96.3
	6~10	(13443)	3.7	96.3
어제 행복감	0~4	(1351)	<u>5.1</u>	94.9
	5	(2983)	3.4	96.6
	6~10	(13023)	3.8	96.2
어제 미소/웃음	0~4	(1760)	<u>4.3</u>	95.7
	5	(3349)	3.1	96.9
	6~10	(12248)	3.9	96.1
사다리 위치	0~4	(2070)	3.6	96.4
	5	(3173)	3.3	96.7
	6~10	(12114)	4.0	96.0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u>5.9</u>	94.1
	5	(3484)	3.4	96.6
	6~10	(12301)	3.7	96.3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u>4.3</u>	95.7
	5	(2762)	2.8	97.2
	6~10	(13399)	4.0	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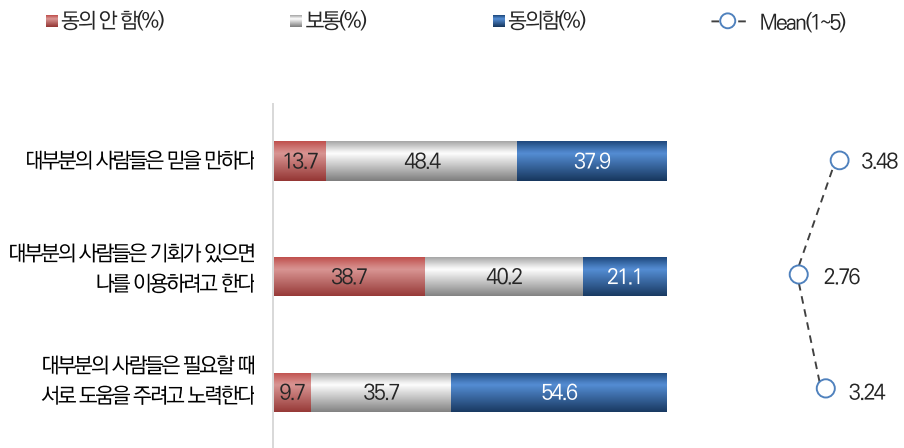
## 제4절 타인에 대한 견해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0 종합 분석

타인에 대한 생각 3가지 각각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동의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가 3.48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3.24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있으면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2.76점) 순이었다.

(n=17,357, %, mean=1~5)



[그림 5-5] 타인에 대한 견해

## 1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 가. 전체 분석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54.6%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9.7%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나. 특성별 분석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48점)와 여자(3.49점)가 비슷했고, 연령별로는 50대(3.51점)가 가장 높고, 15~19세(3.43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3.73점), 경남(3.70점), 부산(3.68점) 순으로 높고, 대구(2.99점)가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직업 없음(3.46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3.45점), 사별/이혼/별거(3.41점), 기초생활수급가구(3.08점), 1인 가구(3.39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75]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전체		(17357)	9.7	35.7	54.6	3.48
성별	남자	(8615)	9.4	36.6	54.0	3.48
	여자	(8742)	10.0	34.9	55.1	3.49
연령별	15~19	(871)	11.2	37.0	51.9	3.43
	20대	(2550)	10.4	37.5	52.1	3.44
	30대	(2576)	10.7	35.1	54.2	3.46
	40대	(3123)	9.4	36.8	53.9	3.49
	50대	(3304)	8.9	34.9	56.2	3.51
	60대 이상	(4933)	9.2	34.9	55.9	3.50
지역별	서울	(3301)	7.8	34.0	58.2	3.53
	부산	(1155)	3.3	28.0	68.7	3.68
	대구	(800)	32.5	36.4	31.1	2.99
	인천	(996)	11.7	34.7	53.6	3.45
	광주	(483)	14.9	48.9	36.2	3.20
	대전	(490)	9.7	47.5	42.8	3.32
	울산	(375)	9.3	33.4	57.3	3.50
	세종	(114)	0.5	29.7	69.8	3.73
	경기	(4404)	10.3	36.8	52.9	3.49
	강원	(526)	15.5	49.6	34.9	3.19
	충북	(540)	5.1	32.9	62.0	3.58
	충남	(711)	8.0	32.4	59.5	3.55
	전북	(602)	7.2	34.6	58.2	3.55
	전남	(627)	5.2	37.3	57.5	3.55
	경북	(894)	12.6	40.8	46.6	3.40
	경남	(1116)	2.6	27.6	69.8	3.70
제주	(224)	8.0	39.0	53.0	3.46	
학력	중졸 이하	(2863)	9.3	36.5	54.1	3.48
	고졸	(5401)	10.1	36.4	53.5	3.46
	대재 이상	(9093)	9.5	35.1	55.4	3.50
직업유무	있다	(11617)	9.3	35.1	55.5	3.49
	없다	(5740)	10.3	37.0	52.7	3.46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0.8	34.8	54.5	3.47
	200만원 미만	(4187)	10.0	38.1	51.9	3.45
	200~300만원 미만	(4397)	9.6	36.9	53.4	3.46
	300~400만원 미만	(2925)	9.9	34.3	55.8	3.50
	400만원 이상	(1697)	6.0	31.5	62.5	3.63
혼인상태	미혼	(5170)	11.3	37.0	51.8	3.43
	기혼	(10451)	8.6	34.7	56.7	3.52
	사별/이혼/별거	(1736)	11.4	38.3	50.3	3.41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21.2	46.7	32.1	3.08
	비해당	(16899)	9.4	35.4	55.2	3.49
가구원수	1인	(1936)	12.5	38.2	49.2	3.39
	2인 이상	(15421)	9.3	35.4	55.3	3.49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5-76]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9.7	35.7	54.6	3.48
전반적 행복감	0~4	(1092)	25.3	44.2	30.5	3.05
	5	(2821)	13.7	44.1	42.2	3.31
	6~10	(13443)	7.6	33.3	59.1	3.55
어제 행복감	0~4	(1351)	24.2	45.8	30.0	3.06
	5	(2983)	13.8	43.7	42.5	3.30
	6~10	(13023)	7.2	32.9	59.9	3.57
어제 미소/웃음	0~4	(1760)	22.4	45.8	31.9	3.10
	5	(3349)	13.7	42.2	44.1	3.32
	6~10	(12248)	6.7	32.5	60.7	3.58
사다리 위치	0~4	(2070)	21.7	45.5	32.8	3.11
	5	(3173)	12.9	41.6	45.5	3.34
	6~10	(12114)	6.8	32.5	60.7	3.58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21.6	44.8	33.7	3.14
	5	(3484)	11.1	42.4	46.5	3.39
	6~10	(12301)	7.7	32.7	59.6	3.55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20.9	43.2	36.0	3.15
	5	(2762)	12.1	41.9	46.0	3.36
	6~10	(13399)	8.2	33.8	58.0	3.54

## 2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있으면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 가. 전체 분석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있으면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21.1%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38.7%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나. 특성별 분석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있으면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2.75점)와 여자(2.75점)가 비슷했고, 30/40대(2.78점)가 가장 높고, 15~19세/60대 이상(2.74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인천(3.02점), 세종(2.98점), 충남(2.91점) 순으로 높고, 전북(2.49점)이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2.71점), 직업 없음(2.71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2.72점), 기초생활수급가구(2.72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있으면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77]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있으면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전체		(17357)	38.7	40.2	21.1	2.76
성별	남자	(8615)	37.8	41.2	21.0	2.78
	여자	(8742)	39.5	39.2	21.3	2.75
연령별	15~19	(871)	39.1	43.0	17.9	2.74
	20대	(2550)	38.9	39.1	22.1	2.77
	30대	(2576)	37.6	41.8	20.5	2.78
	40대	(3123)	37.8	39.8	22.4	2.78
	50대	(3304)	38.6	39.8	21.5	2.77
	60대 이상	(4933)	39.6	39.9	20.5	2.74
지역별	서울	(3301)	36.9	42.0	21.2	2.80
	부산	(1155)	32.8	43.8	23.5	2.90
	대구	(800)	32.6	44.9	22.5	2.82
	인천	(996)	23.1	50.7	26.2	3.02
	광주	(483)	44.6	40.6	14.7	2.61
	대전	(490)	38.5	46.1	15.4	2.73
	울산	(375)	32.9	51.1	16.1	2.81
	세종	(114)	35.4	37.2	27.4	2.98
	경기	(4404)	44.2	38.8	17.0	2.64
	강원	(526)	33.8	46.6	19.6	2.79
	충북	(540)	36.9	31.8	31.3	2.90
	충남	(711)	33.6	28.8	37.6	2.91
	전북	(602)	52.4	36.2	11.4	2.49
	전남	(627)	41.4	41.6	17.0	2.72
	경북	(894)	46.0	27.3	26.7	2.70
	경남	(1116)	36.7	36.9	26.4	2.86
제주	(224)	44.7	43.9	11.5	2.52	
학력	중졸 이하	(2863)	40.7	40.1	19.3	2.71
	고졸	(5401)	39.5	39.0	21.5	2.75
	대재 이상	(9093)	37.5	40.9	21.6	2.78
직업유무	있다	(11617)	37.4	40.6	22.0	2.79
	없다	(5740)	41.2	39.3	19.5	2.71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39.3	41.1	19.6	2.74
	200만원 미만	(4187)	40.7	38.4	20.9	2.72
	200~300만원 미만	(4397)	36.6	40.9	22.5	2.80
	300~400만원 미만	(2925)	40.4	38.6	20.9	2.75
	400만원 이상	(1697)	34.3	43.3	22.3	2.84
혼인상태	미혼	(5170)	38.6	40.5	20.9	2.77
	기혼	(10451)	38.9	40.2	20.9	2.75
	사별/이혼/별거	(1736)	37.2	39.0	23.8	2.80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41.2	39.1	19.7	2.72
	비해당	(16899)	38.6	40.2	21.2	2.76
가구원수	1인	(1936)	37.9	37.9	24.2	2.80
	2인 이상	(15421)	38.8	40.5	20.8	2.76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있으면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어제 행복감, 5년 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5-78]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있으면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38.7	40.2	21.1	2.76
전반적 행복감	0~4	(1092)	42.5	34.1	23.4	2.75
	5	(2821)	36.1	44.4	19.5	2.77
	6~10	(13443)	38.9	39.8	21.3	2.76
어제 행복감	0~4	(1351)	42.4	34.3	23.3	2.72
	5	(2983)	37.6	43.0	19.4	2.75
	6~10	(13023)	38.5	40.2	21.3	2.77
어제 미소/웃음	0~4	(1760)	39.6	36.7	23.7	2.77
	5	(3349)	38.3	43.7	17.9	2.73
	6~10	(12248)	38.6	39.7	21.7	2.77
사다리 위치	0~4	(2070)	33.0	37.6	29.4	2.92
	5	(3173)	36.0	44.2	19.8	2.79
	6~10	(12114)	40.3	39.6	20.1	2.73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40.2	37.7	22.1	2.74
	5	(3484)	37.9	42.4	19.7	2.74
	6~10	(12301)	38.7	39.9	21.4	2.77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36.2	36.5	27.2	2.88
	5	(2762)	38.3	43.2	18.5	2.74
	6~10	(13399)	38.9	39.9	21.2	2.76

### 3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 가. 전체 분석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37.9%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13.7%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나. 특성별 분석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23점)와 여자(3.25점)가 비슷했고, 연령별로는 20대(3.26점)가 가장 높고 15~19세(3.23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3.59점), 경남(3.45점), 충북(3.44점) 순으로 높고, 대구(2.85점)가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직업 없음(3.21점), 사별/이혼/별거(3.21점), 기초생활수급 가구(2.98점), 1인 가구(3.22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았다.

[표 5-79]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전체		(17357)	13.7	48.4	37.9	3.24
성별	남자	(8615)	13.6	49.1	37.4	3.23
	여자	(8742)	13.8	47.8	38.3	3.25
연령별	15~19	(871)	14.2	47.3	38.4	3.23
	20대	(2550)	13.4	47.8	38.8	3.26
	30대	(2576)	14.2	47.4	38.4	3.25
	40대	(3123)	12.8	49.2	37.9	3.25
	50대	(3304)	14.2	49.0	36.7	3.22
	60대 이상	(4933)	13.7	48.6	37.7	3.24
지역별	서울	(3301)	11.6	43.9	44.5	3.35
	부산	(1155)	8.7	45.1	46.2	3.37
	대구	(800)	24.4	61.6	14.0	2.85
	인천	(996)	14.1	51.2	34.7	3.20
	광주	(483)	13.3	60.9	25.7	3.13
	대전	(490)	13.0	59.3	27.7	3.15
	울산	(375)	15.3	45.6	39.1	3.24
	세종	(114)	0.8	40.9	58.3	3.59
	경기	(4404)	20.3	49.0	30.6	3.09
	강원	(526)	12.0	58.2	29.8	3.20
	충북	(540)	5.5	45.9	48.6	3.44
	충남	(711)	7.8	42.8	49.4	3.41
	전북	(602)	12.2	47.3	40.5	3.30
	전남	(627)	5.6	55.6	38.9	3.34
	경북	(894)	14.0	46.6	39.5	3.25
	경남	(1116)	7.2	41.8	50.9	3.45
제주	(224)	7.0	44.6	48.4	3.41	
학력	중졸 이하	(2863)	12.9	50.2	36.9	3.24
	고졸	(5401)	14.3	49.7	36.0	3.21
	대재 이상	(9093)	13.6	47.1	39.3	3.26
직업유무	있다	(11617)	13.0	48.6	38.4	3.26
	없다	(5740)	15.1	48.1	36.8	3.21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4.7	47.7	37.6	3.22
	200만원 미만	(4187)	14.0	49.4	36.6	3.23
	200~300만원 미만	(4397)	13.6	50.1	36.3	3.23
	300~400만원 미만	(2925)	14.5	47.0	38.5	3.25
	400만원 이상	(1697)	9.4	46.2	44.4	3.36
혼인상태	미혼	(5170)	14.9	47.4	37.7	3.23
	기혼	(10451)	13.0	48.7	38.4	3.26
	사별/이혼/별거	(1736)	14.6	50.2	35.3	3.21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23.5	52.0	24.5	2.98
	비해당	(16899)	13.4	48.4	38.2	3.25
가구원수	1인	(1936)	15.0	48.1	36.9	3.22
	2인 이상	(15421)	13.5	48.5	38.0	3.25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5-80]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13.7	48.4	37.9	3.24
전반적 행복감	0~4	(1092)	35.5	44.0	20.5	2.79
	5	(2821)	18.0	52.2	29.9	3.11
	6~10	(13443)	11.0	48.0	40.9	3.31
어제 행복감	0~4	(1351)	35.9	43.3	20.8	2.77
	5	(2983)	17.7	53.4	28.9	3.10
	6~10	(13023)	10.5	47.8	41.7	3.32
어제 미소/웃음	0~4	(1760)	33.0	44.1	22.9	2.84
	5	(3349)	17.2	54.2	28.5	3.10
	6~10	(12248)	10.0	47.5	42.6	3.34
사다리 위치	0~4	(2070)	25.5	50.7	23.8	2.95
	5	(3173)	16.2	53.6	30.2	3.13
	6~10	(12114)	11.0	46.7	42.3	3.32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27.0	45.1	27.9	2.99
	5	(3484)	16.0	53.1	30.9	3.14
	6~10	(12301)	11.3	47.6	41.1	3.30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30.8	45.0	24.2	2.89
	5	(2762)	18.6	51.8	29.6	3.09
	6~10	(13399)	11.2	48.1	40.8	3.30

## 제5절

#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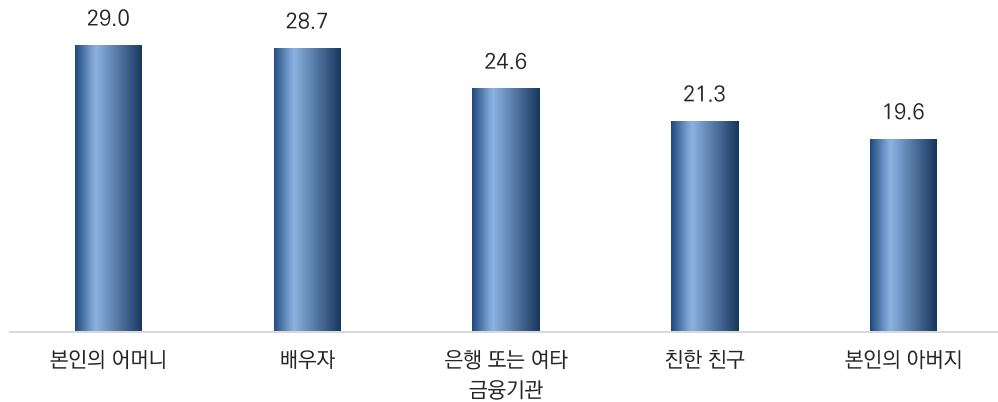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 가. 전체 분석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을 2명까지 물은 결과 ‘본인의 어머니’(29.0%), ‘배우자’(28.7%), ‘은행 또는 금융기관’(24.6%), ‘친한 친구’(21.3%), ‘본인의 아버지’(19.6%) 등의 순서로 많이 응답되었다.

(n=17,357, %)



[그림 5-6]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1+2순위)

## 나. 특성별 분석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해 남자는 ‘본인의 어머니’(29.1%)를, 여자는 ‘배우자’(31.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는 ‘본인의 어머니’가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은 ‘배우자’가 가장 많았다. ‘은행 또는 금융기관’ 응답 비율은 40대에서 30.5%로 가장 높았다.

[표 5-81]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상위 5위)

구분		n	본인의 어머니	배우자	은행 또는 여타 금융기관	친한 친구	본인의 아버지
전체		(17357)	29.0	28.7	24.6	21.3	19.6
성별	남자	(8615)	29.1	26.1	27.2	23.8	22.4
	여자	(8742)	28.9	31.3	22.1	19.0	16.7
연령별	15~19	(871)	75.9	1.5	2.9	5.4	69.6
	20대	(2550)	69.5	4.6	14.0	16.5	53.3
	30대	(2576)	49.8	23.8	27.9	23.0	32.2
	40대	(3123)	28.7	41.0	30.5	24.7	13.1
	50대	(3304)	9.6	42.1	32.1	29.4	4.1
	60대 이상	(4933)	2.1	31.8	23.5	18.3	1.1
지역별	서울	(3301)	33.1	30.4	28.7	22.2	23.8
	부산	(1155)	30.1	30.4	25.3	17.0	18.0
	대구	(800)	22.4	21.1	18.2	24.9	13.5
	인천	(996)	35.2	26.1	16.6	26.2	15.9
	광주	(483)	34.2	31.5	23.1	19.3	25.0
	대전	(490)	28.5	26.0	26.1	13.9	18.5
	울산	(375)	40.3	41.5	12.6	10.6	20.3
	세종	(114)	45.0	39.2	17.9	22.4	32.0
	경기	(4404)	28.7	27.3	27.3	26.0	20.6
	강원	(526)	22.9	26.2	18.9	20.4	17.7
	충북	(540)	27.9	27.9	11.9	14.2	14.9
	충남	(711)	24.2	24.6	7.7	21.9	23.9
	전북	(602)	25.7	25.3	23.4	12.4	16.4
	전남	(627)	22.7	33.8	39.9	16.3	16.8
	경북	(894)	17.9	26.1	31.3	21.5	15.0
경남	(1116)	30.0	34.5	23.0	17.3	16.4	
제주	(224)	25.9	30.4	30.3	18.9	18.4	
학력	중졸 이하	(2863)	18.7	18.9	12.1	9.5	16.7
	고졸	(5401)	11.5	38.1	28.9	25.5	5.3
	대재 이상	(9093)	43.5	26.6	26.5	23.0	29.5

구분		n	본인의 어머니	배우자	은행 또는 여타 금융기관	친한 친구	본인의 아버지
직업유무	있다	(11617)	26.5	30.3	29.9	25.2	16.5
	없다	(5740)	34.0	25.5	13.9	13.5	25.7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40.0	28.3	14.8	13.8	29.6
	200만원 미만	(4187)	18.3	26.0	19.1	16.3	11.6
	200~300만원 미만	(4397)	33.3	26.8	28.1	24.3	20.9
	300~400만원 미만	(2925)	27.0	31.0	34.1	28.8	17.3
	400만원 이상	(1697)	20.5	37.3	37.2	31.8	15.1
혼인상태	미혼	(5170)	63.0	1.5	16.9	19.5	49.7
	기혼	(10451)	16.1	46.8	29.6	22.1	7.5
	사별/이혼/별거	(1736)	5.7	0.8	17.9	22.2	2.3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11.9	14.5	15.6	17.7	7.3
	비해당	(16899)	29.5	29.1	24.9	21.4	19.9
가구원수	1인	(1936)	23.1	1.5	21.1	26.7	14.9
	2인 이상	(15421)	29.7	32.1	25.1	20.7	20.1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본인의 어머니’를 꼽은 응답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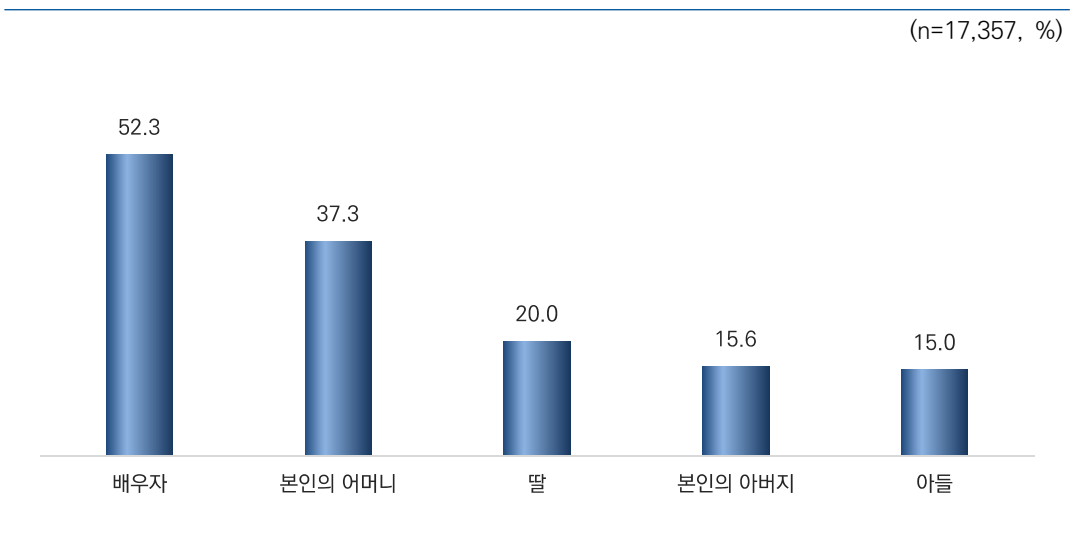
[표 5-82]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상위 5위) : 주관적 인식

구분	n	본인의 어머니	배우자	은행 또는 여타 금융기관	친한 친구	본인의 아버지	
전체	(17356)	29.0	28.7	24.6	21.3	19.6	
전반적 행복감	0~4	(1092)	18.2	20.6	21.0	20.8	12.2
	5	(2821)	21.9	23.0	20.5	19.8	15.7
	6~10	(13442)	31.4	30.6	25.8	21.7	21.0
어제 행복감	0~4	(1351)	21.3	20.5	19.8	22.9	14.6
	5	(2983)	21.2	22.9	21.1	19.2	16.0
	6~10	(13021)	31.6	30.9	25.9	21.7	20.9
어제 미소/웃음	0~4	(1760)	20.6	21.8	21.0	20.1	13.8
	5	(3349)	21.5	24.6	22.6	20.4	15.4
	6~10	(12246)	32.3	30.8	25.7	21.8	21.5
사다리 위치	0~4	(2070)	19.9	20.2	17.5	15.6	14.1
	5	(3173)	24.1	24.2	21.5	19.6	14.9
	6~10	(12113)	31.8	31.3	26.7	22.8	21.7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25.8	23.7	20.1	25.9	14.4
	5	(3482)	24.7	24.1	21.4	20.7	17.4
	6~10	(12301)	30.6	30.6	26.1	20.9	20.8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13.2	20.0	17.2	16.6	7.5
	5	(2762)	17.9	23.9	23.2	19.5	13.0
	6~10	(13397)	32.7	30.5	25.6	22.2	22.0

## 2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가. 전체 분석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2명까지 묻은 결과 ‘배우자’가 52.3%로 가장 많고, ‘본인의 어머니’(37.3%), ‘딸’(20.0%), ‘본인의 아버지’(15.6%), ‘아들’(15.0%) 등이 뒤를 이었다.



[그림 5-7]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1+2순위)

## 나. 특성별 분석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남자와 여자 모두 배우자를 가장 많이 꼽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는 ‘본인의 어머니’를 가장 많이 꼽았고, 40대 이상은 ‘배우자’를 가장 많이 꼽았다. 1인 가구 거주자 2인 이상 가구와 달리 ‘본인의 어머니’(28.0%)를 가장 많이 꼽았다.

[표 5-83]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상위 5위)

구분		n	배우자	본인의 어머니	딸	본인의 아버지	아들
전체		(17357)	52.3	37.3	20.0	15.6	15.0
성별	남자	(8615)	55.7	40.0	15.3	18.1	14.0
	여자	(8742)	48.9	34.6	24.5	13.1	16.0
연령별	15~19	(871)	1.9	90.9	0.5	71.4	0.2
	20대	(2550)	7.8	84.5	0.9	51.8	0.6
	30대	(2576)	42.4	70.1	1.1	22.7	0.7
	40대	(3123)	72.5	39.5	12.7	4.0	8.8
	50대	(3304)	75.1	11.6	32.7	1.0	21.1
	60대 이상	(4933)	61.3	2.1	39.1	0.4	32.5

구분		n	배우자	본인의 어머니	딸	본인의 아버지	아들
지역별	서울	(3301)	53.4	41.0	19.5	18.2	14.3
	부산	(1155)	52.4	37.4	26.8	15.9	16.7
	대구	(800)	53.7	34.2	24.8	12.3	15.2
	인천	(996)	47.7	42.8	18.0	16.2	11.1
	광주	(483)	54.7	36.8	18.7	12.7	12.3
	대전	(490)	46.4	33.5	17.7	11.1	10.4
	울산	(375)	58.2	48.7	19.4	24.1	17.9
	세종	(114)	62.4	48.8	12.3	16.6	9.9
	경기	(4404)	52.5	39.3	18.1	17.7	13.3
	강원	(526)	52.7	29.1	16.7	14.7	28.3
	충북	(540)	42.2	32.8	18.1	14.0	16.7
	충남	(711)	47.0	33.7	25.4	15.4	22.6
	전북	(602)	54.3	30.2	17.6	12.4	16.0
	전남	(627)	57.6	29.6	24.4	10.2	17.1
	경북	(894)	56.3	30.4	18.3	7.1	16.3
	경남	(1116)	52.7	35.4	20.9	13.8	12.0
제주	(224)	41.0	33.5	23.5	19.0	22.8	
학력	중졸 이하	(2863)	38.3	22.6	33.0	17.5	28.0
	고졸	(5401)	68.6	16.0	30.5	3.4	21.0
	대재 이상	(9093)	47.0	54.5	9.6	22.2	7.4
직업유무	있다	(11617)	57.6	36.2	18.3	11.6	13.6
	없다	(5740)	41.5	39.5	23.3	23.8	17.9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45.3	46.8	19.4	28.0	12.7
	200만원 미만	(4187)	46.5	23.0	29.0	9.7	24.8
	200~300만원 미만	(4397)	47.0	43.9	15.4	16.3	10.6
	300~400만원 미만	(2925)	63.4	38.7	14.9	11.7	11.3
	400만원 이상	(1697)	78.0	29.7	19.2	4.9	14.5
혼인상태	미혼	(5170)	2.5	81.3	0.8	49.5	0.4
	기혼	(10451)	85.4	20.4	26.5	1.2	18.8
	사별/이혼/별거	(1736)	1.3	7.9	37.4	1.7	35.8
기초생활 수급여부	해당	(458)	30.7	17.4	23.6	6.4	18.8
	비해당	(16899)	52.9	37.8	19.9	15.9	14.9
가구원수	1인	(1936)	2.6	28.0	21.8	10.3	17.3
	2인 이상	(15421)	58.5	38.5	19.7	16.3	14.7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배우자’를 꼽은 응답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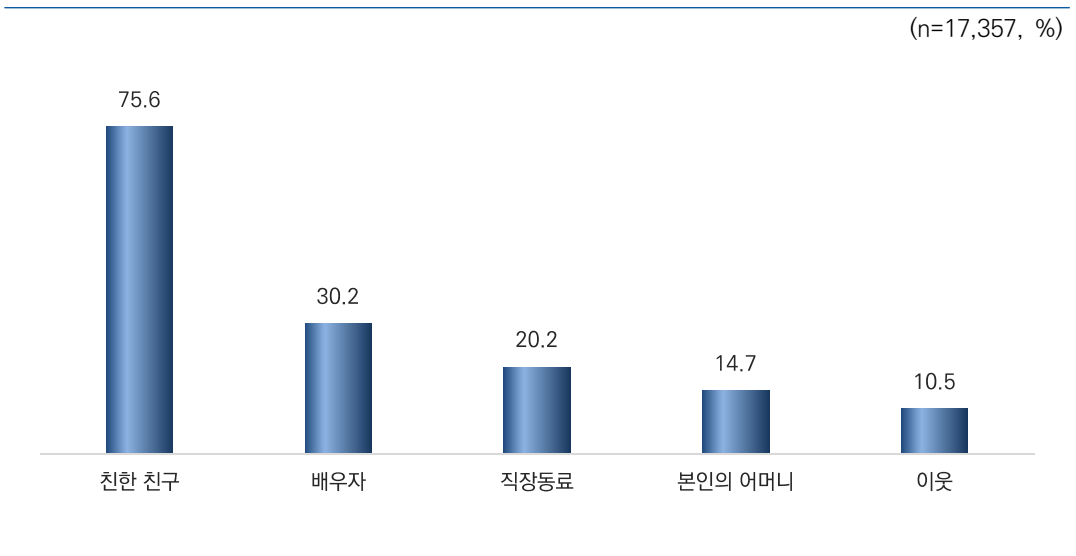
[표 5-84]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상위 5위) : 주관적 인식

구분		n	배우자	본인의 어머니	딸	본인의 아버지	아들
전체		(17357)	52.3	37.3	20.0	15.6	15.0
전반적 행복감	0~4	(1092)	38.5	24.7	19.0	10.9	20.0
	5	(2821)	47.0	29.1	21.5	13.4	17.9
	6~10	(13443)	54.5	40.0	19.7	16.5	14.0
어제 행복감	0~4	(1351)	40.0	27.6	19.1	11.9	18.5
	5	(2983)	46.4	30.0	20.2	13.7	17.5
	6~10	(13023)	54.9	40.0	20.0	16.4	14.1
어제 미소/웃음	0~4	(1760)	43.4	26.5	20.1	11.3	19.8
	5	(3349)	48.6	30.3	21.1	13.5	16.0
	6~10	(12248)	54.6	40.7	19.6	16.8	14.1
사다리 위치	0~4	(2070)	40.1	27.0	22.1	12.1	17.0
	5	(3173)	49.3	32.3	19.6	13.6	15.5
	6~10	(12114)	55.1	40.4	19.7	16.7	14.6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41.7	32.5	16.9	12.5	13.3
	5	(3484)	46.8	33.7	20.3	14.6	16.4
	6~10	(12301)	55.2	38.9	20.3	16.3	14.8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44.0	17.2	24.7	7.1	23.6
	5	(2762)	48.3	25.5	23.9	12.1	19.4
	6~10	(13399)	53.9	41.5	18.7	17.1	13.4

###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 가. 전체 분석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2명까지 묻은 결과 ‘친한 친구’가 75.6%로 가장 많고, ‘배우자’(30.2%), ‘직장동료’(20.2%), ‘본인의 어머니’(14.7%), ‘이웃’(10.5%) 등이 뒤를 이었다.



[그림 5-8]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1+2순위)

## 나. 특성별 분석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에 대해 남자와 여자 모두 ‘친한 친구’(남자 78.4%, 여자 7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친한 친구’ 응답은 연령별로 20대(87.6%)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62.7%)에서 가장 적었다. ‘배우자’ 응답은 40대에서 41.4%로 가장 많았다.

[표 5-85]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상위 5위)

구분		n	친한 친구	배우자	직장동료	본인의 어머니	이웃
전체		(17357)	75.6	30.2	20.2	14.7	10.5
성별	남자	(8615)	78.4	35.1	26.8	12.9	6.6
	여자	(8742)	72.9	25.4	13.8	16.5	14.4
연령별	15~19	(871)	80.5	1.3	1.1	65.1	0.9
	20대	(2550)	87.6	4.7	26.4	38.4	1.4
	30대	(2576)	84.1	28.8	35.8	20.5	2.5
	40대	(3123)	78.5	41.4	24.4	9.7	6.6
	50대	(3304)	75.2	39.1	20.6	3.5	13.1
	60대 이상	(4933)	62.7	36.2	9.4	1.2	21.9

구분		n	친한 친구	배우자	직장동료	본인의 어머니	이웃
지역별	서울	(3301)	78.4	30.7	19.9	17.5	9.7
	부산	(1155)	73.6	27.6	20.1	13.9	11.9
	대구	(800)	85.1	24.4	18.6	11.2	10.8
	인천	(996)	77.7	21.4	34.7	15.6	9.8
	광주	(483)	74.9	33.0	13.4	17.9	9.0
	대전	(490)	76.8	18.1	28.7	13.0	21.8
	울산	(375)	67.0	38.3	10.8	27.8	9.6
	세종	(114)	86.3	18.0	27.0	16.1	15.5
	경기	(4404)	79.4	29.5	21.9	14.7	8.3
	강원	(526)	61.0	39.7	10.4	11.1	9.3
	충북	(540)	59.4	31.8	15.8	21.5	10.8
	충남	(711)	66.9	28.9	22.4	11.1	13.9
	전북	(602)	64.2	39.4	10.2	15.0	6.4
	전남	(627)	73.7	38.7	18.3	10.0	16.4
	경북	(894)	75.3	33.7	16.6	8.1	10.9
	경남	(1116)	76.0	32.2	21.3	12.6	13.8
제주	(224)	73.9	30.6	10.7	14.8	6.6	
학력	중졸 이하	(2863)	60.3	24.5	3.4	16.3	22.9
	고졸	(5401)	73.9	36.4	16.7	5.4	13.8
	대재 이상	(9093)	81.5	28.3	27.6	19.8	4.7
직업유무	있다	(11617)	78.0	33.8	29.2	10.3	8.7
	없다	(5740)	70.9	22.9	2.0	23.7	14.1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74.2	23.7	2.2	27.7	11.1
	200만원 미만	(4187)	66.0	26.8	10.9	9.8	18.6
	200~300만원 미만	(4397)	79.6	28.2	31.1	14.8	7.1
	300~400만원 미만	(2925)	82.4	40.2	35.6	8.5	5.5
	400만원 이상	(1697)	80.9	42.5	33.0	5.6	6.8
혼인상태	미혼	(5170)	85.7	1.2	30.1	37.7	2.0
	기혼	(10451)	72.5	49.4	16.5	5.3	11.8
	사별/이혼/별거	(1736)	64.4	0.8	13.5	3.1	28.0
기초생활 수급여부	해당	(458)	51.1	20.7	8.9	9.3	22.6
	비해당	(16899)	76.3	30.5	20.5	14.9	10.2
가구원수	1인	(1936)	75.2	1.5	29.0	9.5	20.9
	2인 이상	(15421)	75.7	33.8	19.1	15.4	9.2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친한 친구’를 꼽은 응답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많았다.

[표 5-86]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상위 5위) : 주관적 인식

구분		n	친한 친구	배우자	직장동료	본인의 어머니	이웃
전체		(17357)	75.6	30.2	20.2	14.7	10.5
전반적 행복감	0~4	(1092)	65.5	20.9	15.2	10.2	13.9
	5	(2821)	71.8	23.1	19.6	12.7	13.1
	6~10	(13443)	77.3	32.5	20.8	15.5	9.7
어제 행복감	0~4	(1351)	69.6	19.6	14.1	11.0	12.4
	5	(2983)	72.4	23.1	19.7	11.5	12.9
	6~10	(13023)	77.0	32.9	21.0	15.8	9.8
어제 미소/웃음	0~4	(1760)	69.7	20.2	14.2	10.4	13.6
	5	(3349)	74.6	25.8	20.3	10.1	11.4
	6~10	(12248)	76.8	32.9	21.1	16.6	9.8
사다리 위치	0~4	(2070)	68.4	20.7	15.6	10.3	13.5
	5	(3173)	75.8	25.7	21.1	13.3	11.5
	6~10	(12114)	76.9	33.0	20.8	15.9	9.7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71.7	19.2	19.7	13.4	11.5
	5	(3484)	74.4	24.2	19.9	12.9	12.1
	6~10	(12301)	76.5	33.3	20.4	15.4	10.0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61.8	22.4	13.6	7.6	17.5
	5	(2762)	71.3	27.0	17.8	9.5	14.6
	6~10	(13399)	77.8	31.6	21.3	16.5	9.0

## 제 6 절

##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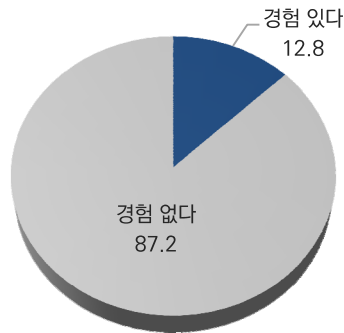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자원봉사활동 경험

#### 가. 전체 분석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지’ 묻은 결과 12.8%는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87.2%는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n=17,357, %)



[그림 5-9]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 나. 특성별 분석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경험자 비율은 남자(13.0%)와 여자(12.7%)가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15~19세(15.7%)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11.2%)이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제주(24.9%), 인천(17.0%), 울산(16.6%) 순으로 많고, 세종(3.4%)에서 가장 적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8.3%), 사별/이혼/별거(7.9%), 1인 가구(10.4%)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자원봉사활동 경험자 비율은 전반적 행복도 긍정 응답자(6~10)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표 5-87] 자원봉사활동 경험

구분		n	경험 있다(%)	경험 없다(%)
전체		(17357)	12.8	87.2
성별	남자	(8615)	13.0	87.0
	여자	(8742)	12.7	87.3
연령별	15~19	(871)	15.7	84.3
	20대	(2550)	12.3	87.7
	30대	(2576)	12.9	87.1
	40대	(3123)	13.6	86.4
	50대	(3304)	14.0	86.0
	60대 이상	(4933)	11.2	88.8

구분		n	경험 있다(%)	경험 없다(%)
지역별	서울	(3301)	14.6	85.4
	부산	(1155)	9.0	91.0
	대구	(800)	7.8	92.2
	인천	(996)	17.0	83.0
	광주	(483)	9.0	91.0
	대전	(490)	6.9	93.1
	울산	(375)	16.6	83.4
	세종	(114)	3.4	96.6
	경기	(4404)	14.8	85.2
	강원	(526)	11.9	88.1
	충북	(540)	13.3	86.7
	충남	(711)	12.0	88.0
	전북	(602)	16.2	83.8
	전남	(627)	7.7	92.3
	경북	(894)	9.9	90.1
	경남	(1116)	9.1	90.9
	제주	(224)	24.9	75.1
학력	중졸 이하	(2863)	8.3	91.7
	고졸	(5401)	11.5	88.5
	대재 이상	(9093)	15.0	85.0
직업유무	있다	(11617)	13.3	86.7
	없다	(5740)	11.9	88.1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2.0	88.0
	200만원 미만	(4187)	10.2	89.8
	200~300만원 미만	(4397)	12.7	87.3
	300~400만원 미만	(2925)	14.9	85.1
	400만원 이상	(1697)	18.1	81.9
혼인상태	미혼	(5170)	12.9	87.1
	기혼	(10451)	13.6	86.4
	사별/이혼/별거	(1736)	7.9	92.1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12.8	87.2
	비해당	(16899)	12.8	87.2
가구원수	1인	(1936)	10.4	89.6
	2인 이상	(15421)	13.1	86.9



‘자원봉사활동’ 경험자 비율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많았다.

[표 5-88] 자원봉사활동 경험 : 주관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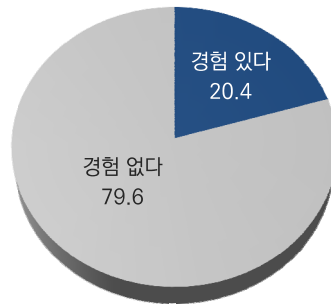
구분		n	경험 있다(%)	경험 없다(%)
전체		(17357)	12.8	87.2
전반적 행복감	0~4	(1092)	11.9	88.1
	5	(2821)	11.7	88.3
	6~10	(13443)	13.1	86.9
어제 행복감	0~4	(1351)	15.1	84.9
	5	(2983)	10.6	89.4
	6~10	(13023)	13.1	86.9
어제 미소/웃음	0~4	(1760)	11.9	88.1
	5	(3349)	11.4	88.6
	6~10	(12248)	13.3	86.7
사다리 위치	0~4	(2070)	8.2	91.8
	5	(3173)	11.1	88.9
	6~10	(12114)	14.1	85.9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14.3	85.7
	5	(3484)	12.3	87.7
	6~10	(12301)	12.8	87.2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10.7	89.3
	5	(2762)	10.6	89.4
	6~10	(13399)	13.4	86.6

## 2 기부 경험

### 가. 전체 분석

‘지난 1년간 현금이나 물품으로 기부한 경험이 있는지’ 물은 결과 24.6%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75.4%는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n=17,357, %)



[그림 5-10]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 나. 특성별 분석

지난 1년간 기부 경험자 비율은 남자(20.6%)와 여자(20.3%)가 비슷했고, 연령별로는 50대(24.0%)가 가장 많고, 15~19세(10.2%)가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제주(28.4%), 대전(26.5%), 경기(25.1%) 순으로 많고, 세종(8.5%)에서 가장 적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8.7%), 직업 없음(14.3%), 사별/이혼/별거(10.3%), 기초생활수급가구(11.2%), 1인 가구(15.5%)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기부 경험자 비율은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 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89] 기부 경험

구분		n	경험 있다(%)	경험 없다(%)
전체		(17357)	20.4	79.6
성별	남자	(8615)	20.6	79.4
	여자	(8742)	20.3	79.7
연령별	15~19	(871)	10.2	89.8
	20대	(2550)	18.4	81.6
	30대	(2576)	24.7	75.3
	40대	(3123)	23.9	76.1
	50대	(3304)	24.0	76.0
	60대 이상	(4933)	16.5	83.5

구분		n	경험 있다(%)	경험 없다(%)
지역별	서울	(3301)	24.6	75.4
	부산	(1155)	16.6	83.4
	대구	(800)	12.2	87.8
	인천	(996)	23.9	76.1
	광주	(483)	18.6	81.4
	대전	(490)	26.5	73.5
	울산	(375)	20.8	79.2
	세종	(114)	8.5	91.5
	경기	(4404)	25.1	74.9
	강원	(526)	12.3	87.7
	충북	(540)	16.3	83.7
	충남	(711)	12.1	87.9
	전북	(602)	23.3	76.7
	전남	(627)	13.7	86.3
	경북	(894)	13.5	86.5
	경남	(1116)	12.9	87.1
	제주	(224)	28.4	71.6
학력	중졸 이하	(2863)	8.7	91.3
	고졸	(5401)	18.9	81.1
	대재 이상	(9093)	25.0	75.0
직업유무	있다	(11617)	23.4	76.6
	없다	(5740)	14.3	85.7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5.4	84.6
	200만원 미만	(4187)	13.3	86.7
	200~300만원 미만	(4397)	22.6	77.4
	300~400만원 미만	(2925)	26.6	73.4
	400만원 이상	(1697)	34.1	65.9
혼인상태	미혼	(5170)	18.3	81.7
	기혼	(10451)	23.2	76.8
	사별/이혼/별거	(1736)	10.3	89.7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11.2	88.8
	비해당	(16899)	20.7	79.3
가구원수	1인	(1936)	15.5	84.5
	2인 이상	(15421)	21.0	79.0

‘기부’ 경험자 비율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많았다.

[표 5-90] 기부 경험 : 주관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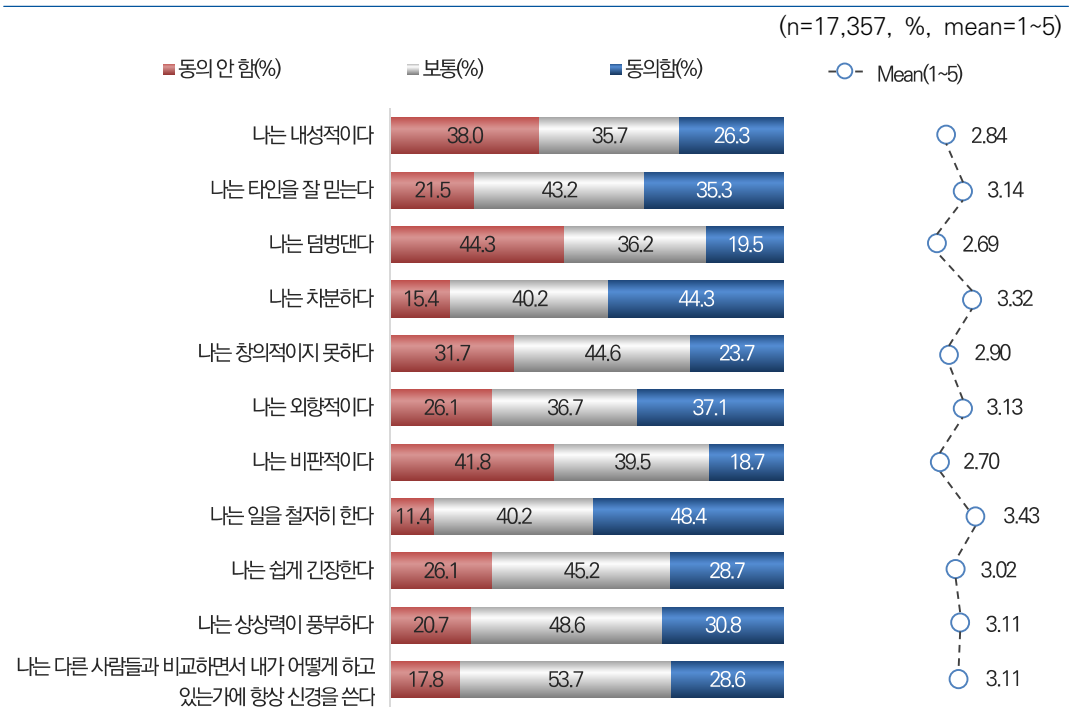
구분		n	경험 있다(%)	경험 없다(%)
전체		(17357)	20.4	79.6
전반적 행복감	0~4	(1092)	12.8	87.2
	5	(2821)	16.4	83.6
	6~10	(13443)	21.9	78.1
어제 행복감	0~4	(1351)	14.2	85.8
	5	(2983)	14.8	85.2
	6~10	(13023)	22.3	77.7
어제 미소/웃음	0~4	(1760)	12.8	87.2
	5	(3349)	17.1	82.9
	6~10	(12248)	22.4	77.6
사다리 위치	0~4	(2070)	13.1	86.9
	5	(3173)	16.8	83.2
	6~10	(12114)	22.6	77.4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18.6	81.4
	5	(3484)	16.3	83.7
	6~10	(12301)	21.8	78.2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13.1	86.9
	5	(2762)	16.8	83.2
	6~10	(13399)	21.8	78.2

## 제 7 절 개인 성향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0 종합 분석

개인 성향과 관련된 11개 항목 각각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나는 일을 철저히 한다'(3.43점), '나는 차분하다'(3.32점), '나는 타인을 잘 믿는다'(3.14점) 순으로 높고, '나는 텀벙댄다'(2.69점)가 가장 낮았다.



[그림 5-11] 타인에 대한 견해

## 1 나는 내성적이다

### 가. 전체 분석

‘나는 내성적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24.1%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40.1%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 정도 평균은 3.17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나는 내성적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2.79점)보다 여자(2.90점)에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2.94점)가 가장 높고 20/50대(2.81점)에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충북(3.07점), 세종(2.97점), 제주(2.96점) 순으로 높고, 부산(2.62점)에서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직업 있음(2.80점), 기혼(2.82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나는 내성적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 부정 응답자(0~4)에서 3.17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5-91] 나는 내성적이다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전체		(17357)	38.0	35.7	26.3	2.84
성별	남자	(8615)	40.1	35.7	24.1	2.79
	여자	(8742)	35.9	35.6	28.5	2.90
연령별	15~19	(871)	31.7	38.9	29.4	2.94
	20대	(2550)	40.9	32.7	26.4	2.81
	30대	(2576)	37.6	36.9	25.5	2.84
	40대	(3123)	37.3	36.1	26.6	2.87
	50대	(3304)	39.1	35.9	25.0	2.81
	60대 이상	(4933)	37.5	35.5	27.0	2.85
지역별	서울	(3301)	37.9	33.4	28.6	2.87
	부산	(1155)	53.2	22.3	24.5	2.62
	대구	(800)	42.2	34.8	23.0	2.79
	인천	(996)	35.6	35.2	29.3	2.91
	광주	(483)	32.5	36.8	30.6	2.87
	대전	(490)	31.9	45.1	23.0	2.89
	울산	(375)	42.7	38.5	18.8	2.70
	세종	(114)	28.0	46.7	25.3	2.97
	경기	(4404)	37.1	37.0	25.9	2.86
	강원	(526)	26.4	55.2	18.4	2.90
	충북	(540)	21.6	49.5	29.0	3.07
	충남	(711)	33.5	33.2	33.4	2.93
	전북	(602)	41.4	31.7	26.9	2.74
	전남	(627)	38.1	37.9	24.0	2.80
	경북	(894)	36.4	38.9	24.6	2.89
	경남	(1116)	48.4	24.8	26.8	2.72
제주	(224)	22.6	57.1	20.3	2.96	
학력	중졸 이하	(2863)	34.4	38.4	27.1	2.88
	고졸	(5401)	39.1	34.6	26.3	2.83
	대재 이상	(9093)	38.5	35.4	26.1	2.83
직업유무	있다	(11617)	39.9	35.8	24.3	2.80
	없다	(5740)	34.1	35.4	30.5	2.94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33.4	35.7	31.0	2.95
	200만원 미만	(4187)	37.2	35.9	26.9	2.86
	200~300만원 미만	(4397)	38.2	37.2	24.6	2.82
	300~400만원 미만	(2925)	41.5	35.4	23.1	2.76
	400만원 이상	(1697)	44.8	31.6	23.5	2.73
혼인상태	미혼	(5170)	37.7	34.6	27.7	2.86
	기혼	(10451)	38.9	35.8	25.3	2.82
	사별/이혼/별거	(1736)	33.5	37.8	28.7	2.93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32.2	33.8	34.0	3.01
	비해당	(16899)	38.2	35.7	26.1	2.84
가구원수	1인	(1936)	37.8	33.7	28.5	2.87
	2인 이상	(15421)	38.0	35.9	26.1	2.84

‘나는 내성적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0~4)에서 높았다.

[표 5-92] 나는 내성적이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38.0	35.7	26.3	2.84
전반적 행복감	0~4	(1092)	27.4	29.7	42.9	3.17
	5	(2821)	31.8	37.4	30.7	2.97
	6~10	(13443)	40.2	35.8	24.1	2.79
어제 행복감	0~4	(1351)	30.0	27.1	43.0	3.14
	5	(2983)	31.5	38.7	29.8	2.97
	6~10	(13023)	40.3	35.8	23.8	2.78
어제 미소/웃음	0~4	(1760)	31.3	28.2	40.5	3.10
	5	(3349)	33.9	38.2	27.9	2.91
	6~10	(12248)	40.1	36.0	23.9	2.78
사다리 위치	0~4	(2070)	30.0	34.2	35.8	3.07
	5	(3173)	33.9	37.9	28.1	2.92
	6~10	(12114)	40.4	35.3	24.2	2.78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34.7	29.5	35.8	3.00
	5	(3484)	34.0	37.5	28.5	2.92
	6~10	(12301)	39.6	35.9	24.5	2.80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29.4	32.9	37.7	3.09
	5	(2762)	32.0	37.0	30.9	2.97
	6~10	(13399)	40.0	35.6	24.4	2.79

## 2 나는 타인을 잘 믿는다

### 가. 전체 분석

‘나는 타인을 잘 믿는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35.3%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21.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 정도 평균은 3.14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나는 타인을 잘 믿는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15점)와 여자(3.13점)가 비슷했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16점)이 가장 높고, 30대(3.09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전남(3.33점), 경남(3.33점), 부산(3.30점) 순으로 높고, 광주(2.88점)에서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대재 이상(3.12점), 미혼(3.10점), 기초생활수급가구(2.91점), 1인 가구(3.11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나는 타인을 잘 믿는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93] 나는 타인을 잘 믿는다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전체		(17357)	21.5	43.2	35.3	3.14
성별	남자	(8615)	21.7	42.1	36.2	3.15
	여자	(8742)	21.3	44.2	34.5	3.13
연령별	15~19	(871)	20.5	47.4	32.1	3.12
	20대	(2550)	21.2	44.6	34.2	3.13
	30대	(2576)	24.1	43.2	32.7	3.09
	40대	(3123)	21.1	42.6	36.3	3.16
	50대	(3304)	20.8	43.6	35.6	3.15
	60대 이상	(4933)	21.1	41.8	37.1	3.16
지역별	서울	(3301)	22.6	38.9	38.5	3.16
	부산	(1155)	15.9	40.2	43.9	3.30
	대구	(800)	30.1	47.9	22.0	2.91
	인천	(996)	23.9	43.4	32.7	3.10
	광주	(483)	30.6	46.4	23.0	2.88
	대전	(490)	19.7	49.5	30.8	3.12
	울산	(375)	25.8	42.9	31.3	3.06
	세종	(114)	6.9	69.1	24.0	3.17
	경기	(4404)	23.0	44.7	32.4	3.09
	강원	(526)	20.9	50.7	28.4	3.06
	충북	(540)	24.2	44.6	31.2	3.05
	충남	(711)	13.6	50.5	35.8	3.23
	전북	(602)	16.8	43.4	39.9	3.25
	전남	(627)	15.3	37.6	47.1	3.33
	경북	(894)	24.4	34.0	41.6	3.17
	경남	(1116)	14.4	40.5	45.1	3.33
제주	(224)	20.3	62.6	17.1	2.90	
학력	중졸 이하	(2863)	20.4	43.6	36.0	3.16
	고졸	(5401)	20.4	43.1	36.5	3.16
	대재 이상	(9093)	22.5	43.1	34.4	3.12
직업유무	있다	(11617)	21.6	43.0	35.3	3.14
	없다	(5740)	21.2	43.5	35.3	3.15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20.8	44.2	34.9	3.14
	200만원 미만	(4187)	21.4	42.5	36.1	3.15
	200~300만원 미만	(4397)	23.0	42.8	34.1	3.11
	300~400만원 미만	(2925)	20.6	42.9	36.5	3.17
	400만원 이상	(1697)	20.9	43.7	35.4	3.15
혼인상태	미혼	(5170)	22.6	44.2	33.3	3.10
	기혼	(10451)	20.8	42.8	36.4	3.16
	사별/이혼/별거	(1736)	22.2	42.6	35.2	3.13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33.9	38.2	28.0	2.91
	비해당	(16899)	21.1	43.3	35.5	3.15
가구원수	1인	(1936)	23.0	43.0	34.0	3.11
	2인 이상	(15421)	21.3	43.2	35.5	3.14

‘나는 타인을 잘 믿는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높았다.

[표 5-94] 나는 타인을 잘 믿는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21.5	43.2	35.3	3.14
전반적 행복감	0~4	(1092)	30.0	46.0	24.1	2.93
	5	(2821)	26.1	46.1	27.8	3.00
	6~10	(13443)	19.8	42.4	37.8	3.19
어제 행복감	0~4	(1351)	31.5	42.4	26.1	2.93
	5	(2983)	26.5	45.9	27.6	3.00
	6~10	(13023)	19.3	42.7	38.1	3.19
어제 미소/웃음	0~4	(1760)	31.3	42.9	25.8	2.93
	5	(3349)	25.5	45.5	29.1	3.03
	6~10	(12248)	19.0	42.6	38.4	3.20
사다리 위치	0~4	(2070)	28.5	43.2	28.3	2.98
	5	(3173)	23.6	45.9	30.4	3.07
	6~10	(12114)	19.7	42.5	37.8	3.19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28.6	45.0	26.4	2.94
	5	(3484)	24.3	47.4	28.3	3.04
	6~10	(12301)	19.8	41.8	38.5	3.19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29.3	42.6	28.0	2.96
	5	(2762)	24.7	45.6	29.7	3.05
	6~10	(13399)	20.1	42.8	37.1	3.17

### 3 나는 덤벙댄다

#### 가. 전체 분석

‘나는 덤벙댄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19.5%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44.3%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 정도 평균은 3.14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나는 덤벙댄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2.70점)가 여자(2.67점)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15~19세(2.95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2.54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2.94점), 강원(2.86점), 충남(2.85점) 순으로 높고, 광주(2.37점)가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2.59점), 사별/이혼/별거(2.55점), 기초생활수급 가구(2.49점), 1인 가구(2.63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나는 덤벙댄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95] 나는 덤벼댄다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전체		(17357)	44.3	36.2	19.5	2.69
성별	남자	(8615)	43.3	37.1	19.7	2.70
	여자	(8742)	45.3	35.3	19.4	2.67
연령별	15~19	(871)	31.7	40.6	27.7	2.95
	20대	(2550)	38.1	37.9	24.0	2.81
	30대	(2576)	42.3	36.3	21.4	2.73
	40대	(3123)	44.5	35.2	20.2	2.69
	50대	(3304)	44.1	36.4	19.4	2.69
	60대 이상	(4933)	50.8	34.8	14.4	2.54
지역별	서울	(3301)	44.7	33.9	21.4	2.72
	부산	(1155)	45.0	34.7	20.3	2.70
	대구	(800)	53.2	30.0	16.7	2.59
	인천	(996)	42.1	35.1	22.8	2.73
	광주	(483)	55.9	31.7	12.4	2.37
	대전	(490)	39.4	46.7	14.0	2.74
	울산	(375)	45.7	40.1	14.2	2.64
	세종	(114)	25.9	54.9	19.2	2.94
	경기	(4404)	42.3	38.1	19.5	2.72
	강원	(526)	33.3	42.9	23.7	2.86
	충북	(540)	35.5	41.0	23.5	2.83
	충남	(711)	34.7	41.7	23.7	2.85
	전북	(602)	57.2	29.6	13.1	2.38
	전남	(627)	54.3	31.2	14.5	2.44
	경북	(894)	49.0	32.7	18.3	2.56
	경남	(1116)	44.0	33.2	22.8	2.73
제주	(224)	40.0	51.4	8.5	2.54	
학력	중졸 이하	(2863)	48.6	35.3	16.1	2.59
	고졸	(5401)	44.3	37.4	18.3	2.67
	대재 이상	(9093)	42.9	35.7	21.4	2.72
직업유무	있다	(11617)	44.1	35.9	20.0	2.69
	없다	(5740)	44.7	36.6	18.7	2.67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42.4	36.6	21.0	2.73
	200만원 미만	(4187)	48.6	36.1	15.4	2.58
	200~300만원 미만	(4397)	42.5	36.8	20.7	2.72
	300~400만원 미만	(2925)	41.1	36.8	22.1	2.76
	400만원 이상	(1697)	48.4	32.7	18.9	2.62
혼인상태	미혼	(5170)	37.8	38.9	23.3	2.81
	기혼	(10451)	46.6	34.9	18.5	2.65
	사별/이혼/별거	(1736)	49.8	35.6	14.5	2.55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51.3	36.2	12.5	2.49
	비해당	(16899)	44.1	36.2	19.7	2.69
가구원수	1인	(1936)	47.3	34.9	17.7	2.63
	2인 이상	(15421)	43.9	36.3	19.8	2.69

‘나는 덤벼댄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높았다.

[표 5-96] 나는 덤벼댄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44.3	36.2	19.5	2.69
전반적 행복감	0~4	(1092)	51.7	34.4	13.9	2.54
	5	(2821)	46.5	36.5	17.0	2.63
	6~10	(13443)	43.2	36.2	20.5	2.71
어제 행복감	0~4	(1351)	52.8	33.4	13.7	2.52
	5	(2983)	47.0	36.5	16.6	2.62
	6~10	(13023)	42.8	36.4	20.8	2.72
어제 미소/웃음	0~4	(1760)	55.7	30.3	14.0	2.47
	5	(3349)	47.6	36.7	15.6	2.61
	6~10	(12248)	41.7	36.9	21.4	2.74
사다리 위치	0~4	(2070)	53.4	32.4	14.2	2.51
	5	(3173)	45.7	36.9	17.4	2.65
	6~10	(12114)	42.4	36.6	21.0	2.73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52.4	29.5	18.0	2.56
	5	(3484)	44.4	38.3	17.3	2.66
	6~10	(12301)	43.2	36.4	20.4	2.71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57.5	29.3	13.2	2.46
	5	(2762)	43.5	39.0	17.5	2.67
	6~10	(13399)	43.3	36.2	20.5	2.71

## 4 나는 차분하다

### 가. 전체 분석

‘나는 차분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44.3%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15.4%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 정도 평균은 3.32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나는 차분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30점)보다 여자(3.33점)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37점)이 가장 높고 15~19세(3.15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광주(3.59점), 전남(3.48점), 전북(3.43점) 순으로 높고 울산(3.13점)이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3.29점), 미혼(3.25점), 기초생활수급가구(3.27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나는 차분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97] 나는 차분하다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전체		(17357)	15.4	40.2	44.3	3.32
성별	남자	(8615)	15.5	41.2	43.3	3.30
	여자	(8742)	15.4	39.3	45.3	3.33
연령별	15~19	(871)	21.9	43.7	34.4	3.15
	20대	(2550)	16.9	41.4	41.6	3.27
	30대	(2576)	16.5	40.2	43.3	3.29
	40대	(3123)	15.0	40.4	44.6	3.33
	50대	(3304)	14.6	41.5	43.9	3.32
	60대 이상	(4933)	13.8	38.1	48.1	3.37
지역별	서울	(3301)	15.0	32.9	52.2	3.41
	부산	(1155)	15.5	37.9	46.6	3.32
	대구	(800)	10.8	41.3	47.8	3.42
	인천	(996)	17.1	36.5	46.4	3.33
	광주	(483)	9.3	34.7	56.0	3.59
	대전	(490)	10.5	52.5	37.0	3.28
	울산	(375)	15.8	56.0	28.2	3.13
	세종	(114)	11.7	45.0	43.2	3.38
	경기	(4404)	18.0	40.6	41.5	3.25
	강원	(526)	16.3	53.3	30.4	3.16
	충북	(540)	16.7	47.9	35.3	3.20
	충남	(711)	16.7	51.3	32.0	3.16
	전북	(602)	14.0	35.7	50.3	3.43
	전남	(627)	10.1	37.6	52.3	3.48
	경북	(894)	12.5	45.3	42.2	3.32
	경남	(1116)	18.9	35.6	45.5	3.28
제주	(224)	11.2	61.8	27.0	3.15	
학력	중졸 이하	(2863)	16.1	41.2	42.8	3.29
	고졸	(5401)	14.1	40.6	45.2	3.34
	대재 이상	(9093)	16.0	39.7	44.2	3.31
직업유무	있다	(11617)	15.0	40.5	44.5	3.32
	없다	(5740)	16.3	39.7	44.0	3.30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6.9	38.7	44.4	3.30
	200만원 미만	(4187)	13.2	43.7	43.1	3.33
	200~300만원 미만	(4397)	15.4	41.4	43.2	3.31
	300~400만원 미만	(2925)	17.0	38.0	45.0	3.30
	400만원 이상	(1697)	14.7	36.4	48.9	3.38
혼인상태	미혼	(5170)	17.7	42.2	40.1	3.25
	기혼	(10451)	14.4	39.2	46.4	3.35
	사별/이혼/별거	(1736)	15.1	40.3	44.6	3.31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15.7	42.0	42.3	3.27
	비해당	(16899)	15.4	40.2	44.4	3.32
가구원수	1인	(1936)	15.0	41.3	43.8	3.31
	2인 이상	(15421)	15.5	40.1	44.4	3.32

‘나는 차분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높았다.

[표 5-98] 나는 차분하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15.4	40.2	44.3	3.32
전반적 행복감	0~4	(1092)	18.0	44.9	37.1	3.19
	5	(2821)	16.7	43.2	40.2	3.26
	6~10	(13443)	15.0	39.2	45.8	3.34
어제 행복감	0~4	(1351)	20.7	40.1	39.3	3.19
	5	(2983)	16.0	44.0	40.0	3.27
	6~10	(13023)	14.8	39.4	45.8	3.34
어제 미소/웃음	0~4	(1760)	18.2	39.8	42.0	3.26
	5	(3349)	14.3	42.8	42.9	3.32
	6~10	(12248)	15.4	39.6	45.0	3.32
사다리 위치	0~4	(2070)	17.3	41.0	41.7	3.26
	5	(3173)	14.8	41.0	44.2	3.33
	6~10	(12114)	15.3	39.9	44.8	3.32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20.9	39.1	39.9	3.20
	5	(3484)	16.9	44.6	38.5	3.24
	6~10	(12301)	14.3	39.1	46.5	3.35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19.0	43.6	37.4	3.19
	5	(2762)	15.1	42.5	42.4	3.30
	6~10	(13399)	15.2	39.5	45.3	3.33

## 5 나는 창의적이지 못하다

### 가. 전체 분석

‘나는 창의적이지 못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23.7%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31.7%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 정도 평균은 2.90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나는 창의적이지 못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2.90점)와 여자(2.91점)가 비슷했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2.97점)이 가장 높고 20대(2.83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광주(3.04점), 서울(2.97점), 강원(2.97점) 순으로 높고, 전북(2.73점)이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대재 이상(2.87점), 직업 있음(2.89점), 미혼(2.86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나는 창의적이지 못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표 5-99] 나는 창의적이지 못하다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전체		(17357)	31.7	44.6	23.7	2.90
성별	남자	(8615)	31.4	45.5	23.1	2.90
	여자	(8742)	32.0	43.7	24.3	2.91
연령별	15~19	(871)	32.6	46.5	20.9	2.86
	20대	(2550)	36.3	41.9	21.8	2.83
	30대	(2576)	34.2	45.0	20.8	2.85
	40대	(3123)	32.1	44.1	23.8	2.90
	50대	(3304)	29.7	46.2	24.2	2.93
	60대 이상	(4933)	29.0	44.7	26.3	2.97
지역별	서울	(3301)	28.6	43.8	27.7	2.97
	부산	(1155)	31.9	42.5	25.6	2.92
	대구	(800)	31.1	51.5	17.4	2.86
	인천	(996)	37.7	39.7	22.5	2.81
	광주	(483)	22.7	50.6	26.7	3.04
	대전	(490)	29.1	53.5	17.4	2.89
	울산	(375)	42.6	39.9	17.5	2.75
	세종	(114)	24.8	56.1	19.1	2.95
	경기	(4404)	31.9	44.1	24.0	2.91
	강원	(526)	25.5	50.1	24.4	2.97
	충북	(540)	25.0	53.1	21.9	2.96
	충남	(711)	35.3	43.2	21.5	2.86
	전북	(602)	40.0	42.6	17.4	2.73
	전남	(627)	36.9	41.4	21.7	2.78
	경북	(894)	33.5	39.9	26.6	2.97
	경남	(1116)	32.7	41.7	25.6	2.92
제주	(224)	28.3	62.3	9.5	2.75	
학력	중졸 이하	(2863)	29.5	45.3	25.3	2.96
	고졸	(5401)	29.0	46.3	24.7	2.94
	대재 이상	(9093)	34.0	43.3	22.6	2.87
직업유무	있다	(11617)	32.2	44.6	23.2	2.89
	없다	(5740)	30.7	44.6	24.7	2.93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31.7	44.6	23.6	2.90
	200만원 미만	(4187)	29.9	45.1	25.0	2.96
	200~300만원 미만	(4397)	32.7	43.9	23.5	2.89
	300~400만원 미만	(2925)	29.8	46.4	23.9	2.92
	400만원 이상	(1697)	37.0	42.0	21.1	2.79
혼인상태	미혼	(5170)	34.2	43.4	22.4	2.86
	기혼	(10451)	31.0	45.4	23.5	2.91
	사별/이혼/별거	(1736)	28.3	42.9	28.8	3.01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21.6	44.1	34.2	3.18
	비해당	(16899)	32.0	44.6	23.4	2.90
가구원수	1인	(1936)	31.2	43.7	25.1	2.92
	2인 이상	(15421)	31.8	44.7	23.5	2.90

‘나는 창의적이지 못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0~4)에서 높았다.

**[표 5-100] 나는 창의적이지 못하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31.7	44.6	23.7	2.90
전반적 행복감	0~4	(1092)	29.5	38.3	32.2	3.03
	5	(2821)	29.0	47.3	23.7	2.94
	6~10	(13443)	32.4	44.5	23.0	2.89
어제 행복감	0~4	(1351)	32.1	35.4	32.5	3.02
	5	(2983)	27.9	48.4	23.7	2.96
	6~10	(13023)	32.5	44.7	22.8	2.88
어제 미소/웃음	0~4	(1760)	30.4	37.8	31.8	3.03
	5	(3349)	28.2	48.0	23.7	2.96
	6~10	(12248)	32.8	44.6	22.5	2.87
사다리 위치	0~4	(2070)	32.9	38.6	28.6	2.96
	5	(3173)	28.8	48.1	23.1	2.93
	6~10	(12114)	32.3	44.7	23.0	2.89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31.1	40.5	28.4	2.98
	5	(3484)	28.8	47.4	23.8	2.94
	6~10	(12301)	32.6	44.3	23.1	2.88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32.6	36.7	30.7	2.99
	5	(2762)	27.8	46.9	25.3	2.97
	6~10	(13399)	32.4	44.8	22.8	2.88

## 6 나는 외향적이다

### 가. 전체 분석

‘나는 외향적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37.1%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26.1%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 정도 평균은 3.13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나는 외향적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17점)가 여자(3.08점)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3.21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3.03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부산(3.25점), 경남(3.25점), 인천(3.24점) 순으로 높고, 전북(2.93점)이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3.00점), 직업 없음(3.02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3.04점), 사별/이혼/별거(2.94점), 기초생활수급가구(2.76점), 1인 가구(3.02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나는 외향적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101] 나는 외향적이다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전체		(17357)	26.1	36.7	37.1	3.13
성별	남자	(8615)	24.1	37.0	38.9	3.17
	여자	(8742)	28.1	36.5	35.4	3.08
연령별	15~19	(871)	24.8	37.7	37.6	3.14
	20대	(2550)	22.7	36.1	41.2	3.21
	30대	(2576)	24.1	36.7	39.2	3.18
	40대	(3123)	25.9	35.6	38.5	3.15
	50대	(3304)	26.3	36.8	36.9	3.13
	60대 이상	(4933)	29.3	37.6	33.1	3.03
지역별	서울	(3301)	25.8	31.8	42.4	3.19
	부산	(1155)	21.5	34.0	44.5	3.25
	대구	(800)	32.1	40.6	27.4	2.96
	인천	(996)	24.3	31.8	43.9	3.24
	광주	(483)	30.8	36.6	32.6	3.06
	대전	(490)	16.6	57.4	26.0	3.09
	울산	(375)	20.0	49.6	30.4	3.10
	세종	(114)	16.3	49.3	34.4	3.20
	경기	(4404)	28.6	33.5	37.9	3.10
	강원	(526)	21.9	45.7	32.4	3.14
	충북	(540)	24.8	52.2	23.0	2.97
	충남	(711)	31.5	29.2	39.3	3.10
	전북	(602)	28.4	45.8	25.8	2.93
	전남	(627)	30.1	41.0	28.9	3.00
	경북	(894)	26.2	41.3	32.6	3.08
	경남	(1116)	23.5	31.6	45.0	3.25
제주	(224)	10.9	60.1	29.0	3.22	
학력	중졸 이하	(2863)	29.7	38.9	31.4	3.00
	고졸	(5401)	26.9	37.2	35.9	3.10
	대재 이상	(9093)	24.6	35.8	39.7	3.18
직업유무	있다	(11617)	24.0	37.3	38.7	3.18
	없다	(5740)	30.5	35.7	33.8	3.02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29.8	35.5	34.7	3.05
	200만원 미만	(4187)	28.9	37.8	33.3	3.04
	200~300만원 미만	(4397)	24.0	38.1	37.9	3.17
	300~400만원 미만	(2925)	22.4	36.4	41.2	3.22
	400만원 이상	(1697)	22.2	34.2	43.6	3.25
혼인상태	미혼	(5170)	24.6	36.0	39.4	3.17
	기혼	(10451)	25.7	37.1	37.2	3.13
	사별/이혼/별거	(1736)	33.4	36.6	30.0	2.94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41.6	32.2	26.2	2.76
	비해당	(16899)	25.7	36.9	37.4	3.14
가구원수	1인	(1936)	30.3	36.1	33.6	3.02
	2인 이상	(15421)	25.6	36.8	37.6	3.14

‘나는 외향적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높았다.

[표 5-102] 나는 외향적이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26.1	36.7	37.1	3.13
전반적 행복감	0~4	(1092)	45.4	29.5	25.2	2.71
	5	(2821)	33.8	37.4	28.8	2.95
	6~10	(13443)	23.0	37.2	39.8	3.20
어제 행복감	0~4	(1351)	45.3	27.1	27.5	2.74
	5	(2983)	32.3	38.8	28.9	2.97
	6~10	(13023)	22.7	37.3	40.0	3.20
어제 미소/웃음	0~4	(1760)	43.2	27.6	29.3	2.80
	5	(3349)	30.6	39.4	30.1	3.02
	6~10	(12248)	22.5	37.3	40.2	3.20
사다리 위치	0~4	(2070)	38.5	36.0	25.5	2.81
	5	(3173)	29.1	38.4	32.4	3.04
	6~10	(12114)	23.2	36.4	40.3	3.20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39.2	26.6	34.2	2.94
	5	(3484)	30.1	38.4	31.5	3.02
	6~10	(12301)	23.3	37.6	39.1	3.18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43.2	29.9	26.8	2.77
	5	(2762)	31.1	39.1	29.8	2.99
	6~10	(13399)	23.6	36.9	39.6	3.18

## 7 나는 비판적이다

### 가. 전체 분석

‘나는 비판적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18.7%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41.8%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 정도 평균은 2.70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나는 비판적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2.65점)가 여자(2.66점)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2.66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2.64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경기(2.85점), 충남(2.85점), 세종(2.81점) 순으로 높고, 전북(2.32점)이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2.56점), 직업 없음(2.64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2.61점), 사별/이혼/별거(2.61점), 기초생활수급가구(2.59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나는 비판적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표 5-103] 나는 비판적이다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전체		(17357)	41.8	39.5	18.7	2.70
성별	남자	(8615)	39.6	40.2	20.2	2.75
	여자	(8742)	44.1	38.8	17.2	2.66
연령별	15~19	(871)	41.3	43.2	15.5	2.68
	20대	(2550)	41.7	38.9	19.4	2.72
	30대	(2576)	39.4	40.8	19.7	2.76
	40대	(3123)	41.3	39.6	19.1	2.72
	50대	(3304)	40.9	39.8	19.4	2.73
	60대 이상	(4933)	44.3	38.2	17.5	2.64
지역별	서울	(3301)	38.8	38.9	22.3	2.78
	부산	(1155)	51.8	31.7	16.5	2.55
	대구	(800)	43.8	43.0	13.3	2.67
	인천	(996)	39.5	39.0	21.5	2.73
	광주	(483)	55.4	34.2	10.4	2.37
	대전	(490)	36.5	49.7	13.8	2.74
	울산	(375)	59.6	29.7	10.7	2.47
	세종	(114)	27.7	56.7	15.7	2.81
	경기	(4404)	35.3	42.3	22.4	2.85
	강원	(526)	36.4	47.9	15.7	2.73
	충북	(540)	35.1	48.1	16.8	2.80
	충남	(711)	38.0	38.9	23.1	2.85
	전북	(602)	57.0	31.4	11.6	2.32
	전남	(627)	47.9	42.6	9.5	2.43
	경북	(894)	49.7	34.4	15.9	2.53
	경남	(1116)	52.7	29.0	18.2	2.55
제주	(224)	26.5	66.2	7.3	2.71	
학력	중졸 이하	(2863)	46.7	39.8	13.5	2.56
	고졸	(5401)	42.4	38.7	18.8	2.70
	대재 이상	(9093)	39.9	39.9	20.2	2.75
직업유무	있다	(11617)	40.6	39.8	19.6	2.73
	없다	(5740)	44.3	38.9	16.7	2.64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43.5	39.5	17.0	2.66
	200만원 미만	(4187)	44.4	40.2	15.4	2.61
	200~300만원 미만	(4397)	40.2	38.7	21.1	2.76
	300~400만원 미만	(2925)	39.6	39.5	20.9	2.76
	400만원 이상	(1697)	39.7	39.6	20.7	2.76
혼인상태	미혼	(5170)	39.2	41.2	19.6	2.75
	기혼	(10451)	42.7	38.6	18.8	2.69
	사별/이혼/별거	(1736)	44.9	40.0	15.1	2.61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44.5	38.8	16.7	2.59
	비해당	(16899)	41.8	39.5	18.7	2.70
가구원수	1인	(1936)	42.0	40.0	18.0	2.68
	2인 이상	(15421)	41.8	39.4	18.7	2.70

‘나는 비판적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0~4)에서 높았다.

[표 5-104] 나는 비판적이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41.8	39.5	18.7	2.70
전반적 행복감	0~4	(1092)	32.9	42.9	24.2	2.86
	5	(2821)	39.2	43.0	17.9	2.73
	6~10	(13443)	43.1	38.5	18.4	2.68
어제 행복감	0~4	(1351)	32.8	41.3	25.9	2.88
	5	(2983)	39.2	42.1	18.7	2.75
	6~10	(13023)	43.4	38.7	17.9	2.67
어제 미소/웃음	0~4	(1760)	37.5	40.0	22.5	2.77
	5	(3349)	40.8	41.1	18.0	2.73
	6~10	(12248)	42.8	39.0	18.3	2.69
사다리 위치	0~4	(2070)	42.9	38.2	18.9	2.66
	5	(3173)	39.4	41.8	18.8	2.73
	6~10	(12114)	42.3	39.1	18.6	2.70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40.2	37.4	22.5	2.77
	5	(3484)	40.5	41.6	17.9	2.71
	6~10	(12301)	42.4	39.2	18.4	2.69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39.1	39.3	21.7	2.77
	5	(2762)	39.4	41.8	18.8	2.73
	6~10	(13399)	42.6	39.0	18.4	2.69

## 8 나는 일을 철저히 한다

### 가. 전체 분석

‘나는 일을 철저히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48.4%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11.4%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 정도 평균은 3.43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나는 일을 철저히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47점)가 여자(3.40점)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3.49점)가 가장 높고 15~19세(3.25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광주(3.74점), 전남(3.54점), 전북(3.52점) 순으로 높고, 울산(3.14점)이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3.27점), 직업 없음(3.30점), 개인소득 없음(3.33점), 사별/이혼/별거(3.31점), 기초생활수급가구(3.15점), 1인 가구(3.39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나는 일을 철저히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105] 나는 일을 철저히 한다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전체		(17357)	11.4	40.2	48.4	3.43
성별	남자	(8615)	10.5	39.4	50.1	3.47
	여자	(8742)	12.3	41.0	46.7	3.40
연령별	15~19	(871)	14.6	48.8	36.6	3.25
	20대	(2550)	10.6	41.9	47.5	3.43
	30대	(2576)	10.1	37.5	52.4	3.49
	40대	(3123)	11.1	38.1	50.8	3.47
	50대	(3304)	10.7	39.2	50.2	3.46
	60대 이상	(4933)	12.6	41.3	46.0	3.38
지역별	서울	(3301)	11.6	34.2	54.2	3.50
	부산	(1155)	11.1	37.3	51.6	3.42
	대구	(800)	9.6	41.6	48.8	3.46
	인천	(996)	13.4	34.3	52.4	3.45
	광주	(483)	3.9	37.4	58.7	3.74
	대전	(490)	8.4	40.1	51.6	3.47
	울산	(375)	15.0	56.1	28.9	3.14
	세종	(114)	8.3	51.2	40.5	3.33
	경기	(4404)	13.7	41.5	44.8	3.37
	강원	(526)	8.6	43.0	48.4	3.48
	충북	(540)	16.4	47.0	36.6	3.25
	충남	(711)	9.4	49.6	41.0	3.34
	전북	(602)	10.0	36.2	53.8	3.52
	전남	(627)	6.6	39.6	53.9	3.54
	경북	(894)	7.6	41.9	50.5	3.52
	경남	(1116)	13.3	42.2	44.5	3.34
제주	(224)	5.1	58.9	36.0	3.36	
학력	중졸 이하	(2863)	13.8	48.0	38.3	3.27
	고졸	(5401)	11.2	40.7	48.2	3.43
	대재 이상	(9093)	10.8	37.5	51.7	3.48
직업유무	있다	(11617)	10.2	37.6	52.2	3.49
	없다	(5740)	13.9	45.5	40.6	3.30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3.4	44.5	42.2	3.33
	200만원 미만	(4187)	12.0	44.3	43.7	3.36
	200~300만원 미만	(4397)	10.5	38.8	50.7	3.47
	300~400만원 미만	(2925)	9.9	37.1	53.0	3.51
	400만원 이상	(1697)	10.2	28.8	61.1	3.63
혼인상태	미혼	(5170)	11.4	41.6	47.0	3.41
	기혼	(10451)	11.0	38.7	50.3	3.46
	사별/이혼/별거	(1736)	13.6	45.1	41.3	3.31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20.9	44.4	34.7	3.15
	비해당	(16899)	11.2	40.1	48.7	3.44
가구원수	1인	(1936)	11.7	41.9	46.4	3.39
	2인 이상	(15421)	11.4	40.0	48.6	3.44

‘나는 일을 철저히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높았다.

[표 5-106] 나는 일을 철저히 한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11.4	40.2	48.4	3.43
전반적 행복감	0~4	(1092)	20.0	39.5	40.5	3.26
	5	(2821)	12.0	45.3	42.7	3.37
	6~10	(13443)	10.6	39.2	50.2	3.46
어제 행복감	0~4	(1351)	18.3	39.1	42.6	3.31
	5	(2983)	12.8	44.0	43.2	3.37
	6~10	(13023)	10.4	39.5	50.2	3.46
어제 미소/웃음	0~4	(1760)	17.2	42.0	40.8	3.29
	5	(3349)	11.7	41.8	46.5	3.41
	6~10	(12248)	10.5	39.5	50.0	3.46
사다리 위치	0~4	(2070)	15.8	41.5	42.7	3.31
	5	(3173)	10.5	43.0	46.5	3.42
	6~10	(12114)	10.9	39.3	49.8	3.45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15.0	42.3	42.7	3.32
	5	(3484)	13.2	41.9	44.8	3.38
	6~10	(12301)	10.4	39.5	50.1	3.46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20.4	41.2	38.3	3.22
	5	(2762)	12.4	44.0	43.6	3.36
	6~10	(13399)	10.4	39.4	50.2	3.46

## 9 나는 쉽게 긴장한다

### 가. 전체 분석

‘나는 쉽게 긴장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28.7%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26.1%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 정도 평균은 3.02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나는 쉽게 긴장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00점)와 여자(3.03점)가 비슷했고, 연령별로는 15~19세/20대(3.09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2.93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충남(3.11점), 경기(3.10점), 서울(3.09점) 순으로 높고, 전북(2.64점)이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2.92점), 사별/이혼/별거(2.97점), 기초생활수급 가구(2.98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나는 쉽게 긴장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표 5-107] 나는 쉽게 긴장한다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전체		(17357)	26.1	45.2	28.7	3.02
성별	남자	(8615)	26.9	45.6	27.6	3.00
	여자	(8742)	25.3	44.9	29.8	3.03
연령별	15~19	(871)	20.9	49.6	29.5	3.09
	20대	(2550)	24.1	43.3	32.7	3.09
	30대	(2576)	24.5	45.7	29.8	3.06
	40대	(3123)	25.0	44.9	30.1	3.05
	50대	(3304)	25.6	46.1	28.3	3.01
	60대 이상	(4933)	29.9	44.8	25.3	2.93
지역별	서울	(3301)	24.5	43.0	32.6	3.09
	부산	(1155)	26.0	41.7	32.4	3.05
	대구	(800)	31.3	41.8	26.9	2.95
	인천	(996)	25.8	43.2	31.0	3.05
	광주	(483)	29.4	45.9	24.7	2.90
	대전	(490)	22.4	49.8	27.8	3.06
	울산	(375)	35.8	42.5	21.7	2.84
	세종	(114)	15.0	66.6	18.4	3.03
	경기	(4404)	21.8	48.1	30.1	3.10
	강원	(526)	22.8	48.6	28.5	3.06
	충북	(540)	26.8	48.6	24.7	2.96
	충남	(711)	19.6	51.2	29.2	3.11
	전북	(602)	42.6	39.1	18.3	2.64
	전남	(627)	36.8	42.0	21.2	2.78
	경북	(894)	33.2	41.7	25.1	2.89
	경남	(1116)	26.6	42.6	30.7	3.03
제주	(224)	28.5	60.6	10.9	2.71	
학력	중졸 이하	(2863)	29.6	45.7	24.6	2.92
	고졸	(5401)	26.7	45.8	27.5	3.00
	대재 이상	(9093)	24.6	44.7	30.7	3.06
직업유무	있다	(11617)	26.7	45.2	28.0	3.00
	없다	(5740)	24.8	45.2	30.1	3.04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23.3	45.3	31.4	3.07
	200만원 미만	(4187)	28.3	44.5	27.2	2.97
	200~300만원 미만	(4397)	25.7	46.0	28.3	3.03
	300~400만원 미만	(2925)	26.0	46.2	27.8	3.01
	400만원 이상	(1697)	28.5	43.1	28.4	2.98
혼인상태	미혼	(5170)	23.0	45.4	31.6	3.09
	기혼	(10451)	27.3	45.1	27.6	2.99
	사별/이혼/별거	(1736)	28.0	45.4	26.6	2.97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30.5	40.5	29.0	2.98
	비해당	(16899)	26.0	45.3	28.7	3.02
가구원수	1인	(1936)	26.5	45.0	28.5	3.01
	2인 이상	(15421)	26.0	45.2	28.7	3.02

‘나는 쉽게 긴장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0~4)에서 높았다.

[표 5-108] 나는 쉽게 긴장한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26.1	45.2	28.7	3.02
전반적 행복감	0~4	(1092)	25.5	41.0	33.5	3.10
	5	(2821)	25.0	46.6	28.4	3.03
	6~10	(13443)	26.4	45.3	28.4	3.01
어제 행복감	0~4	(1351)	25.7	40.4	34.0	3.10
	5	(2983)	24.8	46.4	28.8	3.04
	6~10	(13023)	26.4	45.5	28.1	3.00
어제 미소/웃음	0~4	(1760)	28.7	38.8	32.4	3.04
	5	(3349)	25.5	45.9	28.6	3.03
	6~10	(12248)	25.9	45.9	28.2	3.01
사다리 위치	0~4	(2070)	27.9	41.1	30.9	3.04
	5	(3173)	25.6	48.1	26.3	3.01
	6~10	(12114)	25.9	45.2	28.9	3.02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26.3	39.9	33.8	3.09
	5	(3484)	24.6	48.5	26.9	3.02
	6~10	(12301)	26.5	45.0	28.5	3.01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28.1	43.0	28.9	3.02
	5	(2762)	24.2	47.0	28.8	3.04
	6~10	(13399)	26.3	45.1	28.7	3.01

## 10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 가. 전체 분석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30.8%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20.7%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 정도 평균은 3.11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13점)가 여자(3.09점)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15~19세/20대(3.29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2.93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인천(3.27점), 부산(3.23점), 강원(3.22점) 순으로 높고, 경북(2.88점)이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2.90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2.97점), 사별/이혼/별거(2.88점), 기초생활수급가구(2.67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109]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전체		(17357)	20.7	48.6	30.8	3.11
성별	남자	(8615)	19.9	49.1	31.1	3.13
	여자	(8742)	21.4	48.1	30.5	3.09
연령별	15~19	(871)	13.7	46.1	40.2	3.29
	20대	(2550)	14.3	46.5	39.2	3.29
	30대	(2576)	15.3	49.4	35.3	3.23
	40대	(3123)	20.6	49.4	30.1	3.11
	50대	(3304)	19.5	50.6	29.9	3.11
	60대 이상	(4933)	28.8	47.7	23.5	2.93
지역별	서울	(3301)	20.1	47.7	32.2	3.14
	부산	(1155)	15.0	46.9	38.1	3.23
	대구	(800)	26.2	48.0	25.7	2.99
	인천	(996)	16.2	43.8	40.0	3.27
	광주	(483)	32.2	42.7	25.1	2.88
	대전	(490)	15.8	61.6	22.6	3.07
	울산	(375)	14.5	63.6	21.9	3.08
	세종	(114)	10.4	68.5	21.0	3.11
	경기	(4404)	20.7	47.6	31.7	3.13
	강원	(526)	16.0	51.0	33.1	3.22
	충북	(540)	23.0	57.0	20.0	2.99
	충남	(711)	16.5	54.1	29.4	3.14
	전북	(602)	26.3	49.3	24.5	2.97
	전남	(627)	28.9	48.5	22.6	2.93
	경북	(894)	32.0	42.9	25.2	2.88
	경남	(1116)	18.0	42.1	39.9	3.22
제주	(224)	7.0	69.8	23.2	3.16	
학력	중졸 이하	(2863)	29.7	47.9	22.4	2.90
	고졸	(5401)	22.0	51.0	27.0	3.05
	대재 이상	(9093)	17.0	47.3	35.7	3.21
직업유무	있다	(11617)	20.2	49.2	30.6	3.12
	없다	(5740)	21.7	47.2	31.2	3.10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9.3	46.6	34.1	3.16
	200만원 미만	(4187)	26.4	48.7	24.8	2.97
	200~300만원 미만	(4397)	19.3	50.0	30.7	3.13
	300~400만원 미만	(2925)	17.3	50.4	32.3	3.17
	400만원 이상	(1697)	19.0	46.1	34.9	3.20
혼인상태	미혼	(5170)	15.9	46.2	37.9	3.25
	기혼	(10451)	21.4	49.7	28.9	3.08
	사별/이혼/별거	(1736)	30.2	48.7	21.1	2.88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41.3	42.0	16.7	2.67
	비해당	(16899)	20.1	48.7	31.2	3.12
가구원수	1인	(1936)	26.2	45.4	28.4	3.02
	2인 이상	(15421)	20.0	49.0	31.1	3.12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높았다.

**[표 5-110]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20.7	48.6	30.8	3.11
전반적 행복감	0~4	(1092)	36.4	42.4	21.1	2.83
	5	(2821)	26.5	48.9	24.6	2.97
	6~10	(13443)	18.1	49.0	32.9	3.16
어제 행복감	0~4	(1351)	35.2	39.4	25.4	2.90
	5	(2983)	25.1	50.5	24.4	2.99
	6~10	(13023)	18.1	49.1	32.8	3.16
어제 미소/웃음	0~4	(1760)	36.3	38.9	24.8	2.86
	5	(3349)	24.1	51.0	24.9	3.01
	6~10	(12248)	17.5	49.3	33.3	3.17
사다리 위치	0~4	(2070)	36.4	42.8	20.8	2.81
	5	(3173)	24.2	50.4	25.5	3.02
	6~10	(12114)	17.1	49.1	33.9	3.19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30.4	41.8	27.8	2.97
	5	(3484)	23.9	49.6	26.5	3.03
	6~10	(12301)	18.5	49.1	32.4	3.15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40.9	39.6	19.5	2.74
	5	(2762)	25.8	49.2	25.0	2.99
	6~10	(13399)	17.8	49.2	33.0	3.17

## 11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항상 신경을 쓴다

### 가. 전체 분석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항상 신경을 쓴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28.6%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17.8%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 정도 평균은 3.11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항상 신경을 쓴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11점)와 여자(3.11점)가 같았고, 연령별로는 15~19세(3.15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3.03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광주(3.25점), 인천(3.22점), 서울(3.21점) 순으로 높고 울산(2.80점)이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2.97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3.03점), 사별/이혼/별거(3.03점), 기초생활수급가구(2.94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항상 신경을 쓴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111]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항상 신경을 쓴다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전체		(17357)	17.8	53.7	28.6	3.11
성별	남자	(8615)	18.1	53.3	28.6	3.11
	여자	(8742)	17.5	54.0	28.5	3.11
연령별	15~19	(871)	15.0	56.6	28.4	3.15
	20대	(2550)	15.3	53.4	31.3	3.17
	30대	(2576)	15.7	53.3	31.0	3.17
	40대	(3123)	17.1	52.3	30.5	3.14
	50대	(3304)	17.6	55.4	27.0	3.10
	60대 이상	(4933)	21.2	53.1	25.7	3.03
지역별	서울	(3301)	15.7	49.7	34.6	3.21
	부산	(1155)	16.4	55.6	28.0	3.10
	대구	(800)	26.6	56.3	17.1	2.89
	인천	(996)	13.6	50.1	36.3	3.22
	광주	(483)	18.6	39.6	41.8	3.25
	대전	(490)	15.1	62.2	22.7	3.07
	울산	(375)	30.3	57.6	12.1	2.80
	세종	(114)	8.1	72.9	19.0	3.11
	경기	(4404)	16.3	54.8	28.9	3.15
	강원	(526)	12.2	59.0	28.8	3.19
	충북	(540)	12.6	66.9	20.6	3.08
	충남	(711)	14.3	57.7	28.0	3.15
	전북	(602)	28.9	48.9	22.2	2.87
	전남	(627)	18.0	56.4	25.6	3.04
	경북	(894)	25.4	50.6	24.0	2.97
	경남	(1116)	20.7	49.6	29.7	3.07
제주	(224)	20.1	61.2	18.7	2.88	
학력	중졸 이하	(2863)	22.4	55.8	21.8	2.97
	고졸	(5401)	17.5	55.1	27.4	3.10
	대재 이상	(9093)	16.5	52.1	31.4	3.16
직업유무	있다	(11617)	17.4	53.5	29.1	3.12
	없다	(5740)	18.6	54.0	27.5	3.09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7.1	53.9	29.0	3.13
	200만원 미만	(4187)	20.9	54.5	24.6	3.03
	200~300만원 미만	(4397)	16.9	55.0	28.0	3.11
	300~400만원 미만	(2925)	16.2	54.0	29.8	3.14
	400만원 이상	(1697)	16.7	46.8	36.5	3.22
혼인상태	미혼	(5170)	15.4	54.1	30.5	3.17
	기혼	(10451)	18.4	53.3	28.2	3.10
	사별/이혼/별거	(1736)	20.9	54.3	24.8	3.03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24.9	54.6	20.6	2.94
	비해당	(16899)	17.6	53.6	28.8	3.11
가구원수	1인	(1936)	19.5	52.5	28.1	3.09
	2인 이상	(15421)	17.6	53.8	28.6	3.11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항상 신경을 쓴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감,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높았다.

[표 5-112]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항상 신경을 쓴다 : 주관적 인식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	Mean(1~5)
전체		(17357)	17.8	53.7	28.6	3.11
전반적 행복감	0~4	(1092)	23.0	46.4	30.6	3.09
	5	(2821)	19.2	54.6	26.2	3.08
	6~10	(13443)	17.1	54.1	28.9	3.12
어제 행복감	0~4	(1351)	23.9	42.2	33.9	3.13
	5	(2983)	17.6	56.1	26.3	3.10
	6~10	(13023)	17.2	54.3	28.5	3.11
어제 미소/웃음	0~4	(1760)	22.6	45.2	32.2	3.12
	5	(3349)	19.1	53.3	27.6	3.09
	6~10	(12248)	16.7	55.0	28.3	3.11
사다리 위치	0~4	(2070)	25.3	49.6	25.1	2.99
	5	(3173)	18.0	55.8	26.1	3.09
	6~10	(12114)	16.4	53.8	29.8	3.14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22.4	43.0	34.6	3.13
	5	(3484)	17.3	56.2	26.5	3.10
	6~10	(12301)	17.3	54.3	28.4	3.11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26.5	46.5	27.0	3.01
	5	(2762)	18.4	55.8	25.8	3.09
	6~10	(13399)	16.9	53.9	29.3	3.12

## 제8절

## 시간을 보내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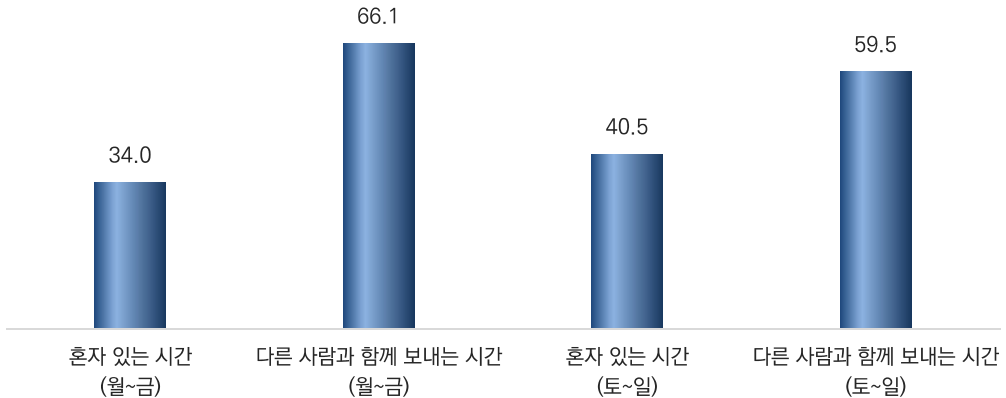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혼자 있는 시간과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비율

#### 가. 전체 분석

‘혼자 있는 시간’과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비율을 평일(월~금)과 주말(토~일)로 구분해 물은 결과 평일은 ‘혼자 있는 시간’ 33.9%,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 66.1%로 나타났고, 주말은 ‘혼자 있는 시간’ 40.5%,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 59.5%로 나타났다.

(n=17,357, %)



[그림 5-12] 혼자 있는 시간과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의 비율

## 나. 특성별 분석

평일 기준 ‘혼자 있는 시간’의 비율은 여자(35.6%)가 남자(32.2%)가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40.2%)이 가장 높고 40대(30.1%)가 가장 낮았다. 주말 기준 ‘혼자 있는 시간’의 비율은 평일과 달리 남자(40.9%)가 여자(40.1%)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44.4%)가 가장 높고 40대(36.8%)가 가장 낮았다.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평일, 주말 모두 ‘혼자 있는 시간’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13] 혼자 있는 시간과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의 비율**

구분		n	월~금		토~일	
			혼자	다른 사람과 함께	혼자	다른 사람과 함께
전체		(17357)	(33.9)	(66.1)	(40.5)	(59.5)
성별	남자	(8615)	(32.2)	(67.8)	(40.9)	(59.1)
	여자	(8742)	(35.6)	(64.4)	(40.1)	(59.9)
연령별	15~19	(871)	(32.2)	(67.8)	(44.4)	(55.6)
	20대	(2550)	(33.8)	(66.2)	(43.1)	(56.9)
	30대	(2576)	(30.0)	(70.0)	(40.1)	(59.9)
	40대	(3123)	(30.1)	(69.9)	(36.8)	(63.2)
	50대	(3304)	(32.0)	(68.0)	(37.4)	(62.6)
	60대 이상	(4933)	(40.2)	(59.8)	(43.1)	(56.9)
지역별	서울	(3301)	(33.6)	(66.4)	(38.6)	(61.4)
	부산	(1155)	(36.1)	(63.9)	(39.5)	(60.5)
	대구	(800)	(30.8)	(69.2)	(35.0)	(65.0)
	인천	(996)	(33.6)	(66.4)	(44.8)	(55.2)
	광주	(483)	(34.5)	(65.5)	(34.9)	(65.1)
	대전	(490)	(30.8)	(69.2)	(33.5)	(66.5)
	울산	(375)	(31.6)	(68.4)	(35.2)	(64.8)
	세종	(114)	(36.9)	(63.1)	(43.7)	(56.3)
	경기	(4404)	(32.6)	(67.4)	(42.2)	(57.8)
	강원	(526)	(41.9)	(58.1)	(46.9)	(53.1)
	충북	(540)	(35.4)	(64.6)	(41.9)	(58.1)
	충남	(711)	(38.3)	(61.7)	(47.3)	(52.7)
	전북	(602)	(33.8)	(66.2)	(37.8)	(62.2)
	전남	(627)	(31.6)	(68.4)	(34.6)	(65.4)
	경북	(894)	(34.3)	(65.7)	(42.1)	(57.9)
	경남	(1116)	(34.5)	(65.5)	(41.5)	(58.5)
제주	(224)	(42.8)	(57.2)	(48.2)	(51.8)	

구분		n	월~금		토~일	
			혼자	다른 사람과 함께	혼자	다른 사람과 함께
학력	중졸 이하	(2863)	(41.3)	(58.7)	(45.5)	(54.5)
	고졸	(5401)	(33.9)	(66.1)	(38.5)	(61.5)
	대재 이상	(9093)	(31.6)	(68.4)	(40.1)	(59.9)
직업유무	있다	(11617)	(30.0)	(70.0)	(39.4)	(60.6)
	없다	(5740)	(42.0)	(58.0)	(42.7)	(57.3)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38.9)	(61.1)	(40.3)	(59.7)
	200만원 미만	(4187)	(39.7)	(60.3)	(43.0)	(57.0)
	200~300만원 미만	(4397)	(29.8)	(70.2)	(40.2)	(59.8)
	300~400만원 미만	(2925)	(28.1)	(71.9)	(39.4)	(60.6)
	400만원 이상	(1697)	(28.6)	(71.4)	(37.5)	(62.5)
혼인상태	미혼	(5170)	(33.5)	(66.5)	(45.5)	(54.5)
	기혼	(10451)	(32.0)	(68.0)	(35.9)	(64.1)
	사별/이혼/별거	(1736)	(47.2)	(52.8)	(52.9)	(47.1)
기초생활수 급여부	해당	(458)	(47.8)	(52.2)	(51.1)	(48.9)
	비해당	(16899)	(33.6)	(66.4)	(40.2)	(59.8)
가구원수	1인	(1936)	(44.2)	(55.8)	(55.7)	(44.3)
	2인 이상	(15421)	(32.7)	(67.3)	(38.6)	(61.4)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비율은 주중, 주말에 상관없이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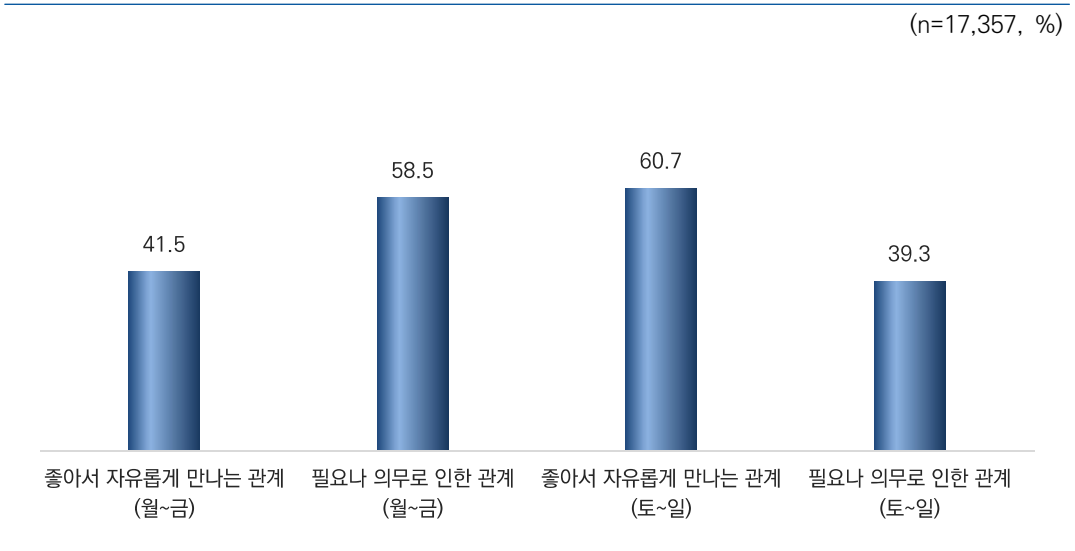
**[표 5-114] 혼자 있는 시간과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의 비율 : 주관적 인식**

구분		n	월~금		토~일	
			혼자	다른 사람과 함께	혼자	다른 사람과 함께
전체		(13824)	(33.95)	(66.05)	(40.50)	(59.50)
전반적 행복감	0~4	(588)	(43.13)	(56.87)	(50.57)	(49.43)
	5	(1490)	(37.06)	(62.94)	(45.13)	(54.87)
	6~10	(11745)	(32.55)	(67.45)	(38.71)	(61.29)
어제 행복감	0~4	(616)	(41.98)	(58.02)	(48.48)	(51.52)
	5	(1745)	(37.26)	(62.74)	(44.29)	(55.71)
	6~10	(11463)	(32.35)	(67.65)	(38.81)	(61.19)
어제 미소/웃음	0~4	(955)	(41.36)	(58.64)	(47.67)	(52.33)
	5	(1784)	(36.20)	(63.80)	(42.71)	(57.29)
	6~10	(11085)	(32.26)	(67.74)	(38.87)	(61.13)
사다리 위치	0~4	(883)	(40.47)	(59.53)	(46.67)	(53.33)
	5	(1764)	(34.91)	(65.09)	(41.96)	(58.04)
	6~10	(11177)	(32.58)	(67.42)	(39.07)	(60.93)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990)	(39.23)	(60.77)	(47.44)	(52.56)
	5	(2015)	(35.64)	(64.36)	(42.87)	(57.13)
	6~10	(10819)	(32.79)	(67.21)	(38.94)	(61.06)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470)	(44.25)	(55.75)	(50.47)	(49.53)
	5	(1177)	(37.01)	(62.99)	(44.18)	(55.82)
	6~10	(12176)	(32.39)	(67.61)	(38.86)	(61.14)

## 2 좋아서 자유롭게 만나는 관계와 필요나 의무로 인한 관계의 비율

### 가. 전체 분석

‘좋아서 자유롭게 만나는 관계’와 ‘필요나 의무로 인한 관계’의 비율을 평일(월~금)과 주말(토~일)로 구분해 물은 결과, 평일은 ‘좋아서 자유롭게 만나는 관계’ 41.3%, ‘필요나 의무로 인한 관계’ 58.7%로 나타났고, 주말은 ‘좋아서 자유롭게 만나는 관계’ 62.1%, ‘필요나 의무로 인한 관계’ 37.9%로 조사되었다.



[그림 5-13] 좋아서 자유롭게 만나는 관계와 필요나 의무로 인한 관계의 비율

## 나. 특성별 분석

평일 기준 ‘좋아서 자유롭게 만나는 관계’의 비율은 여자(43.9%)가 남자(39.0%)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47.3%)이 가장 높고 30대(36.6%)가 가장 낮았다. 주말 기준 ‘좋아서 자유롭게 만나는 관계’의 비율은 평일과 달리 남자(60.9%)가 여자(60.6%)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64.3%)가 가장 높고 50대(58.6%)가 가장 낮았다.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평일, 주말 모두 ‘좋아서 자유롭게 만나는 관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15] 좋아서 자유롭게 만나는 관계와 필요나 의무로 인한 관계의 비율

구분		n	월~금		토~일	
			좋아서 자유롭게	필요나 의무로	좋아서 자유롭게	필요나 의무로
전체		(17357)	(41.5)	(58.5)	(60.7)	(39.3)
성별	남자	(8615)	(39.0)	(61.0)	(60.9)	(39.1)
	여자	(8742)	(43.9)	(56.1)	(60.6)	(39.4)
연령별	15~19	(871)	(43.4)	(56.6)	(61.6)	(38.4)
	20대	(2550)	(41.6)	(58.4)	(64.3)	(35.7)
	30대	(2576)	(36.6)	(63.4)	(62.9)	(37.1)
	40대	(3123)	(37.9)	(62.1)	(59.6)	(40.4)
	50대	(3304)	(39.2)	(60.8)	(58.6)	(41.4)
	60대 이상	(4933)	(47.3)	(52.7)	(59.6)	(40.4)
지역별	서울	(3301)	(41.3)	(58.7)	(62.1)	(37.9)
	부산	(1155)	(47.9)	(52.1)	(62.6)	(37.4)
	대구	(800)	(42.3)	(57.7)	(58.4)	(41.6)
	인천	(996)	(39.0)	(61.0)	(57.9)	(42.1)
	광주	(483)	(43.6)	(56.4)	(62.9)	(37.1)
	대전	(490)	(39.9)	(60.1)	(60.8)	(39.2)
	울산	(375)	(37.7)	(62.3)	(59.8)	(40.2)
	세종	(114)	(39.7)	(60.3)	(58.4)	(41.6)
	경기	(4404)	(38.6)	(61.4)	(62.9)	(37.1)
	강원	(526)	(39.9)	(60.1)	(53.4)	(46.6)
	충북	(540)	(43.6)	(56.4)	(57.9)	(42.1)
	충남	(711)	(40.0)	(60.0)	(54.9)	(45.1)
	전북	(602)	(41.4)	(58.6)	(55.1)	(44.9)
	전남	(627)	(46.9)	(53.1)	(63.9)	(36.1)
	경북	(894)	(37.8)	(62.2)	(52.4)	(47.6)
	경남	(1116)	(48.4)	(51.6)	(67.8)	(32.2)
제주	(224)	(47.5)	(52.5)	(52.2)	(47.8)	



구분		n	월~금		토~일	
			좋아서 자유롭게	필요나 의무로	좋아서 자유롭게	필요나 의무로
학력	중졸 이하	(2863)	(49.2)	(50.8)	(60.2)	(39.8)
	고졸	(5401)	(41.5)	(58.5)	(59.0)	(41.0)
	대재 이상	(9093)	(39.0)	(61.0)	(61.9)	(38.1)
직업유무	있다	(11617)	(36.4)	(63.6)	(60.3)	(39.7)
	없다	(5740)	(51.8)	(48.2)	(61.5)	(38.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49.3)	(50.7)	(60.7)	(39.3)
	200만원 미만	(4187)	(46.1)	(53.9)	(60.1)	(39.9)
	200~300만원 미만	(4397)	(35.7)	(64.3)	(60.9)	(39.1)
	300~400만원 미만	(2925)	(35.5)	(64.5)	(61.6)	(38.4)
	400만원 이상	(1697)	(36.0)	(64.0)	(60.4)	(39.6)
혼인상태	미혼	(5170)	(40.1)	(59.9)	(63.6)	(36.4)
	기혼	(10451)	(41.0)	(59.0)	(59.3)	(40.7)
	사별/이혼/별거	(1736)	(48.5)	(51.5)	(60.7)	(39.3)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46.3)	(53.7)	(53.5)	(46.5)
	비해당	(16899)	(41.3)	(58.7)	(60.9)	(39.1)
가구원수	1인	(1936)	(44.6)	(55.4)	(63.1)	(36.9)
	2인 이상	(15421)	(41.1)	(58.9)	(60.4)	(39.6)

‘좋아서 자유롭게 만나는 관계’의 비율은 주중, 주말에 상관없이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높았다.

**[표 5-116] 좋아서 자유롭게 만나는 관계와 필요나 의무로 인한 관계의 비율 : 주관적 인식**

구분	n	월~금		토~일		
		좋아서 자유롭게	필요나 의무로	좋아서 자유롭게	필요나 의무로	
전체	(13824)	(41.47)	(58.53)	(60.72)	(39.28)	
전반적 행복감	0~4	(588)	(38.53)	(61.47)	(53.09)	(46.91)
	5	(1490)	(39.79)	(60.21)	(56.77)	(43.23)
	6~10	(11745)	(42.06)	(57.94)	(62.16)	(37.84)
어제 행복감	0~4	(616)	(38.14)	(61.86)	(53.66)	(46.34)
	5	(1745)	(40.02)	(59.98)	(56.63)	(43.37)
	6~10	(11463)	(42.14)	(57.86)	(62.39)	(37.61)
어제 미소/웃음	0~4	(955)	(39.38)	(60.62)	(55.13)	(44.87)
	5	(1784)	(40.24)	(59.76)	(57.19)	(42.81)
	6~10	(11085)	(42.10)	(57.90)	(62.48)	(37.52)
사다리 위치	0~4	(883)	(39.39)	(60.61)	(53.70)	(46.30)
	5	(1764)	(39.62)	(60.38)	(57.48)	(42.52)
	6~10	(11177)	(42.31)	(57.69)	(62.76)	(37.24)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990)	(41.18)	(58.82)	(58.29)	(41.71)
	5	(2015)	(40.45)	(59.55)	(58.52)	(41.48)
	6~10	(10819)	(41.79)	(58.21)	(61.65)	(38.35)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470)	(41.38)	(58.62)	(53.19)	(46.81)
	5	(1177)	(41.08)	(58.92)	(56.69)	(43.31)
	6~10	(12176)	(41.55)	(58.45)	(62.22)	(37.78)

## 제9절

# 자유롭게 선택하며 원하는 인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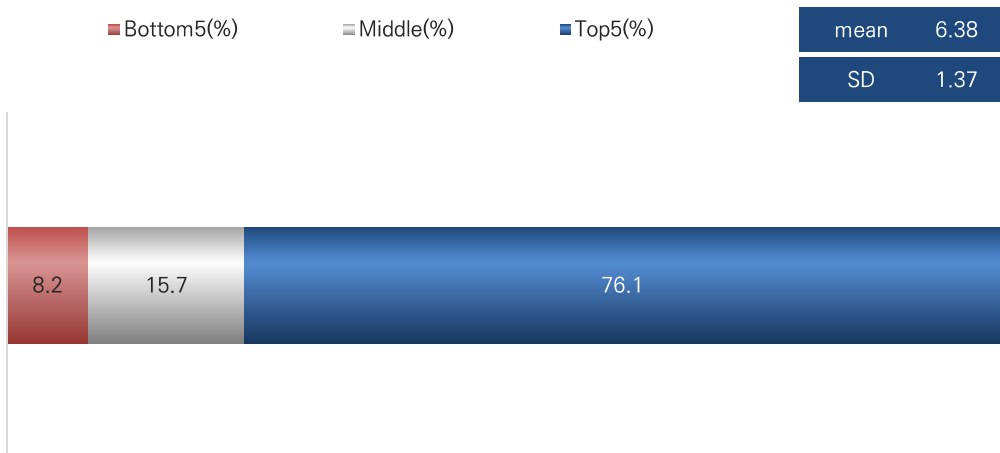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자유로롭게 선택하면 원하는 인생

#### 가. 전체 분석

‘본인이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하며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76.1%는 6점 이상으로 응답했고, 8.2%는 4점 이하로 응답했다. 응답 평균은 6.38 점이다.

(n=17,357, %, mean=0~10)



[그림 5-14] 자유롭게 선택하며 원하는 인생

## 나. 특성별 분석

‘본인이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하며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6.41점)가 여자(6.34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6.67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6.14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경남(6.76점), 부산(6.67점), 대전(6.51점) 순으로 높고, 충남(6.12점)이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6.05점), 직업 없음(6.25점), 기초생활수급가구(5.50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5-117] 자유롭게 선택하며 원하는 인생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8.2	15.7	76.1	6.38
성별	남자	(8615)	7.7	15.2	77.0	6.41
	여자	(8742)	8.7	16.2	75.1	6.34
연령별	15~19	(871)	8.5	15.5	76.0	6.39
	20대	(2550)	4.7	12.0	83.3	6.67
	30대	(2576)	6.0	12.3	81.8	6.56
	40대	(3123)	7.6	15.8	76.5	6.39
	50대	(3304)	8.3	15.8	75.9	6.34
	60대 이상	(4933)	11.5	19.3	69.2	6.14
지역별	서울	(3301)	6.9	11.5	81.5	6.49
	부산	(1155)	6.6	12.7	80.6	6.67
	대구	(800)	8.7	21.7	69.6	6.15
	인천	(996)	6.7	17.3	76.0	6.41
	광주	(483)	8.4	21.3	70.2	6.39
	대전	(490)	5.2	17.7	77.0	6.51
	울산	(375)	3.1	15.1	81.8	6.48
	세종	(114)	1.3	14.4	84.3	6.37
	경기	(4404)	10.5	13.8	75.7	6.28
	강원	(526)	7.1	23.9	69.0	6.21
	충북	(540)	8.7	24.5	66.8	6.24
	충남	(711)	8.8	20.3	70.9	6.12
	전북	(602)	11.2	24.7	64.1	6.23
	전남	(627)	5.7	17.3	77.0	6.35
	경북	(894)	10.8	21.9	67.4	6.14
	경남	(1116)	7.2	7.3	85.6	6.76
제주	(224)	7.0	20.7	72.3	6.34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학력	중졸 이하	(2863)	12.3	21.2	66.5	6.05
	고졸	(5401)	9.3	17.5	73.2	6.26
	대재 이상	(9093)	6.3	12.9	80.8	6.54
직업유무	있다	(11617)	7.0	14.8	78.2	6.44
	없다	(5740)	10.7	17.6	71.7	6.2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9.2	16.8	74.0	6.31
	200만원 미만	(4187)	11.9	19.7	68.4	6.16
	200~300만원 미만	(4397)	6.2	13.0	80.9	6.47
	300~400만원 미만	(2925)	6.1	13.7	80.2	6.51
	400만원 이상	(1697)	5.6	13.8	80.6	6.59
혼인상태	미혼	(5170)	6.0	12.7	81.2	6.58
	기혼	(10451)	8.4	16.3	75.3	6.32
	사별/이혼/별거	(1736)	13.3	21.3	65.4	6.08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24.8	25.7	49.5	5.50
	비해당	(16899)	7.8	15.4	76.8	6.40
가구원수	1인	(1936)	9.4	16.7	73.9	6.42
	2인 이상	(15421)	8.1	15.6	76.4	6.37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하며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높았다.

**[표 5-118] 자유롭게 선택하며 원하는 인생 : 주관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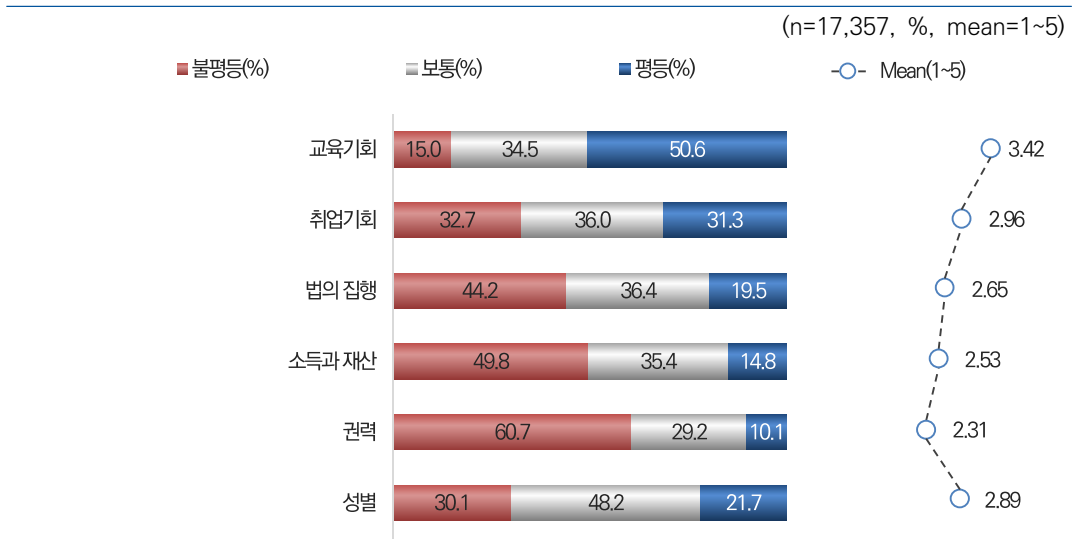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8.2	15.7	76.1	6.38
전반적 행복감	0~4	(1092)	48.8	24.3	26.9	4.62
	5	(2821)	13.8	36.2	49.9	5.63
	6~10	(13443)	3.7	10.7	85.6	6.68
어제 행복감	0~4	(1351)	45.0	23.6	31.4	4.79
	5	(2983)	12.0	35.3	52.8	5.75
	6~10	(13023)	3.5	10.4	86.1	6.69
어제 미소/웃음	0~4	(1760)	36.5	23.3	40.1	5.15
	5	(3349)	10.2	32.6	57.2	5.87
	6~10	(12248)	3.6	10.0	86.4	6.69
사다리 위치	0~4	(2070)	33.3	25.7	41.1	5.19
	5	(3173)	11.5	28.0	60.5	5.89
	6~10	(12114)	3.1	10.8	86.1	6.71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32.1	21.4	46.5	5.40
	5	(3484)	11.0	32.0	57.0	5.80
	6~10	(12301)	4.4	10.4	85.3	6.66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42.7	25.1	32.3	4.81
	5	(2762)	13.0	35.2	51.8	5.68
	6~10	(13399)	4.2	10.9	85.0	6.66

## 제 10절 평등/불평등 인식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0 종합 분석

우리 사회 6개 분야 각각의 평등/불평등 인식 정도를 묻은 결과, 평등 인식 정도는 '교육기회'(3.42점), '취업기회'(2.96점), '성별'(2.89점), '법의 집행'(2.65점), '소득과 재산'(2.53점), '권력'(2.3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15] 평등 인식

## 1 교육기회

### 가. 전체 분석

‘우리 사회에서 교육기회가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50.6%는 평등하다고 응답했으며, 15.0%는 평등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응답 평균은 3.24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우리 사회에서 교육기회가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45점)가 여자(3.40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3.53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3.33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4.15점), 전남(3.59점), 서울(3.56점) 순으로 높고, 제주(3.00점)가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3.27점), 사별/이혼/별거(3.28점), 기초생활수급 가구(2.93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119] 평등 인식 - 교육기회

구분		n	불평등(%)	보통(%)	평등(%)	Mean(1~5)
전체		(17357)	15.0	34.5	50.6	3.42
성별	남자	(8615)	14.2	34.3	51.5	3.45
	여자	(8742)	15.7	34.7	49.7	3.40
연령별	15~19	(871)	9.2	37.3	53.5	3.53
	20대	(2550)	14.0	32.3	53.7	3.46
	30대	(2576)	14.3	32.9	52.8	3.47
	40대	(3123)	12.9	35.3	51.8	3.46
	50대	(3304)	15.5	33.7	50.8	3.43
	60대 이상	(4933)	17.7	36.0	46.3	3.33
지역별	서울	(3301)	9.8	31.7	58.4	3.56
	부산	(1155)	17.1	26.8	56.1	3.46
	대구	(800)	23.0	39.0	38.0	3.23
	인천	(996)	17.7	27.8	54.5	3.45
	광주	(483)	7.2	38.8	54.0	3.51
	대전	(490)	26.8	35.2	38.0	3.19
	울산	(375)	23.4	46.7	29.9	3.19
	세종	(114)	1.0	22.9	76.0	4.15
	경기	(4404)	13.5	31.0	55.5	3.47
	강원	(526)	18.0	57.4	24.6	3.09
	충북	(540)	8.9	50.7	40.4	3.36
	충남	(711)	22.5	39.4	38.1	3.08
	전북	(602)	17.8	37.4	44.8	3.34
	전남	(627)	9.8	35.0	55.3	3.59
	경북	(894)	14.6	41.0	44.4	3.43
	경남	(1116)	18.7	29.2	52.1	3.39
제주	(224)	25.0	54.2	20.9	3.00	
학력	중졸 이하	(2863)	18.5	38.3	43.2	3.27
	고졸	(5401)	15.4	36.1	48.5	3.39
	대재 이상	(9093)	13.6	32.3	54.1	3.49
직업유무	있다	(11617)	14.8	34.0	51.2	3.43
	없다	(5740)	15.2	35.5	49.3	3.40

구분		n	불평등(%)	보통(%)	평등(%)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3.3	35.7	51.0	3.44
	200만원 미만	(4187)	19.4	35.2	45.4	3.31
	200~300만원 미만	(4397)	16.2	34.4	49.4	3.39
	300~400만원 미만	(2925)	12.0	34.2	53.8	3.50
	400만원 이상	(1697)	9.6	30.6	59.7	3.61
혼인상태	미혼	(5170)	14.2	33.5	52.3	3.45
	기혼	(10451)	14.5	34.8	50.7	3.43
	사별/이혼/별거	(1736)	19.9	35.5	44.6	3.28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33.6	38.5	27.9	2.93
	비해당	(16899)	14.5	34.4	51.2	3.44
가구원수	1인	(1936)	17.4	33.9	48.7	3.36
	2인 이상	(15421)	14.7	34.6	50.8	3.43

‘교육기회’에 대한 평등 인식 정도는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높았다.

[표 5-120] 평등 인식 - 교육기회 : 주관적 인식

구분		n	불평등(%)	보통(%)	평등(%)	Mean(1~5)
전체		(17357)	15.0	34.5	50.6	3.42
전반적 행복감	0~4	(1092)	27.0	36.0	37.1	3.15
	5	(2821)	18.7	38.7	42.6	3.29
	6~10	(13443)	13.2	33.5	53.3	3.47
어제 행복감	0~4	(1351)	27.4	33.9	38.7	3.15
	5	(2983)	18.8	38.8	42.4	3.30
	6~10	(13023)	12.8	33.6	53.7	3.48
어제 미소/웃음	0~4	(1760)	25.5	32.1	42.4	3.21
	5	(3349)	18.2	38.4	43.4	3.31
	6~10	(12248)	12.6	33.7	53.7	3.48
사다리 위치	0~4	(2070)	25.4	33.4	41.2	3.20
	5	(3173)	16.4	37.9	45.7	3.35
	6~10	(12114)	12.8	33.8	53.4	3.48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23.8	32.3	43.8	3.24
	5	(3484)	17.1	38.0	44.9	3.35
	6~10	(12301)	13.2	33.7	53.0	3.47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29.3	36.6	34.1	3.08
	5	(2762)	18.9	38.9	42.2	3.28
	6~10	(13399)	12.9	33.4	53.8	3.48

## 2 취업기회

### 가. 전체 분석

‘우리 사회에서 취업기회가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31.3%는 평등하다고 응답했으며, 32.7%는 평등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응답 평균은 2.96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우리 사회에서 취업기회가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2.97점)가 여자(2.95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3.05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2.92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4.02점), 전남(3.11점), 부산(3.09점) 순으로 높고, 제주(2.69점)가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2.87점), 직업 없음(2.93점), 사별/이혼/별거(2.90점), 기초생활수급가구(2.63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121] 평등 인식 - 취업기회

구분		n	불평등(%)	보통(%)	평등(%)	Mean(1~5)
전체		(17357)	32.7	36.0	31.3	2.96
성별	남자	(8615)	32.6	35.5	31.9	2.97
	여자	(8742)	32.8	36.4	30.7	2.95
연령별	15~19	(871)	28.9	35.9	35.2	3.05
	20대	(2550)	34.1	34.8	31.2	2.93
	30대	(2576)	33.9	35.0	31.1	2.96
	40대	(3123)	30.0	37.8	32.1	3.00
	50대	(3304)	31.9	35.5	32.6	2.99
	60대 이상	(4933)	34.3	36.3	29.4	2.92
지역별	서울	(3301)	30.2	32.7	37.1	3.06
	부산	(1155)	26.5	37.6	35.9	3.09
	대구	(800)	41.0	31.5	27.4	2.80
	인천	(996)	35.3	36.5	28.2	2.86
	광주	(483)	36.6	31.7	31.6	2.90
	대전	(490)	41.0	32.4	26.7	2.80
	울산	(375)	36.3	39.1	24.5	2.97
	세종	(114)	0.7	14.7	84.6	4.02
	경기	(4404)	31.8	38.9	29.3	2.96
	강원	(526)	33.1	52.0	15.0	2.73
	충북	(540)	35.8	31.8	32.4	2.94
	충남	(711)	31.0	40.7	28.3	2.87
	전북	(602)	37.0	39.9	23.1	2.84
	전남	(627)	29.4	30.1	40.5	3.11
	경북	(894)	41.6	28.1	30.3	2.89
	경남	(1116)	29.4	35.8	34.9	3.02
제주	(224)	38.9	49.7	11.4	2.69	
학력	중졸 이하	(2863)	36.0	36.9	27.1	2.87
	고졸	(5401)	32.5	36.2	31.3	2.96
	대재 이상	(9093)	31.8	35.6	32.6	2.99
직업유무	있다	(11617)	32.2	35.8	32.0	2.98
	없다	(5740)	33.6	36.4	29.9	2.93

구분		n	불평등(%)	보통(%)	평등(%)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32.7	36.5	30.9	2.95
	200만원 미만	(4187)	37.2	34.6	28.2	2.86
	200~300만원 미만	(4397)	31.7	36.8	31.6	2.97
	300~400만원 미만	(2925)	29.9	35.9	34.1	3.05
	400만원 이상	(1697)	29.2	36.2	34.5	3.06
혼인상태	미혼	(5170)	34.2	34.9	30.9	2.94
	기혼	(10451)	31.7	36.3	32.0	2.99
	사별/이혼/별거	(1736)	34.3	37.6	28.1	2.90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46.6	33.6	19.8	2.63
	비해당	(16899)	32.3	36.0	31.6	2.97
가구원수	1인	(1936)	35.3	35.6	29.1	2.90
	2인 이상	(15421)	32.4	36.0	31.6	2.97

‘취업기회’에 대한 평등 인식 정도는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높았다.

[표 5-122] 평등 인식 - 취업기회 : 주관적 인식

구분		n	불평등(%)	보통(%)	평등(%)	Mean(1~5)
전체		(17357)	32.7	36.0	31.3	2.96
전반적 행복감	0~4	(1092)	50.6	31.8	17.6	2.56
	5	(2821)	39.6	36.9	23.4	2.80
	6~10	(13443)	29.8	36.1	34.1	3.03
어제 행복감	0~4	(1351)	50.7	31.7	17.7	2.57
	5	(2983)	40.6	34.6	24.8	2.81
	6~10	(13023)	29.0	36.8	34.2	3.04
어제 미소/웃음	0~4	(1760)	48.3	31.3	20.4	2.63
	5	(3349)	38.1	36.0	26.0	2.85
	6~10	(12248)	29.0	36.7	34.3	3.04
사다리 위치	0~4	(2070)	46.2	34.5	19.3	2.65
	5	(3173)	36.3	37.6	26.1	2.87
	6~10	(12114)	29.5	35.8	34.7	3.04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47.0	34.3	18.7	2.63
	5	(3484)	38.1	36.4	25.5	2.85
	6~10	(12301)	29.3	36.1	34.6	3.04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51.7	31.9	16.5	2.56
	5	(2762)	39.2	37.4	23.4	2.81
	6~10	(13399)	29.7	36.1	34.3	3.03

### 3 법의 집행

#### 가. 전체 분석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집행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19.5%는 평등하다고 응답했으며, 44.2%는 평등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응답 평균은 2.65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집행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2.66점)와 여자(2.65점)가 비슷했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2.76점)가 가장 높고, 여타 연령대는 2.65점 내외로 비슷했다. 지역별로는 세종(3.35점), 경북(2.92점), 부산(2.91점) 순으로 높고, 전북(2.26점)이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2.61점), 기초생활수급가구(2.40점), 1인 가구(2.63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123] 평등 인식 - 법의 집행

구분		n	불평등(%)	보통(%)	평등(%)	Mean(1~5)
전체		(17357)	44.2	36.4	19.5	2.65
성별	남자	(8615)	43.8	36.5	19.8	2.66
	여자	(8742)	44.6	36.2	19.1	2.65
연령별	15~19	(871)	38.9	40.1	21.0	2.76
	20대	(2550)	44.5	37.1	18.4	2.64
	30대	(2576)	44.5	35.9	19.5	2.65
	40대	(3123)	43.4	37.2	19.4	2.66
	50대	(3304)	45.6	34.5	19.8	2.64
	60대 이상	(4933)	44.4	36.2	19.4	2.65
지역별	서울	(3301)	42.9	37.7	19.4	2.64
	부산	(1155)	32.8	36.9	30.4	2.91
	대구	(800)	59.6	28.6	11.8	2.44
	인천	(996)	43.7	36.5	19.8	2.63
	광주	(483)	38.7	38.8	22.5	2.74
	대전	(490)	55.8	37.3	6.9	2.34
	울산	(375)	46.5	34.3	19.1	2.76
	세종	(114)	5.9	52.8	41.2	3.35
	경기	(4404)	46.2	36.2	17.7	2.62
	강원	(526)	43.0	43.5	13.5	2.57
	충북	(540)	43.2	42.9	13.9	2.60
	충남	(711)	55.9	34.6	9.5	2.38
	전북	(602)	62.6	28.0	9.4	2.26
	전남	(627)	30.1	47.1	22.8	2.89
	경북	(894)	39.9	31.5	28.6	2.92
	경남	(1116)	37.4	29.1	33.6	2.90
제주	(224)	41.8	52.9	5.3	2.52	
학력	중졸 이하	(2863)	43.9	38.6	17.5	2.65
	고졸	(5401)	44.9	36.3	18.8	2.64
	대재 이상	(9093)	43.8	35.7	20.5	2.67
직업유무	있다	(11617)	44.7	36.2	19.1	2.64
	없다	(5740)	43.2	36.6	20.1	2.68

구분		n	불평등(%)	보통(%)	평등(%)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43.3	37.1	19.6	2.67
	200만원 미만	(4187)	46.4	36.1	17.5	2.61
	200~300만원 미만	(4397)	44.1	36.6	19.2	2.66
	300~400만원 미만	(2925)	42.6	36.0	21.3	2.70
	400만원 이상	(1697)	43.8	35.0	21.2	2.64
혼인상태	미혼	(5170)	44.4	36.7	18.9	2.65
	기혼	(10451)	44.1	36.0	19.9	2.66
	사별/이혼/별거	(1736)	44.1	37.5	18.4	2.63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56.2	31.3	12.5	2.40
	비해당	(16899)	43.9	36.5	19.6	2.66
가구원수	1인	(1936)	44.5	37.0	18.5	2.63
	2인 이상	(15421)	44.2	36.3	19.6	2.66

‘법의 집행’에 대한 평등 인식 정도는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높았다.

[표 5-124] 평등 인식 - 법의 집행 : 주관적 인식

구분		n	불평등(%)	보통(%)	평등(%)	Mean(1~5)
전체		(17357)	44.2	36.4	19.5	2.65
전반적 행복감	0~4	(1092)	65.9	22.1	12.1	2.19
	5	(2821)	51.1	34.0	15.0	2.51
	6~10	(13443)	41.0	38.0	21.0	2.72
어제 행복감	0~4	(1351)	67.6	21.9	10.6	2.17
	5	(2983)	50.4	34.8	14.8	2.53
	6~10	(13023)	40.3	38.2	21.4	2.73
어제 미소/웃음	0~4	(1760)	63.6	25.8	10.6	2.25
	5	(3349)	50.2	34.7	15.1	2.54
	6~10	(12248)	39.8	38.3	21.9	2.74
사다리 위치	0~4	(2070)	59.9	28.4	11.6	2.33
	5	(3173)	47.8	35.1	17.0	2.59
	6~10	(12114)	40.6	38.0	21.4	2.73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60.9	26.7	12.4	2.26
	5	(3484)	51.0	34.3	14.7	2.52
	6~10	(12301)	40.1	38.2	21.7	2.74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64.8	24.8	10.4	2.25
	5	(2762)	48.5	34.4	17.1	2.56
	6~10	(13399)	41.5	37.8	20.8	2.71

## 4 소득과 재산

### 가. 전체 분석

‘우리 사회에서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14.8%는 평등하다고 응답했으며, 49.8%는 평등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응답 평균은 2.53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우리 사회에서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2.53점)와 여자(2.53점)가 같았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2.63점)가 가장 높고, 30대(2.51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2.94점), 경남(2.71점), 부산(2.70점) 순으로 높고, 대전(2.25점)이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2.50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2.45점), 기초생활수급가구(2.29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125] 평등 인식 - 소득과 재산

구분		n	불평등(%)	보통(%)	평등(%)	Mean(1~5)
전체		(17357)	49.8	35.4	14.8	2.53
성별	남자	(8615)	49.9	34.9	15.2	2.53
	여자	(8742)	49.6	35.9	14.4	2.53
연령별	15~19	(871)	44.2	40.0	15.8	2.63
	20대	(2550)	48.9	36.3	14.9	2.53
	30대	(2576)	50.1	35.1	14.8	2.51
	40대	(3123)	49.6	35.9	14.4	2.53
	50대	(3304)	50.4	34.6	15.0	2.53
	60대 이상	(4933)	50.8	34.6	14.7	2.52
지역별	서울	(3301)	49.0	36.9	14.1	2.52
	부산	(1155)	42.6	35.0	22.4	2.70
	대구	(800)	60.0	27.0	13.0	2.38
	인천	(996)	44.8	34.5	20.6	2.62
	광주	(483)	43.1	34.9	22.1	2.64
	대전	(490)	67.9	26.7	5.3	2.25
	울산	(375)	53.2	28.1	18.7	2.68
	세종	(114)	24.6	56.9	18.4	2.94
	경기	(4404)	50.6	36.2	13.3	2.51
	강원	(526)	37.6	48.7	13.6	2.63
	충북	(540)	56.4	35.2	8.4	2.41
	충남	(711)	58.1	31.7	10.3	2.37
	전북	(602)	51.9	38.8	9.3	2.45
	전남	(627)	42.3	43.1	14.7	2.65
	경북	(894)	59.9	29.2	10.8	2.34
	경남	(1116)	43.7	31.3	24.9	2.71
제주	(224)	40.6	53.8	5.5	2.56	
학력	중졸 이하	(2863)	51.8	35.1	13.1	2.50
	고졸	(5401)	50.7	35.2	14.1	2.51
	대재 이상	(9093)	48.6	35.6	15.7	2.55
직업유무	있다	(11617)	50.6	34.6	14.8	2.52
	없다	(5740)	48.1	37.1	14.8	2.55

구분		n	불평등(%)	보통(%)	평등(%)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47.5	37.2	15.2	2.55
	200만원 미만	(4187)	53.8	34.1	12.1	2.45
	200~300만원 미만	(4397)	50.1	34.8	15.1	2.53
	300~400만원 미만	(2925)	48.6	35.7	15.6	2.56
	400만원 이상	(1697)	46.5	35.5	18.0	2.62
혼인상태	미혼	(5170)	49.7	35.8	14.6	2.52
	기혼	(10451)	49.7	35.4	14.9	2.54
	사별/이혼/별거	(1736)	50.8	34.6	14.6	2.51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59.2	30.6	10.2	2.29
	비해당	(16899)	49.5	35.6	14.9	2.54
가구원수	1인	(1936)	51.2	34.8	14.0	2.50
	2인 이상	(15421)	49.6	35.5	14.9	2.53

‘소득과 재산’에 대한 평등 인식 정도는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높았다.

**[표 5-126] 평등 인식 - 소득과 재산 : 주관적 인식**

구분		n	불평등(%)	보통(%)	평등(%)	Mean(1~5)
전체		(17357)	49.8	35.4	14.8	2.53
전반적 행복감	0~4	(1092)	66.3	24.2	9.5	2.20
	5	(2821)	59.5	31.5	9.0	2.30
	6~10	(13443)	46.4	37.2	16.4	2.60
어제 행복감	0~4	(1351)	68.8	21.4	9.8	2.16
	5	(2983)	58.1	32.5	9.3	2.33
	6~10	(13023)	45.9	37.6	16.6	2.61
어제 미소/웃음	0~4	(1760)	65.6	24.2	10.1	2.21
	5	(3349)	57.3	33.1	9.5	2.35
	6~10	(12248)	45.4	37.7	16.9	2.62
사다리 위치	0~4	(2070)	65.2	26.0	8.8	2.23
	5	(3173)	54.1	33.4	12.5	2.43
	6~10	(12114)	46.0	37.6	16.4	2.61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66.9	24.7	8.4	2.18
	5	(3484)	56.5	33.5	9.9	2.37
	6~10	(12301)	45.7	37.3	17.0	2.62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69.9	21.3	8.8	2.16
	5	(2762)	55.9	34.3	9.8	2.37
	6~10	(13399)	46.7	36.9	16.4	2.59

## 5 권력

### 가. 전체 분석

‘우리 사회에서 권력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10.1%는 평등하다고 응답했으며, 60.7%는 평등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응답 평균은 2.31점으로 6개 질문 항목 중 최하점을 기록했다.

### 나. 특성별 분석

‘우리 사회에서 권력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2.31점)와 여자(2.31점)가 같았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2.44점)가 가장 높고, 30대(2.27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2.81점), 부산(2.58점), 경남(2.53점) 순으로 높고, 경북(2.08점)이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직업 있음(2.29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2.27점), 기초생활수급가구(2.21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127] 평등 인식 - 권력

구분		n	불평등(%)	보통(%)	평등(%)	Mean(1~5)
전체		(17357)	60.7	29.2	10.1	2.31
성별	남자	(8615)	61.1	28.5	10.4	2.31
	여자	(8742)	60.3	29.9	9.8	2.31
연령별	15~19	(871)	54.4	34.0	11.6	2.44
	20대	(2550)	59.9	30.3	9.8	2.32
	30대	(2576)	63.3	27.2	9.5	2.27
	40대	(3123)	59.9	29.9	10.2	2.32
	50대	(3304)	61.2	29.0	9.9	2.31
	60대 이상	(4933)	61.0	28.6	10.3	2.30
지역별	서울	(3301)	63.5	29.0	7.5	2.23
	부산	(1155)	50.0	30.5	19.5	2.58
	대구	(800)	56.6	33.8	9.6	2.36
	인천	(996)	63.9	28.1	8.0	2.26
	광주	(483)	62.8	22.8	14.5	2.26
	대전	(490)	74.5	19.9	5.6	2.14
	울산	(375)	64.7	22.5	12.8	2.46
	세종	(114)	29.0	57.1	13.9	2.81
	경기	(4404)	63.3	27.0	9.7	2.28
	강원	(526)	46.6	43.5	9.8	2.44
	충북	(540)	50.7	37.8	11.5	2.46
	충남	(711)	62.7	27.2	10.1	2.28
	전북	(602)	66.2	29.5	4.4	2.12
	전남	(627)	59.0	34.5	6.5	2.33
	경북	(894)	67.1	27.5	5.4	2.08
	경남	(1116)	53.2	27.0	19.8	2.53
제주	(224)	51.1	45.6	3.2	2.39	
학력	중졸 이하	(2863)	60.1	30.7	9.2	2.31
	고졸	(5401)	60.8	29.9	9.2	2.30
	대재 이상	(9093)	60.8	28.4	10.8	2.31
직업유무	있다	(11617)	61.5	28.7	9.8	2.29
	없다	(5740)	59.0	30.4	10.6	2.34

구분		n	불평등(%)	보통(%)	평등(%)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58.7	31.2	10.1	2.33
	200만원 미만	(4187)	62.6	28.8	8.6	2.27
	200~300만원 미만	(4397)	60.0	28.9	11.0	2.33
	300~400만원 미만	(2925)	60.7	28.7	10.7	2.32
	400만원 이상	(1697)	62.5	27.5	10.0	2.29
혼인상태	미혼	(5170)	60.9	29.1	10.0	2.31
	기혼	(10451)	60.9	29.0	10.0	2.31
	사별/이혼/별거	(1736)	58.4	31.1	10.5	2.34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62.9	28.7	8.4	2.21
	비해당	(16899)	60.6	29.3	10.1	2.31
가구원수	1인	(1936)	59.9	30.2	9.8	2.32
	2인 이상	(15421)	60.8	29.1	10.1	2.31

‘권력’에 대한 평등 인식 정도는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높았다.

**[표 5-128] 평등 인식 - 권력 : 주관적 인식**

구분		n	불평등(%)	보통(%)	평등(%)	Mean(1~5)
전체		(17357)	60.7	29.2	10.1	2.31
전반적 행복감	0~4	(1092)	70.3	20.8	8.9	2.09
	5	(2821)	67.0	27.1	5.8	2.13
	6~10	(13443)	58.6	30.4	11.1	2.37
어제 행복감	0~4	(1351)	71.7	20.9	7.4	2.05
	5	(2983)	67.1	26.7	6.2	2.13
	6~10	(13023)	58.1	30.7	11.2	2.38
어제 미소/웃음	0~4	(1760)	71.3	20.4	8.3	2.08
	5	(3349)	67.1	27.2	5.7	2.14
	6~10	(12248)	57.4	31.1	11.5	2.39
사다리 위치	0~4	(2070)	74.1	18.3	7.6	2.05
	5	(3173)	63.5	28.4	8.1	2.22
	6~10	(12114)	57.6	31.3	11.0	2.38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69.9	24.2	5.9	2.08
	5	(3484)	67.4	26.2	6.3	2.16
	6~10	(12301)	57.6	30.7	11.6	2.38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74.1	18.3	7.6	2.00
	5	(2762)	66.0	28.2	5.8	2.15
	6~10	(13399)	58.4	30.4	11.2	2.37

## 6 성별

### 가. 전체 분석

‘우리 사회에서 성별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21.7%는 평등하다고 응답했으며, 30.1%는 평등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응답 평균은 2.89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우리 사회에서 성별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2.94점)가 여자(2.83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40대(2.92점)가 가장 높고, 30대(2.87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광주(3.35점), 전남(3.26점), 경북(3.21점) 순으로 높고, 대구(2.68점)가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직업 없음(2.87점), 기초생활수급가구(2.84점), 1인 가구(2.85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129] 평등 인식 - 성별

구분		n	불평등(%)	보통(%)	평등(%)	Mean(1~5)
전체		(17357)	30.1	48.2	21.7	2.89
성별	남자	(8615)	26.9	49.8	23.3	2.94
	여자	(8742)	33.2	46.7	20.2	2.83
연령별	15~19	(871)	27.6	50.6	21.8	2.92
	20대	(2550)	29.1	49.2	21.7	2.89
	30대	(2576)	31.6	47.1	21.3	2.87
	40대	(3123)	29.7	46.8	23.5	2.92
	50대	(3304)	30.3	48.2	21.5	2.88
	60대 이상	(4933)	30.2	48.8	21.0	2.88
지역별	서울	(3301)	36.1	43.0	20.9	2.78
	부산	(1155)	28.1	48.7	23.2	2.93
	대구	(800)	40.7	48.7	10.6	2.68
	인천	(996)	30.8	44.9	24.3	2.90
	광주	(483)	17.2	42.8	39.9	3.35
	대전	(490)	22.6	55.8	21.6	2.97
	울산	(375)	38.0	49.3	12.6	2.76
	세종	(114)	10.3	63.3	26.5	3.16
	경기	(4404)	33.0	49.0	18.0	2.82
	강원	(526)	26.8	53.9	19.2	2.88
	충북	(540)	14.1	61.7	24.2	3.11
	충남	(711)	35.3	47.0	17.7	2.70
	전북	(602)	25.7	56.2	18.1	2.90
	전남	(627)	13.2	52.9	33.9	3.26
	경북	(894)	20.2	44.8	35.0	3.21
	경남	(1116)	29.0	43.8	27.2	2.92
제주	(224)	25.5	65.7	8.9	2.83	
학력	중졸 이하	(2863)	30.1	48.7	21.1	2.88
	고졸	(5401)	29.2	50.0	20.8	2.89
	대재 이상	(9093)	30.6	47.0	22.4	2.89
직업유무	있다	(11617)	29.4	48.8	21.9	2.90
	없다	(5740)	31.5	47.1	21.4	2.87

구분		n	불평등(%)	보통(%)	평등(%)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30.3	47.7	22.0	2.88
	200만원 미만	(4187)	31.0	49.2	19.8	2.86
	200~300만원 미만	(4397)	30.3	48.3	21.4	2.88
	300~400만원 미만	(2925)	30.4	47.6	22.0	2.89
	400만원 이상	(1697)	26.0	47.9	26.1	2.99
혼인상태	미혼	(5170)	30.2	49.0	20.9	2.87
	기혼	(10451)	29.8	47.9	22.3	2.90
	사별/이혼/별거	(1736)	31.3	47.8	21.0	2.86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33.3	45.2	21.5	2.84
	비해당	(16899)	30.0	48.3	21.7	2.89
가구원수	1인	(1936)	30.6	50.2	19.1	2.85
	2인 이상	(15421)	30.0	48.0	22.0	2.89

‘성별’에 대한 평등 인식 정도는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높았다.

**[표 5-130] 평등 인식 - 성별 : 주관적 인식**

구분		n	불평등(%)	보통(%)	평등(%)	Mean(1~5)
전체		(17357)	30.1	48.2	21.7	2.89
전반적 행복감	0~4	(1092)	43.1	40.0	16.9	2.64
	5	(2821)	34.7	47.2	18.1	2.78
	6~10	(13443)	28.0	49.1	22.9	2.93
어제 행복감	0~4	(1351)	44.2	39.3	16.5	2.64
	5	(2983)	32.6	48.2	19.2	2.83
	6~10	(13023)	28.0	49.2	22.8	2.93
어제 미소/웃음	0~4	(1760)	39.6	38.5	21.9	2.77
	5	(3349)	34.6	47.1	18.3	2.80
	6~10	(12248)	27.4	49.9	22.6	2.93
사다리 위치	0~4	(2070)	36.7	43.2	20.1	2.79
	5	(3173)	31.3	48.8	20.0	2.86
	6~10	(12114)	28.6	48.9	22.5	2.91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42.1	40.4	17.5	2.68
	5	(3484)	33.5	48.0	18.5	2.81
	6~10	(12301)	27.5	49.3	23.2	2.94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42.2	40.1	17.7	2.69
	5	(2762)	33.4	47.8	18.7	2.80
	6~10	(13399)	28.3	49.0	22.7	2.92

## 제 11절 현안 및 조세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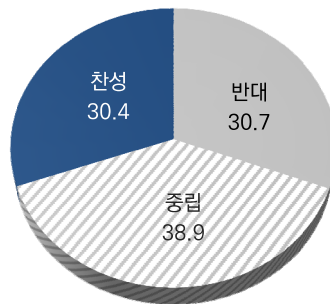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우리나라에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생각

#### 가. 전체 분석

‘우리나라에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은 결과 찬성 29.3%, 반대 32.2%, 중립 38.5%로 나타났다.

(n=17,357, %)



[그림 5-16] 기본소득 제도 도입 찬반



## 나. 특성별 분석

기본소득제도 도입 찬성 의견은 남자(29.3%)보다 여자(31.4%)가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4.0%)이 가장 많고 30대(28.2%)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충남(57.4%), 세종(49.5%), 충북(47.1%) 순으로 높고, 강원(19.9%)이 가장 낮았다.

찬성 의견은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 대재 이상(29.4%), 직업 있음(28.2%), 미혼(28.7%), 기초생활수급가구 비해당(29.8%), 2인 이상 가구(29.8%)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찬성 의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1] 우리나라에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생각**

구분		n	반대(%)	중립(%)	찬성(%)
전체		(17357)	30.7	38.9	30.4
성별	남자	(8615)	32.2	38.5	29.3
	여자	(8742)	29.2	39.4	31.4
연령별	15~19	(871)	19.2	48.8	32.0
	20대	(2550)	28.8	42.4	28.8
	30대	(2576)	32.5	39.4	28.2
	40대	(3123)	33.0	38.0	29.1
	50대	(3304)	34.1	37.1	28.9
	60대 이상	(4933)	29.0	37.1	34.0
지역별	서울	(3301)	34.5	35.9	29.6
	부산	(1155)	37.2	37.5	25.2
	대구	(800)	29.4	45.5	25.1
	인천	(996)	40.0	38.3	21.7
	광주	(483)	21.7	46.0	32.3
	대전	(490)	22.7	47.4	29.9
	울산	(375)	25.1	43.7	31.2
	세종	(114)	32.6	17.9	49.5
	경기	(4404)	33.8	37.8	28.3
	강원	(526)	19.5	60.6	19.9
	충북	(540)	15.6	37.3	47.1
	충남	(711)	11.4	31.3	57.4
	전북	(602)	16.3	38.5	45.2
	전남	(627)	27.0	33.7	39.3
	경북	(894)	35.1	40.2	24.7
	경남	(1116)	36.9	36.4	26.6
제주	(224)	8.9	63.1	28.0	

구분		n	반대(%)	중립(%)	찬성(%)
학력	중졸 이하	(2863)	22.3	41.1	36.7
	고졸	(5401)	33.0	38.2	28.8
	대재 이상	(9093)	31.9	38.7	29.4
직업유무	있다	(11617)	33.8	38.0	28.2
	없다	(5740)	24.2	40.9	34.9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26.0	42.3	31.7
	200만원 미만	(4187)	26.6	38.4	35.0
	200~300만원 미만	(4397)	34.2	39.4	26.4
	300~400만원 미만	(2925)	35.2	36.5	28.3
	400만원 이상	(1697)	35.4	34.9	29.7
혼인상태	미혼	(5170)	28.1	43.2	28.7
	기혼	(10451)	33.3	36.8	30.0
	사별/이혼/별거	(1736)	22.8	39.4	37.8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18.0	29.4	52.6
	비해당	(16899)	31.0	39.2	29.8
가구원수	1인	(1936)	25.8	39.3	34.8
	2인 이상	(15421)	31.3	38.9	29.8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0~4)에서 많았다.

**[표 5-132] 우리나라에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생각 : 주관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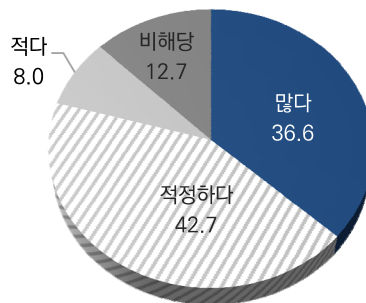
구분		n	반대(%)	중립(%)	찬성(%)
전체		(17357)	30.7	38.9	30.4
전반적 행복감	0~4	(1092)	19.2	32.2	48.6
	5	(2821)	25.2	39.1	35.6
	6~10	(13443)	32.7	39.5	27.8
어제 행복감	0~4	(1351)	23.6	31.9	44.5
	5	(2983)	27.0	38.9	34.2
	6~10	(13023)	32.2	39.7	28.1
어제 미소/웃음	0~4	(1760)	26.4	30.0	43.5
	5	(3349)	27.8	41.1	31.0
	6~10	(12248)	32.0	39.6	28.3
사다리 위치	0~4	(2070)	24.9	30.2	44.9
	5	(3173)	27.7	39.6	32.7
	6~10	(12114)	32.4	40.3	27.3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25.5	35.1	39.4
	5	(3484)	27.9	38.2	34.0
	6~10	(12301)	32.1	39.7	28.2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21.6	29.2	49.2
	5	(2762)	27.5	39.5	33.0
	6~10	(13399)	32.1	39.7	28.2

## 2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세금을 얼마나 많이 혹은 적게 납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 전체 분석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세금을 얼마나 많이 혹은 적게 납부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36.6%는 ‘많다’, 42.7%는 ‘적정하다’, 8.0%는 ‘적다’라고 응답했다.

(n=17,357, %)



[그림 5-17] 세금 납부 규모

## 나. 특성별 분석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세금 납부량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자(39.1%)가 여자(34.2%)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46.0%)가 가장 많고 15~19세(6.8%)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경기(42.5%), 서울(42.3%), 울산(39.5%) 순으로 많고, 제주(18.8%)가 가장 적었다.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17.9%), 직업 없음(19.5%),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29.8%), 미혼(29.9%), 기초생활수급가구(20.5%), 1인 가구(31.5%)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표 5-133]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세금을 얼마나 많이 혹은 적게 납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n	많다(%)	적정하다(%)	적다(%)	비해당(%)
전체		(17357)	36.6	42.7	8.0	12.7
성별	남자	(8615)	39.1	42.5	8.1	10.4
	여자	(8742)	34.2	42.9	7.9	15.0
연령별	15~19	(871)	6.8	18.7	5.6	68.8
	20대	(2550)	27.4	39.1	6.2	27.3
	30대	(2576)	46.0	42.8	6.8	4.4
	40대	(3123)	45.1	42.5	8.5	3.9
	50대	(3304)	44.6	42.9	7.5	5.1
	60대 이상	(4933)	31.0	48.7	10.1	10.1
지역별	서울	(3301)	42.3	38.0	6.2	13.5
	부산	(1155)	33.2	45.5	11.3	9.9
	대구	(800)	33.5	48.5	8.3	9.7
	인천	(996)	32.4	47.2	11.5	8.9
	광주	(483)	33.6	46.0	4.6	15.8
	대전	(490)	30.3	52.1	5.2	12.4
	울산	(375)	39.5	28.4	21.6	10.4
	세종	(114)	36.0	47.6	4.5	11.9
	경기	(4404)	42.5	34.7	8.1	14.7
	강원	(526)	30.2	45.8	8.3	15.7
	충북	(540)	38.5	44.7	10.6	6.2
	충남	(711)	30.8	55.2	7.9	6.1
	전북	(602)	20.6	62.3	4.6	12.4
	전남	(627)	28.8	54.7	3.9	12.5
	경북	(894)	31.1	43.0	8.1	17.8
	경남	(1116)	36.2	44.6	7.7	11.4
제주	(224)	18.8	59.1	6.5	15.7	

구분		n	많다(%)	적정하다(%)	적다(%)	비해당(%)
학력	중졸 이하	(2863)	17.9	45.2	9.3	27.6
	고졸	(5401)	40.1	45.0	8.1	6.8
	대재 이상	(9093)	40.4	40.5	7.5	11.5
직업유무	있다	(11617)	45.1	46.9	8.1	0.0
	없다	(5740)	19.5	34.3	7.9	38.3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20.5	33.4	6.0	40.2
	200만원 미만	(4187)	29.8	49.3	9.0	11.9
	200~300만원 미만	(4397)	45.7	45.5	8.4	0.4
	300~400만원 미만	(2925)	49.3	41.6	8.8	0.3
	400만원 이상	(1697)	47.6	43.6	8.2	0.5
혼인상태	미혼	(5170)	29.9	37.4	6.5	26.1
	기혼	(10451)	41.9	43.7	8.3	6.1
	사별/이혼/별거	(1736)	24.8	52.7	10.5	12.1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20.5	37.1	15.4	27.1
	비해당	(16899)	37.1	42.9	7.8	12.3
가구원수	1인	(1936)	31.5	51.7	10.0	6.8
	2인 이상	(15421)	37.3	41.6	7.8	13.4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세금을 얼마나 많이 혹은 적게 납부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많다’는 의견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많았다.

**[표 5-134]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세금을 얼마나 많이 혹은 적게 납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관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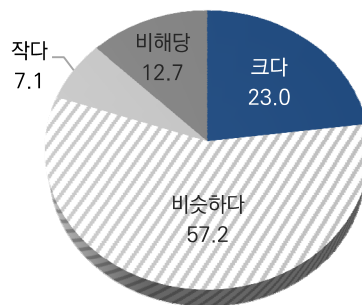
구분		n	많다(%)	적정하다(%)	적다(%)	비해당(%)
전체		(17357)	36.6	42.7	8.0	12.7
전반적 행복감	0~4	(1092)	33.4	38.0	13.3	15.3
	5	(2821)	31.4	47.6	6.5	14.5
	6~10	(13443)	38.0	42.1	7.9	12.1
어제 행복감	0~4	(1351)	35.9	36.9	11.0	16.2
	5	(2983)	32.9	44.7	6.3	16.1
	6~10	(13023)	37.5	42.8	8.1	11.5
어제 미소/웃음	0~4	(1760)	36.4	36.6	10.4	16.6
	5	(3349)	32.8	46.5	6.2	14.4
	6~10	(12248)	37.7	42.5	8.2	11.6
사다리 위치	0~4	(2070)	33.8	39.7	10.3	16.2
	5	(3173)	34.9	43.7	7.1	14.4
	6~10	(12114)	37.6	43.0	7.9	11.6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35.2	41.2	9.2	14.4
	5	(3484)	32.3	46.6	6.5	14.5
	6~10	(12301)	38.0	41.8	8.3	11.9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32.0	42.8	11.0	14.3
	5	(2762)	32.2	46.6	7.6	13.6
	6~10	(13399)	37.9	41.9	7.8	12.3

### 3 납부했던 세금과 비교해 볼 때,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의 수준이 얼마나 높다고, 혹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 전체 분석

‘납부했던 세금과 비교해 볼 때,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의 수준이 얼마나 높다고, 혹은 낮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9.1%는 ‘높다’, 37.5%는 ‘낮다’, 40.7%는 ‘적정하다’라고 응답하였다.

(n=17,357, %)



[그림 5-18]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 수준



## 나. 특성별 분석

납부했던 세금과 비교해 볼 때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자(9.6%)가 여자(8.6%)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10.3%)이 가장 많고 15~19세(3.6%)가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충북(16.9%), 충남(13.1%), 경기(11.7%) 순으로 많고, 대구(3.8%)가 가장 적었다.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7.5%), 직업 없음(6.9%), 개인소득 없음(6.1%), 미혼(7.0%)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높다’ 응답은 전반적 행복도 부정 응답자에서 12.5%로 가장 높았다.

**[표 5-135]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의 수준이 얼마나 높다고, 혹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n	높다(%)	적정하다(%)	낮다(%)	비해당(%)
전체		(17357)	9.1	40.7	37.5	12.7
성별	남자	(8615)	9.6	40.0	40.1	10.4
	여자	(8742)	8.6	41.4	35.0	15.0
연령별	15~19	(871)	3.6	20.1	7.4	68.8
	20대	(2550)	7.3	35.8	29.6	27.3
	30대	(2576)	9.3	40.3	45.9	4.4
	40대	(3123)	9.8	41.8	44.5	3.9
	50대	(3304)	9.4	40.7	44.8	5.1
	60대 이상	(4933)	10.3	46.4	33.2	10.1
지역별	서울	(3301)	7.8	36.1	42.6	13.5
	부산	(1155)	7.4	47.0	35.6	9.9
	대구	(800)	3.8	48.5	38.0	9.7
	인천	(996)	7.2	46.1	37.8	8.9
	광주	(483)	9.4	42.0	32.8	15.8
	대전	(490)	8.3	52.9	26.4	12.4
	울산	(375)	8.3	30.9	50.3	10.4
	세종	(114)	9.8	57.4	20.9	11.9
	경기	(4404)	11.7	31.5	42.0	14.7
	강원	(526)	8.5	46.3	29.5	15.7
	충북	(540)	16.9	50.6	26.3	6.2
	충남	(711)	13.1	52.7	28.0	6.1
	전북	(602)	4.3	53.0	30.3	12.4
	전남	(627)	7.0	47.3	33.2	12.5
	경북	(894)	7.5	38.9	35.8	17.8
	경남	(1116)	10.1	42.2	36.2	11.4
제주	(224)	4.1	55.6	24.5	15.7	

구분		n	높다(%)	적당하다(%)	낮다(%)	비해당(%)
학력	중졸 이하	(2863)	7.5	43.7	21.3	27.6
	고졸	(5401)	9.6	42.8	40.9	6.8
	대재 이상	(9093)	9.3	38.6	40.6	11.5
직업유무	있다	(11617)	10.2	44.1	45.7	0.0
	없다	(5740)	6.9	33.9	20.9	38.3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6.1	32.9	20.9	40.2
	200만원 미만	(4187)	8.8	46.9	32.4	11.9
	200~300만원 미만	(4397)	11.8	42.3	45.5	0.4
	300~400만원 미만	(2925)	10.6	38.9	50.2	0.3
	400만원 이상	(1697)	7.6	43.8	48.1	0.5
혼인상태	미혼	(5170)	7.0	34.9	32.0	26.1
	기혼	(10451)	10.0	42.4	41.5	6.1
	사별/이혼/별거	(1736)	10.1	47.9	29.9	12.1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12.7	35.3	24.9	27.1
	비해당	(16899)	9.0	40.9	37.9	12.3
가구원수	1인	(1936)	9.5	47.2	36.5	6.8
	2인 이상	(15421)	9.0	39.9	37.6	13.4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의 수준이 얼마나 높다고, 혹은 낮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낮다’는 의견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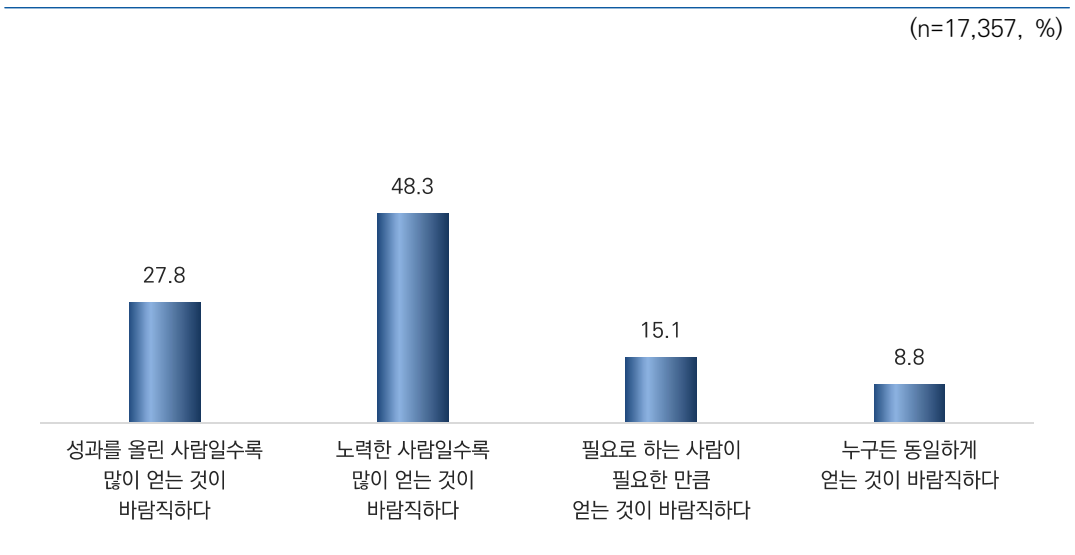
**[표 5-136]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의 수준이 얼마나 높다고, 혹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관적 인식**

구분		n	높다(%)	적정하다(%)	낮다(%)	비해당(%)
전체		(17357)	9.1	40.7	37.5	12.7
전반적 행복감	0~4	(1092)	12.5	37.3	35.0	15.3
	5	(2821)	7.8	42.6	35.2	14.5
	6~10	(13443)	9.1	40.6	38.2	12.1
어제 행복감	0~4	(1351)	12.0	35.2	36.6	16.2
	5	(2983)	7.4	41.3	35.2	16.1
	6~10	(13023)	9.2	41.1	38.1	11.5
어제 미소/웃음	0~4	(1760)	10.3	36.8	36.3	16.6
	5	(3349)	7.0	43.1	35.4	14.4
	6~10	(12248)	9.5	40.6	38.3	11.6
사다리 위치	0~4	(2070)	9.5	36.9	37.4	16.2
	5	(3173)	10.4	39.1	36.2	14.4
	6~10	(12114)	8.7	41.8	37.9	11.6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9.8	38.9	36.9	14.4
	5	(3484)	8.5	44.3	32.7	14.5
	6~10	(12301)	9.2	39.9	39.0	11.9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13.0	38.3	34.4	14.3
	5	(2762)	8.3	43.1	35.0	13.6
	6~10	(13399)	8.9	40.4	38.3	12.3

## 4 본인의 경제적 능력과 비슷한 납세자들과 비교하여 귀하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크다고, 혹은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 전체 분석

‘본인의 경제적 능력과 비슷한 납세자들과 비교하여 본인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크다고, 혹은 작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십니까?’ 묻은 결과 23.0%는 ‘크다’, 7.1%는 ‘작다’, 57.2%는 ‘비슷하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5-19] 높은 지위와 경제적 풍요

## 나. 특성별 분석

경제적 능력이 비슷했던 납세자들과 비교하여 본인의 세금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자(25.2%)가 여자(23.4%)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29.3%)가 가장 많고, 15~19세(5.3%)가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8.8%), 경남(26.3%), 부산(25.8%) 순으로 많고, 전북(11.2%)이 가장 적었다.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11.7%), 직업 없음(12.7%), 개인소득 없음(13.8%), 사별/이혼/별거(16.1%), 1인 가구(20.2%)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표 5-137] 본인의 경제적 능력과 비슷한 납세자들과 비교하여 귀하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크다고,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n	크다(%)	비슷하다(%)	작다(%)	비해당(%)
전체		(17357)	23.0	57.2	7.1	12.7
성별	남자	(8615)	25.2	57.4	7.1	10.4
	여자	(8742)	20.9	57.0	7.2	15.0
연령별	15~19	(871)	5.3	21.9	4.0	68.8
	20대	(2550)	17.5	49.9	5.2	27.3
	30대	(2576)	26.1	62.8	6.6	4.4
	40대	(3123)	28.0	60.1	8.0	3.9
	50대	(3304)	29.3	58.1	7.5	5.1
	60대 이상	(4933)	20.0	61.8	8.1	10.1
지역별	서울	(3301)	25.3	54.1	7.1	13.5
	부산	(1155)	25.8	56.2	8.1	9.9
	대구	(800)	19.4	63.6	7.3	9.7
	인천	(996)	17.5	63.5	10.1	8.9
	광주	(483)	18.9	62.8	2.5	15.8
	대전	(490)	11.4	71.9	4.3	12.4
	울산	(375)	18.9	50.9	19.8	10.4
	세종	(114)	14.0	68.5	5.6	11.9
	경기	(4404)	28.8	50.6	5.9	14.7
	강원	(526)	17.0	58.8	8.6	15.7
	충북	(540)	23.4	60.7	9.7	6.2
	충남	(711)	23.4	63.1	7.4	6.1
	전북	(602)	11.2	70.0	6.4	12.4
	전남	(627)	13.7	70.9	2.9	12.5
	경북	(894)	19.2	54.4	8.6	17.8
	경남	(1116)	26.3	55.9	6.4	11.4
	제주	(224)	14.3	61.8	8.1	15.7
학력	중졸 이하	(2863)	11.7	53.3	7.4	27.6
	고졸	(5401)	24.8	60.7	7.8	6.8
	대재 이상	(9093)	25.6	56.4	6.6	11.5
직업유무	있다	(11617)	28.1	64.3	7.6	0.0
	없다	(5740)	12.7	42.8	6.2	38.3

구분		n	크다(%)	비슷하다(%)	작다(%)	비해당(%)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3.8	40.6	5.5	40.2
	200만원 미만	(4187)	18.5	61.8	7.8	11.9
	200~300만원 미만	(4397)	28.2	63.7	7.7	0.4
	300~400만원 미만	(2925)	30.2	61.5	8.0	0.3
	400만원 이상	(1697)	31.1	62.0	6.4	0.5
혼인상태	미혼	(5170)	18.5	49.8	5.6	26.1
	기혼	(10451)	26.4	59.9	7.6	6.1
	사별/이혼/별거	(1736)	16.1	62.8	9.0	12.1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13.0	47.6	12.4	27.1
	비해당	(16899)	23.3	57.5	7.0	12.3
가구원수	1인	(1936)	20.2	64.9	8.1	6.8
	2인 이상	(15421)	23.4	56.2	7.0	13.4

‘본인의 경제적 능력과 비슷한 납세자들과 비교하여 귀하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크다고, 작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크다’는 의견은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0~4)에서 많았다.

**[표 5-138] 본인의 경제적 능력과 비슷한 납세자들과 비교하여 귀하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크다고,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관적 인식**

구분		n	크다(%)	비슷하다(%)	작다(%)	비해당(%)
전체		(17357)	23.0	57.2	7.1	12.7
전반적 행복감	0~4	(1092)	23.4	53.0	8.3	15.3
	5	(2821)	21.0	58.7	5.8	14.5
	6~10	(13443)	23.4	57.2	7.3	12.1
어제 행복감	0~4	(1351)	24.1	52.3	7.4	16.2
	5	(2983)	21.7	56.9	5.3	16.1
	6~10	(13023)	23.2	57.8	7.5	11.5
어제 미소/웃음	0~4	(1760)	23.6	51.7	8.1	16.6
	5	(3349)	20.9	59.4	5.2	14.4
	6~10	(12248)	23.5	57.4	7.5	11.6
사다리 위치	0~4	(2070)	21.7	55.5	6.6	16.2
	5	(3173)	23.8	54.2	7.6	14.4
	6~10	(12114)	23.0	58.3	7.1	11.6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25.4	53.1	7.1	14.4
	5	(3484)	20.8	60.0	4.7	14.5
	6~10	(12301)	23.4	56.9	7.8	11.9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23.9	54.7	7.2	14.3
	5	(2762)	22.0	57.6	6.8	13.6
	6~10	(13399)	23.2	57.3	7.2	12.3



## 제 12절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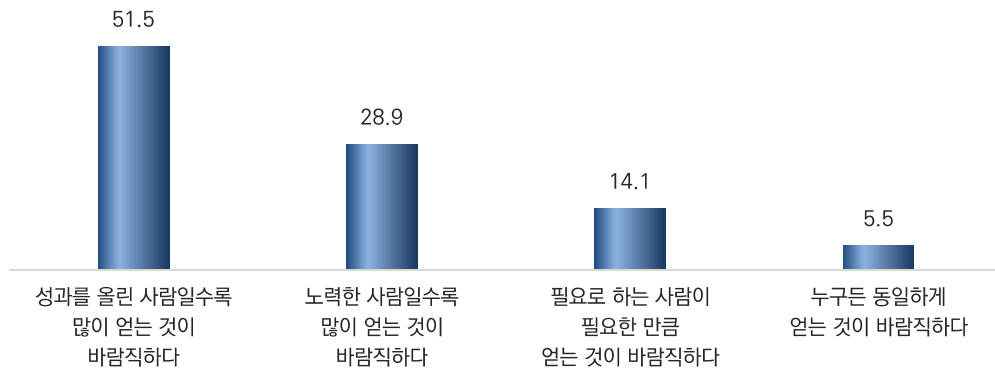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높은 지위와 경제적 풍요에 대한 인식

#### 가. 전체 분석

‘높은 지위와 경제적 풍요를 누가 얻는 것이 바람직한지’ 묻은 결과 48.3%는 ‘노력한 사람일수록 많이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27.8%는 ‘성과를 올린 사람일수록 많이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15.1%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만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8.8%는 ‘누구든 동일하게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n=17,357, %)



[그림 5-20] 우리 사회의 현실

## 나. 특성별 분석

모든 연령 및 계층에서 '노력한 사람일수록 많이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성별로는 남자(48.2%)와 여자(48.4%)가 비슷했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50.0%)에서 많았다. 지역별로는 제주(84.7%), 세종(63.8%), 대구(56.3%) 순으로 많고, 울산(38.1%)에서 가장 적었다.

[표 5-139] 높은 지위와 경제적 풍요에 대한 인식

구분		n	성공을 올린 사람일수록 많이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력한 사람일수록 많이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만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구든 동일하게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		(17357)	27.8	48.3	15.1	8.8
성별	남자	(8615)	28.8	48.2	14.5	8.5
	여자	(8742)	26.7	48.4	15.6	9.2
연령별	15~19	(871)	26.7	47.5	16.2	9.6
	20대	(2550)	27.9	48.8	14.6	8.7
	30대	(2576)	32.3	44.9	15.1	7.8
	40대	(3123)	28.3	47.6	15.8	8.2
	50대	(3304)	29.2	48.9	14.0	7.9
	60대 이상	(4933)	24.2	50.0	15.4	10.4
지역별	서울	(3301)	25.9	52.5	14.6	7.1
	부산	(1155)	24.3	43.3	21.6	10.8
	대구	(800)	21.0	56.3	15.8	7.0
	인천	(996)	45.1	40.2	9.9	4.8
	광주	(483)	28.2	50.4	11.6	9.8
	대전	(490)	25.2	49.1	18.1	7.6
	울산	(375)	42.2	38.1	12.9	6.7
	세종	(114)	3.6	63.8	24.9	7.7
	경기	(4404)	36.1	44.8	12.3	6.8
	강원	(526)	32.8	40.2	14.3	12.7
	충북	(540)	19.9	53.7	18.3	8.0
	충남	(711)	10.7	52.1	23.8	13.4
	전북	(602)	28.4	46.6	10.8	14.2
	전남	(627)	19.8	51.8	8.0	20.4
	경북	(894)	22.4	51.5	19.5	6.6
	경남	(1116)	16.9	44.9	23.5	14.8
	제주	(224)	6.5	84.7	3.2	5.7

구분		n	성과를 올린 사람일수록 많이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력한 사람일수록 많이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만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구든 동일하게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력	중졸 이하	(2863)	22.2	49.7	16.9	11.2
	고졸	(5401)	25.6	50.3	14.9	9.3
	대재 이상	(9093)	30.8	46.7	14.6	7.9
직업유무	있다	(11617)	29.2	48.0	14.8	8.0
	없다	(5740)	24.9	48.9	15.6	10.6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25.9	49.0	15.1	9.9
	200만원 미만	(4187)	23.6	49.6	16.5	10.3
	200~300만원 미만	(4397)	27.9	47.9	16.1	8.0
	300~400만원 미만	(2925)	32.5	46.8	13.6	7.0
	400만원 이상	(1697)	34.1	47.0	11.2	7.7
혼인상태	미혼	(5170)	28.8	47.2	15.3	8.7
	기혼	(10451)	28.3	48.5	14.6	8.6
	사별/이혼/별거	(1736)	21.7	50.3	17.3	10.7
기초생활수급 여부	해당	(458)	25.4	40.7	16.3	17.7
	비해당	(16899)	27.8	48.5	15.1	8.6
가구원수	1인	(1936)	24.2	51.6	15.2	9.0
	2인 이상	(15421)	28.2	47.9	15.1	8.8

‘높은 지위와 경제적 풍요를 누가 얻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노력한 사람일수록 많이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보통인 집단(5)에서 많았다.

[표 5-140] 높은 지위와 경제적 풍요에 대한 인식 : 주관적 인식

구분		n	성과를 올린 사람일수록 많이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력한 사람일수록 많이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만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구든 동일하게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		(17357)	27.8	48.3	15.1	8.8
전반적 행복감	0~4	(1092)	28.9	43.4	16.1	11.6
	5	(2821)	27.2	<u>48.9</u>	15.1	8.8
	6~10	(13443)	27.8	48.6	15.0	8.6
어제 행복감	0~4	(1351)	29.9	43.9	15.4	10.8
	5	(2983)	25.8	<u>49.9</u>	15.9	8.5
	6~10	(13023)	28.0	48.4	14.9	8.7
어제 미소/웃음	0~4	(1760)	27.7	47.3	15.6	9.4
	5	(3349)	25.7	<u>50.3</u>	15.2	8.8
	6~10	(12248)	28.3	47.9	15.0	8.8
사다리 위치	0~4	(2070)	24.6	48.8	17.4	9.2
	5	(3173)	23.8	<u>51.1</u>	16.6	8.4
	6~10	(12114)	29.3	47.5	14.3	8.9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30.8	46.9	13.4	8.9
	5	(3484)	26.6	<u>50.2</u>	14.8	8.4
	6~10	(12301)	27.7	47.9	15.4	9.0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28.7	45.3	16.2	9.8
	5	(2762)	26.7	<u>50.1</u>	13.7	9.5
	6~10	(13399)	27.9	48.2	15.3	8.6

## 2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인식

### 가. 전체 분석

‘높은 지위와 경제적 풍요를 누가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61.2%는 ‘성과를 올린 사람’, 30.6%는 ‘노력한 사람’, 12.9%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만큼’, 5.6%는 ‘누구든 동일하게’라고 응답했다.

### 나. 특성별 분석

‘성과를 올린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얻는다’는 생각은 남자(52.6%)가 여자(50.5%)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56.7%)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49.1%)이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대전(64.2%), 서울(61.2%), 전북(57.1%) 순으로 많고, 충남(20.8%)에서 가장 적었다. ‘성과를 올린 사람’ 응답은 전반적 행복도가 낮을수록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41]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인식

구분		n	성과를 올린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얻고 있다	노력한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얻고 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만큼 얻고 있다	누구든 동일하게 얻고 있다
전체		(17357)	51.5	28.9	14.1	5.5
성별	남자	(8615)	52.6	28.3	13.7	5.4
	여자	(8742)	50.5	29.5	14.4	5.6
연령별	15~19	(871)	50.9	30.6	12.9	5.6
	20대	(2550)	52.0	28.8	13.8	5.3
	30대	(2576)	56.7	26.2	12.5	4.6
	40대	(3123)	52.1	26.8	15.7	5.4
	50대	(3304)	50.2	29.7	14.2	5.9
	60대 이상	(4933)	49.1	30.9	14.1	5.9
지역별	서울	(3301)	61.2	20.5	10.8	7.5
	부산	(1155)	47.1	31.6	17.2	4.0
	대구	(800)	45.2	25.9	17.0	12.0
	인천	(996)	52.2	31.0	10.1	6.7
	광주	(483)	48.7	22.7	25.5	3.1
	대전	(490)	64.2	24.8	10.7	0.3
	울산	(375)	50.2	28.6	16.1	5.1
	세종	(114)	46.1	38.6	15.1	0.1
	경기	(4404)	54.7	28.6	12.6	4.2
	강원	(526)	53.5	31.2	10.2	5.0
	충북	(540)	34.6	46.2	17.3	2.0
	충남	(711)	20.8	55.2	15.4	8.6
	전북	(602)	57.1	26.9	12.8	3.2
	전남	(627)	54.0	28.0	11.8	6.2
	경북	(894)	41.8	33.1	19.0	6.2
	경남	(1116)	47.7	28.0	18.7	5.5
	제주	(224)	42.2	30.5	24.7	2.6
학력	중졸 이하	(2863)	46.2	31.7	15.5	6.6
	고졸	(5401)	49.8	30.5	14.5	5.2
	대재 이상	(9093)	54.2	27.1	13.4	5.3

구분		n	성과를 올린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얻고 있다	노력한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얻고 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만큼 얻고 있다	누구든 동일하게 얻고 있다
직업유무	있다	(11617)	51.9	28.4	14.5	5.2
	없다	(5740)	50.7	30.0	13.2	6.1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51.3	30.4	12.5	5.8
	200만원 미만	(4187)	48.9	29.8	15.2	6.0
	200~300만원 미만	(4397)	50.8	28.3	15.7	5.2
	300~400만원 미만	(2925)	52.3	27.9	14.6	5.2
	400만원 이상	(1697)	58.8	26.5	9.9	4.8
혼인상태	미혼	(5170)	52.2	28.8	14.0	5.1
	기혼	(10451)	52.4	28.4	13.8	5.4
	사별/이혼/별거	(1736)	44.2	32.7	16.0	7.1
기초생활수급 여부	해당	(458)	42.2	30.2	20.8	6.9
	비해당	(16899)	51.8	28.9	13.9	5.5
가구원수	1인	(1936)	48.4	29.0	16.0	6.6
	2인 이상	(15421)	51.9	28.9	13.8	5.4

‘어떤 사람이 많은 것을 얻고 있는지’에 대해 ‘성과를 올린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얻고 있다’는 의견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0~4)에서 많았다.

**[표 5-142]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인식 : 주관적 인식**

구분		n	성과를 올린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얻고 있다	노력한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얻고 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만큼 얻고 있다	누구든 동일하게 얻고 있다
전체		(17357)	51.5	28.9	14.1	5.5
전반적 행복감	0~4	(1092)	59.9	24.4	12.2	3.5
	5	(2821)	54.8	27.2	12.8	5.3
	6~10	(13443)	50.2	29.6	14.5	5.7
어제 행복감	0~4	(1351)	61.0	23.9	11.3	3.8
	5	(2983)	55.5	26.8	13.0	4.7
	6~10	(13023)	49.6	29.9	14.6	5.8
어제 미소/웃음	0~4	(1760)	60.4	22.8	12.9	3.9
	5	(3349)	55.1	26.7	13.1	5.0
	6~10	(12248)	49.3	30.4	14.5	5.8
사다리 위치	0~4	(2070)	55.0	24.2	14.3	6.6
	5	(3173)	51.9	30.0	13.2	4.9
	6~10	(12114)	50.8	29.4	14.3	5.5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57.0	22.8	15.6	4.7
	5	(3484)	52.4	29.3	12.8	5.5
	6~10	(12301)	50.6	29.6	14.3	5.6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56.0	25.0	13.5	5.6
	5	(2762)	52.1	29.1	13.1	5.8
	6~10	(13399)	51.0	29.2	14.3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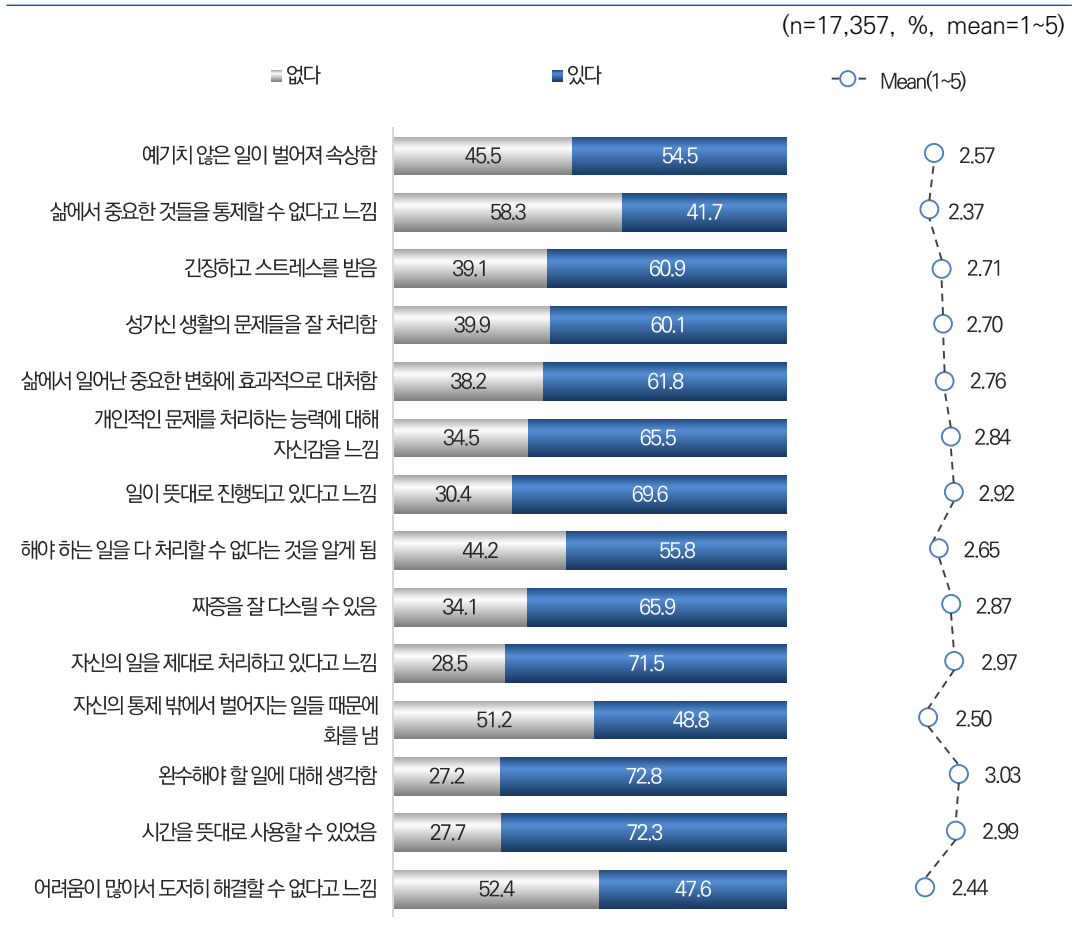
## 제 13절    지난 한 달간의 감정과 생각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0    지난 한 달간의 감정과 생각

#### 가. 전체 분석

지난 한 달간 14개 감정 또는 생각 각각을 경험한 정도를 묻은 결과, 동의 정도는 ‘완수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함’(3.03점), ‘시간을 뜻대로 사용할 수 있었음’(2.99점), ‘자신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느낌’(2.97점), ‘일이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느낌’(2.92점) 순으로 높고,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낌’(2.37점)이 가장 낮았다.



[그림 5-21] 지난 한 달간의 감정과 생각

## 1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져 속상함

### 가. 전체 분석

지난 한 달간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져 속상함’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물은 결과, 54.5%는 있다고 응답했고, 45.5%는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 평균은 2.57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지난 한 달간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져 속상함’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남자(54.7%)와 여자(54.2%)가 비슷했고, 연령별로는 30대(58.3%)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49.1%)이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제주(66.1%), 충북(64.2%), 서울(63.7%) 순으로 많고, 전북(33.0%)에서 가장 적었다.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는 중졸 이하(47.0%), 직업 없음(52.7%),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49.2%)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응답 평균은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표 5-143]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져 속상함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전체		(17357)	45.5	54.5	2.57
성별	남자	(8615)	45.3	54.7	2.58
	여자	(8742)	45.8	54.2	2.55
연령별	15~19	(871)	44.6	55.4	2.59
	20대	(2550)	44.9	55.1	2.55
	30대	(2576)	41.7	58.3	2.64
	40대	(3123)	42.2	57.8	2.64
	50대	(3304)	44.3	55.7	2.59
	60대 이상	(4933)	50.9	49.1	2.47
지역별	서울	(3301)	36.3	63.7	2.76
	부산	(1155)	42.5	57.5	2.61
	대구	(800)	58.3	41.7	2.34
	인천	(996)	37.8	62.2	2.81
	광주	(483)	61.6	38.4	2.24
	대전	(490)	66.3	33.7	2.32
	울산	(375)	40.7	59.3	2.66
	세종	(114)	38.0	62.0	2.67
	경기	(4404)	45.5	54.5	2.58
	강원	(526)	40.5	59.5	2.68
	충북	(540)	35.8	64.2	2.61
	충남	(711)	38.4	61.6	2.49
	전북	(602)	67.0	33.0	2.21
	전남	(627)	64.0	36.0	2.23
	경북	(894)	48.3	51.7	2.51
	경남	(1116)	49.9	50.1	2.45
제주	(224)	33.9	66.1	2.66	
학력	중졸 이하	(2863)	53.0	47.0	2.41
	고졸	(5401)	46.3	53.7	2.56
	대재 이상	(9093)	42.7	57.3	2.62
직업유무	있다	(11617)	44.6	55.4	2.59
	없다	(5740)	47.3	52.7	2.53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45.8	54.2	2.54
	200만원 미만	(4187)	50.8	49.2	2.48
	200~300만원 미만	(4397)	42.8	57.2	2.61
	300~400만원 미만	(2925)	42.2	57.8	2.63
	400만원 이상	(1697)	44.5	55.5	2.63
혼인상태	미혼	(5170)	43.7	56.3	2.59
	기혼	(10451)	46.2	53.8	2.56
	사별/이혼/별거	(1736)	46.7	53.3	2.54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43.1	56.9	2.57
	비해당	(16899)	45.6	54.4	2.57
가구원수	1인	(1936)	43.9	56.1	2.58
	2인 이상	(15421)	45.7	54.3	2.57

지난 한 달간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져 속상함’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0~4)에서 많았다.

[표 5-144]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져 속상함 : 주관적 인식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전체		(17357)	45.5	54.5	2.57
전반적 행복감	0~4	(1092)	28.4	71.6	3.01
	5	(2821)	42.3	57.7	2.63
	6~10	(13443)	47.6	52.4	2.52
어제 행복감	0~4	(1351)	27.2	72.8	3.01
	5	(2983)	43.0	57.0	2.62
	6~10	(13023)	48.0	52.0	2.51
어제 미소/웃음	0~4	(1760)	34.3	65.7	2.87
	5	(3349)	45.2	54.8	2.58
	6~10	(12248)	47.2	52.8	2.52
사다리 위치	0~4	(2070)	39.2	60.8	2.76
	5	(3173)	44.0	56.0	2.58
	6~10	(12114)	47.0	53.0	2.53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40.4	59.6	2.72
	5	(3484)	43.2	56.8	2.61
	6~10	(12301)	46.8	53.2	2.54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35.8	64.2	2.82
	5	(2762)	42.6	57.4	2.62
	6~10	(13399)	47.0	53.0	2.53

## 2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낌

### 가. 전체 분석

지난 한 달간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낌’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물은 결과, 41.7%는 있다고 응답했고, 58.3%는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 평균은 2.37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지난 한 달간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낌’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남자(42.4%)가 여자(41.1%)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45.4%)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38.9%)이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제주(61.7%), 인천(56.1%), 강원(54.1%) 순으로 많고, 대전(24.8%)에서 가장 적었다.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는 중졸 이하(37.7%)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응답 평균은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표 5-145]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낌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전체		(17357)	58.3	41.7	2.37
성별	남자	(8615)	57.6	42.4	2.38
	여자	(8742)	58.9	41.1	2.36
연령별	15~19	(871)	56.5	43.5	2.42
	20대	(2550)	59.4	40.6	2.38
	30대	(2576)	54.6	45.4	2.45
	40대	(3123)	56.6	43.4	2.40
	50대	(3304)	58.1	41.9	2.37
	60대 이상	(4933)	61.1	38.9	2.29
지역별	서울	(3301)	50.2	49.8	2.52
	부산	(1155)	51.3	48.7	2.49
	대구	(800)	72.3	27.7	2.00
	인천	(996)	43.9	56.1	2.65
	광주	(483)	70.3	29.7	2.11
	대전	(490)	75.2	24.8	2.16
	울산	(375)	58.2	41.8	2.50
	세종	(114)	52.0	48.0	2.59
	경기	(4404)	61.2	38.8	2.34
	강원	(526)	45.9	54.1	2.65
	충북	(540)	57.3	42.7	2.40
	충남	(711)	46.1	53.9	2.48
	전북	(602)	69.7	30.3	2.10
	전남	(627)	72.3	27.7	2.06
	경북	(894)	70.2	29.8	2.21
	경남	(1116)	63.0	37.0	2.26
제주	(224)	38.3	61.7	2.62	
학력	중졸 이하	(2863)	62.3	37.7	2.27
	고졸	(5401)	58.4	41.6	2.34
	대재 이상	(9093)	56.9	43.1	2.41
직업유무	있다	(11617)	58.5	41.5	2.36
	없다	(5740)	57.8	42.2	2.38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57.5	42.5	2.38
	200만원 미만	(4187)	60.7	39.3	2.30
	200~300만원 미만	(4397)	57.3	42.7	2.39
	300~400만원 미만	(2925)	57.6	42.4	2.39
	400만원 이상	(1697)	58.0	42.0	2.41
혼인상태	미혼	(5170)	56.8	43.2	2.41
	기혼	(10451)	59.1	40.9	2.35
	사별/이혼/별거	(1736)	58.0	42.0	2.36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47.2	52.8	2.48
	비해당	(16899)	58.6	41.4	2.37
가구원수	1인	(1936)	57.5	42.5	2.38
	2인 이상	(15421)	58.4	41.6	2.37

지난 한 달간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낌'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0~4)에서 많았다.

**[표 5-146]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낌 : 주관적 인식**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전체		(17357)	58.3	41.7	2.37
전반적 행복감	0~4	(1092)	34.6	65.4	2.84
	5	(2821)	53.7	46.3	2.45
	6~10	(13443)	61.1	38.9	2.32
어제 행복감	0~4	(1351)	35.0	65.0	2.83
	5	(2983)	55.2	44.8	2.42
	6~10	(13023)	61.4	38.6	2.31
어제 미소/웃음	0~4	(1760)	42.6	57.4	2.67
	5	(3349)	57.9	42.1	2.37
	6~10	(12248)	60.6	39.4	2.33
사다리 위치	0~4	(2070)	47.4	52.6	2.59
	5	(3173)	57.1	42.9	2.38
	6~10	(12114)	60.4	39.6	2.33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47.4	52.6	2.57
	5	(3484)	56.1	43.9	2.42
	6~10	(12301)	60.3	39.7	2.33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42.1	57.9	2.72
	5	(2762)	55.7	44.3	2.42
	6~10	(13399)	60.2	39.8	2.33

### 3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음

#### 가. 전체 분석

지난 한 달간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음’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물은 결과, 60.9%는 있다고 응답했고, 39.1%는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 평균은 2.71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지난 한 달간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음’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남자(63.2%)가 여자(58.5%)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67.6%)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52.1%)이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울산(74.6%), 서울(68.9%), 제주(67.8%) 순으로 많고, 대구(43.1%)에서 가장 적었다.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는 중졸 이하(52.6%), 직업 없음(55.8%),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52.6%), 사별/이혼/별거(53.3%), 1인 가구(59.7%)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응답 평균은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표 5-147]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음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전체		(17357)	39.1	60.9	2.71
성별	남자	(8615)	36.8	63.2	2.75
	여자	(8742)	41.5	58.5	2.67
연령별	15~19	(871)	32.8	67.2	2.87
	20대	(2550)	35.8	64.2	2.77
	30대	(2576)	32.4	67.6	2.82
	40대	(3123)	35.4	64.6	2.78
	50대	(3304)	39.1	60.9	2.72
	60대 이상	(4933)	47.9	52.1	2.54
지역별	서울	(3301)	31.1	68.9	2.85
	부산	(1155)	39.1	60.9	2.72
	대구	(800)	56.9	43.1	2.36
	인천	(996)	34.1	65.9	2.88
	광주	(483)	36.1	63.9	2.69
	대전	(490)	40.6	59.4	2.67
	울산	(375)	25.4	74.6	2.90
	세종	(114)	43.1	56.9	2.67
	경기	(4404)	38.4	61.6	2.73
	강원	(526)	37.2	62.8	2.83
	충북	(540)	35.3	64.7	2.77
	충남	(711)	37.9	62.1	2.62
	전북	(602)	49.0	51.0	2.49
	전남	(627)	56.1	43.9	2.42
	경북	(894)	52.0	48.0	2.54
	경남	(1116)	42.6	57.4	2.67
제주	(224)	32.2	67.8	2.75	
학력	중졸 이하	(2863)	47.4	52.6	2.57
	고졸	(5401)	40.7	59.3	2.67
	대재 이상	(9093)	35.6	64.4	2.77
직업유무	있다	(11617)	36.7	63.3	2.75
	없다	(5740)	44.2	55.8	2.63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41.2	58.8	2.68
	200만원 미만	(4187)	47.4	52.6	2.57
	200~300만원 미만	(4397)	34.6	65.4	2.78
	300~400만원 미만	(2925)	34.7	65.3	2.79
	400만원 이상	(1697)	33.5	66.5	2.80
혼인상태	미혼	(5170)	33.6	66.4	2.81
	기혼	(10451)	40.7	59.3	2.68
	사별/이혼/별거	(1736)	46.7	53.3	2.58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41.3	58.7	2.70
	비해당	(16899)	39.1	60.9	2.71
가구원수	1인	(1936)	40.3	59.7	2.69
	2인 이상	(15421)	39.0	61.0	2.71

지난 한 달간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음’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0~4)에서 많았다.

**[표 5-148]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음 : 주관적 인식**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전체		(17357)	39.1	60.9	2.71
전반적 행복감	0~4	(1092)	31.6	68.4	3.02
	5	(2821)	38.6	61.4	2.74
	6~10	(13443)	39.9	60.1	2.68
어제 행복감	0~4	(1351)	30.5	69.5	3.06
	5	(2983)	38.1	61.9	2.74
	6~10	(13023)	40.3	59.7	2.67
어제 미소/웃음	0~4	(1760)	33.0	67.0	2.95
	5	(3349)	39.4	60.6	2.72
	6~10	(12248)	39.9	60.1	2.67
사다리 위치	0~4	(2070)	36.7	63.3	2.86
	5	(3173)	39.9	60.1	2.69
	6~10	(12114)	39.4	60.6	2.69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34.7	65.3	2.87
	5	(3484)	40.1	59.9	2.70
	6~10	(12301)	39.4	60.6	2.69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35.0	65.0	2.90
	5	(2762)	38.9	61.1	2.73
	6~10	(13399)	39.6	60.4	2.69

## 4 성가신 생활의 문제들을 잘 처리함

### 가. 전체 분석

지난 한 달간 ‘성가신 생활의 문제들을 잘 처리함’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묻은 결과, 60.1%는 있다고 응답했고, 39.9%는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 평균은 2.70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지난 한 달간 ‘성가신 생활의 문제들을 잘 처리함’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남자(61.3%)가 여자(58.8%)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66.2%)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53.7%)이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울산(80.8%), 세종(73.8%), 서울(68.9%) 순으로 많고, 대구(37.3%)에서 가장 적었다.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는 중졸 이하(49.8%), 직업 없음(55.1%),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54.3%), 사별/이혼/별거(52.4%), 기초생활수급가구(47.7%), 1인 가구(57.7%)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응답 평균은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149] 성가신 생활의 문제들을 잘 처리함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전체		(17357)	39.9	60.1	2.70
성별	남자	(8615)	38.7	61.3	2.73
	여자	(8742)	41.2	58.8	2.67
연령별	15~19	(871)	45.4	54.6	2.62
	20대	(2550)	37.5	62.5	2.74
	30대	(2576)	33.8	66.2	2.83
	40대	(3123)	36.3	63.7	2.77
	50대	(3304)	39.1	60.9	2.73
	60대 이상	(4933)	46.3	53.7	2.57
지역별	서울	(3301)	31.1	68.9	2.89
	부산	(1155)	32.9	67.1	2.85
	대구	(800)	62.7	37.3	2.20
	인천	(996)	33.6	66.4	2.86
	광주	(483)	46.8	53.2	2.60
	대전	(490)	35.9	64.1	2.74
	울산	(375)	19.2	80.8	3.04
	세종	(114)	26.2	73.8	2.95
	경기	(4404)	40.1	59.9	2.71
	강원	(526)	41.4	58.6	2.69
	충북	(540)	40.8	59.2	2.65
	충남	(711)	45.9	54.1	2.47
	전북	(602)	60.5	39.5	2.29
	전남	(627)	54.5	45.5	2.43
	경북	(894)	49.0	51.0	2.53
	경남	(1116)	38.1	61.9	2.77
제주	(224)	39.5	60.5	2.66	
학력	중졸 이하	(2863)	50.2	49.8	2.48
	고졸	(5401)	42.0	58.0	2.65
	대재 이상	(9093)	35.5	64.5	2.80
직업유무	있다	(11617)	37.5	62.5	2.75
	없다	(5740)	44.9	55.1	2.60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43.6	56.4	2.62
	200만원 미만	(4187)	45.7	54.3	2.57
	200~300만원 미만	(4397)	36.7	63.3	2.76
	300~400만원 미만	(2925)	35.8	64.2	2.79
	400만원 이상	(1697)	32.4	67.6	2.89
혼인상태	미혼	(5170)	38.6	61.4	2.72
	기혼	(10451)	39.3	60.7	2.72
	사별/이혼/별거	(1736)	47.6	52.4	2.54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52.3	47.7	2.46
	비해당	(16899)	39.6	60.4	2.71
가구원수	1인	(1936)	42.3	57.7	2.65
	2인 이상	(15421)	39.6	60.4	2.71

지난 한 달간 '성가신 생활의 문제들을 잘 처리함'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많았다.

[표 5-150] 성가신 생활의 문제들을 잘 처리함 : 주관적 인식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전체		(17357)	39.9	60.1	2.70
전반적 행복감	0~4	(1092)	45.5	54.5	2.60
	5	(2821)	42.8	57.2	2.61
	6~10	(13443)	38.9	61.1	2.73
어제 행복감	0~4	(1351)	42.8	57.2	2.66
	5	(2983)	44.2	55.8	2.59
	6~10	(13023)	38.7	61.3	2.73
어제 미소/웃음	0~4	(1760)	46.8	53.2	2.58
	5	(3349)	43.8	56.2	2.60
	6~10	(12248)	37.9	62.1	2.75
사다리 위치	0~4	(2070)	48.2	51.8	2.57
	5	(3173)	42.6	57.4	2.64
	6~10	(12114)	37.8	62.2	2.74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44.5	55.5	2.63
	5	(3484)	43.9	56.1	2.61
	6~10	(12301)	38.3	61.7	2.74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48.1	51.9	2.54
	5	(2762)	42.6	57.4	2.62
	6~10	(13399)	38.7	61.3	2.73

## 5 삶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함

### 가. 전체 분석

지난 한 달간 ‘삶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묻은 결과, 61.8%는 있다고 응답했고, 38.2%는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 평균은 2.76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지난 한 달간 ‘삶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남자(62.9%)가 여자(60.6%)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66.5%)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55.9%)이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세종(79.9%), 울산(76.1%), 대전(73.6%) 순으로 많고, 대구(36.7%)에서 가장 적었다.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는 중졸 이하(53.0%), 직업 없음(57.8%),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55.8%), 사별/이혼/별거(55.1%), 기초생활수급가구(55.1%), 1인 가구(59.8%)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응답 평균은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151] 삶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함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전체		(17357)	38.2	61.8	2.76
성별	남자	(8615)	37.1	62.9	2.80
	여자	(8742)	39.4	60.6	2.73
연령별	15~19	(871)	41.1	58.9	2.70
	20대	(2550)	37.4	62.6	2.80
	30대	(2576)	33.5	66.5	2.89
	40대	(3123)	34.2	65.8	2.84
	50대	(3304)	37.0	63.0	2.80
	60대 이상	(4933)	44.1	55.9	2.62
지역별	서울	(3301)	29.0	71.0	3.00
	부산	(1155)	31.9	68.1	2.90
	대구	(800)	63.3	36.7	2.19
	인천	(996)	31.7	68.3	2.91
	광주	(483)	44.1	55.9	2.65
	대전	(490)	26.4	73.6	2.93
	울산	(375)	23.9	76.1	2.98
	세종	(114)	20.1	79.9	2.93
	경기	(4404)	38.8	61.2	2.76
	강원	(526)	40.7	59.3	2.72
	충북	(540)	41.4	58.6	2.67
	충남	(711)	41.4	58.6	2.56
	전북	(602)	54.2	45.8	2.40
	전남	(627)	51.3	48.7	2.48
	경북	(894)	49.9	50.1	2.55
	경남	(1116)	37.8	62.2	2.83
제주	(224)	35.2	64.8	2.74	
학력	중졸 이하	(2863)	47.0	53.0	2.53
	고졸	(5401)	40.1	59.9	2.72
	대재 이상	(9093)	34.4	65.6	2.86
직업유무	있다	(11617)	36.3	63.7	2.81
	없다	(5740)	42.2	57.8	2.67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40.6	59.4	2.70
	200만원 미만	(4187)	44.2	55.8	2.61
	200~300만원 미만	(4397)	36.0	64.0	2.82
	300~400만원 미만	(2925)	33.8	66.2	2.87
	400만원 이상	(1697)	31.4	68.6	2.96
혼인상태	미혼	(5170)	37.5	62.5	2.79
	기혼	(10451)	37.5	62.5	2.78
	사별/이혼/별거	(1736)	44.9	55.1	2.60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45.0	55.0	2.57
	비해당	(16899)	38.1	61.9	2.77
가구원수	1인	(1936)	40.2	59.8	2.72
	2인 이상	(15421)	38.0	62.0	2.77

지난 한 달간 '삶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많았다.

[표 5-152] 삶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함 : 주관적 인식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전체		(17357)	38.2	61.8	2.76
전반적 행복감	0~4	(1092)	43.5	56.5	2.64
	5	(2821)	41.7	58.3	2.68
	6~10	(13443)	37.1	62.9	2.79
어제 행복감	0~4	(1351)	44.7	55.3	2.64
	5	(2983)	42.1	57.9	2.66
	6~10	(13023)	36.7	63.3	2.80
어제 미소/웃음	0~4	(1760)	46.0	54.0	2.61
	5	(3349)	42.9	57.1	2.65
	6~10	(12248)	35.9	64.1	2.82
사다리 위치	0~4	(2070)	43.6	56.4	2.63
	5	(3173)	41.6	58.4	2.68
	6~10	(12114)	36.5	63.5	2.81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43.2	56.8	2.66
	5	(3484)	42.1	57.9	2.67
	6~10	(12301)	36.5	63.5	2.80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45.6	54.4	2.57
	5	(2762)	43.0	57.0	2.64
	6~10	(13399)	36.6	63.4	2.81

## 6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느낌

### 가. 전체 분석

지난 한 달간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느낌’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묻은 결과, 65.5%는 있다고 응답했고, 34.5%는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 평균은 2.84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지난 한 달간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느낌’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남자(67.0%)가 여자(64.1%)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70.1%)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59.2%)이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세종(83.5%), 울산(80.3%), 대전(79.5%) 순으로 많고, 대구(40.3%)에서 가장 적었다.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는 중졸 이하(56.6%), 직업 없음(60.5%),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59.9%), 사별/이혼/별거(56.8%), 기초생활수급가구(52.1%), 1인 가구(62.1%)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응답 평균은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153]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느낌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전체		(17357)	34.5	65.5	2.84
성별	남자	(8615)	33.0	67.0	2.88
	여자	(8742)	35.9	64.1	2.81
연령별	15~19	(871)	36.4	63.6	2.80
	20대	(2550)	32.9	67.1	2.90
	30대	(2576)	29.9	70.1	2.96
	40대	(3123)	31.2	68.8	2.92
	50대	(3304)	32.3	67.7	2.87
	60대 이상	(4933)	40.8	59.2	2.70
지역별	서울	(3301)	25.0	75.0	3.08
	부산	(1155)	30.4	69.6	2.93
	대구	(800)	59.7	40.3	2.26
	인천	(996)	28.0	72.0	2.99
	광주	(483)	36.8	63.2	2.82
	대전	(490)	20.5	79.5	3.06
	울산	(375)	19.7	80.3	3.09
	세종	(114)	16.5	83.5	3.02
	경기	(4404)	35.1	64.9	2.84
	강원	(526)	38.0	62.0	2.77
	충북	(540)	32.7	67.3	2.77
	충남	(711)	40.7	59.3	2.59
	전북	(602)	53.2	46.8	2.45
	전남	(627)	44.4	55.6	2.66
	경북	(894)	45.6	54.4	2.60
	경남	(1116)	35.3	64.7	2.89
제주	(224)	28.5	71.5	2.86	
학력	중졸 이하	(2863)	43.4	56.6	2.62
	고졸	(5401)	36.2	63.8	2.79
	대재 이상	(9093)	30.6	69.4	2.95
직업유무	있다	(11617)	32.0	68.0	2.90
	없다	(5740)	39.5	60.5	2.74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38.4	61.6	2.76
	200만원 미만	(4187)	40.1	59.9	2.70
	200~300만원 미만	(4397)	31.2	68.8	2.91
	300~400만원 미만	(2925)	29.5	70.5	2.96
	400만원 이상	(1697)	27.7	72.3	3.04
혼인상태	미혼	(5170)	33.0	67.0	2.88
	기혼	(10451)	33.7	66.3	2.86
	사별/이혼/별거	(1736)	43.2	56.8	2.65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47.9	52.1	2.55
	비해당	(16899)	34.1	65.9	2.85
가구원수	1인	(1936)	37.9	62.1	2.77
	2인 이상	(15421)	34.0	66.0	2.85

지난 한 달간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느낌’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많았다.

**[표 5-154]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느낌 : 주관적 인식**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전체		(17357)	34.5	65.5	2.84
전반적 행복감	0~4	(1092)	44.5	55.5	2.65
	5	(2821)	39.2	60.8	2.70
	6~10	(13443)	32.6	67.4	2.89
어제 행복감	0~4	(1351)	43.4	56.6	2.68
	5	(2983)	39.7	60.3	2.71
	6~10	(13023)	32.3	67.7	2.89
어제 미소/웃음	0~4	(1760)	43.3	56.7	2.67
	5	(3349)	39.4	60.6	2.71
	6~10	(12248)	31.8	68.2	2.91
사다리 위치	0~4	(2070)	42.5	57.5	2.68
	5	(3173)	37.6	62.4	2.76
	6~10	(12114)	32.3	67.7	2.89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40.7	59.3	2.72
	5	(3484)	39.2	60.8	2.73
	6~10	(12301)	32.3	67.7	2.89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45.6	54.4	2.61
	5	(2762)	40.7	59.3	2.68
	6~10	(13399)	32.2	67.8	2.90

## 7 일이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느낌

### 가. 전체 분석

지난 한 달간 ‘일이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느낌’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묻은 결과, 69.6%는 있다고 응답했고, 30.4%는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 평균은 2.84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지난 한 달간 ‘일이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느낌’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남자(70.4%)가 여자(68.9%)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73.3%)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65.7%)이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세종(84.8%), 울산(84.0%), 대전(80.5%) 순으로 많고, 대구(46.7%)에서 가장 적었다.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는 중졸 이하(64.0%), 직업 없음(65.9%),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65.2%), 사별/이혼/별거(62.1%), 기초생활수급가구(60.8%), 1인 가구(66.3%)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응답 평균은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155] 일이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느낌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전체		(17357)	30.4	69.6	2.92
성별	남자	(8615)	29.6	70.4	2.94
	여자	(8742)	31.1	68.9	2.90
연령별	15~19	(871)	33.9	66.1	2.84
	20대	(2550)	29.1	70.9	2.96
	30대	(2576)	26.7	73.3	3.00
	40대	(3123)	28.5	71.5	2.98
	50대	(3304)	29.2	70.8	2.95
	60대 이상	(4933)	34.3	65.7	2.81
지역별	서울	(3301)	22.4	77.6	3.13
	부산	(1155)	29.4	70.6	2.96
	대구	(800)	53.3	46.7	2.41
	인천	(996)	28.2	71.8	2.99
	광주	(483)	30.6	69.4	3.01
	대전	(490)	19.5	80.5	3.13
	울산	(375)	16.0	84.0	3.09
	세종	(114)	15.2	84.8	3.04
	경기	(4404)	31.0	69.0	2.90
	강원	(526)	37.1	62.9	2.75
	충북	(540)	31.5	68.5	2.85
	충남	(711)	33.9	66.1	2.72
	전북	(602)	43.0	57.0	2.60
	전남	(627)	32.5	67.5	2.92
	경북	(894)	40.0	60.0	2.74
	경남	(1116)	27.8	72.2	3.03
제주	(224)	27.3	72.7	2.86	
학력	중졸 이하	(2863)	36.0	64.0	2.75
	고졸	(5401)	32.7	67.3	2.87
	대재 이상	(9093)	27.2	72.8	3.00
직업유무	있다	(11617)	28.5	71.5	2.97
	없다	(5740)	34.1	65.9	2.82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33.1	66.9	2.85
	200만원 미만	(4187)	34.8	65.2	2.81
	200~300만원 미만	(4397)	28.3	71.7	2.97
	300~400만원 미만	(2925)	26.7	73.3	3.02
	400만원 이상	(1697)	24.8	75.2	3.10
혼인상태	미혼	(5170)	30.0	70.0	2.94
	기혼	(10451)	29.3	70.7	2.94
	사별/이혼/별거	(1736)	37.9	62.1	2.74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39.2	60.8	2.70
	비해당	(16899)	30.1	69.9	2.93
가구원수	1인	(1936)	33.7	66.3	2.86
	2인 이상	(15421)	30.0	70.0	2.93

지난 한 달간 ‘일이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느낌’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많았다.

[표 5-156] 일이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느낌 : 주관적 인식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전체		(17357)	30.4	69.6	2.92
전반적 행복감	0~4	(1092)	46.9	53.1	2.56
	5	(2821)	37.6	62.4	2.74
	6~10	(13443)	27.5	72.5	2.99
어제 행복감	0~4	(1351)	45.2	54.8	2.60
	5	(2983)	37.4	62.6	2.75
	6~10	(13023)	27.2	72.8	2.99
어제 미소/웃음	0~4	(1760)	42.9	57.1	2.67
	5	(3349)	35.4	64.6	2.78
	6~10	(12248)	27.2	72.8	2.99
사다리 위치	0~4	(2070)	41.3	58.7	2.67
	5	(3173)	34.8	65.2	2.81
	6~10	(12114)	27.3	72.7	2.99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38.8	61.2	2.75
	5	(3484)	35.5	64.5	2.79
	6~10	(12301)	27.8	72.2	2.98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45.5	54.5	2.57
	5	(2762)	36.6	63.4	2.75
	6~10	(13399)	27.7	72.3	2.99

## 8 해야 하는 일을 다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됨

### 가. 전체 분석

지난 한 달간 ‘해야 하는 일을 다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됨’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물은 결과, 55.8%는 있다고 응답했고, 44.2%는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 평균은 2.65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지난 한 달간 ‘해야 하는 일을 다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됨’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남자(56.8%)가 여자(54.8%)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58.5%)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51.7%)이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세종(73.7%), 인천(67.5%), 제주(66.9%) 순으로 많고, 대구(37.7%)에서 가장 적었다.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는 중졸 이하(49.8%),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52.1%), 사별/이혼/별거(54.1%), 기초생활수급가구(53.3%)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응답 평균은 전반적 행복도 부정 응답자(0~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157] 해야 하는 일을 다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됨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전체		(17357)	44.2	55.8	2.65
성별	남자	(8615)	43.2	56.8	2.67
	여자	(8742)	45.2	54.8	2.62
연령별	15~19	(871)	43.3	56.7	2.64
	20대	(2550)	42.3	57.7	2.70
	30대	(2576)	41.5	58.5	2.71
	40대	(3123)	42.5	57.5	2.67
	50대	(3304)	43.8	56.2	2.67
	60대 이상	(4933)	48.3	51.7	2.56
지역별	서울	(3301)	39.3	60.7	2.76
	부산	(1155)	39.7	60.3	2.78
	대구	(800)	62.3	37.7	2.26
	인천	(996)	32.5	67.5	2.86
	광주	(483)	52.5	47.5	2.53
	대전	(490)	50.8	49.2	2.57
	울산	(375)	35.9	64.1	2.85
	세종	(114)	26.3	73.7	2.97
	경기	(4404)	46.7	53.3	2.63
	강원	(526)	38.1	61.9	2.72
	충북	(540)	39.3	60.7	2.61
	충남	(711)	36.6	63.4	2.68
	전북	(602)	58.3	41.7	2.36
	전남	(627)	57.7	42.3	2.36
	경북	(894)	51.7	48.3	2.47
	경남	(1116)	41.1	58.9	2.75
제주	(224)	33.1	66.9	2.72	
학력	중졸 이하	(2863)	50.2	49.8	2.50
	고졸	(5401)	45.2	54.8	2.63
	대재 이상	(9093)	41.8	58.2	2.70
직업유무	있다	(11617)	43.9	56.1	2.66
	없다	(5740)	44.9	55.1	2.63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43.8	56.2	2.64
	200만원 미만	(4187)	47.9	52.1	2.56
	200~300만원 미만	(4397)	43.4	56.6	2.66
	300~400만원 미만	(2925)	41.1	58.9	2.71
	400만원 이상	(1697)	43.6	56.4	2.72
혼인상태	미혼	(5170)	42.3	57.7	2.68
	기혼	(10451)	44.9	55.1	2.64
	사별/이혼/별거	(1736)	45.9	54.1	2.60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46.7	53.3	2.57
	비해당	(16899)	44.2	55.8	2.65
가구원수	1인	(1936)	43.9	56.1	2.64
	2인 이상	(15421)	44.3	55.7	2.65

지난 한 달간 ‘해야 하는 일을 다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됨’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0~4)에서 많았다.

[표 5-158] 해야 하는 일을 다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됨 : 주관적 인식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전체		(17357)	44.2	55.8	2.65
전반적 행복감	0~4	(1092)	34.7	65.3	2.90
	5	(2821)	44.8	55.2	2.62
	6~10	(13443)	44.9	55.1	2.63
어제 행복감	0~4	(1351)	36.3	63.7	2.87
	5	(2983)	43.9	56.1	2.65
	6~10	(13023)	45.1	54.9	2.62
어제 미소/웃음	0~4	(1760)	39.3	60.7	2.78
	5	(3349)	47.3	52.7	2.59
	6~10	(12248)	44.1	55.9	2.64
사다리 위치	0~4	(2070)	41.3	58.7	2.77
	5	(3173)	44.5	55.5	2.62
	6~10	(12114)	44.7	55.3	2.63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42.9	57.1	2.72
	5	(3484)	45.0	55.0	2.63
	6~10	(12301)	44.2	55.8	2.64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41.5	58.5	2.77
	5	(2762)	43.6	56.4	2.64
	6~10	(13399)	44.6	55.4	2.64

## 9 짜증을 잘 다스릴 수 있음

### 가. 전체 분석

지난 한 달간 ‘짜증을 잘 다스릴 수 있음’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물은 결과, 65.9%는 있다고 응답했고, 34.1%는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 평균은 2.87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지난 한 달간 ‘짜증을 잘 다스릴 수 있음’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남자(66.3%)가 여자(65.5%)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68.3%)가 가장 많고, 15~19세(62.3%)가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대전(78.8%), 세종(77.8%), 광주(70.2%) 순으로 많고, 대구(42.2%)에서 가장 적었다.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는 중졸 이하(62.5%), 직업 없음(63.6%), 개인소득 없음(62.7%), 기초생활수급가구(61.3%)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응답 평균은 전반적 행복도 긍정 응답자(6~1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159] 짜증을 잘 다스릴 수 있음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전체		(17357)	34.1	65.9	2.87
성별	남자	(8615)	33.7	66.3	2.88
	여자	(8742)	34.5	65.5	2.86
연령별	15~19	(871)	37.7	62.3	2.76
	20대	(2550)	33.7	66.3	2.89
	30대	(2576)	31.7	68.3	2.92
	40대	(3123)	32.7	67.3	2.89
	50대	(3304)	34.0	66.0	2.88
	60대 이상	(4933)	35.9	64.1	2.84
지역별	서울	(3301)	30.2	69.8	2.95
	부산	(1155)	30.9	69.1	2.95
	대구	(800)	57.8	42.2	2.34
	인천	(996)	32.8	67.2	2.88
	광주	(483)	29.8	70.2	3.03
	대전	(490)	21.2	78.8	3.04
	울산	(375)	31.9	68.1	3.02
	세종	(114)	22.2	77.8	2.97
	경기	(4404)	31.9	68.1	2.96
	강원	(526)	35.0	65.0	2.76
	충북	(540)	32.3	67.7	2.82
	충남	(711)	30.6	69.4	2.94
	전북	(602)	44.4	55.6	2.59
	전남	(627)	47.7	52.3	2.59
	경북	(894)	45.3	54.7	2.61
	경남	(1116)	32.4	67.6	2.92
제주	(224)	33.7	66.3	2.74	
학력	중졸 이하	(2863)	37.5	62.5	2.76
	고졸	(5401)	34.6	65.4	2.86
	대재 이상	(9093)	32.8	67.2	2.91
직업유무	있다	(11617)	33.0	67.0	2.90
	없다	(5740)	36.4	63.6	2.80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37.3	62.7	2.77
	200만원 미만	(4187)	34.9	65.1	2.85
	200~300만원 미만	(4397)	32.2	67.8	2.93
	300~400만원 미만	(2925)	32.8	67.2	2.91
	400만원 이상	(1697)	31.8	68.2	2.93
혼인상태	미혼	(5170)	34.5	65.5	2.87
	기혼	(10451)	34.0	66.0	2.87
	사별/이혼/별거	(1736)	33.9	66.1	2.85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38.7	61.3	2.74
	비해당	(16899)	34.0	66.0	2.87
가구원수	1인	(1936)	32.1	67.9	2.89
	2인 이상	(15421)	34.4	65.6	2.87

[표 5-160] 짜증을 잘 다스릴 수 있음 : 주관적 인식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전체		(17357)	34.1	65.9	2.87
전반적 행복감	0~4	(1092)	38.6	61.4	2.76
	5	(2821)	37.4	62.6	2.76
	6~10	(13443)	33.1	66.9	2.90
어제 행복감	0~4	(1351)	38.4	61.6	2.74
	5	(2983)	37.3	62.7	2.77
	6~10	(13023)	32.9	67.1	2.90
어제 미소/웃음	0~4	(1760)	39.9	60.1	2.72
	5	(3349)	37.7	62.3	2.77
	6~10	(12248)	32.3	67.7	2.92
사다리 위치	0~4	(2070)	41.1	58.9	2.73
	5	(3173)	37.3	62.7	2.78
	6~10	(12114)	32.1	67.9	2.92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39.0	61.0	2.73
	5	(3484)	37.8	62.2	2.78
	6~10	(12301)	32.4	67.6	2.91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39.3	60.7	2.72
	5	(2762)	36.9	63.1	2.79
	6~10	(13399)	33.1	66.9	2.90

## 10 자신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느낌

### 가. 전체 분석

지난 한 달간 ‘자신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느낌’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묻은 결과, 71.5%는 있다고 응답했고, 28.5%는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 평균은 2.97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지난 한 달간 ‘자신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느낌’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남자(72.7%)가 여자(70.3%)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75.7%)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68.1%)이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세종(87.4%), 울산(84.8%), 대전(81.2%) 순으로 많고, 대구(46.4%)에서 가장 적었다.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는 중졸 이하(65.7%), 직업 없음(67.0%), 개인소득 없음(62.7%), 사별/이혼/별거(65.6%), 기초생활수급가구(64.0%)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응답 평균은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161] 자신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느낌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전체		(17357)	28.5	71.5	2.97
성별	남자	(8615)	27.3	72.7	3.00
	여자	(8742)	29.7	70.3	2.94
연령별	15~19	(871)	31.1	68.9	2.89
	20대	(2550)	27.7	72.3	2.98
	30대	(2576)	24.3	75.7	3.06
	40대	(3123)	26.4	73.6	3.03
	50대	(3304)	28.7	71.3	2.99
	60대 이상	(4933)	31.9	68.1	2.88
지역별	서울	(3301)	20.6	79.4	3.17
	부산	(1155)	25.8	74.2	3.07
	대구	(800)	53.6	46.4	2.40
	인천	(996)	24.6	75.4	3.01
	광주	(483)	32.9	67.1	3.05
	대전	(490)	18.8	81.2	3.12
	울산	(375)	15.2	84.8	3.17
	세종	(114)	12.6	87.4	3.10
	경기	(4404)	30.7	69.3	2.92
	강원	(526)	32.0	68.0	2.82
	충북	(540)	24.9	75.1	2.98
	충남	(711)	25.3	74.7	2.86
	전북	(602)	40.7	59.3	2.70
	전남	(627)	31.7	68.3	2.96
	경북	(894)	38.2	61.8	2.79
	경남	(1116)	27.6	72.4	3.08
제주	(224)	21.7	78.3	2.96	
학력	중졸 이하	(2863)	34.3	65.7	2.81
	고졸	(5401)	29.8	70.2	2.94
	대재 이상	(9093)	25.9	74.1	3.04
직업유무	있다	(11617)	26.3	73.7	3.02
	없다	(5740)	33.0	67.0	2.86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31.7	68.3	2.89
	200만원 미만	(4187)	32.8	67.2	2.87
	200~300만원 미만	(4397)	25.7	74.3	3.02
	300~400만원 미만	(2925)	25.7	74.3	3.05
	400만원 이상	(1697)	22.3	77.7	3.16
혼인상태	미혼	(5170)	28.0	72.0	2.96
	기혼	(10451)	27.8	72.2	3.00
	사별/이혼/별거	(1736)	34.4	65.6	2.83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36.0	64.0	2.74
	비해당	(16899)	28.3	71.7	2.98
가구원수	1인	(1936)	29.9	70.1	2.92
	2인 이상	(15421)	28.3	71.7	2.98

지난 한 달간 ‘자신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느낌’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많았다.

**[표 5-162] 자신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느낌 : 주관적 인식**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전체		(17357)	28.5	71.5	2.97
전반적 행복감	0~4	(1092)	38.4	61.6	2.70
	5	(2821)	31.7	68.3	2.86
	6~10	(13443)	27.0	73.0	3.01
어제 행복감	0~4	(1351)	34.8	65.2	2.77
	5	(2983)	31.9	68.1	2.86
	6~10	(13023)	27.1	72.9	3.01
어제 미소/웃음	0~4	(1760)	34.3	65.7	2.80
	5	(3349)	32.4	67.6	2.86
	6~10	(12248)	26.6	73.4	3.02
사다리 위치	0~4	(2070)	35.2	64.8	2.80
	5	(3173)	30.7	69.3	2.90
	6~10	(12114)	26.8	73.2	3.02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32.8	67.2	2.87
	5	(3484)	33.1	66.9	2.85
	6~10	(12301)	26.7	73.3	3.02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39.7	60.3	2.67
	5	(2762)	32.5	67.5	2.85
	6~10	(13399)	26.7	73.3	3.02

## 11 자신의 통제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화를 냄

### 가. 전체 분석

지난 한 달간 ‘자신의 통제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화를 냄’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물은 결과, 48.8%는 있다고 응답했고, 51.2%는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 평균은 2.50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지난 한 달간 ‘자신의 통제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화를 냄’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남자(49.6%)가 여자(48.0%)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15~19세(53.5%)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44.6%)이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인천(64.7%), 충남(58.9%), 세종(57.9%) 순으로 많고, 전남(28.0%)에서 가장 적었다.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는 중졸 이하(42.6%),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44.0%)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응답 평균은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표 5-163] 자신의 통제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화를 낸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전체		(17357)	51.2	48.8	2.50
성별	남자	(8615)	50.4	49.6	2.53
	여자	(8742)	52.0	48.0	2.48
연령별	15~19	(871)	46.5	53.5	2.57
	20대	(2550)	52.0	48.0	2.50
	30대	(2576)	50.1	49.9	2.55
	40대	(3123)	48.6	51.4	2.55
	50대	(3304)	48.9	51.1	2.54
	60대 이상	(4933)	55.4	44.6	2.41
지역별	서울	(3301)	48.9	51.1	2.57
	부산	(1155)	42.2	57.8	2.71
	대구	(800)	70.5	29.5	2.09
	인천	(996)	35.3	64.7	2.79
	광주	(483)	68.7	31.3	2.19
	대전	(490)	57.9	42.1	2.43
	울산	(375)	56.5	43.5	2.50
	세종	(114)	42.1	57.9	2.69
	경기	(4404)	51.4	48.6	2.53
	강원	(526)	46.5	53.5	2.58
	충북	(540)	44.3	55.7	2.58
	충남	(711)	41.1	58.9	2.52
	전북	(602)	69.2	30.8	2.13
	전남	(627)	72.0	28.0	2.09
	경북	(894)	56.8	43.2	2.33
	경남	(1116)	43.4	56.6	2.65
제주	(224)	42.9	57.1	2.55	
학력	중졸 이하	(2863)	57.4	42.6	2.33
	고졸	(5401)	50.9	49.1	2.50
	대재 이상	(9093)	49.5	50.5	2.55
직업유무	있다	(11617)	51.3	48.7	2.51
	없다	(5740)	51.1	48.9	2.49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49.8	50.2	2.50
	200만원 미만	(4187)	56.0	44.0	2.40
	200~300만원 미만	(4397)	50.5	49.5	2.52
	300~400만원 미만	(2925)	49.2	50.8	2.55
	400만원 이상	(1697)	47.9	52.1	2.63
혼인상태	미혼	(5170)	50.1	49.9	2.53
	기혼	(10451)	51.8	48.2	2.49
	사별/이혼/별거	(1736)	51.1	48.9	2.47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46.6	53.4	2.49
	비해당	(16899)	51.3	48.7	2.50
가구원수	1인	(1936)	52.0	48.0	2.50
	2인 이상	(15421)	51.1	48.9	2.50

지난 한 달간 ‘자신의 통제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화를 냄’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0~4)에서 많았다.

[표 5-164] 자신의 통제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화를 냄 : 주관적 인식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전체		(17357)	51.2	48.8	2.50
전반적 행복감	0~4	(1092)	35.1	64.9	2.87
	5	(2821)	50.0	50.0	2.51
	6~10	(13443)	52.8	47.2	2.47
어제 행복감	0~4	(1351)	36.2	63.8	2.86
	5	(2983)	50.2	49.8	2.51
	6~10	(13023)	53.0	47.0	2.46
어제 미소/웃음	0~4	(1760)	44.1	55.9	2.71
	5	(3349)	51.8	48.2	2.47
	6~10	(12248)	52.1	47.9	2.48
사다리 위치	0~4	(2070)	46.0	54.0	2.64
	5	(3173)	50.9	49.1	2.49
	6~10	(12114)	52.2	47.8	2.48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47.7	52.3	2.58
	5	(3484)	50.3	49.7	2.52
	6~10	(12301)	51.9	48.1	2.49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42.2	57.8	2.72
	5	(2762)	48.7	51.3	2.54
	6~10	(13399)	52.5	47.5	2.47

## 12 완수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함

### 가. 전체 분석

지난 한 달간 ‘완수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함’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묻은 결과, 72.8%는 있다고 응답했고, 27.2%는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 평균은 3.03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지난 한 달간 ‘완수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함’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남자(74.4%)가 여자(71.3%)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76.6%)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67.8%)이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울산(86.5%), 세종(81.6%), 서울(80.2%) 순으로 많고, 대구(51.6%)에서 가장 적었다.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는 대재 이상(67.4%), 직업 없음(66.9%),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68.8%), 사별/이혼/별거(67.4%), 기초생활수급가구(63.4%), 1인 가구(71.3%)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응답 평균은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165] 완수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함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전체		(17357)	27.2	72.8	3.03
성별	남자	(8615)	25.6	74.4	3.08
	여자	(8742)	28.7	71.3	2.98
연령별	15~19	(871)	28.1	71.9	2.97
	20대	(2550)	26.1	73.9	3.08
	30대	(2576)	23.4	76.6	3.13
	40대	(3123)	23.6	76.4	3.12
	50대	(3304)	26.6	73.4	3.04
	60대 이상	(4933)	32.2	67.8	2.90
지역별	서울	(3301)	19.8	80.2	3.29
	부산	(1155)	23.7	76.3	3.08
	대구	(800)	48.4	51.6	2.54
	인천	(996)	23.4	76.6	3.06
	광주	(483)	21.9	78.1	3.17
	대전	(490)	26.0	74.0	3.04
	울산	(375)	13.5	86.5	3.21
	세종	(114)	18.4	81.6	2.99
	경기	(4404)	29.8	70.2	2.98
	강원	(526)	32.7	67.3	2.83
	충북	(540)	25.4	74.6	3.02
	충남	(711)	24.5	75.5	2.98
	전북	(602)	40.5	59.5	2.71
	전남	(627)	34.0	66.0	2.96
	경북	(894)	28.2	71.8	3.00
	경남	(1116)	27.0	73.0	3.04
제주	(224)	25.0	75.0	2.96	
학력	중졸 이하	(2863)	25.7	74.3	3.07
	고졸	(5401)	27.0	73.0	3.04
	대재 이상	(9093)	32.6	67.4	2.88
직업유무	있다	(11617)	24.3	75.7	3.11
	없다	(5740)	33.1	66.9	2.88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30.9	69.1	2.93
	200만원 미만	(4187)	31.2	68.8	2.91
	200~300만원 미만	(4397)	24.4	75.6	3.10
	300~400만원 미만	(2925)	22.8	77.2	3.14
	400만원 이상	(1697)	22.6	77.4	3.21
혼인상태	미혼	(5170)	25.7	74.3	3.07
	기혼	(10451)	27.0	73.0	3.04
	사별/이혼/별거	(1736)	32.6	67.4	2.88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36.6	63.4	2.77
	비해당	(16899)	26.9	73.1	3.04
가구원수	1인	(1936)	28.7	71.3	3.00
	2인 이상	(15421)	27.0	73.0	3.04

지난 한 달간 ‘완수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함’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많았다.

**[표 5-166] 완수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함 : 주관적 인식**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전체		(17357)	27.2	72.8	3.03
전반적 행복감	0~4	(1092)	35.6	64.4	2.87
	5	(2821)	29.8	70.2	2.95
	6~10	(13443)	25.9	74.1	3.06
어제 행복감	0~4	(1351)	30.5	69.5	2.97
	5	(2983)	29.4	70.6	2.99
	6~10	(13023)	26.3	73.7	3.05
어제 미소/웃음	0~4	(1760)	31.5	68.5	2.96
	5	(3349)	29.6	70.4	2.99
	6~10	(12248)	25.9	74.1	3.05
사다리 위치	0~4	(2070)	32.3	67.7	2.95
	5	(3173)	29.7	70.3	2.96
	6~10	(12114)	25.6	74.4	3.06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27.4	72.6	3.03
	5	(3484)	32.3	67.7	2.91
	6~10	(12301)	25.7	74.3	3.07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36.6	63.4	2.82
	5	(2762)	32.1	67.9	2.90
	6~10	(13399)	25.3	74.7	3.08

## 13 시간을 뜻대로 사용할 수 있었음

### 가. 전체 분석

지난 한 달간 ‘시간을 뜻대로 사용할 수 있었음’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물은 결과, 72.3%는 있다고 응답했고, 27.7%는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 평균은 2.99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지난 한 달간 ‘시간을 뜻대로 사용할 수 있었음’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남자(73.0%)가 여자(71.6%)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73.4%)가 가장 많고, 15~19세(68.0%)가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울산(86.2%), 세종(83.4%), 대전(78.9%) 순으로 많고, 대구(49.4%)에서 가장 적었다.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는 중졸 이하(69.5%), 개인소득 없음(70.9%)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응답 평균은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167] 시간을 뜻대로 사용할 수 있었음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전체		(17357)	27.7	72.3	2.99
성별	남자	(8615)	27.0	73.0	3.00
	여자	(8742)	28.4	71.6	2.97
연령별	15~19	(871)	32.0	68.0	2.88
	20대	(2550)	26.6	73.4	3.00
	30대	(2576)	27.0	73.0	2.99
	40대	(3123)	27.1	72.9	2.99
	50대	(3304)	27.3	72.7	2.99
	60대 이상	(4933)	28.5	71.5	3.00
지역별	서울	(3301)	21.8	78.2	3.14
	부산	(1155)	25.1	74.9	3.04
	대구	(800)	50.6	49.4	2.46
	인천	(996)	21.9	78.1	3.05
	광주	(483)	30.4	69.6	3.07
	대전	(490)	21.1	78.9	3.10
	울산	(375)	13.8	86.2	3.17
	세종	(114)	16.6	83.4	2.97
	경기	(4404)	32.1	67.9	2.89
	강원	(526)	31.6	68.4	2.88
	충북	(540)	23.7	76.3	3.07
	충남	(711)	24.3	75.7	3.01
	전북	(602)	31.6	68.4	2.95
	전남	(627)	26.1	73.9	3.10
	경북	(894)	32.4	67.6	2.91
	경남	(1116)	25.1	74.9	3.07
제주	(224)	22.1	77.9	2.98	
학력	중졸 이하	(2863)	30.5	69.5	2.93
	고졸	(5401)	29.3	70.7	2.94
	대재 이상	(9093)	25.9	74.1	3.03
직업유무	있다	(11617)	27.4	72.6	2.99
	없다	(5740)	28.2	71.8	2.98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29.1	70.9	2.94
	200만원 미만	(4187)	28.2	71.8	2.99
	200~300만원 미만	(4397)	27.9	72.1	2.97
	300~400만원 미만	(2925)	26.3	73.7	3.02
	400만원 이상	(1697)	24.8	75.2	3.07
혼인상태	미혼	(5170)	27.9	72.1	2.96
	기혼	(10451)	27.4	72.6	3.00
	사별/이혼/별거	(1736)	28.8	71.2	2.99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27.2	72.8	3.00
	비해당	(16899)	27.7	72.3	2.99
가구원수	1인	(1936)	26.4	73.6	3.03
	2인 이상	(15421)	27.8	72.2	2.98

지난 한 달간 ‘시간을 뜻대로 사용할 수 있었음’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6~10)에서 많았다.

[표 5-168] 시간을 뜻대로 사용할 수 있었음 : 주관적 인식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전체		(17357)	27.7	72.3	2.99
전반적 행복감	0~4	(1092)	36.1	63.9	2.81
	5	(2821)	30.6	69.4	2.91
	6~10	(13443)	26.4	73.6	3.02
어제 행복감	0~4	(1351)	35.9	64.1	2.81
	5	(2983)	30.8	69.2	2.91
	6~10	(13023)	26.1	73.9	3.02
어제 미소/웃음	0~4	(1760)	32.9	67.1	2.89
	5	(3349)	31.5	68.5	2.91
	6~10	(12248)	25.9	74.1	3.02
사다리 위치	0~4	(2070)	31.9	68.1	2.90
	5	(3173)	31.2	68.8	2.90
	6~10	(12114)	26.1	73.9	3.02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32.0	68.0	2.92
	5	(3484)	31.9	68.1	2.87
	6~10	(12301)	25.9	74.1	3.03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36.3	63.7	2.80
	5	(2762)	30.8	69.2	2.91
	6~10	(13399)	26.3	73.7	3.02

## 14 어려움이 많아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낌

### 가. 전체 분석

지난 한 달간 ‘어려움이 많아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낌’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묻은 결과, 47.6%는 있다고 응답했고, 52.4%는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 평균은 2.44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지난 한 달간 ‘어려움이 많아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낌’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남자(48.6%)가 여자(46.7%)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15~19세(51.6%)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44.4%)가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충남(65.8%), 세종(63.9%), 제주(61.3%) 순으로 많고, 대구(24.4%)에서 가장 적었다.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는 중졸 이하(42.7%),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43.9%)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응답 평균은 전반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표 5-169] 어려움이 많아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낌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전체		(17357)	52.4	47.6	2.44
성별	남자	(8615)	51.4	48.6	2.45
	여자	(8742)	53.3	46.7	2.42
연령별	15~19	(871)	48.4	51.6	2.49
	20대	(2550)	52.3	47.7	2.42
	30대	(2576)	50.2	49.8	2.48
	40대	(3123)	50.7	49.3	2.47
	50대	(3304)	51.9	48.1	2.46
	60대 이상	(4933)	55.6	44.4	2.38
지역별	서울	(3301)	53.4	46.6	2.45
	부산	(1155)	45.4	54.6	2.53
	대구	(800)	75.6	24.4	2.02
	인천	(996)	39.7	60.3	2.67
	광주	(483)	69.3	30.7	2.12
	대전	(490)	63.0	37.0	2.23
	울산	(375)	50.7	49.3	2.55
	세종	(114)	36.1	63.9	2.72
	경기	(4404)	52.8	47.2	2.46
	강원	(526)	41.0	59.0	2.65
	충북	(540)	39.2	60.8	2.58
	충남	(711)	34.2	65.8	2.66
	전북	(602)	63.6	36.4	2.19
	전남	(627)	70.4	29.6	2.08
	경북	(894)	57.9	42.1	2.32
	경남	(1116)	45.3	54.7	2.54
제주	(224)	38.7	61.3	2.57	
학력	중졸 이하	(2863)	57.3	42.7	2.33
	고졸	(5401)	52.3	47.7	2.43
	대재 이상	(9093)	50.9	49.1	2.47
직업유무	있다	(11617)	53.0	47.0	2.43
	없다	(5740)	51.2	48.8	2.45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50.5	49.5	2.46
	200만원 미만	(4187)	56.1	43.9	2.36
	200~300만원 미만	(4397)	51.7	48.3	2.44
	300~400만원 미만	(2925)	51.5	48.5	2.46
	400만원 이상	(1697)	51.1	48.9	2.50
혼인상태	미혼	(5170)	50.4	49.6	2.45
	기혼	(10451)	53.4	46.6	2.42
	사별/이혼/별거	(1736)	52.0	48.0	2.45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45.4	54.6	2.54
	비해당	(16899)	52.6	47.4	2.43
가구원수	1인	(1936)	50.9	49.1	2.46
	2인 이상	(15421)	52.6	47.4	2.43

지난 한 달간 ‘어려움이 많아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낌’이라는 감정 또는 생각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0~4)에서 많았다.

[표 5-170] 어려움이 많아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낌 : 주관적 인식

구분		n	없다(%)	있다(%)	Mean(1~5)
전체		(17357)	52.4	47.6	2.44
전반적 행복감	0~4	(1092)	33.9	66.1	2.90
	5	(2821)	49.3	50.7	2.47
	6~10	(13443)	54.5	45.5	2.39
어제 행복감	0~4	(1351)	35.4	64.6	2.84
	5	(2983)	49.6	50.4	2.48
	6~10	(13023)	54.8	45.2	2.38
어제 미소/웃음	0~4	(1760)	43.4	56.6	2.67
	5	(3349)	51.8	48.2	2.44
	6~10	(12248)	53.8	46.2	2.40
사다리 위치	0~4	(2070)	45.0	55.0	2.65
	5	(3173)	52.4	47.6	2.42
	6~10	(12114)	53.6	46.4	2.40
5년 전 삶의 만족도	0~4	(1573)	47.9	52.1	2.56
	5	(3484)	51.0	49.0	2.46
	6~10	(12301)	53.3	46.7	2.41
5년 후 삶의 만족도	0~4	(1196)	43.9	56.1	2.71
	5	(2762)	49.1	50.9	2.48
	6~10	(13399)	53.8	46.2	2.40

# 제6장

## 일상 재구성

---

제1절 어제 기상 및 취침 시간

제2절 어제 중요한 일(1+2순위)

제3절 어제 중요한 일(1순위)과 가까운 활동

제4절 어제 중요한 일(1순위)을 같이한 사람

제5절 어제 중요한 일(1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제6절 어제 중요한 일(2순위)과 가까운 활동

제7절 어제 중요한 일(2순위)을 같이한 사람

제8절 어제 중요한 일(2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



## 제1절 어제 기상 및 취침 시간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어제 기상 및 취침 시간

#### 가. 전체 분석

어제 일어난 시간과 잠든 시간을 묻은 결과 기상 시간은 6.9시(6시 54분), 취침 시간은 23.1시(23시 6분)으로 조사되었다.

(n=17,357, 시간)



[그림 6-1] 어제 기상시간 및 취침시간

## 나. 특성별 분석

기상 시간은 남자와 여자가 비슷하였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6.3시)이 가장 빠르고 20대(7.6시)가 가장 느렸다. 지역별로는 강원(6.5시), 전남(6.5시), 충남(6.6시) 순으로 빠르고 세종(7.2시)가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취침 시간은 남자(23.2시)와 여자(23.0시)가 비슷하였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22.4시)가 가장 빠르고 20대(23.9시)가 가장 늦었다. 지역별로는 강원(22.5시), 경북(22.6시), 전남(22.7시) 순으로 빠르고, 대전(23.5시)이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어제 기상 및 취침 시간

구분		n	기상 시간	취침 시간
전체		(17357)	(6.9)	(23.1)
조사참여 요일	화~금	(8521)	(6.8)	(23.1)
	토~일	(8836)	(6.9)	(23.1)
성별	남자	(8615)	(6.9)	(23.2)
	여자	(8742)	(6.8)	(23.0)
연령별	15~19	(871)	(7.4)	(23.8)
	20대	(2550)	(7.6)	(23.9)
	30대	(2576)	(7.1)	(23.4)
	40대	(3123)	(6.9)	(23.2)
	50대	(3304)	(6.7)	(23.0)
	60대 이상	(4933)	(6.3)	(22.4)
지역별	서울	(3301)	(6.9)	(23.3)
	부산	(1155)	(7.0)	(23.1)
	대구	(800)	(7.1)	(23.0)
	인천	(996)	(6.9)	(22.9)
	광주	(483)	(6.8)	(23.1)
	대전	(490)	(6.9)	(23.5)
	울산	(375)	(6.8)	(22.8)
	세종	(114)	(7.2)	(23.4)
	경기	(4404)	(6.8)	(23.3)
	강원	(526)	(6.5)	(22.5)
	충북	(540)	(6.8)	(23.0)
	충남	(711)	(6.6)	(22.8)
	전북	(602)	(6.9)	(22.8)
	전남	(627)	(6.5)	(22.7)
	경북	(894)	(6.9)	(22.6)
	경남	(1116)	(6.9)	(23.1)
제주	(224)	(6.7)	(23.1)	
학력	중졸 이하	(2863)	(6.4)	(22.5)
	고졸	(5401)	(6.6)	(22.9)
	대재 이상	(9093)	(7.1)	(23.4)

구분		n	가상 시간	취침 시간
직업유무	있다	(11617)	(6.8)	(23.1)
	없다	(5740)	(6.9)	(23.1)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6.9)	(23.2)
	자영업자	(3084)	(6.7)	(22.9)
	무급가족종사자	(538)	(6.6)	(22.6)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6.9)	(23.2)
	임시/일용근로자	(1395)	(6.9)	(23.1)
건강상태	좋음	(10989)	(7.0)	(23.3)
	보통	(5051)	(6.6)	(22.8)
	나쁨	(1317)	(6.4)	(22.3)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7.1)	(23.3)
	200만원 미만	(4187)	(6.6)	(22.7)
	200~300만원 미만	(4397)	(6.9)	(23.2)
	300~400만원 미만	(2925)	(6.8)	(23.2)
	400만원 이상	(1697)	(6.8)	(23.1)
혼인상태	미혼	(5170)	(7.5)	(23.8)
	기혼	(10451)	(6.6)	(22.9)
	사별/이혼/별거	(1736)	(6.4)	(22.4)
가구원수	1인	(1936)	(6.8)	(22.9)
	2인 이상	(15421)	(6.9)	(23.1)
주거형태	자가	(14022)	(6.8)	(23.0)
	전세	(2209)	(7.0)	(23.3)
	월세/사글세/무상	(1126)	(7.2)	(23.4)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6.7)	(22.9)
	아파트	(8442)	(6.9)	(23.2)
	연립/다세대/기타	(3130)	(6.9)	(23.2)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6.8)	(22.6)
	비해당	(16899)	(6.9)	(23.1)
다문화가구	해당	(100)	(6.9)	(23.0)
	비해당	(17257)	(6.9)	(23.1)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6.7)	(22.8)
	200만원 미만	(2096)	(6.5)	(22.3)
	200~300만원 미만	(2038)	(6.8)	(22.9)
	300~400만원 미만	(2908)	(6.9)	(23.1)
	400~500만원 미만	(3072)	(7.0)	(23.2)
	500~600만원 미만	(3149)	(7.0)	(23.2)
	600만원 이상	(3941)	(6.9)	(23.3)



## 제2절

### 어제 중요한 일(1+2순위)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어제 중요한 일

##### 가. 전체 분석

어제 중요한 일 3가지 중 중요도가 높은 두 가지 활동이 무엇인지 묻은 결과 ‘직업 관련 일’이 63.0%로 가장 많고, ‘가정 내 활동’(21.3%), ‘개인적 친교 활동’(15.2%), ‘휴식’(14.2%), ‘음식섭취’(10.7%), ‘미디어 시청/활동’(8.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표 6-4] 어제 중요한 일(1+2순위)

구분	비율(%)
전체	(n=17357)
직업 관련 일(구직/창업 활동 포함)	63.0
가정 내 활동	21.3
개인적 친교 활동	15.2
휴식	14.2
음식섭취	10.7
미디어 시청/활용	8.5
스포츠/레저 활동	7.7
건강관리(요양, 병·의원 방문 등)	7.5
학교 활동 외 학습 활동	7.5
가족과 대화	6.9
여가 취미활동, 교양학습	5.9
수면	5.6
학습(학교 활동)	4.9
쇼핑 및 서비스 구매(매장)	3.5
가족 돌보기(아이 돌봄)	3.3
이동	3.0
위생/외모 관리	2.6
게임	2.0
사회적 참여 활동	1.8
반려동물/식물 돌보기	1.4
쇼핑 및 서비스 구매(온라인)	1.2
문화/관광 활동	1.1
가족원 간호/도움/교육	0.9
자원봉사	0.1

## 제3절

# 어제 중요한 일(1순위)과 가까운 활동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어제 중요한 일(1순위)과 가까운 활동

#### 가. 전체 분석

어제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을 3개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활동이 무엇인지 묻은 결과 '직업 관련 일'이 43.0%로 가장 많고, '가정 내 활동'(10.3%), '개인적 친교 활동'(5.1%), '건강관리'(4.7%), '음식섭취'(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표 6-5] 어제 중요한 일(1순위)과 가까운 활동

구분	비율(%)
전체	(n=17357)
직업 관련 일(구직/창업 활동 포함)	43.0
가정 내 활동	10.3
개인적 친교 활동	5.1
건강관리(요양, 병·의원 방문 등)	4.7
음식섭취	4.5
학교 활동 외 학습 활동	4.4
학습(학교 활동)	3.3
휴식	3.2
스포츠/레저 활동	3.1
여가 취미활동, 교양학습	2.3
수면	2.3
가족과 대화	1.9
이동	1.9
가족 돌보기(아이 돌봄)	1.8
위생/외모 관리	1.5
미디어 시청/활용	1.5
쇼핑 및 서비스 구매(매장)	1.3
사회적 참여 활동	1.1
반려동물/식물 돌보기	0.7
쇼핑 및 서비스 구매(온라인)	0.5
가족원 간호/도움/교육	0.5
게임	0.5
문화/관광 활동	0.5
자원봉사	0.1

## 제4절

# 어제 중요한 일(1순위)을 함께 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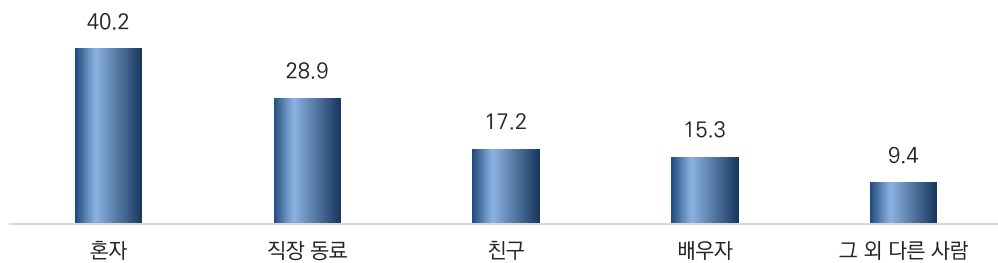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어제 중요한 일(1순위)을 함께 한 사람

#### 가. 전체 분석

중요도 1순위 일을 함께 한 사람을 복수로 묻은 결과 ‘혼자’가 40.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직장 동료’(28.9%), ‘친구’(17.2%), ‘배우자’(15.3%), ‘그 외 사람’(9.4%) 순으로 많이 응답되었다.

(n=17,357, %)



[그림 6-2] 중요도 1순위 일을 함께 한 사람(상위 5위)

## 나. 특성별 분석

‘혼자’ 응답은 남자(36.4%)보다 여자(44.0%)가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46.8%)이 가장 많고 30대(33.4%)가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제주(48.1%), 충남(47.8%), 울산(45.0%) 순으로 많고, 세종(24.1%)이 가장 적었다. 조사 참여 요일별로는 ‘토~월’(41.8%)이 ‘화~금’(38.6%)보다 많았다.

그 외 특성별로는 중졸 이하(48.5%), 직업 없음(54.1%), 개인소득 없음(51.4%), 사별/이혼/별거(52.1%), 기초생활수급가구(55.9%), 1인 가구(49.5%)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4] 어제 중요한 일(1순위)을 함께 한 사람

구분		n	혼자	직장 동료	친구	배우자	그 외 사람
전체		(17357)	40.2	28.9	17.2	15.3	9.4
조사참여 요일	화~금	(8521)	38.6	31.4	16.9	14.8	10.3
	토~일	(8836)	41.8	26.5	17.4	15.9	8.5
성별	남자	(8615)	36.4	36.3	16.5	15.4	9.2
	여자	(8742)	44.0	21.7	17.8	15.3	9.6
연령별	15~19	(871)	40.1	1.4	59.3	0.2	9.2
	20대	(2550)	39.5	29.6	30.4	2.0	8.5
	30대	(2576)	33.4	45.8	12.6	13.1	7.9
	40대	(3123)	35.1	38.5	10.4	17.6	9.1
	50대	(3304)	41.4	32.8	10.8	18.2	10.1
	60대 이상	(4933)	46.8	16.0	13.9	22.8	10.3
지역별	서울	(3301)	40.2	33.2	18.4	12.0	14.4
	부산	(1155)	42.6	26.3	19.1	11.5	7.1
	대구	(800)	44.8	23.9	17.8	14.2	5.9
	인천	(996)	31.4	35.2	17.8	13.7	7.8
	광주	(483)	29.8	28.7	18.7	15.1	15.1
	대전	(490)	37.7	32.7	11.6	19.3	12.0
	울산	(375)	45.0	35.9	18.4	13.2	6.1
	세종	(114)	24.1	33.4	16.2	24.5	2.8
	경기	(4404)	44.3	29.1	16.7	13.9	8.2
	강원	(526)	38.1	22.2	23.9	16.6	2.8
	충북	(540)	31.4	28.0	10.7	17.1	15.6
	충남	(711)	47.8	29.6	10.7	22.7	2.3
	전북	(602)	42.2	23.4	14.9	17.0	16.4
	전남	(627)	25.0	27.0	20.5	27.9	10.3
	경북	(894)	35.3	24.6	14.4	22.8	7.6
	경남	(1116)	42.8	24.0	18.2	15.5	4.5
제주	(224)	48.1	22.7	24.5	13.5	13.7	
학력	중졸 이하	(2863)	48.5	6.6	24.4	18.4	8.7
	고졸	(5401)	41.9	27.2	12.6	19.5	10.8
	대재 이상	(9093)	36.7	36.9	17.6	11.9	8.8

구분		n	혼자	직장 동료	친구	배우자	그 외 사람
직업유무	있다	(11617)	33.4	42.8	10.5	16.9	10.8
	없다	(5740)	54.1	0.7	30.7	12.2	6.7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29.9	54.3	11.6	10.8	8.3
	자영업자	(3084)	43.6	19.9	8.4	24.3	17.0
	무급가족종사자	(538)	37.6	3.6	6.5	52.2	14.6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28.4	56.6	10.7	11.3	7.8
	임시/일용근로자	(1395)	36.4	44.1	15.6	8.2	10.5
건강상태	좋음	(10989)	37.0	33.3	18.5	13.3	10.0
	보통	(5051)	43.7	24.1	15.9	18.6	8.6
	나쁨	(1317)	53.8	11.0	11.5	19.6	7.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51.4	0.7	31.8	14.2	7.1
	200만원 미만	(4187)	46.3	19.3	15.9	17.5	9.4
	200~300만원 미만	(4397)	32.4	45.7	12.5	13.1	11.0
	300~400만원 미만	(2925)	31.7	48.8	9.9	15.5	9.5
	400만원 이상	(1697)	33.0	44.1	9.1	18.3	10.6
혼인상태	미혼	(5170)	39.2	31.8	30.1	0.4	8.4
	기혼	(10451)	38.8	28.9	11.0	25.2	9.6
	사별/이혼/별거	(1736)	52.1	20.3	16.3	0.3	11.5
가구원수	1인	(1936)	49.5	32.1	17.0	0.5	10.1
	2인 이상	(15421)	39.1	28.5	17.2	17.2	9.3
주거형태	자가	(14022)	40.3	27.3	17.8	16.1	9.5
	전세	(2209)	38.8	36.6	13.7	15.0	7.8
	월세/사글세/무상	(1126)	43.1	34.5	16.3	6.0	11.0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42.0	24.3	16.1	18.9	8.5
	아파트	(8442)	39.1	30.3	17.7	14.4	9.3
	연립/다세대/기타	(3130)	40.1	33.7	17.9	11.2	11.4
기초생활수급	해당	(458)	55.9	19.8	11.9	11.4	7.5
	비해당	(16899)	39.8	29.2	17.3	15.4	9.5
다문화가구	해당	(100)	30.2	27.0	24.1	24.2	14.6
	비해당	(17257)	40.3	28.9	17.1	15.3	9.4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42.5	8.7	34.3	22.2	4.8
	200만원 미만	(2096)	52.8	10.7	15.0	18.4	7.4
	200~300만원 미만	(2038)	41.8	27.3	15.7	17.1	9.9
	300~400만원 미만	(2908)	41.5	30.3	16.4	15.4	8.4
	400~500만원 미만	(3072)	38.3	31.6	19.2	14.5	8.3
	500~600만원 미만	(3149)	36.9	32.3	17.5	15.4	10.0
	600만원 이상	(3941)	36.0	34.4	17.2	13.1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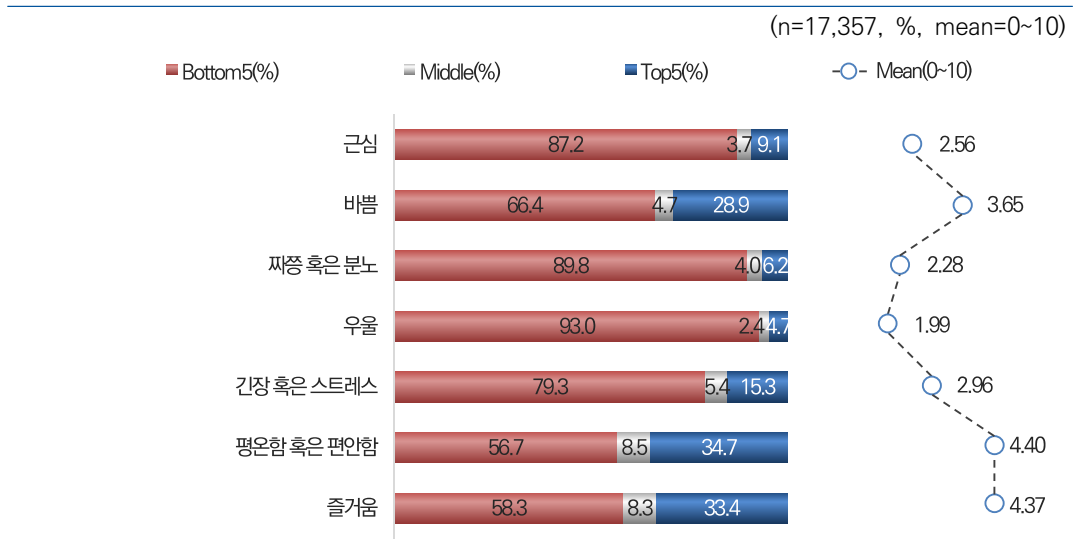
## 제5절

# 어제 중요한 일(1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종합 분석

어제 중요한 일(1순위)을 하면서 7가지 감정 각각을 얼마나 느꼈는지 묻은 결과, 동의 정도는 '평온함 혹은 편안함'(4.40점), '즐거움'(4.37점), '바쁨'(3.65점) 순으로 높고, '우울'(1.99점)이 가장 낮았다.



[그림 6-3] 중요도 1순위 일을 하면서 느낀 감정

## 1 근심

### 가. 전체 분석

‘중요도 1순위 일을 하면서 근심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묻은 결과 9.1%가 6점 이상을 응답했으며, 87.2%가 4점 이하를 응답했다. 경험 정도 평균은 2.56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중요도 1순위 일을 하면서 근심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남자(2.65점)가 여자(2.47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2.75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2.41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강원(3.10점), 제주(2.85점), 경북(2.84점) 순으로 높고, 대전(2.10점)이 가장 낮았다. 조사 참여 요일별로는 ‘화~금’이 2.62점으로 ‘토~월’(2.50점)에 비해 0.12점 높았다.

그 외 특성별로는 대재 이상(2.62점), 월평균 개인소득 400만원 이상(2.80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5] 어제 중요한 일(1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 근심**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87.2	3.7	9.1	2.56
조사참여 요일	화~금	(8521)	86.9	4.1	9.1	2.62
	토~일	(8836)	87.5	3.4	9.1	2.50
성별	남자	(8615)	86.0	4.0	10.0	2.65
	여자	(8742)	88.4	3.5	8.1	2.47
연령별	15~19	(871)	86.0	4.5	9.5	2.75
	20대	(2550)	85.2	4.4	10.4	2.60
	30대	(2576)	88.8	3.3	7.9	2.55
	40대	(3123)	85.6	4.1	10.4	2.65
	50대	(3304)	87.6	3.4	9.0	2.61
	60대 이상	(4933)	88.4	3.5	8.1	2.41
지역별	서울	(3301)	85.0	4.3	10.7	2.71
	부산	(1155)	88.8	2.7	8.6	2.45
	대구	(800)	93.1	1.4	5.5	2.23
	인천	(996)	86.4	4.4	9.2	2.80
	광주	(483)	88.1	4.9	6.9	2.57
	대전	(490)	95.6	3.0	1.4	2.10
	울산	(375)	94.8	2.0	3.1	2.45
	세종	(114)	94.5	1.0	4.5	2.25
	경기	(4404)	88.0	3.5	8.5	2.50
	강원	(526)	80.7	5.3	14.0	3.10
	충북	(540)	87.7	4.4	7.8	2.81
	충남	(711)	86.2	3.9	9.9	2.56
	전북	(602)	84.1	2.1	13.8	2.58
	전남	(627)	86.4	4.6	9.0	2.41
	경북	(894)	79.0	4.4	16.6	2.84
	경남	(1116)	90.4	3.5	6.1	2.14
	제주	(224)	86.2	8.3	5.4	2.85
학력	중졸 이하	(2863)	87.9	3.4	8.6	2.46
	고졸	(5401)	88.7	3.5	7.8	2.50
	대재 이상	(9093)	86.1	3.9	9.9	2.62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86.9	3.7	9.4	2.62
	없다	(5740)	87.8	86.93.8	8.4	2.43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88.1	3.8	8.2	2.55
	자영업자	(3084)	84.8	3.4	11.8	2.77
	무급가족종사자	(538)	86.3	3.7	10.1	2.56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88.2	3.8	8.0	2.54
	임시/일용근로자	(1395)	87.6	3.5	8.8	2.57
건강상태	좋음	(10989)	89.6	3.2	7.2	2.39
	보통	(5051)	84.1	4.8	11.0	2.81
	나쁨	(1317)	79.2	3.9	16.9	3.01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87.4	4.2	8.4	2.48
	200만원 미만	(4187)	87.2	3.1	9.6	2.51
	200~300만원 미만	(4397)	88.3	3.6	8.1	2.57
	300~400만원 미만	(2925)	86.9	3.8	9.2	2.58
	400만원 이상	(1697)	84.3	4.2	11.5	2.80
혼인상태	미혼	(5170)	86.0	4.3	9.7	2.62
	기혼	(10451)	88.0	3.6	8.5	2.52
	사별/이혼/별거	(1736)	86.2	3.2	10.6	2.61
가구원수	1인	(1936)	86.9	3.7	9.3	2.55
	2인 이상	(15421)	87.2	3.7	9.0	2.56
주거형태	자가	(14022)	87.3	3.7	8.9	2.53
	전세	(2209)	87.9	3.7	8.4	2.58
	월세/사글세/무상	(1126)	84.6	3.6	11.8	2.82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86.6	4.0	9.4	2.55
	아파트	(8442)	87.3	3.5	9.2	2.55
	연립/다세대/기타	(3130)	88.1	3.8	8.1	2.58
기초생활수 급	해당	(458)	84.2	3.6	12.3	2.54
	비해당	(16899)	87.3	3.7	9.0	2.56
다문화가구	해당	(100)	72.5	5.4	22.1	3.34
	비해당	(17257)	87.3	3.7	9.0	2.55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81.4	7.3	11.3	2.79
	200만원 미만	(2096)	85.5	3.7	10.8	2.55
	200~300만원 미만	(2038)	87.6	4.0	8.4	2.58
	300~400만원 미만	(2908)	88.2	3.2	8.7	2.52
	400~500만원 미만	(3072)	87.6	3.1	9.3	2.54
	500~600만원 미만	(3149)	88.2	3.7	8.1	2.47
	600만원 이상	(3941)	86.4	4.4	9.2	2.64

## 2 바쁨

### 가. 전체 분석

‘중요도 1순위 일을 하면서 바쁨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묻은 결과 28.9%가 6점 이상을 응답했으며, 66.4%가 4점 이하를 응답했다. 경험 정도 평균은 3.65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중요도 1순위 일을 하면서 근심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남자(2.65점)가 여자(2.47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2.75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2.41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강원(3.10점), 제주(2.85점), 경북(2.84점) 순으로 높고, 대전(2.10점)이 가장 낮았다. 조사 참여 요일별로는 ‘화~금’이 3.81점으로 ‘토~월’(3.49점)에 비해 0.32점 높았다.

그 외 특성별로는 대재 이상(3.84점), 월평균 개인소득 400만원 이상(4.24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6] 어제 중요한 일(1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 바쁨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66.4	4.7	28.9	3.65
조사참여 요일	화~금	(8521)	64.1	4.8	31.1	3.81
	토~월	(8836)	68.6	4.6	26.8	3.49
성별	남자	(8615)	63.8	4.8	31.4	3.78
	여자	(8742)	68.9	4.7	26.4	3.52
연령별	15~19	(871)	75.0	5.5	19.5	3.32
	20대	(2550)	67.3	5.0	27.6	3.58
	30대	(2576)	59.6	4.8	35.6	4.03
	40대	(3123)	59.1	4.8	36.2	4.08
	50대	(3304)	63.5	4.5	32.1	3.83
	60대 이상	(4933)	74.5	4.4	21.0	3.14
지역별	서울	(3301)	57.5	4.6	37.9	4.23
	부산	(1155)	69.8	4.0	26.1	3.34
	대구	(800)	74.8	3.7	21.4	3.02
	인천	(996)	66.0	4.4	29.6	3.74
	광주	(483)	69.0	4.5	26.5	3.49
	대전	(490)	74.1	5.0	20.9	3.26
	울산	(375)	75.8	8.2	16.0	3.20
	세종	(114)	85.5	2.2	12.3	2.55
	경기	(4404)	63.6	5.1	31.3	3.79
	강원	(526)	69.4	6.6	24.1	3.61
	충북	(540)	76.4	4.2	19.5	3.22
	충남	(711)	73.4	5.0	21.6	3.27
	전북	(602)	71.3	3.9	24.8	3.45
	전남	(627)	62.8	3.7	33.5	3.78
	경북	(894)	68.1	4.3	27.6	3.54
	경남	(1116)	70.7	4.4	24.9	3.15
제주	(224)	73.8	6.5	19.7	3.51	
학력	중졸 이하	(2863)	78.6	4.9	16.4	2.95
	고졸	(5401)	65.7	4.3	30.0	3.69
	대재 이상	(9093)	62.9	4.9	32.2	3.84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59.5	4.7	35.8	4.04
	없다	(5740)	80.3	4.7	15.0	2.84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59.4	4.6	35.9	4.03
	자영업자	(3084)	58.5	4.9	36.6	4.15
	무급가족종사자	(538)	62.2	3.2	34.6	3.97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59.2	4.7	36.2	4.03
	임시/일용근로자	(1395)	60.7	4.3	35.0	4.00
건강상태	좋음	(10989)	64.7	4.4	30.9	3.70
	보통	(5051)	67.4	5.3	27.4	3.67
	나쁨	(1317)	76.8	4.8	18.3	3.07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76.7	4.9	18.4	3.07
	200만원 미만	(4187)	73.2	4.5	22.3	3.25
	200~300만원 미만	(4397)	59.8	4.7	35.5	4.02
	300~400만원 미만	(2925)	58.0	5.1	37.0	4.12
	400만원 이상	(1697)	55.9	4.3	39.7	4.24
혼인상태	미혼	(5170)	66.4	5.0	28.6	3.67
	기혼	(10451)	64.9	4.6	30.4	3.72
	사별/이혼/별거	(1736)	75.1	4.2	20.7	3.11
가구원수	1인	(1936)	67.8	4.5	27.7	3.52
	2인 이상	(15421)	66.2	4.7	29.1	3.66
주거형태	자가	(14022)	67.6	4.5	27.9	3.57
	전세	(2209)	60.4	5.4	34.2	4.01
	월세/사글세/무상	(1126)	63.2	5.6	31.2	3.83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68.2	4.8	27.0	3.54
	아파트	(8442)	66.9	4.7	28.4	3.61
	연립/다세대/기타	(3130)	61.7	4.5	33.7	3.94
기초생활수 급	해당	(458)	77.7	5.2	17.1	2.90
	비해당	(16899)	66.1	4.7	29.2	3.67
다문화가구	해당	(100)	55.6	3.7	40.7	4.58
	비해당	(17257)	66.5	4.7	28.8	3.64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83.8	5.0	11.2	2.67
	200만원 미만	(2096)	80.6	4.3	15.1	2.75
	200~300만원 미만	(2038)	66.3	4.8	28.9	3.63
	300~400만원 미만	(2908)	65.4	5.0	29.5	3.73
	400~500만원 미만	(3072)	64.2	4.4	31.3	3.76
	500~600만원 미만	(3149)	63.6	4.7	31.8	3.81
	600만원 이상	(3941)	62.8	4.9	32.3	3.88

### 3 짜증 혹은 분노

#### 가. 전체 분석

‘중요도 1순위 일을 하면서 짜증 혹은 분노를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묻은 결과 6.2%가 6점 이상을 응답했으며, 89.8%가 4점 이하를 응답했다. 경험 정도 평균은 2.28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중요도 1순위 일을 하면서 짜증 혹은 분노를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남자(2.36점)가 여자(2.21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2.53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2.07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강원(3.01점), 제주(2.65점), 서울(2.49점) 순으로 높고, 대전(1.82점)이 가장 낮았다. 조사 참여 요일별로는 ‘화~금’이 2.34점으로 ‘토~월’(2.23점)에 비해 0.11점 높았다.

그 외 특성별로는 대재 이상(2.33점), 월평균 개인소득 400만원 이상(2.49점), 미혼(2.40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7] 어제 중요한 일(1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 짜증 혹은 분노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89.8	4.0	6.2	2.28
조사참여 요일	화~금	(8521)	89.5	4.1	6.4	2.34
	토~일	(8836)	90.0	3.9	6.1	2.23
성별	남자	(8615)	88.9	4.3	6.9	2.36
	여자	(8742)	90.7	3.8	5.6	2.21
연령별	15~19	(871)	88.1	4.9	7.0	2.53
	20대	(2550)	88.7	3.7	7.5	2.28
	30대	(2576)	88.1	4.9	7.0	2.42
	40대	(3123)	89.2	4.0	6.8	2.38
	50대	(3304)	90.0	3.8	6.3	2.34
	60대 이상	(4933)	91.7	3.7	4.6	2.07
지역별	서울	(3301)	87.1	5.0	7.9	2.49
	부산	(1155)	91.7	4.2	4.1	2.18
	대구	(800)	92.6	2.6	4.8	2.05
	인천	(996)	90.5	4.3	5.2	2.37
	광주	(483)	92.9	3.7	3.4	2.03
	대전	(490)	95.6	1.7	2.6	1.82
	울산	(375)	95.5	1.9	2.5	2.30
	세종	(114)	92.7	0.0	7.3	1.94
	경기	(4404)	90.0	4.1	5.9	2.25
	강원	(526)	82.2	4.4	13.3	3.01
	충북	(540)	94.0	2.1	3.9	2.21
	충남	(711)	86.0	5.8	8.2	2.34
	전북	(602)	90.0	2.4	7.6	2.18
	전남	(627)	89.8	5.3	4.9	2.13
	경북	(894)	88.9	3.0	8.1	2.36
	경남	(1116)	91.3	2.4	6.3	2.01
	제주	(224)	86.0	10.5	3.4	2.65
학력	중졸 이하	(2863)	91.5	3.6	5.0	2.10
	고졸	(5401)	89.9	4.2	5.9	2.29
	대재 이상	(9093)	89.1	4.0	6.8	2.33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88.9	4.3	6.8	2.39
	없다	(5740)	91.4	3.5	5.1	2.06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89.6	4.4	6.1	2.37
	자영업자	(3084)	88.9	4.0	7.1	2.40
	무급가족종사자	(538)	90.4	3.4	6.2	2.14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89.8	4.1	6.0	2.36
	임시/일용근로자	(1395)	88.5	5.4	6.1	2.41
건강상태	좋음	(10989)	91.8	3.6	4.6	2.14
	보통	(5051)	86.3	4.8	8.9	2.56
	나쁨	(1317)	86.2	4.3	9.5	2.44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91.1	3.6	5.2	2.14
	200만원 미만	(4187)	90.2	3.8	6.0	2.13
	200~300만원 미만	(4397)	88.6	4.3	7.1	2.42
	300~400만원 미만	(2925)	89.7	3.9	6.4	2.38
	400만원 이상	(1697)	88.4	4.7	6.8	2.49
혼인상태	미혼	(5170)	88.1	4.6	7.3	2.40
	기혼	(10451)	90.4	3.9	5.7	2.25
	사별/이혼/별거	(1736)	90.9	3.0	6.2	2.16
가구원수	1인	(1936)	89.1	4.1	6.8	2.31
	2인 이상	(15421)	89.8	4.0	6.2	2.28
주거형태	자가	(14022)	90.1	4.0	5.9	2.25
	전세	(2209)	89.0	3.4	7.6	2.43
	월세/사글세/무상	(1126)	86.5	5.5	8.0	2.46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89.3	4.3	6.4	2.25
	아파트	(8442)	90.1	4.0	5.9	2.25
	연립/다세대/기타	(3130)	89.5	3.6	6.9	2.43
기초생활수 급	해당	(458)	87.5	4.7	7.8	2.11
	비해당	(16899)	89.8	4.0	6.2	2.29
다문화가구	해당	(100)	78.4	3.8	17.8	2.70
	비해당	(17257)	89.8	4.0	6.2	2.28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84.2	6.9	8.9	2.70
	200만원 미만	(2096)	90.3	3.6	6.1	2.10
	200~300만원 미만	(2038)	88.3	4.5	7.2	2.35
	300~400만원 미만	(2908)	90.6	3.4	6.0	2.24
	400~500만원 미만	(3072)	89.3	4.0	6.7	2.33
	500~600만원 미만	(3149)	90.4	4.2	5.4	2.28
	600만원 이상	(3941)	89.7	4.2	6.1	2.33

## 4 우울

### 가. 전체 분석

‘중요도 1순위 일을 하면서 우울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묻은 결과 4.7%가 6점 이상을 응답했으며, 93.0%가 4점 이하를 응답했다. 경험 정도 평균은 1.99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중요도 1순위 일을 하면서 우울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남자(2.01점)가 여자(1.96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2.18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1.92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강원(2.85점), 인천(2.35점), 제주(2.33점) 순으로 높고, 광주(1.51점)가 가장 낮았다. 조사 참여 요일별로는 ‘화~금’이 2.07점으로 ‘토~월’(1.91점)에 비해 0.16점 높았다.

그 외 특성별로는 대재 이상(2.01점), 사별/이혼/별거(2.14점), 1인 가구(2.14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8] 어제 중요한 일(1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 우울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93.0	2.4	4.7	1.99
조사참여 요일	화~금	(8521)	92.5	2.5	5.1	2.07
	토~일	(8836)	93.4	2.3	4.3	1.91
성별	남자	(8615)	92.7	2.5	4.8	2.01
	여자	(8742)	93.2	2.3	4.5	1.96
연령별	15~19	(871)	91.4	4.0	4.6	2.18
	20대	(2550)	92.3	2.7	5.1	2.00
	30대	(2576)	94.3	2.0	3.7	1.96
	40대	(3123)	92.2	2.7	5.1	2.01
	50대	(3304)	92.9	2.0	5.1	2.01
	60대 이상	(4933)	93.4	2.2	4.5	1.92
지역별	서울	(3301)	92.4	1.9	5.7	2.04
	부산	(1155)	92.5	3.2	4.3	2.03
	대구	(800)	95.1	2.0	2.9	1.77
	인천	(996)	90.5	3.2	6.3	2.35
	광주	(483)	96.8	1.3	1.9	1.51
	대전	(490)	97.5	1.1	1.4	1.60
	울산	(375)	96.9	1.6	1.5	1.76
	세종	(114)	96.8	1.1	2.1	1.95
	경기	(4404)	93.8	2.4	3.8	1.95
	강원	(526)	83.3	5.5	11.2	2.85
	충북	(540)	97.3	1.7	1.0	2.05
	충남	(711)	91.5	1.6	6.9	2.05
	전북	(602)	90.6	2.6	6.8	2.19
	전남	(627)	91.7	3.9	4.4	1.75
	경북	(894)	90.0	2.1	7.8	1.98
	경남	(1116)	95.2	1.3	3.5	1.69
	제주	(224)	90.0	7.4	2.5	2.33
학력	중졸 이하	(2863)	92.7	2.8	4.6	1.94
	고졸	(5401)	93.1	1.9	4.9	1.97
	대재 이상	(9093)	92.9	2.5	4.6	2.01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93.1	2.3	4.6	2.00
	없다	(5740)	92.6	2.6	4.8	1.95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93.8	2.2	4.0	1.96
	자영업자	(3084)	93.0	1.9	5.1	2.04
	무급가족종사자	(538)	94.5	1.9	3.5	1.78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94.0	2.3	3.7	1.94
	임시/일용근로자	(1395)	92.9	1.9	5.2	2.03
건강상태	좋음	(10989)	95.3	1.8	2.9	1.78
	보통	(5051)	90.1	3.2	6.7	2.30
	나쁨	(1317)	84.1	4.0	11.9	2.50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92.6	2.7	4.7	1.94
	200만원 미만	(4187)	91.6	2.5	6.0	2.03
	200~300만원 미만	(4397)	94.1	1.9	4.0	2.00
	300~400만원 미만	(2925)	93.0	2.6	4.4	1.98
	400만원 이상	(1697)	94.1	2.1	3.7	1.95
혼인상태	미혼	(5170)	92.3	2.9	4.8	2.06
	기혼	(10451)	93.6	2.0	4.4	1.92
	사별/이혼/별거	(1736)	91.1	3.1	5.8	2.14
가구원수	1인	(1936)	91.8	3.1	5.1	2.14
	2인 이상	(15421)	93.1	2.3	4.6	1.97
주거형태	자가	(14022)	93.0	2.3	4.7	1.96
	전세	(2209)	93.2	2.6	4.1	2.11
	월세/사글세/무상	(1126)	91.4	3.1	5.5	2.11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92.5	2.5	5.0	1.99
	아파트	(8442)	93.1	2.1	4.7	1.97
	연립/다세대/기타	(3130)	93.3	2.8	3.9	2.03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91.6	2.8	5.7	2.01
	비해당	(16899)	93.0	2.4	4.6	1.98
다문화가구	해당	(100)	83.7	2.6	13.7	2.30
	비해당	(17257)	93.0	2.4	4.6	1.98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91.4	2.4	6.2	2.32
	200만원 미만	(2096)	90.1	2.9	7.0	2.11
	200~300만원 미만	(2038)	92.4	2.8	4.9	2.09
	300~400만원 미만	(2908)	92.7	2.7	4.5	1.94
	400~500만원 미만	(3072)	93.0	2.3	4.6	1.99
	500~600만원 미만	(3149)	94.6	1.8	3.6	1.88
	600만원 이상	(3941)	93.7	2.1	4.3	1.97

## 5 긴장 혹은 스트레스

### 가. 전체 분석

‘중요도 1순위 일을 하면서 긴장 혹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묻은 결과 15.3%가 6점 이상을 응답했으며, 79.3%가 4점 이하를 응답했다. 경험 정도 평균은 2.96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중요도 1순위 일을 하면서 긴장 혹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남자(3.13점)가 여자(2.78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3.29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2.54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강원(3.40점), 서울(3.29점), 인천(3.29점) 순으로 높고, 광주(2.61점)가 가장 낮았다. 조사 참여 요일별로는 ‘화~금’이 3.04점으로 ‘토~월’(2.88점)에 비해 0.16점 높았다.

그 외 특성별로는 대재 이상(3.11점), 직업 있음(3.13점), 월평균 개인소득 400만원 이상(3.37점), 미혼(3.20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9] 어제 중요한 일(1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 긴장 혹은 스트레스

구분		n	Bottom5 (%)	Middle (%)	Top5 (%)	Mean(0~10)
전체		(17357)	79.3	5.4	15.3	2.96
조사참여 요일	화~금	(8521)	78.5	5.5	16.0	3.04
	토~일	(8836)	80.1	5.4	14.5	2.88
성별	남자	(8615)	76.2	5.6	18.2	3.13
	여자	(8742)	82.3	5.3	12.4	2.78
연령별	15~19	(871)	73.8	7.1	19.1	3.29
	20대	(2550)	77.0	5.5	17.5	3.07
	30대	(2576)	74.4	6.3	19.3	3.22
	40대	(3123)	76.8	4.9	18.3	3.14
	50대	(3304)	79.0	6.0	15.0	3.02
	60대 이상	(4933)	85.8	4.6	9.7	2.54
지역별	서울	(3301)	73.7	6.1	20.2	3.29
	부산	(1155)	80.6	5.2	14.3	2.82
	대구	(800)	85.3	5.0	9.8	2.67
	인천	(996)	73.9	4.1	22.0	3.29
	광주	(483)	83.0	5.1	11.9	2.61
	대전	(490)	80.5	6.1	13.4	3.03
	울산	(375)	87.4	6.4	6.3	2.84
	세종	(114)	86.5	2.9	10.6	2.77
	경기	(4404)	79.5	5.8	14.7	2.92
	강원	(526)	72.4	6.1	21.6	3.40
	충북	(540)	85.5	5.3	9.2	2.86
	충남	(711)	83.8	4.5	11.7	2.73
	전북	(602)	81.0	4.9	14.1	2.84
	전남	(627)	83.4	4.5	12.1	2.70
	경북	(894)	82.5	5.4	12.1	2.75
	경남	(1116)	79.9	3.5	16.6	2.71
	제주	(224)	81.5	11.5	7.0	3.05
학력	중졸 이하	(2863)	84.9	5.1	10.0	2.61
	고졸	(5401)	81.0	5.6	13.4	2.88
	대재 이상	(9093)	76.5	5.4	18.1	3.11

구분		n	Bottom5 (%)	Middle (%)	Top5 (%)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76.7	5.9	17.4	3.13
	없다	(5740)	84.7	4.4	10.9	2.6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75.7	6.0	18.3	3.18
	자영업자	(3084)	77.8	5.9	16.3	3.09
	무급가족종사자	(538)	84.1	3.6	12.2	2.65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75.7	5.8	18.5	3.18
	임시/일용근로자	(1395)	75.8	7.1	17.1	3.21
건강상태	좋음	(10989)	79.5	5.3	15.2	2.92
	보통	(5051)	78.4	6.1	15.5	3.07
	나쁨	(1317)	81.3	3.5	15.3	2.84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82.9	5.1	12.1	2.72
	200만원 미만	(4187)	83.3	4.8	11.9	2.70
	200~300만원 미만	(4397)	76.2	6.4	17.5	3.14
	300~400만원 미만	(2925)	77.0	5.2	17.8	3.13
	400만원 이상	(1697)	73.0	5.5	21.5	3.37
혼인상태	미혼	(5170)	74.8	6.0	19.2	3.20
	기혼	(10451)	80.8	5.2	14.0	2.88
	사별/이혼/별거	(1736)	83.6	5.3	11.1	2.71
가구원수	1인	(1936)	79.0	6.3	14.7	2.93
	2인 이상	(15421)	79.3	5.3	15.4	2.96
주거형태	자가	(14022)	80.1	5.2	14.7	2.91
	전세	(2209)	76.5	6.2	17.3	3.13
	월세/사글세/무상	(1126)	74.8	6.7	18.6	3.19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81.8	4.9	13.3	2.80
	아파트	(8442)	78.9	5.6	15.5	2.97
	연립/다세대/기타	(3130)	75.7	5.9	18.4	3.22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83.5	5.1	11.4	2.62
	비해당	(16899)	79.2	5.4	15.4	2.97
다문화가구	해당	(100)	83.2	3.5	13.3	2.95
	비해당	(17257)	79.3	5.4	15.3	2.96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74.6	8.5	16.9	3.04
	200만원 미만	(2096)	86.8	3.9	9.3	2.51
	200~300만원 미만	(2038)	78.7	5.9	15.3	2.95
	300~400만원 미만	(2908)	79.3	6.2	14.5	2.98
	400~500만원 미만	(3072)	78.2	5.4	16.5	3.05
	500~600만원 미만	(3149)	80.3	4.7	15.0	2.92
	600만원 이상	(3941)	75.8	5.9	18.3	3.13



## 6 평온함 혹은 편안함

### 가. 전체 분석

‘중요도 1순위 일을 하면서 평온함 혹은 편안함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묻은 결과 34.7%가 6점 이상을 응답했으며, 56.7%가 4점 이하를 응답했다. 경험 정도 평균은 4.40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중요도 1순위 일을 하면서 평온함 혹은 편안함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여자(4.49점)가 남자(4.31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60대 이상(4.47점)이 가장 높고, 15~19세(4.09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대구(4.79점), 인천(4.79점), 경남(4.76점) 순으로 높고, 세종(3.30점)이 가장 낮았다.

그 외 특성별로는 대재 이상(4.46점), 직업 없음(4.60점), 월평균 개인소득 없음(4.57점), 2인 이상 가구(4.41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 참여 요일별로는 ‘토~월’이 4.49점으로 ‘화~금’(4.31점)에 비해 0.18점 높았다.

**[표 6-10] 어제 중요한 일(1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 평온함 혹은 편안함**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56.7	8.5	34.7	4.40
조사참여 요일	화~금	(8521)	58.2	8.9	32.9	4.31
	토~일	(8836)	55.3	8.1	36.5	4.49
성별	남자	(8615)	58.5	9.1	32.4	4.31
	여자	(8742)	55.0	7.9	37.1	4.49
연령별	15~19	(871)	63.0	7.8	29.2	4.09
	20대	(2550)	55.6	8.7	35.7	4.47
	30대	(2576)	57.6	8.3	34.2	4.42
	40대	(3123)	58.9	7.9	33.2	4.29
	50대	(3304)	56.5	8.7	34.8	4.42
	60대 이상	(4933)	54.6	8.9	36.4	4.47
지역별	서울	(3301)	53.1	8.5	38.3	4.61
	부산	(1155)	49.8	8.3	41.9	4.73
	대구	(800)	47.6	8.1	44.2	4.79
	인천	(996)	48.5	5.8	45.6	4.79
	광주	(483)	53.9	8.2	37.9	4.56
	대전	(490)	63.9	12.9	23.2	3.83
	울산	(375)	74.9	6.9	18.2	3.75
	세종	(114)	78.0	11.7	10.3	3.30
	경기	(4404)	60.8	8.5	30.7	4.16
	강원	(526)	64.7	7.3	28.0	4.14
	충북	(540)	64.0	10.1	25.9	3.94
	충남	(711)	64.5	10.3	25.2	3.90
	전북	(602)	58.1	7.7	34.2	4.55
	전남	(627)	54.8	12.3	32.9	4.51
	경북	(894)	54.2	9.0	36.8	4.53
	경남	(1116)	50.6	6.1	43.3	4.76
	제주	(224)	65.4	11.7	22.9	3.90
학력	중졸 이하	(2863)	57.6	9.4	33.0	4.30
	고졸	(5401)	57.7	8.1	34.3	4.35
	대재 이상	(9093)	55.9	8.5	35.6	4.46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59.0	8.6	32.4	4.30
	없다	(5740)	52.2	8.4	39.4	4.6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58.9	8.5	32.6	4.31
	자영업자	(3084)	59.6	9.0	31.3	4.25
	무급가족종사자	(538)	59.8	7.6	32.7	4.28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58.9	8.5	32.6	4.31
	임시/일용근로자	(1395)	58.8	8.3	32.8	4.31
건강상태	좋음	(10989)	55.8	8.4	35.8	4.43
	보통	(5051)	57.4	9.1	33.5	4.38
	나쁨	(1317)	62.0	7.6	30.4	4.19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52.5	8.3	39.2	4.57
	200만원 미만	(4187)	57.2	8.3	34.5	4.39
	200~300만원 미만	(4397)	59.2	8.4	32.3	4.31
	300~400만원 미만	(2925)	58.5	9.5	32.0	4.31
	400만원 이상	(1697)	56.3	8.2	35.5	4.43
혼인상태	미혼	(5170)	59.0	8.6	32.3	4.28
	기혼	(10451)	55.8	8.4	35.9	4.46
	사별/이혼/별거	(1736)	55.9	9.0	35.1	4.43
가구원수	1인	(1936)	57.3	9.5	33.2	4.34
	2인 이상	(15421)	56.7	8.4	34.9	4.41
주거형태	자가	(14022)	56.0	8.6	35.4	4.42
	전세	(2209)	59.4	7.1	33.5	4.33
	월세/사글세/무상	(1126)	60.6	10.0	29.5	4.22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57.6	9.4	33.0	4.32
	아파트	(8442)	56.2	8.1	35.7	4.45
	연립/다세대/기타	(3130)	56.7	8.1	35.2	4.42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64.8	10.4	24.8	3.92
	비해당	(16899)	56.5	8.5	35.0	4.41
다문화가구	해당	(100)	46.1	6.5	47.4	5.10
	비해당	(17257)	56.8	8.5	34.7	4.40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57.4	10.9	31.8	4.15
	200만원 미만	(2096)	56.3	9.8	33.9	4.36
	200~300만원 미만	(2038)	59.6	9.1	31.3	4.26
	300~400만원 미만	(2908)	57.4	7.5	35.1	4.38
	400~500만원 미만	(3072)	56.0	7.7	36.2	4.48
	500~600만원 미만	(3149)	56.3	8.3	35.5	4.47
	600만원 이상	(3941)	55.8	9.1	35.1	4.41

## 7 즐거움

### 가. 전체 분석

‘중요도 1순위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묻은 결과 33.4%가 6점 이상을 응답했으며, 58.3%가 4점 이하를 응답했다. 경험 정도 평균은 4.37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중요도 1순위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여자(4.47점)가 남자(4.28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4.49점)가 가장 높고, 15~19세(4.11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경남(5.00점), 부산(4.82점), 광주(4.75점) 순으로 높고, 세종(3.53점)이 가장 낮았다. 조사 참여 요일별로는 ‘토~월’이 4.44점으로 ‘화~금’(4.30점)에 비해 0.14점 높았다.

그 외 특성별로는 대재 이상(4.50점), 직업 없음(4.55점), 월평균 개인소득 없음(4.54점), 기혼(4.40점), 기초생활수급가구 비해당(4.39점), 2인 이상 가구(4.39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11] 어제 중요한 일(1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 즐거움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58.3	8.3	33.4	4.37
조사참여 요일	화~금	(8521)	59.5	8.6	31.9	4.30
	토~일	(8836)	57.2	7.9	34.8	4.44
성별	남자	(8615)	60.3	8.2	31.5	4.28
	여자	(8742)	56.4	8.4	35.2	4.47
연령별	15~19	(871)	64.0	7.0	29.0	4.11
	20대	(2550)	56.9	8.3	34.9	4.49
	30대	(2576)	58.0	7.3	34.6	4.45
	40대	(3123)	57.6	8.7	33.7	4.40
	50대	(3304)	59.0	7.6	33.4	4.36
	60대 이상	(4933)	58.3	9.2	32.6	4.32
지역별	서울	(3301)	57.2	8.2	34.6	4.45
	부산	(1155)	50.4	8.2	41.4	4.82
	대구	(800)	61.9	6.9	31.3	4.22
	인천	(996)	53.1	5.8	41.1	4.63
	광주	(483)	53.0	8.9	38.1	4.75
	대전	(490)	65.5	10.4	24.2	3.84
	울산	(375)	72.5	8.9	18.6	3.78
	세종	(114)	75.0	8.4	16.5	3.53
	경기	(4404)	61.7	8.0	30.3	4.18
	강원	(526)	61.5	8.2	30.4	4.19
	충북	(540)	62.6	11.6	25.7	4.04
	충남	(711)	63.0	10.5	26.5	4.09
	전북	(602)	60.7	8.4	30.9	4.36
	전남	(627)	54.3	11.5	34.3	4.60
	경북	(894)	58.7	7.2	34.1	4.45
	경남	(1116)	45.7	7.1	47.1	5.00
	제주	(224)	59.4	8.6	32.0	4.26
학력	중졸 이하	(2863)	61.4	9.1	29.6	4.16
	고졸	(5401)	59.6	8.6	31.8	4.27
	대재 이상	(9093)	56.7	7.8	35.5	4.50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59.9	8.5	31.6	4.29
	없다	(5740)	55.2	7.9	37.0	4.55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60.0	8.3	31.7	4.30
	자영업자	(3084)	61.0	8.5	30.5	4.22
	무급가족종사자	(538)	60.4	10.6	29.1	4.12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60.1	8.3	31.6	4.28
	임시/일용근로자	(1395)	59.8	8.2	32.0	4.34
건강상태	좋음	(10989)	56.2	8.2	35.6	4.49
	보통	(5051)	61.2	8.3	30.5	4.24
	나쁨	(1317)	65.0	9.0	26.0	3.93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55.1	8.1	36.8	4.54
	200만원 미만	(4187)	59.4	9.0	31.6	4.31
	200~300만원 미만	(4397)	59.9	8.6	31.5	4.31
	300~400만원 미만	(2925)	59.1	7.7	33.2	4.35
	400만원 이상	(1697)	58.3	7.1	34.6	4.34
혼인상태	미혼	(5170)	59.6	7.9	32.4	4.34
	기혼	(10451)	57.5	8.4	34.1	4.40
	사별/이혼/별거	(1736)	59.4	8.6	31.9	4.29
가구원수	1인	(1936)	59.8	8.6	31.6	4.27
	2인 이상	(15421)	58.2	8.2	33.6	4.39
주거형태	자가	(14022)	57.5	8.4	34.0	4.41
	전세	(2209)	61.2	7.2	31.6	4.26
	월세/사글세/무상	(1126)	62.7	8.2	29.0	4.13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60.1	8.5	31.4	4.28
	아파트	(8442)	57.1	8.0	34.9	4.45
	연립/다세대/기타	(3130)	58.2	8.7	33.1	4.35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65.8	9.4	24.8	3.98
	비해당	(16899)	58.1	8.2	33.6	4.39
다문화가구	해당	(100)	52.1	8.7	39.2	4.68
	비해당	(17257)	58.4	8.3	33.4	4.37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54.3	12.4	33.3	4.32
	200만원 미만	(2096)	60.1	9.1	30.8	4.23
	200~300만원 미만	(2038)	62.0	9.3	28.7	4.16
	300~400만원 미만	(2908)	56.8	8.6	34.7	4.43
	400~500만원 미만	(3072)	57.4	7.7	34.9	4.48
	500~600만원 미만	(3149)	57.8	8.0	34.3	4.45
	600만원 이상	(3941)	58.0	7.6	34.4	4.38

## 제6절

# 어제 중요한 일(2순위)과 가까운 활동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어제 중요한 일(2순위)과 가까운 활동

#### 가. 전체 분석

어제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을 3개 중 가장 중요도가 두 번째로 높은 활동이 무엇인지 묻은 결과 ‘직업 관련 일’이 19.9%로 가장 많고, ‘휴식’(11.0%), ‘가정 내 활동’(11.0%), ‘개인적 친교 활동’(10.2%), ‘미디어 시청/활용’(7.0%), ‘음식섭취’(6.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표 6-33] 어제 중요한 일(2순위)과 가장 가까운 활동

구분	비율(%)
전체	(n=17357)
직업 관련 일(구직/창업 활동 포함)	19.9
휴식	11.0
가정 내 활동 (요리, 주방일, 세탁, 청소, 차량관리, 공과금 처리 등)	11.0
개인적 친교 활동	10.2
미디어 시청/활용	7.0
음식섭취	6.3
가족과 대화	5.0
스포츠/레저 활동	4.6
여가 취미활동, 교양학습	3.6
수면	3.3
학교 활동 외 학습 활동(학원 수강, 온라인 수강, 자습 등)	3.1
건강관리(요양, 병·의원 방문 등)	2.8
쇼핑 및 서비스 구매(매장)	2.3
학습(학교 활동)	1.6
가족 돌보기(아이 돌봄)	1.5
게임	1.5
위생/외모 관리	1.1
이동	1.1
반려동물/식물 돌보기	0.7
쇼핑 및 서비스 구매(온라인)	0.7
사회적 참여 활동(단체활동, 종교활동, 관혼상제 등)	0.6
문화/관광 활동	0.6
가족원 간호/도움/교육	0.4
자원봉사	0.1



## 제7절

# 어제 중요한 일(2순위)을 함께 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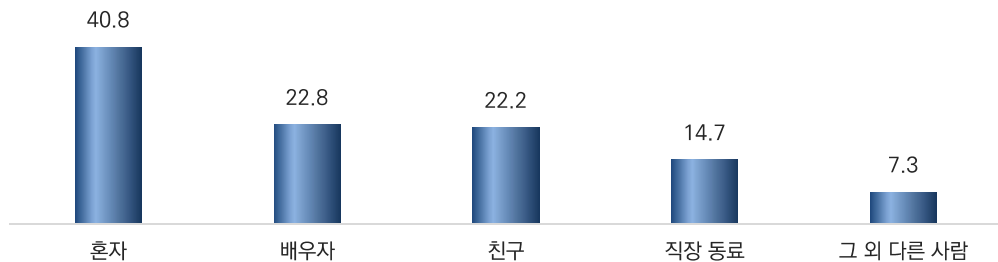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어제 중요한 일(2순위)을 함께 한 사람

#### 가. 전체 분석

중요도 2순위 일을 함께 한 사람을 복수로 물은 결과 ‘혼자’가 40.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배우자’(22.8%), ‘친구’(22.2%), ‘직장 동료’(14.7%), ‘그 외 사람’(7.3%) 순으로 많이 응답되었다.

(n=17,357, %)



[그림 6-4] 중요도 2순위 일을 함께 한 사람(상위 5위)

## 나. 특성별 분석

‘혼자’ 응답은 남자(37.1%)보다 여자(44.4%)가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46.7%)이 가장 많고 30대(35.4%)가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충남(57.8%), 제주(57.3%), 대구(48.1%) 순으로 많고, 전남(28.6%)이 가장 적었다. 조사 참여 요일별로는 ‘토~월’(41.2%)이 ‘화~금’(40.4%)보다 많았다.

그 외 특성별로는 중졸 이하(48.5%), 직업 없음(48.6%),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47.0%), 사별/이혼/별거(59.1%), 기초생활수급가구(53.5%), 1인 가구(58.4%)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13] 어제 중요한 일(2순위)을 함께 한 사람(상위 5위)

구분		n	혼자	배우자	친구	직장 동료	그 외 사람
전체		(17357)	40.8	22.8	22.2	14.7	7.3
조사참여 요일	화~금	(8521)	40.4	22.0	23.2	15.9	8.2
	토~일	(8836)	41.2	23.6	21.1	13.6	6.3
성별	남자	(8615)	37.1	25.0	22.5	18.7	7.5
	여자	(8742)	44.4	20.8	21.8	10.8	7.0
연령별	15~19	(871)	40.0	0.1	57.9	1.4	8.5
	20대	(2550)	40.4	2.5	39.6	15.1	8.2
	30대	(2576)	35.4	20.5	24.7	22.5	6.4
	40대	(3123)	37.1	29.1	13.9	20.3	7.3
	50대	(3304)	40.2	30.3	15.7	16.6	7.5
	60대 이상	(4933)	46.7	29.7	15.0	8.1	6.9
지역별	서울	(3301)	39.4	22.2	22.7	16.3	9.2
	부산	(1155)	42.2	22.1	22.2	11.5	4.4
	대구	(800)	48.1	22.1	20.4	11.1	2.0
	인천	(996)	36.3	13.7	25.9	23.4	11.6
	광주	(483)	38.3	22.4	21.1	14.4	7.8
	대전	(490)	44.1	24.6	18.3	9.8	5.2
	울산	(375)	40.6	20.8	25.0	22.7	6.7
	세종	(114)	35.8	30.7	12.1	10.3	3.9
	경기	(4404)	38.1	23.4	25.3	16.4	8.7
	강원	(526)	47.1	16.0	24.2	14.2	2.4
	충북	(540)	39.1	24.2	16.9	9.8	9.4
	충남	(711)	57.8	26.2	14.2	10.4	1.3
	전북	(602)	39.8	22.0	21.8	11.1	12.9
	전남	(627)	28.6	31.7	22.6	16.4	6.9
	경북	(894)	42.1	30.2	15.5	10.1	3.7
	경남	(1116)	43.1	22.7	18.7	12.4	4.3
제주	(224)	57.3	17.3	29.0	10.9	11.6	
학력	중졸 이하	(2863)	48.5	20.5	24.1	3.4	6.1
	고졸	(5401)	42.5	30.1	15.4	13.0	7.3
	대재 이상	(9093)	37.3	19.3	25.6	19.3	7.6

구분		n	혼자	배우자	친구	직장 동료	그 외 사람
직업유무	있다	(11617)	36.9	26.2	17.7	21.7	7.7
	없다	(5740)	48.6	16.0	31.2	0.6	6.4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35.3	20.5	20.8	26.6	6.5
	자영업자	(3084)	42.5	34.6	11.3	11.2	11.2
	무급가족종사자	(538)	35.8	52.1	11.4	3.2	9.3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33.8	21.4	21.4	27.9	6.2
	임시/일용근로자	(1395)	41.8	16.3	18.3	21.0	7.5
건강상태	좋음	(10989)	38.4	21.8	24.5	16.0	8.1
	보통	(5051)	42.6	25.5	19.7	14.2	5.8
	나쁨	(1317)	54.1	21.4	12.5	5.8	6.6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45.9	17.4	32.4	0.6	6.9
	200만원 미만	(4187)	47.0	22.9	18.5	9.7	7.0
	200~300만원 미만	(4397)	36.7	21.1	21.1	23.0	7.5
	300~400만원 미만	(2925)	35.7	27.1	18.2	23.8	7.3
	400만원 이상	(1697)	32.4	33.3	15.8	24.5	8.3
혼인상태	미혼	(5170)	41.4	0.5	40.2	15.5	7.9
	기혼	(10451)	37.5	37.6	14.0	15.4	7.0
	사별/이혼/별거	(1736)	59.1	0.7	17.6	8.5	7.2
가구원수	1인	(1936)	58.4	0.7	24.1	13.9	7.0
	2인 이상	(15421)	38.6	25.6	21.9	14.8	7.3
주거형태	자가	(14022)	39.9	23.9	22.4	14.3	7.4
	전세	(2209)	41.5	22.7	20.6	18.3	7.0
	월세/사글세/무상	(1126)	50.7	10.4	22.0	13.1	6.4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42.5	25.4	19.3	12.6	6.3
	아파트	(8442)	40.2	22.1	22.7	15.6	7.6
	연립/다세대/기타	(3130)	39.1	20.1	25.9	16.3	8.4
기초생활수 급	해당	(458)	53.5	12.7	15.8	6.7	6.3
	비해당	(16899)	40.4	23.1	22.3	14.9	7.3
다문화가구	해당	(100)	30.4	27.1	21.7	14.9	7.5
	비해당	(17257)	40.9	22.8	22.2	14.7	7.3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45.7	22.4	33.4	3.1	8.0
	200만원 미만	(2096)	54.2	21.0	16.8	5.2	4.9
	200~300만원 미만	(2038)	44.3	21.3	21.5	13.9	6.6
	300~400만원 미만	(2908)	42.2	24.9	20.9	12.9	6.4
	400~500만원 미만	(3072)	38.7	23.3	23.4	17.0	7.7
	500~600만원 미만	(3149)	33.6	25.4	22.9	18.0	8.2
	600만원 이상	(3941)	38.0	20.7	24.4	17.7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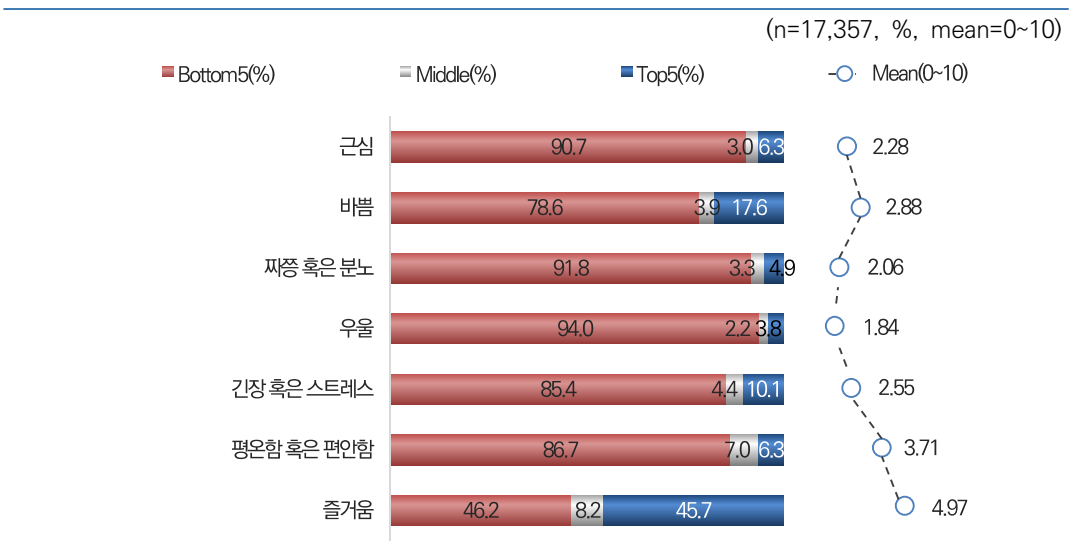
## 제8절

# 어제 중요한 일(2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0 종합 분석

어제 중요한 일(2순위)을 하면서 7가지 감정 각각을 얼마나 느꼈는지 묻은 결과, 동의 정도는 '즐거움'(4.97점), '평온함 혹은 편안함'(3.71점), '바쁨'(2.88점) 순으로 높고, '우울'(1.84점)이 가장 낮았다.



[그림 6-5] 중요도 2순위 일을 하면서 느낀 감정

## 1 근심

### 가. 전체 분석

‘중요도 2순위 일을 하면서 근심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묻은 결과 6.3%가 6점 이상을 응답했으며, 90.7%가 4점 이하를 응답했다. 경험 정도 평균은 2.28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중요도 2순위 일을 하면서 근심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남자(2.31점)가 여자(2.25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2.59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2.12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강원(2.84점), 제주(2.76점), 인천(2.60점) 순으로 높고, 대전(1.74점)이 가장 낮았다. 조사 참여 요일별로는 ‘화~금’이 2.30점으로 ‘토~월’(2.26점)에 비해 0.12점 높았다.

그 외 특성별로는 대재 이상(2.34점), 월평균 개인소득 400만원 이상(2.44점), 미혼(2.32점), 2인 이상 가구(2.29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14] 어제 중요한 일(2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 근심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90.7	3.0	6.3	2.28
조사참여 요일	화~금	(8521)	90.9	3.2	5.9	2.30
	토~일	(8836)	90.6	2.9	6.6	2.26
성별	남자	(8615)	90.1	3.2	6.7	2.31
	여자	(8742)	91.3	2.9	5.8	2.25
연령별	15~19	(871)	87.2	4.4	8.4	2.59
	20대	(2550)	90.8	2.8	6.4	2.24
	30대	(2576)	91.0	2.6	6.3	2.34
	40대	(3123)	89.9	3.2	6.8	2.38
	50대	(3304)	90.3	3.3	6.4	2.33
	60대 이상	(4933)	91.9	2.8	5.3	2.12
지역별	서울	(3301)	89.7	3.3	7.0	2.34
	부산	(1155)	93.2	2.2	4.5	2.04
	대구	(800)	93.1	2.0	4.9	2.17
	인천	(996)	89.9	3.1	6.9	2.60
	광주	(483)	92.5	3.9	3.6	2.04
	대전	(490)	96.4	1.1	2.5	1.74
	울산	(375)	94.9	1.2	3.9	2.35
	세종	(114)	94.3	2.1	3.5	2.01
	경기	(4404)	91.1	2.6	6.3	2.29
	강원	(526)	84.0	7.0	9.0	2.84
	충북	(540)	92.9	3.4	3.6	2.53
	충남	(711)	89.3	4.6	6.1	2.33
	전북	(602)	88.7	2.2	9.1	2.21
	전남	(627)	89.4	4.0	6.6	2.08
	경북	(894)	86.1	3.4	10.5	2.47
	경남	(1116)	92.7	2.6	4.7	1.93
	제주	(224)	87.1	5.6	7.3	2.76
학력	중졸 이하	(2863)	90.7	3.6	5.7	2.20
	고졸	(5401)	91.9	2.7	5.4	2.22
	대재 이상	(9093)	90.0	3.0	7.0	2.34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90.5	3.0	6.5	2.32
	없다	(5740)	91.2	3.1	5.7	2.21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92.3	2.8	4.9	2.21
	자영업자	(3084)	88.4	3.2	8.4	2.45
	무급가족종사자	(538)	85.7	4.2	10.1	2.48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92.5	2.7	4.8	2.19
	임시/일용근로자	(1395)	91.2	3.1	5.7	2.33
건강상태	좋음	(10989)	92.5	2.5	5.0	2.12
	보통	(5051)	88.3	4.1	7.5	2.55
	나쁨	(1317)	85.5	2.9	11.6	2.56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90.0	3.5	6.5	2.30
	200만원 미만	(4187)	90.6	3.0	6.4	2.22
	200~300만원 미만	(4397)	92.4	2.6	5.0	2.23
	300~400만원 미만	(2925)	90.5	2.8	6.7	2.31
	400만원 이상	(1697)	88.7	3.6	7.7	2.44
혼인상태	미혼	(5170)	90.1	3.1	6.8	2.32
	기혼	(10451)	91.1	2.9	6.0	2.27
	사별/이혼/별거	(1736)	90.0	3.7	6.3	2.23
가구원수	1인	(1936)	91.4	3.0	5.6	2.20
	2인 이상	(15421)	90.6	3.0	6.3	2.29
주거형태	자가	(14022)	90.9	2.9	6.2	2.26
	전세	(2209)	91.3	3.3	5.4	2.31
	월세/사글세/무상	(1126)	87.7	3.7	8.6	2.45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89.8	3.6	6.6	2.27
	아파트	(8442)	90.9	2.9	6.3	2.28
	연립/다세대/기타	(3130)	92.0	2.5	5.6	2.29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89.5	4.7	5.7	2.06
	비해당	(16899)	90.8	3.0	6.3	2.29
다문화가구	해당	(100)	83.3	2.2	14.5	2.78
	비해당	(17257)	90.8	3.0	6.2	2.28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85.7	5.0	9.3	2.36
	200만원 미만	(2096)	89.1	3.2	7.7	2.22
	200~300만원 미만	(2038)	91.3	3.4	5.3	2.30
	300~400만원 미만	(2908)	91.0	2.7	6.3	2.31
	400~500만원 미만	(3072)	91.2	2.9	5.8	2.27
	500~600만원 미만	(3149)	91.3	3.1	5.6	2.26
	600만원 이상	(3941)	90.4	2.9	6.7	2.31



## 2 바쁨

### 가. 전체 분석

‘중요도 2순위 일을 하면서 바쁨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묻은 결과 17.6%가 6점 이상을 응답했으며, 78.6%가 4점 이하를 응답했다. 경험 정도 평균은 2.88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중요도 2순위 일을 하면서 바쁨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여자(2.90점)가 남자(2.86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40대(3.12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2.51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울(3.40점), 제주(3.19점), 인천(3.15점) 순으로 높고, 대전(2.07점)이 가장 낮았다. 조사 참여 요일별로는 ‘화~금’이 3.02점으로 ‘토~월’(2.74점)에 비해 0.28점 높았다.

그 외 특성별로는 대재 이상(3.02점), 직업 있음(3.05점), 월평균 개인소득 400만원 이상(3.22점), 2인 이상 가구(2.92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15] 어제 중요한 일(2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 바쁨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78.6	3.9	17.6	2.88
조사참여 요일	화~금	(8521)	77.1	4.2	18.7	3.02
	토~일	(8836)	80.0	3.5	16.5	2.74
성별	남자	(8615)	78.6	3.9	17.5	2.86
	여자	(8742)	78.5	3.9	17.7	2.90
연령별	15~19	(871)	80.8	4.5	14.7	2.96
	20대	(2550)	79.8	3.7	16.5	2.84
	30대	(2576)	74.3	4.3	21.3	3.12
	40대	(3123)	74.7	4.3	21.0	3.12
	50대	(3304)	76.4	3.7	19.9	3.01
	60대 이상	(4933)	83.6	3.4	13.0	2.51
지역별	서울	(3301)	72.5	4.1	23.4	3.40
	부산	(1155)	83.4	2.9	13.7	2.51
	대구	(800)	85.5	3.6	10.9	2.11
	인천	(996)	75.4	5.7	19.0	3.15
	광주	(483)	75.2	2.8	22.0	3.00
	대전	(490)	90.0	2.8	7.2	2.07
	울산	(375)	78.5	7.4	14.1	2.91
	세종	(114)	91.2	1.4	7.4	2.26
	경기	(4404)	75.8	4.0	20.2	3.04
	강원	(526)	79.1	5.9	15.1	3.00
	충북	(540)	85.9	2.7	11.3	2.70
	충남	(711)	89.2	2.7	8.1	2.33
	전북	(602)	82.3	3.7	14.1	2.49
	전남	(627)	76.1	3.3	20.6	2.84
	경북	(894)	83.1	2.8	14.1	2.59
	경남	(1116)	80.6	2.6	16.8	2.51
	제주	(224)	78.5	8.3	13.2	3.19
학력	중졸 이하	(2863)	86.2	3.1	10.7	2.40
	고졸	(5401)	77.9	4.1	18.0	2.89
	대재 이상	(9093)	76.6	3.9	19.5	3.02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75.7	3.8	20.5	3.05
	없다	(5740)	84.3	3.9	11.8	2.53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76.4	3.7	19.8	3.01
	자영업자	(3084)	74.3	4.0	21.7	3.11
	무급가족종사자	(538)	73.1	4.2	22.7	3.20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76.2	3.7	20.0	3.02
	임시/일용근로자	(1395)	77.5	3.5	19.0	2.99
건강상태	좋음	(10989)	78.1	3.8	18.1	2.84
	보통	(5051)	78.3	4.0	17.7	3.01
	나쁨	(1317)	83.2	3.9	12.9	2.6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81.4	4.3	14.3	2.73
	200만원 미만	(4187)	82.5	3.4	14.1	2.61
	200~300만원 미만	(4397)	75.9	3.5	20.6	3.03
	300~400만원 미만	(2925)	75.3	4.4	20.2	3.04
	400만원 이상	(1697)	74.3	3.8	21.9	3.22
혼인상태	미혼	(5170)	79.1	3.9	17.0	2.89
	기혼	(10451)	77.5	3.9	18.6	2.94
	사별/이혼/별거	(1736)	83.5	3.3	13.2	2.48
가구원수	1인	(1936)	82.9	3.5	13.7	2.54
	2인 이상	(15421)	78.0	3.9	18.1	2.92
주거형태	자가	(14022)	78.9	3.8	17.2	2.85
	전세	(2209)	74.5	4.2	21.2	3.12
	월세/사글세/무상	(1126)	81.7	3.2	15.1	2.71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80.4	3.6	15.9	2.74
	아파트	(8442)	78.1	3.8	18.1	2.91
	연립/다세대/기타	(3130)	76.1	4.5	19.4	3.05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87.9	3.1	9.0	2.16
	비해당	(16899)	78.3	3.9	17.8	2.90
다문화가구	해당	(100)	68.2	4.1	27.7	3.69
	비해당	(17257)	78.6	3.9	17.5	2.87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81.9	4.4	13.7	2.54
	200만원 미만	(2096)	86.5	3.9	9.6	2.26
	200~300만원 미만	(2038)	80.3	3.5	16.3	2.78
	300~400만원 미만	(2908)	78.2	4.2	17.6	2.86
	400~500만원 미만	(3072)	77.3	3.4	19.3	3.01
	500~600만원 미만	(3149)	76.9	4.0	19.1	3.00
	600만원 이상	(3941)	75.8	4.0	20.2	3.08

### 3 짜증 혹은 분노

#### 가. 전체 분석

‘중요도 2순위 일을 하면서 짜증 혹은 분노를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묻은 결과 6.0%가 6점 이상을 응답했으며, 87.6%가 4점 이하를 응답했다. 경험 정도 평균은 2.34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중요도 2순위 일을 하면서 짜증 혹은 분노를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비슷했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2.34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1.91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강원(2.73점), 제주(2.50점), 울산(2.30점) 순으로 높고, 대전(1.53점)이 가장 낮았다. 조사 참여 요일별로는 ‘화~금’이 2.09점으로 ‘토~월’(2.03점)에 비해 0.06점 높았다.

그 외 특성별로는 직업 있음(2.10점), 월평균 개인소득 200~300만원 미만(2.12점), 미혼(2.11점), 기초생활수급가구 비해당(2.06점), 2인 이상 가구(2.06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16] 어제 중요한 일(2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 짜증 혹은 분노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91.8	3.3	4.9	2.06
조사참여 요일	화~금	(8521)	91.7	3.3	5.0	2.09
	토~월	(8836)	92.0	3.2	4.8	2.03
성별	남자	(8615)	91.8	3.2	5.0	2.06
	여자	(8742)	91.9	3.3	4.7	2.05
연령별	15~19	(871)	87.6	6.4	6.0	2.34
	20대	(2550)	91.8	3.0	5.2	2.04
	30대	(2576)	91.1	3.1	5.8	2.11
	40대	(3123)	91.1	3.0	5.9	2.17
	50대	(3304)	92.3	3.1	4.6	2.07
	60대 이상	(4933)	93.1	3.3	3.6	1.91
지역별	서울	(3301)	90.1	3.1	6.8	2.22
	부산	(1155)	93.7	2.6	3.7	1.89
	대구	(800)	93.7	3.0	3.3	1.95
	인천	(996)	91.6	3.4	5.0	2.27
	광주	(483)	93.1	4.1	2.9	1.73
	대전	(490)	96.2	1.8	2.0	1.53
	울산	(375)	95.1	2.9	2.0	2.30
	세종	(114)	92.5	1.1	6.4	1.74
	경기	(4404)	92.5	3.1	4.4	2.03
	강원	(526)	85.7	5.9	8.4	2.73
	충북	(540)	95.3	1.8	2.9	2.11
	충남	(711)	90.3	5.1	4.7	2.06
	전북	(602)	92.3	3.4	4.3	1.88
	전남	(627)	91.8	5.3	2.9	1.87
	경북	(894)	89.8	2.9	7.3	2.16
	경남	(1116)	91.9	2.7	5.4	1.76
제주	(224)	87.6	7.9	4.5	2.50	
학력	중졸 이하	(2863)	92.2	4.1	3.6	1.94
	고졸	(5401)	91.8	3.4	4.8	2.08
	대재 이상	(9093)	91.7	2.9	5.3	2.08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91.4	3.2	5.3	2.10
	없다	(5740)	92.6	3.4	3.9	1.96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92.3	2.9	4.8	2.07
	자영업자	(3084)	90.6	3.9	5.5	2.12
	무급가족종사자	(538)	91.6	2.7	5.6	2.04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92.6	2.7	4.7	2.04
	임시/일용근로자	(1395)	91.1	3.6	5.3	2.21
건강상태	좋음	(10989)	93.4	2.8	3.8	1.91
	보통	(5051)	89.3	4.2	6.5	2.33
	나쁨	(1317)	88.2	3.9	7.9	2.24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91.8	3.7	4.5	2.04
	200만원 미만	(4187)	91.7	3.5	4.8	2.01
	200~300만원 미만	(4397)	91.9	3.2	4.9	2.12
	300~400만원 미만	(2925)	92.3	2.3	5.4	2.05
	400만원 이상	(1697)	91.3	3.5	5.2	2.07
혼인상태	미혼	(5170)	90.9	3.4	5.7	2.11
	기혼	(10451)	92.2	3.2	4.6	2.05
	사별/이혼/별거	(1736)	92.3	3.3	4.3	1.96
가구원수	1인	(1936)	92.7	2.6	4.7	1.99
	2인 이상	(15421)	91.7	3.4	4.9	2.06
주거형태	자가	(14022)	92.1	3.3	4.6	2.03
	전세	(2209)	91.2	2.7	6.0	2.21
	월세/사글세/무상	(1126)	90.2	4.0	5.8	2.13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91.3	3.8	4.9	2.04
	아파트	(8442)	92.2	3.1	4.8	2.03
	연립/다세대/기타	(3130)	91.9	2.9	5.2	2.16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92.5	3.3	4.1	1.78
	비해당	(16899)	91.8	3.3	4.9	2.06
다문화가구	해당	(100)	84.6	1.1	14.3	2.57
	비해당	(17257)	91.9	3.3	4.8	2.05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86.4	6.4	7.2	2.31
	200만원 미만	(2096)	92.1	3.7	4.1	1.91
	200~300만원 미만	(2038)	91.7	3.5	4.8	2.12
	300~400만원 미만	(2908)	92.0	3.1	4.9	2.07
	400~500만원 미만	(3072)	91.7	3.2	5.1	2.09
	500~600만원 미만	(3149)	91.7	3.4	4.9	2.06
	600만원 이상	(3941)	92.0	3.0	5.0	2.05
기초생활수급여부	해당	(458)	92.5	3.3	4.1	1.78
	비해당	(16899)	91.8	3.3	4.9	2.06
가구원수	1인	(1936)	92.7	2.6	4.7	1.99
	2인 이상	(15421)	91.7	3.4	4.9	2.06

## 4 우울

### 가. 전체 분석

‘중요도 2순위 일을 하면서 우울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묻은 결과 4.7%가 6점 이상을 응답했으며, 93.5%가 4점 이하를 응답했다. 경험 정도 평균은 1.89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중요도 2순위 일을 하면서 우울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비슷했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2.08점)가 가장 높고, 20대(1.79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강원(2.60점), 제주(2.51점), 인천(2.16점) 순으로 높고, 광주(1.42점)가 가장 낮았다. 조사 참여 요일별로는 ‘화~금’이 1.87점으로 ‘토~월’(1.80점)에 비해 0.07점 높았다.

그 외 특성별로는 사별/이혼/별거(1.97점), 1인 가구(1.96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17] 어제 중요한 일(2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 우울

구분		n	Bottom5 (%)	Middle (%)	Top5 (%)	Mean(0~10)
전체		(17357)	94.0	2.2	3.8	1.84
조사참여 요일	화~금	(8521)	93.7	2.4	3.9	1.87
	토~월	(8836)	94.2	2.0	3.8	1.80
성별	남자	(8615)	93.7	2.4	3.9	1.83
	여자	(8742)	94.3	2.0	3.7	1.84
연령별	15~19	(871)	92.6	3.2	4.2	2.08
	20대	(2550)	94.0	2.3	3.7	1.79
	30대	(2576)	94.1	1.5	4.4	1.83
	40대	(3123)	93.7	2.6	3.7	1.83
	50대	(3304)	94.3	2.0	3.7	1.86
	60대 이상	(4933)	94.1	2.2	3.7	1.81
지역별	서울	(3301)	93.5	1.8	4.7	1.89
	부산	(1155)	94.4	2.1	3.5	1.81
	대구	(800)	96.0	1.5	2.5	1.68
	인천	(996)	91.8	2.4	5.7	2.16
	광주	(483)	95.8	1.7	2.5	1.42
	대전	(490)	97.8	1.3	0.9	1.43
	울산	(375)	96.7	1.8	1.5	1.75
	세종	(114)	96.8	2.9	0.3	1.81
	경기	(4404)	94.6	2.1	3.2	1.80
	강원	(526)	86.7	4.7	8.6	2.60
	충북	(540)	97.6	2.0	0.4	1.96
	충남	(711)	93.1	3.0	3.9	1.87
	전북	(602)	93.2	2.2	4.6	1.78
	전남	(627)	93.1	2.2	4.7	1.63
	경북	(894)	92.2	2.1	5.7	1.90
	경남	(1116)	94.7	2.2	3.1	1.61
제주	(224)	88.3	6.9	4.8	2.51	
학력	중졸 이하	(2863)	94.0	2.5	3.5	1.84
	고졸	(5401)	94.2	2.1	3.7	1.85
	대재 이상	(9093)	93.8	2.1	4.0	1.83

구분		n	Bottom5 (%)	Middle (%)	Top5 (%)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93.9	2.1	4.0	1.84
	없다	(5740)	94.1	2.3	3.6	1.83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94.9	1.9	3.2	1.77
	자영업자	(3084)	93.0	2.1	4.9	1.91
	무급가족종사자	(538)	94.1	2.2	3.6	1.82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95.4	1.8	2.8	1.74
	임시/일용근로자	(1395)	92.6	2.6	4.8	1.87
건강상태	좋음	(10989)	95.9	1.7	2.3	1.62
	보통	(5051)	91.5	2.9	5.6	2.18
	나쁨	(1317)	87.1	3.3	9.6	2.31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93.6	2.5	3.9	1.87
	200만원 미만	(4187)	93.4	2.3	4.3	1.86
	200~300만원 미만	(4397)	94.1	2.1	3.7	1.86
	300~400만원 미만	(2925)	94.7	1.9	3.4	1.74
	400만원 이상	(1697)	94.8	1.8	3.4	1.81
혼인상태	미혼	(5170)	93.4	2.4	4.1	1.88
	기혼	(10451)	94.4	2.0	3.5	1.79
	사별/이혼/별거	(1736)	92.9	2.4	4.8	1.97
가구원수	1인	(1936)	93.2	2.0	4.7	1.96
	2인 이상	(15421)	94.1	2.2	3.7	1.82
주거형태	자가	(14022)	94.1	2.2	3.7	1.81
	전세	(2209)	93.8	2.2	4.0	1.93
	월세/사글세/무상	(1126)	92.8	2.1	5.1	1.96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93.1	2.8	4.1	1.84
	아파트	(8442)	94.3	1.9	3.8	1.82
	연립/다세대/기타	(3130)	94.6	2.0	3.4	1.88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93.3	2.6	4.1	1.72
	비해당	(16899)	94.0	2.2	3.8	1.84
다문화가구	해당	(100)	86.4	1.1	12.5	2.23
	비해당	(17257)	94.0	2.2	3.8	1.83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85.4	6.7	7.9	2.32
	200만원 미만	(2096)	92.1	2.8	5.1	1.92
	200~300만원 미만	(2038)	93.3	2.7	4.0	1.95
	300~400만원 미만	(2908)	93.8	2.0	4.2	1.88
	400~500만원 미만	(3072)	94.2	2.2	3.6	1.84
	500~600만원 미만	(3149)	95.0	1.9	3.1	1.72
	600만원 이상	(3941)	94.8	1.8	3.5	1.77

## 5 긴장 혹은 스트레스

### 가. 전체 분석

‘중요도 2순위 일을 하면서 긴장 혹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묻은 결과 11.6%가 6점 이상을 응답했으며, 84.1%가 4점 이하를 응답했다. 경험 정도 평균은 2.71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중요도 2순위 일을 하면서 긴장 혹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남자(2.58점)가 여자(2.52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3.02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2.28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인천(2.95점), 제주(2.93점), 강원(2.91점) 순으로 높고, 대구(2.20점)가 가장 낮았다. 조사 참여 요일별로는 ‘화~금’이 2.58점으로 ‘토~월’(2.52점)에 비해 0.06점 높았다.

그 외 특성별로는 대재 이상(2.66점), 직업 있음(2.61점), 개인소득 400만원 이상(2.67점), 미혼(2.71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18] 어제 중요한 일(2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 긴장 혹은 스트레스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85.4	4.4	10.1	2.55
조사참여 요일	화~금	(8521)	85.0	4.6	10.4	2.58
	토~일	(8836)	85.8	4.3	9.9	2.52
성별	남자	(8615)	84.3	4.4	11.3	2.60
	여자	(8742)	86.5	4.5	9.0	2.49
연령별	15~19	(871)	79.4	5.8	14.9	3.02
	20대	(2550)	83.9	4.4	11.7	2.60
	30대	(2576)	83.4	4.7	11.9	2.67
	40대	(3123)	84.1	4.7	11.2	2.66
	50대	(3304)	85.4	4.2	10.3	2.58
	60대 이상	(4933)	89.1	4.0	6.8	2.28
지역별	서울	(3301)	84.1	4.3	11.6	2.71
	부산	(1155)	85.0	3.3	11.7	2.49
	대구	(800)	90.0	3.9	6.1	2.20
	인천	(996)	79.8	4.8	15.4	2.95
	광주	(483)	88.7	3.9	7.4	2.21
	대전	(490)	91.5	3.8	4.7	2.27
	울산	(375)	88.3	6.2	5.6	2.70
	세종	(114)	88.9	1.8	9.2	2.44
	경기	(4404)	83.9	4.9	11.1	2.62
	강원	(526)	81.8	5.6	12.6	2.91
	충북	(540)	88.7	4.9	6.4	2.66
	충남	(711)	89.7	4.4	5.9	2.22
	전북	(602)	86.2	4.9	8.9	2.30
	전남	(627)	88.3	4.7	7.0	2.29
	경북	(894)	89.2	3.3	7.5	2.21
	경남	(1116)	84.5	3.0	12.5	2.37
제주	(224)	84.2	9.2	6.6	2.93	
학력	중졸 이하	(2863)	88.3	4.5	7.3	2.33
	고졸	(5401)	86.7	4.6	8.7	2.47
	대재 이상	(9093)	83.8	4.3	11.9	2.66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84.2	4.6	11.2	2.61
	없다	(5740)	88.0	4.1	7.9	2.41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84.4	4.3	11.3	2.62
	자영업자	(3084)	84.4	4.5	11.1	2.62
	무급가족종사자	(538)	86.1	6.5	7.5	2.31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84.4	4.2	11.3	2.60
	임시/일용근로자	(1395)	84.3	4.5	11.2	2.69
건강상태	좋음	(10989)	86.0	4.1	9.9	2.48
	보통	(5051)	84.1	5.1	10.7	2.69
	나쁨	(1317)	85.6	4.4	10.0	2.54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86.6	4.4	9.0	2.50
	200만원 미만	(4187)	87.3	4.6	8.1	2.39
	200~300만원 미만	(4397)	84.6	4.0	11.4	2.63
	300~400만원 미만	(2925)	83.8	5.0	11.2	2.64
	400만원 이상	(1697)	82.9	4.1	13.0	2.67
혼인상태	미혼	(5170)	82.5	4.7	12.8	2.71
	기혼	(10451)	86.4	4.3	9.3	2.50
	사별/이혼/별거	(1736)	88.4	4.4	7.2	2.34
가구원수	1인	(1936)	86.7	4.4	8.9	2.45
	2인 이상	(15421)	85.3	4.4	10.3	2.56
주거형태	자가	(14022)	86.0	4.3	9.7	2.51
	전세	(2209)	82.2	5.2	12.6	2.80
	월세/사글세/무상	(1126)	84.5	4.5	11.1	2.56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86.6	4.1	9.3	2.42
	아파트	(8442)	85.6	4.2	10.2	2.57
	연립/다세대/기타	(3130)	82.7	5.6	11.7	2.73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90.0	3.8	6.1	2.08
	비해당	(16899)	85.3	4.5	10.3	2.56
다문화가구	해당	(100)	82.2	2.5	15.4	2.48
	비해당	(17257)	85.4	4.4	10.1	2.55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81.2	6.3	12.6	2.62
	200만원 미만	(2096)	90.1	4.1	5.8	2.19
	200~300만원 미만	(2038)	85.4	4.5	10.1	2.50
	300~400만원 미만	(2908)	84.8	4.8	10.5	2.62
	400~500만원 미만	(3072)	84.2	4.5	11.3	2.69
	500~600만원 미만	(3149)	85.1	4.4	10.4	2.57
	600만원 이상	(3941)	84.7	4.2	11.1	2.56

## 6 평온함 혹은 편안함

### 가. 전체 분석

‘중요도 2순위 일을 하면서 평온함 혹은 편안함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묻은 결과 6.3%가 6점 이상을 응답했으며, 86.7%가 4점 이하를 응답했다. 경험 정도 평균은 3.71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중요도 2순위 일을 하면서 평온함 혹은 편안함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남자(3.73점)가 여자(3.69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3.83점)가 가장 높고, 15~19세(3.41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전북(3.95점), 전남(3.91점), 서울(3.89점) 순으로 높고, 세종(3.24점)이 가장 낮았다. 조사 참여 요일별로는 ‘화~금’이 3.69점으로 ‘토~일’(3.73점)에 비해 0.04점 낮았다.

그 외 특성별로는 대재 이상(3.81점), 직업 있음(3.73점), 개인소득 400만원 이상(3.87점), 1인 가구(3.74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19] 어제 중요한 일(2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 평온함 혹은 편안함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86.7	7.0	6.3	3.71
조사참여 요일	화~금	(8521)	86.8	7.1	6.1	3.69
	토~일	(8836)	86.5	6.9	6.5	3.73
성별	남자	(8615)	86.1	7.4	6.5	3.73
	여자	(8742)	87.2	6.7	6.2	3.69
연령별	15~19	(871)	87.6	8.0	4.4	3.41
	20대	(2550)	85.6	6.9	7.5	3.83
	30대	(2576)	86.5	6.0	7.5	3.81
	40대	(3123)	86.8	7.2	6.0	3.70
	50대	(3304)	86.0	7.2	6.8	3.72
	60대 이상	(4933)	87.4	7.3	5.3	3.64
지역별	서울	(3301)	85.7	6.6	7.8	3.89
	부산	(1155)	87.2	7.0	5.7	3.66
	대구	(800)	87.1	6.5	6.3	3.87
	인천	(996)	85.9	5.4	8.7	3.85
	광주	(483)	85.0	7.3	7.7	3.83
	대전	(490)	90.4	8.4	1.2	3.44
	울산	(375)	90.3	7.6	2.1	3.28
	세종	(114)	87.8	10.0	2.3	3.24
	경기	(4404)	87.7	6.0	6.3	3.64
	강원	(526)	85.3	10.1	4.6	3.53
	충북	(540)	88.3	10.0	1.7	3.37
	충남	(711)	88.2	10.0	1.8	3.44
	전북	(602)	80.1	8.2	11.7	3.95
	전남	(627)	82.7	8.8	8.5	3.91
	경북	(894)	85.5	6.3	8.2	3.76
	경남	(1116)	88.5	6.9	4.6	3.68
제주	(224)	86.0	9.8	4.3	3.49	
학력	중졸 이하	(2863)	87.4	7.8	4.8	3.55
	고졸	(5401)	88.1	6.8	5.0	3.62
	대재 이상	(9093)	85.5	6.9	7.5	3.81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86.4	7.2	6.4	3.73
	없다	(5740)	87.1	6.8	6.1	3.67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87.3	6.2	6.5	3.72
	자영업자	(3084)	85.6	8.6	5.9	3.71
	무급가족종사자	(538)	85.0	10.0	5.0	3.67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87.1	6.0	6.9	3.75
	임시/일용근로자	(1395)	88.1	7.0	4.8	3.60
건강상태	좋음	(10989)	86.8	6.7	6.5	3.74
	보통	(5051)	86.2	7.8	6.0	3.67
	나쁨	(1317)	86.9	6.8	6.3	3.56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86.8	7.1	6.1	3.68
	200만원 미만	(4187)	87.0	7.3	5.7	3.62
	200~300만원 미만	(4397)	86.7	7.1	6.3	3.72
	300~400만원 미만	(2925)	86.4	7.1	6.5	3.76
	400만원 이상	(1697)	85.8	6.1	8.1	3.87
혼인상태	미혼	(5170)	86.3	7.0	6.6	3.72
	기혼	(10451)	86.7	7.0	6.3	3.72
	사별/이혼/별거	(1736)	87.2	7.5	5.3	3.62
가구원수	1인	(1936)	86.0	7.5	6.5	3.74
	2인 이상	(15421)	86.7	7.0	6.3	3.71
주거형태	자가	(14022)	86.6	7.1	6.3	3.70
	전세	(2209)	87.0	6.3	6.7	3.72
	월세/사글세/무상	(1126)	86.5	7.2	6.2	3.74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86.7	7.6	5.7	3.64
	아파트	(8442)	86.3	7.0	6.7	3.73
	연립/다세대/기타	(3130)	87.4	6.2	6.4	3.77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90.3	6.1	3.5	3.34
	비해당	(16899)	86.6	7.1	6.4	3.72
다문화가구	해당	(100)	78.4	10.3	11.4	4.08
	비해당	(17257)	86.7	7.0	6.3	3.71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89.0	8.2	2.8	3.28
	200만원 미만	(2096)	86.4	8.2	5.4	3.60
	200~300만원 미만	(2038)	87.9	6.9	5.2	3.57
	300~400만원 미만	(2908)	86.4	7.5	6.1	3.71
	400~500만원 미만	(3072)	85.4	7.7	7.0	3.79
	500~600만원 미만	(3149)	86.0	6.6	7.4	3.78
	600만원 이상	(3941)	87.7	6.0	6.2	3.73



## 7 즐거움

### 가. 전체 분석

‘중요도 2순위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묻은 결과 45.7%가 6점 이상을 응답했으며, 46.2%가 4점 이하를 응답했다. 경험 정도 평균은 4.97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중요도 2순위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남자(5.00점)가 여자(4.93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5.38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4.65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경남(5.31점), 서울(5.17점), 대구(5.09점) 순으로 높고, 울산(4.20점)이 가장 낮았다. 조사 참여 요일별로는 ‘화~금’이 4.95점으로 ‘토~월’(4.98점)에 비해 0.03점 낮았다.

그 외 특성별로는 대재 이상(5.25점), 직업 있음(4.98점), 개인소득 400만원 이상(5.24점), 미혼(5.19점), 2인 이상 가구(4.97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20] 어제 중요한 일(2순위)을 하면서 느낀 감정 - 즐거움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전체		(17357)	46.2	8.2	45.7	4.97
조사참여 요일	화~금	(8521)	46.3	8.2	45.5	4.95
	토~일	(8836)	46.0	8.1	45.8	4.98
성별	남자	(8615)	45.5	8.2	46.3	5.00
	여자	(8742)	46.9	8.1	45.0	4.93
연령별	15~19	(871)	51.8	9.2	39.0	4.67
	20대	(2550)	39.9	7.0	53.1	5.38
	30대	(2576)	40.0	8.2	51.8	5.33
	40대	(3123)	46.4	7.6	45.9	4.97
	50대	(3304)	47.1	8.8	44.1	4.90
	60대 이상	(4933)	50.9	8.5	40.6	4.65
지역별	서울	(3301)	43.4	7.4	49.2	5.17
	부산	(1155)	43.2	7.7	49.0	5.03
	대구	(800)	43.3	12.2	44.5	5.09
	인천	(996)	44.9	6.5	48.6	5.08
	광주	(483)	48.5	7.8	43.7	4.97
	대전	(490)	46.2	8.7	45.1	4.80
	울산	(375)	63.7	7.3	29.1	4.20
	세종	(114)	54.7	12.9	32.4	4.36
	경기	(4404)	47.3	7.6	45.2	4.89
	강원	(526)	51.8	10.3	37.8	4.73
	충북	(540)	51.6	11.0	37.4	4.51
	충남	(711)	43.9	9.8	46.3	4.88
	전북	(602)	51.0	8.1	40.9	4.82
	전남	(627)	50.6	7.7	41.7	4.81
	경북	(894)	45.3	8.7	46.0	5.07
	경남	(1116)	39.7	7.3	52.9	5.31
제주	(224)	49.5	10.9	39.6	4.69	
학력	중졸 이하	(2863)	54.2	8.6	37.2	4.52
	고졸	(5401)	49.6	8.6	41.8	4.73
	대재 이상	(9093)	41.6	7.8	50.6	5.25

구분		n	Bottom5(%)	Middle(%)	Top5(%)	Mean(0~10)
직업유무	있다	(11617)	46.0	8.4	45.6	4.98
	없다	(5740)	46.4	7.7	45.9	4.95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43.6	8.0	48.4	5.12
	자영업자	(3084)	49.4	9.4	41.2	4.73
	무급가족종사자	(538)	55.9	9.9	34.2	4.45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43.1	7.6	49.4	5.16
	임시/일용근로자	(1395)	45.9	9.7	44.4	4.94
건강상태	좋음	(10989)	41.9	7.6	50.5	5.21
	보통	(5051)	51.7	9.3	39.0	4.65
	나쁨	(1317)	60.6	8.3	31.1	4.14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45.9	7.7	46.4	4.98
	200만원 미만	(4187)	51.7	9.5	38.8	4.63
	200~300만원 미만	(4397)	45.7	7.4	46.9	5.03
	300~400만원 미만	(2925)	42.0	8.5	49.5	5.18
	400만원 이상	(1697)	41.7	7.3	50.9	5.24
혼인상태	미혼	(5170)	42.9	7.8	49.3	5.19
	기혼	(10451)	46.9	8.3	44.7	4.91
	사별/이혼/별거	(1736)	51.3	8.3	40.4	4.63
가구원수	1인	(1936)	47.5	8.0	44.5	4.91
	2인 이상	(15421)	46.0	8.2	45.8	4.97
주거형태	자가	(14022)	46.3	8.1	45.6	4.95
	전세	(2209)	46.6	8.4	45.0	5.00
	월세/사글세/무상	(1126)	44.2	8.6	47.2	5.06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48.1	8.0	43.9	4.82
	아파트	(8442)	45.4	8.5	46.1	5.02
	연립/다세대/기타	(3130)	44.7	7.4	47.9	5.09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52.3	8.6	39.1	4.50
	비해당	(16899)	46.0	8.1	45.8	4.98
다문화가구	해당	(100)	37.9	7.7	54.4	5.44
	비해당	(17257)	46.2	8.2	45.6	4.96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56.7	10.0	33.3	4.30
	200만원 미만	(2096)	55.1	9.2	35.6	4.45
	200~300만원 미만	(2038)	50.1	8.7	41.1	4.76
	300~400만원 미만	(2908)	43.7	8.9	47.5	5.02
	400~500만원 미만	(3072)	44.7	7.7	47.6	5.08
	500~600만원 미만	(3149)	44.4	7.3	48.3	5.14
	600만원 이상	(3941)	43.4	7.7	48.9	5.11



# 제7장

## 코로나19

---

제1절 코로나19 유행 이후 경제활동 변화

제2절 코로나19 유행 이후 소득 변화

제3절 코로나19 관련 인식

제4절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및 향후 접종 의향

---



## 제 1절

# 코로나19 유행 이후 경제활동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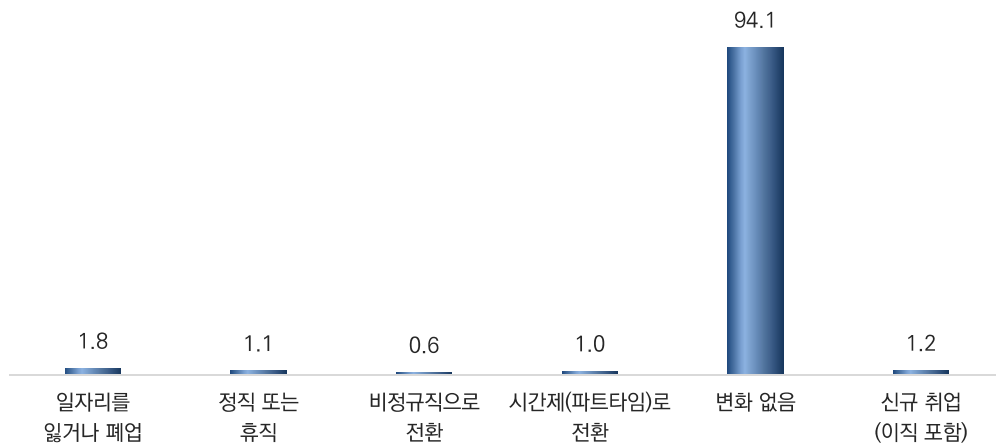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코로나19 유행 이후 경제활동 변화

#### 가. 전체 분석

코로나19 유행(2020년 1월) 이후 경제활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묻은 결과 ‘변화 없다’가 94.1%인 가운데, ‘일자리를 잃거나 폐업’(1.8%), ‘신규 취업’(1.2%), ‘정직 또는 휴직’(1.1%), ‘시간제 전환’(1.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n=17,357, %)



[그림 7-1] 중요도 2순위 일을 하면서 느낀 감정

## 나. 특성별 분석

‘일자리를 잃거나 폐업’은 남자(2.0%)가 여자(1.7%)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2.6%)가 가장 높고, 15~19세(0.1%)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경북(3.3%), 제주(2.5%), 전북(2.4%) 순으로 높고, 전남(0.2%)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로 고졸(2.3%), 직업 없음(3.4%),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3.7%), 사별/이혼/별거(2.3%), 기초생활수급가구(3.4%), 1인 가구(2.3%)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7-1] 코로나19 유행(2020년 1월) 이후 경제활동 변화

구분		n	일자리를 잃거나 폐업	정직 또는 휴직	비정규직 으로 전환	시간제 로 전환	변화 없음	신규 취업
전체		(17357)	1.8	1.1	0.6	1.0	94.1	1.2
성별	남자	(8615)	2.0	1.2	0.6	0.8	94.3	1.2
	여자	(8742)	1.7	1.1	0.7	1.3	94.0	1.2
연령별	15~19	(871)	0.1	0.0	0.0	0.2	99.6	0.1
	20대	(2550)	2.2	1.1	0.5	1.1	92.3	2.8
	30대	(2576)	1.5	1.4	0.7	1.0	93.2	2.1
	40대	(3123)	1.9	1.5	0.6	1.4	93.6	1.1
	50대	(3304)	2.6	1.2	0.7	1.5	93.2	0.9
	60대 이상	(4933)	1.6	1.0	0.8	0.6	95.6	0.4
지역별	서울	(3301)	1.8	1.7	0.9	1.0	93.3	1.3
	부산	(1155)	2.3	0.6	0.7	0.8	94.6	0.9
	대구	(800)	1.5	1.3	0.1	0.2	96.0	0.9
	인천	(996)	1.6	2.0	0.3	0.4	95.4	0.3
	광주	(483)	2.2	0.5	0.1	1.7	93.1	2.5
	대전	(490)	1.5	0.2	0.5	0.2	97.0	0.7
	울산	(375)	0.8	0.4	0.5	0.0	96.6	1.7
	세종	(114)	0.5	0.0	0.4	0.0	98.6	0.5
	경기	(4404)	1.8	1.1	0.7	1.8	93.1	1.5
	강원	(526)	2.3	0.9	0.2	0.6	94.5	1.5
	충북	(540)	2.0	0.3	0.0	1.7	94.1	1.9
	충남	(711)	2.0	0.5	1.2	0.6	95.1	0.7
	전북	(602)	2.4	1.3	1.6	0.8	92.6	1.3
	전남	(627)	0.2	0.1	0.2	0.5	98.7	0.2
	경북	(894)	3.3	2.2	0.3	1.1	91.9	1.1
	경남	(1116)	1.4	1.0	0.7	0.5	95.1	1.3
제주	(224)	2.5	1.1	0.0	1.1	93.2	2.1	
학력	중졸 이하	(2863)	1.7	0.4	0.4	0.4	96.8	0.3
	고졸	(5401)	2.3	1.4	0.7	1.5	93.3	0.9
	대재 이상	(9093)	1.6	1.3	0.7	1.0	93.7	1.7
직업유무	있다	(11617)	1.0	1.4	0.9	1.4	93.5	1.7
	없다	(5740)	3.4	0.6	0.2	0.2	95.4	0.2

구분		n	일자리를 잃거나 폐업	정직 또는 휴직	비정규직 으로 전환	시간제 로 전환	변화 없음	신규 취업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1.0	1.2	1.3	1.9	92.4	2.2
	자영업자	(3084)	1.0	2.0	0.1	0.4	95.5	0.9
	무급가족종사자	(538)	1.8	0.9	0.2	0.8	95.9	0.4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0.3	1.0	0.6	0.5	95.8	1.8
	임시/일용근로자	(1395)	4.2	1.7	4.1	8.1	77.6	4.3
건강상태	좋음	(10989)	1.4	1.0	0.6	0.9	94.8	1.3
	보통	(5051)	2.5	1.3	0.8	1.1	93.1	1.1
	나쁨	(1317)	3.3	1.9	0.4	1.3	92.5	0.6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2.2	0.6	0.1	0.1	96.9	0.0
	200만원 미만	(4187)	3.7	1.4	1.2	2.6	89.4	1.7
	200~300만원 미만	(4397)	1.0	1.3	0.8	1.0	93.8	2.0
	300~400만원 미만	(2925)	0.6	1.2	0.6	0.6	95.7	1.2
	400만원 이상	(1697)	0.7	1.1	0.1	0.2	97.0	0.9
혼인상태	미혼	(5170)	2.1	1.0	0.5	0.8	93.3	2.3
	기혼	(10451)	1.6	1.3	0.7	1.1	94.5	0.8
	사별/이혼/별거	(1736)	2.3	1.0	0.6	1.0	94.3	0.7
정치성향	진보(1~4)	(4787)	1.6	1.3	0.7	1.0	93.2	2.1
	중도(5~6)	(5920)	2.3	1.0	0.5	1.1	93.9	1.2
	보수(7~10)	(6650)	1.6	1.1	0.7	1.0	95.0	0.6
가구원수	1인	(1936)	2.3	1.0	0.7	0.8	93.5	1.7
	2인 이상	(15421)	1.8	1.1	0.6	1.1	94.2	1.2
주거형태	자가	(14022)	1.5	1.1	0.6	0.9	94.9	0.9
	전세	(2209)	3.0	1.2	1.0	1.4	91.5	2.0
	월세/사글세/무상	(1126)	3.9	1.0	0.5	1.8	89.5	3.2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1.7	1.3	0.6	0.8	94.3	1.3
	아파트	(8442)	1.7	1.1	0.6	1.0	94.6	1.1
	연립/다세대/기타	(3130)	2.4	1.1	0.8	1.6	92.8	1.3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3.4	1.4	2.6	1.0	91.0	0.6
	비해당	(16899)	1.8	1.1	0.6	1.0	94.2	1.2
다문화가구	해당	(100)	3.0	1.8	1.6	1.4	91.2	1.0
	비해당	(17257)	1.8	1.1	0.6	1.0	94.2	1.2

구분		n	일자리를 잃거나 폐업	정직 또는 휴직	비정규직으로 전환	시간제로 전환	변화 없음	신규 취업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6.7	2.1	2.0	0.9	88.3	0.0
	200만원 미만	(2096)	3.6	0.7	0.7	1.2	92.6	1.2
	200~300만원 미만	(2038)	3.3	1.2	1.1	1.1	91.8	1.4
	300~400만원 미만	(2908)	1.7	1.5	0.6	1.4	93.7	1.1
	400~500만원 미만	(3072)	1.2	1.4	0.8	1.4	94.0	1.1
	500~600만원 미만	(3149)	1.4	0.9	0.5	0.8	95.0	1.5
	600만원 이상	(3941)	0.9	1.0	0.3	0.5	96.1	1.2

## 제2절

# 코로나19 유행 이후 소득 변화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코로나19 유행 이후 월평균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증감액

#### 가. 전체 분석

코로나19 유행(2020년 1월) 이후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이 얼마나 감소 또는 증가했는지 묻은 결과, 개인소득은 14만 8천원, 가구소득은 28만 6천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n=17,357, 만원)



[그림 7-2] 코로나19 유행 이후 월평균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증감액

## 나. 특성별 분석

개인소득 감소액은 남자(-18.8만)가 여자(-10.9만)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23.5만), 40대(-18.9만), 60대 이상(-17.3만)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강원(-22.1만)에서 가장 많고, 울산(-8.2만)에서 가장 적었다.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는 고졸(-22.0만), 월평균 개인소득 400만원 이상(-32.6만), 사별/이혼/별거(-17.6만)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감소액이 큰 경향을 보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2인 이상 가구(-30.3만)가 1인 가구(-15.5만)보다 가구소득 감소액이 14.8만원 더 많았다.

[표 7-2] 코로나19 유행 이후 월평균 개인소득 증감액

구분		n	개인소득 증감액(만원)	가구소득 증감액(만원)
전체		(17357)	(-14.8)	(-28.6)
성별	남자	(8615)	(-18.8)	(-30.1)
	여자	(8742)	(-10.9)	(-27.1)
연령별	15~19	(871)	(.4)	(-25.8)
	20대	(2550)	(-4.9)	(-29.7)
	30대	(2576)	(-9.0)	(-26.1)
	40대	(3123)	(-18.9)	(-26.6)
	50대	(3304)	(-23.5)	(-34.8)
	60대 이상	(4933)	(-17.3)	(-27.0)
지역별	서울	(3301)	(-18.0)	(-32.2)
	부산	(1155)	(-17.4)	(-33.6)
	대구	(800)	(-8.2)	(-15.3)
	인천	(996)	(-11.1)	(-19.4)
	광주	(483)	(-13.1)	(-24.1)
	대전	(490)	(-15.1)	(-21.3)
	울산	(375)	(-8.2)	(-23.7)
	세종	(114)	(-21.1)	(-27.0)
	경기	(4404)	(-15.2)	(-34.9)
	강원	(526)	(-22.1)	(-48.6)
	충북	(540)	(-15.3)	(-27.8)
	충남	(711)	(-13.2)	(-18.4)
	전북	(602)	(-15.6)	(-27.0)
	전남	(627)	(-9.0)	(-14.2)
	경북	(894)	(-15.7)	(-24.2)
	경남	(1116)	(-10.4)	(-22.7)
제주	(224)	(-16.3)	(-30.1)	
학력	중졸 이하	(2863)	(-8.4)	(-20.7)
	고졸	(5401)	(-22.0)	(-34.3)
	대재 이상	(9093)	(-12.6)	(-27.7)
직업유무	있다	(11617)	(-18.5)	(-30.8)
	없다	(5740)	(-7.3)	(-24.2)

구분		n	개인소득 증감액(만원)	가구소득 증감액(만원)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5.7)	(-19.9)
	자영업자	(3084)	(-50.7)	(-54.0)
	무급가족종사자	(538)	(-11.3)	(-53.3)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3.5)	(-17.5)
	임시/일용근로자	(1395)	(-15.3)	(-30.5)
건강상태	좋음	(10989)	(-13.0)	(-29.5)
	보통	(5051)	(-18.8)	(-27.7)
	나쁨	(1317)	(-14.5)	(-24.7)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6.2)	(-29.3)
	200만원 미만	(4187)	(-15.8)	(-26.8)
	200~300만원 미만	(4397)	(-15.1)	(-29.5)
	300~400만원 미만	(2925)	(-14.9)	(-25.4)
	400만원 이상	(1697)	(-32.6)	(-34.7)
혼인상태	미혼	(5170)	(-6.5)	(-30.0)
	기혼	(10451)	(-18.5)	(-29.2)
	사별/이혼/별거	(1736)	(-17.6)	(-21.1)
정치성향	진보(1~4)	(4787)	(-12.8)	(-29.2)
	중도(5~6)	(5920)	(-15.9)	(-33.1)
	보수(7~10)	(6650)	(-15.4)	(-24.2)
가구원수	1인	(1936)	(-15.7)	(-15.5)
	2인 이상	(15421)	(-14.7)	(-30.3)
주거형태	자가	(14022)	(-14.9)	(-29.8)
	전세	(2209)	(-14.3)	(-23.1)
	월세/사글세/무상	(1126)	(-14.8)	(-24.5)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15.8)	(-31.2)
	아파트	(8442)	(-13.6)	(-26.1)
	연립/다세대/기타	(3130)	(-16.4)	(-30.5)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8.4)	(-11.4)
	비해당	(16899)	(-15.0)	(-29.1)
다문화가구	해당	(100)	(-14.0)	(-16.7)
	비해당	(17257)	(-14.8)	(-28.7)

구분		n	개인소득 증감액(만원)	가구소득 증감액(만원)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48.3)	(-22.5)
	200만원 미만	(2096)	(-11.5)	(-15.5)
	200~300만원 미만	(2038)	(-17.8)	(-26.7)
	300~400만원 미만	(2908)	(-15.9)	(-27.9)
	400~500만원 미만	(3072)	(-14.6)	(-29.6)
	500~600만원 미만	(3149)	(-13.0)	(-28.3)
	600만원 이상	(3941)	(-14.5)	(-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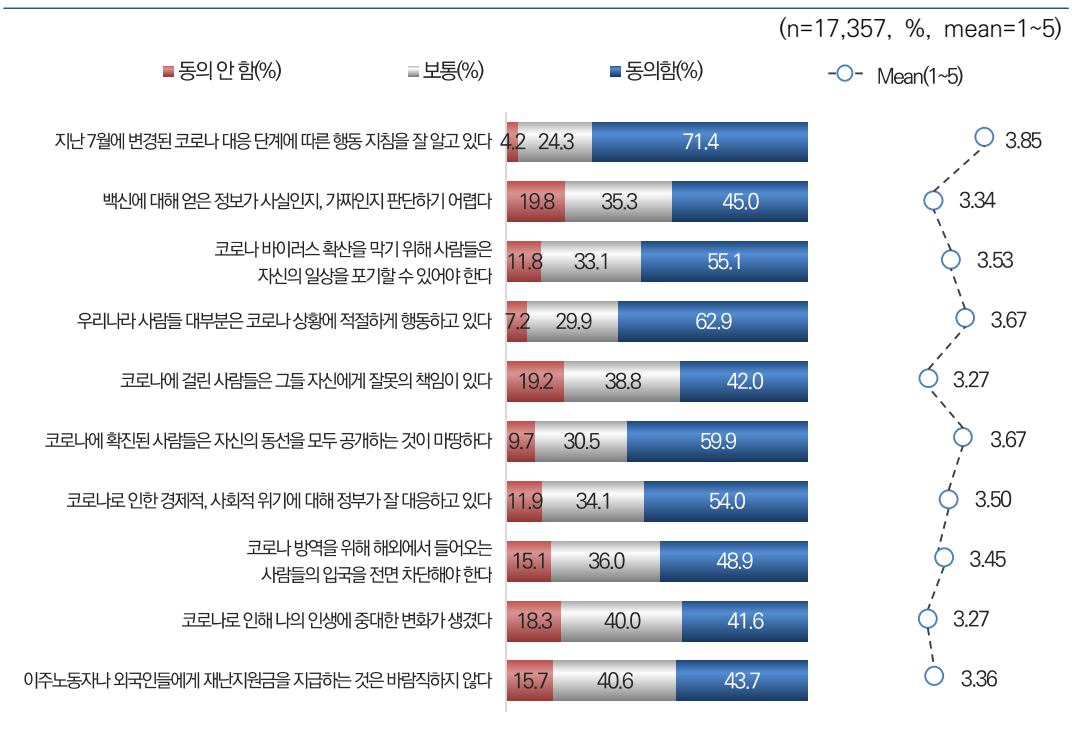
## 제3절

## 코로나19 관련 인식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0 종합 분석

코로나19와 관련하여 10가지 항목 각각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동의 정도는 '지난 7월에 변경된 코로나 대응 단계에 따른 행동 지침을 잘 알고 있다'(3.85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코로나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다'(3.67점),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은 자신의 동선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3.67점) 순으로 높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게 잘못된 책임이 있다'(3.27점)가 가장 낮았다.



[그림 7-3] 코로나19 관련 인식

## 1 지난 7월에 변경된 코로나 대응 단계에 따른 행동 지침을 잘 알고 있다

### 가. 전체 분석

‘지난 7월에 변경된 코로나 대응 단계에 따른 행동 지침을 잘 알고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동의한다’ 71.4%, ‘보통이다’ 24.3%, ‘동의하지 않는다’ 4.2%로 나타났다. 동의 정도에 대한 평균은 3.85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지난 7월에 변경된 코로나 대응 단계에 따른 행동 지침을 잘 알고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가 3.85점으로 여자(3.82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3.93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3.73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4.14점), 광주(4.10점), 대구(4.06점) 순으로 높고, 충북(3.54점)이 가장 낮았다.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 대재 이상(3.90점), 월평균 개인소득 400만원 이상(4.03점), 기초생활수급 비해당 가구(3.85점), 2인 이상 가구(3.86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7-3] 지난 7월에 변경된 코로나 대응 단계에 따른 행동 지침을 잘 알고 있다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전체		(17357)	4.2	24.3	71.4	3.85
성별	남자	(8615)	3.8	23.4	72.8	3.87
	여자	(8742)	4.6	25.3	70.1	3.82
연령별	15~19	(871)	3.9	24.6	71.5	3.84
	20대	(2550)	3.5	24.5	71.9	3.88
	30대	(2576)	3.6	22.4	74.0	3.89
	40대	(3123)	3.3	20.2	76.5	3.93
	50대	(3304)	3.5	23.3	73.2	3.88
	60대 이상	(4933)	6.0	28.6	65.5	3.73
지역별	서울	(3301)	2.1	21.8	76.1	3.91
	부산	(1155)	2.2	19.4	78.4	3.91
	대구	(800)	4.2	18.4	77.4	4.06
	인천	(996)	4.2	23.3	72.5	3.79
	광주	(483)	3.5	22.5	74.0	4.10
	대전	(490)	1.5	28.6	69.9	3.84
	울산	(375)	4.5	15.0	80.5	3.90
	세종	(114)	1.1	9.2	89.7	4.14
	경기	(4404)	4.9	26.2	68.9	3.79
	강원	(526)	3.0	28.5	68.5	3.85
	충북	(540)	7.0	42.0	51.0	3.54
	충남	(711)	11.1	27.2	61.8	3.58
	전북	(602)	7.5	22.1	70.4	3.79
	전남	(627)	3.3	24.6	72.1	3.97
	경북	(894)	7.4	31.8	60.8	3.83
	경남	(1116)	3.4	21.4	75.3	3.82
제주	(224)	0.7	23.5	75.7	3.84	
학력	중졸 이하	(2863)	6.7	31.1	62.1	3.68
	고졸	(5401)	3.7	24.5	71.8	3.84
	대재 이상	(9093)	3.7	22.1	74.2	3.90
직업유무	있다	(11617)	3.9	23.7	72.4	3.86
	없다	(5740)	4.8	25.8	69.4	3.81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3.9	24.1	72.0	3.85
	자영업자	(3084)	3.4	21.8	74.9	3.89
	무급가족종사자	(538)	5.3	22.6	72.0	3.87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3.6	24.4	72.0	3.85
	임시/일용근로자	(1395)	4.8	23.0	72.1	3.87
건강상태	좋음	(10989)	3.1	20.3	76.5	3.92
	보통	(5051)	5.0	31.1	64.0	3.74
	나쁨	(1317)	10.3	32.2	57.5	3.62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4.3	24.8	70.9	3.83
	200만원 미만	(4187)	6.1	27.0	66.9	3.78
	200~300만원 미만	(4397)	4.0	24.6	71.4	3.84
	300~400만원 미만	(2925)	3.2	24.3	72.5	3.87
	400만원 이상	(1697)	1.8	16.2	82.0	4.03
혼인상태	미혼	(5170)	3.9	24.4	71.8	3.86
	기혼	(10451)	3.9	23.7	72.4	3.86
	사별/이혼/별거	(1736)	7.0	28.1	64.8	3.71
정치성향	진보(1~4)	(4787)	3.7	20.0	76.3	3.91
	중도(5~6)	(5920)	3.7	24.2	72.1	3.89
	보수(7~10)	(6650)	5.0	27.6	67.4	3.76
가구원수	1인	(1936)	5.8	26.9	67.3	3.77
	2인 이상	(15421)	4.0	24.0	72.0	3.86
주거형태	자가	(14022)	4.4	24.8	70.9	3.83
	전세	(2209)	3.8	23.7	72.5	3.87
	월세/사글세/무상	(1126)	3.2	20.6	76.1	3.95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6.0	25.9	68.1	3.78
	아파트	(8442)	3.7	24.1	72.2	3.87
	연립/다세대/기타	(3130)	2.2	22.2	75.7	3.89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10.7	25.3	63.9	3.64
	비해당	(16899)	4.0	24.3	71.6	3.85
다문화가구	해당	(100)	2.4	31.1	66.5	3.82
	비해당	(17257)	4.2	24.3	71.5	3.85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11.5	35.5	53.0	3.48
	200만원 미만	(2096)	7.7	31.5	60.9	3.67
	200~300만원 미만	(2038)	6.3	24.9	68.8	3.80
	300~400만원 미만	(2908)	3.7	22.1	74.2	3.88
	400~500만원 미만	(3072)	3.2	19.5	77.2	3.94
	500~600만원 미만	(3149)	2.7	22.8	74.4	3.90
	600만원 이상	(3941)	3.3	26.5	70.2	3.83

## 2 백신에 대해 얻은 정보가 사실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 가. 전체 분석

‘백신에 대해 얻은 정보가 사실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동의한다’ 45.0%, ‘보통이다’ 35.3%, ‘동의하지 않는다’ 19.8%로 나타났다. 동의 정도에 대한 평균은 3.34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백신에 대해 얻은 정보가 사실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여자가 3.35점으로 남자(3.32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3.42점)가 가장 높고, 20대(3.29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3.65점), 부산(3.62점), 대구(3.57점) 순으로 높고, 전남(2.83점)이 가장 낮았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중졸 이하(3.36점), 직업 없음(3.37점), 사별/이혼/별거(3.38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7-4] 백신에 대해 얻은 정보가 사실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전체		(17357)	19.8	35.3	45.0	3.34
성별	남자	(8615)	20.8	34.9	44.3	3.32
	여자	(8742)	18.8	35.6	45.6	3.35
연령별	15~19	(871)	16.1	36.3	47.5	3.42
	20대	(2550)	22.1	34.0	43.9	3.29
	30대	(2576)	21.2	35.4	43.3	3.31
	40대	(3123)	19.9	34.7	45.4	3.34
	50대	(3304)	18.9	36.3	44.8	3.35
	60대 이상	(4933)	19.0	35.2	45.7	3.35
지역별	서울	(3301)	16.4	39.5	44.1	3.36
	부산	(1155)	11.9	30.7	57.3	3.62
	대구	(800)	13.8	27.0	59.2	3.57
	인천	(996)	14.3	38.5	47.1	3.44
	광주	(483)	17.0	31.2	51.8	3.55
	대전	(490)	13.8	25.2	60.9	3.54
	울산	(375)	5.7	44.7	49.6	3.51
	세종	(114)	4.7	30.4	64.9	3.65
	경기	(4404)	24.9	37.5	37.6	3.19
	강원	(526)	14.7	31.3	54.0	3.47
	충북	(540)	26.2	34.6	39.2	3.16
	충남	(711)	26.7	28.1	45.1	3.26
	전북	(602)	26.3	42.4	31.3	3.05
	전남	(627)	41.5	29.6	28.9	2.83
	경북	(894)	23.7	25.1	51.2	3.45
	경남	(1116)	14.5	39.2	46.3	3.43
제주	(224)	11.7	34.8	53.5	3.41	
학력	중졸 이하	(2863)	19.1	34.6	46.3	3.36
	고졸	(5401)	18.4	36.6	45.0	3.35
	대재 이상	(9093)	20.8	34.7	44.5	3.32
직업유무	있다	(11617)	20.6	34.8	44.6	3.32
	없다	(5740)	18.0	36.2	45.8	3.37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22.2	35.4	42.3	3.28
	자영업자	(3084)	18.9	36.3	44.9	3.33
	무급가족종사자	(538)	17.5	31.4	51.1	3.43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22.4	34.8	42.8	3.28
	임시/일용근로자	(1395)	21.4	38.1	40.4	3.26
건강상태	좋음	(10989)	19.2	35.1	45.7	3.35
	보통	(5051)	21.4	35.3	43.3	3.30
	나쁨	(1317)	17.8	36.8	45.4	3.3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7.8	35.2	47.0	3.38
	200만원 미만	(4187)	19.7	36.1	44.2	3.33
	200~300만원 미만	(4397)	20.1	34.9	45.0	3.33
	300~400만원 미만	(2925)	22.7	34.5	42.8	3.28
	400만원 이상	(1697)	19.0	35.6	45.4	3.36
혼인상태	미혼	(5170)	21.2	34.0	44.7	3.32
	기혼	(10451)	19.6	35.4	45.0	3.34
	사별/이혼/별거	(1736)	16.4	38.2	45.5	3.38
정치성향	진보(1~4)	(4787)	25.1	33.4	41.5	3.24
	중도(5~6)	(5920)	17.1	36.9	46.0	3.38
	보수(7~10)	(6650)	18.3	35.1	46.5	3.37
가구원수	1인	(1936)	19.2	35.6	45.2	3.33
	2인 이상	(15421)	19.8	35.2	44.9	3.34
주거형태	자가	(14022)	20.0	35.3	44.8	3.33
	전세	(2209)	20.2	34.2	45.6	3.36
	월세/사글세/무상	(1126)	16.5	37.2	46.3	3.38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19.8	32.6	47.6	3.35
	아파트	(8442)	20.0	35.5	44.5	3.33
	연립/다세대/기타	(3130)	19.0	39.7	41.3	3.32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19.4	37.9	42.7	3.30
	비해당	(16899)	19.8	35.2	45.0	3.34
다문화가구	해당	(100)	28.4	33.3	38.3	3.08
	비해당	(17257)	19.7	35.3	45.0	3.34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12.4	39.6	48.0	3.45
	200만원 미만	(2096)	18.3	35.8	45.8	3.36
	200~300만원 미만	(2038)	21.1	31.9	47.0	3.36
	300~400만원 미만	(2908)	19.1	34.1	46.8	3.36
	400~500만원 미만	(3072)	18.9	37.0	44.2	3.34
	500~600만원 미만	(3149)	20.2	36.9	42.9	3.30
	600만원 이상	(3941)	21.0	34.7	44.3	3.31

### 3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 가. 전체 분석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동의한다’ 55.1%, ‘보통이다’ 33.1%, ‘동의하지 않는다’ 11.8%로 나타났다. 동의 정도에 대한 평균은 3.53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52점)와 여자(3.53점)가 비슷했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59점)이 가장 높고, 30대(3.44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3.78점), 광주(3.77점), 부산(3.74점) 순으로 높고, 충북(3.35점)이 가장 낮았다.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3.59점),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3.59점), 사별/이혼/별거(3.60점), 기초생활수급가구(3.57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7-5]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전체		(17357)	11.8	33.1	55.1	3.53
성별	남자	(8615)	12.0	33.0	55.0	3.52
	여자	(8742)	11.6	33.2	55.2	3.53
연령별	15~19	(871)	10.1	37.6	52.3	3.51
	20대	(2550)	13.5	34.8	51.6	3.47
	30대	(2576)	13.6	36.4	50.1	3.44
	40대	(3123)	12.3	31.2	56.5	3.54
	50대	(3304)	11.1	32.3	56.5	3.54
	60대 이상	(4933)	10.4	31.5	58.1	3.59
지역별	서울	(3301)	13.3	31.0	55.7	3.50
	부산	(1155)	4.9	29.2	65.9	3.74
	대구	(800)	11.9	32.8	55.3	3.58
	인천	(996)	14.2	33.3	52.6	3.45
	광주	(483)	10.2	27.1	62.7	3.77
	대전	(490)	3.5	47.6	48.9	3.53
	울산	(375)	4.7	52.3	43.0	3.44
	세종	(114)	1.1	23.1	75.8	3.78
	경기	(4404)	16.1	33.4	50.5	3.41
	강원	(526)	8.6	36.2	55.2	3.60
	충북	(540)	12.9	42.3	44.8	3.35
	충남	(711)	9.4	32.4	58.2	3.63
	전북	(602)	13.6	33.9	52.5	3.46
	전남	(627)	8.3	30.2	61.5	3.65
	경북	(894)	14.6	34.5	50.9	3.48
	경남	(1116)	6.0	26.7	67.3	3.73
제주	(224)	4.7	36.7	58.6	3.63	
학력	중졸 이하	(2863)	8.8	34.1	57.1	3.59
	고졸	(5401)	11.3	32.4	56.4	3.53
	대재 이상	(9093)	13.0	33.2	53.7	3.50
직업유무	있다	(11617)	12.3	32.8	54.9	3.51
	없다	(5740)	10.7	33.7	55.5	3.55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12.5	33.4	54.1	3.50
	자영업자	(3084)	13.7	32.0	54.3	3.48
	무급가족종사자	(538)	11.3	27.6	61.0	3.59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12.3	33.4	54.3	3.50
	임시/일용근로자	(1395)	13.3	33.5	53.2	3.48
건강상태	좋음	(10989)	11.2	32.5	56.3	3.54
	보통	(5051)	12.7	34.6	52.7	3.49
	나쁨	(1317)	12.9	32.8	54.3	3.53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1.8	33.7	54.5	3.52
	200만원 미만	(4187)	10.3	32.3	57.4	3.59
	200~300만원 미만	(4397)	11.9	34.9	53.3	3.50
	300~400만원 미만	(2925)	13.6	33.7	52.7	3.46
	400만원 이상	(1697)	12.2	28.1	59.7	3.58
혼인상태	미혼	(5170)	12.4	35.4	52.2	3.49
	기혼	(10451)	11.9	32.1	56.0	3.53
	사별/이혼/별거	(1736)	9.3	32.5	58.1	3.60
정치성향	진보(1~4)	(4787)	12.9	30.7	56.4	3.53
	중도(5~6)	(5920)	9.3	33.1	57.6	3.59
	보수(7~10)	(6650)	13.2	34.9	51.9	3.47
가구원수	1인	(1936)	11.2	34.1	54.7	3.53
	2인 이상	(15421)	11.9	33.0	55.1	3.52
주거형태	자가	(14022)	11.8	33.1	55.1	3.52
	전세	(2209)	12.9	33.6	53.5	3.49
	월세/사글세/무상	(1126)	9.8	31.7	58.5	3.60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10.2	32.0	57.8	3.58
	아파트	(8442)	12.1	34.2	53.7	3.51
	연립/다세대/기타	(3130)	13.9	32.2	54.0	3.48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13.3	26.4	60.4	3.57
	비해당	(16899)	11.8	33.3	55.0	3.52
다문화가구	해당	(100)	16.1	28.4	55.5	3.45
	비해당	(17257)	11.8	33.1	55.1	3.53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14.5	41.8	43.7	3.34
	200만원 미만	(2096)	8.7	32.2	59.0	3.62
	200~300만원 미만	(2038)	11.2	33.5	55.2	3.56
	300~400만원 미만	(2908)	11.9	33.6	54.6	3.51
	400~500만원 미만	(3072)	12.8	31.1	56.1	3.53
	500~600만원 미만	(3149)	14.2	33.1	52.7	3.47
	600만원 이상	(3941)	10.9	34.2	54.9	3.52

## 4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코로나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다

### 가. 전체 분석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코로나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동의한다’ 62.9%, ‘보통이다’ 29.9%, ‘동의하지 않는다’ 7.2%로 나타났다. 동의 정도에 대한 평균은 3.67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코로나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69점)가 여자(3.65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72점)이 가장 높고, 20대(3.63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전남(4.00점), 광주(3.97점), 세종(3.83점) 순으로 높고, 대구(3.43점)가 가장 낮았다.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3.73점), 월평균 개인소득 400만원 이상(3.72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7-6]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코로나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다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전체		(17357)	7.2	29.9	62.9	3.67
성별	남자	(8615)	6.9	29.6	63.5	3.69
	여자	(8742)	7.6	30.2	62.2	3.65
연령별	15~19	(871)	7.1	29.9	63.0	3.67
	20대	(2550)	8.2	31.9	60.0	3.63
	30대	(2576)	8.2	29.7	62.0	3.64
	40대	(3123)	6.9	31.0	62.2	3.67
	50대	(3304)	7.2	30.0	62.8	3.66
	60대 이상	(4933)	6.5	28.3	65.2	3.72
지역별	서울	(3301)	6.6	27.1	66.4	3.71
	부산	(1155)	4.1	24.2	71.7	3.81
	대구	(800)	12.5	35.7	51.8	3.43
	인천	(996)	9.0	34.6	56.4	3.58
	광주	(483)	7.0	21.5	71.5	3.97
	대전	(490)	5.7	40.0	54.2	3.55
	울산	(375)	4.7	31.9	63.5	3.65
	세종	(114)	3.0	21.4	75.5	3.83
	경기	(4404)	9.9	31.0	59.1	3.57
	강원	(526)	4.2	31.2	64.6	3.81
	충북	(540)	6.6	40.6	52.8	3.54
	충남	(711)	2.6	29.2	68.2	3.77
	전북	(602)	6.7	25.7	67.5	3.77
	전남	(627)	2.7	19.3	78.0	4.00
	경북	(894)	8.0	33.4	58.6	3.65
	경남	(1116)	5.4	29.0	65.5	3.72
제주	(224)	7.9	40.5	51.6	3.47	
학력	중졸 이하	(2863)	5.9	28.1	66.0	3.73
	고졸	(5401)	6.9	30.3	62.8	3.67
	대재 이상	(9093)	7.8	30.3	61.9	3.65
직업유무	있다	(11617)	7.2	30.2	62.6	3.67
	없다	(5740)	7.3	29.3	63.4	3.67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7.4	30.1	62.5	3.66
	자영업자	(3084)	7.4	29.7	62.9	3.67
	무급가족종사자	(538)	6.4	23.5	70.2	3.78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7.4	30.4	62.2	3.65
	임시/일용근로자	(1395)	7.3	28.9	63.8	3.67
건강상태	좋음	(10989)	6.4	28.5	65.1	3.70
	보통	(5051)	8.3	33.3	58.3	3.61
	나쁨	(1317)	9.6	28.7	61.7	3.65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7.2	29.6	63.2	3.67
	200만원 미만	(4187)	6.3	29.1	64.6	3.71
	200~300만원 미만	(4397)	8.2	31.5	60.3	3.62
	300~400만원 미만	(2925)	7.7	30.6	61.7	3.66
	400만원 이상	(1697)	6.4	27.4	66.2	3.72
혼인상태	미혼	(5170)	7.9	30.9	61.2	3.64
	기혼	(10451)	7.0	29.4	63.6	3.68
	사별/이혼/별거	(1736)	6.8	30.3	62.9	3.68
정치성향	진보(1~4)	(4787)	7.5	28.7	63.8	3.69
	중도(5~6)	(5920)	6.3	29.5	64.3	3.70
	보수(7~10)	(6650)	7.9	31.2	60.9	3.64
가구원수	1인	(1936)	7.2	29.6	63.2	3.67
	2인 이상	(15421)	7.2	30.0	62.8	3.67
주거형태	자가	(14022)	7.2	29.6	63.2	3.68
	전세	(2209)	8.4	30.7	60.9	3.62
	월세/사글세/무상	(1126)	5.5	32.7	61.8	3.68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6.5	29.4	64.1	3.69
	아파트	(8442)	7.4	29.7	62.9	3.67
	연립/다세대/기타	(3130)	8.2	31.5	60.2	3.63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8.6	29.2	62.2	3.68
	비해당	(16899)	7.2	29.9	62.9	3.67
다문화가구	해당	(100)	4.6	39.9	55.6	3.58
	비해당	(17257)	7.2	29.9	62.9	3.67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8.0	44.2	47.8	3.43
	200만원 미만	(2096)	5.6	28.0	66.3	3.75
	200~300만원 미만	(2038)	7.9	28.0	64.1	3.70
	300~400만원 미만	(2908)	7.5	30.6	61.9	3.66
	400~500만원 미만	(3072)	6.7	29.7	63.6	3.69
	500~600만원 미만	(3149)	7.9	31.2	60.9	3.63
	600만원 이상	(3941)	7.3	30.0	62.7	3.65

## 5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게 잘못된 책임이 있다

### 가. 전체 분석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게 잘못된 책임이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동의한다’ 42.0%, ‘보통이다’ 38.8%, ‘동의하지 않는다’ 19.2%로 나타났다. 동의 정도에 대한 평균은 3.27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게 잘못된 책임이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27점)와 여자(3.27점)가 같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32점)이 가장 높고, 20대(3.19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광주(3.59점), 충남(3.55점), 경남(3.49점) 순으로 높고, 경북(3.06점)이 가장 낮았다.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3.34점),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3.29점), 사별/이혼/별거(3.33점), 기초생활수급가구(3.32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7-7]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게 잘못의 책임이 있다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전체		(17357)	19.2	38.8	42.0	3.27
성별	남자	(8615)	19.4	38.6	42.0	3.27
	여자	(8742)	19.0	38.9	42.1	3.27
연령별	15~19	(871)	18.6	38.9	42.5	3.27
	20대	(2550)	21.7	40.9	37.4	3.19
	30대	(2576)	19.3	40.2	40.6	3.24
	40대	(3123)	19.0	38.7	42.3	3.27
	50대	(3304)	18.8	38.9	42.2	3.28
	60대 이상	(4933)	18.3	36.8	44.9	3.32
지역별	서울	(3301)	22.5	34.8	42.7	3.20
	부산	(1155)	16.8	32.8	50.3	3.44
	대구	(800)	24.8	42.6	32.7	3.11
	인천	(996)	12.7	43.3	44.0	3.37
	광주	(483)	16.0	30.9	53.1	3.59
	대전	(490)	13.0	57.8	29.2	3.19
	울산	(375)	16.8	50.6	32.6	3.20
	세종	(114)	6.5	52.2	41.4	3.42
	경기	(4404)	22.2	38.9	38.9	3.18
	강원	(526)	12.5	37.7	49.8	3.46
	충북	(540)	16.9	47.0	36.1	3.22
	충남	(711)	12.4	34.0	53.7	3.55
	전북	(602)	20.0	36.3	43.7	3.27
	전남	(627)	19.8	38.4	41.8	3.31
	경북	(894)	26.2	44.1	29.8	3.06
	경남	(1116)	12.5	35.8	51.7	3.49
제주	(224)	8.1	39.4	52.5	3.48	
학력	중졸 이하	(2863)	17.1	38.8	44.2	3.34
	고졸	(5401)	18.3	37.9	43.9	3.31
	대재 이상	(9093)	20.4	39.3	40.3	3.23
직업유무	있다	(11617)	19.0	39.2	41.8	3.27
	없다	(5740)	19.5	38.0	42.5	3.28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19.5	39.8	40.7	3.24
	자영업자	(3084)	20.3	38.8	41.0	3.24
	무급가족종사자	(538)	18.5	35.2	46.3	3.31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18.8	40.1	41.0	3.25
	임시/일용근로자	(1395)	22.7	38.3	39.0	3.19
건강상태	좋음	(10989)	19.0	38.0	43.0	3.28
	보통	(5051)	18.8	41.6	39.6	3.25
	나쁨	(1317)	22.1	34.1	43.8	3.27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9.1	37.8	43.1	3.28
	200만원 미만	(4187)	19.2	38.6	42.2	3.29
	200~300만원 미만	(4397)	18.4	40.4	41.2	3.27
	300~400만원 미만	(2925)	19.7	39.6	40.8	3.25
	400만원 이상	(1697)	20.5	36.0	43.6	3.25
혼인상태	미혼	(5170)	19.9	40.6	39.5	3.23
	기혼	(10451)	19.1	38.0	43.0	3.28
	사별/이혼/별거	(1736)	17.9	37.9	44.2	3.33
정치성향	진보(1~4)	(4787)	19.1	38.3	42.6	3.28
	중도(5~6)	(5920)	20.2	38.4	41.4	3.24
	보수(7~10)	(6650)	18.4	39.5	42.2	3.29
가구원수	1인	(1936)	18.8	39.2	42.0	3.26
	2인 이상	(15421)	19.2	38.7	42.0	3.27
주거형태	자가	(14022)	18.8	38.9	42.3	3.28
	전세	(2209)	21.6	36.9	41.5	3.23
	월세/사글세/무상	(1126)	19.2	40.3	40.4	3.24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19.0	37.5	43.5	3.29
	아파트	(8442)	19.8	38.8	41.3	3.26
	연립/다세대/기타	(3130)	17.7	40.9	41.4	3.27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19.0	34.9	46.1	3.32
	비해당	(16899)	19.2	38.9	41.9	3.27
다문화가구	해당	(100)	17.5	47.4	35.1	3.23
	비해당	(17257)	19.2	38.7	42.1	3.27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10.3	46.8	42.9	3.40
	200만원 미만	(2096)	17.8	36.9	45.3	3.35
	200~300만원 미만	(2038)	17.3	39.6	43.1	3.31
	300~400만원 미만	(2908)	21.1	37.6	41.3	3.25
	400~500만원 미만	(3072)	20.5	36.2	43.3	3.27
	500~600만원 미만	(3149)	19.4	39.8	40.8	3.27
	600만원 이상	(3941)	18.6	41.1	40.3	3.24

## 6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은 자신의 동선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 가. 전체 분석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은 자신의 동선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동의한다’ 59.9%, ‘보통이다’ 30.5%, ‘동의하지 않는다’ 9.7%로 나타났다. 동의 정도에 대한 평균은 3.67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은 자신의 동선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67점)와 여자(3.66점)가 비슷했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73점)이 가장 높고, 20대(3.61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전남(4.01점), 광주(3.97점), 충남(3.91점) 순으로 높고, 울산(3.33점)이 가장 낮았다.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3.73점), 월평균 개인소득 400만원 이상(3.75점), 사별/이혼/별거(3.71점), 기초생활수급가구(3.69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7-8]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은 자신의 동선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전체		(17357)	9.7	30.5	59.9	3.67
성별	남자	(8615)	9.5	30.6	59.8	3.67
	여자	(8742)	9.8	30.3	59.9	3.66
연령별	15~19	(871)	8.9	34.3	56.8	3.63
	20대	(2550)	11.0	31.8	57.2	3.61
	30대	(2576)	11.0	31.2	57.9	3.62
	40대	(3123)	9.9	30.3	59.8	3.67
	50대	(3304)	9.2	31.2	59.6	3.66
	60대 이상	(4933)	8.6	28.3	63.1	3.73
지역별	서울	(3301)	10.1	28.3	61.6	3.67
	부산	(1155)	7.8	28.1	64.1	3.73
	대구	(800)	8.0	32.4	59.5	3.74
	인천	(996)	8.8	39.7	51.5	3.53
	광주	(483)	8.7	20.5	70.8	3.97
	대전	(490)	8.9	44.3	46.8	3.47
	울산	(375)	11.7	49.4	38.9	3.33
	세종	(114)	2.3	27.0	70.7	3.78
	경기	(4404)	12.4	29.7	57.9	3.57
	강원	(526)	7.5	32.8	59.7	3.67
	충북	(540)	12.6	34.7	52.7	3.54
	충남	(711)	3.5	24.3	72.2	3.91
	전북	(602)	7.7	25.3	67.0	3.86
	전남	(627)	3.5	24.6	71.8	4.01
	경북	(894)	13.9	31.7	54.4	3.68
	경남	(1116)	7.7	29.3	63.0	3.69
제주	(224)	5.5	37.7	56.8	3.59	
학력	중졸 이하	(2863)	7.8	30.1	62.1	3.73
	고졸	(5401)	8.6	30.5	60.8	3.69
	대재 이상	(9093)	10.9	30.5	58.6	3.63
직업유무	있다	(11617)	10.0	30.2	59.8	3.67
	없다	(5740)	9.1	31.0	59.9	3.67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11.1	31.2	57.6	3.61
	자영업자	(3084)	8.5	28.1	63.3	3.72
	무급가족종사자	(538)	4.9	26.5	68.6	3.86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11.2	31.9	56.9	3.60
	임시/일용근로자	(1395)	10.8	28.2	61.0	3.68
건강상태	좋음	(10989)	9.6	29.4	60.9	3.67
	보통	(5051)	9.4	33.5	57.1	3.64
	나쁨	(1317)	10.8	27.5	61.7	3.72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9.5	30.7	59.9	3.65
	200만원 미만	(4187)	8.6	29.3	62.1	3.73
	200~300만원 미만	(4397)	10.6	31.7	57.6	3.62
	300~400만원 미만	(2925)	10.9	30.7	58.4	3.62
	400만원 이상	(1697)	8.2	29.0	62.8	3.75
혼인상태	미혼	(5170)	10.8	32.0	57.2	3.61
	기혼	(10451)	9.3	29.9	60.9	3.69
	사별/이혼/별거	(1736)	8.8	29.2	62.0	3.71
정치성향	진보(1~4)	(4787)	9.4	28.3	62.3	3.71
	중도(5~6)	(5920)	8.8	29.7	61.5	3.71
	보수(7~10)	(6650)	10.7	32.7	56.6	3.60
가구원수	1인	(1936)	9.0	30.7	60.3	3.67
	2인 이상	(15421)	9.8	30.4	59.8	3.66
주거형태	자가	(14022)	9.5	30.6	59.9	3.67
	전세	(2209)	10.4	30.7	58.9	3.63
	월세/사글세/무상	(1126)	10.3	28.6	61.2	3.66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8.5	29.6	61.9	3.72
	아파트	(8442)	10.0	30.3	59.6	3.66
	연립/다세대/기타	(3130)	10.9	32.4	56.7	3.57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10.4	26.1	63.5	3.69
	비해당	(16899)	9.6	30.6	59.8	3.66
다문화가구	해당	(100)	7.1	24.1	68.9	3.76
	비해당	(17257)	9.7	30.5	59.8	3.66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6.6	36.7	56.7	3.62
	200만원 미만	(2096)	7.6	29.5	62.9	3.73
	200~300만원 미만	(2038)	9.6	29.9	60.6	3.68
	300~400만원 미만	(2908)	10.4	30.4	59.2	3.64
	400~500만원 미만	(3072)	8.7	29.8	61.5	3.70
	500~600만원 미만	(3149)	10.2	32.0	57.8	3.66
	600만원 이상	(3941)	10.7	30.4	58.8	3.62

## 7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

### 가. 전체 분석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동의한다’ 54.0%, ‘보통이다’ 34.1%, ‘동의하지 않는다’ 11.9%로 나타났다. 동의 정도에 대한 평균은 3.50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51점)와 여자(3.50점)가 비슷했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55점)이 가장 높고, 20/30대(3.46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광주(4.00점), 전남(3.99점), 전북(3.84점) 순으로 높고, 경북(3.14점)이 가장 낮았다.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3.58점),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3.54점), 사별/이혼/별거(3.54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7-9]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전체		(17357)	11.9	34.1	54.0	3.50
성별	남자	(8615)	11.5	34.2	54.3	3.51
	여자	(8742)	12.3	34.0	53.7	3.50
연령별	15~19	(871)	11.0	36.5	52.5	3.50
	20대	(2550)	12.6	35.7	51.7	3.46
	30대	(2576)	12.6	35.2	52.2	3.46
	40대	(3123)	11.6	34.0	54.4	3.51
	50대	(3304)	12.4	33.6	54.1	3.49
	60대 이상	(4933)	11.2	32.7	56.1	3.55
지역별	서울	(3301)	12.4	31.1	56.5	3.50
	부산	(1155)	9.2	27.5	63.3	3.67
	대구	(800)	16.0	48.5	35.5	3.20
	인천	(996)	9.6	35.4	55.0	3.52
	광주	(483)	7.7	19.0	73.3	4.00
	대전	(490)	21.5	41.6	36.9	3.20
	울산	(375)	9.1	38.7	52.2	3.50
	세종	(114)	1.8	26.4	71.8	3.72
	경기	(4404)	13.3	38.8	47.9	3.41
	강원	(526)	8.7	32.1	59.2	3.66
	충북	(540)	13.1	38.0	48.9	3.39
	충남	(711)	7.8	33.7	58.5	3.57
	전북	(602)	8.0	20.8	71.2	3.84
	전남	(627)	3.0	21.5	75.5	3.99
	경북	(894)	22.3	39.0	38.7	3.14
	경남	(1116)	9.1	30.6	60.3	3.62
제주	(224)	12.6	39.1	48.3	3.36	
학력	중졸 이하	(2863)	10.6	32.2	57.2	3.58
	고졸	(5401)	11.2	34.6	54.2	3.51
	대재 이상	(9093)	12.8	34.4	52.9	3.48
직업유무	있다	(11617)	12.2	33.7	54.1	3.50
	없다	(5740)	11.4	34.9	53.7	3.51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12.0	33.7	54.3	3.50
	자영업자	(3084)	13.5	32.5	54.0	3.48
	무급가족종사자	(538)	12.6	27.0	60.5	3.60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11.7	33.6	54.7	3.50
	임시/일용근로자	(1395)	13.1	34.0	52.9	3.48
건강상태	좋음	(10989)	11.0	33.1	55.9	3.53
	보통	(5051)	13.2	36.9	49.9	3.44
	나쁨	(1317)	14.5	31.8	53.8	3.51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1.2	35.4	53.4	3.50
	200만원 미만	(4187)	11.5	33.2	55.2	3.54
	200~300만원 미만	(4397)	12.9	34.7	52.4	3.46
	300~400만원 미만	(2925)	12.2	33.8	54.0	3.49
	400만원 이상	(1697)	11.7	31.8	56.5	3.53
혼인상태	미혼	(5170)	11.9	36.1	51.9	3.47
	기혼	(10451)	12.0	33.0	54.9	3.51
	사별/이혼/별거	(1736)	11.3	34.3	54.4	3.54
정치성향	진보(1~4)	(4787)	9.6	30.3	60.1	3.62
	중도(5~6)	(5920)	10.8	33.7	55.5	3.53
	보수(7~10)	(6650)	14.6	37.1	48.3	3.40
가구원수	1인	(1936)	11.9	34.3	53.8	3.50
	2인 이상	(15421)	11.9	34.1	54.0	3.50
주거형태	자가	(14022)	11.8	34.0	54.2	3.51
	전세	(2209)	12.9	35.8	51.3	3.46
	월세/사글세/무상	(1126)	11.6	31.5	56.9	3.52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11.6	32.7	55.7	3.53
	아파트	(8442)	12.2	34.0	53.8	3.51
	연립/다세대/기타	(3130)	11.8	36.7	51.5	3.45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13.6	28.4	58.0	3.51
	비해당	(16899)	11.9	34.2	53.9	3.50
다문화가구	해당	(100)	13.3	30.2	56.5	3.45
	비해당	(17257)	11.9	34.1	54.0	3.50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12.8	41.9	45.3	3.36
	200만원 미만	(2096)	10.1	31.3	58.5	3.60
	200~300만원 미만	(2038)	12.1	33.4	54.5	3.52
	300~400만원 미만	(2908)	12.9	33.1	54.0	3.49
	400~500만원 미만	(3072)	12.2	34.3	53.5	3.50
	500~600만원 미만	(3149)	11.6	34.4	54.0	3.50
	600만원 이상	(3941)	12.0	35.9	52.1	3.46

## 8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

### 가. 전체 분석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동의한다’ 48.9%, ‘보통이다’ 36.0%, ‘동의하지 않는다’ 15.1%로 나타났다. 동의 정도에 대한 평균은 3.45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44점)와 여자(3.45점)가 비슷했으며, 15~19세/60대 이상(3.53점)이 가장 높고, 20대(3.38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부산(3.70점), 충남(3.69점), 광주(3.64점) 순으로 높고, 대전(3.08점)이 가장 낮았다.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 중졸 이하(3.54점),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3.53점), 사별/이혼/별거(3.55점), 기초생활수급가구(3.64점), 1인 가구(3.49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7-10]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전체		(17357)	15.1	36.0	48.9	3.45
성별	남자	(8615)	15.8	35.6	48.6	3.44
	여자	(8742)	14.4	36.4	49.2	3.45
연령별	15~19	(871)	11.5	34.8	53.7	3.53
	20대	(2550)	17.4	36.4	46.2	3.38
	30대	(2576)	17.3	36.0	46.8	3.40
	40대	(3123)	16.3	36.4	47.3	3.42
	50대	(3304)	15.1	36.5	48.3	3.42
	60대 이상	(4933)	12.7	35.3	52.0	3.53
지역별	서울	(3301)	19.3	29.6	51.1	3.43
	부산	(1155)	7.1	31.4	61.5	3.70
	대구	(800)	14.6	42.5	42.8	3.39
	인천	(996)	11.9	38.7	49.3	3.48
	광주	(483)	14.0	32.8	53.2	3.64
	대전	(490)	17.4	59.0	23.6	3.08
	울산	(375)	6.0	52.0	42.1	3.40
	세종	(114)	6.8	62.6	30.6	3.26
	경기	(4404)	19.9	35.4	44.7	3.33
	강원	(526)	8.8	36.9	54.2	3.58
	충북	(540)	11.8	48.3	39.9	3.32
	충남	(711)	7.8	30.2	62.0	3.69
	전북	(602)	17.6	36.9	45.5	3.37
	전남	(627)	11.7	37.6	50.7	3.52
	경북	(894)	13.9	38.2	47.9	3.57
	경남	(1116)	11.3	30.5	58.2	3.55
제주	(224)	8.7	42.3	49.0	3.47	
학력	중졸 이하	(2863)	11.0	37.6	51.4	3.54
	고졸	(5401)	13.6	35.4	50.9	3.47
	대재 이상	(9093)	17.3	35.8	46.9	3.40
직업유무	있다	(11617)	15.8	36.1	48.2	3.43
	없다	(5740)	13.9	35.8	50.4	3.47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16.5	36.5	47.0	3.40
	자영업자	(3084)	15.7	35.5	48.8	3.45
	무급가족종사자	(538)	13.6	35.3	51.0	3.53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16.8	37.1	46.1	3.38
	임시/일용근로자	(1395)	15.2	34.0	50.8	3.49
건강상태	좋음	(10989)	15.9	35.3	48.8	3.42
	보통	(5051)	14.3	38.2	47.5	3.46
	나쁨	(1317)	12.2	33.2	54.6	3.59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5.7	35.0	49.3	3.43
	200만원 미만	(4187)	11.9	37.2	50.9	3.53
	200~300만원 미만	(4397)	15.3	36.9	47.8	3.42
	300~400만원 미만	(2925)	16.4	37.1	46.5	3.40
	400만원 이상	(1697)	19.1	31.0	50.0	3.42
혼인상태	미혼	(5170)	16.6	35.9	47.4	3.40
	기혼	(10451)	15.1	36.0	48.9	3.45
	사별/이혼/별거	(1736)	11.0	35.8	53.2	3.55
정치성향	진보(1~4)	(4787)	18.1	34.1	47.7	3.40
	중도(5~6)	(5920)	14.8	35.8	49.4	3.47
	보수(7~10)	(6650)	13.2	37.5	49.3	3.46
가구원수	1인	(1936)	13.0	36.6	50.5	3.49
	2인 이상	(15421)	15.4	35.9	48.7	3.44
주거형태	자가	(14022)	14.9	36.4	48.7	3.45
	전세	(2209)	17.2	33.8	49.0	3.40
	월세/사글세/무상	(1126)	13.8	35.4	50.8	3.49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12.4	35.8	51.8	3.52
	아파트	(8442)	16.5	36.0	47.4	3.41
	연립/다세대/기타	(3130)	16.4	36.1	47.5	3.41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8.4	35.8	55.7	3.64
	비해당	(16899)	15.3	36.0	48.7	3.44
다문화가구	해당	(100)	16.9	30.3	52.8	3.42
	비해당	(17257)	15.1	36.0	48.9	3.45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9.4	35.8	54.8	3.67
	200만원 미만	(2096)	10.0	37.3	52.6	3.57
	200~300만원 미만	(2038)	13.3	35.2	51.5	3.51
	300~400만원 미만	(2908)	14.5	35.9	49.6	3.46
	400~500만원 미만	(3072)	16.5	32.9	50.6	3.43
	500~600만원 미만	(3149)	16.2	38.6	45.2	3.38
	600만원 이상	(3941)	17.6	36.0	46.5	3.39

## 9 코로나로 인해 나의 인생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 가. 전체 분석

‘코로나로 인해 나의 인생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동의한다’ 41.6%, ‘보통이다’ 40.0%, ‘동의하지 않는다’ 18.3%로 나타났다. 동의 정도에 대한 평균은 3.27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코로나로 인해 나의 인생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29점)가 여자(3.26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3.31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3.20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충남(3.63점), 부산(3.61점), 경남(3.60점) 순으로 높고, 전남(2.73점)이 가장 낮았다.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 대재 이상(3.29점), 직업 없음(3.29점), 미혼(3.32점), 기초생활수급가구(3.35점), 2인 이상 가구(3.28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7-11] 코로나로 인해 나의 인생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전체		(17357)	18.3	40.0	41.6	3.27
성별	남자	(8615)	17.9	39.9	42.1	3.29
	여자	(8742)	18.7	40.1	41.1	3.26
연령별	15~19	(871)	14.4	39.5	46.0	3.39
	20대	(2550)	17.5	38.7	43.8	3.31
	30대	(2576)	18.7	39.2	42.1	3.27
	40대	(3123)	17.4	39.5	43.2	3.31
	50대	(3304)	17.7	40.1	42.2	3.29
	60대 이상	(4933)	20.3	41.5	38.2	3.20
지역별	서울	(3301)	18.2	38.3	43.5	3.30
	부산	(1155)	9.4	30.0	60.6	3.61
	대구	(800)	28.5	38.1	33.4	3.09
	인천	(996)	9.5	45.8	44.7	3.40
	광주	(483)	30.6	31.6	37.8	3.15
	대전	(490)	19.6	60.3	20.2	2.96
	울산	(375)	9.0	43.2	47.8	3.42
	세종	(114)	14.5	59.2	26.3	3.13
	경기	(4404)	20.9	41.1	38.0	3.22
	강원	(526)	9.2	45.8	45.0	3.42
	충북	(540)	21.8	49.5	28.8	3.04
	충남	(711)	8.8	30.2	61.0	3.63
	전북	(602)	31.1	37.1	31.9	2.97
	전남	(627)	34.8	40.6	24.6	2.73
	경북	(894)	23.9	43.5	32.6	3.10
	경남	(1116)	6.7	35.4	57.8	3.60
제주	(224)	7.2	46.2	46.6	3.39	
학력	중졸 이하	(2863)	20.1	41.2	38.7	3.20
	고졸	(5401)	17.9	40.3	41.7	3.28
	대재 이상	(9093)	18.0	39.5	42.5	3.29
직업유무	있다	(11617)	18.7	40.2	41.1	3.26
	없다	(5740)	17.7	39.7	42.6	3.29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19.2	39.5	41.3	3.25
	자영업자	(3084)	19.0	40.2	40.8	3.26
	무급가족종사자	(538)	23.3	44.0	32.7	3.11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19.1	39.9	41.0	3.24
	임시/일용근로자	(1395)	19.9	37.7	42.4	3.30
건강상태	좋음	(10989)	18.3	39.5	42.2	3.28
	보통	(5051)	17.2	41.6	41.3	3.29
	나쁨	(1317)	23.4	38.4	38.2	3.16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7.4	40.4	42.2	3.29
	200만원 미만	(4187)	19.0	40.3	40.7	3.26
	200~300만원 미만	(4397)	18.2	40.7	41.1	3.27
	300~400만원 미만	(2925)	18.8	39.1	42.1	3.27
	400만원 이상	(1697)	18.7	38.5	42.9	3.27
혼인상태	미혼	(5170)	17.1	39.3	43.5	3.32
	기혼	(10451)	18.9	40.1	41.0	3.26
	사별/이혼/별거	(1736)	18.4	41.7	39.8	3.24
정치성향	진보(1~4)	(4787)	19.6	36.6	43.8	3.28
	중도(5~6)	(5920)	18.5	41.2	40.3	3.25
	보수(7~10)	(6650)	17.3	41.4	41.3	3.28
가구원수	1인	(1936)	20.3	39.7	40.1	3.22
	2인 이상	(15421)	18.1	40.1	41.8	3.28
주거형태	자가	(14022)	18.9	40.2	40.8	3.25
	전세	(2209)	16.7	38.4	44.9	3.35
	월세/사글세/무상	(1126)	14.5	40.5	45.0	3.37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17.9	41.3	40.8	3.24
	아파트	(8442)	18.3	38.8	42.9	3.30
	연립/다세대/기타	(3130)	19.3	40.9	39.8	3.25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13.5	40.9	45.6	3.35
	비해당	(16899)	18.5	40.0	41.5	3.27
다문화가구	해당	(100)	19.5	36.9	43.6	3.27
	비해당	(17257)	18.3	40.1	41.6	3.27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9.3	39.6	51.1	3.58
	200만원 미만	(2096)	21.1	40.5	38.4	3.20
	200~300만원 미만	(2038)	17.4	39.6	43.0	3.30
	300~400만원 미만	(2908)	16.8	39.8	43.4	3.31
	400~500만원 미만	(3072)	16.6	39.1	44.3	3.34
	500~600만원 미만	(3149)	20.5	38.2	41.3	3.24
	600만원 이상	(3941)	18.5	42.4	39.1	3.23

## 10 이주노동자나 외국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가. 전체 분석

‘이주노동자나 외국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동의한다’ 43.7%, ‘보통이다’ 40.6%, ‘동의하지 않는다’ 15.7%로 나타났다. 동의 정도에 대한 평균은 3.36점이다.

### 나. 특성별 분석

‘이주노동자나 외국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3.36점)와 여자(3.35점)가 비슷했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3.39점)가 가장 높고, 40대(3.33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충남(3.55점), 경남(3.47점), 인천(3.46점) 순으로 높고, 세종(3.01점)이 가장 낮았다.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 고졸(3.38점), 월평균 개인소득 400만원 이상(3.40점), 사별/이혼/별거(3.39점), 기초생활수급가구(3.42점), 1인 가구(3.40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7-12] 이주노동자나 외국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전체		(17357)	15.7	40.6	43.7	3.36
성별	남자	(8615)	15.2	41.2	43.6	3.36
	여자	(8742)	16.2	40.0	43.8	3.35
연령별	15~19	(871)	11.9	43.9	44.2	3.39
	20대	(2550)	15.7	41.4	42.9	3.35
	30대	(2576)	16.8	40.1	43.2	3.34
	40대	(3123)	16.4	41.5	42.2	3.33
	50대	(3304)	15.3	41.3	43.4	3.35
	60대 이상	(4933)	15.6	38.8	45.6	3.38
지역별	서울	(3301)	16.8	34.2	49.1	3.43
	부산	(1155)	12.8	35.0	52.2	3.45
	대구	(800)	17.1	43.9	39.0	3.33
	인천	(996)	11.6	37.7	50.7	3.46
	광주	(483)	20.0	42.2	37.9	3.31
	대전	(490)	21.1	56.2	22.7	3.01
	울산	(375)	10.7	42.7	46.6	3.38
	세종	(114)	22.1	54.2	23.6	3.01
	경기	(4404)	17.0	46.0	37.0	3.26
	강원	(526)	13.6	41.5	44.9	3.37
	충북	(540)	11.1	51.5	37.3	3.28
	충남	(711)	11.5	30.7	57.7	3.55
	전북	(602)	24.1	34.4	41.4	3.26
	전남	(627)	14.0	44.4	41.5	3.36
	경북	(894)	17.6	39.8	42.6	3.43
	경남	(1116)	11.4	34.4	54.3	3.47
제주	(224)	10.4	52.3	37.3	3.24	
학력	중졸 이하	(2863)	15.5	40.1	44.4	3.36
	고졸	(5401)	14.7	40.3	45.0	3.38
	대재 이상	(9093)	16.3	40.9	42.8	3.34
직업유무	있다	(11617)	15.8	41.0	43.2	3.35
	없다	(5740)	15.3	39.8	44.8	3.37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16.0	41.6	42.4	3.33
	자영업자	(3084)	16.4	40.4	43.2	3.34
	무급가족종사자	(538)	18.2	39.9	41.9	3.35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15.7	42.8	41.5	3.32
	임시/일용근로자	(1395)	17.0	36.7	46.3	3.39
건강상태	좋음	(10989)	15.8	40.7	43.5	3.34
	보통	(5051)	14.6	41.9	43.6	3.38
	나쁨	(1317)	18.7	35.0	46.3	3.37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15.2	40.2	44.6	3.36
	200만원 미만	(4187)	16.4	40.4	43.2	3.35
	200~300만원 미만	(4397)	14.7	42.1	43.1	3.35
	300~400만원 미만	(2925)	15.9	41.9	42.3	3.33
	400만원 이상	(1697)	17.2	35.8	47.0	3.40
혼인상태	미혼	(5170)	15.2	41.8	43.0	3.35
	기혼	(10451)	16.2	39.9	43.9	3.35
	사별/이혼/별거	(1736)	14.2	40.7	45.2	3.39
정치성향	진보(1~4)	(4787)	17.5	38.6	43.9	3.34
	중도(5~6)	(5920)	15.5	40.6	43.9	3.37
	보수(7~10)	(6650)	14.5	42.0	43.4	3.35
가구원수	1인	(1936)	13.5	40.9	45.6	3.40
	2인 이상	(15421)	16.0	40.5	43.5	3.35
주거형태	자가	(14022)	15.8	40.6	43.6	3.35
	전세	(2209)	16.0	39.3	44.7	3.37
	월세/사글세/무상	(1126)	13.7	42.7	43.5	3.38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15.0	41.2	43.8	3.36
	아파트	(8442)	16.4	40.6	43.0	3.34
	연립/다세대/기타	(3130)	14.8	39.5	45.7	3.38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13.6	37.4	48.9	3.42
	비해당	(16899)	15.7	40.7	43.6	3.35
다문화가구	해당	(100)	27.9	39.6	32.5	3.01
	비해당	(17257)	15.6	40.6	43.8	3.36



구분		n	미동의(%)	보통(%)	동의함(%)	Mean(1~5)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10.7	34.4	54.9	3.67
	200만원 미만	(2096)	16.1	39.7	44.2	3.35
	200~300만원 미만	(2038)	14.5	40.3	45.2	3.40
	300~400만원 미만	(2908)	15.6	40.7	43.7	3.36
	400~500만원 미만	(3072)	14.8	40.7	44.5	3.36
	500~600만원 미만	(3149)	15.8	39.9	44.3	3.36
	600만원 이상	(3941)	16.9	41.8	41.3	3.31

## 제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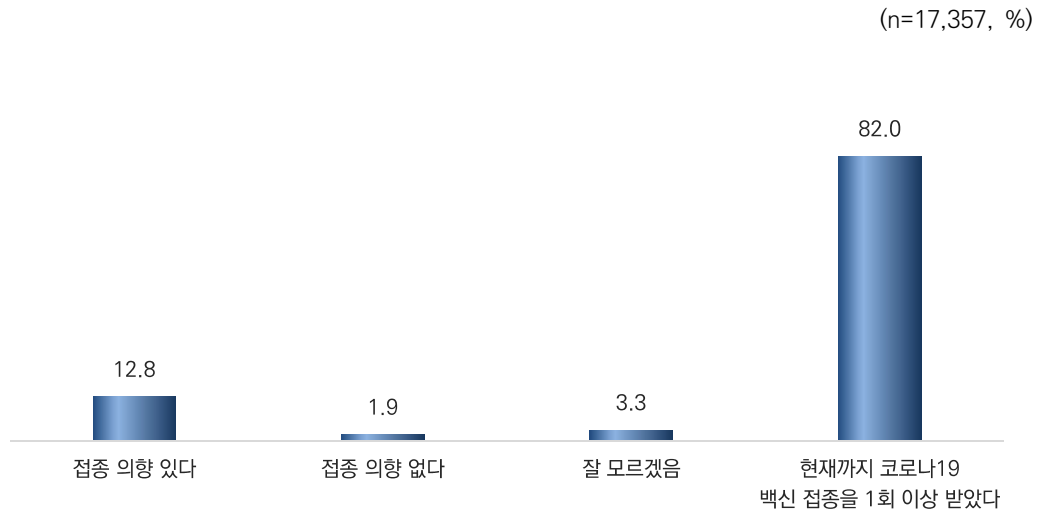
#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및 향후 접종 의향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및 향후 접종 의향

### 가. 전체 분석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및 향후 백신 접종 의향을 묻은 결과 '1회 이상 접종했다' 82.0%, '접종 의향 있다' 12.8%, '접종 의향 없다' 1.9%로 나타났다. 참고로, 현장조사 시작일인 2021년 8월 21일 0시 기준 1차 접종 완료자는 685,275명(만 15세 이상 인구 기준 1.5%), 현장조사 종료일인 10월 27일 0시 기준 1차 접종 완료자는 40,891,088명(만 15세 이상 인구 기준 89.9%)이다.



[그림 7-4]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및 향후 접종 의향

## 나. 특성별 분석

1회 이상 접종 경험자는 여자(83.2%)가 남자(80.7%)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97.1%)이 가장 높고, 15~29세(27.3%)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92.5%), 전남(91.0%), 충북(90.0%) 순으로 높고, 울산(65.5%)이 가장 낮았다.

[표 7-13]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및 향후 접종 의향

구분		n	접종 의향 있다	접종 의향 없다	잘 모르겠음	현재까지 1회 이상 접종받았다
전체		(17357)	12.8	1.9	3.3	82.0
성별	남자	(8615)	13.9	2.1	3.3	80.7
	여자	(8742)	11.8	1.8	3.2	83.2
연령별	15~19	(871)	49.2	5.7	17.8	27.3
	20대	(2550)	28.9	4.3	6.0	60.8
	30대	(2576)	20.1	2.7	3.8	73.4
	40대	(3123)	12.2	1.4	2.3	84.1
	50대	(3304)	2.9	0.8	1.5	94.8
	60대 이상	(4933)	1.3	0.8	0.8	97.1
지역별	서울	(3301)	14.8	2.1	3.8	79.3
	부산	(1155)	17.5	1.4	3.1	78.1
	대구	(800)	6.8	1.8	3.0	88.4
	인천	(996)	7.9	3.6	3.6	84.9
	광주	(483)	8.7	0.5	2.5	88.2
	대전	(490)	9.8	2.8	0.8	86.6
	울산	(375)	26.2	1.8	6.5	65.5
	세종	(114)	4.2	1.4	1.9	92.5
	경기	(4404)	16.3	2.3	3.9	77.5
	강원	(526)	11.2	1.0	2.1	85.7
	충북	(540)	7.8	1.1	1.2	90.0
	충남	(711)	10.8	1.6	1.3	86.3
	전북	(602)	6.5	3.8	2.1	87.5
	전남	(627)	6.9	0.5	1.7	91.0
	경북	(894)	8.6	1.5	3.8	86.1
	경남	(1116)	12.2	0.5	3.3	84.0
	제주	(224)	9.2	2.9	4.4	83.5

구분		n	접종 의향 있다	접종 의향 없다	잘 모르겠음	현재까지 1회 이상 접종받았다
학력	중졸 이하	(2863)	13.4	2.1	5.0	79.5
	고졸	(5401)	5.9	0.9	1.5	91.7
	대재 이상	(9093)	16.7	2.5	3.8	77.0
직업유무	있다	(11617)	10.2	1.5	2.4	85.9
	없다	(5740)	18.1	2.9	5.1	74.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7488)	13.0	1.9	2.8	82.3
	자영업자	(3084)	5.5	0.9	1.3	92.3
	무급가족종사자	(538)	3.8	1.0	1.7	93.4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093)	13.2	1.9	2.7	82.2
	임시/일용근로자	(1395)	12.4	1.6	3.2	82.8
건강상태	좋음	(10989)	16.8	2.0	3.2	78.1
	보통	(5051)	6.6	1.6	3.4	88.5
	나쁨	(1317)	3.9	2.7	3.5	89.8
개인소득	소득 없음	(4150)	21.8	2.9	5.6	69.8
	200만원 미만	(4187)	7.4	1.8	2.8	87.9
	200~300만원 미만	(4397)	12.5	1.8	2.5	83.2
	300~400만원 미만	(2925)	10.5	1.6	2.3	85.6
	400만원 이상	(1697)	9.0	1.0	2.1	87.8
혼인상태	미혼	(5170)	29.0	4.1	7.3	59.6
	기혼	(10451)	6.3	1.0	1.7	91.0
	사별/이혼/별거	(1736)	3.8	1.0	1.0	94.2
정치성향	진보(1~4)	(4787)	17.7	2.3	3.3	3.34
	중도(5~6)	(5920)	15.8	2.1	4.2	3.37
	보수(7~10)	(6650)	6.7	1.6	2.4	3.35
가구원수	1인	(1936)	10.7	1.9	2.4	3.40
	2인 이상	(15421)	13.1	2.0	3.4	3.35
주거형태	자가	(14022)	11.8	1.6	3.0	3.35
	전세	(2209)	17.9	2.9	4.7	3.37
	월세/사글세/무상	(1126)	16.1	4.0	3.9	3.38
주택유형	단독주택	(5785)	9.9	1.6	3.0	3.36
	아파트	(8442)	13.9	2.2	3.4	3.34
	연립/다세대/기타	(3130)	15.4	1.9	3.3	3.38

구분		n	접종 의향 있다	접종 의향 없다	잘 모르겠음	현재까지 1회 이상 접종받았다
기초생활 수급	해당	(458)	8.4	4.0	3.5	3.42
	비해당	(16899)	12.9	1.9	3.2	3.35
다문화가구	해당	(100)	8.0	5.1	6.3	3.01
	비해당	(17257)	12.8	1.9	3.2	3.36
가구소득	소득 없음	(154)	11.5	5.8	5.0	3.67
	200만원 미만	(2096)	4.7	1.9	1.8	3.35
	200~300만원 미만	(2038)	10.8	1.7	3.9	3.40
	300~400만원 미만	(2908)	11.8	2.1	2.7	3.36
	400~500만원 미만	(3072)	16.5	1.2	3.3	3.36
	500~600만원 미만	(3149)	15.2	2.1	3.7	3.36
	600만원 이상	(3941)	14.2	2.2	3.6	3.31



# 제8장

결론

---





한국인의 전반적 행복감은 10점 만점 기준에 평균 6.56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는 0~10점 중 평균 6.19점, 어제의 행복감은 평균 6.35점, 어제 미소 및 웃음 정도는 평균 6.17점으로 전반적으로 행복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10점 만점 기준으로 5년 전 삶의 만족도가 평균 6.22점인데 5년 후 삶의 만족도는 평균 6.54점으로 미래 삶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있었다. 2018~2020년 사이에 전화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세계행복보고서」의 우리나라 평균 점수 5.85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유선조사와 방문조사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면 본 연구의 결괏값이 타당성과 신뢰도가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행복감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취약집단은 주로 60대 이상, 사별/이혼/별거, 월세/사글세/무상 거주, 단독주택 거주, 1인 가구, 중졸 이하, 무직, 무급가족종사자, 임시/일용근로자, 저소득 가구 및 개인, 건강 상태가 나쁜 특성을 갖는 집단으로 파악되었다.

사회적 가치관, 집단 신뢰도, 정치 및 사회 활동, 친구 수 등 다양한 사회심리적 변인과 행복감은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98.3%), 이웃(74.5%) 순으로 신뢰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나와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19.4%), 처음 만난 낯선 사람(13.0%), 다른 국적의 사람(11.3%) 등을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은 낮았다. 대체로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가족 및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정치 및 사회 현안 참여 경험과 더불어 단체 활동 및 참여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건강과 행복은 다른 항목과 대비하여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는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비율’과 ‘좋아서 자유롭게 만나는 관계의 비율’ 항목과는 양(+)의 상관관계, ‘혼자 있는 시간 비율’과 ‘필요나 의무로 인한 관계 비율’ 항목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상 재구성 문항에서는 주로 직업 관련 일, 가정 내 활동, 개인적 친교 활동과 관련된 활동이 많았으며, 즐거움이나 평온함의 감정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제 했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활동은 직업 관련 일(43.0%), 가정 내 활동(10.3%), 개인적 친교 활동(5.1%), 음식섭취(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활동은 혼자(40.2%) 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 직장동료(28.9%), 친구(17.2%), 배우자(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20.7%), 직장동료(14.4%), 친구(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2020년 1월) 이후 응답자의 5.9%가 '일자리를 잃거나 폐업'(1.8%), '정직 또는 폐업'(1.1%), '비정규직으로 전환'(0.6%), '시간제로 변환'(1.0%), '신규 취업'(1.2%) 등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개인소득은 14.8만원, 가구소득은 28.6만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전체 응답자의 85.9%이며, 향후 접종 의향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본 기초분석 연구는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조사)를 바탕으로 조사의 개요 및 조사 데이터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조사)는 국민의 행복 수준을 밝히면서 현재 우리 사회의 특징 및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아울러, 국회 입장에서 행복 수준과 불평등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과 더불어 국가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실시의 기초 자료가 되며, 그 실효성의 판단과 평가에서도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 Abstract

---



## Descriptive Analytic Research on 2021 Koreans' Happiness Survey (1st Wav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Despite its high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Korea is known as one of the countries with a relatively low level of happiness. Nevertheless, data for rigorous research on happiness are scarce. To address this, we conducted the “Korean Happiness Survey” to ① track the level of happiness and inequality among Koreans, ② predict various social phenomena, ③ clarify various determinants that determine levels of happiness and inequality, and ④ increase the level of happiness among Koreans. In 2021, a first wav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approximately 17,000 citizens aged 15 or older. The average happiness score for Koreans in 2021 was 6.56 points out of 10. However, we also found low happiness scores in vulnerable groups, confirming that inequality is a major problem. It is necessary to suggest policies that can improve happiness through enhancing quality of life for these groups based on these findings.





## 부록

---

조사표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가구대표 조사표**

NO. 

--	--	--	--

##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조사)

###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한국인의 행복 수준을 파악하고,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국회미래연구원

◆ 아래 표는 한국갤럽 조사원이 직접 작성합니다

집계구 번호			
가 구 번 호			
가 구 위 치	(사·도)	(사·군·구)	(동·읍·면)
상세주소	① 아파트	(아파트)	(동) (호)
	② 일반주택		

가구원 번호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주민등록상 생년월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60px; height: 20px;"><tr><td style="width: 15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15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15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15px; height: 20px;"></td></tr></table> 년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60px; height: 20px;"><tr><td style="width: 15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15px; height: 20px;"></td></tr></table> 월							

- ◆ 조사 대상은 만 15세 이상 가구원입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가구원 모두가 조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가구원도 가구일반사항(SQ)에 있는 가구원 기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 조사표는 가구대표용과 가구원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조사 대상 가구원 1명당 1부씩 작성합니다.
- ◆ 가구대표 조사표는 성별, 나이 등에 상관없이 가구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가구원 1인이 작성합니다.
- ◆ 가구대표 1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은 가구원 조사표를 작성합니다.



### SQ. 가구일반사항

- ※ 가구주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의 실질적인 대표자  
(단순히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책임자)
- ※ 가구원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현재 이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면 가구원에 해당  
- 가족이라 하더라도 결혼, 군복무, 취업, 교육 때문에 함께 살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  
- 일시적 방문자나 임시 거주인, 고용인 등 비혈연 관계인 동거인은 가구원에서 제외

**SQ1** 귀댁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원의 정보를 아래 표 안에 제시된 선택지를 참고하여 번호로 말씀해 주세요.  
가구주(①)부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SQ1-1) 번호	SQ1-2) 가구주와의 관계	SQ1-3) 성별	SQ1-4) 태어난 연월		SQ1-5) 혼인상태	SQ1-6) 가구대표	SQ1-7) 조사참여여부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손자녀의 배우자 ⑨ 가구주의 조부모 ⑩ 배우자의 조부모 ⑪ 기타	① 남자 ② 여자	주민등록상 생년/월		① 미혼 (미혼모 포함) ② 기혼 (재혼 포함) ③ 사별 ④ 이혼 ⑤ 별거	① 예 ② 아니요	① 조사 참여 ② 조사 미참여 (장애, 고령) ③ 조사 미참여 (장기 부재) ④ 조사 미참여 (단순 기절) ⑤ 조사 미참여 (만 15세 미만)
			연도	월			
1							
2							
3							
4							
5							
6							
7							
8							

SQ1-8) 주거형태	SQ1-9) 주택유형	SQ1-10) 기초생활 수급자 (구. 생활보호 대상자 혹은 영세민)	SQ1-11) 다문화가정 여부	SQ1-12) 가구 형태	
① 자기집 ② 전세 (월세없음)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사글세 ⑥ 무상 (관사, 사택 등)	① 일반 단독주택 ② 다가구 단독주택 ③ 영업겸용 단독주택 ④ 아파트 ⑤ 연립주택 ⑥ 다세대주택 ⑦ 오피스텔 ⑧ 비주거용 건물 (상가, 공장 등) ⑨ 기타	① 그렇다 ②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 있다 ③ 지금도 아니고, 과거에도 수급자였던 적 없다	① 예 ② 아니요	① 모자가구 ② 부자가구 ③ 소년소녀 가장가구 ④ 조손가구 ⑤ 기타	가구주(어머니) + 만 18세 미만 미혼 자녀 가구주(아버지) + 만 18세 미만 미혼 자녀 만 18세 미만인 자가 가구주인 가구 만 65세 이상인 자가 가구주인 가구 ① ~ ④를 제외한 모든 가구



## A. 행복

- ▣ 각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표 하거나 □안에 번호 또는 숫자를 적어 주세요.
- ▣ 응답 항목 중에서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적을 것 : \_\_\_\_\_)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주세요.
- ▣ 별도의 안내가 없으면 문항별로 주된 응답 1개만 선택해 주세요.

**A1** 전반적으로 귀하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다 ← 보통 → 매우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A2**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항목	동의 정도									
	전혀 동의 안 함		보통						매우 동의함	
1) 전반적으로 볼 때, 평소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삶에서 의미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나는 대체로 내가 하는 일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있어 자유롭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A3**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항목	동의 정도						
	전혀 동의 안 함		보통			매우 동의함	
1)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의 삶의 조건들은 훌륭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나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했던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 해도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B. 정서

B1
귀하는 어제 \_\_\_\_\_ 을(를)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항목	전혀 느끼지 못함 ←					보통 →					온종일 느낌				
1) 즐거움	0	1	2	3	4	5	6	7	8	9	10				
2) 차분함	0	1	2	3	4	5	6	7	8	9	10				
3) 걱정	0	1	2	3	4	5	6	7	8	9	10				
4) 슬픔	0	1	2	3	4	5	6	7	8	9	10				
5) 우울	0	1	2	3	4	5	6	7	8	9	10				
6) 분노	0	1	2	3	4	5	6	7	8	9	10				
7) 스트레스	0	1	2	3	4	5	6	7	8	9	10				
8) 피곤	0	1	2	3	4	5	6	7	8	9	10				
9) 활력	0	1	2	3	4	5	6	7	8	9	10				
10) 외로움	0	1	2	3	4	5	6	7	8	9	10				

B2
귀하는 어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행복했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B3
귀하는 어제 얼마나 미소짓거나 웃으셨습니까?

전혀 없었다
← 보통 →
매우 많았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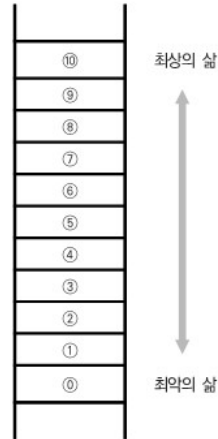
4



### C. 삶의 만족도

**C1** 맨 아래 0점부터 꼭대기 10점까지 점수가 매겨진 사다리를 상상해보십시오. 사다리의 꼭대기는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삶을 뜻하고, 맨 아래는 최악의 삶을 나타냅니다.

귀하는 현재 자신이 사다리의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숫자에 표시해 주십시오.



**C2** 5년 전 귀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만족했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C3** 5년 후 귀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 보통 → 매우 만족할 것이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C4** 귀하는 자신의 가족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1	2	3	4	5	6	7
---	---	---	---	---	---	---

비해당(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99

**C5** 귀하는 자신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	---	---	---

비해당(배우자가 없는 경우)  
 99

**C6** 귀하는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	---	---	---

비해당(자녀가 없는 경우)  
 99

**C7** 귀하는 자신의 삶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항목	만족 정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1) 생활수준	0	1	2	3	4	5	6	7	8	9	10
2) 건강	0	1	2	3	4	5	6	7	8	9	10
3) 대인 관계	0	1	2	3	4	5	6	7	8	9	10
4) 안전감	0	1	2	3	4	5	6	7	8	9	10
5) 공동체 소속감	0	1	2	3	4	5	6	7	8	9	10
6) 미래의 안정성	0	1	2	3	4	5	6	7	8	9	10
7)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	0	1	2	3	4	5	6	7	8	9	10
8) 동네 환경	0	1	2	3	4	5	6	7	8	9	10

**C8** 귀하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현재 경제활동 없음  
 99



### D. 개인 및 사회에 대한 인식

D1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항목	동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1)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부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행복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불행한 사람도 많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4) 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들은 힘든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①	②	③	④	⑤
6)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기업이나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남보다 뒤처진 사람은 제도보다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사회의 중요한 지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동성애자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데 문제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1) 비정규직 종사자와 정규직 종사자는 능력에 차이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2) 여가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일하는 것이 우선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일을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도시 개발보다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더라도 환경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더욱 안락하고, 편리하게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과학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너무 빨리 변화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18) 과학기술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로봇이 일상적으로 쓰이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로봇은 사람이 못하는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므로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D2** 귀하는 다음의 각 집단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항목	신뢰 정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1) 가족(친척 포함)	①	②	③	④
2) 이웃	①	②	③	④
3)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	①	②	③	④
4) 처음 만난 낯선 사람	①	②	③	④
5) 나와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	①	②	③	④
6) 다른 국적의 사람	①	②	③	④

**D3** 귀하는 다음의 각 단체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항목	소속된 적이 없음	소속된 적이 있으나 현재 활동하지 않음	간혹 참여	활발히 참여	매우 활발히 참여
1) 동창회, 향우회 혹은 종친회	①	②	③	④	⑤
2) 동호회, 스포츠 및 취미 단체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①	②	③	④	⑤
4) 학부모회 혹은 학교운영회	①	②	③	④	⑤
5) 종교 모임	①	②	③	④	⑤
6) 시민 혹은 지역사회 단체(반상회, 주민조직 등)	①	②	③	④	⑤
7) 자원봉사 혹은 사회복지 혹은 자선 단체	①	②	③	④	⑤
8) 교육 혹은 학술 단체	①	②	③	④	⑤
9) 환경 단체 혹은 여성단체	①	②	③	④	⑤
10) 정당	①	②	③	④	⑤
11) 노동조합, 직장협의회,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①	②	③	④	⑤



**D4** 귀하는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항목	동의 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보통			매우 동의함
1)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있으면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D5**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귀하는 다음 중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 먼저 연락하고 싶은 순서대로 두 분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해당하는 보기 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항목	첫 번째	두 번째
1)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2)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 보기 〉

(01) 배우자	(11) 본인의 여자형제	(21) 성직자
(02) 본인의 아버지	(12) 배우자의 남자 형제	(22) 고용주
(03) 본인의 어머니	(13) 배우자의 여자 형제	(23) 정부 또는 공공서비스기관
(04) 배우자의 아버지	(14) 기타 혈연관계의 친척	(24) 은행 또는 여타 금융기관
(05) 배우자의 어머니	(15) 기타 혈연관계가 아닌 친척	(25) 사채업자
(06) 딸	(16) 친한 친구	(26) 동네병원 의사 또는 가정의
(07) 아들	(17) 이웃	(27) 정신과 의사 또는 전문상담원
(08) 며느리	(18) 직장동료	(28) 자조집단 (예: 금연 동아리)
(09) 사위	(19) 파출부 또는 파트타임 인부	(29) 기타 (누구: _____)
(10) 본인의 남자형제	(20) 사회복지단체	(99) 없음

**D6** 귀하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정기적으로 참여했다      ② 비정기적으로 참여했다      ③ 참여한 적이 없다

**D7** 귀하는 지난 1년간 현금이나 물품으로 기부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정기적으로 기부했다      ② 비정기적으로 기부했다      ③ 기부한 적이 없다

**D8** 귀하는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항목	동의 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동의함
1) 나는 내성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타인을 잘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덩벙댄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차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창의적이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외향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비판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일을 철저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쉽게 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항상 신경을 쓴다	①	②	③	④	⑤

**D9** 하루 중 깨어 있는 시간을 100%라고 한다면, (1) 혼자 있는 시간과 (2)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주중과 주말로 나눠 말씀해 주십시오.

항목	주중(월-금)	주말(토-일)
1) 특정 공간에 혼자 있는 시간	(      )	(      )
2)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	(      )	(      )
총합	100%	100%

**D10**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 중 (1) 내가 좋아서 자유롭게 만나는 관계(예, 친구)와 (2) 필요나 의무로 인한 관계(예, 사회생활 관계)에 들어가는 시간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주중과 주말로 나눠 말씀해 주십시오.

항목	주중(월-금)	주말(토-일)
1) 좋아서 자유롭게 만나는 관계	(      )	(      )
2) 필요나 의무로 인한 관계	(      )	(      )
총합	100%	100%

**D11** 귀하는 본인이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하며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할 수 없음 ← 보통 → 완벽하게 할 수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D12** 우리 사회에서 다음의 각 항목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혹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 보통 →				
	매우 불평등				매우 평등
1) 교육기회	①	②	③	④	⑤
2) 취업기회	①	②	③	④	⑤
3) 법의 집행	①	②	③	④	⑤
4) 소득과 재산	①	②	③	④	⑤
5) 권력	①	②	③	④	⑤
6) 성(性) 별	①	②	③	④	⑤

**D13** '기본소득 제도'란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령, 소득수준, 노동 여부 등에 상관없이 시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정부가 계속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귀하는 우리나라에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중립	약간 찬성	매우 찬성
①	②	③	④	⑤

**D14** 귀하는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세금을 얼마나 많이 혹은 적게 납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적정하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비해당(세금 납부 경험 없음)
①	②	③	④	⑤	

**D15** 귀하는 본인이 납부했던 세금과 비교해 볼 때,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의 수준이 얼마나 높다고, 혹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적정하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비해당(세금 납부 경험 없음)
①	②	③	④	⑤	

**D16** 본인의 경제적 능력과 비슷한 납세자들과 비교하여 귀하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크다고, 혹은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약간 높다	비슷하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비해당(세금 납부 경험 없음)
①	②	③	④	⑤	

**D17** 높은 지위와 경제적 풍요를 누가 얻는 것이 바람직한가와 관련하여, 귀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과 조금이라도 더 가깝습니까?

- ① 성과를 올린 사람일수록 많이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노력한 사람일수록 많이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만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누구든 동일하게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D18** 그렇다면,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우리 사회의 현실은 다음 중 어느 것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성과를 올린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얻고 있다
- ② 노력한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얻고 있다
- ③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만큼 얻고 있다
- ④ 누구든 동일하게 얻고 있다

**D19** 귀하는 지난 한 달간 다음의 각 감정과 생각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떠오르는 대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한 번도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꽤 있었음	매우 자주 있었음
1)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져 속상함	①	②	③	④	⑤
2)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낌	①	②	③	④	⑤
3)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음	①	②	③	④	⑤
4) 성가신 생활의 문제들을 잘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
5) 삶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함	①	②	③	④	⑤
6)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느낌	①	②	③	④	⑤
7) 일이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느낌	①	②	③	④	⑤
8) 해야 하는 일을 다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됨	①	②	③	④	⑤
9) 짜증을 잘 다스릴 수 있음	①	②	③	④	⑤
10) 자신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느낌	①	②	③	④	⑤
11) 자신의 통제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화를 냄	①	②	③	④	⑤
12) 완수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함	①	②	③	④	⑤
13) 시간을 뜻대로 사용할 수 있었음	①	②	③	④	⑤
14) 어려움이 많아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낌	①	②	③	④	⑤



### E. 일상재구성

**E1** 지금까지는 귀하가 어제 하신 일들에 대해 여쭙보고자 합니다. 자정은 0시 0분으로 입력해 주세요.

1) 귀하가 어제 일어난 시간은 언제입니까?	(24시 기준) _____시 _____분
2) 귀하가 어제 잠든 시간은 언제입니까?	(24시 기준) _____시 _____분

**E2** 귀하가 어제 하루 동안 했던 일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각 시간대별로 1개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1) 낮 12시 이전	
2) 낮 12시 ~ 오후 6시	
3) 오후 6시 이후	

**E3** E2에서 언급하신 내용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2가지는 무엇입니까?

구분	중요도
E3-1) 가장 중요한 일(낮 12시 이전)	
E3-2) 가장 중요한 일(낮 12시 ~ 오후 6시)	
E3-3) 가장 중요한 일(오후 6시 이후)	

**E4** [E3] 1순위 응답과 가장 가까운 활동을 아래 보기에서 1개만 선택해 주세요.

① 수면	⑬ 가족 돌보기(아이 돌봄)
② 음식섭취	⑭ 가족원 간호/도움/교육
③ 건강관리(요양, 병·의원 방문 등)	⑮ 자원봉사
④ 위생/외모 관리	⑯ 개인적 친교 활동
⑤ 직업 관련 일(구직/창업 활동 포함)	⑰ 사회적 참여 활동(단체활동, 종교활동, 관혼상제 등)
⑥ 학습(학교 활동)	⑱ 문화/관광 활동
⑦ 학교 활동 외 학습 활동(학원 수강, 온라인 수강, 자습 등)	⑲ 미디어 시청/활용
⑧ 가정 내 활동 (요리, 주방일, 세탁, 청소, 차량관리, 공과금 처리 등)	⑳ 스포츠/레저 활동
⑨ 반려동물/식물 돌보기	㉑ 게임
⑩ 쇼핑 및 서비스 구매(매장)	㉒ 휴식
⑪ 쇼핑 및 서비스 구매(온라인)	㉓ 여가 취미활동, 교양학습
⑫ 가족과 대화	㉔ 이동

**E5** 귀하는 [E3] 1순위 응답의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활동했습니까? 직접 만남 이외에 유선·무선상의 대화 또는 활동을 포함해 해당 인물을 모두 말씀해 주세요.

① 혼자	⑥ 친구
② 배우자	⑦ 직장 동료
③ 성인이 된 자녀(18세 이상)	⑧ 직장동료 외 지인(동호회원, 이웃 등)
④ 어린 자녀 혹은 손주	⑨ 그 외 다른 사람
⑤ 가족(배우자, 자녀, 손주 제외)	

**E6** [E3] 1순위 응답 활동을 하면서 다음의 각 감정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항목	만족 정도									
	전혀 느끼지 않았다	약간 느꼈다								많이 느꼈다
1) 근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바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짜증 혹은 분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우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긴장 혹은 스트레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평온함 혹은 편안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즐거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E7** [E3] 2순위 응답과 가장 가까운 활동을 아래 보기에서 1개만 선택해 주세요.

① 수면	⑬ 가족 돌보기(아이 돌봄)
② 음식섭취	⑭ 가족원 간호/도움/교육
③ 건강관리(요양, 병원 방문 등)	⑮ 자원봉사
④ 위생/외모 관리	⑯ 개인적 친교 활동
⑤ 직업 관련 일(구직/창업 포함)	⑰ 사회적 참여 활동(단체활동, 종교활동, 관혼상제 등)
⑥ 학습(학교 활동)	⑱ 문화/관광 활동
⑦ 학교 활동 외 학습 활동(학원 수강, 온라인 수강, 자습 등)	⑲ 미디어 시청/활용
⑧ 가정 내 활동 (요리, 주방일, 세탁, 청소, 차량관리, 공과금 처리 등)	⑳ 스포츠/레저 활동
⑨ 반려동물/식물 돌보기	㉑ 게임
⑩ 쇼핑 및 서비스 구매(매장)	㉒ 휴식
⑪ 쇼핑 및 서비스 구매(온라인)	㉓ 여가 취미활동, 교양학습
⑫ 가족과 대화	㉔ 이동

**E8** 귀하는 [E3] 2순위 응답의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활동했습니까? 직접 만남 이외에 유선·무선상의 대화 또는 활동을 포함해 해당 인물을 모두 말씀해 주세요.

① 혼자	⑥ 친구
② 배우자	⑦ 직장 동료
③ 성인이 된 자녀(18세 이상)	⑧ 직장동료 외 지인(동호회원, 이웃 등)
④ 어린 자녀 혹은 손주	⑨ 그 외 다른 사람
⑤ 가족(배우자, 자녀, 손주 제외)	

**E9** [E3] 2순위 응답] 활동을 하면서 다음의 각 감정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항목	만족 정도									
	← 약간 느꼈다 →									
	전혀 느끼지 않았다									많이 느꼈다
1) 근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바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짜증 혹은 분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우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긴장 혹은 스트레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평온함 혹은 편안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즐거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DQ7** [DQ3 = ① 응답자만] 귀하의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고용 계약 기간에 따라 구분합니다(상용 : 1년 이상, 임시 :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 : 1개월 미만).

- ① 임금근로자
  - ②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③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④ 무급가족 종사자
- **DQ12** 함으로 이동

**DQ8** [DQ7 = ① 응답자만] 귀하는 다음 중 어떤 종류의 임금근로자입니까?

- ① 상용근로자
- ② 임시근로자
- ③ 일용근로자

※ 상용직이란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임시직은 근로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근로 계약 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단,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  
 ※ 일용직은 근로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 **응답 후** **DQ10** 함으로 이동

**DQ9** [DQ3 = ② 응답자만] 그럼, 지난 일주일 동안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주된 활동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             |                  |                   |
|-------------|------------------|-------------------|
| ① 구직활동      | [⑥ 입시학원 통학       | ⑪ 심신장애            |
| ② 발령 대기     | ⑦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 ⑫ 군 입대 대기         |
| ③ 육아        | ⑧ 취업준비           | ⑬ 결혼 준비           |
| ④ 가사        | ⑨ 진학준비           | ⑭ 쉬었음             |
| ⑤ 정규교육기관 통학 | ⑩ 연로             | ⑮ 기타(적용 것: _____) |

**DQ10** 귀하는 지난 1년간 일터(아르바이트, 부업 포함) 내에서 차별을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성별·학력(학벌)·장애·연령·지역·외국인 등을 이유로 채용, 임금, 승진, 해고 등에서 부당한 처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 ① 예
  - ② 아니요
  - ③ 지난 1년 동안 일한 경험이 없음
- **DQ12** 함으로 이동

**DQ11** [DQ10 = ① 응답자만]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차별을 경험했습니까?

- |          |                   |
|----------|-------------------|
| ① 여성/남성  | ④ 장애인             |
| ② 학력(학벌) | ⑤ 출신 지역           |
| ③ 연령     | ⑥ 기타(적용 것: _____) |

**DQ12** 지난 1년간 세금 납부(공제) 전 기준 월평균 개인소득 및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DQ12-1) 개인소득 ※ 개인소득은 개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임금, 부동산 소득, 연금, 이자, 정부 보조금, 부모/친척/자녀의 용돈 등) 등의 합계입니다	(월평균 _____)
DQ12-2) 가구소득 ※ 가구소득은 전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임금, 부동산 소득, 연금, 이자, 정부 보조금, 부모/친척/자녀의 용돈 등) 등의 합계입니다	(월평균 _____)

[DQ12-1 개인소득은 DQ12-2 가구소득을 초과할 수 없음]

보기	① 소득 없음	⑦ 500만 원 이상 ~ 600만 원 미만
	② 100만 원 미만	⑧ 600만 원 이상 ~ 700만 원 미만
	③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⑨ 700만 원 이상 ~ 800만 원 미만
	④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⑩ 8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⑤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⑪ 9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미만
	⑥ 4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⑫ 1,000만 원 이상

**DQ13** 귀 가구가 한 달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달 평균 \_\_\_\_\_만원

**DQ14** 평소 귀하의 건강이 얼마나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①	②	③	④	⑤

**DQ15** 지난 2주 동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항목	전혀 없음	일주일 미만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1) 초조함과 불안함	①	②	③	④
2) 걱정을 멈추거나 통제할 수 없음	①	②	③	④
3) 우울감 또는 절망감	①	②	③	④
4)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①	②	③	④
5) 외로움	①	②	③	④

**DQ16** 귀하는 만성질환이 있으십니까?

① 없다                                      ②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투병 투약하고 있다  
 ③ 3개월 미만 투병 투약하고 있다      ④ 6개월 이상 투병 투약하고 있다



**C03**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동의함
1) 지난 7월에 변경된 코로나 대응 단계에 따른 행동 지침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백신에 대해 얻은 정보가 사실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3)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코로나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게 잘못된 책임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은 자신의 동선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코로나로 인해 나의 인생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10) 이주노동자나 외국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C04** 귀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았다면 향후 백신 접종을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① 접종 의향 있다  
 ② 접종 의향 없다  
 ③ 잘 모르겠음  
 ④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1회 이상 받았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사 후 기록표			
응답자 이름			
응답자 연락처	① 집          ② 휴대전화          ③ 직장 (          ) - (          ) - (          ) <small>☞ 전화번호는 추후 자료 확인을 위한 목적이며, 절대로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small>		
조사표 작성 방법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 기입식		
총 방문(접촉) 횟수	_____ 회		
조사 이해도	① 상	② 중	③ 하
조사 협조도	① 상	② 중	③ 하
답례품 선호도	① 상	② 중	③ 하

자료 검증 기록표			
조사원	성명		
	ID		
	1차(현장) 에디팅	① 완료          ② 미완료	(서명)
실사 감독원	성명		
	2차 에디팅	① 완료          ② 미완료	(서명)
자료 검증원	성명		
	ID		
	검증 여부	① 완료          ② 미완료	(서명)



##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1차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

인 쇄	2021년 12월 27일
발 행	2021년 12월 31일
발 행 인	김 현 곤
발 행 처	국회미래연구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2층 222호
전 화	02)786-2190
팩 스	02)786-3977
홈페이지	<a href="http://www.nafi.re.kr">www.nafi.re.kr</a>
인 쇄 처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

©2021 국회미래연구원

ISBN 979-11-90858-79-3 (95300)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